

연구보고 2015-33

한국아동패널 2015

이정림 김길숙 송신영 이예진 김진미 김소아 김신경

머 리 말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 전국에서 태어난 2,150명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아동의 성장과 제반 육아 환경에 관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연구 착수 당시 신생아였던 패널은 영아기와 유아기를 거쳐 금년에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며 학령기에 들어섰다. 이에, 2015년 한국아동패널 연구에서는 형식적 교육을 시작하는 패널 아동의 초등학교 교육기관에 대한 내용 및 기관의 변화에 따른 아동의 적응 및 발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또한, 올해는 지난 2년간 진행되어 왔던 아토피, 천식과 같은 알레르기 질환 등에 관한 건강 관련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패널 아동이 전국의 16개 거점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알레르기 질환 및 각종 건강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검사를 시행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먼저 한국아동패널 2015년도의 일련의 사업 중 앞으로 초등학교 6년의 시간에 걸쳐 종단적으로 추적 조사 되어야 할 내용을 분류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을 포함한 전반적인 조사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다음으로 7차년도 자료에 대한 기초분석 결과와 1차~7차년도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유아기 주요 변인 추이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아동의 성장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추적하였으며, 아동을 둘러싼 부모, 가정, 기관, 육아지원 정책과 같은 제 육아환경의 특성을 파악하여 향후 육아정책 설계에 유의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한국아동패널’ 연구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주신 패널 가족분들과 교사분들, 도움을 주신 관련분야 전문가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 연구가 한국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주요한 지침 제공 및 이를 위한 육아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2015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우남희**

차 례

요약	1
I. 서론	1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2. 연구내용	17
3. 연구방법	46
4. 국제 패널 연구 동향	50
II. 8차년도(2015) 패널 연구 사업 보고	54
1. 8차년도 조사·연구의 특징	54
2. 8차년도 조사 진행 절차	69
3. 조사 성공률 및 표본 유지율	75
4. 자료 확산 및 연구 심화	78
III. 7차년도(2014) 조사결과 기초 분석	83
1. 7차년도 조사의 특징 및 개요	83
2. 7차 조사 참여 가구의 일반적 특성	88
3. 아동 특성	93
4. 부모 특성	152
5. 가구 특성	195
6. 육아지원 기관 및 서비스 특성	218
7. 지역사회 특성	233
8. 육아 정책 특성	251
IV. 2008-2014년도 영유아기 주요 변인 추이 분석	261
1. 아동 특성	261
2. 부모 특성	275
3. 가구 특성	298
4. 육아지원 기관 및 서비스 특성	303

5. 지역사회 특성	306
6. 육아 정책 특성	309
V. 정책적 시사점	317
1. 한국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 현황	317
2. 한국 영유아의 양육환경 진단	318
3.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및 정책 수혜 현황	319
4. 향후 육아지원정책에의 시사점 및 제언	321
참고문헌	324
Abstract	327
부록	329
부록 1. 가중치 작성 및 추정	331
부록 2. 7차년도(2014) 질문지	338
부록 3. 8차년도(2015) 조사 안내문	418
부록 4. 8차년도(2015) 병원 조사 안내문	419
부록 5. 8차년도(2015) 조사 동의서	421

표 차례

〈표 I-2-1〉 연도별 조사 실시 계획	18
〈표 I-2-2〉 차수별 아동 특성 변인: 인구학적 특성	19
〈표 I-2-3〉 차수별 아동 특성 변인: 건강 특성	19
〈표 I-2-4〉 차수별 아동 특성 변인: 일상생활	21
〈표 I-2-5〉 차수별 아동 특성 변인: 사회/정서 발달	24
〈표 I-2-6〉 차수별 아동 특성 변인: 신체 발달	26
〈표 I-2-7〉 차수별 아동 특성 변인: 언어 발달	26
〈표 I-2-8〉 차수별 아동 특성 변인: 인지 발달	27
〈표 I-2-9〉 차수별 부모 특성 변인: 인구학적 특성	27
〈표 I-2-10〉 차수별 부모 특성 변인: 건강 특성	28
〈표 I-2-11〉 차수별 부모 특성 변인: 직업 특성	29
〈표 I-2-12〉 차수별 부모 특성 변인: 개인 특성	30
〈표 I-2-13〉 차수별 부모 특성 변인: 부모됨	31
〈표 I-2-14〉 차수별 부모 특성 변인: 양육 특성	32
〈표 I-2-15〉 차수별 부모 특성 변인: 지원 특성	32
〈표 I-2-16〉 차수별 가구 특성 변인: 인구학적 특성 및 건강 특성	33
〈표 I-2-17〉 차수별 가구 특성 변인: 가계 경제 요소	33
〈표 I-2-18〉 차수별 가구 특성 변인: 가정환경	34
〈표 I-2-19〉 차수별 가구 특성 변인: 물리적 특성	35
〈표 I-2-20〉 차수별 육아지원 서비스 특성 변인: 이용 관련	36
〈표 I-2-21〉 차수별 육아지원 서비스 특성 변인: 개인대리양육자	36
〈표 I-2-22〉 차수별 육아지원 서비스 특성 변인: 돌봄 및 양육 지원	37
〈표 I-2-23〉 차수별 육아지원 서비스 특성 변인: 보육/교육 기관	38
〈표 I-2-24〉 차수별 육아지원 서비스 특성 변인: 교사 특성	40
〈표 I-2-25〉 차수별 육아지원 서비스 특성 변인: 사교육/특별 활동	40
〈표 I-2-26〉 차수별 지역사회 특성 변인: 물리적 특성	41
〈표 I-2-27〉 차수별 육아지원 정책 특성 변인: 국가지원	42
〈표 I-2-28〉 차수별 육아지원 정책 특성 변인: 보육/교육 정책	43

〈표 I-2-29〉 차수별 육아지원 정책 특성 변인: 직장에서의 지원	43
〈표 I-2-30〉 차수별 학교 특성 변인	44
〈표 I-3- 1〉 한국아동패널 실사 진행 방식	47
〈표 I-4- 1〉 국가별 아동관련 종단연구	50
〈표 I-4- 2〉 국가별 주요 패널 조사	51
〈표 II-1- 1〉 권역별 원 표본 수	54
〈표 II-1- 2〉 8차년도 부모대상 설문지 구성	56
〈표 II-1- 3〉 8차년도 CAPI(주양육자용) 설문지 구성	57
〈표 II-1- 4〉 8차년도 CAPI(아동용) 설문지 구성 및 수행검사	59
〈표 II-1- 5〉 8차년도 아동행동발달 설문지 구성	61
〈표 II-1- 6〉 8차년도 건강관련 설문지 구성	62
〈표 II-1- 7〉 8차년도 교사대상 설문지 구성	63
〈표 II-1- 8〉 8차년도 병원 조사 협력 연구진	64
〈표 II-1- 9〉 8차년도 병원 조사 구성	64
〈표 II-1-10〉 아동 특성 변인 삭제 및 변경내용	66
〈표 II-1-11〉 부모 특성 변인 변경내용	67
〈표 II-1-12〉 가구 특성 변인 변경내용	67
〈표 II-2- 1〉 8차년도 자문회의 일정 및 주요 안건	70
〈표 II-2- 2〉 8차년도 예비조사 일정	71
〈표 II-2- 3〉 8차년도 조사원 교육 일정	71
〈표 II-2- 4〉 8차년도 조사원 교육 내용	71
〈표 II-2- 5〉 8차년도 질문지별 조사 일정	73
〈표 II-2- 6〉 8차년도 한국아동패널 지역별 조사원 수 및 전년 대비 동일률	74
〈표 II-3- 1〉 한국아동패널 2008~2014년 조사 참여율	75
〈표 II-3- 2〉 한국아동패널 2015년 조사별 성공률1)	77
〈표 II-3- 3〉 한국아동패널 2014년 권역별 성공률	78
〈표 II-4- 1〉 학술대회 개최	78
〈표 II-4- 2〉 통계분석 특강 개최	79
〈표 II-4- 3〉 한국아동패널 자료 활용 승인 및 사용 현황	80
〈표 II-4- 4〉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활용 논문	80
〈표 II-4- 5〉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활용 논문의 연구내용(종속변인을 기준으로) ..	81

〈표 III-1- 1〉 7차년도 본조사 질문지 구성	83
〈표 III-1- 2〉 7차년도 부모조사의 유형과 내용	86
〈표 III-1- 3〉 7차년도 아동 대상 조사 구성	87
〈표 III-1- 4〉 7차년도 기관 교사 대상 조사의 유형과 내용	88
〈표 III-2- 1〉 7차 조사 참여 아동의 일반적 특성	89
〈표 III-2- 2〉 7차 조사 참여 부모의 일반적 특성	90
〈표 III-2- 3〉 7차 조사 참여 가구의 일반적 특성	91
〈표 III-2- 4〉 7차 조사 참여 가구의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특성	93
〈표 III-3- 1〉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	94
〈표 III-3- 2〉 출생 후 6개월까지의 수유방법	95
〈표 III-3- 3〉 혼합수유 및 이유식 시작 시기	95
〈표 III-3- 4〉 가정/기관에서의 아동의 식습관: 식사 속도	96
〈표 III-3- 5〉 가정/기관에서의 아동의 식습관: 편식 정도	97
〈표 III-3- 6〉 가정/기관에서의 아동의 식습관: 식사 양	98
〈표 III-3- 7〉 가정에서의 식습관: 식사의 규칙성 및 식습관 자립도	99
〈표 III-3- 8〉 아동의 가족과의 아침식사 횟수	99
〈표 III-3- 9〉 아동의 가정에서의 간식 횟수	100
〈표 III-3-10〉 아동의 외식(배달음식 포함) 횟수	100
〈표 III-3-11〉 아동의 가족과의 식사 횟수	101
〈표 III-3-12〉 아동의 미디어 이용 정도: 컴퓨터(인터넷)	101
〈표 III-3-13〉 아동의 미디어 이용 정도: 개인 게임기(닌텐도 등)	102
〈표 III-3-14〉 아동의 미디어 이용 정도: 휴대폰, 스마트폰 등	103
〈표 III-3-15〉 아동의 미디어 이용 정도: TV	104
〈표 III-3-16〉 아동의 수면 시간	105
〈표 III-3-17〉 숙면 여부	105
〈표 III-3-18〉 아동의 기관에서의 낮잠 여부 및 정도	106
〈표 III-3-19〉 아동의 가정과 기관에서의 낮잠 시간	107
〈표 III-3-20〉 아동의 보육·교육기관 이용 시간 및 사교육 시간	108
〈표 III-3-21〉 아동의 실내·외 놀이 시간 및 주간 이용 일	109
〈표 III-3-22〉 아동의 시청각 기기·인터넷 등을 이용한 교육 및 놀이 시간과 주간 이용 일	111

〈표 III-3-23〉	아동의 기본생활 및 기타 시간	112
〈표 III-3-24〉	아동의 체중 및 신장	113
〈표 III-3-25〉	아동의 허리둘레	114
〈표 III-3-26〉	아동의 대근육 발달	115
〈표 III-3-27〉	아동의 우세 손	115
〈표 III-3-28〉	아동의 안경 착용 여부 및 착용 시기	116
〈표 III-3-29〉	아동의 사고 및 중독으로 인한 치료	117
〈표 III-3-30〉	최근 1년 아동의 질환별 진단율(중복응답)	117
〈표 III-3-31〉	아동의 입원 치료	118
〈표 III-3-32〉	아동의 한 달 간 통원 치료	118
〈표 III-3-33〉	출생 후 천식 증상 시기(중복응답)	119
〈표 III-3-34〉	최근 1년 천식 증상 및 치료 횟수	119
〈표 III-3-35〉	최근 1년 천식 진단/치료 여부	120
〈표 III-3-36〉	출생 후 알레르기 비염 증상 시기(중복응답)	120
〈표 III-3-37〉	최근 1년간 알레르기 비염 증상	121
〈표 III-3-38〉	알레르기 비염 진단 여부 및 치료 여부	121
〈표 III-3-39〉	출생 후 아토피피부염 증상 시기(중복응답)	122
〈표 III-3-40〉	아토피피부염 증상 및 진단 여부	122
〈표 III-3-41〉	아토피피부염 치료 여부 및 연고 사용 기간	123
〈표 III-3-42〉	출생 후 12개월 내 항생제 복용 여부 및 횟수	124
〈표 III-3-43〉	최근 1년 간 항생제 복용 여부 및 횟수	124
〈표 III-3-44〉	간접흡연 여부 및 횟수	125
〈표 III-3-45〉	어머니가 인식한 아동의 학업능력	127
〈표 III-3-46〉	교사가 인식한 아동의 학업능력	128
〈표 III-3-47〉	어머니가 인식한 학습준비도	129
〈표 III-3-48〉	교사가 인식한 학습준비도	130
〈표 III-3-49〉	아동의 어휘력 발달	132
〈표 III-3-50〉	아동의 조음 및 읽기 유창성	133
〈표 III-3-51〉	어머니가 인식한 아동의 전반적 발달	135
〈표 III-3-52〉	아버지가 인식한 아동의 전반적 발달	136
〈표 III-3-53〉	교사가 인식한 아동의 전반적 발달	137

〈표 III-3-54〉	아동의 자아 유능감	139
〈표 III-3-55〉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	140
〈표 III-3-56〉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141
〈표 III-3-57〉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142
〈표 III-3-58〉	아동의 또래놀이 상호작용	143
〈표 III-3-59〉	문제행동: 내재화, 외현화 및 문제행동 총점	144
〈표 III-3-60〉	문제행동: 내재화 문제행동 하위요인	145
〈표 III-3-61〉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 하위요인, 수면 및 기타 문제	146
〈표 III-3-62〉	아동의 문제행동: DSM방식 척도	147
〈표 III-3-63〉	아동이 기관에서 선호하는 놀이 영역	148
〈표 III-3-64〉	어머니/교사가 인식한 아동의 기관 선호도	149
〈표 III-3-65〉	어머니/교사가 인식한 아동의 교사 선호 정도	150
〈표 III-4 1〉	부모의 연령 및 학력	152
〈표 III-4 2〉	부모의 결혼 상태 및 기간	152
〈표 III-4 3〉	아동과의 동거 여부 및 이유	153
〈표 III-4 4〉	부모의 1·2급 장애 유무	153
〈표 III-4 5〉	부모의 음주 실태	154
〈표 III-4 6〉	흡연	154
〈표 III-4 7〉	부모의 취/학업 상태	154
〈표 III-4 8〉	부모의 재직 상태 및 직장 변동 여부	155
〈표 III-4 9〉	부모의 종사상 지위	156
〈표 III-4-10〉	부모의 직업군	156
〈표 III-4-11〉	어머니 근무일 및 시간	157
〈표 III-4-12〉	어머니의 직무만족도	158
〈표 III-4-13〉	부모의 우울	159
〈표 III-4-14〉	부모의 자아존중감	160
〈표 III-4-15〉	부모의 행복감	160
〈표 III-4-16〉	부모의 일상적 스트레스	161
〈표 III-4-17〉	성역할 가치관 1 : 자녀가 어릴 때는 어머니가 집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162
〈표 III-4-18〉	성역할 가치관 2 :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여성 본연의 모습은	

	가정에서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다	163
〈표 III-4-19〉	성역할 가치관 3 : 취업할 한 어머니도 전업 주부 어머니만큼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	164
〈표 III-4-20〉	모의 취업과 자녀양육 4 : 아버지도 전업 주부 어머니만큼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	165
〈표 III-4-21〉	성역할 가치관 5 : 여성이 취업할 경우 남성과 여성은 가사와 양육에 대해 동등한 정도의 책임을 나누어져야 한다	166
〈표 III-4-22〉	모의 취업과 자녀양육 6 : 여성이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남성과 여성 은 가사와 양육에 대해 동등한 정도의 책임을 나누어져야 한다	167
〈표 III-4-23〉	부모의 결혼만족도	168
〈표 III-4-24〉	부모의 부부갈등	169
〈표 III-4-25〉	후속출산 계획 여부	170
〈표 III-4-26〉	후속출산 비계획 이유	170
〈표 III-4-27〉	후속출산 계획 자녀 수	171
〈표 III-4-28〉	이상 자녀수	172
〈표 III-4-29〉	자녀 기대성별	172
〈표 III-4-30〉	부모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구성	173
〈표 III-4-31〉	부모의 양육효능감	174
〈표 III-4-32〉	부모의 양육행동	176
〈표 III-4-33〉	모-자녀 상호작용 1: 책 읽기 및 이야기 해주기	177
〈표 III-4-34〉	모-자녀 상호작용 2: 노래 부르기 및 미술/만들기 도와주기	178
〈표 III-4-35〉	모-자녀 상호작용 3: 퍼즐/게임 및 조립용 완구	179
〈표 III-4-36〉	모-자녀 상호작용 4: 과학놀이 및 운동하기	180
〈표 III-4-37〉	모-자녀 상호작용 5: 집안일 함께하기	181
〈표 III-4-38〉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182
〈표 III-4-39〉	부모의 양육 분담	184
〈표 III-4-40〉	부모의 공동 양육: 어머니 응답	185
〈표 III-4-41〉	부모의 공동 양육: 아버지 응답	186
〈표 III-4-42〉	사회적 지원 인원	187
〈표 III-4-43〉	아동 친가의 사회적 지원 정도	188
〈표 III-4-44〉	아동 외가의 사회적 지원 정도	189

〈표 III-4-45〉 어머니 친구 및 동료의 사회적 지원 정도	190
〈표 III-4-46〉 이웃의 사회적 지원 정도	191
〈표 III-5- 1〉 가구 구성 및 구성원 수	195
〈표 III-5- 2〉 월평균 소득	196
〈표 III-5- 3〉 월평균 지출	196
〈표 III-5- 4〉 가구 자산	196
〈표 III-5- 5〉 부채 여부	197
〈표 III-5- 6〉 가구 부채 및 월상환금	197
〈표 III-5- 7〉 사회보장 지원	197
〈표 III-5- 8〉 리모델링 여부	198
〈표 III-5- 9〉 리모델링 시기	198
〈표 III-5-10〉 리모델링 종류	198
〈표 III-5-11〉 벽이나 천장에 습기 얼룩진 모양 여부와 정도	199
〈표 III-5-12〉 눈에 보이는 곰팡이 여부	199
〈표 III-5-13〉 눈에 보이는 곰팡이 정도	200
〈표 III-5-14〉 눈에 보이는 곰팡이 발생 시기	200
〈표 III-5-15〉 곰팡이 냄새 정도	201
〈표 III-5-16〉 물이 새거나 젖어있는 곳의 정도	201
〈표 III-5-17〉 환기 횟수 및 시간	201
〈표 III-5-18〉 공기 청정기 사용 여부	202
〈표 III-5-19〉 공기 청정기 사용 공간	202
〈표 III-5-20〉 조리 시 환풍기 사용 빈도	203
〈표 III-5-21〉 아동의 흡연 노출 여부 및 횟수	204
〈표 III-5-22〉 집안 흡연자들의 흡연 여부	205
〈표 III-5-23〉 HOME: 가정환경 문항 수 및 중위수	205
〈표 III-5-24〉 HOME: 영역별 비교	206
〈표 III-5-25〉 HOME: 가정환경 총점	207
〈표 III-5-26〉 HOME: 학습자료	208
〈표 III-5-27〉 HOME: 언어자극	209
〈표 III-5-28〉 HOME: 물리적 환경	210
〈표 III-5-29〉 HOME: 반응성	211

〈표 III-5-30〉	HOME: 학습자극	211
〈표 III-5-31〉	HOME: 모방학습	212
〈표 III-5-32〉	HOME: 다양성	213
〈표 III-5-33〉	HOME: 수용성	214
〈표 III-5-34〉	어머니가 응답한 가족 상호작용	215
〈표 III-5-35〉	아버지가 응답한 가족 상호작용	217
〈표 III-6- 1〉	교사가 근무하는 기관 유형	219
〈표 III-6- 2〉	육아지원기관 시설유형	220
〈표 III-6- 3〉	기관 평가 여부	220
〈표 III-6- 4〉	육아지원기관의 학급(반) 및 재원 아동 수	221
〈표 III-6- 5〉	육아지원기관의 학급 형태 및 구성	222
〈표 III-6- 6〉	학급 규모	223
〈표 III-6- 7〉	학급 아동 수에 대한 교사의 인식	223
〈표 III-6- 8〉	적합한 아동 비율에 대한 교사의 인식	224
〈표 III-6- 9〉	교실 환경, 공간의 적절성	225
〈표 III-6-10〉	기관 내 공간 특성	225
〈표 III-6-11〉	교사의 성별 및 연령	226
〈표 III-6-12〉	교사의 자격(중복응답)	226
〈표 III-6-13〉	교사의 경력	227
〈표 III-6-14〉	교사의 최종학력	227
〈표 III-6-15〉	교사의 전공	228
〈표 III-6-16〉	교사 근무시간	229
〈표 III-6-17〉	교사의 교수 특성	229
〈표 III-6-18〉	기관 내 특별활동 여부	230
〈표 III-6-19〉	특별활동 이용 프로그램 수(중복응답)	230
〈표 III-6-20〉	특별활동 프로그램 주당 이용 횟수 및 시간	231
〈표 III-7- 1〉	거주 유형	233
〈표 III-7- 2〉	패널 아동 출산 후 이사 횟수	234
〈표 III-7- 3〉	보육·교육 기관 충분성(전체)	234
〈표 III-7- 4〉	국공립 육아지원기관 충분성	235
〈표 III-7- 5〉	민간 육아지원기관 충분성	236

〈표 III-7- 6〉	사교육기관 충분성	237
〈표 III-7- 7〉	여가 공간·시설 이용 편리성	238
〈표 III-7- 8〉	놀이터 이용 편리성 및 평균 이용 일	238
〈표 III-7- 9〉	공원 이용 편리성	239
〈표 III-7-10〉	산책로 이용 편리성	240
〈표 III-7-11〉	문화시설 이용 편리성(전체)	241
〈표 III-7-12〉	박물관 이용 편리성	242
〈표 III-7-13〉	미술관 이용 편리성	243
〈표 III-7-14〉	공연시설(음악회, 연극 등) 이용 편리성	244
〈표 III-7-15〉	영화관 이용 편리성	245
〈표 III-7-16〉	장난감 대여센터 이용 편리성	246
〈표 III-7-17〉	도서관 이용 편리성	247
〈표 III-7-18〉	지역사회 치안에 대한 인식	248
〈표 III-7-19〉	지역사회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	249
〈표 III-8- 1〉	육아지원 제도별 수혜율 1	251
〈표 III-8- 2〉	육아지원 제도별 수혜율 2	252
〈표 III-8- 3〉	육아지원제도 지원유형	253
〈표 III-8- 4〉	육아지원제도 도움정도	253
〈표 III-8- 5〉	육아지원제도에 따른 출산계획	254
〈표 III-8- 6〉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방식 필요성	255
〈표 III-8- 7〉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방식 필요 순위	256
〈표 III-8- 8〉	보육·교육 정책 인지도	257
〈표 III-8- 9〉	육아지원정책 필요성: 전체	257
〈표 III-8-10〉	육아지원정책 필요성: 소득별	258
〈표 III-8-11〉	보육·교육 정책이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	258
〈표 IV-1- 1〉	가정/기관에서의 아동의 식습관: 식사 양, 식사 속도, 편식	262
〈표 IV-1- 2〉	가정에서의 아동의 식습관: 규칙적 식사, 식습관 자립도	262
〈표 IV-1- 3〉	가정에서의 간식/외식 횟수	263
〈표 IV-1- 4〉	아동의 주간 미디어 이용 정도	263
〈표 IV-1- 5〉	아동의 취침 및 기상 시각	264
〈표 IV-1- 6〉	아동의 숙면 여부	264

〈표 IV-1- 7〉 유아의 하루 일과 시간	265
〈표 IV-1- 8〉 아동의 체중 및 신장	266
〈표 IV-1- 9〉 아동의 문제행동: 임상/준임상 집단	271
〈표 IV-1-10〉 아동의 육아지원기관 및 교사 선호도	273
〈표 IV-2- 1〉 부모의 연령	275
〈표 IV-2- 2〉 부모의 학력	276
〈표 IV-2- 3〉 부모의 결혼 상태 및 기간	276
〈표 IV-2- 4〉 부모의 종교	277
〈표 IV-2- 5〉 부모의 아동과의 동거 여부	277
〈표 IV-2- 6〉 부모의 장애, 유전병 및 알레르기 질환	278
〈표 IV-2- 7〉 부모의 음주 여부 및 횟수	278
〈표 IV-2- 8〉 부모의 음주량	279
〈표 IV-2- 9〉 부모의 흡연 여부	279
〈표 IV-2-10〉 부모의 취/학업 상태	280
〈표 IV-2-11〉 부모의 종사상 지위	281
〈표 IV-2-12〉 부모의 근로 시간	281
〈표 IV-2-13〉 어머니의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282
〈표 IV-2-14〉 어머니의 미취/학업 시기	282
〈표 IV-2-15〉 어머니의 미취/학업 이유	283
〈표 IV-2-16〉 어머니의 구직활동, 희망 근로 형태 및 이유	283
〈표 IV-2-17〉 부모의 우울	284
〈표 IV-2-18〉 부모의 자아존중감	284
〈표 IV-2-19〉 부모의 (부정적) 자기효능감	285
〈표 IV-2-20〉 부모의 결혼만족도	286
〈표 IV-2-21〉 부모의 부부갈등	286
〈표 IV-2-22〉 부모의 후속 출산 계획 여부 및 계획 자녀 수	287
〈표 IV-2-23〉 부모의 이상 자녀 수	288
〈표 IV-2-24〉 부모의 이상적 자녀 성별	289
〈표 IV-2-25〉 부모의 이상적 자녀 성별 구성	289
〈표 IV-2-26〉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	290
〈표 IV-2-27〉 양육 신념	290

〈표 IV-2-28〉 부모의 자녀가치	292
〈표 IV-2-29〉 자녀의 미래 기대	292
〈표 IV-2-30〉 양육 지식	293
〈표 IV-2-31〉 부모의 양육행동	294
〈표 IV-2-32〉 양육 스트레스	294
〈표 IV-2-33〉 아버지의 양육 참여	295
〈표 IV-2-34〉 사회적 지지	296
〈표 IV-3- 1〉 월평균 가구 소득	299
〈표 IV-3- 2〉 월평균 가구 총 지출 및 자녀에 대한 지출	299
〈표 IV-3- 3〉 가정환경의 질(2011~2014년)	301
〈표 IV-3- 4〉 가정환경의 질 분포 (일반집단 및 의심집단 분포)	302
〈표 IV-4 1〉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304
〈표 IV-4 2〉 기관 내 특별활동 실시	305
〈표 IV-4 3〉 기관 내 특별활동 이용 수	305
〈표 IV-5- 1〉 공공 여가공간/시설 및 문화시설 이용 편리성	307
〈표 IV-5- 2〉 치안 및 안전사고 측면 안전성	308
〈표 IV-5- 3〉 양육기관 충분성 및 적절성	308
〈표 IV-6- 1〉 육아지원정책 수혜율	310
〈표 IV-6- 2〉 보육비 감면(면제) 여부	312
〈표 IV-6- 3〉 보육/교육 지원 수혜율	312
〈표 IV-6- 4〉 보육/교육 지원 정책의 인식 및 출산계획 영향 여부	313
〈표 IV-6- 5〉 직장내 육아지원정책 시행 및 이용 여부	314

그림 차례

[그림 I-3-1]	한국아동패널 실사 진행 흐름도	46
[그림 I-3-2]	한국아동패널 연구 진행 흐름도	48
[그림 I-3-3]	한국아동패널 자료 공개 진행 절차	49
[그림 II-1-1]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 조사 진행 방법	55
[그림 II-1-2]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 CAPI(아동용) 예시	60
[그림 II-1-3]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 발달 검사 예시	61
[그림 II-1-4]	한국아동패널 7차(2014년) 경품 추첨 내용	69
[그림 II-1-5]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 연하장 및 아동의 입학선물	69
[그림 II-2-1]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 조사 진행도	73
[그림 II-3-1]	한국아동패널 2008~2014년 조사 참여율	76
[그림 II-3-2]	한국아동패널 2015 권역별 성공률	77
[그림 III-3-1]	아동의 전반적 발달	134
[그림 III-4-1]	부모의 직업군	156
[그림 III-4-2]	부모의 성역할 가치관	167
[그림 III-4-3]	모-자녀 상호작용	182
[그림 III-4-4]	사회적 지원 정도	192
[그림 IV-1-1]	아동의 표현 어휘력 발달	267
[그림 IV-1-2]	아동의 수용어휘력 발달	267
[그림 IV-1-3]	아동의 기질	268
[그림 IV-1-4]	아동의 또래 상호작용	269
[그림 IV-1-5]	아동의 문제행동: 내재화, 외현화 및 문제행동 총점	270
[그림 IV-1-6]	아동의 문제행동: 내재화 문제 하위요인	271
[그림 IV-1-7]	아동의 문제행동: 수면 문제와 외현화 문제 하위요인	272
[그림 IV-1-8]	아동의 육아지원기관 및 교사 선호도	273
[그림 IV-2-1]	부모의 연령 분포 및 연령 차	275
[그림 IV-2-2]	부모의 취/학업 상태 및 취업모의 재직 상태	280
[그림 IV-2-3]	부모의 우울 및 자아존중감	285
[그림 IV-2-4]	부모의 결혼만족도 및 부부갈등	287

[그림 IV-2-5]	부모의 후속 출산 계획 여부	288
[그림 IV-2-6]	부모의 양육 신념	291
[그림 IV-2-7]	어머니가 인식한 양육 실제	295
[그림 IV-3-1]	월 평균 가구 소득 대비 지출	300
[그림 IV-3-2]	가정환경의 질	301
[그림 IV-3-3]	가정환경의 질 의심집단 분포	302
[그림 IV-4-1]	전체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대비 어린이집 및 유치원, 학원 이용	304
[그림 IV-6-1]	육아지원정책의 방향	311

부록 표 차례

〈부록 표 1〉 연도별 한국아동패널조사 참여 분포	326
〈부록 표 2〉 7차년도 횡단면 가중치 무응답 로지스틱 모형 분석결과	328
〈부록 표 3〉 7차년도 최종 횡단면 가중치 부여 결과	329
〈부록 표 4〉 1~7차년도 종단면 가중치 부여 결과	330

요 약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을 출생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하는 연구로, 한국 아동이 어떠한 환경에서 어떻게 성장하는지 삶의 궤적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축하는 연구임.
 - 지난 7년간의 조사에서 축적해온 영유아기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아동기에 대한 지속적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영유아기 경험과 이전 시기의 발달이 아동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낼 필요가 있음.
- 올해 2015년 한국아동패널 연구는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만 7세아에 맞게 설계된 조사를 통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 및 부모, 가정, 학교 등의 제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7차년도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주제 발굴과 분석을 통해 시사성 있는 연구 성과를 생산 및 확산하고자 함.
 - 이를 통해, 한국 아동의 성장발달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며, 육아지원 정책과 기관 및 부모, 가정과 같은 제 육아환경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향후 육아정책의 설계에 유의한 논의점을 제공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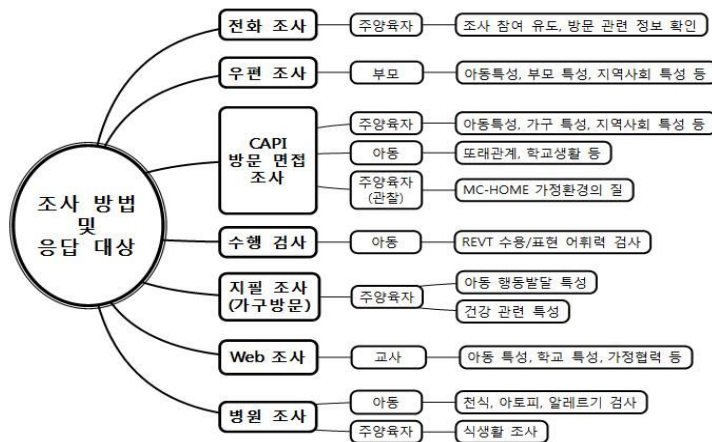
나. 연구내용 및 방법

- 금년을 포함한 추후 초등학교 6년 동안 전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조사내용을 검토하여 반영하고자 하였음.
- 이를 위해, 국내외 패널 및 종단연구, 아동기 발달 특성 및 환경 변인 등을 고려하여 향후 초등학교 시기 전반에 걸쳐 적용될 수 있는 변인을 모색하였으며 기타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7차년도 일반조사에 대한 기초분석 및 영유아(1~7차년도) 종단 자료 분석

- 6차년도 자료 클리닝 완료 및 조사 데이터 공개
- 브로슈어, 생일 카드 및 연말 연하장 발송 등을 통한 패널 유지와 자료에 대한 관리 실시
- 자문회의 및 서면 검토를 통한 조사 설계와 방향, 척도 선정 및 적용 방법 등에 대한 논의
- 패널 아동, 부모, 기관 교사 대상 설문조사 및 아동 수행검사 실시
- 학술대회 개최를 통한 성과 확산

2. 8차년도(2015) 패널 연구 사업보고

- 8차년도 조사에는 우편 조사, CAPI 방문 면접 조사, 아동 수행 검사, 지필 조사, WEB 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주요 참여 대상은 주양육자(어머니, 아버지), 아동, 학교의 담임교사임.



- 아동 특성 중, 일상생활, 사회/정서발달, 인지발달을 중심으로 학교생활이나 또래관계 등의 문항을 보강하였고, 부모 특성 중 응답이 크게 변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변인을 일부 삭제하면서 부모의 삶의 만족도, 일-가정 양립 등에 대한 개인 및 부부 특성의 내용을 추가하였음.
- 자녀에게 주는 용돈이나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사회경제적 지위 등 가계 경

제 요소에 관한 문항을 추가하고 가구 특성 변인을 보강하였음. 기존 유아용 가정환경 자극검사를 학령기용으로 대체하고 연령에 적합한 도구로 보완하였음.

3. 7차년도(2014) 조사결과 분석

가. 7차년도 조사의 특징 및 개요

- ☐ 총 패널 2,150명 중 1,620명이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이는 6차년도 조사 대상의 97.5%, 전체 대상자의 75.3%에 해당하는 수치임.
- ☐ 7차년도 조사에서 새로 추가되었던 주요 발달도구는 인지 영역의 학습준비도, 학업 능력, 사회적 기술(또는 사회적 유능성), 자아존중감, 언어 영역의 REVT(표현 어휘력), 조음/발화 검사, 주관적 행복감, 양육효능감, 부모 공동 양육, 성역할 가치관에 관한 문항과 신체운동 발달의 항목이었음.

나. 패널 영유아가구의 특성 전반

- ☐ 부모의 학력은 4년제 대학(어머니 37.8%, 아버지 41.9%), 고등학교 졸업(어머니 28.9%, 아버지 26.9%), 전문대학(어머니 27.2%, 아버지 20.0%) 순으로 높았음. 아버지의 95.5%, 어머니의 45.8%가 취업 중이거나, 취업과 학업을 병행 중이었음.
- ☐ 패널 가구의 90.4%가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이며, 가구 소득은 350~449만원이 26.5%, 450~549만원이 21.5%, 250~349만원이 20.2%로 평균 소득이 450.97만원이었음.

다. 아동 특성

- ☐ 인구학적 특성
 - 7차 조사에 참여한 패널 아동은 총 1,620명이며, 평균 월령이 75.10개월(표준편차 1.47개월)로 만 6.3세임.
 - 남아가 832명, 여아 788명임. 출생순위 기준으로, 첫째아가 36.5%, 둘째아는 39.9%, 셋째아 9.8%, 넷째아 이상이 1.3%였음.

□ 일상생활

- 식습관과 관련하여 주양육자와 교사 모두 아동의 식사 속도가 보통이고 골고루 먹는 편이라는 응답이 높았으며, 대부분의 아동이 어머니의 도움 없이 혼자서 식사를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남. 아동이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횟수는 주 8회 이상이 26.9%로 가장 높았고, 가정에서 아침을 매일 먹는다는 응답이 70.7%로 가장 높았음.
- 취침 시각은 평균 21시 51분, 기상 시각은 7시 39분으로 총 수면 시간이 평균 9.76시간이었음. 평일 하루 24시간을 기준으로, 평균적인 보육·교육 이용시간은 7.11시간, 사교육 이용 시간은 0.85시간, 실내/외 놀이시간은 각 1.87시간, 1.10시간이었음.

□ 신체 및 건강 특성

- 패널 아동의 평균 체중은 22.16kg, 신장은 평균 117.15cm, 허리둘레는 평균 54.47cm로 나타남.
- 우세손은 대체로 오른손이었으며, 조사 시점에 안경을 착용하는 아동은 전체 1,620명 아동 중 4.4%였음.

□ 인지 및 언어 발달

- 어머니와 교사가 인식한 아동의 학업능력은(언어 및 문해능력, 수리적 사고) 5점 만점 기준 3점 이상의 보통 수준이었으며, 교사가 평가한 점수가 더 높았음.
- REVT 표현 어휘력 검사에서 아동의 77.7%가 정상 발달을 보였음. 발화검사에서 ‘조음 정확도’는 정상 발달군에 속하는 아동이 91.5%, ‘읽기 유창성’이 일반 수준에 속하는 아동은 전체 58.7%였음.

□ 사회/정서 발달

- 아동이 지각한 행복감은 4점 만점의 3.57점이었으며, 또래 상호작용 특성에서 놀이 상호작용 정도는 4점 만점 중 평균 3.08점, 놀이 방해는 1.94점, 놀이 단절은 1.64점으로 놀이 단절보다 방해의 정도가 다소 높았음.
- 문제행동 총점의 평균은 20.07점, 내재화 문제는 6.80점, 외현화 문제는 5.70점으로 내재화 문제행동 수준이 외현화 문제행동보다 다소 높았으나,

임상/준임상 집단 판단 기준치에는 미치지 않았음.

라. 부모 특성

☐ 인구학적 특성: 어머니 평균 연령은 35.8세, 아버지는 39.3세이며, 어머니의 97.8%, 아버지의 98.4%가 유배우 초혼 상태임.

☐ 직업 특성

- 어머니는 미취업/미학업 상태가 55.4%, 취업 중 44.6%임.
- 취업모의 상용직 비율은 66.8%로 아버지 75.4%에 비해 낮고 임시직 비율은 높으며, 직업군은 어머니에게서 아버지보다 전문직 및 관련 종사자 비율이 높은 동시에 판매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의 비율 역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개인 및 부부특성

- 전반적으로 우울 수준은 낮으나, 어머니의 27.5%, 아버지의 23.1%가 경도·중증도, 중도 우울 증상을 보임. 어머니의 학력과 소득 수준에 따라 우울 평균 점수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됨.
-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취/학업 여부, 소득 수준에 따라, 부모의 행복감은 학력, 가구 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취/학업 중이거나 학력 또는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남.

☐ 양육 특성

-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을 비교하면, 어머니가 아버지에 비해 유능감과 불안감을 동시에 더 많이 느낌. 부모 각각 특성별로는 취/학업 중, 고학력, 고소득 집단에서 전반적으로 양호한 특성을 보임.
- 양육행동 역시 어머니가 아버지에 비해 온정성, 통제성 모두 높은 가운데, 학력과 가구 소득이 높은 어머니에서 온정성이 높게 나타나고, 미취업/학업 집단에서 통제성이 높게 나타남. 아버지는 남아에게 통제성이 높은 반면, 온정성에서 학력차, 소득차가 나타남.
- 모-자녀간 상호작용은 활동별로 학력차, 성차, 소득차가 나타남. 책 읽어주기, 이야기 나누기, 과학놀이나 스포츠, 운동, 집안일 함께 하기는 고학력 집단에서, 노래 부르거나 미술이나 만들기 도와주기는 여아에게서, 조립용

완구를 갖고 노는 활동은 남아에게서 더 빈번히 나타남. 반면 어머니의 취/학업 여부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 양육분담은 어머니 취/학업 집단에서 더 많이 분담하고 있으며 소득과 학력에 따른 차이도 일부 존재함.
- 공동양육은 가족통합을 위한 공동노력은 부모 모두 고학력, 고소득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비난은 어머니는 취/학업모 집단에서, 아버지는 학력이 낮은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남.
- 사회적 지지는 자녀수가 많은 경우 친가나 외가 같은 가족 구성원의 지원 정도가 높고, 외가는 고학력 어머니가 외가로부터의 지원을 많이 받음. 이웃으로의 지원 규모는 미취업/학업 집단에서 높고 소득이 낮은 집단이 상대적으로 높음.

마. 가구 특성

- ☐ 아동을 포함한 가구 구성원 수는 평균 4.25명으로, 90.9%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됨.
- ☐ 가계경제 요소를 살펴보면, 가구소득과 어머니 근로소득은 각각 월평균 450.97만원, 194.82만원으로 나타남. 월평균 가구 지출은 가구 전체 평균 지출이 405.56만원이고 이 중에서 237.19만원이 소비성으로 지출되었으며, 자녀들을 위해서는 99.24만원이 소비성으로 지출되었음. 가구의 61.5%는 부채가 있다고 응답함.
- ☐ 주거환경의 물리적 특성 중에서 패널 가구의 11.1%는 집에 도배 등 리모델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거주하고 있는 집에 눈에 보이는 곰팡이가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52.5%였고, 공기 청정기를 사용하는 가구는 28.7%로 나타남. 패널 아동의 48.9%는 일주일에 한번 이상 담배냄새를 맡는 일이 있었음.
- ☐ 가정환경점사의 총점 평균은 48.58점(55점 만점), 중위수는 50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좋은 가정환경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의심집단은 10% 정도였으며, 하위 영역 중에서 가장 의심집단이 높게 나타난 것은 반응성 영역이었음. 가정환경점수의 총점은 가구 소득이 300만원 이하의 가구가 401만원 이상의 가구에 비해서 낮았으며, 서울과 시 지역이 광역시, 도농복합시,

군지역에 비해 점수가 높았음.

- 가족상호작용의 하위척도인 '응집성'과 '유연성'을 부모 각각을 대상으로 질문한 결과, 모두 평균 3.59점 이상(5점 만점)으로 보통보다 높게 인식함. 부모 모두 가족의 응집성을 유연성보다 높게 평가함. 어머니 학력이 높고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았음.

바. 육아지원 기관 및 서비스 특성

□ 기관 특성

- 패널 아동이 이용하는 육아지원기관의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동이 이용하는 육아지원기관은 유치원(59.6%), 어린이집(34.7%), 반일제 이상 학원(5.6%)순으로 응답됨.
- 한 학급당 평균 아동 수는 22.06명이었으며, 교사는 평균 1.56명임. 교사 1인당 아동비율은 20.45명으로, 교사 1인당 적합하다고 인식하는 아동 비율(평균 17.55명)보다 높았음.
- 아동이 이용하는 교실 내 휴식 공간이 없다는 응답은 전체의 24.9%였고, 실외 놀이 공간이 없는 경우 7.4%, 실내 대근육 활동 공간이 없는 경우 13.5%였음. 반일제 이상 학원의 경우, 휴식 및 실외 놀이 공간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 교사 특성

- 패널 아동의 담당 교사는 대다수(99.6%)가 여성이었으며, 20대가 52.9%로 가장 많았음.
- 교사의 자격소지 관련, 유치원 교사 자격증과 보육교사 자격증만 소지하고 있는 경우는 각 25.1%, 21.1%였으며, 두 가지 자격증을 모두 소지하고 있는 경우는 49.3%로 나타남.
- 교사의 평균경력은 8.79년, 최종학력은 전문대 졸업이 38.6%, 대학교 졸업이 37.4%로 유사하였음.
- 교사의 주중 평균 근무시간은 10.02시간이며, 월 평균 1회 정도 주말 근무를 하며 평균 5.46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응답함. 주중 1일 평균 근무시간은 유치원(10.18시간), 어린이집(9.95시간), 반일제 이상 학원(8.73시간)순

이었음.

- 교사 자신의 능력에 대한 효능감은 5점 척도 기준 평균 3.90점이며, 아동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은 평균 4.27점으로 높게 나타남.

☐ 특별활동 특성

- 패널 아동이 이용하는 기관의 88.4%가 기관 내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있다고 응답함.
- 기관 내 이용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 수는 평균 약 6개로 나타났으며, 영어의 경우, 평균 1.04개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음.
- 아동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총 횟수는 주당 영어가 3.10회로 가장 많았고, 통합프로그램(2.41), 교구 이용 프로그램(2.22), 국어(2.17)순으로 나타남. 총 이용 시간을 살펴보면, 영어가 76.06분으로 가장 많았음.
- 육아지원 기관 외 특별활동을 이용하는 경우는 71.9%로 나타났으며, 거주지역이 읍·면지역일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기관 외 특별활동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36.7%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사. 지역사회 특성

- ☐ 패널 가구의 거주유형은 아파트 지역이 71.2%, 주택이 21.6%로 나타남.

- ☐ 지역사회의 양육 적절성을 살펴보기 위해 육아인프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함.

- 보육·교육기관의 충분성 인식은 5점 만점에 민간 육아지원기관(3.13점), 사교육기관(2.88점), 국공립육아지원기관(2.77점) 순이었음. 육아지원기관은 지역 규모가 클수록 불충분하다는 인식이, 사교육기관은 군 단위에서 불충분하다는 인식이 높았음. 모 학력이 낮을수록 민간 육아지원기관 및 사교육기관이 불충분하다고 인식함.
- 공공 여가 공간·시설 이용 편리성은 보통 수준이었으며 놀이터, 산책로, 공원 순으로 나타남. 놀이터의 월 평균 이용일은 10.25일, 공원 및 산책로는 3.71일이었음. 이용일은 모 학력이 높을수록 많았음.
- 문화시설 이용 편리성은 도서관, 영화관이 보통 수준으로 높았으나, 공연시설, 박물관, 장난감대여센터, 미술관은 보통 이하였음. 월 평균 이용일은 도서관이 1.86일로 가장 높았고, 장난감대여센터는 0.11일로 가장 낮았음.

모 학력과 가구소득이 높고, 지역 규모가 클수록 문화시설 이용이 편리하다고 인식하였고 이용일 역시 많았음.

- ☐ 지역사회 치안에 대한 인식은 5점 척도에서 평균 3.34점, 지역사회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은 평균 3.18점인 것으로 나타남.

아. 육아 정책 특성

- ☐ 국가가 지원하는 육아지원정책 수혜율은 누리과정 제도(95.2%), 필수 예방접종(90.3%), 영유아 건강검진(89.8%) 순으로 높게 나타남. 육아지원제도의 도움 정도는 보통 이상으로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음.
- ☐ 육아지원제도가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은 누리과정,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제도는 ‘예’라는 응답이 많았으나, 시간연장형 보육료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방과후 과정 지원비 등은 ‘아니오’가 많았음.
- ☐ 직장 내 육아지원제도의 필요성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필요성을 더 많이 인식함. 가장 필요한 제도로는 여성의 출산휴가, 여성의 육아휴직, 보육비 지원을 꼽았음.
- ☐ 보육·교육 정책 중 ‘누리과정/보육료 및 유아학비’에 대해 패널 아동 아버지들의 91.0%가 접해본 경험이 있고, 72.1%가 매우 필요하고, 62.5%가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함. ‘가정양육수당’은 83.1%가 접해본 경험이 있고, 63.3%가 매우 필요하며, 57.3%가 출산계획에 영향이 있다고 함.

4. 2008~2014년도 영유아기 주요 변인 추이 분석

가. 아동 특성

- ☐ 만 4세에서 6세로 연령이 증가하면서 식사 양과 속도는 점차 증가하고 편식은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는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규칙적 식사를 하고 도움 없이 혼자서 식사를 잘 한다고 답하였음.
- ☐ 만 2세에서 6세 사이의 평균 취침시각이 밤 9시 42~57분이었으며, 연령이 증가하면서 기상시각은 앞당겨지는 패턴을 보였음. 만 4~6세에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보육·교육 기관에서 보내는 시간과 학습활동을 하는 시간이 증가하

는 반면, 실내놀이나 바깥놀이 및 외출 시간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

- ☐ 만 0세부터 6세까지 아동의 신장과 체중은 점차 증가하나 개인 간 격차가 커지는 양상을 보였음.
- ☐ 정상 집단에 속하는 아동이 전체의 80% 이상에 해당되며, 만 4세에서 6세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상 집단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음.

나. 부모 특성

☐ 취/학업 특성

- 어머니의 취/학업 비율은 1차년도 27.3%에서 7차년도 43.3%로 매해 조금씩 증가하였음. 이 중 취업 중인 어머니의 종사상 지위는 정규직/상용직은 1차년도 84.5%에서 4차년도 62.4%까지 줄어들다 6차년도 64.9%, 7차년도 67.1%로 증가하고 있음.

☐ 개인 특성 및 부부 특성

- 부모의 우울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만 3세 시기부터 다소 상승하여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만 6세 시점에 다시 하락함. 부모의 자아존중감도 아동이 6세가 되는 해인 7차년도에 다소 낮아짐.
-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은 특히 결혼만족도는 7차년도에 다소 낮아짐.
- 부모의 양육행동은 대체로 사회적(온정적) 양육행동이 통제적 양육행동보다 더 높고, 자녀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는 조사 시점에서 전반적으로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어머니가 아버지에 비해 일관되게 높게 응답함. 어머니는 아버지가 양육에 비교적 잘 참여한다고 인식하였으며, 아버지의 양육 참여 수준도 매년 일정하게 유지됨.
- 어머니가 받는 사회적 지원은 자녀 출산 직후인 1차 조사 시점이 가장 높았고, 취학 전 시점인 7차 조사 시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구적 및 사교적 지원은 외가, 친가, 친구 및 동료, 이웃의 순으로, 정서적 및 정보적 지원은 외가, 친구 및 동료, 친가, 이웃의 순으로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인식함.

다. 가구 특성

- ☐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월평균 가구 소득 추이를 살펴본 결과 소득이 점차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음. 월평균 가구의 총 지출 또한 1차부터 7차까지 꾸준하게 증가했으며, 자녀에 대한 월 평균 지출은 증감을 반복하며 최종적으로 증가해가는 패턴을 보였음.
- ☐ 2011년부터 2014년에 걸쳐 수집된 가정환경 질에 관한 자료 분석 결과, 55점 총점에 평균 48~49점 이상으로 대체적으로 양호함.
 - 학습자료의 경우 다소 늘었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 경향을 보임. 언어자극 점수는 점차 증가하다가 만 6세에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특징을 보임. 반응성은 아동의 연령 증가에 따라 점차 감소함.
 - 가정환경자극의 질이 낮을 수 있는 의심 집단을 구분하여 그 비율을 살펴본 결과, 총점의 경우 2011년~2013년까지는 의심 집단의 비율이 줄어들다가 2014년에 다소 증가함.

라. 육아지원 기관 및 서비스 특성

- ☐ 패널 아동의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추이를 살펴보면,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전체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률 증가를 보임.
- ☐ 만 3세를 기점으로, 기관 이용률의 급격한 증가를 보이는데, 만 3,4세는 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며, 만 5세 이후에는 어린이집보다 유치원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 기관 내 이루어지는 특별활동 실시 비율도 아동 연령에 따라 증가하며, 만 3세 이후에는 육아지원기관의 2/3이상이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관 내 이용 프로그램을 보면, 만 2세에는 음악과, 체육, 미술 등의 프로그램 이용률이 높으며, 만3세 이후에는 영어의 이용수가 급격히 증가함.

마. 지역사회 특성

- ☐ 영유아기 자녀를 둔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살펴본 결과, 공공 여가 공간/시설과 문화시설의 이용 편리성 및 치안과 안전사고의 안전성은 보통 수준으로 나타남. 안전성은 아동 연령이 0세일 때 높았다가 2세일 때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6세가 되면서 다시 상승함.

- ☐ 지역사회의 육아인프라인 육아지원기관과 사교육 기관이 충분하다고 인식하는지 살펴본 결과, 보통 수준이었으나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감소함.

바. 육아 정책 특성

- ☐ 영유아기 자녀를 둔 가구가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을 살펴봄.
 - 가장 많이 지원받고 있는 것은 ‘필수예방접종’과 ‘건강검진’이고, 만 5세 때부터는 대다수가 지원을 받음.
 - 정부의 육아지원정책의 방향에 대한 어머니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어머니들은 육아지원서비스와 일-가정 양립제도를 모두 확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 국가의 보육·교육료 지원에 관한 가구의 수혜율과 인식임.
 - ‘가정양육수당’은 비율상으로 만 2-3세 시기에 높게 나타남.
 - ‘누리과정/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은 2013년에 패널 아동이 해당 연령이 되면서 만 5세부터 수혜율이 높아져 대다수의 아동이 지원을 받음.
 - 대다수의 부모들이 보육·교육정책이 시행되기 전부터 정책을 접한 적이 있고, 실제로 정책 혜택을 받은 이후부터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증가함.
- ☐ 근로중인 어머니들의 직장내 육아지원정책 시행률과 이용률을 살펴봄.
 -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는 육아지원정책은 여성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고, 아동이 만 0~1세 때 많이 이용하여 만 2세 이후에는 이용률이 감소함.
 -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머니는 아동이 1세와 6세일 때 이용률이 높음.
 - 보육비 지원이나 수유실 설치, 유급 수유시간, 시차출근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시행률은 낮은 반면, 이용률은 절반 이상으로 높았음. 주된 이용시기는 아동이 만 0~1세 시기였음.

5. 정책적 시사점

□ 한국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

- 내재화 및 외현화된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 이러한 문제행동은 출생순위와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임.
 - 저소득 가정 유아의 문제행동 방지 및 예방을 위한 국가적 지원 및 사회정서 발달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함.
 - 외현화된 문제행동이 남아에게서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차를 고려한 학습환경이 제공되어야 함.

□ 한국아동의 건강한 양육환경 제공

- 가정의 양육환경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동에 대한 어머니의 언어적 정서적 반응성은 다른 영역에 비해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본인의 요구에 적절한 관심을 받은 유아가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어머니들은 유아의 행동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음.
- 아동이 거주하는 공간의 주거환경 및 생활습관이 알레르기 질환과 관련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 가족 간의 상호작용이 어머니 학력과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임에 따라, 저소득 가정에서 성장하고 있는 아동을 위한 지원과 배려가 요구됨.
- 지난 연도에 비해 어머니의 자존감과 부모의 결혼만족도가 감소함.
 - 아동의 방과 후 시간 돌봄 방안 마련 등으로 인한 취업모의 불안과 염려가 가중됨으로 인해 취업모 자녀를 위한 아침돌봄 및 방과후 돌봄 등에 관한 지원이 활성화되어야 함.

□ 육아지원 서비스 및 정책

- 영아 시기 부모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산휴가, 육아휴직의 제도 등이 활성화되어야 함.
- 육아지원기관 내의 특별활동에 대한 국가적 관리와 관심이 요구됨.

- ‘필수예방접종’과 ‘건강검진’은 모든 영유아 가정에서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영유아 시기의 문화적 인프라 이용에 대한 지역 격차 해소가 필요함.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아동패널’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출생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하는 연구로, 한국 아동이 태어나 어떠한 환경에서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 삶의 궤적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생산한다. 특히 영유아 발달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부모, 가정, 어린이집·유치원 등 육아지원기관과 지역사회, 정책에 이르기까지 아동의 직·간접적 경험을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 변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자료화함으로써 한국 아동의 과거, 현재와 미래를 이해할 수 있는 종단 자료라는 데에 그 의미가 크다.

2008년 전국에서 태어난 2,150명의 신생아 패널로 시작된 한국아동패널 연구는 1년을 주기로 영·유아기 아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왔다. 연구 착수 당시 신생아였던 패널은 영아기와 유아기를 거쳐 초등학교에 입학하며 학령기에 들어섰다. 초등학교 입학은 많은 변화를 동반하는데 국가 의무교육과정인 형식교육을 처음 접하게 되고, 생활환경이 학교로 확대됨에 따라 또래관계의 규모와 중요성도 커진다. 또한 이 시기 아동의 인지 발달, 정서·사회적 발달 등은 이전 시기와 질적으로 다른 변화를 보이게 된다. 구체적 사물에 대해 정신적 활동을 통한 사고가 가능해지고, 자의식적 정서에 대한 이해 및 내면화, 조절 등이 발달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정 내 부모와의 관계는 아동 발달에 있어 여전히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

지난 7년간의 조사에서 축적해온 영유아기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아동기에 대한 지속적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영유아기 경험과 이전 시기의 발달이 아동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낼 필요가 있다. 영유아기 부모와의 관계와 지지가 아동기 사회관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영유아기 육아지원기관 이용이나 초등 입학 전·후의 공교육과 사교육보육의 경험이 아동의 인지·정서·신체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등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아동기 발달적 결과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자료수집이 필요하다.

특히 2015년 8년차 조사에서는 아동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변인을 포함하고자 하였다. 이전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또는 반일제 학원 등에서 이미 집단생활을 경험하였지만, 패널 아동이 금년에는 형식적 교육을 시작하는 시기로 초등학교 교육기관에 대한 정보 수집은 물론 기관의 변화에 따른 패널 아동의 적응 및 발달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제 는 아동의 자기 보고가 가능한 시기이므로 자기보고식 아동 관련 내용을 확대 하고자 하였다. 한편, 본격적인 형식 교육이 시작됨에 따라 학업 및 인지발달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므로 이에 대한 보강도 필요하다. 학교 교육과 방과후 활동으로 나뉘는 등 아동의 생활시간 패턴에도 변화가 예상되었으며, 부모 역시 기존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유치원 등으로 충족하던 대리양육과 보호 기능을 초등학교 입학에 따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정보 수집도 필수적이라고 간주 하였다.

한국아동패널 연구는 지난 7년간의 연구를 통해 자료 수집 외에 다양한 연구 결과를 공표 확산해 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 아동의 성장과 발달과 이 시기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의 양육에 대한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생산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연구문제에 대한 시의성 있는 결과와 답변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올해 연구에서는 지난 7차년도까지의 연구로 초등학교 입학 전 영유아기에 대한 자료가 모두 구축되어 생애초기 성장·발달이 어떠한 경로와 궤적을 보이는 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영유아기에 받은 보육과 교육 경험이 이후 아동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아동의 성장에 따라 각 시기별로 지속적으로 탐구해야 할 것이다.

한편, 올해는 지난 2년간 진행되어 왔던 아토피, 천식과 같은 알레르기 질환 등에 관한 건강 관련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패널 아동이 전국의 16개 거점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알레르기 질환 및 각종 건강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검사가 시행된다.

2015년 한국아동패널 연구는 패널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를 맞아, 앞으로 초등학교 6년의 시간에 걸쳐 종단적으로 추적 조사 되어야 할 내용과 초등학교 저학년, 혹은 고학년에서 조사되어야 하는 내용을 분류하고 체계화하였다. 그리고 지난 영유아 시기의 조사 내용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연구 틀을 재정립하여 진행하고자 하였다. 한편, 2015년 한국아동패널 연구는 만 7세아에 맞게 설계된 조사를 통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 및 부모, 가정, 학교

등의 제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7차년도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주제 발굴과 분석을 통해 시사성 있는 연구 성과를 생산 및 확산하고자 한다. 이로써 본 연구는 한국 아동의 성장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추적 가능하도록 하며, 육아지원의 정책과 기관 및 부모, 가정과 같은 제 육아환경이 아동의 발달 및 부모의 양육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 향후 육아정책의 설계에 유의한 논의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내용

한국아동패널의 8차년도 연구에 해당하는 한국아동패널 2015의 연구내용을 그동안 수행되어왔던 7차년도까지의 전체적인 한국아동패널 조사 모형과 조사내용을 기준으로 조직화하여 다음에서 제시하였다.

가. 한국아동패널 조사 모형 구축

기존의 전체 한국아동패널 조사 모형에서는 초등학교의 경우, 초등 1, 3, 6학년을 조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초등학교 조사가 2~3년 주기로 이루어질 시 조사의 연계성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패널 대상의 유지 관리가 어려울 수 있고, 이에 따른 패널 대상의 유실을 우려하였다. 또한 각 학년별 시기에 따른 주요 특성들을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를 거친 후에 한국아동패널 조사를 매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아동패널의 전체 조사 모형은 다음 <표 I-2-1>과 같이 수정되었다. 금년 조사 실시 계획에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일반조사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병원조사가 포함되어 있다. 즉, 올해는 패널 조사원들의 가구방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일반조사와 패널 대상 아동과 부모가 직접 병원을 방문하여 이루어지는 병원조사가 수행되었다. 전년도인 2014년에 수집된 일반조사 자료에 대한 기초분석이 2015년도 후반기에 주로 진행되었다. 한국아동패널 연구 보고서는 지금까지 한국아동패널 자료 수집과 자료 입력, 에디팅 절차 등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하여 당해 연도 사업보고와 전년도 자료의 기초분석 내용으로 구성되어 왔다. 다음에서 한국아동패널 조사 모형을 제시하였다.

〈표 1-2-1〉 연도별 조사 실시 계획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초등학교령기					중등	고등	대1	심층조사 ¹⁾	학술 대회
								7세	8세	9세	10세	11세	12세	13~15세	16~18세	19세	
2008	1차																
2009		2차														1차	
2010			3차													부가조사 ¹⁾	1차
2011				4차													2차
2012					5차												3차
2013						6차										2차	4차
2014							7차										5차
2015								8차								병원조사 ²⁾	6차
2016									9차								
2017										10차						3차	
2018											11차						
2019												12차					
2020													13차			4차 예정	
2021														14차			
2022														15차			
2023														16차		5차 예정	
2024															17차		
2025															18차		
2026															19차		
2027																20차	6차 예정

주: 1) 한국아동패널2010 일반조사 외에 2010년에 출생한 신생아가구 1,000사례 대상으로 부가조사를 실시, 횡단자료를 구축함.

2) 병원조사는 8차조사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며, 아산병원을 중심으로 각 지역별 거점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조사로써 혈액, 소변, 폐기능 검사 등이 실시됨.

나. 한국아동패널 조사 내용 구성

금년을 포함한 추후 초등학교 6년 동안 전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조사 내용을 검토하여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패널 및 종단연구, 아동기 발달 특성, 아동을 둘러싼 환경 변인(학교 및 또래관계, 방과후 이용 기관, 아동기 지원 정책) 등을 고려하여 향후 초등학교 시기 전반에 걸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변인을 주로 모색하고, 각 학년별 특성을 반영하여야 하는 변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전반적인 연구의 내용을 구성하고 기획하고자 하였다.

- 1) 한국아동패널 조사는 크게 ‘일반조사’와 ‘심층조사’로 구분된다. ‘일반조사’는 한국아동패널의 기본조사로써 매년 실시한다. ‘심층조사’는 2~3년에 한 번씩 실행되며, 일반조사에서 문항 내용 및 검사 실시 방법 측면에서 어려운 내용을 중심으로 수행한다.

한국아동패널 조사 내용은 패널 조사임을 고려하여 조사 모형을 중심으로 기존의 변인과 항목을 가능한 한 그대로 유지하되, 아동의 연령 증가에 따른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 내용을 추가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다음에서 아동패널조사 모형개발 연구(장명림·신나리·박수연, 2006)에서 제시한 조사 영역 및 변인을 토대로 하여 8차년도 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아래 표에서 ○는 해당 차수에 해당 변인이 조사되었음을 의미하며, ◎는 2015년도에 추가되었던 변인을 의미한다.

1) 아동 특성 변인

가) 인구학적 특성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으로는 출생순위, 성별, 연령 등이 있으며, 연령은 기조사 된 아동의 생년월일과 조사 시점을 조합하여 생성변수로 제공되었다.

〈표 1-2-2〉 차수별 아동 특성 변인: 인구학적 특성

중분류	소분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아동 이름	아동 이름	○	○	○	○	○	○	○	○
	아동 이름 변동 사유		○	○	○	○	○	○	○
출생순위	출생순위	○	○	○	○	○	○	○	○
	출생순위 변동 사유		○	○	○	○	○	○	○
	형제자매 수						○	○	
연령	생년월일	○	○	○	○	○	○	○	
	월령	○	○	○	○	○	○	○	
성별	성별	○							

나) 건강 특성

건강 특성은 예방접종, 상해 및 병력, 입원/통원 치료, 알레르기, 비염, 천식, 아토피피부염 등의 질환, 장애, 건강 보조도구, 약제사용 등으로 구성되었다.

〈표 1-2-3〉 차수별 아동 특성 변인: 건강 특성

중분류	소분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건강 보조도구	안경 착용 시기						○	○	○
	안경 착용 여부						○	○	○
상해 및 병력	병력(상해) 여부		○	○	○	○	○	○	○
	병력(상해) 횟수		○	○	○	○	○	○	○
	질환 의사진단 여부		○	○	○	○	○	○	○
	질환 진단 시기		○	○	○	○	○	○	○

(표 I -2-3 계속)

중분류	소분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입원/ 통원치료	입원 기간	○	○	○	○	○	○	○	○
	입원 여부	○	○	○	○	○	○	○	○
	입원 이유				○	○	○	○	○
	입원 횟수		○	○	○	○	○	○	○
	통원치료 횟수		○	○	○	○	○	○	○
예방접종	예방접종 횟수	○	○	○	○				
장애	진단 급수		○	○	○	○	○	○	○
	진단 여부		○	○		○	○	○	○
	진단 유형		○	○	○	○	○	○	○
신체 특성	빠진 유치 개수								◎
	주관적 건강상태								◎
	처음 유치가 빠진 시기								◎
	충치 개수								◎
비염	비염 징후						○	○	○
	비염 치료 여부						○	○	○
	알레르기 비염 진단여부						○	○	○
	알레르기 비염 스프레이 치료 기간								◎
	알레르기 비염 진단시기								◎
	알레르기 비염 치료여부								◎
아토피 피부염	아토피피부염 발병시기						○		
	아토피피부염 진단시기						○		
	아토피피부염 진단여부						○	○	○
	아토피피부염 징후						○	○	○
	아토피피부염 치료여부						○	○	○
알레르기	식품알레르기 진단여부						○		○
	알레르기 음식 제한여부								◎
	알레르기 의심 식품섭취						○		○
	알레르기 의심 증상						○		○
	알레르기 증상 여부						○		
	알레르기성 눈병 진단 여부						○		
약제사용	국소 스테로이드 연고 사용 기간							○	○
	진통제/해열제 복용						○		
	항생제 치료						○	○	
	항생제 치료 횟수							○	
천식	모세기관지염 진단시기						○		
	모세기관지염 진단여부						○		
	천명 징후						○	○	○

(표 I-2-3 계속)

중분류	소분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천식	천명으로 인한 응급치료 약물 복용 기간(길항제)						○	○	○
	천식 약물 복용 기간(스테로이드)								◎
	천식 약물 복용 빈도						○		
	천식 진단 시기						○		
	천식 진단 여부						○	○	○
	천식치료여부						○	○	○
출생	분만형태	○							
	실제 출산일	○							
	재태 기간	○							
	출산 예정일	○							
	출산 후 접촉	○							

다) 일상생활

아동의 일상생활 특성은 일과 시간, 수면, 식습관, 미디어, 부모 관련 등으로 구성된다.

〈표 I-2-4〉 차수별 아동 특성 변인: 일상생활

중분류	소분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수면 관련	기상 시간			○	○	○	○	○	○
	밤잠 시간			○	○	○	○	○	○
	취침 시간			○	○	○			○
	수면 습관 특성	○	○	○	○			○	
	낮잠 시간			○	○	○	○		
	낮잠 여부			○	○	○	○	○	
	낮잠 횟수			○	○				
	밤잠 중 깨는 횟수			○	○				
	숙면 여부			○	○	○	○	○	○
부모 관련	부모감독								◎
	어른 없이 지내는 시간								◎
일과 관련	주당 실내 놀이 일						○	○	
	주당 실외 활동 일						○	○	
	일과 활동 시간			○	○	○	○	○	○
	배변/씻기 습관특성	○	○	○	○				
	숙제 시 도와주는 사람								◎
	숙제 시 도움 정도								◎
	활동 빈도								◎

(표 I-24 계속)

중분류	소분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미디어 관련	미디어 이용 시간						○		
	미디어 이용 정도					○	○	○	
	미디어 이용 시작 시기					○			
	미디어 이용 이유								◎
	주당 미디어 이용 일						○	○	
	휴대폰(스마트폰) 소유여부								◎
학교생활	결석 횟수, 이유								◎
	미진학 이유								◎
	및 이용기관								◎
	초등학교 진학여부								◎
수유	모유수유 기간	○	○	○	○				○
	모유수유 여부	○	○	○	○				○
	모유수유 중단 이유	○	○	○	○				○
	수유 및 식습관 특성	○	○						○
	수유 형태							○	
	혼합수유 시작 시기							○	
식생활 조사	가족과의 식사						○	○	
	간식 횟수				○	○	○	○	
	규칙적 식사					○	○	○	
	식사 속도					○	○	○	
	식사 양					○	○	○	
	식습관 자립도					○	○	○	
	아침식사 횟수					○	○	○	
	외식 횟수 편식					○	○	○	
식이 조사	과식빈도								◎
	과일 섭취빈도								◎
	과일: 지난 1년간 평균 섭취빈도								◎
	과일: 평균1회 섭취분량								◎
	과일주스 섭취빈도								◎
	과일주스 및 기타음료: 지난 1년간 평균 섭취빈도								◎
	과일주스 및 기타음료: 평균1회 섭취분량								◎
	김치류: 지난 1년간 평균 섭취빈도								◎

(표 I-24 계속)

중분류	소분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식이 조사	김치류: 평균1회 섭취분량								○
	닭고기/알류: 지난 1년간 평균 섭취빈도								○
	닭고기/알류: 평균1회 섭취분량								○
	돼지고기: 지난 1년간 평균 섭취빈도								○
	돼지고기: 평균1회 섭취분량								○
	비타민 및 무기질제 섭취여부, 종류								○
	생선류: 지난 1년간 평균 섭취빈도								○
	생선류: 평균1회 섭취분량								○
	쇠고기: 지난 1년간 평균 섭취빈도								○
	쇠고기: 평균1회 섭취분량								○
	식사 섭취횟수								○
	식사속도								○
	식습관 관련 특성			○	○				
	외식 빈도								○
	우유 및 유제품류: 지난 1년간 평균 섭취빈도								○
	우유 및 유제품류: 평균1회 섭취분량								○
	유지 및 당류: 지난 1년간 평균 섭취빈도								○
	유지 및 당류: 평균1회 섭취분량								○
	육류 기름 섭취 정도								○
	이유식 시작 시기							○	
	주식류1: 지난 1년간 평균 섭취빈도								○
	주식류1: 평균1회 섭취분량								○

(표 I-24 계속)

중분류	소분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식이 조사	주식류2: 지난 1년간 평균 섭취빈도								○
	주식류2: 평균1회 섭취분량								○
	질화에 의한 식품 변화여부								○
	채소류: 지난 1년간 평균 섭취빈도								○
	채소류: 평균1회 섭취분량								○
	콩류: 지난 1년간 평균 섭취빈도								○
	콩류: 평균1회 섭취분량								○
	한 끼 밥 양								○
	해조류: 지난 1년간 평균 섭취빈도								○
	해조류: 평균1회 섭취분량								○

라) 사회/정서 발달

사회/정서 발달 영역은 아동의 기질, 자아존중감, 또래 관계, 문제행동, 행복감, 학교생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표 I-2-5〉 차수별 아동 특성 변인: 사회/정서 발달

중분류	소분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기질	사회성			○	○	○			
	활동성	○	○	○	○	○			
	부정적 정서성	○	○	○	○	○			
자아 존중감	자아 존중감							○	○
자아개념	자아개념						○		
문제 행동						○	○	○	○
또래 상호작용	놀이 단절				○	○	○	○	
	놀이 방해				○	○	○	○	
	놀이 상호작용				○	○	○	○	
놀이 특성	놀이 및 사회적 활동 특성			○					
	선호하는 놀이 영역				○	○	○	○	

(표 I-2-5 계속)

중분류	소분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사회성 발달	사회성 발달	○	○	○					
사회적 유능감	자기통제							○	
	주장성							○	
	협력성							○	
개인-사회성	K-ASQ / Denver II	○	○	○					
또래관계	부모님이 아는 친구 수								◎
	주말에 친구와 노는 빈도								◎
	친구와 싸우는 빈도								◎
	친하게 지내는 친구 수								◎
	학교 밖에서 친구와 노는 빈도								◎
일상스트레스	일상적 스트레스							○	
전반적 행복감	전반적 행복감								◎
주관적 행복감	주관적 행복감							○	○
선호도	과목 선호도								◎
	교사 선호도				○	○	○	○	○
	기관 선호도				○	○	○	○	
학교생활	수업 열심히 듣는 정도								◎
	얼마나 기분이 좋니?								◎
	얼마나 시간낭비라는 생각을 하니?								◎
	얼마나 자주 지루하니?								◎
	초등학교 적응 정도								◎
	학교 다니는 것이 얼마나 즐겁니?								◎
	학교 적응 정도								◎
	기관(학교) 선호도								◎
	부모의 학교 공부 관심도 인식								◎
부모 관련	애착		○						
미래 기대	미래가치, 꿈								◎
	최종진학계획								◎

마) 신체 발달

아동의 신체발달은 대근육 운동 발달과, 소근육 운동 발달 및 우세 손의 소근육 발달에 대한 설문조사와 조사원에 의한 두위, 신장, 체중 및 허리둘레의 신체 크기 계측으로 구성된다.

〈표 1-2-6〉 차수별 아동 특성 변인: 신체 발달

중분류	소분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대근육	대근육 운동 발달						○	○	
소근육	소근육 운동 발달						○	○	
	우세 손						○	○	○
신체 크기	두위	○	○						
	신장	○	○	○	○	○	○	○	○
	체중	○	○	○	○	○	○	○	○
	허리둘레							○	○

바) 언어 발달

아동 특성 변인 중, 언어발달은 K-ASQ, Denver, REVT(수용/표현 어휘력) 및 발화 검사 등을 통한 아동 대상의 직접 검사와 교사에 의한 설문조사 등으로 구성된다.

〈표 1-2-7〉 차수별 아동 특성 변인: 언어 발달

중분류	소분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의사소통	의사소통	○	○	○					
언어발달	발화 능력						○		
	언어발달	○	○	○		○	○		
어휘력	수용어휘력				○		○		○
	표현 어휘력				○		○	○	○

사) 인지 발달

아동의 인지발달은 지능, 창의성과 같은 수행검사 및 학습능력, 학습 준비도, 학업수행능력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표 1-2-8〉 차수별 아동 특성 변인: 인지 발달

중분류	소분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지능	동작성						○		
	언어성						○		
창의성	개방성					○			
	독창성					○			
	민감성					○			
	유창성					○			
학습능력	수리적 사고							○	
	언어 및 문제 능력							○	
	인지 발달					○	○		
	문제해결	○	○	○					
	집행기능								○
학습 준비도	사회/정서 발달							○	
	의사소통							○	
	인지발달 및 일반적 지식							○	
	학습에 대한 태도							○	
학업수행	학업 수행 능력								◎
전반적 발달	전반적 발달							○	

2) 부모 특성 변인

가) 인구학적 특성

부모 특성 변인 중 부모의 인구학적 특성은 부모 각각의 종교, 결혼관련 상태, 최종학력, 연령, 국적, 아동과의 동거 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어머니의 연령 및 결혼 기간은 응답자의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결혼기념일을 조사일 기준으로 계산하여 생성 변수로 제공된다. 또한 어머니대상 질문지에 한하여 응답자가 어머니가 아닐 경우에 대하여 간략한 응답자 정보를 함께 수집한다.

〈표 1-2-9〉 차수별 부모 특성 변인: 인구학적 특성

중분류	소분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응답자 특성	성별		○	○	○	○	○	○	○
	아동과의 관계		○	○	○	○	○	○	○
	어머니 여부		○	○	○	○	○	○	○

(표 I-2-9 계속)

중분류	소분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인구학적 특성	종교 유무	○	○	○	○				
	종교 유형	○	○	○	○				
	결혼 기간	○				○	○	○	○
	결혼 상태	○	○	○	○	○	○	○	○
	결혼 시기	○	○	○	○	○	○	○	○
	동거 여부	○	○	○	○	○	○	○	○
	배우자 동일 여부		○	○	○				
	비동거 이유	○	○	○	○	○	○	○	○
	비동거 시 아동을 만나는 일수					○			
	연령	○				○	○	○	○
	최종학력	○			○	○	○	○	○
	학과과정				○				
	국적	○	○	○	○				
	귀화 전 국적	○	○	○	○				
	귀화여부	○	○	○	○				

나) 건강 특성

부모의 건강관련 특성은 장애 및 질환 유무, 음주, 흡연에 대한 사항과 아동의 출생 시 산모의 신체 특성, 그리고 개인이 인식하는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질문 등으로 구성된다.

〈표 I-2-10〉 차수별 부모 특성 변인: 건강 특성

중분류	소분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개인내적 특성	주관적 건강상태								◎
신체 특성	신장	○							
	임신 직전 체중	○							
	출산 직전 체중	○							
장애/ 질환	1·2급 장애 유무	○			○	○	○	○	○
	희귀 난치성 질환 유무	○			○	○			
음주	과음 횟수				○	○	○	○	○
	음주 양	○	○	○	○	○	○	○	○
	음주 여부	○	○	○					○
	음주 횟수	○	○	○	○	○	○	○	

(표 I-2-10 계속)

중분류	소분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흡연	흡연 여부	○	○	○	○	○	○	○	○
	니코틴 의존도 분류	○	○	○					
	니코틴 의존도 점수	○	○	○					
	아침 흡연 선호 여부	○	○	○					
	아침 흡연 시간	○	○	○					
	아침 흡연 집중 여부	○	○	○					
	아플 때의 흡연 여부	○	○	○					
	하루 흡연량	○	○	○	○				○
	흡연 욕구 자체의 어려움	○	○	○					

다) 직업 특성

부모의 직업 특성은 소득활동 여부, 취/학업 상태의 중단 및 지속 이유와 같은 일반적인 사항과 학업 및 취업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사항으로 구성된다.

〈표 I-2-11〉 차수별 부모 특성 변인: 직업 특성

중분류	소분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일반	소득 활동 여부(취업/학업 상태)	○	○	○	○	○	○	○	○
	취/학업 중단 시기	○			○				
	취/학업 중단 이유	○	○		○				
	향후 취/학업 계획	○	○	○	○	○			
	미취업 이유					○			○
학업	복귀 계획 시기	○	○	○	○				
	복귀 시기	○	○						
	지난 1년간 휴학 여부			○	○				
	통학 소요 시간			○	○				
	학업 상태	○	○	○	○				
	학업 중단 이유	○	○	○	○				
	학업에 할애하는 시간	○	○	○	○				
	휴학 기간			○	○				
	휴학 시기	○	○	○	○				
취업	구직활동 여부				○	○			
	근무 시간: 주말				○	○	○	○	○
	근무 시간: 주중	○	○	○	○	○	○	○	○
	근무 일 수: 주말		○			○	○	○	○
	근무 일 수: 주중					○	○	○	○

(표 I-2-11 계속)

중분류	소분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취업	출퇴근 소요 시간: 주말				○	○	○	○	○
	출퇴근 소요 시간: 주중		○	○	○	○	○	○	○
	복귀 계획 시기	○	○	○	○				
	시간제 근로 희망 이유				○	○			○
	일을 하는 이유				○	○			○
	전반적 직무 만족도	○	○	○	○			○	○
	종사상 지위	○	○	○	○	○	○	○	○
	주 업무 내용		○	○	○	○	○	○	○
	주중 40시간 미만 근로 이유					○			
	직장 내 직위	○	○	○	○	○	○	○	○
	직장, 직위 동일 여부		○	○	○	○	○	○	○
	직종	○	○	○	○	○	○	○	○
	희망 근로 형태				○	○			○
	경력 단절 시 취/학업 상태		○	○	○				
	경력 단절 시기		○	○		○			
	경력 단절 이유	○	○	○	○	○			
	구직활동 이유				○				
	근로 유형	○	○	○	○				
	복귀 시기	○	○						
	이직 이유			○	○	○			
	지난 1년간 휴직 여부			○	○				
	직장의 종사자 수				○	○			
	취업 상태	○	○	○	○	○	○	○	○
	항목별 직무 만족도	○	○	○	○				
	휴직 기간			○	○				
	휴직 사유			○					

라) 개인 특성

부모의 개인적 특성으로는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성역할 가치관, 우울, 행복감 등의 내적 요소와 하루 일과 활동 등의 개인적 삶, 결혼만족도 등의 부부 특성이 있다.

〈표 I-2-12〉 차수별 부모 특성 변인: 개인 특성

중분류	소분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개인내적 특성	자아존중감	○	○	○	○	○	○	○	○
	일상적 스트레스							○	○
	성역할 가치							○	

(표 I-2-12 계속)

중분류	소분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개인내적 특성	우울	○	○	○	○	○	○	○	○
	행복감							○	○
	삶의 만족도								○
	성격								
	자아효능감	○	○	○	○	○			
개인적 삶	일-가정 양립 시 이점과 갈등								◎
	하루 일과 활동 시간 (주중, 주말)					○			
	배우자의 일상 스트레스							○	
부부 특성	결혼 만족도	○	○	○	○	○		○	○
	부부 갈등	○	○	○	○	○		○	○

마) 부모됨

부모됨 특성으로는 양육관,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특성 등이 포함된다.

〈표 I-2-13〉 차수별 부모 특성 변인: 부모됨

중분류	소분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임신 /출산	계획 시기		○	○	○	○	○	○	
	계획 자녀 수	○	○	○	○	○	○	○	○
	이상 자녀 성별	○	○	○	○	○	○	○	○
	이상 자녀 수	○	○	○	○	○	○	○	○
	이상 자녀의 기대 성별 구성	○	○	○		○	○	○	○
	임신 계획 여부	○							
	임신 관련 느낌	○							
	임신 시 보조생식술 도움	○							
	임신 중 기대성별	○							
	출산 관련 느낌	○							
	후속 출산 계획 여부	○	○	○	○	○	○	○	○
	후속 출산 미계획 사유	○	○	○	○	○	○	○	○
	후속 출산 주 영향자		○	○	○				
양육관	자녀 가치(정서적, 도구적)	○	○	○	○		○		
	가정에서 배울 수 있는 자질과 특성	○	○	○		○			
	양육 신념	○	○	○		○			
	자녀의 미래 기대	○	○	○	○		○		
	양육 지식	○	○	○					

바) 양육 특성

부모 특성 변인은 크게 양육 실제 관련 변인, 공동양육, 상호작용 및 부모의 학교 참여로 나뉜다. 양육 관련 실제 변인에는 양육 행동, 양육 스트레스, 양육 효능감 및 양육 시간의 변인이 포함된다. 부모 양육 분담, 공동양육 등의 변인이 공동 양육 관련변인으로 구분되며, 등하교길 동반 빈도, 학교에 참여한 행사 등이 부모의 학교 참여 변인에 포함된다.

〈표 1-2-14〉 차수별 부모 특성 변인: 양육 특성

중분류	소분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양육 실제	양육 스트레스	○	○	○	○	○	○	○	○
	양육행동(온정적)				○	○	○	○	○
	양육행동(통제적)				○	○	○	○	○
	양육행동(사회적)	○	○	○	○				
	양육 효능감							○	
	양육 시간			○	○	○			
공동양육	부모 공동양육							○	○
	양육 분담						○	○	
	아버지의 양육 참여	○	○	○	○	○			
상호작용	부모-자녀 상호작용						○	○	○
부모의 학교 참여	등하교길 동반 빈도								○
	참여한 행사								○
	행사 참여 빈도								○

사) 지원 특성

사회적 지원으로 부모가 받는 도구적, 여가적, 정보적, 정서적 지지와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원 및 지지원과의 관계 등으로 구성된다.

〈표 1-2-15〉 차수별 부모 특성 변인: 지원 특성

중분류	소분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사회적 지지	도구적 지지	○	○	○	○		○	○	○
	여가적 지지	○	○	○	○		○	○	○
	정보적 지지	○	○	○	○		○	○	○
	정서적 지지	○	○	○	○		○	○	○
	지지 인원						○	○	○
	지지원과의 관계						○	○	○

3) 가구 특성 변인

가) 인구학적 특성 및 건강 특성

패널 가구의 인구학적 특성으로 가구 구성, 가구원 수, 핵가족 여부에 대한 사항과 건강 특성으로 질환력 및 흡연에 관련된 사항이 포함된다.

〈표 1-2-16〉 차수별 가구 특성 변인: 인구학적 특성 및 건강 특성

중분류	소분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가구 구성	가구 구성	○	○	○	○	○	○	○	○
	가구원 수		○	○	○	○	○	○	○
	핵가족 여부					○	○	○	
가족 질환력	아토피피부염						○		
	알레르기 비염						○		
	천식						○		
흡연	집안 흡연자들의 흡연 여부							○	
	흡연 노출 빈도								◎
	흡연 노출 여부								◎

나) 가계 경제 요소

가구의 경제적 요소로는 소득, 지출, 자산, 부채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된다.

〈표 1-2-17〉 차수별 가구 특성 변인: 가계 경제 요소

중분류	소분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지출	가구의 비소비성 지출	○	○	○	○	○	○	○	○
	가구의 소비성 지출	○	○	○	○	○	○	○	○
	자녀 대상 비소비성 지출				○	○	○	○	○
	자녀 대상 소비성 지출				○	○	○	○	○
	패널 대상 비소비성 지출	○	○	○	○	○			
	패널 대상 소비성 지출	○	○	○	○	○			
	패널 자녀에 대한 용돈								◎
소득	가구 소득	○	○	○			○	○	○
	공적 이전 소득					○			
	근로(사업) 소득				○	○	○	○	○
	기타 소득				○				
	사적 이전 소득				○	○			
	어머니 희망 근로 소득				○				
	자산 소득				○	○			

(표 I-2-17 계속)

중분류	소분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소득	출산 전/후 소득변화여부				○				
부채	부채액	○	○	○	○	○	○	○	○
	월 상환금	○	○	○	○	○	○	○	○
자산	금융자산	○	○	○	○	○	○	○	○
	부동산	○	○	○	○	○	○	○	○
	주택 소유 형태	○	○	○	○				
	추가 주택 소유 여부	○	○	○	○				
기타	생활비 지원								◎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

다) 가정환경

가정환경 특성은 가정환경의 질에 대한 면접 및 관찰, 가족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역사적 특성으로의 가족생활 사건이 포함된다.

〈표 I-2-18〉 차수별 가구 특성 변인: 가정환경

중분류	소분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가정 환경의 질	다양성				○	○	○	○	
	모방학습				○	○	○	○	
	물리적 환경				○	○	○	○	○
	반응성				○	○	○	○	○
	수용성				○	○	○	○	
	언어자극				○	○	○	○	
	학습자극				○	○	○	○	
	학습자료				○	○	○	○	
	성숙 장려								◎
	정서적 환경								◎
	학습 자료와 기회								◎
	강화								◎
	가족 공동체								◎
	가족 통합								◎
가족 상호작용	균형 있는 유연성						○	○	
	균형 있는 응집성						○	○	
가족생활 사건	규범적 사건	○	○	○	○	○			
	비규범적 사건	○	○	○	○	○			

라) 물리적 특성

가구의 물리적 특성으로는 애완동물과 의식주 환경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표 1-2-19〉 차수별 가구 특성 변인: 물리적 특성

중분류	소분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애완 동물	애완묘 동거 여부						○		
	애완묘 수						○		
의식주 환경	가습기 여부								○
	가습기살균제 노출 시간								○
	가습기살균제 사용 계절								○
	가습기살균제 사용 기간								○
	가습기살균제 사용 여부								○
	가습기살균제와 곰팡이								○
	공기 청정기 사용 여부							○	○
	공기 청정기 설치 장소							○	○
	난방형태								○
	뜨거운 액체 플라스틱 용기 사용여부								○
	리모델링 시기							○	
	리모델링 여부							○	
	리모델링 종류							○	
	방향제 사용 장소								○
	방향제 사용빈도								○
	방향제 여부								○
	식생활 진단표								○
	식수 종류								○
	아이 방 여부								○
	음료수 섭취 빈도								○
	음료수 용기								○
	조리 시 주된 열 공급원							○	○
	조리 시 환풍기 사용							○	○
	조리 후 플라스틱 용기사용 여부								○
	집 바닥재 종류								○
	집 지은 시기								○
	플라스틱 용기사용 여부								○
	플라스틱 용기사용 형태								○
	환기 시간							○	○
	환기 횟수							○	○

4) 육아지원 서비스 특성 변인

가)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관련

패널 아동이 이용하는 육아지원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의 종류, 이용 역사 및 이용/미이용의 이유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표 1-2-20〉 차수별 육아지원 서비스 특성 변인: 이용 관련

중분류	소분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이용 종류	서비스 이용 수							○	
	서비스 이용 여부	○		○				○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유형	○	○	○	○				
이용 역사	서비스 이용 시작 시기					○			
	지난 1년간 서비스 이용 변경 횟수		○	○	○	○	○	○	
	지난 1년간 이용 유형		○	○	○	○			
	향후 1년간 이용 계획 유형		○	○					
	향후 이용 계획				○				
	현 이용 서비스의 최초 이용 여부	○							
이용/ 미이용 이유	대리양육 선택 시 중요 고려점	○	○	○	○				
	보육/교육기관 외 이용 이유						○		
	서비스 미이용 이유		○	○	○	○		○	
	서비스 이용 이유	○	○	○	○	○	○	○	
	중복 이용 이유	○	○	○	○	○	○	○	
	현 기관 이용 이유					○	○	○	

나) 개인대리양육자

아동이 혈연 또는 비혈연 개인대리양육자를 이용하는 경우의 이용 특성과 개인대리양육자의 인구학적 정보 및 비급여 양육 도우미에 대한 내용이 주로 포함된다.

〈표 1-2-21〉 차수별 육아지원 서비스 특성 변인: 개인대리양육자

중분류	소분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비급여 양육 도우미	지원 인력 수		○	○	○				
	아동과의 관계		○	○	○	○			
	동거 여부 및 거주 거리		○	○	○				
	지원 시간		○	○	○				

(표 I-2-21 계속)

중분류	소분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인구학적 정보	결혼 상태	○	○	○	○				
	국적	○	○	○	○	○			
	성별	○	○	○	○	○			
	연령					○			
	자녀양육 경험	○	○	○	○	○			
	최종학력	○	○	○	○	○			
	혈연 여부	○	○	○	○	○			
이용 특성	변경 이유				○	○			
	이용 경로	○	○	○	○				
	거주지	○	○	○	○	○			
	이용 비용	○	○	○	○	○	○		
	이용 비용 부담도		○	○	○	○	○		
	이용 비용 지불 여부 및 방식	○	○	○	○	○			
	이용 빈도	○	○	○	○	○			
	이용 시간	○	○	○	○	○			
	이용 시작 시기	○	○	○	○	○			
	이용 지속성(동일 여부)				○	○			
	이용 횟수								
	전반적 만족도	○	○	○	○	○			
	추가 지원자 이용 비용		○	○	○				

다) 돌봄 및 양육지원

초등학교 입학 후 아동이 이용하는 돌봄 및 양육지원 서비스의 학기 중과 방학 중의 이용 특성으로 구성된다.

〈표 I-2-22〉 차수별 육아지원 서비스 특성 변인: 돌봄 및 양육 지원

중분류	소분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이용 특성	이용 만족도								◎
	이용 비용								◎
	이용 빈도(학기 중, 방학 중)								◎
	이용 시간(학기 중, 방학 중)								◎
	이용 유형(학기 중, 방학 중)								◎

라) 보육/교육 기관

아동이 영유아기에 이용하는 보육/교육 기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표 1-2-23〉 차수별 육아지원 서비스 특성 변인: 보육/교육 기관

중분류	소분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이용 특성	교사 선호도							○	
	기관 변경 여부					○			
	기관 변경 이유					○			
	기관 이용 기간					○			
	기관 이용 비용	○	○	○	○	○			
	기관 이용 비용 부담도		○	○	○	○		○	
	기관 이용으로 인한 지원 만족도							○	
	기관/학교 선호도							○	○
	등·하원 동반자				○	○	○	○	
	등·하원 소요 시간	○	○	○	○				
	등·하원 수단				○	○	○	○	
	등·하원 시간				○	○	○	○	
	이용 빈도		○	○				○	
	이용 시간	○	○	○			○	○	
	이용 시작 시기		○	○	○				
	이용 횟수						○		
	전반적 만족도	○	○	○	○	○		○	
가정 연계	가장 중요한 부모교육 유형				○				
	기관 생활 관심 정도					○	○	○	
	부모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 인식				○				
	부모 참여 행사 만족도				○				
	부모 참여 행사 부모 활동				○				
	부모 참여 행사(교육) 참여 내용	○			○	○	○	○	
	부모 참여 행사(교육) 참여 안내 여부				○				
	부모 참여 행사(교육) 참여 여부	○			○	○	○	○	
	부모 참여 행사(교육) 참여 장소	○							
	부모 참여 행사(교육) 참여 횟수				○				
	부모교육 주요 내용				○				
	부모와의 의사소통				○				
	부모 참여 프로그램 실시 횟수				○				
	육아지원 기관 방문 횟수				○	○	○	○	
	참여가 많은 부모 참여 프로그램				○				
기관 특성	기관 설립유형	○	○	○	○	○	○	○	
	기관 시설 유형				○	○	○	○	
	기관 평가 여부 및 시기		○	○	○	○	○	○	
	서울형 어린이집 여부			○					

(표 I-2-23 계속)

중분류	소분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물리적 환경	교실 규모 적절성						○	○	
	교실 영역 구성				○				
	교실 환경				○	○	○	○	
	실내 대근육 활동 공간					○	○	○	
	실외 놀이 공간				○	○	○	○	
	아동의 휴식 공간				○	○	○	○	
	일상생활 공간 규모 적절성						○	○	
	입지 정보	○	○	○	○				
	재원 아동 수				○	○	○	○	
	학급 수				○	○	○	○	
기관 내 특별활동	별도 비용 지불 여부			○					
	부모 선택 가능 여부			○					
	이용 비용			○	○	○			
	이용 시간			○	○	○	○	○	
	이용 횟수				○	○	○	○	
	특별활동 강사			○					
	특별활동 수			○	○	○	○	○	
	특별활동 유무			○		○	○	○	
	특별활동 종류			○		○	○	○	
	특별활동에 대한 만족도			○					
학급 특성	간식 제공 횟수				○				
	성인 비율(보조교사 수)				○	○	○	○	
	성인 비율(부 담임 수)				○	○	○	○	
	성인 비율(주 담임 수)				○	○	○	○	
	실내자유선택활동 시간				○				
	실내자유선택활동 횟수				○				
	실외놀이 시간				○				
	실외놀이 횟수				○				
	연령 구성				○	○	○	○	
	유치원교육과정 실시 여부				○				
	유치원교육과정 인지				○				
	적정 교사 대 아동 비율						○	○	
	표준보육과정 실시 여부				○				
	표준보육과정 인지				○				
	프로그램 운영 시간				○				
	학급 내 아동 수				○	○	○	○	
	학급 아동 수 적절성						○	○	

마) 교사 특성

아동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등의 육아지원기관 교사의 인구학적 정보, 개인적 특성, 업무 특성, 취업 특성 등으로 구성된다.

〈표 1-2-24〉 차수별 육아지원 서비스 특성 변인: 교사 특성

중분류	소분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인구학적 정보	경력				○	○	○	○	
	성별				○	○	○	○	
	연령				○	○	○	○	
	전공				○	○	○	○	
	경력 안정성				○				
	자격				○	○	○	○	
	학력				○	○	○	○	
	현 기관 근무 경력				○				
개인적 특성	행복감							○	
업무 특성	아동과의 상호작용				○	○	○	○	
	아동의 담임 기간						○	○	
	아동의 담임이 된 시기					○	○	○	
	교수 효능감				○	○	○	○	
	업무 스트레스							○	
취업 특성	근무 시간(주중, 주말)				○	○	○	○	
	근무 일				○	○	○	○	

바) 사교육/특별 활동

아동이 이용하는 영어 학습 및 특별 활동, 사교육과 관련한 비용, 시기, 이용/미이용 이유 등으로 구성된다.

〈표 1-2-25〉 차수별 육아지원 서비스 특성 변인: 사교육/특별 활동

중분류	소분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영어 학습	영어 학습 관련 보유 자료			○					
	영어 학습 시작 시기			○					
	영어 학습 이용 비용			○					
	영어 학습 이용 시간			○					
	영어 학습 진행 동반자			○					
	영어 사교육 이유								◎

(표 I-2-25 계속)

중분류	소분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사교육/ 특별활동	이용 이유								◎
	미이용 이유								◎
	이용기관 유형								◎
	이용 만족도								◎
	이용 기간		○	○	○				
	이용 비용	○	○	○	○	○	○		◎
	이용 시간	○	○	○	○	○	○		◎
	이용 시작 시기					○			
	이용 횟수	○	○	○	○	○	○		
	진행 방식		○	○	○				
	진행 장소		○	○	○				
	특별활동 수		○					○	
	특별활동 유무	○	○	○		○		○	
	특별활동 종류	○	○	○	○	○	○	○	◎
	학습지 교사 유무			○	○				
	학습지 이용 여부		○	○	○				

5) 지역사회 특성 변인

가) 물리적 특성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물리적 특성으로 육아관련 시설 및 기관에 관한 충분/편리성과 만족도, 거주지 주택 및 지역 유형 등이 포함된다.

〈표 I-2-26〉 차수별 지역사회 특성 변인: 물리적 특성

중분류	소분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가용 기관	사교육 기관 충분성	○	○	○	○	○	○	○	
	공공 여가 공간·시설 이용 편리성	○	○	○	○	○	○	○	○
	문화시설 이용 편리성	○	○	○	○	○	○	○	○
	공공 복지시설 이용 편리성								◎
	공공 여가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
	문화시설 이용 만족도								◎
	공공 복지시설 이용 만족도								◎
	어린이집 충분성	○	○	○	○				
	유치원 충분성	○	○	○	○				
	육아지원 기관 충분성					○	○	○	

(표 I-2-26 계속)

중분류	소분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거주지 특성	주택 유형	○	○	○	○	○	○		
	거주 지역 유형	○	○	○	○	○		○	○
	안전사고 안전성	○	○	○	○		○	○	
	치안 안전성	○	○	○	○		○	○	
	17개 권역	○	○	○	○	○	○	○	○
	6개 권역	○	○	○	○	○	○	○	○
	시/군/구	○	○	○	○	○	○	○	○
	이사 여부						○		
	이사 횟수						○	○	○
	양육 환경 적절성	○	○	○	○	○			○
	전입 시기	○	○	○	○		○		
	지역규모	○	○	○	○	○	○	○	
	출생 시 거주지						○		
	태아/신생아기 장기 거주지						○		
	현 거주 주소	○	○	○	○	○	○	○	○

6) 육아지원 정책 특성 변인

가) 국가지원

정책적 특성은 가족친화 정책, 공공부조 등에 대한 수혜 등에 대한 사항과 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개인적 의견 수합 등으로 구성된다.

〈표 I-2-27〉 차수별 육아지원 정책 특성 변인: 국가지원

중분류	소분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아동복지 및 양육지원 정책	수혜 경험 여부	○	○	○	○	○	○	○	○
	지원 내역(비용 지불 여부)			○	○	○	○	○	
	지원 만족도			○	○	○			
	수혜/추가 지불 비용			○	○				
	지원의 도움 정도						○	○	○
공공부조	출산계획 영향 여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구분	○	○	○	○	○	○	○	○
정책 방향	육아지원정책의 방향	○	○	○	○				
	출산력 제고에의 영향력							○	
	향후 개선 방안						○		
	출산 및 양육 환경 향상에 대한 영향							○	◎

나) 보육/교육 정책

국가 지원에 대한 내용 중 보육/교육 정책과 관련한 내용으로 보육비 면제, 후속출산 관련 사항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표 1-2-28〉 차수별 육아지원 정책 특성 변인: 보육/교육 정책

중분류	소분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보육·교육 정책	교육/보육기관 지원 시 후속출산 의사		○	○	○	○			
	금액 지원 시 후속출산 의사		○	○	○	○			
	금액 지원시의 적정 금액		○	○	○	○			
	도움 정도								
	보육비 면제(감면) 사유	○	○	○	○				
	보육비 면제(감면) 여부	○	○	○	○				
	인식 여부				○	○	○	○	
	지원 내역								
	지원 여부								
	출산계획 영향 여부				○	○	○	○	
	필요성 인식					○	○	○	

다) 직장에서의 지원

국가 지원과 별개로 각 패널 부모가 소속된 직장에서의 가족친화 정책과 일반적인 지원책에 대한 필요성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표 1-2-29〉 차수별 육아지원 정책 특성 변인: 직장에서의 지원

중분류	소분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 / 방식	시행 여부	○	○	○	○	○		○	○
	양육 도움도				○				○
	이용 여부	○	○	○	○			○	○
	필요 순위	○	○	○	○	○	○	○	○
	미이용 이유				○				
	이용 만족도	○	○	○	○				
	이용 이유				○				
	출산 및 양육 환경 향상에 대한 영향								◎
	필요성	○	○	○	○	○	○	○	
	후속출산 도움 정도				○				

7) 학교 특성 변인

학교 특성 변인은 학교, 교사 특성 및 유-초 연계 관련 내용으로 구성된다. 세부적으로 학교 특성은 물리적 환경과 운영 관련, 교사 특성은 인적 사항과 업무, 교수자 특성 등으로 구성된다. 연계 특성은 가정과의 협력(참여)부분과 함께 8차년도 조사에서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함에 따라 유-초 연계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다.

〈표 1-2-30〉 차수별 학교 특성 변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학교 특성	물리적 특성	교실 크기 적절성
		학교 환경
		학급 아동 수 적절성
		적정 교사 대 아동 비율
	운영 특성	설립유형
		1학년 등교시간
		급식 장소
		무상급식
		통합학급
		초등돌봄교실 운영
		특별실 및 기타시설 환경
		특색사업 해당여부
		설립유형
교사 특성	교사 특성	경력
		성별
		연령
		직위
		학력
	업무 특성	근무 시간(주중, 주말), 근무 일(주말)
		과제 부과정도
		교수 효능감
		교직 만족도
		교직동기
		동료 교사 태도 인식
		수업활동
		스트레스 정도
		학교장의 지도성

(표 I-2-30 계속)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연계 특성	가정 협력	부모의 학교생활 관심 정도
		부모의 학교행사 참여
	유아-초등 연계	유아기 발달 특성에 대한 인지 정도
		유-초 교육과정 간 연계 필요성
		유-초 연계 관련 연수 여부
		학기 초 적응활동 도움 정도

다. 7차년도 자료 기초분석 및 영유아(1~7차년도) 종단 자료 분석

2014년에 실시한 7년차 일반조사 결과에 대해 기초분석을 실시하여, 만 6세아의 발달과 이와 관련된 가정환경 및 부모특성, 기관·교사 변인, 지역사회와 육아정책의 수혜 등 생태학적 제 요인을 검토하였다. 특히 7차년도 기초분석에서는 유아의 성별, 모의 취/학업 여부, 형제순위 및 자녀수, 가구 소득, 지역 구분 등에 따라 조사 내용을 검토해 봄으로써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세분화된 특성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아동패널이 지속적으로 조사해 온 주요 변인들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변인의 전반적인 추이와 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지난 7년 간 0~6세 패널아동의 발달 요인을 생태학적 요인에 따라 분석하여 영·유아기 종단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학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라. 자료 공개 및 패널 유지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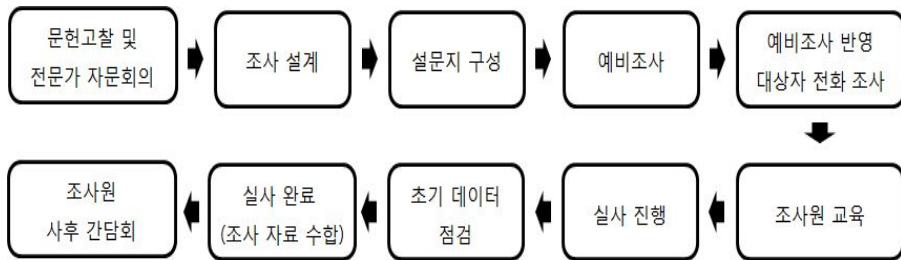
6차년도 자료 클리닝을 완료하고 일반 공개를 진행하였다. 2013년에 조사가 완료된 6차년도 자료의 클리닝을 1차적으로 마친 뒤 이를 활용한 학술대회 등 지속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 데이터 클리닝을 완료한 후 2015년도 12월경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료를 공개하고자 하였다.

패널 유지와 자료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초등학교 입학에 따라 학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아동의 개별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8차년도 조사에서는 패널 유지가 주요한 과업으로 요구되었다. 패널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수행해온 브로슈어, 생일 카드 및 연말 연하장 발송, 거주지 정보 변경 고지에 따른 사례품 제공 등을 진행하며 참여율 제고 방안을 모색하였다.

3. 연구방법

가. 8차년도 일반조사

8차년도 일반조사는 [그림 I-3-1]과 같은 순서를 기본으로 하여 진행되었다.



[그림 I-3-1] 한국아동패널 실사 진행 흐름도

조사에 앞서 전년도 조사 자료의 검토는 물론 조사 연령 관련 국내·외 연구 결과, 유사 연령 국내·외 패널 및 코호트 조사를 검토하여 연구의 추이를 검토함으로써 국내·외의 연구경향을 살펴보고, 연령에 적합한 연구 변인 및 도구를 선정하였다. 또한 관련 전문가들과의 자문회의 및 서면 검토를 통하여 조사의 설계와 방향, 척도의 선정 및 적용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조사에 앞서 구성된 설문지의 적절성 및 실제 조사 수행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타당도 점검을 위한 전문가 검토 및 예비조사를 실시하며, 이를 반영하여 일부 문항 표현 및 순서 조정, 연구 도구의 진행 방법 등의 조율을 거쳐 조사원 지침서를 작성하고 실사 문항 구성을 완료하였다.

실질적 조사 진행에 앞서 예비조사 및 전문가 서면 검토를 반영하여 최종 질문지를 확정하는 동시에 대상자 전화 조사를 통해 방문 주소 확인 등의 기초 정보를 확인하고, 조사원 교육을 통해 실사 진행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전화 조사를 토대로 가구 방문 전 지필 조사 질문지가 발송되며, 면접 및 관찰 조사와 수행 검사는 컴퓨터 프로그램화 된 설문지(CAPI)를 통해 이루어지고, 부모대상 설문지는 가구 방문일에 수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아동이 수행검사를 진행하는 동안 패널 아동의 부모는 아동과 분리되어 지필식 조사에 참여하게 되며, 부모의 동의 하에 아동의 담임교사를 컨택하여 Web 조사를 통해 진행되었다(표 I-3-1 참조).

〈표 1-3-1〉 한국아동패널 실사 진행 방식

진행 방법	내용	응답대상
전화 조사	조사 참여 유도, 방문 관련 정보 확인	주양육자
지필 조사 (우편)	아동특성, 부모특성, 지역사회 특성 등	어머니 아버지
CAPI 조사	아동특성, 가구특성, 지역사회 특성 등	주양육자
	MC-HOME 가정환경의 질	주양육자, 관찰, 측정
	또래관계, 학교생활 등	아동
수행 검사	REVT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	아동
지필 조사 (가구방문)	아동 행동발달 특성	주양육자
	건강관련 특성	
Web 조사	아동 특성, 학교 특성, 가정협력 등	아동의 담임교사

본격적인 실사가 진행되는 동안 초기 데이터 점검을 통해 오류를 최소화하였다. 또한 실사 진행 중 정기적으로 조사 완료 자료가 정확한지와 대상자가 직접 응답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 전화 조사를 통해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조사가 완료된 자료는 최종 수합되어 정리 작업을 거쳐 데이터로 구성되며, 실사 진행 중의 특이사항, 이후의 보완 사항을 조사원 사후 간담회를 통해 수합하여 이후 조사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실사 진행과 관련하여 패널 대상자 유지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안부 문자 발송, 육아 관련 정보의 홈페이지 제공, 패널 활용 기사 문자 알림 등의 홍보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발달 검사 결과 공지 및 통보, 경품 행사, 연하장 발송 등을 통해 대상자 유지에 힘쓰고 있다.

나. 병원 방문 조사²⁾

2015년도 조사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알레르기 질환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소아아토피천식센터와의 연구협력으로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병원 방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병원 방문 조사는 신청하는 패널에 한하여 진행되었으며, 전국 16개 거점병원에서 검사를 실시하였다.

2) 병원조사는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소아아토피천식센터(센터장: 홍수중 교수) 주관으로 시행하며, 본 연구소와 MOU를 기반으로 함.

1)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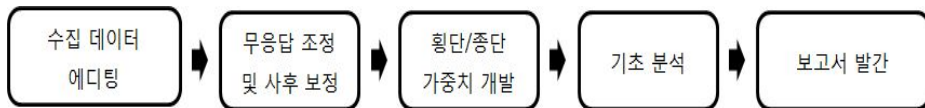
아동의 식이 습관에 대한 조사로, 병원 방문 시 어머니 또는 보호자가 작성한다. 지난 1년간의 식품섭취빈도, 식생활에 대한 12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알레르기 검사

알레르기 여부 및 건강 상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각 거점병원의 의료전문가에 의한 혈액검사, 피부단자시험(알레르기 피부반응검사), 폐 기능 검사, 메타콜린 기관지 유발 시험, 소변검사, 피부 배양 검사, 대변 배양 검사와 같은 7개 검사를 시행한다.

다. 자료 분석

일반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당해 연도 후반부터 이후년도 초반까지 데이터 에디팅 작업을 통해 이상치 및 논리적 오류 검토 작업이 진행된다. 1차적 검토가 완료된 자료는 이후 무응답 조정 및 사후 보정 단계를 거쳐 횡단 및 종단 가중치 개발이 진행되며, 개인정보 등 비공개 데이터로 활용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변수 생성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정리된 자료는 한국아동패널의 기초 분석 및 심층 연구를 통해 분석 작업이 이루어지며, 보고서 발간이 완료된다. 「한국아동패널 2015」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 2014년에 수집된 7차년도 자료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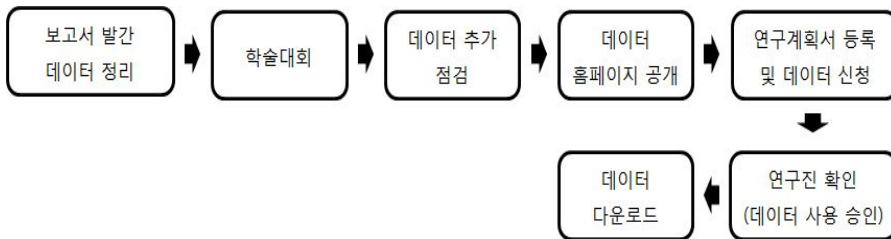


[그림 1-3-2] 한국아동패널 연구 진행 흐름도

라. 자료 공개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에 의하여 기초 분석 등의 점검 절차가 완료된 자료는 외부 공개를 위한 데이터 정리 작업을 거쳐 학술대회를 통해 1차적으로 공개되며, 학술대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토대로 추가적인 데이터 점검이 이루어진다.

데이터 점검이 완료된 자료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개별 연구자는 연구 계획서 등록 및 데이터 신청 절차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 2015년도 12월에는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2013년도에 수집된 6차년도 데이터가 공개될 예정이며, 도구프로파일은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3-3] 한국아동패널 자료 공개 진행 절차

마. 패널관리, 홍보 및 데이터 관리

한국아동패널은 동일한 대상을 장기 추적하는 종단 연구로 패널 유지가 연구의 성공을 좌우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에 따라 패널이 매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 시기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패널 가구의 이사 여부, 연락처 변동 사항 등의 내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패널이 자발적으로 변경 사항을 연구진에게 고지할 때 선물을 발송하는 등 연락책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당해년도 조사의 참여율을 높이고자 경품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패널 아동의 생일에는 축하 카드를 직접 발송하고, 매해 연말 연하장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아동패널 연구의 주요 목적인 관련 연구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연구자들을 위해 패널 연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국문 및 영문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연구자들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바. 패널 자료 활용을 통한 연구 확산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한 연구의 확산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국내 또는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올해는 국내학술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부가적으로 자료 공개 및 연구의 확산을 위해 데이터에 대한 사용자매뉴얼, 코드북

및 도구 프로파일을 제작, 배포하고 데이터를 학술대회 활용용으로 제한하여 배포한다. 또한 학술지 및 학위 논문 작성을 위해 한국아동패널 자료가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4. 국제 패널 연구 동향

국외에서의 아동의 성장발달을 추적하는 연구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여전히 높다. 이에 국제 패널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그 간 이루어진 아동관련 종단연구는 <표 I-4-1>, 국가별 주요 패널 조사는 <표 I-4-2>에 제시하였다.

<표 I-4-1> 국가별 아동관련 종단연구

국가	아동관련 종단연구
남아프리카	Birth to Twenty (BT20)
덴마크	Danish National Birth Cohort (DNBC)
	The National Children's Study(NCS)
	Child Development Supplement to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PSID-CDS)
미 국	Early Childhood Longitudinal Study (ECLS)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1979 Children and Young Adults (NLSY79)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97 (NLSY97)
미 국	NICHD Study of Early Child Care and Youth Development (SECCYD)
스페인	Child Health and the Environment: The INMA Spanish Study
아일랜드	Growing up in Ireland: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Children
	Millennium Cohort Study (MCS)
	The 1970 British Cohort Study (BCS70)
영 국	National Child Development Study (NCDS)
	Born in Bradford (BiB)
	Growing Up in Scotland Study (GUS)
캐나다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Children and Youth (NLSCY)
	Quebec Longitudinal Study of Child Development (QLSCD)

(표 I-4-1 계속)

국가	아동관련 종단연구
프랑스	Growing up in France: Etude Longitudinale Francaise depuis l'Enfance (ELFE)
호주	Growing Up in Australia: Longitudinal Study of Australian Children (LSAC)
기타	European Longitudinal Study of Pregnancy and Childhood (ELSPAC) Centre for Longitudinal Studies (CLS)

〈표 I-4-2〉 국가별 주요 패널 조사

국가	아동관련 종단연구
남아프리카	KwaZulu-Natal Income Dynamics Study (KIDS)
네덜란드	Dutch Socio-Economic Panel (ISEP)
대만	Panel Study of Family Dynamics (PSFD)
독일	German Socio-Economic Panel Study (GSOEP)
러시아	Russia Longitudinal Monitoring Survey (RLMS)
룩셈부르크	Panel Socio-Economique "Liewen zu Letzebuerg" (PSELL)
멕시코	Mexican Family Life Survey (MxFLS)
미국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PSID)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NLS) National Survey of Families & Households (NSFH)
벨기에	Panel Study on Belgian Households (PSBH) Belgian Socio-economic Panel (SOEP)
스웨덴	Swedish Panel Study Market and Nonmarket Activities (HUS)
스위스	Swiss Household Panel (SHP)
영국	British Household Panel Survey (BHPS)
이탈리아	Indagine Longitudinale Sulle Famiglie Italiane (ILFI)
인도네시아	Indonesia Family Life Survey (IFLS)
일본	Japan Panel Study on Consumers (JPSC)
중국	Chinese Longitudinal Healthy Longevity Survey (CLHLS)
캐나다	Survey of Labour and Income Dynamics (SLID)
폴란드	Polish Household Panel (PHP)
프랑스	French Household Panel
헝가리	Hungarian Household Panel
호주	Household, Income and Labour Dynamics in Australia (HILDA)
기타	European Community Household Panel Study (ECHP)

제시된 연구 중, 주요 국가에서 비교적 큰 규모로 진행되었던 세 연구(ECLS, QLSCD, ELFE)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Early Childhood Longitudinal Study(ECLS)³⁾

미국의 ECLS는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NCES)에서 주관하여 1998년부터 현재까지 아동의 발달, 학교 준비도, 학교 경험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루는 종단 연구이다. 아동의 가정보육에서 기관보육으로의 과도기, 영유아 교육프로그램 및 학교, 아동의 8학년까지의 학교 경험, 전반적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관계, 아동 발달과 학습에 관한 개인적 변인들을 주요 연구내용으로 한다.

ECLS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되며, ECLS-B(Birth Cohort), ECLS-K(Kindergarten Class of 1998~99), ECLS-K:2011(Kindergarten Class of 2010~11)이다. ECLS-B는 2001년도에 출생한 약 14,000명의 아동을 유치원 입학 전까지 종단적으로 연구한 것으로 9개월(2001년 2월), 만 2세(2003년 4월), 만 4세(2005년 6월), 2006년 가을학기, 2007년 가을학기에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학교에서 아이들을 직접 평가하고 부모 및 교사가 설문조사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ECLS-K는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의 종일/반일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을 8학년까지 종단연구한 것으로 유치원 봄학기(1998~99년), 1학년 가을 및 봄학기(1999~2000년), 3학년 봄학기(2002년), 5학년 봄학기(2004년), 8학년 봄학기(2007년)에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학교에서 아이들을 직접평가하고, 부모를 대상으로 한 전화 조사, 교사와 학교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ECLS-K:2011은 2011~12년도에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의 종일/반일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을 종단 연구하는 것으로 유치원 봄/가을 학기(2010~11년), 1학년 봄/가을 학기(2011~12년), 2학년 봄/가을 학기(2012~13년), 3학년 봄학기(2014년)와 올해 조사인 4학년 시기의 데이터 수집이 완료되었으며, 5학년 봄학기(2016년)에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다. ECLS-K:2011은 ECLS-K와 동일한 조사 방식으로 진행하되, 부모 중 전화 인터뷰가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인터뷰 방식을 적용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나. Québec Longitudinal Study of Child Development(QLSCD)⁴⁾

캐나다의 QLSCD는 건강사회부(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Services)에서

3) <http://nces.ed.gov/ecls/index.asp> 2014.6.16.에 인출.

4) http://www.iamillbe.stat.gouv.qc.ca/default_an.htm 2014.6.16.에 인출.

주관하여 1998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하는, 퀘백에 거주하는 아동의 놀이, 사회 적응 및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종단 연구이다. QLSCD에서는 가족, 아동 보육과 사회적 환경이 아동복지와 안녕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연구와 자발적 학습, 학교 준비도, 건강, 변화하는 가족 구조, 보육 프로그램, 수면, 동기, 또래 폭력 등 다양한 주제를 연구한다.

주로 컴퓨터 활용 조사, 지필식 설문조사, 자기 기입식 조사, 생활 관찰 등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며 크게 3단계로 진행된다. 첫 번째 단계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1998년에 2,120명의 영아를 5개월부터 만 4세까지 매년 조사하였으며, 두 번째 단계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1,500명 이상의 아동을 유치원부터 2학년 때까지 매년 조사하였다. 이 기간 동안 아동의 심동발달 및 신체검사도 함께 진행하였으며, 2학년 이후에는 2년에 한번 씩 조사하였고, 아동이 4학년, 6학년 시기에 학기가 끝나기 전 3월~6월에 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만 13세~17세 아동을 대상으로 그들이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격년으로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흡연, 음주 등 위험한 행동을 포함하여 학교 폭력, 자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하였다.

다. Etude Longitudinale Francaise denuis l'Enfance(ELFE)⁵⁾

프랑스의 종단연구센터(The Centre for Longitudinal Studies)에서 주관하여 2011년부터 2031년까지 진행하는 ELFE는 아동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들의 건강, 학교생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증진시키고자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종단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출산 이전, 출산, 출산 이후 산모의 혈액, 소변, 모유 등 신체적 상태를 조사하고, 2011년에 출생한 18,000명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출생 2달 후, 만 1세, 만 2세, 만 3세 반, 만 5세 반일 때 부모와 전화 인터뷰로 조사를 진행한다. 주요 연구내용은 가족구성, 거주방법, 부모의 직업, 경제적 여건 및 자녀의 식사 시간, 학교 시작 시기, 또래 관계, TV시청 습관 등 자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질문을 포함한다.

5) <http://www.cls.ioe.ac.uk/Default.aspx> 2014.6.16.에 인출.

II. 8차년도(2015) 패널 연구 사업 보고

1. 8차년도 조사·연구의 특징

가. 8차년도 조사 개요

1) 조사 대상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 조사는 2008년 4월~7월에 출생한 2,150가구의 전체 패널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의 응답자는 패널 아동의 주양육자(어머니, 아버지)⁶⁾와 패널 아동, 아동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의 담임교사였다. 담임교사의 참여는 일차적으로 각 가구 방문 시 담임교사에게 조사를 부탁해도 된다는 아동 부모의 허가 하에 진행되었으며, 부모가 동의한 경우 아동의 담임교사에게 교육부 공문과 함께 조사 참여를 권유하였다. 각 지역별로 분포 된 패널 가구는 다음의 <표 II-1-1>과 같다.

<표 II-1-1> 권역별 원 표본 수

		단위: 가구, %	
권역	지역	사례 수	비율
서울권	서울	307	14.3
경인권	경기, 인천	700	32.6
충청/강원권	대전, 충청북도, 충청남도, 세종, 강원	298	13.9
경북권	대구, 경상북도	235	10.9
경남권	부산, 울산, 경상남도	366	17.0
전라권	광주,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	244	11.3
계		2,15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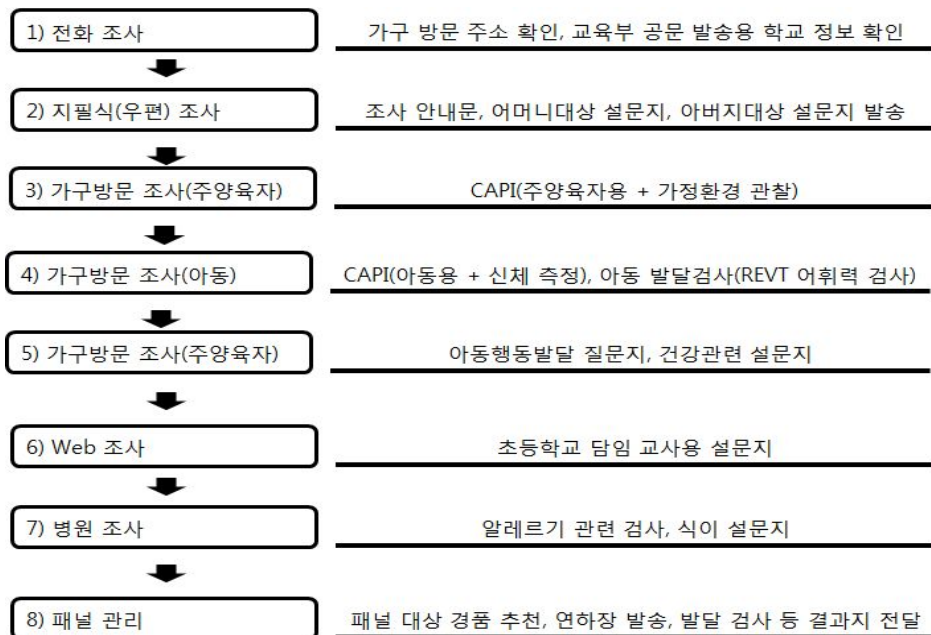
주: 8차년도 전화조사를 통해 확인한 패널 가구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함.

2) 조사 방법 및 내용

2015년 한국아동패널 조사는 5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우편 발송 및 가

6) 주양육자는 패널 아동의 부모(주로 어머니)였으며, 부모가 모두 부재한 경우 조부모 및 친인척이 조사에 참여함.

구 방문시 진행되는 지필식(PAPI: Paper and Pencil Personal Interview) 조사, 컴퓨터를 활용하여 개별 면담 및 관찰로 수행되는 CAPI(Computer-Assisted Personal Interview) 조사, 개별적으로 수행되는 아동 발달 검사,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CAWI(Computer-Assisted Web Interview) 조사, 병원 방문 조사이다. 8차년도 조사 진행 방법은 [그림 II-1-1]과 같으며, 이에 따른 주요 조사 방법 및 조사 내용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그림 II-1-1]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 조사 진행 방법

가) 전화 조사

전화 조사는 아동패널 가구 방문 전 8차년도 조사에 대한 개괄적인 안내와 참여 의사 확인을 위해 실시되었다. 5월 11일부터 5월 27일까지 약 보름에 걸쳐 조사 진행을 위하여 가구의 주소 및 연락처를 확인하였다. 2015년 전화 조사에서는 대다수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점을 고려하여, 교사용 설문지 수행을 위한 교육부 공문 작성을 위해 아동의 학교 정보(학교명, 반, 소재지)를 함께 확인하였다.

나) 지필식(우편) 조사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기 2~4주 전 어머니대상 설문지와 아버지대상 설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부모 설문지는 각 패널 아동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각각 수기로 작성하여 가구 방문 조사 진행일에 조사원에 의해 수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조사일에 수거하지 못할 경우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수거하였다. 부모 설문지는 응답자의 참여 편이를 고려하고 수거율을 높이기 위하여 희망자에 한하여 web조사로 진행하였다.

어머니대상 설문지와 아버지대상 설문지는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구성되나, 어머니의 직업적 특성 및 일-가정 양립 시 이점과 갈등에 대한 내용은 CAPI(주양육자용) 면접조사를 통해 조사되었다. 부모 설문에는 첫째,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건강, 양육, 부모됨, 직업 관련 등의 부모 개인에 대한 특성, 둘째, 아동의 초등학교 관련 특성, 셋째, 지역사회 관련, 넷째, 정책 관련 특성 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설문지의 구성 내용은 <표 II-1-2>와 같다.

〈표 II-1-2〉 8차년도 부모대상 설문지 구성

대상	대분류	중분류	주요변인(소분류)
부모	인구학적 특성	응답자 특성	아동과의 관계, 성별, 어머니 여부
	개인 특성	개인적 특성	자아존중감, 우울, 일-가정 양립 시 이점과 갈등 행복감, 일상적 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결혼 만족도, 부부 갈등
			음주 여부, 음주 양, 과음 횟수
	건강 특성	흡연	흡연 여부, 하루 흡연량
			주관적 건강상태
			양육 실제
	양육 특성	공동양육	양육 스트레스, 양육행동(온정적, 통제적)
			부모 공동양육
			상호작용
	부모됨	임신/출산	후속 출산 계획 여부, 계획 자녀 수
			후속 출산 미계획 사유
			이상 자녀 수, 이상 자녀 성별
학교	직업 특성 (아버지)	취업	직장 내 직위, 직장/직위 변동 여부, 직종
	이용 관련	부모의 학교참여	등·하교길 동반 빈도 참여한 행사, 행사 참여 빈도

(표 II-1-2 계속)

대상	대분류	중분류	주요변인(소분류)
지역 사회	물리적 특성	가용 기관	공공 여가 공간·시설 이용 편리성, 만족도
			문화시설 이용 편리성, 만족도
			공공 복지시설 이용 편리성, 만족도
		거주지	거주 지역 유형, 양육 환경 적절성
정책	직장에서의 지원	가족친화 정책	시행 여부, 이용 여부, 양육 도움도
			필요 순위
			출산 및 양육환경 향상에 대한 영향

다) 가구 방문 조사(본조사)

본조사는 조사원이 아동패널 가구를 방문하여 실시하는 가구 방문 조사를 의미하며, 주양육자와의 CAPI 면대 면 조사 및 가정환경 관찰, 아동대상 CAPI 면대 면 조사 및 발달 검사 수행, 주양육자의 지필식 조사로 구성된다.

(1) CAPI(주양육자용)

조사원과 주양육자가 CAPI 방식으로 면대 면 조사를 실시하는 CAPI(주양육자용) 설문지는 지필식 설문지로 응답하기 까다로운 문항 및 개인 정보에 대한 내용, 중단 확인이 필요한 문항 등이 주로 포함된다.

8차년도 CAPI(주양육자용)의 내용 구성은 첫째,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 및 전반적인 발달 특성, 일상생활에 대한 내용, 둘째, 부모의 개인 및 건강, 직업 및 사회적 지지에 대한 내용, 가구의 인구학적 구성 및 경제적 요소에 대한 내용, 셋째, 육아지원 서비스 및 아동이 이용 중인 학교에 대한 특성, 넷째, 지역사회 및 정책적 수혜에 대한 내용 등으로 이루어졌다. CAPI(주양육자용) 설문에는 가정환경에 대한 질의응답 및 관찰이 포함되며, 관찰은 조사대상에게 양해를 구한 뒤 조사원에 의해 실시되었다.

〈표 II-1-3〉 8차년도 CAPI(주양육자용) 설문지 구성

대상	대분류	중분류	주요변인(소분류)
아동	인구학적 특성	아동 명	아동 이름 변동 사유
		출생순위	출생순위 및 변동 사유
	건강 특성	건강 보조도구	안경 착용 여부, 시기
		상해 및 병력	병력(상해) 여부, 횟수
			질환 의사진단 여부, 진단 시기

(표 II-1-3 계속)

대상	대분류	중분류	주요변인(소분류)	
아동	건강특성	입원/통원치료	입원 여부, 기간, 이유, 횟수 통원치료 횟수	
		장애	진단 여부, 급수 주관적 건강상태	
		신체 특성	처음 유치가 빠진 시기, 빠진 유치 수, 충치 수	
		신체특성	소근육 우세 손	
		사회/ 정서발달	또래관계 부모님이 아는 친구 수	
	일상생활	학교생활	초등학교 적응 정도	
		수면 관련	밤잠 시간, 기상 시간, 취침 시간	
		미디어 관련	미디어 이용 이유, 휴대폰(스마트폰) 소유 여부	
		부모 관련	부모 감독, 어른 없이 지내는 시간	
		일과 관련	숙제 시 도와주는 사람, 도움 정도 일과 활동 시간, 활동 빈도	
	사교육 서비스	학교생활	결석 횟수, 이유 초등학교 진학 여부 , 미진학 이유, 이용기관 미이용 이유, 이용 이유, 영어 사교육 이유 교과목, 이용기관 유형 이용비용, 비용부담도, 이용시간, 이용만족도	
		개인특성	개인적 특성	일-가정 양립 시 이점과 갈등
		건강특성	장애/질환	1·2급 장애 유무
		인구학적 특성	인구학적 특성	연령, 최종학력, 결혼 상태, 결혼 시기 아동과의 동거 여부, 비동거 이유
		지원특성	사회적 지지	도구적, 여가적, 정보적, 정서적 지지 인원, 지지원과의 관계
부모	직업특성 (어머니)	일반	소득 활동 여부, 미취업 이유, 일을 하는 이유 취업 상태, 직종, 종사상 지위, 직위 동일 여부 희망 근로 형태, 시간제 근로 희망 이유 근무 시간, 근무 일 수, 출퇴근 소요 시간 (주말, 주중)	
		취업	전반적 직무 만족도	
	가구	가구경제 요소	부채	부채액, 월 상환금
			소득	가구 소득, 근로(사업) 소득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자산	금융자산, 부동산
지출			가구의 비소비성 지출, 소비성 지출 자녀에 대한 비소비성 지출, 소비성 지출 패널 자녀에 대한 용돈	
가정환경		가정환경의 질 (관찰 포함)	반응성, 성숙 장려, 정서적 환경, 학습자료와 기회, 강화, 가족 공동체, 가족 통합, 물리적 환경	

(표 II-1-3 계속)

대상	대분류	중분류	주요변인(소분류)
가구	인구학적 특성	가구 구성	가구 구성, 가구원 수
		구성원 특성	손아래형제 출생년도, 성별, 입양 여부 손위형제 출생년도, 성별, 결혼 여부
	물리적 특성	의식주 환경	아이 방 여부
육아 지원	돌봄 및 양육지원	이용 특성	이용 유형, 빈도, 시간(학기 중, 방학 중) 이용 비용, 이용 만족도
학교	학교특성	학교 정보	초등학교 유형
지역 사회	일반적 특성	거주지	현 거주지, 이사 횟수
정책	국가지원	가족친화 정책	수혜 경험 여부, 지원의 도움 정도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구분 시행 여부, 이용 여부
	직장에서의 지원	가족친화 정책	필요 순위, 양육 도움도
			출산 및 양육환경 향상에 대한 영향
	기타	공공부조	생활비 지원

(2) CAPI(아동용)

CAPI(주양육자용) 조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관찰이 종료되면,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아동의 신체 치수를 측정하고, 아동이 직접 응답하는 면접 조사를 진행하였다. 주양육자 조사와 아동 조사의 순서는 당일 조사 아동의 컨디션에 따라 조절될 수 있지만, 신체 치수 측정을 제외한 조사에서는 주양육자와 아동이 분리된 상태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원과 아동이 CAPI 방식으로 면대 면 조사를 실시하는 CAPI(아동용) 설문지는 아동의 발달특성을 고려하여 조사에 흥미롭게 참여하고 조사원에 의한 편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문 문항을 컴퓨터 활용 방식으로 구성하였으며, 내용 구성은 <표 II-1-4>, 화면 구성의 예시는 [그림 II-1-2]와 같다.

<표 II-1-4> 8차년도 CAPI(아동용) 설문지 구성 및 수행검사

대분류	중분류	주요변인(소분류)
언어 발달 (수행검사)	어휘력	수용어휘력, 표현 어휘력
신체 발달	신체 크기	신장, 체중, 허리둘레
사회·정서 발달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주관적 행복감	주관적 행복감

(표 II-14 계속)

대분류	중분류	주요변인(소분류)
사회·정서 발달	또래관계	주말에 친구와 노는 빈도, 친구와 싸우는 빈도
		친하게 지내는 친구 수
		학교 밖에서 친구와 노는 빈도
	미래 기대	미래 가치, 꿈, 최종진학계획
	부모 관련	부모의 학교 공부 관심도 인식
	선호도	과목 선호도, 교사 선호도
전반적 행복감		전반적 행복감
학교생활	학교생활	수업을 열심히 듣는 빈도, 기분이 좋은 빈도
		시간낭비라는 생각의 빈도, 자주 지루한 빈도
		학교 다니는 것의 즐거움 빈도

미디어 리서치
MillwardBrown

(525006) II 주관적 행복감

0% 28% 100%

Q4) 보통 (이)는.....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한 편이에요. 	매우 행복해요. 
(1)	(2)	(3)	(4)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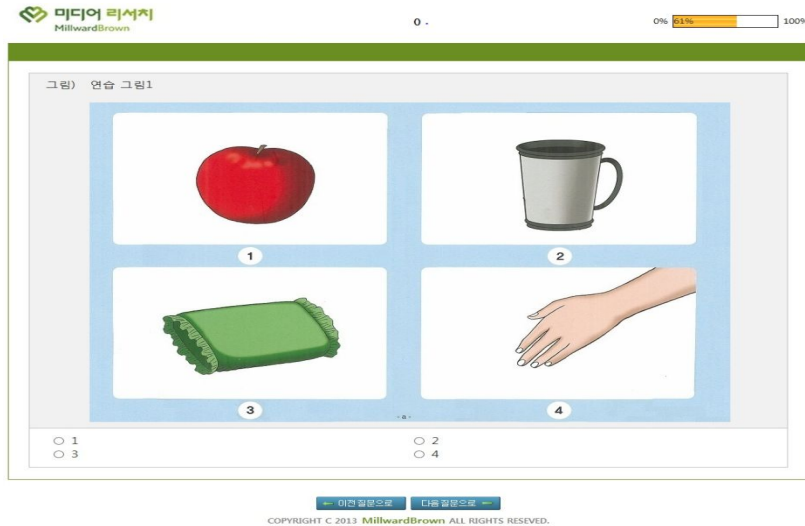
✖ NEXT ➡

COPYRIGHT © 2013 MillwardBrown ALL RIGHTS RESEVED.

[그림 II-1-2]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 CAPI(아동용) 예시

(3) 아동 발달검사

아동의 CAPI(아동용) 설문이 종료되면 어휘력 발달에 대한 수행검사를 진행하였다. 수행검사는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과의 MOU 협약을 통하여 아동의 조사 흥미도를 고취시키고 조사 진행이 수월하도록 CAPI 방식을 적용하여 진행하였다. 표현 어휘력의 경우 아동의 반응을 검사지에 수기로 기록하여 사후 코딩하는 방식을 병행하였다. 화면 구성의 예시는 [그림 II-1-3]과 같다.



[그림 II-1-3]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 발달 검사 예시

(4) 지필식 설문지

아동의 면접조사 및 수행검사를 실시하는 동안 주양육자는 아동과 분리되어 지필식 설문지에 응답하였다. 지필식 설문지는 총 2종으로 아동행동발달 설문지와 건강관련 설문지이다. 지필식 설문지는 아동행동발달 설문지를 완료한 후 건강관련 설문지에 응답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2015년 아동행동발달 설문지는 CBCL 6-18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부모용을 사용하였으며, 설문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II-1-5〉 8차년도 아동행동발달 설문지 구성

대분류	중분류	주요변인(소분류)
사회·정서 발달	문제행동	불안/우울, 위축/우울, 신체증상, 사회적 미성숙, 사고 문제, 주의집중문제, 규칙위반, 공격행동, 기타문제
		DSM 진단척도(정서문제, 불안문제, 신체화 문제, ADHD, 반항행동문제, 품행문제)

건강 관련 설문지는 서울 아산병원과의 MOU를 통해 설문 문항을 구성한 자기 기입식 질문지이다. 주로 아동의 아토피, 비염, 천식 등의 알레르기성 질환에 대한 질문과 가정의 환경(리모델링, 환기), 물리적 환경(습기, 곰팡이 등)으로 구성되었다.

〈표 II-1-6〉 8차년도 건강관련 설문지 구성

대상	대분류	중분류	주요변인(소분류)
	건강 특성	흡연	흡연 노출 여부, 빈도
		습기/곰팡이	곰팡이 식별
			가습기 여부, 가습기살균제 노출 시간
			가습기 살균제 사용 여부, 계절, 사용 기간
			공기 청정기 사용 여부, 설치 장소
			방향제 여부, 사용 장소, 사용 빈도
			뜨거운 액체 플라스틱 용기 사용여부
가구	물리적 특성	의식주 환경	식생활 진단표, 식수 종류
			음료수 섭취 빈도, 음료수 용기
			조리 시 주된 열 공급원, 조리 시 환풍기 사용
			조리 후 플라스틱 용기 사용 여부
			플라스틱 용기 사용 여부, 사용 형태
			난방형태, 집 지은 시기, 집 바닥재 종류
			환기 시간, 환기 횟수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피부염
아동	건강 특성		아토피피부염 진단 여부, 징후
			아토피피부염 치료 여부
			식품알레르기 진단 여부
			알레르기 의심 식품, 증상, 음식 제한 여부
			약제사용
			국소 스테로이드 연고 사용 기간
			천명 징후, 천명으로 인한 응급 치료
		천식	천식 약물 복용 기간(길항제, 스테로이드)
			천식 진단 여부, 천식 치료 여부

라) Web 조사

아동이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학교, 교사에 대한 전반적 특성과 아동의 발달, 학교생활에 대한 내용 등을 조사하였다. 부모로부터 학교 조사에 대한 1차적 동의를 받은 후, 교사에게 조사 참여에 대한 교육부 공문 발송 및 조사 참여에 대한 독려 전화를 시행하였다. 교사가 조사 참여에 동의한 경우 교사의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여, 수집된 주소로 웹사이트를 발송하여 온라인으로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응답자에 따라 지필식 또는 전화 조사를 선호하는 경우, 우편 및 팩스, 전화 조사 방법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표 II-1-7〉 8차년도 교사대상 설문지 구성

대상	대분류	중분류	주요변인(소분류)
아동	사회·정서 발달 인지 발달	학교생활	학교 적응 정도
			학업 수행 능력
			부모의 학교생활 관심 정도, 부모의 참여가 요구되는 행사
학교	연계 관련	가정 협력	유아기 발달 특성에 대한 인지 정도
		유아-초등 연계	유-초 교육과정 간 연계 필요성, 도움정도
			유-초 연계 관련 연수 여부
			학기 초 적응활동 도움정도
	학교 특성	물리적 특성	학교 환경, 학급 수, 학급 학생 수
			교실 크기 적절성
		운영 특성	1학년 등교시간, 급식 장소
			식생활 교육
			장애아 통합학급 여부
	교사 특성	학교 정보	창의적 체험활동
			초등돌봄교실 운영 여부
		교사 특성	특별실 및 기타시설 환경
			특색사업 해당 여부
			설립유형, 소속 교육청, 지역
	교사 특성	업무 특성	근무 시간(주중, 주말), 근무 일(주말)
			교사 경력, 성별, 연령, 직위, 학력
			수업 활동, 과제 부과정도
			교수 효능감, 교직 만족도, 교직 동기
			동료 교사 태도 인식
			적정 교사 대 아동 비율 인식,
			학급 아동 수 적절성 인식
			스트레스 정도
			학교장의 지도성, 학습공동체 참여여부

마) 병원 조사⁷⁾

8차년도 조사에서는 최근 30년간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 비염과 같은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보다 정밀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서울 아산병원을 중심으로 병원 조사를 실시하였다. 병원 조사는 서울 아산 병원을 중심으로 전국 16개 병원의 전문가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각 지역별 전문가는 <표 II-1-8>과 같다.

7) 2015년 병원조사는 아산병원 소아 천식 아토피센터가 소속되어 있는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산학협력단과의 산학협동교류 협약을 통하여 아산병원이 주축이 되어 진행됨.

〈표 II-1-8〉 8차년도 병원 조사 협력 연구진

지역	협력 병원	협력 연구진
서울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홍수중, 이은, 조현주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서동인
경기도	한림의대 한림대 성심병원	이소연, 양송이
	서울의대 분당서울대병원	권지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장광천
인천	가천의대 길병원	선용환
충북	충북대학교 병원	우성일
충남	가톨릭대학교 대전 성모병원	윤유숙
전북	전주 예수병원	박강서
전남	전남대학교 병원	조화진
	보훈공단 광주보훈병원	이혜령, 국명희
경북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	정혜리
	울산의대 울산대학교병원	김자형
경남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	김형영
	동아대학교 병원	정진아
	경상대학교 병원	우향옥

병원 조사는 주거 환경 및 식이 등에 관한 설문조사, 전문의 검진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반응 시험, 각종 검사로 구분된다. 패널 아동이 병원에 방문하여 실시한 조사 내용은 <표 II-1-9>와 같다.

〈표 II-1-9〉 8차년도 병원 조사 구성

구분	구성	내용	방법
설문조사	주거 환경 및 식이 등	-	가구 방문 조사 시 주양육자에 의해 지필식 응답
전문의 검진	문진	알레르기 관련 전반	-
	알레르기 피부 단자 시험	집먼지 진드기, 고양이, 개, 꽃가루, 곰팡이, 바퀴벌레 등	-
		원인 알레르겐 탐색 검사	
측정	체격 측정	키, 몸무게 측정	-
	혈압 검사	혈압 측정	-

(표 II-1-9 계속)

구분	구성	내용	방법
검사	혈액 검사	빈혈, 간 기능, 신장 기능, 비타민D, 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Triglyceride) 등	10cc 가량의 혈액을 채집 후 한국적십자에 의뢰하여 분석
	폐 기능 검사	폐 기능 발달이 정상적인지 평가	날숨을 불어보도록 하여 폐활량계로 폐 기능 측정
	메타콜린 기관지 유발 시험	기관지 수축제를 흡입한 후 기도 과민성을 확인하여 천식을 진단	기관지 수축제 흡입 후 기도 과민성 확인
	소변 검사	간접흡연과 관련된 물질인 코티닌을 소변에서 측정	병원 방문 시 채뇨
	피부 검사	피부에 존재하는 균을 조사하여 알레르기 질환과의 연관성을 조사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 병원 방문 시 면봉으로 왼쪽 팔꿈치 안쪽 및 아토피 부위를 문질러 검체를 수집하는 세균 배양 검사.
	대변 검사	대변 내 존재하는 균을 조사하여 알레르기 질환과의 연관성을 조사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 각 패널이 가정에서 채변한 것을 토대로 검체를 수집하는 세균 배양 검사.

주: 알레르기 피부반응 시험, 폐기능 검사는 약물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검사 일정 시기 이전에 항생제, 유산균의 섭취를 중단하도록 함.

3) 8차년도 질문지 변경내용

한국아동패널의 8차년도(2015년도) 조사에서는 아동이 초등 학령기가 됨에 따라 아동의 발달과 아동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에 기존 척도 및 문항을 변경·삭제하고, 필요한 문항을 추가하였다. 기존의 조사영역 중 육아지원 서비스 특히 육아지원기관에 대한 내용은 아동의 진학에 따라 학교에 대한 내용으로 전면 교체되었다. 즉, 영유아기 아동이 다니던 육아지원기관의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아동의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통한 조사로 대체하였다. 동시에 부모와 아동에게 육아지원기관 대신에 학교생활에 관한 문항들이 추가되었다. 조사영역별로 질문지의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아동 특성 변인

2015년도 조사에서 아동 특성은 인구학적 특성, 건강, 일상생활, 사회·정서 발달, 신체발달, 언어발달, 인지발달로 구분된다. 아동이 초등학생이 됨에 따라 변화된 일상생활 및 발달적 특성을 중심으로 수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I-1-10〉 아동 특성 변인 삭제 및 변경내용

조사 항목	삭제 및 변경내용	추가내용
일상생활	낮잠 시간, 여부	함께 자는 사람, 혼자 자기 시작한 시기, 재워 주는 사람, 스스로 일어나는 정도, 개별 방 소유 여부
	실내 놀이 일, 실외 활동 일	숙제 시 도와주는 사람, 숙제 시 도움 정도, 활동 빈도
	미디어 이용 정도, 미디어 이용 일	미디어 이용 이유, 휴대폰(스마트폰) 소유여부
	식생활 조사 (가족과의 식사, 간식 횟수, 규칙적 식사, 식사 속도, 식사 양, 식습관 자립도, 아침식사 횟수, 외식 횟수, 편식)	학교생활(결석 횟수, 이유, 미진학 이유 및 이용기관, 초등학교 진학여부), 부모감독, 어른 없이 지내는 시간
	신체 및 건강 특성	빠진 유치 개수, 처음 유치가 빠진 시기, 충치 개수, 주관적 건강상태
인지 및 언어 발달	학습능력(수리적 사고, 언어 및 문해능력), 학습준비도, 전반적 발달	집행기능, 학습수행능력, 학교적응
사회·정서 발달	또래 상호작용, 선호하는 놀이 영역, 사회적 유능감	또래관계(부모님이 아는 친구 수, 주말에 친구와 노는 빈도, 친구와 싸우는 빈도, 친하게 지내는 친구 수, 학교 밖에서 친구와 노는 빈도)
	일상스트레스, 문제행동(CBCL 6-18), 자아 유능감	자아존중감, 전반적 행복도, 학교생활, 부모의 학교 공부 관심도 인식, 미래 기대(미래가치/꿈, 진학계획)

나) 부모 특성 변인

부모 질문지의 경우 시간이 지난다고 하여 응답이 크게 변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변인을 일부 삭제함으로써 응답자의 편의상 분량을 조절하였다. 변인에 해당되는 부모 대상 질문지에서 변경된 사항은 <표 II-1-11>과 같다.

〈표 II-1-11〉 부모 특성 변인 변경내용

조사 항목	삭제 및 변경내용	추가내용
건강 특성	-	주관적 건강상태
개인 특성 및 부부 특성	성역할 가치 배우자의 일상 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일-가정 양립 시 이점과 갈등
양육 특성	후속출산 계획 시기, 양육 효능감, 양육 분담, 부모자녀 상호작용	-

다) 가구 특성 변인

패널 가구 특성 변인에서는 가계 경제 요소와 가정환경 변인에 변경사항이 있었으며, <표 II-1-12>와 같다.

〈표 II-1-12〉 가구 특성 변인 변경내용

조사 항목	삭제 및 변경내용	추가내용
가계 경제 요소	-	패널 자녀에 대한 용돈, 생활비 지원,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가정환경	가정환경의 질(HOME), 가족 상호작용	-
물리적 특성	-	아이방 여부

라) 육아지원 서비스 특성 변인

패널 아동의 연령이 학령기에 접어들어 따라 육아지원 서비스 특성(서비스 이용 종류, 이유, 보육/교육 기관의 이용 특성, 부모의 협력도, 기관 특성, 물리적 환경, 기관 내 특별활동, 학급 특성, 교사 특성) 항목은 삭제하였다. 8차년도에는 패널 아동이 다니는 학교 담임교사에게 조사를 실시하면서 육아지원 서비스 특성 변인과 유사한 형태로 학교 특성 변인을 구성하도록 하였다.

마) 지역사회 특성 변인

지역사회 특성 변인은 기존에 조사해오던 사교육 기관 충분성, 육아지원 기관 충분성, 안전사고 안전성, 치안 안전성 등 단일문항을 각각 질문하는 방식이었다. 8차년도 조사에서는 지역사회 내 각종 시설에 대해 거리상 접근 편리성과 이용 만족도를 각각 평가하도록 하여 접근성과 만족도 두 가지 측면을 다루고자 하였다. 시설 또한 공공 여가 공간 및 시설과 문화시설, 공공 복지시설 등 항목별 13가지로 세분화하여 질문하였다.

또한 안전사고 안전성, 치안 안전성 관련 문항은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양육환경 적절성 문항에 포함시켰다. 양육환경 적절성 문항은 아동을 양육하는데 지역사회에 필요한 요소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봉주 외(2009)의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조사된 지역사회환경에 관한 13문항을 토대로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축소 및 수정한 것이다. 예를 들어, ‘아동성폭력, 강도, 절도 등의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등과 같이 유해요소에 대한 안전성 측면의 문항과 ‘이웃 간에 서로 도와주고 협조하는 분위기다’와 같은 문항이 있다.

바) 육아지원 정책 특성 변인

8차년도(2015년) 조사에서는 패널 아동의 초등 학령기 진입을 고려하여 영유아기에 해당되는 국가 지원 형태의 양육지원정책(가정양육수당 등) 항목에 관한 문항을 삭제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보육/교육정책에 관한 문항(누리과정, 시간연장형 보육료, 방과후과정 지원 등)도 삭제하였다.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인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에 대해서는 기존 조사에서 시행여부, 이용여부, 필요순위, 필요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8차년도에서는 필요성 항목을 삭제하고, 출산 및 양육환경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함으로써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패널 관리

패널 조사의 수행 차수가 늘어남에 따라 패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패널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한국아동패널에서는 기존의 패널 관리를 위한 안부 문자 발송, 홈페이지 정보 제공, 관련 기사 문자 알림, 발달검사 결과 및 공지 통보, [그림 II-14]와 같은 경품 행사 등의 노력을 지속하였다.



[그림 II-1-4] 한국아동패널 7차(2014년) 경품 추첨 내용

또한 2014년 연하장 발송에서는 [그림 II-1-5]와 같이 패널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 축하 선물을 동봉함으로써 패널 가족의 조사에 대한 협조를 보다 용이하게 하였다.



[그림 II-1-5]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 연하장 및 아동의 입학선물

2015년 조사에서는 실사 기간 중 패널 가구 및 아동의 협력을 고취하기 위해 부모 답례품과 별도로 아동에게 학교생활에 필요한 선물을 제공하였으며, 패널 가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개통하여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을 활용해 조사의 효율성을 높였다.

2. 8차년도 조사 진행 절차

가. 질문지 확정 및 CAPI 구축

1) 자문회의

8차년도 실사 조사를 위해 먼저, 질문지 확정 및 CAPI 구축 작업을 진행하였다. 질문지 확정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 서면 검토 등을 통한 관련 학계 전문가 및 공무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질문지를 수정 및 보완 하였으며, 완성된 질문지는 응답 대상과 동일 연령을 대상으로 예비조사가 이루어졌다. 다음 <표 II-2-1>, <표 II-2-2>에서 자문회의 참석자 및 주요 안건, 예비조사 참여자에 관하여 각각 소개하였다.

<표 II-2-1> 8차년도 자문회의 일정 및 주요 안건

일시	참석자	안건	비고
2015. 3. 13	언어치료학과 교수	언어발달 검사 도구 관련 자문	
2015. 3. 25	어린이집 원장	언어발달 검사 도구 관련 자문	
2015. 4. 16	아동복지학과 교수 사회복지학과 교수	CAPI/아동 질문지 검토	서면 검토
2015. 4. 20	심리학과 교수	질문지 적절성 검토 및 사회 기술 평정(SSRS) 도구 사용 관련 논의	
2015. 5. 1	유아교육과 교수	CAPI/아동 질문지 검토	서면 검토
2015. 5. 8	교육학과 교수 초등교육과 교수	기관용 질문지 검토	서면 검토
2015. 5. 12	교육부 사무관 교육부 주무관	한국아동패널 조사 기관 참여 협조 논의 및 기관 질문지 검토	
2015. 6. 12	경기도 초등학교 교사 3인	아동패널 기관용 질문지 검토	

예비조사는 내용 변경이 많았던 질문을 중심으로, 아동, 교사, 부모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먼저, 2015년 패널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에 따라 아동이 직접 응답하도록 하는 문항이 늘어났으며, 이에 패널 아동 연령과 동일한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시행하였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CAPI로 구현된 REVT 수행의 문제점 여부, 수행 시간 등을 점검하고 아동대상 질문지에 포함된 문항의 이해도 등을 고려하여 문항의 적합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2015년도에는 기존의 육아지원기관 교사 대상의 질문 문항이 아닌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질문을 구성하였으므로 내용 검토를 위하여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두 포함시켜 각 부모 질문지를 검토하였다.

〈표 II-2-2〉 8차년도 예비조사 일정

구분	CAPI(아동용) 및 REVT	부모대상 설문지	교사대상 설문지
기간	2015. 4. 13.	2015. 5. 24.	2015. 6. 12.
대상	10명	각 1명	10명

나. 조사원 교육

한국아동패널은 연구의 특성상 질문지법, 면접법, 관찰법, 수행검사 및 웹 조사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조사방법의 절차와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조사 결과의 신뢰성의 바탕이 되므로 신뢰로운 자료 수집을 위하여 조사원 교육을 엄격히 실시하고자 하였다. 조사원 교육은 첫째, 각 질문지별 문항 구성, 자료 수집 시의 주의사항, CAPI 활용 및 아동 신체 측정용 도구(줄자, 체중계) 이용과 아동 수행검사 도구의 사용 방법에 대한 안내, 둘째, 각 패널 가구의 조사 독려 및 컨택 시 주의사항, 셋째, 교사용 질문지 및 병원 조사에 대한 안내 및 동의서 받기, 넷째, 조사 관련 윤리교육 및 조사 진행시에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등의 내용이 진행되었다. 교육은 강의식 설명과 조사원간 모의 실습으로 진행되었다. 조사원 교육은 지역별로 3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표 II-2-3>, 서울 지역의 상세한 교육 내용은 <표 II-2-4>에 제시된 바와 같고 다른 지역의 교육 내용도 동일하였다.

〈표 II-2-3〉 8차년도 조사원 교육 일정

일시	장소	참석 대상자
7. 20	서울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지역 조사원 20명
7. 21	대구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지역 조사원 18명
7. 22	대전	대전, 광주, 충청, 강원, 전라 지역 조사원 9명

〈표 II-2-4〉 8차년도 조사원 교육 내용

시간	내용	준비물 및 비고
09:30-10:00	슈퍼바이저 간담회	교육진행 시 협조사항 당부
10:00-10:20	입실확인 연구진 소개 및 인사	좌석별 조사 준비물 분배

(표 II-2-4 계속)

시간	내용	준비물 및 비고
10:20-10:50	8차년도 조사 소개 - 8차년도 조사 개요 - IRB 관련 부모 동의서 설명 - 부모대상, 교사대상 설문지 설명	조사 수행 순서도 안내 질문지 수거시 중점 체크사항 설명(누락되기 쉬운 곳, 동의 서 확인 여부 등)
10:50-11:30	CAPI(주양육용) 질문지 서면 교육	지침서
11:30-11:40	휴식	
11:40-12:20	HOME, CBCL 질문지 교육	지침서
12:20-13:20	점심식사	
13:20-13:40	노트북 사용 교육	좌석별 노트북 배급
13:40-14:20	CAPI(주양육자용) 사용 실습 - HOME 관찰질문 포함 질의응답	노트북
14:20-14:40	CAPI(아동용) 질문지 서면교육 - 신체 계측 방법 포함	지침서, 줄자, 체중계
14:40-15:20	수행검사(REVT) 서면 교육	지침서
15:20-15:40	휴식	
15:40-16:40	CAPI(아동용), 수행검사실습(REVT) 질의응답	필요시 CAPI(주양육자용)도 함께 실습 노트북, 검사지, 체중계
16:40-17:10	아산병원 연구진 소개 건강관련 설문지 및 병원 조사 소개 - 참여 유도, 동의서, 배변통 관리 등	조사안내서, 동의서, 배변통
17:10-17:30	휴식	
17:30-18:00	교육 전반 종합 및 마무리 질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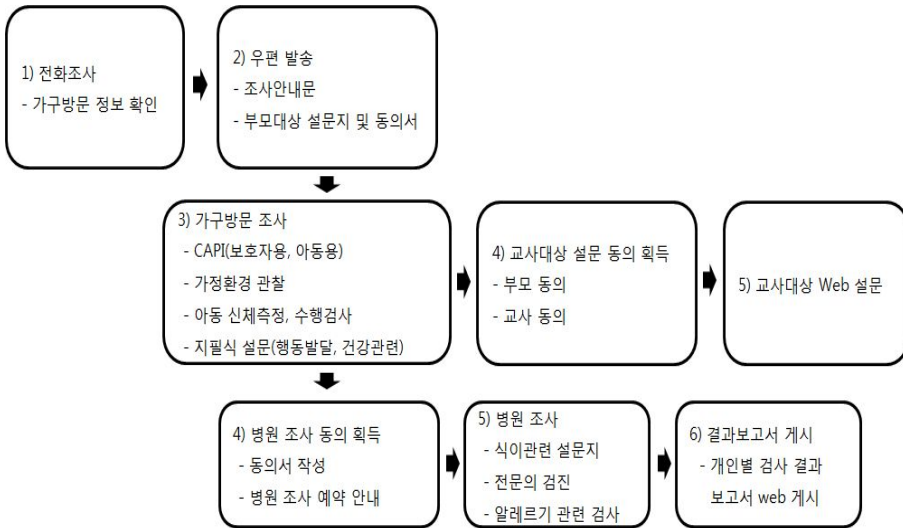
다. 조사 일정과 진행

1) 질문지별 조사 일정

한국아동패널의 8차년도 조사는 [그림 II-2-1]의 절차로 진행되었으며, 주요 질문지별 조사 일정은 <표 II-2-5>와 같다. 2015년 조사에서는 조사 자료 수집의 효율성을 고려해 지필식 설문지를 매주 온라인으로 업로드하여 검토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표 II-2-5〉 8차년도 질문지별 조사 일정

질문지	조사 방법	조사 시작일	조사 완료일
어머니, 아버지 대상	우편 전달 및 방문 수거 (지필식 기입)	7월 1일	12월 11일
CAPI(보호자용, 아동용) 아동 수행검사(REVT)	가정 방문 (면접 및 관찰)	7월 10일	12월 11일
행동발달 질문지 건강관련 질문지	가정 방문 전달 및 수거 (지필식 기입)	7월 10일	12월 11일
교사대상 질문지	웹 기반 설문조사	7월 24일	12월 18일
병원 조사	병원 방문 (문진, 검사, 지필식 기입)	10월 20일	2016년 4월(예정)



[그림 II-2-1]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 조사 진행도

2) 중간 점검 실시

8차년도 조사에서는 실사가 약 10%정도 이루어진 시점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여 점검한 후, 조사원별 피드백을 지역별로 전달하였다. 중간 점검에서 확인된 오류는 전화 조사 등 추가 확인 절차를 걸쳐 정정하도록 하였으며, 발달 검사 등 자료 수집이 까다로운 항목에 대해서는 슈퍼바이저의 지속적인 감독을 통해 오류율을 최소화하였다.

조사원별 피드백 결과는 슈퍼바이저 교육을 통한 전달 교육과 개인별 피드백 내용을 작성하여 전달하였으며, 조사가 10% 진행된 시점에 2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3) 조사원 관리

패널 조사의 특성 상 조사원은 자료 수집의 직접적인 주체이며, 패널 관리를 위한 주요 매개체가 된다는 점을 고려해,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조사원 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매년 조사원 연하장 발송 및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2015년에는 추가적으로 조사원 온라인 SNS 채팅방을 개설하여 CAPI 프로그램을 통해 전달되는 공지와 별도로 신속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조사원간 노하우 공유 활성화를 시도하였다. 또한 조사 종료 후 조사원 간담회를 통해 조사 진행시의 어려운 점을 듣고 조사원을 격려하고, 조사원들 간에 효율적인 조사 방법을 공유하였다. 간담회를 토대로 수집된 의견은 2016년 조사 진행시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반영할 예정이다.

8차년도 조사에서는 조사원 이동이 빈번한 서울을 제외하고는 높은 동일 조사원 투입률을 보이고 있으며, 지방의 경우 조사원의 은퇴 등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기존 조사원이 100%에 가깝게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신규 투입된 조사원의 경우 초기 패널 구축 시 참여자를 우선으로 하였으며, 부득이한 경우 유관 조사 참여자를 신규 투입하였다. 한국아동패널 조사원 수 및 전년 대비 동일 조사원 투입 비율은 <표 II-2-6>과 같다.

<표 II-2-6> 8차년도 한국아동패널 지역별 조사원 수 및 전년 대비 동일률

구분	단위: %(명)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강원
1차	100.0(19)	100.0(5)	100.0(5)	100.0(2)	100.0(3)	100.0(2)
2차	58.8(17)	71.4(7)	100.0(4)	100.0(2)	50.0(4)	100.0(1)
3차	61.1(18)	60.0(10)	100.0(4)	100.0(2)	75.0(4)	100.0(1)
4차	60.0(20)	80.0(10)	100.0(4)	100.0(2)	100.0(3)	100.0(1)
5차	35.3(17)	88.9(9)	100.0(4)	100.0(2)	100.0(3)	100.0(1)
6차	65.0(20)	77.8(9)	100.0(4)	100.0(2)	100.0(3)	100.0(1)
7차	53.3(15)	100.0(9)	80.0(5)	50.0(4)	100.0(3)	100.0(1)
8차	47.1(17)	100.0(9)	80.0(5)	66.7(3)	100.0(3)	100.0(1)

3. 조사 성공률 및 표본 유지율

가. 연차별 표본 유지율

전체 패널의 연차별 표본 유지율은 <표 II-3-1> 및 [그림 II-3-1]과 같다. 2015년에 실시한 8차년도 조사 참여 가구는 1,598가구로 전체 2,150가구 기준 74.3%의 유지율을 보였다. 이는 2014년에 실시한 7차년도 조사 대상의 98.6%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전체 패널 2,150가구의 연차별 표본 마모율을 살펴보면, 1차년도 11.4%를 제외하고 8개 년도에 걸쳐 1.0%~4.8%의 패널 가구가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예년 대비 패널 유지율은 지속적으로 90%대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한국 아동패널의 주 대상이 영·유아기 아동이라는 특이점을 고려할 때 양호한 수준의 유지율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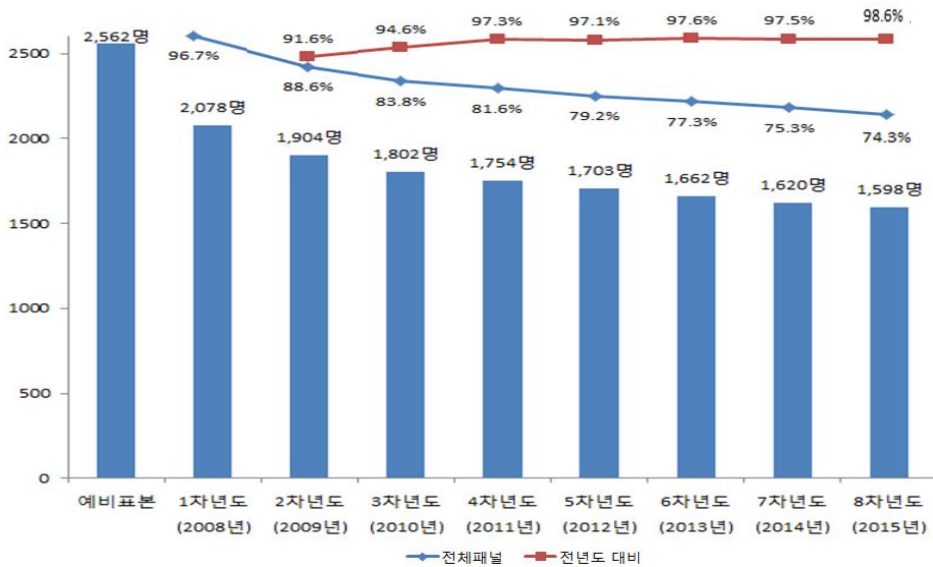
<표 II-3-1> 한국아동패널 2008~2014년 조사 참여율

패널 현황	단위: 가구, %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계
병원구축 기준 가구 수	1,219	437	316	293	297	2,562
2008년 참여 가구 수	992	349	240	271	226	2,078
2009년 참여 가구 수	879	320	221	271	213	1,904
2010년 참여 가구 수	838	309	213	246	196	1,802
2011년 참여 가구 수	809	299	216	239	191	1,754
2012년 참여 가구 수	784	291	199	234	195	1,703
2013년 참여 가구 수	759	287	198	222	196	1,662
2014년 참여 가구 수	731	281	188	227	193	1,620
2015년 참여 가구 수	727	284	180	223	184	1,598
2015년 전년 대비 성공률						98.6%
2015년 전체 패널 기준 성공률						74.3%

주: 성공 패널의 지역 기준은 각 연도의 실제 거주 주소를 기준으로 서울(서울, 경기, 인천, 제주), 부산(부산, 울산, 경남), 대구(대구, 경북), 대전(대전, 충청, 강원), 광주(광주, 전남) 등 5개 권역으로 구분함.

한국아동패널 탈락자 특성을 분석한 연구(최윤경 편, 2014: 77-91)에서는 패널의 무응답 패턴 분석을 통해 1차에서 6차까지의 연도별 유실율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68.0%의 패널이 매년 조사에 참여해 온 것으로 나타나 패널의 조사 참여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2015년에 수

행된 8차 조사의 경우 표본 마모율 1.0%로 역대 조사 중 가장 적은 유실율로 나타나 한국아동패널의 조사가 비교적 성실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3-1] 한국아동패널 2008~2014년 조사 참여율

나. 8차년도 조사별 성공률

본 보고서의 기초분석에 활용된 8차년도 데이터의 조사별 성공률은 <표 II-3-2>와 같다. 전체 조사 성공률의 기준이 되는 CAPI 면접조사는 1,598명으로 조사 완료된 바 있다. 8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경우, 지필식 질문지에 참여한 비율이 90%대로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의 동의 후 교사 동의를 받는 2단계 동의 절차를 거치는 학교 조사 성공률은 90.1%로 완료되었다.

〈표 II-3-2〉 한국아동패널 2015년 조사별 성공률¹⁾

단위: 명, %				
구분	조사방법	응답자	참여자 수	성공률
CAPI(주양육자용) ²⁾	면접 조사	아동의 주 양육자	1,598	100.0
CAPI(아동용)		아동	1,560	97.6
REVT 검사	아동대상 수행검사	아동	1,560	97.6
어머니 대상	지필식 설문조사 ⁵⁾	어머니 ³⁾	1,556	97.4
아버지 대상		아버지	1,469	91.9
아동 행동발달	지필식 설문조사	아동의 주 양육자	1,577	98.7
건강관련			1,577	98.7
학교	웹 기반 설문조사	아동의 담임 교사	1,031	90.1 ⁴⁾

주: 1) 조사별 성공률은 CAPI(주양육자용)을 기준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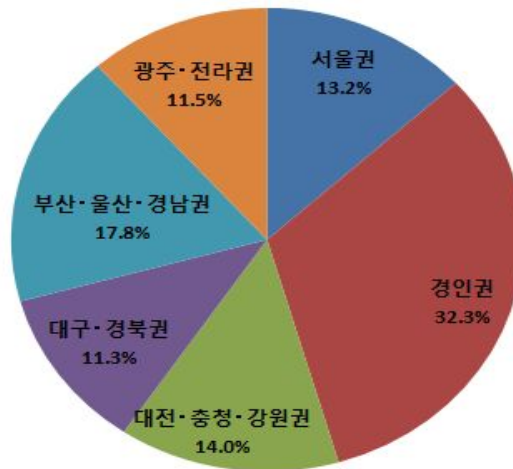
2) 가정환경 질문지(HOME) 조사는 CAPI(주양육자용)과 함께 조사됨.

3) 아동의 어머니가 부재한 경우, 아버지가 '어머니 대상' 질문지를 응답하도록 함.

4) 학교 조사의 성공률은 선생님 조사를 동의하는 것으로 응답한 1,144명을 기준으로 함.

5) 부모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지필식 설문조사는 우편으로 송부한 후 가구방문 시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015년 8차년도 조사 가구의 지역별 거주 분포는 <표 II-3-3>, [그림 II-3-2]와 같다. 참여 패널 가구의 거주지는 경인권이 32.3%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울산·경남권 17.8%, 대전·충청·강원권 14.0%, 서울권 13.2%, 광주·전라권 11.5%, 대구·경북권 11.3%의 순이었다.



[그림 II-3-2] 한국아동패널 2015 권역별 성공률

〈표 II-3-3〉 한국아동패널 2014년 권역별 성공률

						단위: 건(%)
서울권	경인권	대전·충청· 강원권	대구· 경북권	부산·울산· 경남권	광주· 전라권	총합계
211(13.2)	516(32.3)	223(14.0)	180(11.3)	284(17.8)	184(11.5)	1,598(100.0)

주: 조사별 성공률은 CAPI(주양육자용)을 기준으로 함.

4. 자료 확산 및 연구 심화

한국아동패널 연구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일반 연구자가 수행하기 어려운 대규모 종단 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연구자에게 공개해 관련 연구를 확산시키는 데 있다. 한국아동패널 자료의 확산과 관련 연구 주제의 심화는 학술대회, 학술지 저널, 학위논문 수행 등을 통하여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 6차 학술대회 개최

2015년도에는 패널 자료의 확산과 연구 심화의 일환으로 12월 4일에 국내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건강한 아동, 성장하는 아동’이라는 주제로 진행 된 제 6회 학술대회는 학계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한국아동패널 1~6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한 연구 내용을 공유하는 학문 교류의 장이 되었다.

〈표 II-4-1〉 학술대회 개최

시간	프로그램
13:00-13:20	한국아동패널의 과거와 미래 이정립 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13:20-14:20	해외 종단연구 발표 Atsuko Araki (Hokkaido University Center for Environmental and Health Sciences)
14:20-14:45	휴식
14:45-15:10	주제 발표 1 사회경제지표가 알레르기 질환 발생에 미치는 영향 홍수종 교수 (서울아산병원 소아천식·아토피센터)

(표 II-4-1 계속)

시간	프로그램
15:10-15:35	■ 주제 발표 2 형제수가 아동의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자아효능감과 양육행동의 매개 효과 박경자 교수 (연세대 아동가족학과)
15:35-16:00	■ 주제 발표 3 보육·교육기관, 유아, 교사 특성 간의 관계: 단기종단적 연구 김낙홍 교수 (중앙대 유아교육과)
16:00-16:20	휴식
16:20-16:50	■ 종합토론 하은희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과) 오경자 명예특임교수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신동주 교수 (덕성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16:50-	폐회

나. 고급통계분석 특강

2015년에는 2014년까지 영유아에 관한 종단자료가 구축된 점을 감안하여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을 돕기 위한 통계분석 특강이 개최되었다.

〈표 II-4-2〉 통계분석 특강 개최

시간	등록	프로그램
13:00-13:30	등록	
13:30-13:50	한국아동패널 소개	이정림 연구위원 (아동패널연구팀 팀장)
13:50-14:00	휴식	
14:00-17:00	통계 특강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통계분석 특강은 한국아동패널 자료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와 종단분석에 적용할 수 있는 고급 통계분석 방법인 대상중심적 접근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이론과 더불어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실제 적용 결과를 토대로 특강 내용이 구성되어 패널 연구자들에게 고급통계분석에 대한 깊이를 더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다. 한국아동패널 자료 활용 및 논문 발표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는 제 6회 학술대회를 거쳐 2016년 12월 말에 6차년도까지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데이터 사용 신청 건수는 2015년 10월 31일 기준으로 642건이었으며, 승인된 데이터를 활용한 발간물 중 113건은 총 5회에 걸친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102건의 학회 발표, 11건의 학술 논문 발표에 의해 활용되었다.

〈표 II-4-3〉 한국아동패널 자료 활용 승인 및 사용 현황

단위: 건 / 기준일: 2015년 10월 31일

데이터 신청	데이터 활용 발간물					계
	연구보고서	학술대회	학회 발표	학술 논문	브리프 및 세미나 등	
642	15	113	102	11	6	247

주: 한국아동패널에서 확인된 자료 활용 현황을 기준으로 하며, 기재된 내용 외에 보고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음.

그동안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이루어진 국내 연구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113편이며, 연도별로 출판된 논문 수는 아래와 같다.

〈표 II-4-4〉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활용 논문

단위: 편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전체	22	26	26	24	15	113

주: 2015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에 게재된 논문을 기준으로 함.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한 학회 및 학술 논문의 주 연구 내용을 종속 변수를 중심으로 크게 아동, 부모, 육아지원 서비스 및 육아 정책을 중심으로 분류했다. 주로 연구되는 변인은 종속변인을 기준으로 부모의 양육 관련 변인과 후속출산에 관한 것이며(최윤경 외, 2014), 패널 아동의 연령 증가로 아동의 또래 관계 등에 대한 조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아동의 발달 결과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4년에 새로 발표된 연구주제를 살펴보면 아동에 관련된 연구와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등 부모의 양육과 관련된 변인에 대한 연구가 각각 10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모의 개인적 특성에 관련된 논문도 5편이었다.

〈표 II-4-5〉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활용 논문의 연구내용(종속변인을 기준으로)

단위: 편

구분	아동	부모				육아지원 서비스	육아 정책	기타 ^{주)}	계
		양육 관련	부부 관련	개인 관련	후속 출산				
2011	3	7	1	3	5	3	0	0	22
2012	5	8	3	2	6	1	1	1	27
2013	3	8	0	1	8	1	0	5	26
2014	10	10	0	5	0	2	0	2	29

주: 차이분석, 상관분석 및 모형 검증은 '기타'로 분류함.

2014년에 발표된 연구 논문의 연구내용 및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아동발달과 관련해서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의 기질, 부모 양육 및 가정환경 변인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김선희, 2014; 임현주, 2014b; 임현주·최향준·이대균, 2014). 이러한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가정환경 자극을 매개로 하여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치거나(김선희, 2014; 임현주, 2014), 어머니가 양육방식에 따라 표현어휘 발달에 차이를 보고하였다(임현주 외, 2014).

유아의 사회성 발달과 관련하여 또래 상호작용, 놀이 등 또래관계를 종속변인으로 한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는데, 아동의 성별, 기질, 언어발달,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부모의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부부갈등, 가정환경 등(김소아, 2014; 김선희, 2014; 신은경·정아현·이희정, 2014; 임현주 외, 2014; 조운주·김은영, 2014; 황성온, 2014)의 영향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중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또래 놀이행동 또는 상호작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김선희, 2014; 이희정, 2014b; 임현주 외, 2014; 황성온, 2014). 이 외에도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이 가정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또래관계 부적응행동의 감소를 예측하거나(장영은, 2014),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사회성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도 보고되었다(서석원·이대균, 2014).

부모 변인과 관련하여 어머니의 자아, 결혼, 양육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권신영·서영숙, 2014; 유승연·임지선·김연하, 2014), 부모의 심리적 특성, 양육스트레스, 양육태도에 관한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에 대한 검증(최효식·연은모, 2014), 아버지의 내적 요인 및 양육참여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노성향, 2014) 등이 이루어졌다.

육아지원 서비스와 관련하여 영아 자녀 가구의 양육형태 및 영향 요인(김진

미, 2014a), 육아지원 기관 내 특별활동(김진미, 2014b)에 관한 연구가 보고되었다. 김진미(2014a)의 연구에서 영아의 월령, 출생순위, 어머니의 학력 및 취업, 가구의 월소득, 부모 외 가구 구성원의 거주 여부, 거주지역 변인 등이 어머니의 주양육 외 보육서비스를 선택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단연구는 단기연구에서 밝히지 못하는 변인간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장유진·이강이(2014)의 연구는 1~3차년도 패널 데이터를 통해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와 아동 기질의 안정성과 조화적합성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장유진과 이강이(2014)의 연구에서는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부정 정서 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안정적으로 지속되며, 이전년도의 어머니의 부정 정서가 어머니가 평가하는 아동의 기질에 영향을 미치나, 이전년도의 아동 기질이 어머니의 부정 정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어머니의 우울과 스트레스가 자녀의 기질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정리하였다. 아버지의 개인적 특성, 결혼만족 및 부부갈등이 자녀에 대한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주동범, 최동규와 배홍(2014)의 연구에서는 자녀에 대한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은 아버지의 결혼만족도와 자녀 미래기대로 검증되었으며, 자녀에 대한 가치는 시간적 추이에 따라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희정(2014b)의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가정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4년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소득층 가정의 양육스트레스가 점차 증가하고, 변화율에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부부갈등이 영향을 미치고, 양육스트레스 변화가 양육 행동을 매개로 4차년도 또래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김은정, 박성덕과 김정철(2014)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초기 양육스트레스 값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부갈등과 같은 다양한 공변인들을 통해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Ⅲ. 7차년도(2014) 조사결과 기초 분석

1. 7차년도 조사의 특징 및 개요

7차년도 조사는 패널 아동이 만 6세로 초등학교 입학 직전 시기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가 구성되었다. 만 6세 시점의 7차년도 조사결과에 대한 기초분석에 앞서 2014년 조사의 특징을 간략히 개요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7차년도 조사의 주요 도구는 학습준비도, 학업 능력, 사회적 기술(또는 사회적 유능성), 자아 유능감, 조음/발화 검사, 주관적 행복감, 양육효능감, 부모 공동양육, 성역할 가치관에 관한 문항과 신체운동 발달의 항목이었다. 본 장에서 기술할 7차년도 조사의 질문지별 수집 자료는 <표 Ⅲ-1-1>부터 <표 Ⅲ-1-4>와 같다.

가. 본조사

본조사는 아동패널 가구 방문을 통한 주양육자와의 CAPI 방식 면대면 조사로 실시되었다. 본조사 질문지에는 첫째, 가구의 인구학적 정보와 같은 종단 데이터 연결 문항, 둘째, 가구 경제 관련, 어머니의 직업 정보, 아동의 건강 등의 민감 정보 관련 문항, 셋째, 아동의 하루일과, 육아지원 서비스 관련 등의 세부 사항으로 연결되는 문항, 넷째, 국가 및 직장에서의 정책 관련 문항 등이 포함되었다.

〈표 Ⅲ-1-1〉 7차년도 본조사 질문지 구성

조사 영역		주요변인
아동 특성	인구학적 특성	○출생순위, 출생순위 변동 사유
	건강 특성	○병력(상해포함): 여부, 횟수 ○입원: 여부, 횟수, 기간, 이유 ○통원치료: 여부, 횟수 ○안정 착용: 여부, 시기 ○장애 진단 여부 및 급수

(표 III-1-1 계속)

조사 영역		주요변인
아동 특성	신체 발달	○소근육 운동 발달 ○대근육 운동 발달
	일상생활	○식습관: 규칙성, 양, 편식, 속도, 자립도 ○아침 식사 횟수 ○간식: 가정, 기관 ○외식 횟수 ○가족과의 식사 ○밤잠: 시간, 숙면 여부 ○낮잠: 여부, 시간 ○일과 활동 시간 ○미디어 이용: 시작 시기, 시간, 정도
부모 특성	인구학적 특성	○연령 ○결혼 상태 및 기간 ○최종학력 ○동거 여부, 비동거 이유
	건강 특성	○1·2급 장애 유무 ○취업/학업 여부, 취업 상태, 학업 상태 ○직장 변동 여부, 이유
	직업 특성	○직업 군, 종사자 지위, 직장의 종사자 수 ○근무일 수, 시간, 출퇴근 소요 시간, 40시간미만 근로 이유 ○직업 만족도
	지원 특성	○사회적지지 인원, 관계 ○사회적지지: 정서적, 정보적, 도구적, 여가적 ○지난 1년 간 육아지원 서비스 ○서비스 이용 여부
	육아지원 서비스	○서비스 이용 이유, 미이용 이유 ○서비스 이용 빈도, 이용 시작 시기 ○기관 선택 시 고려사항 ○이용비용, 비용 부담도 ○전반적 만족도 ○추가 서비스 이용 이유
	인구학적 특성	○가구 구성, 가구원 수
	가구 특성	○가구 소득: 근로(사업) 소득, 재산 및 금융 소득, 공적 소득, 사적 이전 소득, 어머니의 근로 소득
가정 환경	가계 경제 요소	○가구 지출: 소비성, 비소비성, 자녀에 대한 지출 ○부동산, 금융자산 ○부채: 여부, 부채액, 월 상환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혜 여부
	가정 환경	○가정환경의 질

(표 III-1-1 계속)

조사 영역		주요변인
육아지원 서비스	특별활동 특성	○기관 내 특별활동 이용 비용 ○기관 외 특별활동 유무, 종류, 추가 이용 이유 ○기관 외 특별활동 수, 이용 횟수, 시간
	일시 보육	○이용 횟수, 시간 ○지난 1년간 이용 수
지역 사회 특성	일반적 특성	○현 거주지
육아정책 특성	국가 지원	○수혜 경험 여부, 지원 유형 ○지원의 도움 정도, 지원 여부, 지원 내역 ○보육·교육 무상 이용에 따른 후속출산 의사 정도 ○양육 비용 지급에 따른 후속출산 의사 여부, 적정 금액
	직장에서 의 지원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방식 시행 여부, 이용 여부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방식의 후속출산 도움 정도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방식 필요성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방식 필요 순위
	보육·교육 정책	○보육·교육 정책의 출산계획 영향 여부 ○보육·교육 정책 지원여부, 지원내역 ○보육·교육 정책 도움 정도

나. 부모 설문

부모 설문은 아동패널 가구를 방문하기 전 우편으로 발송 된 질문지를 각 패널 아동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각각 수기로 작성하여 본조사 진행일에 조사원에 의해 수거(또는 우편수거)되는 지필식 조사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부모 설문에는 첫째, 부모의 음주 및 흡연과 같은 건강 관련 문항, 둘째, 아버지의 직업적 특성 문항, 셋째, 부모의 우울, 자아존중감과 같은 개인적 특성, 넷째, 부부 간 갈등 및 결혼 만족도와 같은 부부 특성, 다섯째, 후속 출산과 관련된 부모됨 문항 및 자녀 양육과 관련된 부모의 공동양육, 부모-자녀 상호작용 등의 문항이 포함되었다.

〈표 III-1-2〉 7차년도 부모조사의 유형과 내용

조사유형	조사내용	주요변인		
CAPI 면접조사	아동 특성	○인구학적 특성 ○일과활동	○건강 및 기본생활습관	
	부모 특성	○인구학적 특성 ○근로특성(취업모/미취업모)	○건강특성	
	가족 특성	○일반적 특성 ○물리적 환경	○경제적, 역사적, 사회적 특성 ○가족 상호작용	
	육아지원서비스 특성	○보육·교육 기관 및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사교육 이용		
	지역사회 특성	○가용 육아지원기관	○양육적절성	
	육아지원정책 특성	○사회보장지원 ○돌봄 및 발달 지원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가정환경	○학습자료 ○반응성 ○다양성	○언어자극 ○학습자극 ○수용성	○물리적 환경 ○모방 학습
어머니· 아버지 대상 조사 (PAPI)	부모 특성	○자아존중감	○우울	
	부모됨	○향후 출산계획		
	부부 특성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양육 특성	○자녀양육 참여 ○양육스타일	○부모 공동양육 ○양육스트레스	○자녀기대 ○양육효능감
어머니 대상 조사 (PAPI)	아동 특성	○알레르기 질환		
	아동의 문제행동	○정서적 반응성 ○신체증상 ○주의집중문제 ○수면문제	○불안/우울 ○위축 ○공격행동 ○기타문제	

다. 아동 대상 조사

아동 대상 조사는 본조사 진행을 위한 가구방문 시 진행되었다. 7차년도 아동의 발달검사는 신체 치수 측정 후 주양육자와 분리되어 조사원과 CAPI에 탑재된 자아 유능감, 행복감에 대한 문항, 이어 REVT 표현 어휘력 검사, 조음/발화 검사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조음/발화 검사 과정은 데이터 생성 및 모니터링을 위해 녹음파일로 저장하였다.

〈표 III-1-3〉 7차년도 아동 대상 조사 구성

조사 영역		주요변인	
신체발달	○키	○체중	○허리둘레
사회·정서 발달	○행복감	○자아유능감	
언어발달	○표현 어휘력	○조음/발화	

라. 아동 행동발달 설문

아동의 행동발달에 대한 설문 응답은 아동 대상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주양육자(대체로 어머니)에 의해 진행되었다. 아동이 보호자와 분리되어 조사원과 수행검사를 진행하는 동안, 주양육자는 아동의 문제행동 및 사회적 유능감과 같은 사회·정서 발달과 교사 설문과 마찬가지로 학업능력 및 학습준비도와 같은 인지·언어 발달에 대한 문항에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하였다.

마. 가정환경 검사

패널 가구의 가정환경 검사(HOME)는 본조사 진행을 위한 가구방문 시 진행되었다. 본조사 진행 이후 가정환경에 대한 면접질문을 주양육자가 응답하도록 하고, 이후 응답자의 양해를 구해 조사원의 관찰조사를 진행하였다.

바. 육아지원기관 조사

아동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담임교사 혹은 반일제 이상 학원의 강사를 대상으로 기관의 환경, 교사가 인식하는 아동의 특성 등을 조사하였다. 부모와 기관의 원장 및 교사로부터 교사의 조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교사는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질문에 응답하게 된다. 교사 대상 조사에는 일반적인 사항과 아동의 발달 및 환경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는데(도남희 외, 2013, 29p 참조함), 2014년 주양육자 조사에 추가된 학업능력과 학습준비도,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척도가 교사 대상 설문에도 반영되었다.

〈표 III-1-4〉 7차년도 기관 교사 대상 조사의 유형과 내용

조사유형	조사내용	주요변인
교사 일반조사 (Web방식)	교사 특성	○교사 자격 및 경력 ○교사-아동 상호작용
	아동 특성	○사회적 유능감 ○행복감 ○또래와의 상호작용 ○활동영역 ○학습 준비도
	기관 특성	○학급형태 ○물리적 환경 및 프로그램 ○부모교육 및 부모참여
	부모 특성	○기관 생활 관심 정도 ○등·하원 시간, 수단, 동반자 ○아동의 기관 선호도
		○교수 효능감 ○일상 스트레스 ○선호하는 놀이 영역 ○기관에서의 일과(식습관, 낮잠 등) ○학업 능력 ○부모 참여 ○아동의 교사 선호도

2. 7차 조사 참여 가구의 일반적 특성

7차 조사 참여 표본의 특성은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의 규모에 따라 아동, 부모, 가구 및 아동이 이용하는 육아지원기관 이용 특성을 살펴봤으며, 가중치는 적용하지 않았다.

가. 아동의 일반적 특성

7차 조사에 참여한 패널 유아의 성별은 남아가 51.4%, 여아가 48.6%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 유아의 출생순위는 첫째아 45.9%, 둘째아 42.5%, 셋째아 10.4%의 순이었다. 패널 가구의 거주 지역 규모별로 살펴볼 경우, 셋째아의 경우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경우보다 많았다. 유아의 월령은 평균 75.14개월로, 75개월 27.3%, 76개월 21.4%, 74개월 21.2% 순으로 나타나 대다수의 유아가 만 6세 초반에 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1〉 7차 조사 참여 아동의 일반적 특성

구분	전체	단위: %(명)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성별				
남아	51.4(832)	50.1	51.6	61.7
여아	48.6(788)	49.9	48.4	38.3
계(수)	100.0(1,620)	100.0(684)	100.0(876)	100.0(60)
출생순위				
첫째	45.9(744)	48.7	43.3	53.3
둘째	42.5(689)	41.5	44.1	31.7
셋째	10.4(168)	8.6	11.5	13.3
넷째 이상	1.2(19)	1.2	1.1	1.7
계(수)	100.0(1,620)	100.0(684)	100.0(876)	100.0(60)
월령				
72개월	1.9(31)	3.8	0.6	0.0
73개월	11.1(180)	10.4	11.6	11.7
74개월	21.2(344)	23.5	19.7	16.7
75개월	27.3(443)	27.0	28.3	16.7
76개월	21.4(346)	19.7	22.1	28.3
77개월	10.5(170)	8.3	11.5	20.0
78개월	5.3(86)	5.1	5.6	3.3
79개월	1.2(20)	2.0	0.5	3.3
계(수)	100.0(1,620)	100.0(684)	100.0(876)	100.0(60)
평균(표준편차)	75.14(1.46)	75.04(1.52)	75.19(1.39)	75.52(1.52)

주: 제시된 자료는 횡단 가중치로 보정하지 않은 원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값임.

나. 부모의 일반적 특성

7차 조사에 참여한 패널 부모의 평균 연령은 어머니 36.82세, 아버지 39.29세로 전반적으로 어머니의 연령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모두 35~39세가 어머니 51.0%, 아버지 41.9%로 가장 많이 분포되었으며, 지역 규모에 따라 아버지의 경우 큰 차이가 없었으나, 어머니의 경우 도시의 규모가 대도시에서 읍·면지역으로 작아질수록 연령이 다소 낮은 경향을 보였다.

부모의 학력은 4년제 대학이 어머니 37.8%, 아버지 41.9%, 고등학교 졸업이 어머니 28.9%, 아버지 26.9%, 전문 대학이 어머니 27.2%, 아버지 20.0%로 부모가 동일한 순의 비율로 조사 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아버지의 교육 수준이 4년제 대학 이상인 고학력자가 52.7%로 어머니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규모별로 살펴보면 읍·면 지역이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 비해 대학 이상의

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참여 아버지의 95.5%가 취업 또는 취업과 학업을 병행 중인 반면, 어머니의 경우 45.8%정도가 취업 또는 취업과 학업을 병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2〉 7차 조사 참여 부모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연령								
29세 이하	1.9(30)	0.7	2.6	3.4	0.3(5)	0.1	0.5	0.0
30~34세	24.6(396)	23.6	25.0	30.5	10.8(172)	10.1	11.0	15.3
35~39세	51.0(820)	53.3	49.4	47.5	41.9(668)	43.0	41.9	28.8
40~44세	20.0(322)	19.4	20.6	18.6	37.9(604)	37.7	37.2	49.2
45세 이상	2.5(40)	2.9	2.3	0.0	9.2(146)	9.1	9.4	6.8
계(수)	100.0 (1,608)	100.0 (681)	100.0 (868)	100.0 (59)	100.0 (1,595)	100.0 (674)	100.0 (862)	100.0 (59)
평균 (표준편차)	36.82 (3.69)	37.03 (3.61)	36.72 (3.73)	35.98 (3.91)	39.29 (4.01)	39.37 (3.95)	39.23 (4.06)	39.22 (4.13)
학력								
무학 및 초등	0.2(2)	0.2	0.0	0.0	0.0(0)	-	-	-
중등	0.4(6)	0.3	0.3	1.7	0.4(7)	0.3	0.6	0.0
고등	28.9(465)	28.8	28.9	30.5	26.9(429)	25.8	27.1	35.6
전문 대학	27.2(438)	25.6	27.8	39.0	20.0(319)	18.5	20.5	28.8
4년제 대학	37.8(608)	37.2	39.1	27.1	41.9(668)	43.5	41.4	30.5
대학원 이상	5.5(89)	7.9	3.9	1.7	10.8(172)	11.9	10.3	5.1
계(수)	100.0 (1,608)	100.0 (681)	100.0 (868)	100.0 (59)	100.0 (1,595)	100.0 (674)	100.0 (862)	100.0 (59)
경제활동								
취업중	43.0(682)	41.9	44.3	35.7	93.9(1,392)	95.3	93.1	88.2
학업중	0.7(11)	1.0	0.5	0.0	0.1(2)	0.0	0.2	0.0
취업/학업 병행	2.8(45)	2.5	2.7	8.9	1.6(23)	0.5	2.2	3.9
미취업/미취학	53.5(849)	54.5	52.6	55.4	4.5(66)	4.2	4.4	7.8
계(수)	100.0 (1,587)	100.0 (681)	100.0 (868)	100.0 (59)	100.0 (1,483)	100.0 (622)	100.0 (810)	100.0 (51)

다. 가구의 일반적 특성

7차 조사에 참여한 90.4%의 대다수 패널 가구가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이었으며, 조부모 및 친인척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8.9%, 한부모 및 조손가족과 같은 기타 유형의 가구가 0.7%였다. 가구의 구성원은 평균 4.25명으로,

4명인 가구가 59.2%로 가장 많고, 5명이 22.1%, 3명이 11.6%의 순이었다. 가구원 수는 지역 규모별로 큰 차이는 없었으나, 지역 규모가 작아질수록 인원이 많은 경향을 보였다.

패널 대상 유아에게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1명이 65.4%로 가장 많았으며, 2명이 20.6%였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도 11.3%였다. 형제자매가 있는 패널의 경우 평균적으로 1.30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의 아동 수는 지역 규모별로 큰 차이는 없었으나, 지역 규모가 클수록 인원이 적은 경향을 보였다.

7차 조사에 참여한 가구의 소득을 보면, 350~449만원이 26.5%, 450~549만원이 21.5%, 250~349만원이 20.2%였으며, 평균 450.97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조사 참여자의 가구 평균 소득인 443.2만원(최윤경 외, 2014)과 비교해 봤을 때 약 8만원 가량 증가한 수치였다. 2014년 조사 참여자 중 국민기초생활 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은 3.3%로 나타났다.

〈표 III-2-3〉 7차 조사 참여 가구의 일반적 특성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단위: %(명), 만원
				읍·면지역
가구형태 특성				
부모+자녀	90.4(1,465)	91.1	90.0	90.0
조부모+부모+자녀	7.1(115)	6.3	7.8	6.7
부모+자녀+친척	0.8(13)	0.9	0.8	0.0
조부모+부모+자녀+친척	1.0(16)	1.3	0.7	1.7
기타	0.7(11)	0.4	0.8	1.7
계(수)	100.0(1,620)	100.0(684)	100.0(876)	100.0(60)
가구원 수				
2명	0.6(9)	0.9	0.2	1.7
3명	11.6(188)	10.5	12.4	11.9
4명	59.2(958)	63.5	56.3	52.5
5명	22.1(357)	19.2	24.2	23.7
6명 이상	6.6(107)	6.0	6.8	10.2
계(수)	100.0(1,619)	100.0(684)	100.0(876)	100.0(59)
평균(표준편차)	4.25(0.84)	4.22(0.83)	4.27(0.84)	4.32(0.97)
아동의 형제자매수				
0명	11.3(183)	11.8	10.8	11.7
1명	65.4(1,059)	67.4	64.2	60.0
2명	20.6(334)	17.8	22.4	26.7
3명 이상	2.7(44)	2.9	2.6	1.7
계(수)	100.0(1,620)	100.0(684)	100.0(876)	100.0(60)
평균(표준편차)	1.30(0.55)	1.27(0.53)	1.32(0.56)	1.34(0.52)

(표 III-2-3 계속)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가구 소득				
149만원 이하	1.1(18)	1.2	0.7	6.7
150~249만원	7.3(118)	8.6	5.8	13.3
250~349만원	20.2(328)	18.4	21.5	23.3
350~449만원	26.5(430)	27.9	25.6	25.0
450~549만원	21.5(348)	21.3	21.9	16.7
550~649만원	9.9(161)	9.2	10.4	11.7
650~749만원	5.6(90)	6.4	5.1	1.7
750~849만원	3.0(49)	2.9	3.3	0.0
850~949만원	1.3(21)	0.9	1.7	0.0
950만원 이상	3.5(57)	3.1	4.0	1.7
계(수)	100.0(1,620)	100.0(684)	100.0(876)	100.0(60)
평균(표준편차)	450.97(211.95)	446.48(201.33)	460.25(221.34)	367.32(168.98)
국민기초생활급여 대상 여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0.7(11)	1.2	0.3	0.0
차상위 계층	2.6(42)	1.9	3.1	3.3
해당 없음	96.7(1,567)	96.9	96.6	96.7
계(수)	100.0(1,620)	100.0(684)	100.0(876)	100.0(60)

라.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특성

7차 조사에 참여한 아동의 61.8%는 어린이집을 이용 중이었으며, 33.6%는 유치원, 4.6%는 반일제 이상 학원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 아동의 담임교사는 20대가 48.5%로 가장 많았으며, 30대가 32.1%, 40대가 16.1%였다. 아동의 담임교사 연령은 지역 규모가 작은 읍·면지역의 경우 도시지역에 비해 30~40대가 더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기관 이용비용은 평균 18.12만원으로 10~19만원이 31.1%, 20~29만원이 19.9%, 1~9만원이 18.3%였다. 지역 규모에 따라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21.18만원, 중소도시 16.36만원, 읍·면지역이 8.78만원으로 지역 규모가 큰 경우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동이 육아지원 기관 외 특별활동을 이용하는 경우는 71.9%로 나타났으며, 거주 지역이 읍·면지역일 경우에 있어서 육아지원기관 외 특별활동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36.7%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III-2-4〉 7차 조사 참여 가구의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특성

구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단위: %(명)
				읍·면지역
이용 기관 유형				
어린이집	61.8(744)	63.0	60.5	66.7
유치원	33.6(404)	31.0	35.9	33.3
반일제 이상 학원	4.6(55)	6.0	3.7	0.0
계(수)	100.0(1,203)	100.0(533)	100.0(622)	100.0(48)
담당교사의 연령				
20대	48.5(583)	52.9	47.1	16.7
30대	32.1(386)	33.6	30.2	39.6
40대	16.1(194)	12.0	18.2	35.4
50대	3.3(40)	1.5	4.5	8.3
계(수)	100.0(1,203)	100.0(533)	100.0(622)	100.0(48)
기관 이용 비용				
0만원	12.4(199)	8.4	13.8	37.3
1~9만원	18.3(294)	16.3	19.5	22.0
10~19만원	31.1(500)	29.3	33.0	23.7
20~29만원	19.9(320)	22.8	18.4	8.5
30~39만원	8.5(137)	10.5	7.1	6.8
40~49만원	3.9(63)	4.6	3.7	0.0
50만원 이상	5.9(95)	8.1	4.5	1.7
계(수)	100.0(1,608)	100.0(679)	100.0(870)	100.0(59)
평균(표준편차)	18.12(18.49)	21.18(20.88)	16.36(16.37)	8.78(10.98)
기관 외 특별활동 이용				
이용함	71.9(1,165)	70.9	73.3	63.3
이용하지 않음	28.1(455)	29.1	26.7	36.7
계(수)	100.0(1,620)	100.0(684)	100.0(876)	100.0(60)

3. 아동 특성

3절부터 8절까지는 한국아동패널의 7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1,620가구를 기반으로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하여 추정한 결과이다. 모수 추정을 위하여 비율(%)과 평균값은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가독성을 고려하여 사례수(명)와 차이검증 통계치는 가중치를 미적용한 수치를 제시하였다. 평균값의 F검정 사후분석 결과는 가중치를 적용한 평균값의 양상과 다를 수 있다. 이 경우 평균값을 중심으로 해석하였다.

가. 인구학적 특성

2014년 7차 조사에 참여한 패넬 아동은 총 1,620명이다. 아동의 성별은 남아 832명, 여아 788명으로 비슷하나 남아가 조금 더 많았다. 출생순위는 외동아가 12.5%였고, 다자녀 가구의 첫째아가 36.5%, 둘째아가 39.9%로 대다수였으며 셋째아 9.8%, 넷째아 이상이 1.3%로 나타났다. 가구원이 방문한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패넬 아동의 평균 월령은 75.10개월로 만 6.3세에 해당하며, 72개월부터 79개월 범위에 분포하였다.

〈표 III-3-1〉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구분	비율(수)	구분	비율(수)
성별		월령	
남아	51.5(832)	평균(표준편차)	75.10(1.47)개월
여아	48.5(788)	72개월	2.3(31)
계(수)	100.0(1,620)	73개월	11.6(180)
출생순위		74개월	21.7(344)
외동아	12.5(193)	75개월	26.6(443)
첫째아	36.5(551)	76개월	21.0(346)
둘째아	39.9(689)	77개월	10.5(170)
셋째아	9.8(168)	78개월	5.2(86)
넷째아 이상	1.3(19)	79개월	1.0(20)
계(수)	100.0(1,620)	계(수)	100.0(1,620)

나. 일상생활

1) 출생 후 수유 및 이유식

알레르기 질환에 관한 건강 관련 문항의 일부 중에서 출생 후 6개월까지의 수유방법에 관해 질문한 결과, 완전모유수유를 했다는 응답이 47.5%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모유와 분유를 혼합하여 수유한 경우가 39.3%, 분유수유를 한 경우가 13.3%였다. 아동의 성별과 출생순위에 따른 수유방법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3-2〉 출생 후 6개월까지의 수유방법

단위: %(명)					
구분	완전모유수유	혼합수유(모유+분유)	분유수유	계(수)	$\chi^2(df)$
전체	47.5	39.3	13.3	100.0(1,519)	-
아동 성별					
남	45.1	41.9	13.0	100.0(780)	2.27(2)
여	49.9	36.6	13.5	100.0(739)	
아동 출생순위					
외동	39.9	44.2	15.9	100.0(708)	3.85(4)
첫째	47.3	40.6	12.1	100.0(602)	
둘째 이상	48.8	37.4	13.8	100.0(209)	

출생 후 6개월까지 혼합수유(모유+분유)를 했다고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시작 시기를 질문한 결과, 출생 후 0~2개월부터 혼합수유를 시작했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47.0%로 가장 많았으며, 출생 후 3~4개월부터 시작한 경우가 34.4%, 5~6개월부터 시작한 경우가 18.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식 시작 시기는 출생 후 4~6개월이 52.7%, 7개월 이후가 47.0%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3-3〉 혼합수유 및 이유식 시작 시기

단위: %(명)								
구분	혼합수유 시작 시기				이유식 시작 시기			
	0~2개월	3~4개월	5~6개월	계(수)	0~3개월	4~6개월	7개월 이후	계(수)
전체	47.0	34.4	18.6	100.0(655)	0.3	52.7	47.0	100.0(1,515)
아동 성별								
남	43.5	36.0	20.5	100.0(345)	0.4	50.4	49.2	100.0(778)
여	51.2	32.5	16.3	100.0(310)	0.2	55.2	44.7	100.0(737)
$\chi^2(df)$	1.13(2)				2.95(2)			

2) 식습관 및 식생활

가) 식습관

가정과 기관에서의 아동의 식습관을 알아보기 위하여 주양육자와 교사를 대상으로 질문하였다. 식습관 특성 중 아동의 식사 속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주양육자와 교사 모두 아동의 식사 속도가 보통이라는 응답이 각 46.9%와 57.4%로 가장 높았다.

주양육자와 교사가 인식하는 아동의 식사 속도가 아동의 성별과 모의 취/학업여부에 따라 달라지는지 함께 분석한 결과, 교사의 경우 남아의 식사 속도가 평균 3.05점으로 여아의 속도보다 유의하게 빠르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4〉 가정/기관에서의 아동의 식습관: 식사 속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느림	느림	보통	빠름	매우 빠름	계(수)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3.9	24.1	46.9	21.7	3.5	100.0(1,620)	2.97(0.87)	-
아동 성별								
남	4.3	24.0	43.7	24.5	3.4	100.0(832)	2.99(0.89)	1.20
여	3.5	24.1	50.2	18.7	3.6	100.0(788)	2.95(0.84)	
모 취/학업 여부								
취/학업	3.4	22.3	49.2	21.1	4.0	100.0(738)	3.00(0.86)	1.50
미취/학업	4.3	25.7	44.4	22.4	3.2	100.0(849)	2.95(0.88)	
전체	4.9	17.9	57.4	16.6	3.1	100.0(1,203)	2.95(0.82)	
아동 성별								
남	5.1	15.8	52.7	21.5	4.9	100.0(631)	3.05(0.88)	4.10***
여	4.8	20.2	62.7	11.2	1.2	100.0(584)	2.84(0.73)	
모 취/학업 여부								
취/학업	5.0	15.8	59.0	16.5	3.6	100.0(566)	2.98(0.82)	1.21
미취/학업	4.9	19.9	55.7	16.7	2.8	100.0(618)	2.93(0.82)	

*** $p < .001$.

가정과 기관에서의 아동의 편식 정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가정과 기관 모두의 경우에서 골고루 먹는 편이라는 응답이 각 42.6%와 4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편식이 심한 편이라는 응답은 가정에서 1.6%, 기관에서 2.9%로 응답 정도가 모두 가장 낮았다.

편식 정도가 아동의 성별과 모의 취/학업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분석한 결과 가정에서의 편식 정도에 대한 여아의 평균이 3.54점, 기관에서의 평균이 3.69점으로 상대적으로 남아보다 여아가 가정과 기관 모두의 경우에서 편식을 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5〉 가정/기관에서의 아동의 식습관: 편식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편식이 심함	편식 하는 편	보통	콜고루 먹는 편	전혀 편식 하지 않음	계(수)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1.6	19.9	22.8	42.6	13.1	100.0(1,620)	3.46(1.00)	
가정								
아동 성별								
남	2.1	21.7	24.0	40.3	11.9	100.0(622)	3.38(1.02)	-3.02**
여	1.1	18.0	21.5	45.0	14.4	100.0(581)	3.54(0.98)	
모취/학업 여부								
취/학업	1.9	20.4	23.0	41.3	13.3	100.0(738)	3.44(1.02)	-0.70
미취/학업	1.4	19.8	22.7	42.8	13.2	100.0(849)	3.47(0.98)	
기관								
전체	2.9	15.5	20.8	41.8	19.0	100.0(1,203)	3.59(1.05)	
아동 성별								
남	4.6	18.3	18.8	40.2	18.2	100.0(622)	3.49(1.12)	-3.32**
여	1.1	12.4	22.9	43.7	19.9	100.0(581)	3.69(0.96)	
모취/학업 여부								
취/학업	3.0	14.9	18.0	43.1	21.0	100.0(566)	3.64(1.06)	1.28
미취/학업	2.7	16.5	22.6	40.9	17.4	100.0(618)	3.54(1.04)	

** $p < .01$.

아동의 식사 양과 관련하여, 가정에서의 식사 양의 일정한 정도와 기관에서의 먹는 양의 정도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가정에서의 아동의 식사 양이 일정하다는 응답비율이 전체 6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일정하거나 보통이라는 응답이 각각 15.8%와 15.6%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가정에서의 아동의 식사 양은 일정한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머니가 미취업, 미학업인 경우 아동의 식사 양은 어머니가 취업, 학업 중인 경우보다 평균 3.95점으로 더 일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어서, 또래들과 비교한 아동의 식사 양이 어떠한지 교사를 대상으로 질문한 결과, 보통이라는 응답이 전체 59.8%로 가장 높았으며 많이 먹는 편이라는 응답이 23.3%로 높게 나타났다. 아동의 식사 양에 대한 교사의 인식은 어머니의 취/학업 여부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나, 상대적으로 여아보다는 남아의 식사 양이 더 많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3-6〉 가정/기관에서의 아동의 식습관: 식사 양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일정하지 않음	일정하지 않음	보통임	일정함	매우 일정함	계(수)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0.2	4.3	15.6	64.1	15.8	1000(1620)	3.91(0.71)	
아동 성별								
가정 남	0.3	4.5	16.2	64.0	14.9	100.0(832)	3.89(0.71)	-0.39
여	0.1	4.1	15.0	64.1	16.6	100.0(788)	3.93(0.70)	
모취/학업 여부								
취/학업	0.1	4.9	17.7	62.2	15.1	100.0(738)	3.87(0.72)	-2.29*
미취/학업	0.3	3.8	13.6	65.6	16.7	100.0(849)	3.95(0.69)	
구분	매우 조금 먹는 편	조금 먹는 편	보통	많이 먹는 편	매우 많이 먹는 편	계(수)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1.7	11.7	59.8	23.3	3.6	1000(1203)	3.15(0.73)	
아동 성별								
기관 남	1.5	10.3	57.9	26.1	1.4	100.0(622)	3.21(0.74)	2.78**
여	1.8	13.1	62.0	20.1	3.0	100.0(581)	3.09(0.72)	
모취/학업 여부								
취/학업	1.6	10.2	57.7	26.2	4.3	100.0(566)	3.21(0.75)	1.87
미취/학업	1.8	12.9	61.5	20.9	2.9	100.0(618)	3.10(0.72)	

* $p < .05$, ** $p < .01$.

가정에서의 식사시간이 규칙적인지, 아동이 어머니의 도움 없이 혼자서도 식사를 잘 하는지에 대한 식습관 자립도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우선 가정의 식사 시간 규칙성과 관련하여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64.7%로 가장 높았으며,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20.7%로 가정에서 아동의 식사 시간은 비교적 규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사 시간의 규칙적인 정도는 어머니의 취/학업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어머니가 미취/학업인 경우의 식사의 규칙적인 정도가 평균 4.09점으로 더 높았다.

아동의 식습관 자립 정도는 ‘그렇다’는 응답이 59.8%,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21.4%로 대부분의 아동이 어머니의 도움 없이 혼자서 식사를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아의 식사 자립도 정도가 평균 4.04점으로 남아의 자립도 정도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3-7〉 가정에서의 식습관: 식사의 규칙성 및 식습관 자립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표준편차)	t
식사 규칙성	전체	0.1	2.7	11.8	64.7	20.7	100.0(1,620)	4.03(0.66)	
	아동 성별								
	남	0.1	3.4	13.9	62.6	20.0	100.0(832)	3.99(0.70)	-1.61
	여	0.1	2.0	9.5	66.9	21.4	100.0(788)	4.08(0.63)	
	모취/학업 여부								
	취/학업	0.1	3.5	13.9	65.0	17.5	100.0(738)	3.96(0.68)	-3.42**
	미취/학업	0.1	2.0	10.2	64.0	23.7	100.0(849)	4.09(0.65)	
식습관 자립도	전체	0.6	3.1	15.1	59.8	21.4	100.0(1,620)	3.98(0.74)	
	아동 성별								
	남	1.1	3.8	16.7	58.3	20.1	100.0(832)	3.92(0.79)	-2.37*
	여	0.1	2.4	13.5	61.3	22.7	100.0(788)	4.04(0.68)	
	모취/학업 여부								
	취/학업	0.9	3.6	14.8	58.7	21.9	100.0(738)	3.97(0.77)	-0.56
	미취/학업	0.4	2.7	15.4	59.9	21.5	100.0(849)	3.99(0.72)	

* $p < .05$, ** $p < .01$.

나) 식생활

가정에서의 식습관과 관련하여, 평균적으로 아동이 집에서 아침식사를 몇 번 하는지 질문한 결과 거의 매일 먹는다는 응답이 전체 70.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평균적으로 주 5-6회 아침식사를 한다는 경우가 10.8%, 주 3-4회 인 경우가 9.9%로 높았다. 또한, 아침 식사 횟수는 어머니가 취/학업 중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관계없이 거의 매일 먹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3-8〉 아동의 가족과의 아침식사 횟수

단위: %(명)

구분	거의안먹음	주 1-2회	주 3-4회	주 5-6회	거의매일먹음	계(수)	$\chi^2(df)$
전체	3.6	5.1	9.9	10.8	70.7	100.0(1,587)	
모취/학업 여부							
취/학업	4.4	5.9	11.1	11.6	67.0	100.0(738)	7.02(4)
미취/학업	3.1	4.3	9.1	10.2	73.4	100.0(849)	

하루에 집에서 간식을 먹는 횟수는 평균적으로 1일 1회라는 응답이 전체 52.0%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하루에 2회 정도 먹는다는 응답이 27.5%, 4회 이상 먹는다는 응답이 9.2%로 높게 나타났으며, 하루에 간식을 거의 먹지 않는다는 응답이 4.1%로 가장 낮았다. 간식을 먹는 횟수는 어머니의 취/학업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어머니가 미취/학업일 때 간식을 하루에 2~4회 이상 먹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3-9〉 아동의 가정에서의 간식 횟수

단위: %(명)

구분	거의안먹음	1일 1회	1일 2회	1일 3회	1일 4회 이상	계(수)	$\chi^2(df)$
전체	4.1	52.0	27.5	7.1	9.2	100.0(1,587)	
모 취/학업 여부							
취/학업	4.9	55.6	26.8	5.0	7.7	100.0(738)	14.56(4)**
미취/학업	3.4	49.8	27.9	8.7	10.2	100.0(849)	

** $p < .01$.

일주일에 가정에서 배달음식을 포함하여 외식을 평균적으로 몇 번 하는지 질문한 결과, 전체적으로 주 1-2회 정도 외식을 한다는 응답이 67.7%로 가장 높았다. 거의 외식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된 경우도 23.2%로 높게 나타났으며, 주 8회 이상 외식을 하는 경우도 0.4% 응답되었다. 외식 횟수는 어머니의 취/학업 여부에 따라 다르지 않았으나, 가구 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이 낮을 때 외식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양상을 보였다.

〈표 III-3-10〉 아동의 외식(배달음식 포함) 횟수

단위: %(명)

구분	거의안먹음	주 1-2회	주 3-5회	주 6-7회	주 8회 이상	계(수)	$\chi^2(df)$
전체	23.2	67.7	8.2	0.6	0.4	100.0(1,587)	
모 취/학업 여부							
취/학업	21.6	68.0	9.6	0.5	0.3	100.0(738)	1.51(4)
미취/학업	24.2	67.7	7.1	0.6	0.3	100.0(849)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30.2	62.1	6.5	0.5	0.7	100.0(440)	37.76(12)***
301~400만원	25.4	67.7	6.5	0.3	0.0	100.0(436)	
401~500만원	18.9	71.2	9.2	0.2	0.6	100.0(359)	
501만원 이상	16.5	70.9	11.1	1.3	0.2	100.0(385)	

*** $p < .001$.

외식을 포함하여 아동이 일주일에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횟수는 주 8회 이상이라는 응답이 전체 26.9%로 가장 높았다. 주 3-5회 식사한다는 응답이 24.3%, 주 6-7회 식사한다는 응답이 21.8%로 유사한 비율로 응답되었으며, 아동이 가족과 일주일에 1-2회 정도만 함께 식사한다는 경우 또한 22.7%로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학업 여부에 따른 가족과의 식사 횟수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III-3-11〉 아동의 가족과의 식사 횟수

단위: %(명)						
구분	거의안먹음	주 1-2회	주 3-5회	주 6-7회	주 8회 이상	계(수)
전체	4.3	22.7	24.3	21.8	26.9	100.0(1,587)
모 취/학업 여부						
취/학업	3.5	21.7	25.5	20.7	28.5	100.0(738)
미취/학업	5.1	23.5	23.5	22.9	25.1	100.0(849)

4.66(4)

3) 미디어 이용

1주일 간 미디어 이용 정도를 컴퓨터(인터넷), 개인 게임기, 휴대폰(스마트폰 포함) 및 TV로 나누어 ‘전혀 이용하지 않음’의 1점부터 ‘매우 자주 이용함’의 5점까지의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그 결과, 미디어 매체 중 게임기를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고 답한 비율이 8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자주 이용했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많은 미디어 매체는 TV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미디어 이용 정도를 자세하게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컴퓨터(인터넷)의 경우 지난 1주일 간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전체 51.4%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가끔 이용했다는 응답이 34.6%로 높게 나타나 대체적으로 컴퓨터(인터넷) 사용 정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징적으로, 성별에 따라 컴퓨터(인터넷) 사용 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평균적으로 남아가 1.71점으로 여아보다 더 자주 컴퓨터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3-12〉 아동의 미디어 이용 정도: 컴퓨터(인터넷)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이용 하지 않음	가끔 이용함	이용함	자주 이용함	매우 자주 이용함	계(수)
전체	51.4	34.6	8.2	4.4	1.4	100.0(1,524)
아동 성별						
남	52.6	31.8	9.1	4.5	1.9	100.0(777)
여	50.0	37.6	7.2	4.2	0.9	100.0(747)

평균
(표준편차)

1.71(0.94)

1.68(0.85)

0.19***

(표 III-3-12 계속)

구분	전혀 이용 하지 않음	가끔 이용함	이용함	자주 이용함	매우 자주 이용함	계(수)	평균 (표준편차)	t/F
모 취/학업 여부								
취/학업	50.6	35.0	9.0	3.5	2.0	100.0(697)	1.71(0.91)	0.20
미취/학업	52.0	34.8	7.6	5.1	0.5	100.0(796)	1.67(0.86)	
모 학력								
고졸 이하	49.8	36.4	8.7	3.9	1.2	100.0(457)	1.70(0.87)	0.01
전문대졸	52.4	33.6	6.9	5.5	1.5	100.0(405)	1.70(0.93)	
대졸 이상	51.6	34.3	8.4	4.1	1.6	100.0(652)	1.70(0.90)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49.7	35.4	8.3	5.2	1.4	100.0(413)	1.73(0.92)	1.38
301~400만원	52.5	32.7	8.9	5.0	0.8	100.0(411)	1.69(0.89)	
401~500만원	50.1	34.9	8.9	3.8	2.4	100.0(338)	1.74(0.94)	
501만원 이상	53.1	35.8	6.5	3.2	1.3	100.0(362)	1.64(0.84)	

*** $p < .001$.

이어서 아동의 닌텐도 등의 개인 게임기 이용 정도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주일간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83.1%로 과반수이상의 아동이 개인 게임기를 거의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어서 가끔 이용한다는 응답이 11.2%로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자주 이용했다는 응답도 0.3%로 존재했다. 마찬가지로 개인 게임기 이용 정도 또한 아동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남아의 평균이 1.33점, 여아의 평균이 1.16점으로 남아의 개인 게임기 이용 정도가 여아 보다 높았다.

〈표 III-3-13〉 아동의 미디어 이용 정도: 개인 게임기(닌텐도 등)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이용 하지 않음	가끔 이용함	이용함	자주 이용함	매우 자주 이용함	계(수)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83.1	11.2	3.6	1.8	0.3	100.0(1,524)	1.25(0.64)	
아동 성별								
남	78.6	13.3	4.9	2.7	0.5	100.0(777)	1.33(0.74)	3.88***
여	87.8	8.9	2.2	0.9	0.1	100.0(747)	1.16(0.50)	
모 취/학업 여부								
취/학업	83.6	10.7	3.4	2.2	0.1	100.0(697)	1.25(0.63)	0.56
미취/학업	82.8	11.7	3.7	1.3	0.5	100.0(796)	1.25(0.63)	
모 학력								
고졸 이하	81.3	12.3	4.8	1.3	0.3	100.0(457)	1.26(0.64)	1.74
전문대졸	87.5	8.9	1.9	1.4	0.2	100.0(405)	1.19(0.57)	
대졸 이상	81.6	11.8	3.8	2.4	0.4	100.0(652)	0.25(0.65)	

(표 III-3-13 계속)

구분	전혀 이용 하지 않음	가끔 이용함	이용함	자주 이용함	매우 자주 이용함	계(수)	평균 (표준편차)	t/F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86.8	9.2	2.5	0.7	0.8	100.0(413)	1.20(0.59)	1.36
301~400만원	80.9	12.2	4.8	2.0	0.0	100.0(411)	1.28(0.65)	
401~500만원	82.9	11.4	2.3	2.9	0.4	100.0(338)	1.26(0.68)	
501만원 이상	81.6	12.0	4.5	1.8	0.0	100.0(362)	1.27(0.63)	

*** $p < .001$.

휴대폰, 스마트폰의 경우 컴퓨터와 개인 게임기 이용 정도에 비해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전체 22.3%로 낮게 나타났으며, 가끔 이용했다는 응답이 43.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어머니의 취/학업 여부와 학력, 가구소득에 따른 이용 정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있었는데 컴퓨터와 개인 게임기 이용과 마찬가지로 남아가 평균 2.35점으로 여아보다 휴대폰, 스마트폰의 사용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14〉 아동의 미디어 이용 정도: 휴대폰, 스마트폰 등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이용 하지 않음	가끔 이용함	이용함	자주 이용함	매우 자주 이용함	계(수)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22.3	43.7	18.5	11.8	3.7	100.0(1,524)	2.31(1.06)	
아동 성별								
남	23.0	41.0	18.2	13.4	4.4	100.0(777)	2.35(1.10)	2.36*
여	21.5	46.5	18.8	10.1	3.0	100.0(747)	2.27(1.01)	
모 취/학업 여부								
취/학업	22.3	43.0	18.6	12.6	3.6	100.0(697)	2.32(1.06)	0.92
미취/학업	22.0	44.6	18.6	11.1	3.6	100.0(796)	2.30(1.04)	
모 학력								
고졸 이하	20.2	44.1	19.3	13.6	2.9	100.0(457)	2.36(1.02)	1.29
전문대졸	23.2	40.1	19.2	11.8	5.7	100.0(405)	2.39(1.12)	
대졸 이상	22.9	45.7	17.4	10.8	3.2	100.0(652)	2.29(1.04)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22.9	43.7	15.8	13.0	4.6	100.0(413)	2.33(1.10)	0.29
301~400만원	22.5	43.5	19.6	11.0	3.3	100.0(411)	2.29(1.04)	
401~500만원	19.8	42.9	22.5	12.5	2.3	100.0(338)	2.35(1.01)	
501만원 이상	23.5	44.7	16.6	10.7	4.5	100.0(362)	2.28(1.08)	

* $p < .05$.

마지막으로 TV시청의 경우, 지난 1주일 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2.9%로 다른 미디어 매체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동의 TV시청 정도는 아동의 성별과 어머니의 취/학업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어머니의 학력과 가구 소득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있었다. 먼저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 이하이거나 전문대졸인 경우보다 대졸 이상인 경우 아동의 TV시청 정도가 유의미하게 낮았다. 가구 소득은 501만원 이상인 경우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보다 아동의 TV시청 정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I-3-15〉 아동의 미디어 이용 정도: TV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이용 하지 않음	가끔 이용함	이용함	자주 이용함	매우 자주 이용함	계(수)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2.9	17.1	26.6	33.2	20.2	100.0(1,524)	3.51(1.08)	
아동 성별								
남	3.0	18.2	23.8	33.2	21.8	100.0(777)	3.53(1.11)	1.11
여	2.8	15.9	29.6	33.2	18.5	100.0(747)	3.49(1.05)	
모 취/학업 여부								
취/학업	3.1	15.6	26.5	35.2	19.6	100.0(697)	3.53(1.07)	0.37
미취/학업	2.8	18.4	27.1	31.6	20.1	100.0(796)	3.48(1.09)	
모 학력								
고졸 이하	2.8	13.3	24.0	34.4	25.4	100.0(457)	3.66 ^a (1.08)	18.19 ^{***}
전문대졸	1.9	14.6	25.3	34.9	23.3	100.0(405)	3.63 ^a (1.05)	
대졸 이상	3.6	21.1	29.2	31.1	15.0	100.0(652)	3.33 ^b (1.08)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3.9	14.3	22.8	34.4	24.5	100.0(413)	3.61 ^a (1.12)	5.94 ^{**}
301~400만원	3.1	15.8	27.8	33.2	20.0	100.0(411)	3.51 ^{ab} (1.08)	
401~500만원	1.6	15.1	30.6	33.3	19.4	100.0(338)	3.54 ^{ab} (1.02)	
501만원 이상	2.7	23.5	26.0	31.6	16.2	100.0(362)	3.35 ^b (1.09)	

** $p < .01$, *** $p < .001$

4) 수면 특성

아동의 수면 특성과 관련하여, 평상시 밤에 몇 시에 잠들어 아침 몇 시에 일어나는지 질문하고 이를 토대로 총 수면 시간을 알아보았다. 패널 아동의 취침 시각은 평균적으로 21시 51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상 시각은 평균 7시 39분이었다. 취침 시각은 어머니의 취/학업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취/학업인 경우 아동의 취침 시각이 21시 56분으로 어머니가 미취/학업인

경우의 21시 47분보다 다소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 시각은 아동의 성별과 어머니의 취/학업 여부에 따라 달랐는데, 우선 아동 성별의 경우 여아의 기상 시각이 7시 41분으로 남아인 7시 37분보다 다소 늦었고, 어머니가 미취/학업 경우의 기상 시각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평균 7시 41분으로 더 늦었다.

아동의 총 수면 시간 또한 아동의 성별과 어머니의 취/학업 여부에 따라 상이했는데, 여아의 수면 시간이 평균 9.82시간으로 남아인 9.71시간보다 더 많았으며, 어머니가 미취/학업인 경우의 수면 시간이 평균 9.86시간으로 취/학업인 경우의 9.64시간보다 더 많았다.

〈표 III-3-16〉 아동의 수면 시간

단위: 시:분, 시간(명)

구분	취침 시각		기상 시각		총 수면 시간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21:51	0:59	7:39	0:34	9:76	0:69	(1,620)
아동 성별							
남	21:54	0:52	7:37	0:35	9:71	0:68	(832)
여	21:49	1:06	7:41	0:33	9:82	0:71	(788)
<i>t</i>	1.26		-2.64**		-3.38**		
모 취/학업 여부							
취/학업	21:56	0:51	7:36	0:33	9:64	0:68	(738)
미취/학업	21:47	1:05	7:41	0:34	9:86	0:69	(849)
<i>t</i>	2.87**		-2.64**		-6.36***		

** $p < .01$, *** $p < .001$

밤잠을 자다가 깨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토대로 아동의 숙면 여부를 조사한 결과 밤에 잠을 자다가 깨지 않는다는 비율이 88.3%로 높게 나타났다. 밤에 자다가 깨는 경우도 전체 11.7%로 조사되었다. 아동의 숙면 여부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나, 어머니의 취/학업 여부에 따른 차이는 있었는데 특히 어머니가 미취업, 미학업인 경우에 아동이 밤잠을 자다가 깨는 비율이 14.4%로 더 높았다.

〈표 III-3-17〉 숙면 여부

단위: %(명)

구분	예(밤잠 자다 깨지 않음)	아니요(밤잠 자다가 깬)	계(수)	$\chi^2(df)$
전체	88.3	11.7	100.0(1,620)	-
아동 성별				
남	88.1	11.9	100.0(832)	0.12(1)
여	88.5	11.5	100.0(788)	

(표 III-3-17 계속)

구분	예(밤잠 자다 깨지 않음)	아니요(밤잠 자다가 깬)	계(수)	$\chi^2(df)$
모 취/학업 여부				
취/학업	91.7	8.3	100.0(738)	10.15(1)**
미취/학업	85.6	14.4	100.0(849)	

** $p < .01$.

교사 응답을 기준으로 육아지원기관의 낮잠 여부와, 낮잠 시간이 있을 경우 아동의 낮잠 정도가 어떠한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응답 비율 중 60.9%의 기관이 낮잠 시간이 없었으며, 어린이집, 반일제 이상 학원, 유치원이 각각 50.4%, 34.7%, 32.9% 순으로 낮잠 시간이 존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다니는 기관에 낮잠시간이 있는 경우, 아동의 낮잠 정도가 어떠한지 질문한 결과 낮잠을 자지 않는다고 응답된 경우가 전체 85.4%로 가장 높았으며, 낮잠을 잔다는 응답이 9.4%, 불규칙적이라는 응답이 5.2%로 조사되었다. 기관에서의 아동의 낮잠 정도는 기관의 유형과 어머니의 취/학업 여부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머니가 취/학업 중인 경우 아동이 낮잠을 잔다고 응답한 비율이 13.5%로 미취/학업인 경우인 6.1%보다 더 높았으며,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이 낮잠을 잔다고 응답된 비율이 16.0%로 가장 높았다.

〈표 III-3-18〉 아동의 기관에서의 낮잠 여부 및 정도

단위: %(명)

구분	낮잠 시간 여부			낮잠 정도			
	낮잠시간 없음	낮잠시간 있음	계(수)	낮잠을 잠	낮잠을 자지 않음	불규칙적임	계(수)
전체	60.9	39.1	100.0(1,202)	9.4	85.4	5.2	100.0(461)
모 취/학업 여부							
취/학업	-	-	100.0(565)	13.5	80.3	6.2	100.0(232)
미취/학업	-	-	100.0(618)	6.1	89.9	4.0	100.0(218)
$\chi^2(df)/t$		-			15.69(2)	***	
육아지원 기관 유형							
유치원	67.1	32.9	100.0(744)	4.5	93.3	2.1	100.0(246)
어린이집	49.6	50.4	100.0(403)	16.0	75.2	8.8	100.0(196)
반일제 이상	65.3	34.7	100.0(55)	0.0	96.9	3.1	100.0(19)
$\chi^2(df)/t$		27.16(2)	***		29.68(4)	***	

주: 1) 기관에서의 낮잠 중 '기타(휴식을 취함)'를 제외하였음.

2) ① 낮잠시간 없음을 '낮잠시간 없음'으로 코딩하였으며, ② 낮잠을 잠, ③ 낮잠을 자지 않음, ④ 불규칙적임은 '낮잠시간 있음'으로 코딩하여 분석함.

*** $p < .001$.

이어서, 아동의 일상적인 평일 하루 중 가정에서의 낮잠 여부와, 기관에서의 1회 평균 낮잠시간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정에서 낮잠을 자지 않는다고 응답된 비율이 전체 96.1%로 대부분의 아동이 가정에서 낮잠을 자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관에서의 낮잠은, 아동이 이용하는 기관에 낮잠시간이 있고 아동이 낮잠을 잔다고 응답된 경우로 한정하여 1회 평균 낮잠 자는 시간을 분석한 결과, 평균 43.19분(SD 18.52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19〉 아동의 가정과 기관에서의 낮잠 시간

단위: %(명), 분

가정			기관		
낮잠을 자지 않음	낮잠을 잠	계(수)	평균	표준편차	(수)
96.1	3.9	100.0(1,620)	43.19	18.52	(65)

주: 가정에서 낮잠을 자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 30분 단위로 응답되었기 때문에 낮잠 시간이 아닌 낮잠 여부 비율로 제시함.

5) 실내/외 활동

아동이 평일 하루 중에 어린이집, 유치원 및 반일제 이상 학원과 같은 보육·교육 기관을 얼마나 이용하는지, 개인, 그룹 지도, 학습지 및 시간제 교육 기관과 같은 사교육 이용 시간은 어떠한지 하루 24시간을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우선, 평일 하루의 평균적인 보육·교육 이용시간은 7.11시간($SD=1.33$), 사교육 이용 시간은 평균 0.85시간($SD=0.74$)으로 사교육 이용 시간보다는 보육·교육 이용 시간이 더 많았다.

특히, 아동의 보육·교육기관 이용 시간은 어머니가 취/학업 중인 경우가 평균 7.55시간으로 미취/학업인 경우보다 많았으며,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이상인 경우의 이용 시간이 평균 6.94시간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아동이 보육·교육 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은 반일제 이상 학원이 평균 6.47시간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보다 더 적었으며, 지역 규모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군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아동이 보육·교육 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평균 6.75시간으로 더 적었다.

사교육 이용의 경우, 외동이 첫째나 둘째 이상보다 이용 시간이 더 길었고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가 평균 0.93시간으로 고졸이하거나, 전문대졸인 경우보다 아동의 사교육 이용 시간이 더 많게 나타났다. 가구 소득은 300

만원 이하인 경우가 평균 0.68시간으로 사교육 이용 시간이 가장 적었고, 아동이 반일제 이상 학원을 다닐 경우의 사교육 이용 시간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보다 유의하게 많았다. 지역 규모 기준으로는, 상대적으로 광역시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시에 거주하는 경우의 사교육 이용 시간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3-20〉 아동의 보육·교육기관 이용 시간 및 사교육 시간

단위: 시간(명)

구분	보육·교육기관 이용 시간			개인, 그룹, 학습지 등의 교육시간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7.11	1.33	(1,618)	0.85	0.74	(1,620)
아동 성별						
남	7.12	1.31	(830)	0.88	0.75	(832)
여	7.09	1.36	(788)	0.81	0.72	(788)
<i>t</i>		1.16			1.92	
아동 출생순위						
외동	7.15	1.31	(182)	0.97 ^a	0.83	(183)
첫째	7.06	1.37	(544)	0.85 ^b	0.71	(544)
둘째 이상	7.13	1.29	(859)	0.80 ^b	0.71	(860)
<i>F</i>		0.43			8.12 ^{***}	
모 취/학업 여부						
취/학업	7.55	1.31	(738)	0.84	0.70	(738)
미취/학업	6.73	1.25	(847)	0.87	0.76	(849)
<i>t</i>		12.60 ^{***}			-1.07	
모 학력						
고졸이하	7.17 ^a	1.25	(473)	0.76 ^a	0.65	(473)
전문대졸	7.30 ^a	1.25	(436)	0.81 ^a	0.68	(438)
대졸 이상	6.94 ^b	1.41	(697)	0.93 ^b	0.81	(697)
<i>F</i>		8.35 ^{***}			7.71 ^{***}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7.13	1.21	(439)	0.68 ^a	0.72	(440)
301~400만원	6.98	1.36	(436)	0.86 ^b	0.69	(436)
401~500만원	7.11	1.34	(359)	0.90 ^b	0.73	(359)
501만원 이상	7.22	1.41	(384)	0.99 ^b	0.78	(385)
<i>F</i>		2.08			14.03 ^{***}	
육아지원 기관 유형						
유치원	7.09 ^a	1.26	(744)	0.85 ^a	0.73	(744)
어린이집	7.37 ^a	1.22	(404)	0.78 ^a	0.67	(404)
반일제 이상	6.47 ^b	1.34	(55)	1.11 ^b	0.89	(55)
<i>F</i>		19.30 ^{***}			9.45 ^{***}	

(표 III-3-20 계속)

구분	보육·교육기관 이용시간			개인, 그룹, 학습지 등의 교육시간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지역 규모						
서울	6.75 ^a	1.64	(223)	0.88 ^{ab}	0.66	(223)
광역시	7.20 ^{bc}	1.12	(114)	0.65 ^a	0.63	(114)
도농복합시	7.18 ^{bc}	1.24	(914)	0.86 ^{ab}	0.73	(915)
시	7.03 ^{ab}	1.36	(272)	0.92 ^b	0.85	(272)
군	7.56 ^c	1.04	(95)	0.71 ^{ab}	0.64	(96)
<i>F</i>		8.07 ^{**}			3.32 [*]	

* $p < .05$, *** $p < .001$.

아동이 장난감 놀이를 하거나, 책을 보는 등 실내놀이 하는 시간은 평일 평균 1.87시간($SD=1.01$), 주간 이용 일은 한 주간 평균 6.44일($SD=1.18$)로 조사되었다. 바깥놀이나 외출을 하는 실외 놀이 시간은 평균 1.10시간($SD=0.73$), 주간 이용 일은 평균 4.41일($SD=1.91$)로 조사되어, 실외놀이보다는 실내놀이를 하며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실내·외 놀이시간은 어머니의 취/학업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실내/실외 놀이 시간과 주간 이용 일 모두 어머니가 취/학업 중인 경우 유의하게 적었다. 아동이 이용하는 육아지원기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실내놀이와 실외놀이 시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특징적으로 아동이 반일제 이상 학원을 다닐 경우에 실내/외 놀이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3-21〉 아동의 실내·외 놀이 시간 및 주간 이용 일

단위: 시간, 일(명)

구분	장난감 놀이, 책보기 등 실내놀이						바깥놀이 및 외출					
	시간			주간 이용 일			시간			주간 이용 일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전체	1.87	1.01	(1,620)	6.44	1.18	(1,613)	1.10	0.73	(1,620)	4.41	1.91	(1,424)
아동 성별												
남	1.85	1.02	(832)	6.45	1.17	(828)	1.09	0.72	(832)	4.47	1.97	(729)
여	1.89	0.99	(788)	6.43	1.18	(785)	1.11	0.73	(788)	4.35	1.83	(695)
<i>t</i>	-0.75			0.28			-0.42			1.00		
아동 출생순위												
외동	1.79	0.99	(183)	6.41	1.10	(183)	1.00	0.71	(183)	4.54	1.85	(152)
첫째	1.90	1.02	(544)	6.51	1.15	(542)	1.12	0.71	(544)	4.32	1.89	(480)
둘째 이상	1.89	1.00	(860)	6.39	1.22	(855)	1.12	0.74	(860)	4.48	1.93	(766)
<i>F</i>	0.72			1.87			2.96			0.66		

(표 III-3-21 계속)

구분	장난감 놀이, 책보기 등 실내놀이					바깥놀이 및 외출				
	시간			주간 이용 일		시간			주간 이용 일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모 취/학업 여부										
취/학업	1.79	0.95	(738)	6.34	1.28 (733)	0.95	0.67 (738)	4.14	1.95 (619)	
미취/학업	1.94	1.04	(849)	6.51	1.09 (847)	1.22	0.75 (849)	4.61	1.85 (776)	
<i>t</i>	-2.67*			-2.24*		-7.27***			-3.90***	
모 학력										
고졸이하	1.83	1.03	(473)	6.36	1.27 (472)	1.08	0.75 (473)	4.51	1.95 (405)	
전문대졸	1.87	0.96	(438)	6.47	1.15 (483)	1.04	0.68 (438)	4.29	1.95 (384)	
대졸 이상	1.91	1.03	(697)	6.47	1.13 (691)	1.15	0.74 (697)	4.43	1.85 (626)	
<i>F</i>	2.37			2.74		1.72			0.14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1.89	0.98	(440)	6.59	0.94 (439)	1.13	0.70 (440)	4.54	1.98 (392)	
301~400만원	1.88	1.05	(436)	6.37	1.27 (435)	1.08	0.77 (436)	4.43	1.93 (381)	
401~500만원	1.93	1.02	(359)	6.41	1.21 (357)	1.09	0.71 (359)	4.31	1.79 (312)	
501만원 이상	1.79	0.97	(385)	6.37	1.26 (382)	1.09	0.72 (385)	4.35	1.89 (339)	
<i>F</i>	0.60			1.73		0.15			1.03	
육아지원 기관 유형										
유치원	1.96 ^a	1.08	(744)	6.51 ^a	1.12 (740)	1.10	0.72 (744)	4.45	1.95 (654)	
어린이집	1.84 ^a	0.96	(404)	6.47 ^a	1.18 (401)	0.97	0.65 (404)	4.23	1.95 (342)	
반일제 이상	2.11 ^b	1.19	(55)	6.70 ^b	0.99 (55)	1.16	0.70 (55)	4.83	1.70 (50)	
<i>F</i>	3.50*			1.18		3.85*			1.46	
지역 규모										
서울	1.91 ^a	1.11	(223)	6.48 ^a	1.18 (222)	1.07 ^a	0.71 (223)	4.56 ^a	1.87 (204)	
광역시	2.49 ^b	1.15	(114)	6.92 ^b	0.61 (110)	1.18 ^{ab}	0.63 (114)	3.72 ^{ab}	2.03 (110)	
도농복합시	1.80 ^a	0.94	(915)	6.39 ^a	1.23 (850)	1.02 ^a	0.67 (915)	4.37 ^b	1.91 (771)	
시	1.84 ^a	0.95	(272)	6.24 ^a	1.20 (261)	1.36 ^b	0.87 (272)	4.71 ^a	1.76 (254)	
군	1.81 ^a	0.98	(96)	6.81 ^b	0.80 (94)	1.07 ^a	0.70 (96)	4.27 ^a	1.98 (85)	
<i>F</i>	16.02***			12.38***		11.13***			3.39*	

* $p < .05$, ** $p < .01$, *** $p < .001$.

이어서, 시청각 프로그램 및 인터넷 등을 이용한 아동의 교육 시간과 TV 시청이나 인터넷,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놀이하는 시간을 살펴본 결과, 교육 시간은 평균 0.20시간($SD=0.40$), 놀이 시간은 평균 1.23시간($SD=0.75$)으로 교육 시간 보다는 놀이 시간이 더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놀이 혹은 교육의 목적으로 TV 시청, 인터넷이나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일은 주당 평균 5.35일($SD=1.98$)로 비교적 많았다.

특징적으로 시청각 기기, 인터넷을 사용한 놀이시간은 남아의 경우 평균 1.29

시간으로 여아보다 많았으며, 교육이나 놀이를 목적으로 기기를 사용하는 주간 평균 사용 일 또한 5.46일로 여아보다 많았다. 어머니의 취/학업 여부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출생순위에 따라서 교육 시간이 상이했는데 상대적으로 외동아의 교육 시간이 첫째나 둘째 이상인 경우보다 많았으며,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와 가구 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상대적으로 놀이 시간과, 주간 이용 일이 더 많았다.

이용 육아지원기관을 기준으로 아동이 반일제 이상 학원을 다니는 경우가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보다 TV 시청, 인터넷, 전자기기를 사용한 놀이 시간이 유의하게 적었다. 지역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교육 시간은 도농복합시가 가장 많았고, 놀이시간과 미디어의 사용 일은 광역시가 가장 많았다.

〈표 III-3-22〉 아동의 시청각 기기·인터넷 등을 이용한 교육 및 놀이 시간과 주간 이용 일

구분	시청각 프로그램 및 인터넷 등을 이용한 교육시간			TV 시청 및 인터넷, 전자기기를 사용한 놀이시간			주간 TV 시청 및 인터넷, 전자기기 사용 일(교육/놀이)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0.20	0.40	(1,620)	1.23	0.75	(1,620)	5.35	1.98	(1,522)
아동 성별									
남	0.21	0.43	(832)	1.29	0.79	(832)	5.46	1.91	(776)
여	0.19	0.37	(788)	1.18	0.70	(788)	5.22	2.04	(746)
t		-0.39			2.28*			2.46*	
아동 출생순위									
외동	0.32 ^a	0.49	(183)	1.20	0.68	(183)	5.17	2.05	(173)
첫째	0.19 ^b	0.39	(544)	1.18	0.72	(544)	5.30	2.00	(510)
둘째 이상	0.16 ^b	0.36	(860)	1.27	0.78	(860)	5.45	1.94	(806)
F		9.17***			2.17			1.94	
모 취/학업 여부									
취/학업	0.19	0.39	(738)	1.27	0.74	(738)	5.41	2.01	(695)
미취/학업	0.21	0.41	(849)	1.21	0.76	(849)	5.28	1.97	(796)
t		-0.33			0.77			0.18	
모 학력									
고졸이하	0.17	0.39	(473)	1.39 ^a	0.74	(473)	5.74 ^a	1.84	(455)
전문대졸	0.19	0.39	(438)	1.25 ^b	0.76	(438)	5.33 ^b	1.96	(405)
대졸 이상	0.22	0.42	(697)	1.13 ^b	0.73	(697)	5.09 ^c	2.04	(652)
F		3.11*			16.27***			15.57***	

단위: 시간, 일(명)

(표 III-3-22 계속)

구분	시청각 프로그램 및 인터넷 등을 이용한 교육시간			TV 시청 및 인터넷, 전자기기를 사용한 놀이시간			주간 TV 시청 및 인터넷, 전자기기 사용 일(교육/놀이)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0.19	0.39	(440)	1.35 ^a	0.81	(440)	5.64 ^a	1.85	(413)
301~400만원	0.19	0.37	(436)	1.23 ^{ab}	0.70	(436)	5.28 ^{ab}	2.02	(411)
401~500만원	0.21	0.42	(359)	1.18 ^b	0.75	(359)	5.22 ^b	2.03	(337)
501만원 이상	0.21	0.43	(385)	1.15 ^b	0.70	(385)	5.20 ^b	2.01	(361)
F		1.28			7.98 ^{***}			7.31 ^{***}	
유치원기관 유형									
유치원	0.20	0.41	(744)	1.23 ^{ab}	0.75	(744)	5.30	2.00	(693)
어린이집	0.19	0.38	(404)	1.31 ^a	0.74	(404)	5.53	1.91	(387)
반일제 이상	0.26	0.42	(55)	0.92 ^b	0.73	(55)	4.72	2.15	(49)
F		0.61			3.76 [*]			2.62	
지역 규모									
서울	0.20 ^{ab}	0.36	(223)	1.07 ^a	0.68	(223)	5.24 ^a	1.97	(207)
광역시	0.07 ^a	0.21	(114)	1.40 ^b	0.71	(114)	6.18 ^b	1.71	(110)
도농복합시	0.23 ^b	0.44	(915)	1.24 ^{ab}	0.78	(915)	5.34 ^{ac}	2.01	(850)
시	0.17 ^{ab}	0.39	(272)	1.26 ^{ab}	0.71	(272)	4.97 ^a	1.91	(261)
군	0.10 ^{ab}	0.26	(96)	1.37 ^b	0.77	(96)	5.81 ^{bc}	1.89	(94)
F		6.58 ^{***}			5.42 ^{***}			10.62 ^{***}	

* $p < .05$, *** $p < .001$.

마지막으로, 아동의 평일 하루 일과 24시간 중 기본생활시간과 이외 기타 시간을 조사한 결과 아동이 식사, 간식 먹기, 씻기, 옷 입기 등의 기본생활 시간에 할애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1.36시간($SD=0.57$)이며, 이외 기타 시간은 하루 평균 0.48시간($SD=0.76$)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머니가 미취/학업일 경우 아동이 기본생활에 할애하는 시간이 평균 1.41시간으로 더 많았다.

〈표 III-3-23〉 아동의 기본생활 및 기타 시간

단위: 시간(명)

구분	기본생활			기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1.36	0.57	(1,620)	0.48	0.76	(1,620)
모 취/학업여부						
취/학업	1.31	0.53	(738)	0.44	0.72	(738)
미취/학업	1.41	0.59	(849)	0.52	0.79	(849)
t		-3.63 ^{***}			-1.39	

(표 III-3-23 계속)

구분	기본생활			기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지역 규모						
서울	1.53 ^a	0.62	(223)	0.79 ^a	0.87	(223)
광역시	1.03 ^b	0.19	(114)	0.28 ^b	0.57	(114)
도농복합시	1.40 ^{ac}	0.56	(915)	0.43 ^b	0.73	(915)
시	1.24 ^d	0.60	(272)	0.40 ^b	0.68	(272)
군	1.30 ^{cd}	0.43	(96)	0.45 ^b	0.82	(96)
F		22.39 ^{***}			9.43 ^{***}	

*** $p < .001$.

다. 신체 및 건강 특성

7차 조사 때 아동의 신체 특성에서는 신체 발달과 관련된 체격, 대소근육 발달 등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건강 특성에서는 각종 질환과 병력에 관한 조사가 실시되었다. 이에 대해 아동의 성별과 지역 규모(서울, 광역시, 도농복합시, 시, 군)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 신체 크기

만 6세 패널 아동의 평균 체중은 22.16kg, 평균 신장은 117.15cm이었다. 남아 여아보다 체중이 더 많이 나가고 신장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체중과 신장의 최댓값은 여아가 55kg, 145cm이었고, 남아가 38.8kg, 132cm로 나타나 최댓값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크게 나타났다. 체중과 신장은 지역 규모 별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시 지역에 사는 아동의 체중이 21.81kg으로, 군 지역에 사는 아동인 22.84kg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24〉 아동의 체중 및 신장

단위: cm(명)

구분	체중					신장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수)
전체	22.16	3.72	14.00	55.00	(1,550)	117.15	4.77	103.00	145.00	(1,548)
아동 성별										
남	22.48	3.65	15.40	38.80	(794)	117.44	4.76	103.00	132.00	(791)
여	21.82	3.76	14.00	55.00	(756)	116.84	4.76	104.00	145.00	(757)
t			3.74 ^{***}					3.32 ^{**}		

(표 III-3-24 계속)

구분	체중					신장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수)
지역 규모										
서울	21.98 ^{ab}	4.58	15.70	55.00	(204)	116.26	5.12	103.00	130.00	(203)
광역시	22.09 ^{ab}	3.46	16.60	38.00	(111)	117.08	4.53	106.00	129.50	(111)
도농복합시	22.25 ^{ab}	3.55	14.00	38.60	(877)	117.24	4.55	104.00	132.00	(875)
시	21.81 ^a	3.38	15.40	38.80	(265)	117.85	4.97	106.00	145.00	(265)
군	22.84 ^b	3.73	16.00	38.00	(93)	116.81	4.98	106.00	130.00	(94)
F			2.55 [*]					2.92 [*]		

* $p < .05$, ** $p < .01$, *** $p < .001$.

7차년도 조사부터는 아동의 허리둘레를 추가로 측정하였는데, 만 6세 아동의 평균 허리둘레는 54.47cm로 나타났고 남아의 허리둘레가 여아보다 크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지역 규모에 있어서는 사후검정 결과, 군 단위 지역에 사는 아동의 허리둘레가 55.44cm로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표 III-3-25〉 아동의 허리둘레

단위: cm(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수)
전체	54.47	3.62	45.00	76.00	(1,533)
아동 성별					
남	54.89	3.71	45.00	76.00	(782)
여	54.04	3.46	45.00	69.00	(751)
지역 규모					
서울	54.28 ^a	3.33	45.00	69.00	(199)
광역시	54.03 ^a	4.23	45.00	64.00	(111)
도농복합시	54.52 ^a	3.47	45.00	70.00	(866)
시	54.35 ^a	3.97	45.00	76.00	(264)
군	55.44 ^b	3.60	47.00	71.00	(93)

** $p < .01$, *** $p < .001$.

2) 운동 능력

아동의 대소근육 발달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뛰기, 잡기, 자전거 타기와 같은 대근육 운동 6문항과 그림 그리기, 젓가락 사용과 같은 소근육 운동 6문항을 통해 가능 여부를 조사하였다. 대소근육 운동 대부분의 항목에서 남아와 여아 모두 90% 이상이 할 수 있다고 답했으나, '보조 바퀴가 없는 두발 자전거

타기'는 남아의 33.3%, 여아의 23.3%만이 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소근육 운동에서는 '젓가락 사용'을 할 수 있다는 비율이 가장 낮았는데, 남아의 75.9%와 여아의 87.2%가 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선을 벗어나지 않고 색칠하기'는 여아가 할 수 있는 비율이 전체 97.3%이고, 남아가 할 수 있는 비율은 92.6%로 유사하지만, 여아가 남아에 비해 할 수 있는 비율이 더 높았다.

〈표 III-3-26〉 아동의 대근육 발달

단위: %(명)

구분	남아		여아		(수)	$\chi^2(df)$
	할수 있다	할수 없다	할수 있다	할수 없다		
대근육 운동						
뛰다가 길에 있는 낮은 장애물을 뛰어넘기	98.9	1.1	98.9	1.1	(1,620)	0.33(1)
한 발로 5번 이상 강충뛰며 돌아다니기	98.2	1.8	98.4	1.6	(1,620)	0.11(1)
혼자서 그네 타기	92.6	7.4	94.3	5.7	(1,619)	0.98(1)
보조 바퀴가 있는 두발자전거 타기	92.3	7.7	91.1	8.9	(1,613)	0.18(1)
보조 바퀴가 없는 두발자전거 타기	33.3	66.7	23.3	76.7	(1,601)	25.92(1)***
공을 던지면 반 이상은 잡기	93.1	6.9	92.8	7.2	(1,608)	1.60(1)
소근육 운동						
9조각 이상의 퍼즐을 맞추기	98.7	1.3	98.0	2.0	(1,615)	1.67(1)
알아볼 수 있는 그림을 그리기	97.5	2.5	98.0	2.0	(1,619)	0.11(1)
적어도 신체의 3부분이 포함된 사람을 그리기	98.4	1.6	98.3	1.7	(1,620)	0.29(1)
완전한 사람을 그리기	94.3	5.7	97.4	2.6	(1,620)	3.04(1)
선을 벗어나지 않고 색칠하기	92.6	7.4	97.3	2.7	(1,619)	14.33(1)***
일반 젓가락을 사용하기	75.9	24.1	87.2	12.8	(1,618)	23.80(1)***

*** $p < .001$.

아동이 많이 사용하는 손은 대체로 오른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필기구를 사용할 때 오른손을 사용하는 비율이 90.0%로 가장 높았다. 양손을 사용하는 비율은 물건을 집을 때가 10.4%로 높았다. 아동 성별에 따른 차이는 물건을 집을 때에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III-3-27〉 아동의 우세 손

단위: %(명)

구분	크레파스 또는 연필 사용				식사하기				물건 집기			
	오른손	왼손	양손	(수)	오른손	왼손	양손	(수)	오른손	왼손	양손	(수)
전체	90.0	6.8	3.2	(1,620)	88.5	6.7	4.8	(1,620)	84.0	5.6	10.4	(1,619)

(표 III-3-27 계속)

구분	크레파스 또는 연필 사용				식사하기				물건 집기			
	오른손	왼손	양손	(수)	오른손	왼손	양손	(수)	오른손	왼손	양손	(수)
아동 성별												
남	90.0	6.6	3.5	(832)	87.5	7.4	5.2	(832)	82.6	5.9	11.5	(831)
여	90.0	7.1	2.9	(788)	89.6	6.0	4.4	(788)	85.6	5.2	9.3	(788)
$\chi^2(df)$			1.78				5.95(2)				6.04(2)*	

* $p < .05$.

3) 신체 특성

조사 시점에 안경을 착용하는 아동은 전체 1,620명 아동 중 4.4%에 해당하는 70명이었다. 이들 70명에게 처음 안경을 착용한 시기를 응답하도록 하였는데, 만 5세가 44.5%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적으로는 만 4.92세로 나타났다.

〈표 III-3-28〉 아동의 안경 착용 여부 및 착용 시기

구분		단위: %(명), 세
안경 착용 여부	비율(수)	
	안경 낀	4.4(70)
	끼지 않음	95.6(1,550)
	계(수)	100.0(1,620)
안경 착용 시기	만2세	1.0(1)
	만3세	3.0(4)
	만4세	25.4(17)
	만5세	44.5(29)
	만6세	26.1(19)
	계(수)	100.0(70)
	평균(표준편차)	4.92(0.85)세

4) 병력

아동의 건강 특성 중 조사시점에서 지난 1년 동안의 병력을 알아보기 위해 치료 및 입원 경험과 주요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을 등을 조사하였다.

가) 사고 및 중독으로 인한 치료

지난 1년간 아동이 사고나 중독으로 인한 치료를 받았는지 질문한 결과 11.7%가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치료를 받은 186명 중에서 치료

횟수가 1회인 아동은 69.8%, 2회인 아동은 15.7%, 3회 이상인 아동은 14.5%로 나타났다. 아동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III-3-29〉 아동의 사고 및 중독으로 인한 치료

단위: %(명)

구분	치료 여부			치료 횟수			
	있다	없다	계(수)	1회	2회	3회이상	계(수)
전체	11.7	88.3	100.0(1,620)	69.8	15.7	14.5	100.0(186)
아동 성별							
남	12.6	87.4	100.0(832)	68.9	17.8	13.3	100.0(102)
여	10.8	89.2	100.0(788)	70.8	13.2	16.0	100.0(84)
$\chi^2(df)$	1.02(1)			0.93(2)			

나) 최근 1년 주요 질환 진단율

지난 1년 간 선천성 심장질환, 천식 등의 9가지 질환 중 의사로부터 새롭게 진단 받은 질환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1,620명 중에서 102명의 아동이 하나 이상의 질환을 진단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중복응답이 가능한 질문이었으므로 다중응답분석을 한 결과, 아토피피부염이 62.0%로 가장 높은 진단율을 보였고, 다음은 만성 부비동염이 30.6%였다.

〈표 III-3-30〉 최근 1년 아동의 질환별 진단율(중복응답)

단위: %(건)

구분	선천성 심장질환	간질	천식	아토피 피부염	만성 부비동염 (축농증)	만성 중이염
비율(수)	0.6(1)	2.3(2)	6.1(7)	62.0(67)	30.6(27)	7.0(7)

다) 입원/통원 치료

전체 폐널 아동 중에 지난 1년간 입원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은 123명으로 7.5%에 해당하였다. 123명에게 입원 횟수와 입원일 및 이유를 조사한 결과, 1회 입원이 90.7%로 대다수였으며, 평균 입원일은 7.19일로 일주일가량이었으나 1일부터 48일까지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아동이 입원한 이유는 중복응답 항목이므로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기타 응답이 54.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폐렴 20.6%, 수술 18.0% 순이었다.

〈표 III-3-31〉 아동의 입원 치료

단위: %(명), 일

입원여부		입원 횟수		입원일		입원이유(중복응답)	
구분	비율(수)	구분	비율(수)	구분	값	구분	비율(수)
한 적 없음	92.5(1,497)	—					
한 적 있음	7.5(123)	1회	90.7(110)	평균	7.19	폐렴	20.6(23)
		2회	7.8(12)	표준편차	8.21	골절	1.9(3)
				최솟값	1	장염	7.9(10)
		3회	1.5(1)	최댓값	48	수술	18.0(23)
						기타	54.2(68)
계(수)	100.0(1,620)	(수)	(123)	(수)	(123)	(수)	(123)

조사시점 기준으로 최근 한 달 동안 병/의원이나 보건소, 한의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물었을 때, 686명(42.1%)의 아동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 달 간 치료 횟수는 월 평균 2.58회 정도였다. 치료 여부는 지역 규모에 따라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지만, 치료 횟수는 성별과 지역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3-32〉 아동의 한 달 간 통원 치료

단위: %, 회(명)

구분	치료 여부			치료 횟수				
	있다	없다	계(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수)
전체	42.1	57.9	100.0(1,620)	2.58	3.10	1	30	100.0(686)
아동 성별								
남	43.1	56.9	100.0(832)	2.63	3.29	1	30	100.0(353)
여	41.1	58.9	100.0(788)	2.53	2.87	1	30	100.0(333)
$\chi^2(df)/t$	0.01(1)			1.07				
지역 규모								
서울	47.3	52.7	100.0(223)	2.67	3.43	1	20	100.0(104)
광역시	46.1	53.9	100.0(114)	2.59	4.39	1	24	100.0(54)
도농복합시	44.3	55.7	100.0(915)	2.45	2.38	1	30	100.0(404)
시	27.7	72.3	100.0(272)	3.22	4.81	1	30	100.0(80)
군	44.5	55.5	100.0(96)	2.33	1.53	1	10	100.0(44)
$\chi^2(df)/F$	23.20(4) ^{***}			1.09				

*** $p < .001$.

라) 천식

숨 쉴 때 가슴에서 쌉쌉거리는 소리나 휘파람 소리가 나는 것과 같은 천식

증상에 대해 조사한 결과, 출생 후 지금까지 천식 증상이 없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패널 아동 중 82.5%였다. 증상을 겪은 아동들은 증상 시점을 모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한 결과 생후 13~24개월이 7.9%로 가장 많았고, 생후 12개월 이전이 7.6%, 생후 25~36개월 5.9%, 생후 37~48개월 4.8%, 생후 49~60개월 3.4%, 생후 61~72개월이 2.8% 순이었다.

〈표 III-3-33〉 출생 후 천식 증상 시기(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없었음	생후 12 개월 이전	생후 13 ~24개월	생후 25 ~36개월	생후 37 ~48개월	생후 49 ~60개월	생후 61 ~72개월	(수)
비율	82.5	7.6	7.9	5.9	4.8	3.4	2.8	(1,476)
(수)	(1,223)	(113)	(117)	(82)	(63)	(54)	(39)	

최근 12개월 동안 천식 증상이 나타난 아동은 1,488명 중 5.1%에 해당하는 75명이었다. 천식 증상을 겪은 75명을 대상으로 최근 1년 동안 증상이 나타난 횟수는 1~2회가 과반수이상으로 많았으나, 7회 이상도 17.3%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1년 동안 천식 증상으로 1회 이상 응급실에 방문한 아동은 71명 중 13명, 입원한 아동은 73명 중 14명이었다.

〈표 III-3-34〉 최근 1년 천식 증상 및 치료 횟수

단위: %(명)							
증상 여부		증상 발생 횟수		응급실 방문 횟수		입원 횟수	
구분	비율(수)	구분	비율(수)	구분	값	구분	비율(수)
아니오	94.9(1,413)	—					
예	5.1(75)	1회	31.1(24)	없음	81.4(58)	없음	77.9(59)
		2회	32.1(26)	1회	13.8(9)	1회	13.7(8)
		3회	5.8(3)	2회	2.6(2)	2회	6.3(5)
		4~6회	13.7(13)	3~5회	2.2(2)	3~5회	2.0(1)
		7회 이상	17.3(10)	6회 이상	-	6회 이상	-
계(수)	100.0(1,488)	(수)	(76)	(수)	(71)	(수)	(73)

출생 이후부터 현재까지 의사로부터 한 번이라도 천식으로 진단을 받은 적 있는 아동은 전체 7.3%이었으며, 남아(10.0%)가 여아(4.4%)보다 진단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들 중 최근 12개월 이내에 출생 후 처음으로 천식 진단을 받은 아동은 1.1%수준이었으며, 최근 12개월 이내에 천식으로 치료를 받은 아동은 2.6%로 나타났다.

〈표 III-3-35〉 최근 1년 천식 진단/치료 여부

단위: %(명)

구분	진단 여부(출생 이후)			진단 여부(최근 1년)			치료 여부(최근 1년)		
	예	아니요	계(수)	예	아니요	계(수)	예	아니요	계(수)
전체	7.3	92.7	100.0(1,414)	1.1	98.9	100.0(1,518)	2.6	97.4	100.0(1,498)
아동 성별									
남	10.0	90.0	100.0(731)	1.2	98.8	100.0(780)	3.4	96.6	100.0(770)
여	4.4	95.6	100.0(683)	1.0	99.0	100.0(738)	1.8	98.2	100.0(728)
$\chi^2(df)$	16.00(1)***			0.01(1)			2.72(1)		

*** $p < .001$.

마) 알레르기 비염

<표 III-3-36>은 감기나 독감을 앓고 있지 않은데도 재채기, 콧물 또는 코막힘 증상이 나타나는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 출생 후 지금까지 증상을 보인 시기를 모두 응답하도록 한 결과이다.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없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22.9%였다.

증상을 겪은 시기를 다중응답분석으로 조사한 결과, 생후 49~60개월이 17.9%로 가장 많았고, 생후 61~72개월 17.0%, 생후 37~48개월 15.4%, 생후 25~36개월 12.1%, 생후 13~24개월 9.5%, 생후 12개월 이전이 5.2%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3-36〉 출생 후 알레르기 비염 증상 시기(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없었음	생후 12 개월 이전	생후 13 ~24개월	생후 25 ~36개월	생후 37 ~48개월	생후 49 ~60개월	생후 61 ~72개월	(수)
비율	22.9	5.2	9.5	12.1	15.4	17.9	17.0	
(수)	(702)	(164)	(296)	(371)	(470)	(548)	(519)	(1,490)

최근 12개월 동안 감기나 독감 외의 재채기, 콧물 또는 코막힘 증상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아동 중 46.8%의 아동이 증상이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여아(43.0%)보다 남아(50.3%)가 더 많이 증상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재채기, 콧물 또는 코막힘 증상이 있으면서 눈이 가렵고 눈을 비빈 적이 있는 아동은 30.8%로 나타났으며, 마찬가지로 여아(27.2%)보다 남아(34.1%)에게서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났다. 알레르기 비염 증상은 지역 규모에 따라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채기, 콧물 또는 코막힘과 동반되는 눈가려움증 증상 모두 서울에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시, 도농복합시, 광역시, 군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3-37〉 최근 1년간 알레르기 비염 증상

단위: %(명)

구분	알레르기 비염 증상 여부			눈 가려움증 동반 여부		
	예	아니오	계(수)	예	아니오	계(수)
전체	46.8	53.2	100.0(1,507)	30.8	69.2	100.0(1,506)
아동 성별						
남	50.3	49.7	100.0(774)	34.1	65.9	100.0(773)
여	43.0	57.0	100.0(733)	27.2	72.8	100.0(733)
$\chi^2(df)$	6.01(1)*			7.69(1)**		
지역 규모						
서울	52.1	47.9	100.0(189)	42.8	57.2	100.0(188)
광역시	36.6	63.4	100.0(112)	24.7	75.3	100.0(112)
도농복합시	48.4	51.6	100.0(861)	29.2	70.8	100.0(862)
시	47.0	53.0	100.0(253)	30.3	69.7	100.0(252)
군	29.6	70.4	100.0(92)	21.0	79.0	100.0(92)
$\chi^2(df)$	15.49(4)**			15.34(4)**		

* $p < .05$, ** $p < .01$.

출생 이후 현재까지 한 번이라도 알레르기 비염 진단을 받은 적 있는 아동은 절반에 해당하는 50.2%로 나타났다. 이들 중 최근 12개월 동안 의사로부터 출생 후 처음으로 알레르기 비염 진단을 받은 아동은 12.8%이었으며, 최근 12개월 동안 알레르기 비염으로 치료받은 아동은 33.9%이었다.

알레르기 비염 증상에 대한 응답 비율과 마찬가지로, 진단율과 치료율도 남아가 여아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진단율과 치료율에서는 지역 규모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III-3-38〉 알레르기 비염 진단 여부 및 치료 여부

단위: %(명)

구분	진단 여부(출생 이후)			진단 여부(최근 1년)			치료 여부(최근 1년)		
	예	아니오	계(수)	예	아니오	계(수)	예	아니오	계(수)
전체	50.2	49.8	100.0(1,439)	12.8	87.2	100.0(1,509)	33.9	66.1	100.0(1,497)
아동 성별									
남	54.3	45.7	100.0(739)	13.3	86.7	100.0(773)	38.2	61.8	100.0(766)
여	46.0	54.0	100.0(700)	12.2	87.8	100.0(736)	29.5	70.5	100.0(731)
$\chi^2(df)$	7.09(1)**			0.19(1)			7.66(1)**		

(표 III-3-38 계속)

구분	진단 여부(출생 이후)			진단 여부(최근 1년)			치료 여부(최근 1년)		
	예	아니요	계(수)	예	아니요	계(수)	예	아니요	계(수)
지역 규모									
서울	54.3	45.7	100.0(175)	11.4	88.6	100.0(185)	36.3	63.7	100.0(182)
광역시	49.0	51.0	100.0(106)	14.9	85.1	100.0(112)	30.5	69.5	100.0(111)
도농복합시	52.7	47.3	100.0(827)	14.2	85.8	100.0(866)	34.5	65.5	100.0(861)
시	44.6	55.4	100.0(242)	9.7	90.3	100.0(254)	33.1	66.9	100.0(253)
군	35.9	64.1	100.0(89)	9.7	90.3	100.0(92)	29.2	70.8	100.0(90)
$\chi^2(df)$	8.73(4)			4.48(4)			1.01(4)		

** $p < .01$.

바) 아토피피부염

태어나서 지금까지 태열이나 아토피피부염과 같은 피부발진이 생겼다 없어졌다 한 적이 있는 시기를 모두 응답하도록 한 결과, 생후 12개월 이전이 16.5%로 가장 많았으나, 이후 시기도 비슷한 비율로 응답되었다. 증상이 없었다고 응답한 아동은 63.7%에 해당하였다.

〈표 III-3-39〉 출생 후 아토피피부염 증상 시기(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없었음	생후 12 개월 이전	생후 13 ~24개월	생후 25 ~36개월	생후 37 ~48개월	생후 49 ~60개월	생후 61 ~72개월	(수)
비율	63.7	16.5	14.9	13.6	13.8	14.2	13.2	(1,502)
(수)	(979)	(232)	(214)	(195)	(198)	(206)	(181)	

최근 1년 간 아토피피부염 증상이 나타난 적이 있다고 답한 아동은 전체 20.4%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서울과 시 규모에 사는 아동이 다소 높은 비율로 증상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최근 1년 간 의사로부터 출생 후 처음으로 아토피피부염 진단을 받은 아동은 4.0%이었고, 출생 이후 현재까지 한 번이라도 아토피피부염으로 진단을 받은 적 있는 아동은 31.6%로 나타났다.

〈표 III-3-40〉 아토피피부염 증상 및 진단 여부

단위: %(명)

구분	증상 여부(최근 1년)			진단 여부(최근 1년)			진단 여부(출생 이후)		
	예	아니요	계(수)	예	아니요	계(수)	예	아니요	계(수)
전체	20.4	79.6	100.0(1,502)	4.0	96.0	100.0(1,493)	31.6	68.4	100.0(1,420)

(표 III-3-40 계속)

구분	증상 여부(최근 1년)			진단 여부(최근 1년)			진단 여부(출생 이후)		
	예	아니오	계(수)	예	아니오	계(수)	예	아니오	계(수)
아동 성별									
남	22.1	77.9	100.0(770)	3.8	96.2	100.0(767)	31.3	68.7	100.0(731)
여	18.6	81.4	100.0(732)	4.2	95.8	100.0(726)	31.9	68.1	100.0(689)
$\chi^2(df)$	3.45(1)			0.12(1)			0.12(1)		
지역 규모									
서울	26.1	7.9	100.0(184)	4.7	95.3	100.0(183)	45.0	55.0	100.0(173)
광역시	13.4	86.6	100.0(112)	2.9	97.1	100.0(112)	27.3	72.7	100.0(104)
도농복합시	19.2	80.8	100.0(863)	4.6	95.4	100.0(860)	29.8	70.2	100.0(816)
시	24.1	75.9	100.0(251)	2.3	97.7	100.0(247)	29.3	70.7	100.0(237)
군	14.5	85.5	100.0(92)	3.1	96.9	100.0(91)	25.3	74.7	100.0(90)
$\chi^2(df)$	10.93(4)*			-			8.06(4)		

주: 통계값이 ‘-’로 표시된 일부 변수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분석이 불가함.

* $p < .05$.

최근 12개월 동안 아토피피부염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아동은 13.3%이었다. 아토피피부염으로 인해 국소 스테로이드 연고(크림, 로션 포함)를 사용한 기간을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1개월 이내로 사용하였다는 응답이 62.1%로 가장 많았다. 6개월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연고를 사용하는 아동은 9.6%이었고, 사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아동은 9.4%에 불과하였다.

〈표 III-3-41〉 아토피피부염 치료 여부 및 연고 사용 기간

		단위: %(명)
구분	비율(수)	
	예	
치료 여부 (최근 1년)	아니오	13.3(197)
	계(수)	86.7(1,294)
		100.0(1,491)
국소 스테로이드 연고 사용기간 (최근 1년)	사용한 적 없음	9.4(24)
	1개월 이내	62.1(158)
	1개월 이상~3개월 이내	11.1(26)
	3개월 이상~6개월 이내	7.8(15)
	6개월 이상	9.6(26)
	계(수)	100.0(249)

사) 약제 복용

아동이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3일 이상 항생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 31.5%가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항생제를 사용한

횃수에 대해서는 1~2회가 55.5%로 절반에 해당하였으며, 5회 이상도 20.5%로 적지 않게 나타났다. 출생 후 12개월 내 아동의 항생제 치료 여부는 어머니의 학력과 가구 소득에 따라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이상이고 가구 소득이 401~500만원 일 때 아동이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표 III-3-42〉 출생 후 12개월 내 항생제 복용 여부 및 횃수

단위: %(명)

구분	항생제 치료 여부(생후 1년)			항생제 치료 횃수(생후 1년)				
	예	아니요	계(수)	없음	1~2회	3~4회	5회 이상	계(수)
전체	31.5	61.9	100.0(1,509)	1.2	55.5	22.8	20.5	100.0(499)
모 학력								
고졸이하	23.3	76.7	100.0(443)	2.3	52.7	25.8	19.3	100.0(108)
전문대졸	36.8	63.2	100.0(415)	0.7	50.0	27.4	21.9	100.0(147)
대졸이상	38.8	61.2	100.0(641)	1.2	59.5	18.9	20.4	100.0(242)
$\chi^2(df)$	22.87(2) ^{***}			-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28.4	71.6	100.0(413)	2.8	43.8	27.4	26.0	100.0(114)
301~400만원	35.0	65.0	100.0(403)	0.7	63.1	20.1	16.1	100.0(141)
401~500만원	38.2	61.8	100.0(336)	0.0	52.9	22.2	24.9	100.0(122)
501만원 이상	34.4	65.6	100.0(357)	1.7	60.3	22.0	15.9	100.0(122)
$\chi^2(df)$	8.14(3) [*]			-				

주: 통계값이 ‘-’로 표시된 일부 변수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분석이 불가함.

* $p < .05$, *** $p < .001$.

최근 12개월 이내로 3일 이상 항생제 치료 여부를 질문한 결과, 패널 아동의 49.8%가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사용 횃수는 1~2회가 46.2%로 가장 많았고,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치료를 받았다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표 III-3-43〉 최근 1년 간 항생제 복용 여부 및 횃수

단위: %(명)

구분	항생제 치료 여부(최근 1년)			항생제 치료 횃수(최근 1년)				
	예	아니요	계(수)	없음	1~2회	3~4회	5회 이상	계(수)
전체	49.8	50.2	100.0(1,516)	0.5	46.2	33.4	19.9	100.0(732)
모 학력								
고졸이하	43.6	56.4	100.0(445)	0.8	46.2	33.1	19.9	100.0(190)
전문대졸	49.1	50.9	100.0(417)	0.2	39.7	36.5	23.6	100.0(196)
대졸이상	54.4	45.6	100.0(644)	0.6	49.4	32.0	18.0	100.0(342)
$\chi^2(df)$	10.92(2) ^{**}			-				

(표 III-3-43 계속)

구분	항생제 치료 여부(최근 1년)			항생제 치료 횟수(최근 1년)				
	예	아니요	계(수)	없음	1~2회	3~4회	5회 이상	계(수)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48.5	51.5	100.0(416)	0.9	40.5	31.9	26.6	100.0(198)
301~400만원	52.5	47.5	100.0(404)	0.0	46.2	34.9	18.9	100.0(201)
401~500만원	47.1	52.9	100.0(340)	0.0	53.2	30.7	16.1	100.0(157)
501만원 이상	50.8	49.2	100.0(356)	1.1	46.7	35.4	16.8	100.0(176)
$\chi^2(df)$	1.17(3)			-				

주: 통계값이 '-'로 표시된 일부 변수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분석이 불가함.

** $p < .01$.

아) 위해 환경 노출

아동이 주변에서 담배냄새를 맡는 일이 얼마나 있는지 일주일 단위로 질문한 결과, 48.9%의 아동이 간접흡연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일주일 동안 담배 냄새를 맡은 횟수에 대해서는 2~3회가 42.6%로 가장 많았고, 1회가 27.4%로 나타났다. 패널 아동의 간접흡연 경험은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 이하인 집단에서 62.4%로 그렇다는 응답이 더욱 높았으며, 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가구에서 53.1%로 저소득 가구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간접흡연의 횟수는 지역 규모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일주일에 4회 이상으로 간접흡연 횟수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곳은 서울, 도농복합시, 군 단위였다.

〈표 III-3-44〉 간접흡연 여부 및 횟수

단위: %(명)

구분	간접흡연 여부			간접흡연 횟수				
	예	아니요	계(수)	1회	2~3회	4~5회	6~7회	계(수)
전체	48.9	51.1	100.0(1,517)	27.4	42.6	14.7	15.2	100.0(751)
모 학력								
고졸이하	62.4	37.6	100.0(446)	23.3	46.5	12.6	17.6	100.0(282)
전문대졸	45.8	54.2	100.0(417)	29.4	47.2	13.0	10.4	100.0(194)
대졸이상	42.0	58.0	100.0(644)	30.0	35.6	18.3	16.1	100.0(270)
$\chi^2(df)$	42.62(2)***			7.77(6)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53.1	46.9	100.0(417)	20.3	44.6	17.3	17.8	100.0(221)
301~400만원	51.9	48.1	100.0(404)	23.8	46.3	16.5	13.4	100.0(211)
401~500만원	47.1	52.9	100.0(340)	33.2	39.5	12.4	14.9	100.0(170)
501만원 이상	42.2	57.8	100.0(356)	36.5	38.1	11.0	14.5	100.0(149)
$\chi^2(df)$	11.90(3)**			16.64(9)				

(표 III-3-44 계속)

구분	간접흡연 여부			간접흡연 횟수				
	예	아니요	계(수)	1회	2~3회	4~5회	6~7회	계(수)
지역 규모								
서울	51.5	48.5	100.0(190)	28.9	39.8	12.5	18.8	100.0(98)
광역시	48.9	51.1	100.0(112)	22.7	46.8	19.3	11.3	100.0(57)
도농복합시	47.7	52.3	100.0(866)	24.4	41.8	16.9	17.0	100.0(423)
시	44.9	55.1	100.0(256)	36.1	51.1	7.8	5.0	100.0(116)
군	62.4	37.6	100.0(93)	30.8	34.3	15.4	19.6	100.0(57)
$\chi^2(df)$		7.09(4)				26.64(12)**		

** $p < .01$, *** $p < .001$.

라. 인지 및 언어 발달

7차 조사에서 인지 발달은 학령기 진입을 앞둔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학업 능력과 학습준비도를 조사하였고, 언어 발달은 표현 어휘력 검사와 발화 검사를 실시하였다.

1) 학업능력

만 6세 아동의 학업능력은 크게 언어 및 문해능력 13문항과 수리적 사고 15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아직 하지 않음(1점)’, ‘하기 시작함(2점)’, ‘어느 정도 해냄(3점)’, ‘잘하는 편임(4점)’, ‘능숙함(5점)’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어머니와 교사의 평정에 따라 두 가지로 살펴보았다. 먼저 어머니가 인식한 아동의 언어 및 문해능력은 평균 3.77점, 수리적 사고는 평균 3.37점으로 나타나 보통 수준이었다. 통계적으로는 아동의 성별과 출생순위, 기관유형, 어머니의 학력, 가구 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보다 여아일 때, 어머니가 언어와 수리 능력이 높은 것으로 지각하였다.

또한 어머니는 첫째 아동일 때 언어능력이 높다고, 둘째 이상 아동일 때에는 언어 능력이 낮다고 지각하였다. 아동이 다니는 기관 유형에 따라서는 만일제 이상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순으로 어머니가 지각한 학업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이하일 때 어머니는 아동의 언어와 수리 능력 점수를 낮게 지각하였으며,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언어와 수리 능력이 높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45〉 어머니가 인식한 아동의 학업능력

단위: 점(명)

구분	언어 및 문해능력			수리적 사고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3.77	0.81	(1,601)	3.37	0.92	(1,603)
아동 성별						
남	3.58	0.84	(823)	3.31	0.93	(824)
여	3.98	0.71	(778)	3.43	0.89	(779)
<i>t</i>		-9.37 ^{***}			-2.02 [*]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3.87 ^{ab}	0.82	(180)	3.46	0.95	(181)
첫째	3.88 ^b	0.74	(536)	3.45	0.91	(536)
둘째 이상	3.66 ^a	0.84	(853)	3.28	0.91	(854)
<i>F</i>		10.23 ^{***}			5.65 ^{**}	
육아지원기관 유형						
유치원	3.79 ^{ab}	0.79	(735)	3.39 ^a	0.92	(735)
어린이집	3.74 ^a	0.84	(400)	3.35 ^a	0.90	(402)
반일제 이상	4.08 ^b	0.57	(55)	3.81 ^b	0.70	(55)
<i>F</i>		3.07 [*]			4.53 [*]	
모 학력						
고졸이하	3.56 ^a	0.85	(469)	3.13 ^a	0.88	(471)
전문대졸	3.81 ^b	0.77	(435)	3.40 ^b	0.93	(435)
대졸이상	3.89 ^b	0.78	(686)	3.51 ^b	0.90	(686)
<i>F</i>		30.06 ^{***}			26.41 ^{***}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3.68 ^a	0.83	(437)	3.21 ^a	0.93	(438)
301~400만원	3.67 ^{ab}	0.79	(431)	3.26 ^a	0.88	(432)
401~500만원	3.87 ^{bc}	0.80	(355)	3.49 ^b	0.88	(355)
501만원 이상	3.90 ^c	0.79	(378)	3.57 ^b	0.93	(378)
<i>F</i>		7.88 ^{***}			14.30 ^{***}	

* $p < .05$, ** $p < .01$, *** $p < .001$.

먼저 교사가 인식한 아동의 언어 및 문해능력은 평균 3.99점, 수리적 사고는 평균 3.88점으로 나타나, 어머니가 인식한 학업능력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교사 역시 남아보다 여아일 때 언어와 수리 능력이 높은 것으로 지각하였다. 또한 교사들은 첫째 아동일 때 언어와 문해능력이 높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후검정에서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교사들은 반일제 이상 학원에 다니는 아동의 학업능력이 다른 기관에 다니는 아동의 학업능력보다 더 높다고 지각하였다. 언어 능력에 있어 어머니의 학력도 유의한 차이를 가져왔는

데, 교사들은 어머니가 고졸이하인 아동의 언어 능력이 어머니가 전문대졸 이상인 아동의 언어 능력보다 낮다고 지각하였다. 가구 소득에 따라서는 학업능력에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으나 사후검정에서는 집단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III-3-46〉 교사가 인식한 아동의 학업능력

단위: 점(명)

구분	언어 및 문해능력			수리적 사고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3.99	0.85	(1,203)	3.88	0.83	(1,203)
아동 성별						
남	3.80	0.94	(622)	3.79	0.88	(622)
여	4.20	0.68	(581)	3.97	0.75	(581)
<i>t</i>		-8.33 ^{***}			-3.66 ^{***}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4.00	0.84	(127)	3.85	0.85	(127)
첫째	4.11	0.83	(405)	3.97	0.83	(405)
둘째 이상	3.92	0.86	(649)	3.82	0.82	(649)
<i>F</i>		4.24 [*]			2.81	
육아지원기관 유형						
유치원	4.02 ^a	0.82	(744)	3.93	0.78	(744)
어린이집	3.92 ^a	0.91	(403)	3.78	0.88	(403)
반일제 이상	4.25 ^b	0.67	(56)	3.96	0.90	(56)
<i>F</i>		4.38 [*]			3.06 [*]	
모 학력						
고졸이하	3.85 ^a	0.93	(350)	3.82	0.88	(350)
전문대졸	4.01 ^b	0.81	(329)	3.86	0.77	(329)
대졸이상	4.08 ^b	0.81	(519)	3.92	0.83	(519)
<i>F</i>		8.12 ^{***}			1.02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3.83	0.95	(315)	3.75	0.91	(315)
301~400만원	3.95	0.81	(325)	3.86	0.76	(325)
401~500만원	4.13	0.79	(276)	3.97	0.82	(276)
501만원 이상	4.10	0.78	(287)	3.95	0.80	(287)
<i>F</i>		6.52 ^{***}			4.54 ^{**}	

* $p < .05$, ** $p < .01$, *** $p < .001$.

2) 학습준비도

학습준비도는 사회정서발달 6문항, 학습에 대한 태도 8문항, 의사소통 3문항, 인지발달 및 일반적 지식 5문항으로 구성되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4점)’로 측정되었다. 응답은 어머니와 교사가 각각 평정하였다. 어머니가 인식한 아동의 학습준비도는 인지발달 및 일반적 지식이 3.6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의사소통 3.60점, 사회정서발달과 학습에 대한 태도가 3.48점 순이었다. 어머니는 남아보다 여아일 때 학습준비도를 높게 지각하였으며, 어머니의 학력과 가구 소득도 아동의 학습준비도 인식에 유의한 차이를 가져왔는데, 어머니가 전문대졸 이상인 집단과 비교했을 때 고졸이하인 어머니가 아동의 학습준비도를 낮게 지각하였다. 가구 소득이 501만원 이상인 가구일 때 사회정서발달, 학습태도, 인지발달과 일반적 지식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사소통 영역에 있어서는 가구 소득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3-47〉 어머니가 인식한 학습준비도

단위: 점(명)

구분	사회정서발달		학습에 대한 태도		의사소통		인지발달 및 일반적 지식		(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3.48	0.40	3.48	0.41	3.60	0.48	3.63	0.41	(1,603)
아동 성별									
남	3.46	0.41	3.44	0.43	3.57	0.50	3.59	0.42	(823)
여	3.50	0.39	3.53	0.39	3.63	0.46	3.68	0.38	(780)
<i>t</i>	-2.40*		-4.47**		-2.49*		-4.13**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3.47	0.43	3.49	0.43	3.61	0.49	3.64	0.43	(181)
첫째	3.45	0.40	3.47	0.42	3.60	0.47	3.64	0.39	(537)
둘째 이상	3.50	0.40	3.49	0.41	3.59	0.49	3.62	0.41	(854)
<i>F</i>	1.54		0.45		0.61		0.96		
모 학력									
고졸이하	3.43 ^a	0.42	3.43 ^a	0.44	3.55 ^a	0.52	3.56 ^a	0.46	(470)
전문대졸	3.51 ^b	0.37	3.50 ^b	0.38	3.59 ^{ab}	0.44	3.62 ^b	0.37	(435)
대졸이상	3.49 ^b	0.40	3.50 ^b	0.41	3.63 ^b	0.47	3.69 ^c	0.38	(687)
<i>F</i>	8.82**		9.59**		6.70**		19.73**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3.47 ^{ab}	0.40	3.46 ^a	0.44	3.57	0.49	3.60 ^a	0.41	(438)
301~400만원	3.43 ^a	0.38	3.43 ^a	0.39	3.57	0.48	3.59 ^a	0.41	(432)
401~500만원	3.50 ^{ab}	0.44	3.50 ^{ab}	0.42	3.61	0.50	3.66 ^{ab}	0.42	(356)
501만원 이상	3.53 ^b	0.40	3.55 ^b	0.39	3.65	0.44	3.70 ^b	0.37	(377)
<i>F</i>	4.95*		6.30**		2.12		6.55**		

* $p < .05$, ** $p < .01$, *** $p < .001$.

교사가 인식한 학습준비도는 전반적으로 어머니가 인식한 학습준비도보다 점수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어머니 평정과 마찬가지로 인지발달 및 일반적 지식이 3.6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사회정서발달과 의사소통이 3.51점, 학습에 대한 태도가 3.36점으로 어머니의 평정보다 사회정서발달이 더 높게 나타났다.

교사 역시 남아보다 여아일 때 학습준비도가 높은 것으로 지각하였는데,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어머니의 평정과 다르게 학습준비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이가 발견된 영역은 사회정서발달과 학습태도였으며, 의사소통과 인지발달 및 일반적 지식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사회정서발달과 학습태도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얻은 것은 외동아이고,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것은 둘째 이상인 아동들이다. 교사들이 인식하였을 때 어머니들의 학력수준에 따라 아동의 학습준비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구 소득도 인지발달과 일반적 지식 영역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사후검정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어머니의 인식과 교사 인식 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3-48〉 교사가 인식한 학습준비도

구분	사회정서발달		학습에 대한 태도		의사소통		인지발달 및 일반적 지식		(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3.51	0.44	3.36	0.52	3.51	0.55	3.64	0.42	(1,203)
아동 성별									
남	3.46	0.46	3.26	0.55	3.44	0.59	3.55	0.45	(622)
여	3.57	0.41	3.47	0.46	3.59	0.49	3.73	0.36	(581)
<i>t</i>	-3.80***		-6.13***		-3.93***		-6.22***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3.47 ^a	0.50	3.29 ^a	0.58	3.47	0.60	3.61	0.46	(127)
첫째	3.49 ^{ab}	0.44	3.37 ^b	0.52	3.53	0.52	3.66	0.41	(405)
둘째 이상	3.54 ^b	0.41	3.38 ^b	0.51	3.51	0.56	3.63	0.42	(649)
<i>F</i>	4.70**		4.29*		1.79		1.34		
모 학력									
고졸이하	3.53	0.44	3.34	0.56	3.49	0.59	3.60	0.46	(350)
전문대졸	3.52	0.42	3.39	0.49	3.53	0.54	3.65	0.39	(329)
대졸이상	3.49	0.45	3.36	0.52	3.52	0.54	3.65	0.41	(519)
<i>F</i>	1.88		1.24		1.52		2.61		

단위: 점(명)

(표 III-3-48 계속)

구분	사회정서발달		학습에 대한 태도		의사소통		인지발달 및 일반적 지식		(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3.47	0.47	3.31	0.54	3.47	0.56	3.62	0.42	(315)
301~400만원	3.52	0.44	3.35	0.53	3.48	0.58	3.61	0.45	(325)
401~500만원	3.54	0.40	3.43	0.49	3.56	0.54	3.68	0.41	(276)
501만원 이상	3.52	0.42	3.37	0.51	3.56	0.51	3.66	0.37	(287)
F	1.00		2.56		2.12		3.15 [*]		

* $p < .05$, ** $p < .01$, *** $p < .001$.

3) 표현 어휘력

만 6세인 패널 아동을 대상으로 REVT(김영태·홍경훈·김경희·장혜성·이주연, 2009)의 표현 어휘력 검사를 실시하였다. 아동의 어휘력 발달 수준은 원점수를 바탕으로 해당 월령에 따라 표준화된 기준을 참조한 정상성 분포를 통해 살펴 보았다.

전체 조사대상 아동의 표현 어휘력 원점수는 76.23점($SD=11.03$)이었으며, 아동의 성별과 출생순위, 어머니 학력 및 가구 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남아보다 여아가, 출생순위가 둘째 이상일 때보다는 첫째나 외동아일 때, 어머니 학력이 전문대졸 이상일 때, 그리고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표현 어휘력 점수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정상성 기준은 REVT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해당 생활연령대의 평균으로부터 -1 표준편차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정상 발달’, -1 표준편차와 -2 표준편차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유의 요망’, -2 표준편차를 넘어서는 경우 ‘발달 의심’으로 판정하였다. 정상성 기준 분포를 살펴보면, 만 6세 아동의 표현 어휘력은 정상 발달이 78.2%이었고, 어휘력 발달이 지연된 것으로 보이는 유의 요망이 17.4%, 발달 의심 아동이 4.4%로 나타났다. 정상발달 비율은 여아에서,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 401~500만원인 가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원점수와 다르게 정상성 기준에서 출생순위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3-49〉 아동의 어휘력 발달

단위: 점, %(명)

구분	원점수		정상성 기준			
	평균	표준편차	정상 발달	유의 요망	발달 의심	(수)
전체	76.23	11.03	78.2	17.4	4.4	(878)
아동 성별						
남	75.15	11.39	75.1	18.1	6.9	(468)
여	77.49	10.44	81.8	16.6	1.5	(410)
$t/x^2(df)$	-2.73**		12.46(2)**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79.48 ^a	9.92	84.3	14.3	1.3	(102)
첫째	77.27 ^a	11.93	79.6	17.0	3.4	(296)
둘째 이상	74.72 ^b	10.42	75.6	18.5	5.9	(466)
$F/x^2(df)$	8.40***		7.02(4)			
모 학력						
고졸이하	73.26 ^a	10.96	73.2	19.9	6.8	(251)
전문대졸	76.36 ^b	10.49	77.3	19.3	3.4	(238)
대졸이상	77.84 ^b	11.02	81.4	15.0	3.6	(385)
$F/x^2(df)$	17.96***		15.84(4)**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74.12 ^a	11.10	75.1	18.4	6.4	(247)
301~400만원	75.58 ^b	10.19	78.0	17.0	5.0	(240)
401~500만원	78.28 ^b	10.63	82.9	12.6	4.5	(195)
501만원 이상	77.57 ^b	11.71	77.5	21.4	1.1	(196)
$F/x^2(df)$	5.72**		13.66(6)*			

* $p < .05$, ** $p < .01$, *** $p < .001$.

4) 조음검사

학령기 진입을 앞둔 만 6세 아동의 발화 능력을 살펴보기 위해 3문장을 듣고 따라 말하는 조음검사와 글자를 보고 읽는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 수행 시 녹음 오류로 인해 점수를 산출할 수 없는 케이스를 제외하고, 전문가의 판독을 통해 오류 어절/자음을 바탕으로 아동의 조음 정확도 및 읽기 유창성 수준을 평가하였다.

만 6세 아동의 조음 정확도는 평균으로부터 -1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정상 발달군과 의심 발달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정상 발달군을 다시 '일반적인 수준'과 '약간 오류가 있는 수준'으로 구분하고, 의심 발달군을 '심화검사 권유'와 '조음장애 의심'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일반적인 수준이 49.6%였고, 약

간 오류는 있으나 일반적인 수준이 41.9%였다. 심화검사가 권유되는 대상은 8.6%정도로 소수였으나, 이 중 조음음운장애로 의심될만한 오류를 보인 아동은 2.3%였다. 읽기 유창성의 경우 일반적인 수준이 58.7%, 약간 비유창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이 31.5%, 매우 비유창한 수준의 아동이 9.9%였다.

아동의 특성에 따라서는 남아(44.9%)에 비해 여아(54.5%)들이 일반적인 수준의 조음 발달이라고 평가받은 경우가 많았으며 심화검사를 권유받은 아동은 남아가 더 많게 나타났다. 읽기 유창성 또한 남아(50.6%)에 비해 여아(66.4%)가 더 많이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나타났다.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읽기 유창성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일반 수준인 아동은 첫째가 66.5%로 가장 많았고, 둘째 이상인 아동이 53.1%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비유창하다고 평가받은 아동은 둘째 이상인 아동이 많은 편이었다. 조음 정확도는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읽기 유창성에서는 대졸이상인 어머니의 자녀일수록 일반적인 수준의 아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서는 조음 정확도 수준이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50〉 아동의 조음 및 읽기 유창성

단위: %(명)

구분	조음 정확도					읽기 유창성			
	일반 수준	약간 오류	심화검사 권유	조음장애 의심	(수)	일반 수준	약간 비유창	매우 비유창	(수)
전체	49.6	41.9	6.3	2.3	(1,501)	58.7	31.5	9.9	(1,340)
아동 성별									
남	44.9	44.4	7.9	2.8	(768)	50.6	36.8	12.6	(663)
여	54.5	39.2	4.6	1.7	(733)	66.4	26.4	7.2	(677)
$\chi^2(df)$	13.51(3)**					2.57(2)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53.8	42.7	2.3	1.2	(170)	60.8	35.2	4.0	(160)
첫째	51.6	40.7	5.7	2.0	(505)	66.5	25.2	8.3	(462)
둘째 이상	47.9	41.6	7.7	2.7	(798)	53.1	34.3	12.6	(691)
$\chi^2(df)$	6.42(6)					15.94(4)**			
모 학력									
고졸이하	46.0	42.9	7.5	3.5	(419)	52.4	34.5	13.0	(352)
전문대졸	51.5	41.2	5.5	1.8	(413)	57.3	32.3	10.4	(377)
대졸이상	50.8	41.3	6.2	1.7	(658)	63.1	28.9	8.0	(600)
$\chi^2(df)$	9.01(6)					26.06(4)***			

(표 III-3-50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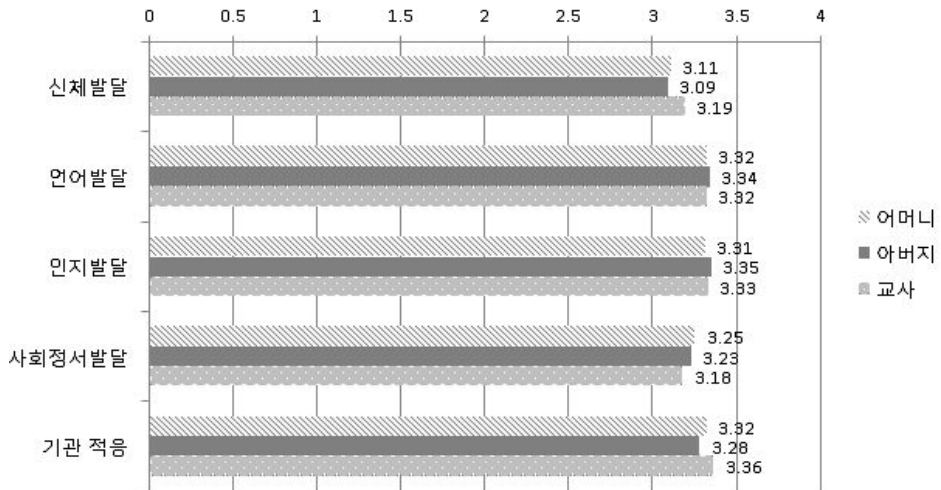
구분	조음 정확도					읽기 유창성			
	일반 수준	약간 오류	심화검사 권유	조음장애 의심	(수)	일반 수준	약간 비유창	매우 비유창	(수)
지역 규모									
서울	40.0	51.4	5.8	2.7	(211)	60.2	31.5	8.3	(174)
광역시	56.7	32.3	6.1	4.9	(103)	67.3	26.0	6.7	(94)
도농복합시	49.7	42.2	6.4	1.7	(847)	57.1	32.1	10.8	(773)
시	56.4	35.2	5.9	2.5	(251)	56.0	34.3	9.7	(225)
군	49.5	40.2	8.5	1.8	(89)	67.1	23.7	9.2	(74)
$\chi^2(df)$	23.40(12)*					10.18(8)			

주: 읽기 유창성 검사 대상 1,343명 중에서 읽지 못하는 3명 케이스는 교차분석을 위하여 결측값 처리하였음.

* $p < .05$, ** $p < .01$, *** $p < .001$.

5) 전반적 발달

[그림 III-3-1]은 아동의 전반적 발달 수준을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아동이 다니는 육아지원기관의 담당교사에게 평가한 결과이다. 전반적 발달은 1점 '느림', 2점 '다소 느림', 3점 '양호함(정상발달)', 4점 '발달이 빠른 편'을 의미하는데, 모든 항목이 3점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 정상 발달로 볼 수 있다.



[그림 III-3-1] 아동의 전반적 발달

주: 전반적 발달은 '느림', '다소 느림', '양호함(정상발달)', '발달이 빠른 편', '해당 없음'으로 측정되었으나, '해당 없음'은 사례수가 적고 집단 간 분석을 위하여 결측 처리함.

신체발달과 기관에서의 적응에 대해서는 교사가 각각 3.19점, 3.36점이라고 응답하여 아동의 부모보다 정상 발달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언어발달과 인지발달에서는 아버지의 점수가, 사회정서발달에서는 어머니의 점수가 높게 나타나 다른 사람에 비해 아동의 발달을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3-51>과 같이 어머니가 인식한 아동의 전반적 발달은 3점(양호함)을 기준으로 언어발달과 기관적응이 3.32점으로 비교적 높았으며, 인지발달 3.31점, 사회정서발달 3.25점, 신체발달 3.11점 순이었다. 통계적으로 성별, 출생순위, 어머니 학력, 소득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남아일 때 보다 여아일 때, 출생순위별로는 외동아일 때 아동의 전반적 발달이 양호한 수준 이상이라고 응답하는 경향을 보였다. 사회정서발달의 경우 예외적으로 아동이 둘째 이상일 때 가장 점수가 높았다. 언어와 인지발달은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이하일 때 점수가 가장 낮았으며, 사회정서발달은 어머니가 전문대 졸업자일 때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아동의 발달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소득이 501만원 이상인 가구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표 III-3-51〉 어머니가 인식한 아동의 전반적 발달

구분	신체발달		언어발달		인지발달		사회정서발달		기관에서 적응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수)
전체	3.11	0.72	3.32	0.63	3.31	0.58	3.25	0.60	3.32	0.57 (1,563)
아동 성별										
남	3.05	0.73	3.22	0.65	3.24	0.59	3.17	0.62	3.25	0.58 (803)
여	3.18	0.70	3.44	0.58	3.39	0.55	3.33	0.56	3.39	0.55 (760)
<i>t</i>	-2.53*		-6.52***		-4.69***		-4.75***		-4.38***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3.21	0.69	3.43	0.63	3.37	0.61	3.26	0.63	3.37	0.61 (172)
첫째	3.13	0.74	3.34	0.64	3.35	0.59	3.20	0.63	3.26	0.58 (528)
둘째 이상	3.07	0.70	3.28	0.62	3.27	0.56	3.29	0.57	3.35	0.55 (832)
<i>F</i>	2.51		3.67*		3.93*		3.22*		3.30*	
모 학력										
고졸이하	3.06	0.71	3.24 ^a	0.63	3.25 ^a	0.55	3.18 ^a	0.56	3.32	0.55 (460)
전문대졸	3.19	0.69	3.33 ^{ab}	0.62	3.31 ^b	0.58	3.29 ^b	0.56	3.35	0.51 (428)
대졸이상	3.10	0.73	3.37 ^b	0.63	3.35 ^b	0.59	3.27 ^{ab}	0.64	3.30	0.62 (669)
<i>F</i>	2.42		7.06**		7.95**		4.26*		1.13	

단위: 점(명)

(표 III-3-51 계속)

구분	신체발달		언어발달		인지발달		사회정서발달		기관에서 적응		(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3.06 ^a	0.68	3.26 ^a	0.63	3.28 ^a	0.59	3.19 ^a	0.62	3.29 ^a	0.58	(429)
301~400만원	3.05 ^a	0.77	3.31 ^{ab}	0.60	3.24 ^a	0.56	3.18 ^{ab}	0.58	3.26 ^a	0.58	(421)
401~500만원	3.13 ^{ab}	0.73	3.31 ^{ab}	0.64	3.33 ^{ab}	0.58	3.32 ^{bc}	0.57	3.32 ^{ab}	0.55	(347)
501만원 이상	3.23 ^b	0.66	3.42 ^b	0.63	3.42 ^b	0.57	3.34 ^c	0.60	3.41 ^b	0.57	(366)
F	5.67 ^{**}		5.57 ^{**}		6.15 ^{***}		8.61 ^{***}		6.12 ^{***}		

주: 전반적 발달은 '느림', '다소 느림', '양호함(정상발달)', '발달이 빠른 편', '해당 없음'으로 측정되었으나, '해당 없음'은 사례수가 적고 집단 간 분석을 위하여 결측 처리함.

* $p < .05$, ** $p < .01$, *** $p < .001$.

아버지가 인식한 아동의 전반적 발달은 인지, 언어, 기관적응, 사회정서, 신체 발달 순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통계적으로는 성별, 출생순위, 어머니 학력, 소득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어머니가 인식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인식으로도 남아보다 여아의 전반적 발달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출생 순위별로는 신체, 언어, 인지발달에서 외동아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반면 사회 정서발달과 기관적응에서는 둘째 이상이 점수가 높았으나 사후검정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이하일 때 언어와 인지발달, 기관적응에서의 발달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아동의 발달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표 III-3-52〉 아버지가 인식한 아동의 전반적 발달

단위: 점(명)

구분	신체발달		언어발달		인지발달		사회정서발달		기관에서 적응		(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3.09	0.73	3.34	0.62	3.35	0.57	3.23	0.59	3.28	0.58	(1480)
아동 성별											
남	3.01	0.76	3.24	0.65	3.29	0.59	3.16	0.58	3.22	0.59	(755)
여	3.17	0.68	3.45	0.58	3.42	0.55	3.31	0.59	3.36	0.57	(725)
t	-3.28 ^{**}		-5.90 ^{***}		-4.34 ^{***}		-4.26 ^{***}		-4.28 ^{***}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3.26 ^b	0.68	3.46 ^{ab}	0.60	3.42	0.59	3.24	0.67	3.35	0.61	(165)
첫째	3.09 ^{ab}	0.76	3.40 ^b	0.63	3.38	0.58	3.23	0.58	3.27	0.61	(506)
둘째 이상	3.04 ^a	0.71	3.27 ^a	0.62	3.31	0.56	3.24	0.57	3.28	0.56	(781)
F	4.94 ^{**}		7.07 ^{**}		2.86		0.69		0.05		

(표 III-3-52 계속)

구분	신체발달		언어발달		인지발달		사회정서발달		기관에서 적응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수)
모 학력										
고졸이하	3.06	0.75	3.31 ^a	0.63	3.29 ^a	0.58	3.18	0.56	3.27 ^a	0.56 (432)
전문대졸	3.17	0.65	3.32 ^{ab}	0.62	3.34 ^{ab}	0.54	3.26	0.55	3.36 ^b	0.53 (405)
대졸이상	3.05	0.75	3.38 ^b	0.62	3.40 ^b	0.58	3.26	0.62	3.25 ^{ab}	0.62 (632)
<i>F</i>	0.93		3.68 [*]		8.09 ^{***}		3.61 [*]		3.78 [*]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3.06	0.68	3.28 ^a	0.64	3.28 ^a	0.56	3.13 ^a	0.57	3.21 ^a	0.57 (410)
301~400만원	3.05	0.76	3.33 ^{ab}	0.63	3.32 ^{ab}	0.57	3.20 ^{ab}	0.59	3.28 ^{ab}	0.59 (400)
401~500만원	3.07	0.74	3.36 ^{ab}	0.63	3.39 ^{bc}	0.58	3.30 ^b	0.59	3.30 ^b	0.56 (333)
501만원 이상	3.18	0.72	3.42 ^b	0.59	3.44 ^c	0.57	3.34 ^b	0.58	3.37 ^b	0.60 (337)
<i>F</i>	2.21		4.86 ^{**}		7.86 ^{***}		10.87 ^{***}		5.76 ^{**}	

주: 전반적 발달은 '느림', '다소 느림', '양호함(정상발달)', '발달이 빠른 편', '해당 없음'으로 측정되었으나, '해당 없음'은 사례수가 적고 집단 간 분석을 위하여 결측 처리함.

* $p < .05$, ** $p < .01$, *** $p < .001$.

교사가 인식한 아동의 전반적 발달은 기관적응, 인지, 언어, 사회정서, 신체발달 순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부모가 인식한 것과 마찬가지로 기관의 교사 또한 남아보다 여아의 전반적 발달이 높다고 지각하였으며,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이하일 때 교사는 언어와 인지발달 점수를 낮게 지각하였는데, 기관에서의 적응은 어머니가 대졸이상일 경우의 발달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나 발달 영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가구 소득은 인지와 언어발달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소득 상위 집단의 발달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III-3-53〉 교사가 인식한 아동의 전반적 발달

단위: 점(명)

구분	신체발달		언어발달		인지발달		사회정서발달		기관에서 적응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수)
전체	3.19	0.59	3.32	0.66	3.33	0.61	3.18	0.64	3.36	0.59 (1,200)
아동 성별										
남	3.15	0.63	3.19	0.69	3.27	0.65	3.11	0.66	3.33	0.61 (622)
여	3.23	0.55	3.46	0.58	3.39	0.56	3.25	0.60	3.39	0.57 (578)
<i>t</i>	-1.63		-7.34 ^{***}		-2.87 ^{**}		-3.70 ^{***}		-1.85	

(표 III-3-53 계속)

구분	신체발달		언어발달		인지발달		사회정서발달		기관에서 적응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수)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3.12	0.60	3.39	0.71	3.40	0.66	3.16	0.68	3.35	0.65 (127)
첫째	3.20	0.57	3.34	0.64	3.35	0.62	3.14	0.65	3.34	0.60 (404)
둘째 이상	3.19	0.61	3.28	0.66	3.29	0.60	3.20	0.62	3.38	0.57 (647)
F	1.59		0.42		1.59		2.17		1.27	
모 학력										
고졸이하	3.19	0.63	3.20 ^a	0.68	3.23 ^a	0.63	3.20	0.63	3.38 ^{ab}	0.60 (349)
전문대졸	3.18	0.56	3.31 ^{ab}	0.65	3.33 ^b	0.57	3.22	0.62	3.42 ^b	0.54 (328)
대졸이상	3.19	0.59	3.40 ^b	0.63	3.39 ^b	0.61	3.13	0.65	3.32 ^a	0.62 (518)
F	0.25		9.13 ^{**}		9.04 ^{**}		2.65		4.03 [*]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3.15	0.59	3.22 ^a	0.67	3.22 ^a	0.64	3.12	0.68	3.30	0.62 (314)
301~400만원	3.17	0.62	3.28 ^{ab}	0.66	3.28 ^{ab}	0.60	3.19	0.63	3.41	0.57 (323)
401~500만원	3.20	0.60	3.40 ^b	0.63	3.37 ^b	0.61	3.21	0.63	3.38	0.61 (276)
501만원 이상	3.24	0.56	3.38 ^b	0.64	3.46 ^b	0.56	3.18	0.60	3.35	0.56 (287)
F	0.82		5.28 ^{**}		6.44 ^{***}		1.10		1.08	

주: 전반적 발달은 '느림', '다소 느림', '양호함(정상발달)', '발달이 빠른 편', '해당 없음'으로 측정되었으나, '해당 없음'은 사례수가 적고 집단 간 분석을 위하여 결측 처리함.

* $p < .05$, ** $p < .01$, *** $p < .001$.

마. 사회/정서 발달

1) 자아 유능감

4점 척도를 기준으로 질문한 아동의 자아 유능감을 인지적 능력(예. 퍼즐을 아주 잘 맞추니?), 또래 수용(예. 친구가 아주 많니?), 신체적 능력(예. 그네를 아주 잘 타니?) 및 어머니의 수용(예. 엄마는 너를 보고 아주 많이 웃으시니?)의 4가지 하위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최고점이 4점일 때 인지적 능력이 평균 3.34점으로 기타 하위 요인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고, 4가지 하위 요인 중 또래 수용이 2.79점으로 가장 낮은 평균 점수로 조사되어 패널 아동의 자아 유능감은 중간 수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라 자아 유능감에 차이가 있었는데, 인지적 능력의 경우 둘째 이상인 경우보다 외동인 경우가 평균 3.41점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또

한 외동이거나 첫째인 경우의 또래 수용 정도가 둘째 이상인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어머니의 수용 정도는 첫째나 둘째 이상인 경우보다 외동아의 경우 평균 2.98점으로 더 높았다. 어머니의 취/학업 여부에 따라서는 어머니가 미취/학업인 경우의 또래 수용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표 III-3-54〉 아동의 자아 유능감

구분	인지적 능력		또래 수용		신체적 능력		어머니의 수용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34	0.33	2.79	0.48	2.97	0.41	2.84	0.54	(1,557)
아동 성별									
남	3.33	0.36	2.77	0.49	2.96	0.41	2.84	0.55	(795)
여	3.36	0.31	2.80	0.46	2.99	0.42	2.85	0.53	(762)
<i>t</i>	-1.43		-1.46		-0.70		-0.01		
아동 출생순위									
외동	3.41 ^a	0.32	2.89 ^a	0.50	3.04	0.38	2.98 ^a	0.50	(176)
첫째	3.35 ^{ab}	0.30	2.84 ^a	0.46	2.96	0.41	2.86 ^b	0.55	(525)
둘째 이상	3.32 ^b	0.35	2.74 ^b	0.47	2.97	0.42	2.81 ^b	0.54	(825)
<i>F</i>	4.43 [*]		11.77 ^{***}		1.24		7.97 ^{**}		
모 취/학업 여부									
취/학업	3.34	0.34	2.76	0.48	2.99	0.41	2.86	0.52	(714)
미취/학업	3.34	0.33	2.82	0.46	2.96	0.42	2.84	0.56	(812)
<i>t</i>	-0.27		-3.00 ^{**}		1.42		0.49		

* $p < .05$, ** $p < .01$, *** $p < .001$.

2) 행복감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을 알아보기 위해, 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주관적으로 느끼는 아동의 행복감 정도를 7점 척도를 기준으로 질문하였다. 또한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을 아동 본인이 4점 척도를 기준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부모와 교사가 지각한 아동의 행복감 수준은 평균 5점대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아버지가 지각한 아동의 행복감이 평균 5.80점($SD=0.88$)으로 가장 높았다. 또한 아동이 지각한 자신의 행복함은 평균 3.57점으로 비교적 높았다.

특정적으로 어머니가 지각한 아동의 행복감은 외동이거나 둘째 이상인 경우보다 첫째인 경우가 평균 5.57점으로 가장 낮았고, 부모의 학력이 고졸이하일 경우에 상대적으로 아동의 행복감을 가장 낮게 지각했다. 부모와 교사 모두 아동 가구의 소득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주관적으로 지각한 아동의 행복감 정

도가 가장 낮았다. 아동이 이용하는 육아지원기관 유형에 따라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각한 반일제 이상 학원에 다니는 아동의 행복감 정도가 각각 평균 6.02점, 6.01점으로 가장 높은 양상을 보였다.

〈표 III-3-55〉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

단위: 점(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교사			아동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n)
전체	5.74	0.88	(1565)	5.80	0.88	(1483)	5.67	0.97	(1203)	3.57	0.50	(1557)
아동 출생순위												
외동	5.88 ^a	0.85	(172)	5.87	0.82	(166)	5.67	1.05	(127)	3.66	0.48	(176)
첫째	5.57 ^b	0.92	(530)	5.67	0.91	(507)	5.64	0.99	(405)	3.57	0.48	(525)
둘째 이상	5.83 ^a	0.85	(832)	5.87	0.88	(783)	5.70	0.94	(649)	3.55	0.52	(825)
F	14.97 ^{***}			5.37 ^{**}			1.40			3.34 [*]		
모 취/학업 여부												
취/학업	5.74	0.92	(708)	5.82	0.85	(654)	5.69	0.97	(566)	3.58	0.50	(714)
미취/학업	5.75	0.85	(833)	5.80	0.90	(801)	5.65	0.98	(618)	3.56	0.51	(812)
t	0.78			0.34			0.19			0.04		
모 학력												
고졸이하	5.64 ^a	0.90	(461)	5.71 ^a	0.93	(432)	5.64	0.97	(350)	3.56	0.50	(453)
전문대졸	5.80 ^b	0.86	(429)	5.83 ^{ab}	0.88	(406)	5.74	0.97	(329)	3.58	0.52	(428)
대졸이상	5.78 ^b	0.88	(669)	5.84 ^b	0.84	(634)	5.65	0.97	(519)	3.57	0.50	(665)
F	7.07 ^{**}			6.25 ^{**}			0.82			0.43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5.65 ^a	0.93	(430)	5.71 ^a	0.93	(410)	5.51 ^a	1.07	(315)	3.58	0.52	(426)
301~400만원	5.71 ^{ab}	0.88	(421)	5.77 ^{ab}	0.89	(401)	5.76 ^b	0.91	(325)	3.57	0.48	(417)
401~500만원	5.78 ^b	0.82	(348)	5.85 ^b	0.81	(333)	5.69 ^{ab}	0.93	(276)	3.57	0.50	(347)
501만원 이상	5.86 ^b	0.86	(366)	5.88 ^b	0.88	(339)	5.72 ^{ab}	0.93	(287)	3.55	0.51	(367)
F	6.39 ^{***}			5.03 ^{**}			3.63 [*]			0.25		
육아지원기관 유형												
유치원	5.75 ^a	0.86	(721)	5.81 ^a	0.87	(690)	5.66	0.97	(744)	3.57	0.50	(709)
어린이집	5.79 ^a	0.87	(389)	5.81 ^{ab}	0.90	(368)	5.68	0.96	(404)	3.58	0.50	(389)
반일제 이상	6.01 ^b	0.69	(51)	6.02 ^b	0.81	(50)	5.78	1.03	(55)	3.55	0.57	(53)
F	3.13 [*]			2.90 ^{***}			0.03			0.30		

* $p < .05$, ** $p < .01$, *** $p < .001$.

이어서 부모와 아동이 이용하는 육아지원기관의 교사를 대상으로 아동의 일상적인 스트레스 수준을 질문하였다. 4점 척도를 기준일 때 평균 2점 이상으로 나타나 부모와 교사 모두 아동이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각한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수준은 출생순위가 첫째일 경우 각각 평균 2.69점, 2.83점으로 가장 높았다. 어머니가 지각한 일상 스트레스 수준은 가구소득이 501만원 이상인 경우에 평균 2.60점으로 300만원 이하일 때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교사가 지각한 아동의 스트레스 수준 또한 가구소득이 501만원 이상인 경우에 2.29점으로 가장 낮았고,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평균 2.45점으로 가장 높았다.

〈표 III-3-56〉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단위: 점(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교사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2.67	0.63	(1,565)	2.57	0.66	(1,483)	2.38	0.65	(1,203)
아동 출생순위									
외동	2.64 ^a	0.61	(172)	2.57 ^{ab}	0.68	(166)	2.40	0.63	(127)
첫째	2.83 ^b	0.63	(530)	2.69 ^a	0.63	(507)	2.42	0.64	(405)
둘째 이상	2.57 ^a	0.62	(832)	2.48 ^b	0.67	(783)	2.34	0.66	(649)
<i>F</i>	26.29 ^{***}			13.97 ^{***}			2.04		
모 취/학업 여부									
취/학업	2.64	0.64	(708)	2.55	0.65	(654)	2.37	0.67	(566)
미취/학업	2.70	0.63	(833)	2.60	0.66	(801)	2.39	0.64	(618)
<i>t</i>	-1.76			-0.71			-0.13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2.69 ^a	0.64	(430)	2.60	0.67	(410)	2.45 ^a	0.66	(315)
301~400만원	2.71 ^{ab}	0.63	(421)	2.62	0.65	(401)	2.35 ^{ab}	0.67	(325)
401~500만원	2.67 ^{ab}	0.62	(348)	2.54	0.70	(333)	2.43 ^{ab}	0.63	(276)
501만원 이상	2.60 ^b	0.63	(366)	2.52	0.62	(339)	2.29 ^b	0.64	(287)
<i>F</i>	3.83 [*]			2.81 [*]			3.33 [*]		
육아지원기관 유형									
유치원	2.68	0.63	(721)	2.59	0.66	(690)	2.38	0.66	(744)
어린이집	2.64	0.65	(389)	2.55	0.71	(368)	2.40	0.66	(404)
반일제 이상	2.50	0.63	(51)	2.53	0.59	(50)	2.33	0.57	(55)
<i>F</i>	2.51			1.88			1.28		

* $p < .05$, *** $p < .001$.

3) 사회적 유능감

사회적 기술 평정 척도(SSRS)를 활용하여,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을 주양육자와 아동이 다니는 육아지원기관의 교사를 대상으로 질문하였다. 주양육자에게

질문한 사회적 유능감은 자기통제(예. 부모의 지시에 따른다), 주장성(예. 처음 만난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한다), 협력성(예. 시키지 않아도 집안일을 돕는다) 및 책임성(예. 친구나 형제에게 감사를 표현한다)의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나뉜다.

그 중 여아의 자기통제 수준이 평균 2.55점으로 남아보다 높았고, 협력성과 책임감은 여아의 경우 각각 평균 2.07점, 2.29점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주양육자가 지각한 아동의 협력성 정도는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패널 아동이 외동아일 경우의 협력성이 가장 낮았고, 둘째 이상인 경우의 협력성이 평균 2.04점으로 가장 높았다.

교사에게 질문한 사회적 유능감은 자기통제(예. 성인(부모, 교사 등)과의 갈등 상황에서 감정을 조절한다), 주장성(예. 친구를 쉽게 사귀다) 및 협력성(예. 게임이나 놀이를 할 때, 자신의 순서를 지킨다)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교사가 지각한 아동의 자기통제 수준과 협력성은 패널 아동이 여아일 경우 더 높았다. 또한 주양육자가 지각한 것과 마찬가지로 둘째 이상의 아동이 외동아보다 협력성 정도가 더욱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3-57〉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구분		자기통제		주장성		협력성		책임감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2.52	0.36	2.38	0.35	2.01	0.41	2.25	0.33	(1,605)
아동 성별										
남		2.48	0.35	2.37	0.35	1.94	0.39	2.22	0.33	(824)
여		2.55	0.35	2.40	0.35	2.07	0.42	2.29	0.32	(781)
주	<i>t</i>	-4.38***		-1.50		-6.44***		-4.43***		
양육자 아동 출생순위										
외동		2.51	0.37	2.38	0.38	1.95 ^a	0.43	2.26	0.37	(181)
첫째		2.50	0.36	2.39	0.36	1.99 ^{ab}	0.39	2.24	0.32	(537)
둘째 이상		2.52	0.35	2.38	0.34	2.04 ^b	0.41	2.26	0.33	(855)
<i>F</i>		0.60		0.14		4.87**		0.77		
전체		2.40	0.44	2.47	0.44	2.66	0.39	-		(1,213)
아동 성별										
남		2.32	0.47	2.47	0.45	2.56	0.42	-		(622)
여		2.49	0.39	2.48	0.44	2.76	0.31	-		(581)
<i>t</i>		-6.07***		0.53		-8.38***		-		

단위: 점(명)

(표 III-3-57 계속)

구분	자기통제		주장성		협력성		책임감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아동 출생순위									
외동	2.34	0.47	2.43	0.44	2.55 ^a	0.46			(127)
교사 첫째	2.40	0.45	2.47	0.45	2.63 ^{ab}	0.40	-		(405)
둘째 이상	2.42	0.43	2.48	0.44	2.69 ^b	0.36			(649)
F	1.69		0.71		8.30 ^{***}		-		

** $p < .01$, *** $p < .001$.

4) 또래 상호작용

평소 아동이 친구와의 상호작용에서 보이는 행동에 대한 질문을 토대로, 교사가 지각한 패널 아동의 또래 상호작용 수준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동의 놀이 상호작용 정도는 4점이 최고점일 때 평균 3.08점($SD=0.45$)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놀이 방해는 평균 1.94점($SD=0.52$)이었으며, 놀이 단절은 평균 1.64점($SD=0.58$)으로 놀이 방해 정도보다 단절의 정도가 더 낮았다.

교사가 지각한 아동의 놀이 방해와 상호작용은 아동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놀이 방해는 평균 2.07점으로 남아가 여아보다 높았으며, 놀이 상호작용 정도는 여아가 평균 3.15점으로 남아보다 높았다. 아동의 출생순위와 육아지원 기관 유형에 따른 차이도 있었는데, 특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의 놀이 방해 수준이 평균 1.99점으로 가장 높았고, 둘째 이상인 경우의 놀이 방해는 평균 1.90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 III-3-58〉 아동의 또래놀이 상호작용

단위: 점(명)

구분	놀이방해		놀이상호작용		놀이단절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94	0.52	3.08	0.45	1.64	0.58	(1,203)
아동 성별							
남	2.07	0.52	3.01	0.45	1.67	0.60	(622)
여	1.81	0.47	3.15	0.45	1.64	0.58	(581)
t	8.97 ^{***}		-4.68 ^{***}		1.14		
아동 출생순위							
외동	1.98	0.55	3.06	0.50	1.63	0.59	(127)
첫째	1.99	0.50	3.07	0.44	1.70	0.61	(405)
둘째 이상	1.90	0.51	3.08	0.46	1.62	0.57	(649)
F	3.90 [*]		1.89		1.22		

(표 III-3-58 계속)

구분	놀이방해		놀이상호작용		놀이단절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육아지원 기관 유형							
유치원	1.93	0.52	3.08	0.44	1.66	0.61	(744)
어린이집	1.99	0.51	3.05	0.49	1.65	0.56	(404)
반일제 이상	1.85	0.43	3.17	0.41	1.59	0.53	(55)
F	4.99**		0.35		0.06		

* $p < .05$, ** $p < .01$, *** $p < .001$.

5) 문제 행동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CBCL1.5-5(오경자·김영아, 2009)를 활용하여 문제행동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총점과 내재화/외현화 문제행동 점수를 알아보았으며, 각 7가지의 문제행동증후군과 기타문제 척도 점수와 함께 5가지의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DSM) 방식 척도 점수를 분석하였다. 분석 시 원점수를 사용하였으며, 임상/준임상 판단 기준점은 총점 44점, 내재화/외현화 각 15점이다. 분석 결과, 총점 평균은 20.07점($SD=15.63$), 내재화 문제는 6.80점($SD=6.06$), 외현화 문제는 5.70점($SD=5.33$)으로 내재화 문제행동 수준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 행동의 총점은 남아의 경우 평균 21.10점으로 여아인 18.99점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외현화 문제 또한 남아가 평균 6.34점으로 여아보다 높았다. 아동의 출생순위, 어머니의 취/학업여부, 가구 소득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문제행동 총점과 내재화/외현화 문제 모두 출생 순위가 둘째 이상이고 어머니가 취/학업 중인 경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는 상대적으로 501만원 이상인 경우에 문제행동 총점과 내재화/외현화 문제 행동 모두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3-59〉 문제행동: 내재화, 외현화 및 문제행동 총점

구분	문제행동 총점			내재화			외현화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20.07	15.63	(1,605)	6.80	6.06	(1,605)	5.70	5.33	(1,605)
아동 성별									
남	21.10	15.74	(824)	6.80	5.89	(824)	6.34	5.59	(824)
여	18.99	15.43	(781)	6.79	6.23	(781)	5.02	4.96	(781)
t	2.20*			-0.13			4.65***		

단위: 점(명)

(표 III-3-59 계속)

구분	문제행동 총점			내재화			외현화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아동 출생순위									
외동	23.18 ^a	18.56	(181)	8.08 ^a	7.44	(181)	6.17 ^a	5.98	(181)
첫째	22.73 ^a	16.55	(537)	7.75 ^a	6.56	(537)	6.46 ^a	5.56	(537)
둘째 이상	17.51 ^b	13.73	(855)	5.85 ^b	5.13	(855)	5.05 ^b	4.91	(855)
<i>F</i>		28.52 ^{***}			24.71 ^{***}			18.54 ^{***}	
모 취/학업여부									
취/학업	18.20	14.70	(729)	5.97	5.50	(729)	5.22	5.13	(729)
미취/학업	21.60	16.31	(845)	7.48	6.45	(845)	6.10	5.49	(845)
<i>t</i>		-3.67 ^{***}			-4.10 ^{***}			-2.88 ^{**}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21.52 ^a	16.28	(438)	7.28 ^a	6.29	(438)	6.19 ^a	5.59	(438)
301~400만원	21.49 ^a	16.05	(432)	7.26 ^a	6.35	(432)	6.18 ^a	5.46	(432)
401~500만원	19.45 ^{ab}	15.15	(356)	6.79 ^{ab}	5.78	(356)	5.36 ^{ab}	5.06	(356)
501만원 이상	17.38 ^b	14.36	(379)	5.72 ^b	5.52	(379)	4.88 ^b	4.98	(379)
<i>F</i>		6.08 ^{***}			5.98 ^{***}			5.50 ^{**}	

* $p < .05$, ** $p < .01$, *** $p < .001$.

정서적 반응성과 불안/우울 수준은 외동, 첫째아보다 둘째 이상이 더 낮았고, 신체증상과 위축 수준은 외동에 비해 둘째 이상인 경우 더 낮았다. 정서적 반응성을 포함한 모든 내재화 문제의 하위요인 모두 어머니가 취/학업 중인 경우 낮았으며, 가구 소득이 501만원 이상인 경우의 내재화 문제행동이 가장 낮았다.

〈표 III-3-60〉 문제행동: 내재화 문제행동 하위요인

구분	정서적 반응성			불안/우울			신체증상			위축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1.72	2.06	(1,605)	2.46	2.12	(1,605)	1.25	1.58	(1,605)	1.36	1.68	(1,605)
아동 성별												
남	1.72	2.07	(824)	2.40	2.01	(824)	1.25	1.55	(824)	1.43	1.71	(824)
여	1.71	2.06	(781)	2.54	2.23	(781)	1.25	1.61	(781)	1.29	1.65	(781)
<i>t</i>		-0.21			-1.14			-0.39			1.61	
아동 출생순위												
외동	2.10 ^a	2.63	(181)	2.94 ^a	2.49	(181)	1.46 ^a	1.76	(181)	1.58 ^a	2.00	(181)
첫째	2.01 ^a	2.20	(537)	2.83 ^a	2.27	(537)	1.39 ^{ab}	1.71	(537)	1.52 ^{ab}	1.85	(537)
둘째 이상	1.43 ^b	1.76	(855)	2.10 ^b	1.84	(855)	1.10 ^b	1.44	(855)	1.22 ^b	1.46	(855)
<i>F</i>		23.24 ^{***}			31.72 ^{***}			4.89 ^{**}			7.81 ^{***}	

단위: 점(명)

(표 III-3-60 계속)

구분	정서적 반응성			불안/우울			신체증상			위축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모 취/학업 여부												
취/학업	1.50	1.90	(729)	2.18	1.94	(729)	1.14	1.53	(729)	1.15	1.52	(729)
미취/학업	1.90	2.18	(845)	2.69	2.25	(845)	1.36	1.63	(845)	1.53	1.79	(845)
<i>t</i>		-3.48**			-3.76***			-2.12*			-3.79***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1.85 ^{ab}	2.11	(438)	2.63 ^a	2.27	(438)	1.38 ^a	1.70	(438)	1.42 ^a	1.68	(438)
301~400만원	1.87 ^a	2.15	(432)	2.65 ^a	2.18	(432)	1.19 ^{ab}	1.58	(432)	1.54 ^a	1.79	(432)
401~500만원	1.67 ^{ab}	2.02	(356)	2.43 ^{ab}	1.97	(356)	1.35 ^{ab}	1.55	(356)	1.34 ^{ab}	1.71	(356)
501만원 이상	1.43 ^b	1.89	(379)	2.10 ^b	1.95	(379)	1.08 ^b	1.45	(379)	1.11 ^b	1.51	(379)
<i>F</i>		3.38*			4.94*			2.93			6.14***	

* $p < .05$, ** $p < .01$, *** $p < .001$.

외현화 문제행동의 하위요인과 수면 및 기타 문제의 점수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수면문제를 제외한 주의집중, 공격행동 및 기타 문제 수준 모두 남아가 여아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출생순위가 둘째 이상인 경우가 외동이거나 첫째인 경우보다 더 낮았다. 수면문제는 둘째 이상, 첫째, 외동 순으로 높아져 외동일 때 가장 높았다. 주의집중을 비롯한 아동의 네 가지 문제행동 수준은 어머니가 취/학업 중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유의하게 낮았으며, 소득 수준에 따른 주의집중 문제 등의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표 III-3-61〉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 하위요인, 수면 및 기타 문제

구분	주의집중			공격행동			수면문제			기타 문제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전체	1.06	1.33	(1,605)	4.64	4.46	(1,605)	1.66	1.60	(1,605)	5.92	4.55	(1,605)
아동 성별												
남	1.22	1.41	(824)	5.12	4.68	(824)	1.72	1.66	(824)	6.24	4.64	(824)
여	0.89	1.22	(781)	4.13	4.15	(781)	1.60	1.54	(781)	5.58	4.44	(781)
<i>t</i>		5.44***			3.95***			0.20			2.22*	
아동 출생순위												
외동	1.23 ^a	1.57	(181)	4.93 ^a	4.86	(181)	2.20 ^a	1.85	(181)	6.73 ^a	5.48	(181)
첫째	1.30 ^a	1.44	(537)	5.17 ^a	4.57	(537)	1.93 ^b	1.74	(537)	6.59 ^a	4.61	(537)
둘째 이상	0.87 ^b	1.15	(855)	4.19 ^b	4.22	(855)	1.35 ^c	1.35	(855)	5.27 ^b	4.20	(855)
<i>F</i>		19.36***			14.69***			36.65***			21.41***	

단위: 점(명)

(표 III-3-61 계속)

구분	주의집중			공격행동			수면문제			기타 문제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모 취/학업여부												
취/학업	0.94	1.29	(729)	4.29	4.28	(729)	1.49	1.53	(729)	5.51	4.42	(729)
미취/학업	1.17	1.37	(845)	4.93	4.61	(845)	1.80	1.65	(845)	6.22	4.65	(845)
<i>t</i>		-2.59*			-2.66**			-3.42**			-2.62**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1.24 ^a	1.36	(438)	4.96	4.66	(438)	1.71	1.54	(438)	6.33 ^b	4.72	(438)
301~400만원	1.23 ^{ab}	1.40	(432)	4.94	4.58	(432)	1.71	1.63	(432)	6.34 ^{ab}	4.72	(432)
401~500만원	0.91 ^{bc}	1.29	(356)	4.45	4.28	(356)	1.69	1.59	(356)	5.61 ^a	4.43	(356)
501만원 이상	0.80 ^c	1.18	(379)	4.08	4.17	(379)	1.52	1.65	(379)	5.25 ^a	4.15	(379)
<i>F</i>		8.64***			3.76*			1.16			4.99*	

* $p < .05$, ** $p < .01$, *** $p < .001$.

아동의 문제행동을 DSM방식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주의력 결핍/과잉행동 문제(ADHD)와 반항행동문제 수준 모두 여아보다 남아가 더 높게 조사되었다. 불안문제를 제외한 정서문제, 전반적 발달문제, ADHD, 반항행동 문제 모두 둘째 이상인 경우가 첫째이거나 외동인 경우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 불안 수준은 둘째 이상, 첫째, 외동인 순으로 유의하게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아동의 어머니가 취/학업 상태인 경우 정서, 불안, 전반적 발달 문제 및 반항행동 문제 수준 모두 유의미하게 낮았으며, 소득에 따른 문제행동의 차이도 존재하였다.

〈표 III-3-62〉 아동의 문제행동: DSM방식 척도

단위: 점(명)

구분	정서문제		불안문제		전반적 발달문제		ADHD		반항행동문제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수)
전체	1.63	1.73	2.79	2.52	2.34	2.50	2.28	2.09	1.39	1.60	(165)
아동 성별											
남	1.71	1.77	2.77	2.50	2.40	2.52	2.50	2.17	1.54	1.67	(824)
여	1.56	1.69	2.81	2.53	2.28	2.47	2.05	1.96	1.22	1.52	(781)
<i>t</i>		1.06		-0.44		0.70		4.16**		3.71**	
아동 출생순위											
외동	1.87 ^a	2.04	3.60 ^a	2.98	2.72 ^a	3.16	2.58 ^a	2.28	1.50 ^a	1.81	(181)
첫째	1.91 ^a	1.90	3.19 ^b	2.73	2.69 ^a	2.62	2.58 ^a	2.11	1.55 ^a	1.63	(537)
둘째 이상	1.39 ^b	1.50	2.33 ^c	2.13	2.01 ^b	2.20	2.00 ^b	1.99	1.25 ^b	1.52	(855)
<i>F</i>		19.17***		36.35***		17.77***		17.23***		10.69***	

(표 III-3-62 계속)

구분	정서문제		불안문제		전반적 발달문제		ADHD		반항행동문제		(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모취/학업 여부											
취/학업	1.45	1.61	2.45	2.37	2.08	2.29	2.18	2.07	1.24	1.50	(729)
미취/학업	1.79	1.82	3.06	2.61	2.55	2.64	2.36	2.11	1.51	1.68	(845)
<i>t</i>	-3.18**		-4.30***		-3.06**		-1.49		-3.23**		
가구 소득											
30만원 이하	1.71	1.68	2.94 ^a	2.64	2.52 ^a	2.48	2.37 ^a	2.17	1.62 ^a	1.73	(438)
301~400만원	1.70	1.79	2.90 ^{ab}	2.55	2.60 ^a	2.66	2.53 ^{ab}	2.14	1.45 ^{ab}	1.62	(432)
401~500만원	1.67	1.83	2.90 ^{ab}	2.49	2.23 ^{ab}	2.49	2.14 ^{ab}	2.00	1.28 ^b	1.49	(356)
501만원 이상	1.44	1.63	2.39 ^b	2.29	1.95 ^b	2.27	2.02 ^b	1.95	1.15 ^b	1.49	(379)
<i>F</i>	2.67		3.42		6.85***		4.03**		7.84***		

* $p < .05$, ** $p < .01$, *** $p < .001$.

6) 보육/교육 기관 생활

교사를 대상으로 아동이 기관에서 선호하는 놀이 영역을 1순위와 2순위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언어, 미술, 쌓기 등의 다양한 놀이 영역 중 아동이 선호하는 놀이 영역 1순위로 가장 많은 응답 비율을 보인 영역은 37.7%로 쌓기 영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미술 영역이 전체 29.6%, 역할 영역이 13.6%로 높게 나타났다. 남아와 여아의 1순위 응답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남아는 1순위로 쌓기 영역(66.5%)을 가장 선호하고, 여아는 1순위로 미술 영역(51.4%)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동이 선호하는 놀이 영역 2순위로 가장 많은 응답 비율을 보인 영역은 미술(22.0%)과 역할 영역(22.0%)이었다. 남아와 여아의 2순위 응답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남아는 2순위로 조작 영역(27.4%)을 가장 선호하고, 여아는 역할 영역(33.7%)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3-63〉 아동이 기관에서 선호하는 놀이 영역

단위: %(명)

구분	언어	미술	쌓기	수 /과학	조작	역할	음률	컴퓨터	기타	해당 없음	계(수)
전체	6.7	29.6	37.7	4.0	5.7	13.6	1.1	0.1	0.7	1.0	100.0(1,203)
1순위 아동 성별											
남아	3.7	9.8	66.5	5.6	8.3	3.2	0.4	0.1	1.1	1.3	100.0(631)
여아	10.1	51.4	5.8	2.3	2.9	25.0	1.9	0.0	0.2	0.5	100.0(584)

(표 III-3-63 계속)

구분	언어	미술	쌓기	수 /과학	조각	역할	음률	컴퓨터	기타	해당 없음	계(수)
전체	9.0	22.0	13.5	11.5	17.6	22.0	4.0	0.3	0.1	-	100.0(1,192)
2순위 아동 성별											
남아	5.6	18.9	16.1	18.9	27.4	11.4	1.1	0.5	0.1	-	100.0(631)
여아	12.7	25.5	10.7	3.4	6.9	33.7	7.1	0.0	0.1	-	100.0(584)

어머니와 교사를 대상으로 아동이 기관을 선호하는 정도에 대해 질문하였다. 어머니의 과반수이상인 56.7%가 아동이 기관을 대체로 좋아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아주 좋아한다는 응답도 31.4%로 나타나 대체로 어머니는 아동이 기관을 좋아한다고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머니가 지각한 아동의 기관 선호도는 여아가 평균 4.23점으로 남아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교사 또한 대부분의 아동이 기관을 선호한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55.9%가 아동이 기관을 대체로 좋아하고, 34.5%가 기관을 아주 좋아한다고 지각하였다.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교사 또한 여아가 남아보다 기관을 선호하는 정도가 더 높다고 지각하였다.

〈표 III-3-64〉 어머니/교사가 인식한 아동의 기관 선호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좋아하지 않음	별로 좋아하지 않음	보통임	대체로 좋아함	아주 좋아함	계(수)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0.1	1.3	10.5	56.7	31.4	100.0(1,563)	4.18(0.67)	
어머니 아동 성별								
남	0.0	1.2	11.7	59.7	27.4	100.0(802)	4.13(0.65)	-3.15**
여	0.3	1.3	9.2	53.6	35.6	100.0(761)	4.23(0.69)	
전체	0.0	0.6	8.9	55.9	34.5	100.0(1,203)	4.24(0.64)	
교사 아동 성별								
남	0.1	0.7	10.4	56.8	32.0	100.0(622)	4.20(0.65)	-2.33*
여	0.0	0.5	7.2	54.9	37.3	100.0(581)	4.29(0.62)	

* $p < .05$, ** $p < .01$.

아동의 기관 선호도와 더불어, 교사를 선호하는 정도를 교사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질문하였다. 어머니의 경우 전체 응답의 56.9%가 아동이 교사를 ‘대체로 좋아한다’로 응답되었으며, ‘아주 좋아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9.9%로 조사되었다. 대부분의 어머니가 아동이 교사를 좋아한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아가 교사를 선호하는 정도는 평균 4.31점으로 남아보다 더 높았다. 교사 또한 여아의 교사 선호 정도가 평균 4.24점으로 남아보다 높다고 지각했다.

〈표 III-3-65〉 어머니/교사가 인식한 아동의 교사 선호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좋아하지 않음	별로 좋아하지 않음	보통임	대체로 좋아함	아주 좋아함	계(수)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0.1	1.1	11.9	56.9	29.9	100.0(1,563)	4.15(0.67)	
어머니								
아동 성별								
남	0.0	1.4	14.0	60.9	23.8	100.0(802)	4.03(0.64)	-4.78***
여	0.3	0.9	9.8	52.6	36.4	100.0(761)	4.31(0.63)	
교사								
아동 성별								
남	-	0.8	16.9	61.2	21.1	100.0(622)	4.07(0.65)	-7.08***
여	-	0.4	8.2	51.5	39.9	100.0(581)	4.24(0.68)	

*** $p < .001$.

바. 소결

7차 조사에 참여한 아동(평균 월령 75.10개월)은 총 1,620명으로 남아 832명, 여아 788명이었다. 아동의 특성을 일상생활, 신체 및 건강특성, 인지 및 언어발달, 사회/정서 발달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동의 일상생활 중, 식습관을 알아본 결과 주양육자와 교사 모두 아동의 식사 속도가 보통이고 골고루 먹는 편이라는 응답이 높았으며, 대부분의 아동이 어머니의 도움 없이 혼자서 식사를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식습관과 관련하여, 가정에서 아침을 매일 먹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일주일에 아동이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외식 포함) 횟수는 주 8회 이상이 가장 많았다. 아동의 미디어 이용과 관련하여, 컴퓨터(인터넷), 개인 게임기, 휴대폰(스마트폰 포함) 및 TV로 나누어 주간 미디어 이용 정도를 분석한 결과, 개인 게임기는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 TV 시청은 '매우 자주 이용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패널 아동의 취침 시각은 평균 21시 51분, 기상 시각은 7시 39분으로 총 수면 시간이 평균 9.76시간이었다. 과반수이상의 아동이 깨지 않고 숙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가정에서 낮잠을 자는 비율은 매우 낮았다. 평일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누어 일과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인 보육·교육 이용 시간은 7.11시간, 사

교육 이용 시간은 평균 0.85시간이었으며 실내 놀이시간은 1.87시간 실외 놀이 시간은 1.10시간이었다. 시청각 프로그램 및 인터넷 등을 이용한 '교육 시간'과 TV 시청이나 인터넷, 전자기기를 사용한 '놀이시간'은 각각 0.20시간, 1.23시간이었으며, 식사, 간식 먹기 등의 기본생활 시간은 1.36시간이었다.

신체 특성을 보면 평균 체중은 22.16kg, 신장은 평균 117.15cm, 허리둘레는 평균 54.47cm로 조사되었다. 아동의 우세손은 대체로 오른손이었으며, 조사 시점에 안경을 착용하는 아동은 전체 1,620명 아동 중 4.4%이었다. 질환과 병력과 관련하여, 지난 1년간 11.7%가 사고나 중독으로 인한 치료를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1,620중 102명이 하나 이상의 질환을 진단받았다고 응답했는데 그 중 아토피피부염과 만성 부비동염의 진단 비율이 가장 높았다.

아동의 인지, 언어발달은 학업능력, 학습준비도, 표현 어휘력 검사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학업능력은 언어 및 문해능력과 수리적 사고로 구분되는데, 어머니와 교사가 인식한 아동의 학업능력은 3점 이상의 보통 수준이었으며, 교사가 어머니보다 더 높게 인식했다. 학습준비도는 사회정서발달, 학습에 대한 태도, 의사소통, 인지발달 및 일반적 지식으로 구분하여 측정했는데, 어머니와 교사 모두의 경우에서 인지발달과 일반적 지식 측면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표현 어휘력 검사의 경우 전체 아동의 78.2%가 정상 발달에 해당하였으며, 조음 정확도는 정상 발달군에 속하는 아동이 91.5%에 달하고, 읽기 유창성의 경우 일반 수준에 속하는 아동이 전체의 58.7%로 나타났다.

사회/정서 발달 중, 평균적으로 자아 유능감은 중간 수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으나 하위요인(인지적 능력, 또래 수용, 신체적 능력, 어머니의 수용) 중 또래 수용이 가장 낮은 점수였다. 또한 아동이 스스로 지각하는 행복감은 4점 만점 중 3.57점으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또래 상호작용 특성에서 놀이 상호작용 정도는 4점 만점 중 평균 3.08점으로 비교적 높았으며 놀이 방해는 평균 1.94점, 놀이 단절은 1.64점으로 놀이 방해 정도보다 단절의 정도가 더 낮았다. 문제행동 총점의 평균은 20.07점, 내재화 문제는 6.80점, 외현화 문제는 5.70점으로 외현화 문제행동보다 내재화 문제행동 수준이 다소 높았다.

마지막으로 아동이 선호하는 놀이 영역의 1순위로 가장 많은 응답 비율을 보인 영역은 쌓기 영역이었으며, 이어서 미술 영역, 역할 영역이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와 교사 모두 아동이 기관을 대체로 좋아한다고 인식했으며, 어머니와 교사가 인식한 교사의 선호 정도도 높은 편이었다.

4. 부모 특성

가. 인구학적 특성 및 건강 특성

1) 인구학적 특성

아동이 만 6세가 되는 해에 진행된 본조사에서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5.84세,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39.30세였다. 부모 모두 30대에 가장 많이 분포해 있었으며, 40대도 어머니 22.1%, 아버지 46.4%로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최종 학력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각각 38.5%, 42.4%로 대졸자가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의 경우 고졸 28.0%, 전문대졸 26.9%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아버지의 경우도 고졸이 26.9%, 전문대졸이 17.8%로 나타났다.

〈표 III-4-1〉 부모의 연령 및 학력

단위: %(명), 세					
연령	어머니	아버지	학력	어머니	아버지
20대	1.6	0.4	무학	0.0	-
30대	76.1	52.6	중졸 이하	0.6	0.6
40대	22.1	46.4	고졸	28.0	26.9
50대 이상	0.1	0.7	전문대졸	26.9	17.8
계(수)	100.0(1,607)	100.0(1,587)	대졸	38.5	42.4
평균	35.84	39.30	대학원졸	6.0	12.4
표준편차	3.60	3.90	계(수)	100.0(1,608)	100.0(1,595)

부모의 결혼 상태는 유배우 초혼이 어머니 97.8%, 아버지 98.4%로 대다수였으며, 평균 결혼 기간은 118.12개월로 약 9.8년 정도였다.

〈표 III-4-2〉 부모의 결혼 상태 및 기간

									단위: %, 개월(명)	
구분	결혼 상태								결혼 기간	
	미혼	유배우 -초혼	유배우 -재혼	동거 (사실혼)	사별	이혼	별거	계(수)	평균	표준편차
어머니	0.2	97.8	1.0	0.1	0.2	0.7	0.1	100.0(1,608)	118.12	36.72
아버지	-	98.4	1.1	0.1	0.1	0.3	0.0	100.0(1,595)		

어머니의 0.4%, 아버지의 3.4%가 아동과 함께 살지 않으며 대부분 근무 또는

학업 상의 이유로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이며 그 외에도 아동이 친가에 거주하거나 잦은 출장으로 주 3회 이상 아동과 동거가 어렵다는 사례도 응답되었다.

〈표 III-4-3〉 아동과의 동거 여부 및 이유

단위: %(명)

구분	동거 여부			비동거 이유		
	동거	비동거	계(수)	타 지역 근무(학업)	기타	계(수)
어머니	99.6	0.4	100.0(1,608)	85.7	14.3	100.0(5)
아버지	96.6	3.4	100.0(1,595)	96.2	3.8	100.0(49)

주: 비동거 이유 중 기타 사유로는 아동의 친가 거주 및 출장으로 인한 비동거가 보고됨.

2) 건강 특성

부모의 1·2급 이상 중증도 장애 유무를 조사한 결과, 어머니의 0.1%, 아버지의 0.8%가 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4〉 부모의 1·2급 장애 유무

단위: %(명)

구분	있음	없음	계(수)
어머니	0.1	99.9	100.0(1,605)
아버지	0.8	99.2	100.0(1,585)

어머니의 경우 24.9%가 지난 1년간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응답되었으며, 음주를 하는 경우 월 1회 이하가 35.6%로 가장 많았고, 월 2~4회가 29.9%로 나타났다. 술을 마시는 경우 주량은 1~2잔 정도가 59.7%, 3~4잔 정도 마시는 경우가 25.1%였다. 과음을 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는 응답이 40.0%로 가장 많았으며, 과음을 할 경우도 월 1회 미만 정도가 31.9%였다.

아버지의 음주 실태는 어머니에 비해 더 자주, 많이 마시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음주 횟수의 경우 월 2~4회가 34.5%, 주 2~3회가 29.8%였으며, 주량에 있어서도 7~9잔이 25.0%, 5~6잔이 21.9%였고, 과음을 하는 경우도 월 1회 정도가 30.6%, 주 1회 정도가 30.1%로 빈번하게 나타났다.

〈표 III-4-5〉 부모의 음주 실태

단위: %(명)								
음주 횟수	어머니	아버지	음주량	어머니	아버지	과음 횟수	어머니	아버지
최근 1년간 안마심	24.9	7.8	1~2잔	59.7	15.8	전혀 없음	40.0	13.9
월1회 이하	35.6	17.9	3~4잔	25.1	19.7	월1회 미만	31.9	19.4
월2~4회	29.9	34.5	5~6잔	10.2	21.9	월1회 정도	16.0	30.6
주2~3회	8.1	29.8	7~9잔	3.0	25.0	주1회 정도	11.0	30.1
주4회 이상	1.5	10.0	10잔 이상	2.1	17.6	거의 매일	1.0	5.9
계(수)	100.0 (1,565)	100.0 (1,483)	계(수)	100.0 (1,184)	100.0 (1,365)	계(수)	100.0 (1,184)	100.0 (1,365)

어머니의 경우 1.3%만이 흡연자인 반면 아버지의 경우 과반수에 가까운 47.5%가 흡연자로 나타났다.

〈표 III-4-6〉 흡연

단위: %(명)			
구분	피움	피우지 않음	계(수)
어머니	1.3	98.7	100.0(1,565)
아버지	47.5	52.5	100.0(1,483)

나. 직업 특성

1) 부모의 취/학업 상태

부모의 직업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부모의 취/학업 상태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는 전체의 95.1%가 취/학업 중이었으며, 어머니의 경우 44.6%가 취/학업 중이었고, 55.4%가 미취/학업 중이었다. 어머니의 취/학업 상태는 패널 아동의 출생순위, 어머니의 최종학력, 가구 소득, 이용 육아지원기관 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7〉 부모의 취/학업 상태

단위: %(명)				
구분	취/학업	미취/학업	계(수)	$\chi^2(df)$
아버지	95.1	4.9	100.0(1,483)	-
어머니	44.6	55.4	100.0(1,587)	-

(표 III-4-7 계속)

구분	취/학업	미취/학업	계(수)	$\chi^2(df)$
아동 출생순위				
외동아	52.7	47.3	100.0(178)	7.12(2)*
첫째	38.8	61.2	100.0(534)	
둘째 이상	46.6	53.4	100.0(842)	
모 학력				
고졸이하	37.7	62.3	100.0(467)	17.03(2)***
전문대졸	46.0	54.0	100.0(431)	
대졸이상	48.2	51.8	100.0(689)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24.2	75.8	100.0(425)	174.61(3)***
301~400만원	38.0	62.0	100.0(427)	
401~500만원	50.5	49.5	100.0(355)	
501만원 이상	69.1	30.9	100.0(380)	
육아지원 기관 유형				
유치원	43.8	56.2	100.0(735)	9.78(2)**
어린이집	52.2	47.8	100.0(394)	
반일제 이상	34.4	65.6	100.0(55)	

주: 1) 아버지의 0.1%, 어머니의 0.8%는 '학업 중'으로, 아버지의 1.5%, 어머니의 3.0%는 '취업과 학업을 병행 중'으로 응답함.

2) 차이 분석은 어머니의 경우만 실시함.

* $p < .05$, ** $p < .01$, *** $p < .001$.

2) 부모의 직업 특성

부모의 직장 또는 직위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아버지는 16.3%, 어머니는 12.0%가 변동되었다. 어머니의 경우 직장이 바뀐 경우가 9.7%, 직위가 바뀐 경우가 2.3%였으며, 현재 취/학업 중인 경우 재직 중인 경우가 96.9%에 달했다.

〈표 III-4-8〉 부모의 재직 상태 및 직장 변동 여부

단위: %(명)

구분	재직 상태			직장/직위 변동 여부		
	재직	휴직	계(수)	변동 없음	직장이 바뀐	직위가 바뀐
아버지	-	-	-	83.7	16.3	
어머니	96.9	3.1	100.0(727)	88.0	9.7	2.3

주: 6차년도 조사 시 미취업이었거나,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경우는 제외함.

취업 중인 부모의 종사상 지위는 부모 모두 상용직이 가장 많다. 아버지는 상용직이 75.4%, 사업자가 19.0%(자영업 10.1%, 고용주 8.9%), 일용직 2.9%, 임

시직 2.1%, 무급가족 종사자 0.7%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 상용직이 66.8%, 사업자가 17.5%(자영업 12.6%, 고용주 4.9%), 임시직 11.6%, 무급가족 종사자 3.3%, 일용직 0.8%로 나타났다.

〈표 III-4-9〉 부모의 종사상 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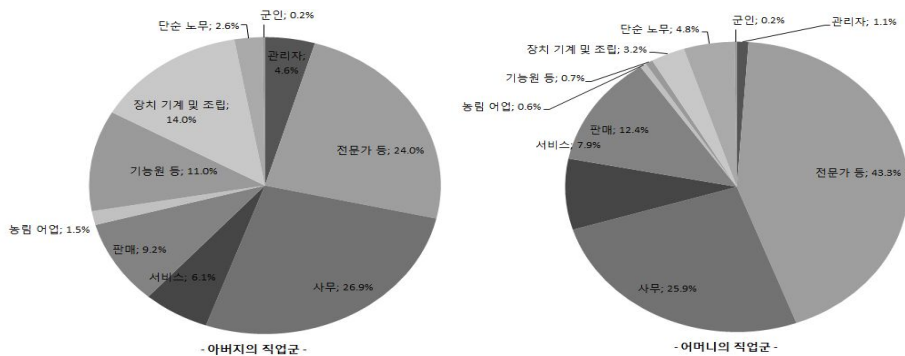
구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종업원을 둔 고용주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계(수)
아버지	75.4	2.1	2.9	8.9	10.1	0.7	100.0(1,242)
어머니	66.8	11.6	0.8	4.9	12.6	3.3	100.0(727)

직업군은 아버지의 경우 사무 종사자가 26.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24.0%, 장치 기계 및 조립 종사자 14.0%,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11.0%였다. 어머니의 경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43.3%, 사무 종사자 25.9%, 판매 종사자 12.4%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4-10〉 부모의 직업군

구분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군인	계(수)
아버지	4.6	24.0	26.9	6.1	9.2	1.5	11.0	14.0	2.6	0.2	100.0(1,290)
어머니	1.1	43.3	25.9	7.9	12.4	0.6	0.7	3.2	4.8	0.2	100.0(741)

취업 중인 부모의 직업군은 아버지의 경우 사무 종사자나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유사한 비율로 가장 많이 분포한 반면, 어머니의 경우 전문직 비율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분포하였다.



[그림 III-4-1] 부모의 직업군

어머니는 1주일에 평균 5.09일을 근무하였으며, 주당 총 근무 시간은 39.26시간이었고, 출퇴근에 주당 4.56시간을 소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주당 총 근무일, 근무 시간, 출퇴근 소요 시간은 어머니의 학력과 종사상 지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대졸 이상인 경우 고졸 이하이거나 전문대졸인 경우보다 더 적은 일수와 시간 일하고, 더 가까운 곳으로 출퇴근 하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종사상 지위에 따라서는 상용직이나 자영업 등의 경우 임시직이거나 일용직일 경우보다 더 많은 일수와 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1주일 총 근로 시간은 가구 소득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구 소득이 501만원 이상인 경우 300만원 이하일 경우보다 유의하게 더 장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응답됐다.

〈표 III-4-11〉 어머니 근무일 및 시간

단위: 일, 시간, 분(명)

구분	근무일			근로 시간			출퇴근 소요 시간			(수)
	평균	표준 편차	F	평균	표준 편차	F	평균	표준 편차	F	
주중 평균	4.82	0.63	-	7.68	1.90	-	0.79	0.57	-	(703)
주말 평균	1.25	0.43	-	7.05	2.93	-	0.72	0.58	-	(165)
1주일 전체	5.09	0.82	-	39.26	12.61	-	4.56	3.68	-	(705)
모 학력										
고졸이하	5.20 ^b	0.92	11.21***	41.37 ^b	13.72	7.46**	5.10 ^b	4.73	3.63*	(179)
전문대졸	5.19 ^b	0.69		39.99 ^b	11.85		4.06 ^{ab}	3.13		(192)
대졸이상	4.96 ^a	0.82		37.72 ^a	12.23		4.56 ^a	3.28		(334)
모 종사상 지위										
상용직	5.10 ^{ab}	0.58	19.55***	40.59 ^b	9.11	25.78***	4.88	3.79	3.69*	(465)
임시직	4.62 ^a	1.10		29.06 ^a	13.84		3.49	2.52		(88)
일용직	4.06 ^a	1.12		25.79 ^a	12.89		3.02	0.91		(6)
자영업 외	5.34 ^b	1.09		41.37 ^b	17.44		4.21	3.79		(146)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5.07	1.02	1.05	38.36 ^a	14.77	2.70*	4.32	4.10	2.32	(103)
301~400만원	5.11	0.79		38.25 ^{ab}	13.07		4.69	4.11		(165)
401~500만원	4.99	0.92		38.35 ^{ab}	13.36		4.05	3.06		(178)
501만원 이상	5.14	0.67		40.80 ^b	10.61		4.90	3.55		(259)
육아지원 기관 유형										
유치원	5.07	0.85	0.62	38.85	12.59	0.69	4.35	3.24	0.20	(314)
어린이집	5.11	0.88		39.64	13.42		4.47	3.90		(206)
반일제 이상	5.12	0.51		40.41	14.97		4.71	2.89		(22)

주: 근무일이 '0'일 경우는 제외함. 차이 분석은 '1주일 전체'로 진행

* $p < .05$, ** $p < .01$, *** $p < .001$.

취업모의 직무만족도는 평균 3.76으로 만족한다는 비율이 56.2%, 매우 만족이 11.9%로 나타났다. 직무만족도는 어머니의 학력, 종사상 지위, 가구 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일용직에 종사할수록 낮은 직무만족도를 보였다.

〈표 III-4-12〉 어머니의 직무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평균	표준 편차	F
전체	1.0	2.4	28.5	56.2	11.9	100.0(727)	3.76	0.73	-
모 학력									
고졸이하	0.9	3.8	38.8	49.7	6.8	100.0(182)	3.58 ^a	0.72	10.39 ^{***}
전문대졸	2.1	2.4	30.3	52.8	12.4	100.0(195)	3.71 ^{ab}	0.80	
대졸이상	0.5	1.7	22.3	61.3	14.3	100.0(350)	3.87 ^b	0.68	
모 종사상 지위									
상용직	1.0	1.6	27.9	58.3	11.3	100.0(483)	3.77 ^b	0.70	4.77 ^{**}
임시직	2.0	6.3	27.6	51.2	12.9	100.0(88)	3.68 ^b	0.85	
일용직	8.3	16.0	45.0	30.7	0.0	100.0(6)	2.98 ^a	0.90	
자영업 외	0.3	2.3	30.5	53.0	13.8	100.0(150)	3.78 ^b	0.72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1.5	3.4	40.6	39.8	14.7	100.0(106)	3.63 ^a	0.83	5.28 ^{**}
301~400만원	1.9	3.6	34.9	50.7	8.9	100.0(170)	3.61 ^{ab}	0.78	
401~500만원	0.5	0.6	26.8	61.4	10.7	100.0(186)	3.81 ^b	0.64	
501만원 이상	0.7	2.4	21.2	62.3	13.4	100.0(265)	3.85 ^b	0.70	

** $p < .01$, *** $p < .001$.

다. 개인 특성 및 부부 특성

1) 개인 특성

부모의 우울 수준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우울 점수를 보였으나 어머니의 우울 수준이 아버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우울은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보다 전문대졸 이상인 경우에 유의미하게 낮았다. 부모의 우울은 가구 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어머니의 우울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13〉 부모의 우울

단위: %(명), 점

구분	어머니						아버지					
	정상	경도/ 중등도	중도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정상	경도/ 중등도	중도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72.5	20.4	7.1	100.0 (1,565)	1.93	0.74	76.9	16.5	6.6	100.0 (1,483)	1.89	0.74
모취/학업 여부												
취/학업	74.4	18.5	7.1	100.0 (708)	1.89	0.74	76.6	17.2	6.2	100.0 (654)	1.87	0.76
미취/학업	71.2	21.6	7.2	100.0 (833)	1.95	0.75	77.4	15.8	6.8	100.0 (801)	1.90	0.74
$\chi^2(df)/t$	0.93(2)				-1.26		0.83(2)				-0.55	
부모 학력												
고졸이하	66.8	24.1	9.1	100.0 (461)	2.03 ^b	0.78	75.3	18.1	6.6	100.0 (432)	1.91	0.76
전문대졸	75.6	18.5	5.9	100.0 (429)	1.85 ^a	0.73	73.8	18.7	7.5	100.0 (302)	1.92	0.75
대졸이상	74.2	19.2	6.6	100.0 (669)	1.90 ^a	0.72	78.6	15.1	6.3	100.0 (773)	1.87	0.74
$\chi^2(df)/F$	11.49(4) [*]				8.47 ^{***}		1.95(4)				0.44	
가구 소득												
30만원 이하	69.2	20.1	10.7	100.0 (430)	2.02 ^c	0.83	74.8	17.3	7.9	100.0 (410)	1.91	0.77
301~400만원	68.5	22.7	8.9	100.0 (421)	1.98 ^{bc}	0.73	73.7	19.9	6.5	100.0 (401)	1.92	0.75
401~500만원	74.6	20.6	4.8	100.0 (348)	1.86 ^{ab}	0.69	80.3	13.9	5.8	100.0 (333)	1.88	0.71
501만원 이상	79.0	18.0	3.1	100.0 (366)	1.82 ^a	0.66	80.1	14.0	5.9	100.0 (339)	1.83	0.74
$\chi^2(df)/F$	33.15(6) ^{***}				4.65 ^{**}		12.83(6) [*]				1.66	

* $p < .05$, ** $p < .01$, *** $p < .001$.

부모의 자아존중감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은 각각 평균 3.01점, 3.05점으로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 취/학업 여부와 가구 소득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자아존중감을 보였다.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은 가구 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4-14〉 부모의 자아존중감

단위: 점(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t/F	평균	표준편차	(수)	t/F
전체	3.01	0.29	(1,565)	-	3.05	0.27	(1,483)	-
모 취/학업 여부								
취/학업	3.04	0.30	(708)	4.05***	3.05	0.27	(654)	-0.21
미취/학업	2.99	0.28	(833)		3.05	0.27	(801)	
부모 학력								
고졸이하	3.02	0.28	(461)	1.85	3.03	0.27	(401)	0.95
전문대졸	2.98	0.31	(429)		3.05	0.28	(302)	
대졸이상	3.02	0.28	(669)		3.06	0.27	(773)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2.97 ^a	0.32	(430)	4.65**	3.04	0.31	(410)	0.67
301~400만원	3.02 ^{ab}	0.28	(421)		3.05	0.26	(401)	
401~500만원	3.02 ^{ab}	0.29	(348)		3.06	0.27	(333)	
501만원 이상	3.04 ^b	0.26	(366)		3.06	0.23	(339)	

** $p < .01$, *** $p < .001$.

부모의 행복감은 7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데, 부모 모두 5점을 상회하여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응답하였다. 행복감은 어머니의 취/학업 여부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부모의 학력, 가구 소득에 따라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행복감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어머니의 학력이 전문대졸 이상일 때 어머니 행복감이 높았으며, 아버지가 전문대졸 이상인 경우가 고졸 이하인 아버지보다 행복감이 높았다. 가구 소득에 따라서는 401만원 이상의 소득 수준인 경우에 더 높은 행복감을 나타냈다.

〈표 III-4-15〉 부모의 행복감

단위: 점(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t/F	평균	표준편차	(수)	t/F
전체	5.20	1.09	(1,565)	-	5.30	1.03	(1,483)	-
모 취/학업 여부								
취/학업	5.22	1.08	(708)	0.79	5.29	1.04	(654)	-1.06
미취/학업	5.18	1.11	(833)		5.32	1.00	(801)	
부모 학력								
고졸이하	4.96 ^a	1.16	(461)	20.71***	5.11 ^a	1.08	(401)	10.06***
전문대졸	5.29 ^b	1.06	(429)		5.29 ^{ab}	1.05	(302)	
대졸이상	5.29 ^b	1.04	(669)		5.39 ^b	0.98	(773)	

(표 III-4-15 계속)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t/F	평균	표준편차	(수)	t/F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5.00 ^a	1.15	(430)	17.87***	5.14 ^a	1.11	(410)	7.07***
301~400만원	5.10 ^a	1.07	(421)		5.29 ^{ab}	1.02	(401)	
401~500만원	5.34 ^b	1.00	(348)		5.35 ^b	0.90	(333)	
501만원 이상	5.41 ^b	1.07	(366)		5.45 ^b	1.01	(339)	

*** $p < .001$.

본인과 배우자가 받는 스트레스 정도를 4점 척도로 질문한 부모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부모 모두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어머니의 경우 본인보다 배우자가 더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했다. 어머니의 경우 미취/학업모가 취/학업모에 비해 배우자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인식하였고, 어머니가 전문대졸일 때 고졸 이하거나 대졸 이상인 경우보다 스트레스가 낮았다.

〈표 III-4-16〉 부모의 일상적 스트레스

구분	어머니						아버지					
	본인			배우자			본인			배우자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3.00	0.62	(1,565)	3.14	0.69	(1,561)	3.06	0.65	(1,483)	3.09	0.64	(1,479)
모 취/학업 여부												
취/학업	2.98	0.64	(708)	3.10	0.71	(705)	3.02	0.65	(654)	3.07	0.64	(654)
미취/학업	3.01	0.61	(833)	3.19	0.67	(832)	3.09	0.64	(801)	3.10	0.64	(801)
t	0.06			-2.49 [*]			-1.51			-0.69		
부모 학력												
고졸이하	3.08 ^b	0.64	(461)	3.17	0.67	(461)	3.07	0.67	(401)	3.10	0.60	(400)
전문대졸	2.92 ^a	0.63	(429)	3.09	0.71	(426)	3.02	0.64	(302)	3.03	0.65	(300)
대졸이상	3.00 ^{ab}	0.61	(669)	3.17	0.68	(668)	3.07	0.63	(773)	3.10	0.65	(773)
F	7.58**			1.96			0.92			0.35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3.02	0.62	(430)	3.12	0.71	(426)	3.06	0.66	(410)	3.06	0.67	(407)
301~400만원	3.05	0.61	(421)	3.22	0.66	(421)	3.07	0.68	(401)	3.09	0.61	(401)
401~500만원	2.95	0.61	(348)	3.12	0.69	(348)	3.05	0.61	(333)	3.13	0.60	(332)
501만원 이상	2.96	0.64	(366)	3.11	0.68	(366)	3.04	0.62	(339)	3.06	0.66	(339)
F	2.13			2.09			0.50			0.15		

* $p < .05$, ** $p < .01$.

여성의 취업과 자녀양육에 관한 부모의 성역할 가치관에 대해 어머니의 61.9%, 아버지의 55.1%가 자녀가 어릴 때는 어머니가 집에 있으면서 아이를 돌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강한 동의를 보였으며,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인식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취/학업 여부 및 가구 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어머니가 취/학업 중인 경우보다 미취/학업 중인 경우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매우 그렇다’에 동의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가구 소득에 따라서는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501만원 이상 집단에서 자녀가 어릴 때 어머니가 집에 있어야 한다는 가치관에 강한 동의를 보인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III-4-17〉 성역할 가치관 1

: 자녀가 어릴 때는 어머니가 집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위: %(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전체	0.5	6.0	31.7	61.9	100.0(1,565)	0.7	7.6	36.6	55.1	100.0(1,483)
모 취/학업 여부										
취/학업	0.8	11.3	36.3	51.6	100.0(708)	1.2	12.1	46.2	40.4	100.0(654)
미취/학업	0.2	1.9	28.1	69.7	100.0(833)	0.3	4.2	28.9	66.7	100.0(801)
$\chi^2(df)$	57.63(1)***					40.49(1)***				
부모 학력										
고졸이하	0.5	6.2	32.1	61.2	100.0(461)	1.4	7.9	37.6	53.1	100.0(401)
전문대졸	0.5	6.0	33.3	60.2	100.0(429)	-	9.0	40.1	50.9	100.0(302)
대졸이상	0.5	5.8	30.5	63.2	100.0(669)	0.5	7.1	34.6	57.7	100.0(773)
$\chi^2(df)$	0.02(2)					0.07(2)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0.8	3.6	28.9	66.7	100.0(430)	0.7	9.7	33.3	56.3	100.0(410)
301~400만원	0.2	5.2	32.1	62.5	100.0(421)	0.5	3.8	37.6	58.2	100.0(401)
401~500만원	0.2	5.6	28.5	65.7	100.0(348)	1.2	3.6	34.3	60.8	100.0(333)
501만원 이상	0.7	9.9	37.4	52.0	100.0(366)	0.3	13.9	41.5	44.3	100.0(339)
$\chi^2(df)$	13.73(3)**					20.12(3)***				

주: 사례수 특성상 통계분석이 불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를 통합하여 ‘그렇지 않다’로, ‘조금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통합하여 ‘그렇다’로 재분류하여 χ^2 값을 산출함.

** $p < .01$, *** $p < .001$.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여성 본연의 모습은 가정에서 자녀양육을 하는 것이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23.3%, 아버지의 29.1%만이 강한 동의를 표했다. 자녀 양육이 여성 본연의 모습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취/학업 여부, 부모의 최종학력, 가구 소득에 따라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어머니가 미취/학업일 경우,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여성 본연의 모습이 양육이라는 질문에 강한 동의를 보이는 경우가 강했으며, 아버지의 경우 소득이 낮을수록 매우 그렇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다. 어머니의 경우 가구소득이 401~500만원인 경우에 강한 동의를 표하는 비율이 가장 많았다.

〈표 III-4-18〉 성역할 가치관 2

: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여성 본연의 모습은 가정에서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다.

단위: %(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전체	4.6	25.9	46.2	23.3	100.0(1,565)	1.9	21.3	47.7	29.1	100.0(1,483)
모 취/학업 여부										
취/학업	6.3	29.7	44.2	19.8	100.0(708)	2.9	27.8	49.2	20.1	100.0(654)
미취/학업	3.4	23.2	47.5	25.8	100.0(833)	1.1	15.8	46.8	36.2	100.0(801)
$\chi^2(df)$	33.77(3) ^{***}					62.64(3) ^{***}				
부모 학력										
고졸이하	5.0	23.0	45.2	26.8	100.0(461)	1.1	16.8	48.9	33.2	100.0(401)
전문대졸	2.8	24.1	49.5	23.5	100.0(429)	0.8	22.4	47.5	29.3	100.0(302)
대졸이상	5.6	28.7	44.9	20.8	100.0(669)	2.6	23.1	47.2	27.1	100.0(773)
$\chi^2(df)$	16.82(6) [*]					19.42(6) ^{**}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3.3	23.3	48.7	24.8	100.0(430)	1.7	20.4	44.4	33.5	100.0(410)
301~400만원	3.5	27.7	46.9	21.9	100.0(421)	0.8	19.0	50.5	29.8	100.0(401)
401~500만원	3.3	21.6	45.6	29.5	100.0(348)	1.2	18.7	50.8	29.3	100.0(333)
501만원 이상	8.8	30.8	43.2	17.3	100.0(366)	4.3	27.7	45.5	22.6	100.0(339)
$\chi^2(df)$	34.85(9) ^{***}					37.91(9) ^{***}				

* $p < .05$, ** $p < .01$, *** $p < .001$.

취업 어머니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서 취업모와 전업모의 차이가 없다는 것에 강한 긍정을 표한 경우는 어머니의 36.8%, 아버지의 22.8%로 어머니가 더 강한 동의를 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학업 여부에 따라서는 부모 모두 취/학업모가 미취/학업모보다 높은 비율로 유의미하게 강한 긍

정을 표했다. 부모의 최종학력에 따라서는 어머니의 경우 전문대졸 이상에서 강한 긍정을 표현한 반면, 아버지가 전문대졸자인 경우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 소득에 따라서는 어머니 응답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가구소득이 501만원일 경우 강한 동의를 보이는 비율이 더 많게 나타났다.

〈표 III-4-19〉 성역할 가치관 3

: 취업을 한 어머니도 전업 주부 어머니만큼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

단위: %(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전체	1.7	15.5	45.9	36.8	100.0(1,565)	2.2	20.5	54.6	22.8	100.0(1,483)
모 취/학업 여부										
취/학업	2.1	12.4	40.6	44.9	100.0(708)	1.8	13.8	56.4	28.0	100.0(654)
미취/학업	1.5	18.2	50.6	29.8	100.0(833)	2.5	26.2	52.2	19.2	100.0(801)
$\chi^2(df)$	40.23(3) ^{***}					51.99(3) ^{***}				
부모 학력										
고졸이하	2.6	19.3	46.7	31.4	100.0(461)	2.7	18.7	55.7	23.0	100.0(401)
전문대졸	1.6	11.9	47.4	39.1	100.0(429)	1.8	26.0	55.8	16.3	100.0(302)
대졸이상	1.3	15.4	44.4	38.9	100.0(669)	2.0	19.6	53.6	24.8	100.0(773)
$\chi^2(df)$	15.01(6) [*]					13.55(6) [*]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2.3	16.5	45.7	35.5	100.0(430)	2.6	20.6	56.6	20.3	100.0(410)
301~400만원	1.4	18.0	49.4	31.1	100.0(421)	2.6	21.6	54.0	21.7	100.0(401)
401~500만원	0.9	16.8	44.8	37.5	100.0(348)	1.7	23.4	53.0	21.8	100.0(333)
501만원 이상	2.1	10.4	43.2	44.2	100.0(366)	1.5	15.9	54.4	28.2	100.0(339)
$\chi^2(df)$	18.76(9) [*]					13.96(9)				

* $p < .05$, *** $p < .001$.

아버지도 전업모만큼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냐는 질문에 대해 어머니의 경우 56.0%를 보인 반면 아버지는 32.1%만이 매우 그렇다에 응답하였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질문은 어머니의 취/학업 여부, 부모의 최종 학력, 가구 소득에 있어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II-4-20〉 모의 취업과 자녀양육 4

: 아버지도 전업 주부 어머니만큼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

단위: %(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전체	0.7	7.2	36.1	56.0	100.0(1,565)	0.6	12.1	55.1	32.1	100.0(1,483)
모 취/학업 여부										
취/학업	0.7	7.5	30.8	60.9	100.0(708)	0.8	9.7	54.1	35.5	100.0(654)
미취/학업	0.6	7.1	40.7	51.5	100.0(833)	0.6	13.8	55.6	30.0	100.0(801)
$\chi^2(df)$	0.73(1)					2.37(1)				
부모 학력										
고졸이하	0.6	9.0	40.0	50.4	100.0(461)	0.9	12.7	55.9	30.5	100.0(401)
전문대졸	0.9	6.1	35.7	57.2	100.0(429)	0.2	14.5	54.4	30.9	100.0(302)
대졸이상	0.5	6.8	33.8	58.8	100.0(669)	0.6	11.1	55.0	33.2	100.0(773)
$\chi^2(df)$	1.93(2)					1.72(2)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0.9	6.8	37.2	55.0	100.0(430)	0.9	14.1	54.5	30.5	100.0(410)
301~400만원	0.9	8.9	40.7	79.5	100.0(421)	1.0	12.1	57.6	29.3	100.0(401)
401~500만원	0.4	6.4	36.2	57.1	100.0(348)	0.3	11.2	54.7	33.8	100.0(333)
501만원 이상	0.3	6.6	29.5	63.6	100.0(366)	0.2	10.6	53.4	35.8	100.0(339)
$\chi^2(df)$	2.26(3)					1.49(3)				

주: 사례 수 특성상 통계분석이 불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를 통합하여 '그렇지 않다'로, '조금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통합하여 '그렇다'로 재분류하여 χ^2 값을 산출함.

다음으로 부부의 가사분담에 대한 인식은 '여성이 취업할 경우 남성과 여성이 가사와 양육에 대해 동등한 정도의 책임을 나누어져야 한다'에 관한 동의 정도를 응답한 것이다. 여기서 어머니의 74.9%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아버지의 경우 34.0%만이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가사분담에 대한 질문은 어머니의 경우 취업, 학력, 가구 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아버지의 최종학력에 따라서는 아버지의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아버지의 학력이 대졸이상일 경우 강한 동의를 표한 비율이 38.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고졸이하인 아버지에게서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III-4-21〉 성역할 가치관 5

: 여성이 취업할 경우 남성과 여성은 가사와 양육에 대해 동등한 정도의 책임을 나누어져야 한다.

단위: %(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전체	0.2	1.7	23.2	74.9	100.0(1,565)	0.8	11.7	53.5	34.0	100.0(1,483)
모 취/학업 여부										
취/학업	0.4	2.3	23.5	73.8	100.0(708)	1.1	11.9	54.5	32.5	100.0(654)
미취/학업	0.1	1.3	22.7	75.9	100.0(833)	0.7	11.5	52.4	35.4	100.0(801)
$\chi^2(df)$	1.01(1)					0.81(3)				
부모 학력										
고졸이하	-	1.9	23.9	74.2	100.0(461)	1.8	14.9	55.7	27.5	100.0(401)
전문대졸	0.5	2.3	23.4	73.8	100.0(429)	0.8	13.0	57.6	28.6	100.0(302)
대졸이상	0.2	1.2	22.6	75.9	100.0(669)	0.4	9.7	51.1	38.8	100.0(773)
$\chi^2(df)$	1.34(2)					25.58(6)**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0.7	1.7	22.0	75.7	100.0(430)	1.3	13.9	52.2	32.6	100.0(410)
301~400만원	-	2.2	24.9	72.9	100.0(421)	1.3	11.2	54.3	33.2	100.0(401)
401~500만원	-	0.9	24.3	74.8	100.0(348)	0.5	9.9	54.1	35.4	100.0(333)
501만원 이상	0.2	2.0	21.5	76.3	100.0(366)	-	11.2	53.5	35.3	100.0(339)
$\chi^2(df)$	2.19(3)					2.03(3)				

주: 사례수 특성상 통계분석이 불가능한 모취/학업 여부에 따른 어머니 응답, 어머니 학력, 가구 소득에 따른 부모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를 통합하여 '그렇지 않다'로, '조금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통합하여 '그렇다'로 재분류하여 χ^2 값을 산출함.

*** $p < .001$.

어머니의 취/학업 여부에 상관없이 부부가 가사와 양육에 동등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어머니의 경우 30.8%가 강한 동의를 표한 반면, 아버지의 경우 16.0%만이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어머니의 취/학업 여부와 가구 소득에 따라 어머니 응답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어머니의 경우 취/학업자의 경우에 미취/학업자인 경우보다 더 강한 동의를 보였으며, 가구 소득이 501만원 이상일 경우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III-4-22〉 모의 취업과 자녀양육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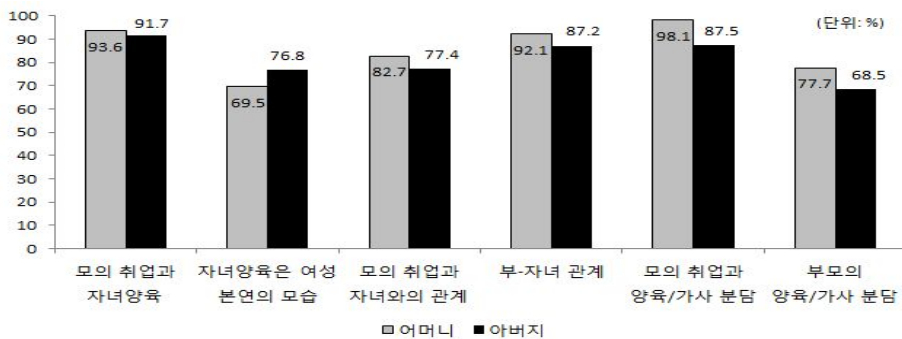
: 여성이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남성과 여성은 가사와 양육에 대해 동등한 정도의 책임을 나누어져야 한다.

단위: %(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전체	2.0	20.3	46.9	30.8	100.0(1,565)	5.1	26.5	52.5	16.0	100.0(1,483)
모 취/학업 여부										
취/학업	1.8	20.6	40.8	36.7	100.0(708)	4.9	23.7	54.6	16.8	100.0(654)
미취/학업	2.2	19.9	51.6	26.3	100.0(833)	5.2	28.6	50.6	15.6	100.0(801)
$\chi^2(df)$			18.42(3)	***				5.33(3)		
부모 학력										
고졸이하	2.1	17.6	48.3	32.0	100.0(461)	6.2	25.5	53.7	14.5	100.0(401)
전문대졸	1.2	19.6	49.9	29.3	100.0(429)	4.9	29.4	50.9	14.9	100.0(302)
대졸이상	2.4	22.2	44.4	31.1	100.0(669)	4.6	25.8	52.6	16.9	100.0(773)
$\chi^2(df)$			7.32(6)					3.70(6)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2.0	18.0	51.0	28.9	100.0(430)	5.5	25.4	52.2	16.9	100.0(410)
301~400만원	3.1	18.4	52.6	25.8	100.0(421)	5.8	25.8	54.3	14.1	100.0(401)
401~500만원	0.8	24.4	45.2	29.7	100.0(348)	5.0	30.5	47.2	17.4	100.0(333)
501만원 이상	1.7	21.3	37.1	39.9	100.0(366)	3.8	24.7	55.7	15.8	100.0(339)
$\chi^2(df)$			23.22(9)	**				5.53(9)		

** $p < .01$, *** $p < .001$.

부모의 성역할 가치관의 각 항목에 대하여 조금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본 결과 자녀양육이 여성 본연의 모습이라는 응답을 제외하고 유사하거나 아버지의 긍정 응답이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III-4-2〕 부모의 성역할 가치관

2) 부부 특성

4점 척도로 질문된 부모의 결혼만족도는 어머니 3.20점, 아버지 3.45점으로 부모 모두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의 만족도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학업 여부에 따라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미취/학업모의 결혼만족도가 취/학업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결혼만족도는 부모의 최종학력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학력이 높을수록 더 높은 결혼만족도를 보였다. 가구 소득은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300만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표 III-4-23〉 부모의 결혼만족도

단위: 점(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t/F	평균	표준편차	(수)	t/F
전체	3.20	0.66	(1,564)	-	3.45	0.56	(1,479)	-
모 취/학업 여부								
취/학업	3.14	0.72	(708)	-2.40*	3.41	0.58	(654)	-1.40
미취/학업	3.24	0.61	(833)		3.49	0.54	(801)	
부모 학력								
고졸이하	3.08 ^a	0.67	(461)	12.42***	3.35 ^a	0.61	(400)	10.15***
전문대졸	3.21 ^b	0.67	(429)		3.44 ^{ab}	0.54	(300)	
대졸이상	3.27 ^b	0.65	(669)		3.50 ^b	0.54	(773)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3.13 ^a	0.74	(429)	4.95**	3.42	0.59	(406)	3.84
301~400만원	3.19 ^{ab}	0.64	(421)		3.42	0.57	(401)	
401~500만원	3.24 ^b	0.62	(348)		3.47	0.53	(333)	
501만원 이상	3.25 ^b	0.64	(366)		3.50	0.53	(339)	

* $p < .05$, ** $p < .01$, *** $p < .001$.

부모의 부부갈등은 5점 척도로 조사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갈등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모두 평균 2.12점으로 비교적 낮은 갈등상태를 보였다. 부부갈등은 어머니의 취/학업상태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부모의 최종학력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어머니의 경우 고졸 이하 학력자가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자들에 비해 높은 부부갈등 정도를 보였으며, 아버지의 경우에는 고졸 이하 학력자가 대졸 이상 학력자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부부갈등을 보고했다. 어머니가 인식하고 있는

부부갈등은 가구의 소득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가구소득이 400만원 이하일 때 401만원 이상인 가구에 비해 부부갈등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4-24〉 부모의 부부갈등

단위: 점(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t/F	평균	표준편차	(수)	t/F
전체	2.12	0.84	(1,563)	-	2.12	0.76	(1,479)	-
모 취/학업 여부								
취/학업	2.14	0.88	(707)	1.23	2.14	0.78	(654)	0.82
미취/학업	2.10	0.81	(833)		2.10	0.74	(801)	
부모 학력								
고졸이하	2.26 ^b	0.86	(461)	12.70 ^{***}	2.18 ^b	0.77	(399)	5.66 ^{**}
전문대졸	2.07 ^a	0.80	(428)		2.17 ^{ab}	0.77	(301)	
대졸이상	2.06 ^a	0.84	(669)		2.07 ^a	0.75	(773)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2.16	0.89	(428)	4.23 ^{**}	2.10	0.80	(407)	1.56
301~400만원	2.17	0.82	(421)		2.17	0.76	(401)	
401~500만원	2.08	0.80	(348)		2.10	0.71	(332)	
501만원 이상	2.04	0.83	(366)		2.08	0.76	(339)	

** $p < .01$, *** $p < .001$.

라. 양육 특성

1) 후속출산

가) 후속출산 계획

후속출산 계획에 대해 어머니에게 조사한 결과, 대상 아동이 만 6세가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후속출산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86.8%로 응답되었다. 현재 임신 중인 경우는 1.8%, 후속출산을 하겠다는 응답이 3.8%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전체 응답 중 7.6%를 차지하였다. 어머니의 후속출산 계획은 현재 자녀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자녀가 한명일 경우 현재 임신 중이거나 후속 출산을 하겠다는 응답이 18.8%로 가장 많았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18.5%로 나타났다. 반면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95.1%가 후속출산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표 III-4-25〉 후속출산 계획 여부

단위: %(명)

구분	임신중	낳겠음	낳지 않겠음	잘모르겠음	계(수)	$\chi^2(df)$
전체	1.8	3.8	86.8	7.6	100.0(1,367)	-
모 취/학업 여부						
취/학업	0.9	4.0	87.6	7.5	100.0(708)	4.18(3)
미취/학업	2.5	3.4	86.2	7.8	100.0(832)	
자녀 수						
한명	4.3	14.5	62.7	18.5	100.0(172)	110.35(6)***
두명	1.7	2.3	88.2	7.9	100.0(1,020)	
세명 이상	0.8	2.6	95.1	1.5	100.0(369)	

*** $p < .001$.

후속출산 계획이 없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34.6%의 가장 많은 수가 이미 계획한 수만큼의 아이를 낳았기 때문으로 응답하였다. 이외에도 자녀 교육비용(22.3%), 출산 및 양육 등에 대한 육체적인 어려움(12.4%) 및 나이에 대한 고민(10.5%)이 상대적으로 많이 응답되었다.

후속출산을 계획하지 않는 이유는 어머니의 취/학업 여부 및 자녀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두 집단 모두 이미 계획한 수만큼의 아이를 낳았기 때문이라는 응답과 자녀의 교육비용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표 III-4-26〉 후속출산 비계획 이유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계(수)	$\chi^2(df)$
전체	6.7	22.3	8.6	3.4	34.6	10.5	12.4	0.6	0.9	100.0(1,478)	
모 취/학업 여부											
취/학업	6.0	20.1	16.8	3.8	31.2	10.1	10.3	0.7	0.1	100.0(674)	112.84(8)***
미취/학업	7.4	24.0	1.8	3.2	37.3	10.7	14.3	0.6	0.7	100.0(784)	
자녀 수											
한명	4.3	21.6	14.8	5.3	7.3	21.7	18.7	2.0	4.4	100.0(143)	200.28(16)***
두명	7.5	24.8	10.0	3.9	29.7	10.0	12.8	0.7	0.7	100.0(976)	
세명 이상	5.1	15.4	1.9	1.3	60.7	7.1	8.5	-	-	100.0(359)	

주: ① 자녀 양육비용 때문에(아이 관련 생필품, 육아 도우미 비용 등) ② 자녀 교육비용 때문에(유치원/어린이집/학교 등의 기관 이용비용, 그 외 학원 등의 사교육 비용 등) ③ 직장/학업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들어서 ④ 개인시간/여가 또는 자아성취를 위하여 ⑤ 이미 계획한 수만큼의 아이를 낳아서 ⑥ 나이가 많아서 ⑦ 육체적으로 힘들어서(출산 및 양육 등) ⑧ 믿을 만한 양육자 또는 육아지원기관이 없어서 ⑨ 기타

*** $p < .001$.

계속해서 <표 III-4-26>을 살펴보면, 3순위에서는 취/학업모의 경우 직장/학업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들어서 낳지 않겠다는 응답이 16.8%로 응답한 반면, 미취/학업모의 경우 육체적 어려움을 10.7%로 3번째로 많이 선택했다. 자녀수에 따라서는 세 명 이상 자녀 가구의 경우 과반수이상인 60.7%가 이미 계획된 수만큼의 아이를 낳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반면, 한명의 자녀를 둔 경우 나이(21.7%)와 교육비(21.6%)에 대한 이유가 후속출산을 계획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응답되었다. 자녀가 두 명인 가구의 경우 이미 계획된 자녀수를 이유로 선택한 경우가 29.7%로 가장 많았고, 자녀 교육비용에 대한 고민이 24.8%로 뒤를 이었다.

후속출산 계획이 있는 경우 계획된 자녀수가 몇 명인지에 대해서는 1명이 90.5%, 2명 4.3%, 3명 2.3%, 4명 이상이 2.9%로 나타났다. 후속출산 계획 시기는 1년 이내 또는 현재 임신 중인 응답자가 44.0%, 1~2년 이내가 24.3%였으며, 계획 시기가 미정인 경우도 25.6%로 응답되었다.

〈표 III-4-27〉 후속출산 계획 자녀 수

단위: %(명)

후속출산 계획 자녀 수					후속출산 계획 시기					
1명	2명	3명	4명 이상	계(수)	1년 이내 또는 현재임신중	1~2년 이내	2~3년 이내	3년 이후	미정	계(수)
90.5	4.3	2.3	2.9	100.0(83)	44.0	24.3	5.6	0.6	25.6	100.0(83)

나) 이상 자녀수와 기대 성별

이상적인 자녀수는 2명이 58.2%로 가장 많았으며, 3명이 28.9%, 4명이 5.2%로 다음 순으로 높게 응답되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생각 간에는 순위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대체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이상 자녀수에 대한 부모의 생각은 현 자녀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현 자녀수가 세 명 이상으로 많을 때 3명이나 4명을 이상 자녀수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수가 1~2명인 어머니들은 60% 이상이 이상적인 자녀수로 2명을 꼽았다.

〈표 III-4-28〉 이상 자녀수

단위: %(명)									
구분	무자녀	1명	2명	3명	4명	5명이상	잘모름	계(수)	$\chi^2(df)$
아버지	0.2	4.7	58.2	28.9	5.2	0.7	2.1	100.0(1,483)	-
어머니	0.0	2.5	59.3	28.1	8.3	0.2	1.6	100.0(1,563)	-
모 취/학업 여부									
취/학업	0.1	2.1	59.4	28.5	8.5	0.3	1.1	100.0(708)	0.38(2)
미취/학업	-	2.7	59.5	27.4	8.2	0.2	2.0	100.0(833)	
자녀 수									
한명	0.4	8.8	69.7	15.0	4.5	-	1.6	100.0(172)	280.29(4)***
두명	-	1.3	63.8	26.7	6.7	-	1.6	100.0(1,022)	
세명 이상	-	2.9	40.9	38.7	14.9	1.1	1.5	100.0(369)	

주: 차이 분석은 어머니 응답에 대해서만 실시하였으며, 빈도수 특성상 '무자녀'와 '1명'은 '1명 이하'로, '3명'부터 '5명 이상'은 '3명 이상'으로 재코딩하여 χ^2 을 실시하였음.

*** $p < .001$.

이상적인 자녀 기대성별에 대해서는 딸, 아들 구분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어머니 64.0%, 아버지 59.0%로 부모 모두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패널 아동의 성별에 따라 아버지의 응답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대상 아동이 남아인 경우 딸, 아들 구분해서라는 아버지의 응답이 42.1%로 대상 아동이 여아인 부모에 비해 자녀성별 선호 의견이 더 많았다.

현 자녀수에 따라서도 부모 모두 유의미한 성별 선호 차이를 나타냈는데,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자녀수가 많을수록 특정성별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다. 아버지의 경우 최종 학력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경우 최종 학력이 대졸 이상일 경우 성별 선호에 대한 의견이 25.3%로 상대적으로 적게 응답되었다.

〈표 III-4-29〉 자녀 기대성별

단위: %(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성별 구분 없이	성별 구분해서	동성으로/잘 모름	계(수)	성별 구분 없이	성별 구분해서	동성으로/잘 모름	계(수)
전체	64.0	30.9	5.1	100.0(1,531)	59.0	36.7	4.3	100.0(1,449)
아동 성별								
남	62.7	32.0	5.3	100.0(789)	54.4	42.1	3.5	100.0(737)
여	65.4	29.8	4.8	100.0(742)	63.8	31.2	5.0	100.0(712)
$\chi^2(df)$	2.95(3)				12.89(3)**			

(Ⅲ-4-29 계속)

구분	어머니				아버지			
	성별 구분 없이	성별 구분해서	동성으로/ 잘 모름	계(수)	성별 구분 없이	성별 구분해서	동성으로/ 잘 모름	계(수)
자녀 수								
한명	70.7	24.3	5.0	100.0(167)	66.3	31.0	2.7	100.0(160)
두명	65.9	29.2	4.9	100.0(1,002)	59.9	35.4	4.7	100.0(941)
세명 이상	55.1	39.4	5.5	100.0(362)	53.0	43.4	3.6	100.0(348)
$\chi^2(df)$				23.01(6)**				19.29(6)**
부모 학력								
고졸이하	57.8	38.3	3.9	100.0(452)	61.0	35.1	3.9	100.0(392)
전문대졸	63.1	32.1	4.8	100.0(420)	54.1	41.6	4.3	100.0(295)
대졸이상	68.7	25.3	6.0	100.0(655)	59.8	35.9	4.3	100.0(756)
$\chi^2(df)$				22.95(6)**				1.18(6)

** $p < .01$.

이상적인 자녀 기대성별에서 성별 선호를 나타낸 경우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성별 구성은 1남 1녀가 어머니의 경우 35.2%, 아버지의 경우 51.1%로 가장 많았으며, 1남 2녀를 희망하는 경우가 어머니의 경우 34.1%, 아버지의 경우 21.4%로 뒤를 이었다. 어머니의 경우 2남 2녀를 희망하는 경우도 21.5%로 상당수 나타났다으며, 아버지의 경우 2남 1녀가 13.7%, 2남 2녀가 11.8%로 뒤를 이어 높게 나타났다.

〈표 Ⅲ-4-30〉 부모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구성

구분	1녀	4녀	1남	2남	1남 1녀	1남 2녀	1남 3녀	2남 1녀	2남 2녀	2남 3녀	2남 4녀	3남 2녀	계(수)
어머니	-	0.2	-	-	35.2	34.1	0.1	8.7	21.5	0.1	-	-	100.0(497)
아버지	0.1	-	0.1	1.1	51.1	21.4	-	13.7	11.8	0.4	0.1	0.1	100.0(534)

2) 양육 실제

5점 척도로 조사한 부모의 양육효능감 중 부모 역할에서의 유능감이나 부모-자녀 관계에서 부모로서의 문제 해결 기술과 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기대를 측정하는 ‘유능감’은 어머니 3.16점, 아버지 3.05점으로 부모 모두 보통을 약간 넘는 수준으로 응답하였다. 반면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부모역할에 대한 긴장과 불안을 나타내는 ‘불안감’은 어머니 2.65점, 아버지 2.52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응답하였다. 이 외에도 기타 부모의 관심사가 자녀양육이

아닌 다른 분야에 있음 등과 같은 기타 항목으로 질문된 내용에 있어서는 어머니 3.30점, 아버지 3.43점으로 응답되었다. 전반적으로 어머니가 아버지에 비해 자녀 양육의 유능감과 불안감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느끼고 있었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평균값의 차이 검정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아동의 성별에 따라서는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외동이나 첫째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학업 여부에 따라 어머니는 자녀 양육의 불안감과 기타를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학업모에 비해 미취/학업모의 불안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어머니의 최종학력에 따라서는 양육의 유능감과 불안감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대졸 이상 학력자에 비해 고졸 이하 학력자의 경우 부모로서의 유능감이 낮고 불안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경우도 유사하게 대졸 이상의 아버지가 더 높은 유능감을 보고하였다. 가구 소득에 따라서는 가구 소득이 501만원 이상으로 고소득일 경우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아버지의 자녀 양육에 대한 유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31〉 부모의 양육효능감

단위: 점(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유능감		불안감		기타		(수)	유능감		불안감		기타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수)
전체	3.16	0.31	2.65	0.70	3.30	0.45	(1,565)	3.05	0.34	2.52	0.67	3.43	0.45	(1,483)
아동 성별														
남	3.13	0.30	2.69	0.71	3.31	0.45	(803)	3.04	0.34	2.54	0.67	3.44	0.45	(757)
여	3.15	0.33	2.61	0.68	3.30	0.45	(762)	3.06	0.34	2.50	0.67	3.43	0.45	(726)
<i>t</i>	-0.33		1.83		-0.26			-0.60		1.27		-0.75		
아동 출생순위														
외동	3.15 ^a	0.32	2.63	0.68	3.31	0.43	(172)	3.06	0.35	2.45	0.72	3.46	0.46	(166)
첫째	3.12 ^{ab}	0.33	2.71	0.71	3.27	0.48	(530)	3.03	0.32	2.55	0.67	3.40	0.41	(507)
둘째 이상	3.18 ^b	0.30	2.62	0.69	3.33	0.43	(783)	3.06	0.35	2.52	0.66	3.46	0.47	(783)
<i>F</i>	5.59 ^{**}		3.78 [*]		0.61			1.60		1.03		2.23		
모 취/학업 여부														
취/학업	3.14	0.33	2.58	0.71	3.32	0.45	(708)	3.06	0.35	2.53	0.67	3.43	0.45	(654)
미취/학업	3.17	0.30	2.71	0.68	3.28	0.46	(833)	3.03	0.33	2.51	0.67	3.43	0.45	(801)
<i>t</i>	-1.36		-2.69 ^{**}		2.39 [*]			1.02		0.73		-0.42		

(표 III-4-31 계속)

구분	어머니						아버지					
	유능감		불안감		기타		유능감		불안감		기타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수)
부모 학력												
고졸이하	3.13 ^a	0.33	2.79 ^b	0.69	3.35	0.42 (461)	2.99 ^a	0.34	2.53	0.67	3.40	0.45 (401)
전문대졸	3.15 ^{ab}	0.32	2.62 ^a	0.71	3.29	0.48 (429)	3.03 ^a	0.33	2.55	0.60	3.43	0.43 (302)
대졸이상	3.18 ^b	0.30	2.58 ^a	0.68	3.29	0.45 (669)	3.09 ^b	0.33	2.51	0.69	3.45	0.45 (773)
F	5.29 ^{**}		12.40 ^{***}		2.93		10.98 ^{***}		2.02		1.40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3.14	0.35	2.69 ^b	0.72	3.32	0.49 (430)	3.02 ^a	0.33	2.56 ^b	0.66	3.42	0.44 (410)
301~400만원	3.16	0.29	2.70 ^b	0.71	3.30	0.46 (421)	3.03 ^{ab}	0.34	2.54 ^{ab}	0.67	3.41	0.44 (401)
401~500만원	3.17	0.26	2.62 ^{ab}	0.67	3.30	0.43 (348)	3.07 ^{bc}	0.34	2.53 ^{ab}	0.64	3.45	0.47 (333)
501만원 이상	3.16	0.34	2.57 ^a	0.68	3.29	0.42 (366)	3.08 ^c	0.35	2.46 ^a	0.71	3.46	0.46 (339)
F	1.56		4.81 ^{**}		0.13		3.73 [*]		3.23 [*]		0.86	

* $p < .05$, ** $p < .01$, *** $p < .001$.

부모의 양육행동은 온정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으로 분류하여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온정적 양육행동은 어머니 3.64점, 아버지 3.51점, 통제적 양육행동은 각각 3.46점, 3.30점으로 부모의 온정적, 통제적 양육행동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온정적, 통제적 양육행동 모두 대체로 어머니가 아버지에 비해 더 빈번했다.

양육행동 평균값의 차이 검정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대상 아동의 성별에 따라 아버지의 경우 자녀가 남아일 때 더 빈번한 통제적 양육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자녀가 외동일 경우 형제가 있는 경우보다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의 빈도가 늘었고,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적은 것으로 응답되었다. 어머니의 취/학업 여부에 따라서는 미취/학업모가 취/학업모에 비해 자녀에게 통제적 양육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 및 가구 소득에 따라서는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에서만 차이를 보였으며, 부모의 학력이 대졸 이상일 경우 더 많은 온정적 양육행동을 나타냈다. 가구 소득에 따라서는 어머니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가구에서 아버지의 경우 400만원 이하 가구에서 유의하게 낮은 온정적 양육행동을 보였다.

〈표 III-4-32〉 부모의 양육행동

단위: 점(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온정적		통제적		(수)	온정적		통제적		(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3.64	0.54	3.46	0.48	(1,565)	3.51	0.58	3.30	0.56	(1,483)
아동 성별										
남	3.65	0.54	3.49	0.47	(803)	3.50	0.57	3.34	0.57	(757)
여	3.63	0.54	3.43	0.49	(762)	3.52	0.60	3.27	0.53	(726)
<i>t</i>	-0.14		1.72			-0.72		2.36 ^c		
아동 출생순위										
외동	3.73 ^b	0.50	3.45	0.52	(172)	3.58	0.57	3.20 ^a	0.56	(166)
첫째	3.60 ^a	0.56	3.46	0.49	(530)	3.47	0.57	3.29 ^b	0.55	(507)
둘째 이상	3.64 ^a	0.52	3.47	0.47	(832)	3.52	0.60	3.33 ^b	0.55	(783)
<i>F</i>	5.91 ^{***}		0.02			1.09		6.17 ^{**}		
모 취/학업 여부										
취/학업	3.64	0.57	3.42	0.50	(708)	3.52	0.60	3.29	0.57	(654)
미취/학업	3.64	0.51	3.49	0.46	(833)	3.50	0.58	3.31	0.54	(801)
<i>t</i>	0.73		-2.47 ^c			0.62		-1.30		
부모 학력										
고졸이하	3.56 ^a	0.60	3.46	0.47	(461)	3.32 ^a	0.62	3.26	0.55	(401)
전문대졸	3.62 ^{ab}	0.51	3.42	0.49	(429)	3.48 ^a	0.56	3.33	0.57	(302)
대졸이상	3.71 ^b	0.51	3.49	0.48	(669)	3.61 ^b	0.55	3.31	0.54	(773)
<i>F</i>	12.53 ^{***}		1.28			31.55 ^{***}		2.50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3.61 ^a	0.59	3.45	0.51	(430)	3.43 ^a	0.58	3.30	0.56	(410)
301~400만원	3.63 ^{ab}	0.55	3.50	0.45	(421)	3.44 ^a	0.62	3.33	0.56	(401)
401~500만원	3.64 ^{ab}	0.49	3.45	0.46	(348)	3.58 ^b	0.52	3.30	0.50	(333)
501만원 이상	3.69 ^b	0.50	3.43	0.50	(366)	3.62 ^b	0.59	3.28	0.58	(339)
<i>F</i>	3.41 [*]		1.16			11.35 ^{***}		0.49		

* $p < .05$, ** $p < .01$, *** $p < .001$.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작용 중 패널 아동에게 책을 읽어주는 빈도는 주에 평균 1~2번이 43.7%로 가장 많았으며, 3~6번이 30.5%, 매일하는 경우도 17.8%에 달했다. 자녀에게 책을 읽어주는 빈도는 자녀 수,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자녀에게 책을 매일 읽어주는 경우는 자녀수가 한명일 때가 29.5%로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가 대졸 이상일 경우 24.8%로 가장 빈번한 것으로 응답됐다.

자녀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는 주에 1~2번이 37.8%로 가장 많았으며, 3~6

번이 33.2%, 매일하는 경우도 25.0%에 달했다. 자녀와 이야기를 해주며 상호작용 하는 경우는 자녀의 출생순위, 어머니의 최종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책 읽어주기와 유사하게 자녀에게 매일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는 가구에 자녀가 외동인 경우가 29.5%로 많았으며,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가 30.4%로 나타났다.

〈표 III-4-33〉 모-자녀 상호작용 1: 책 읽기 및 이야기 해주기

구분	책 읽어주기				이야기 해주기				계(수)
	전혀 안함	1~2번	3~6번	매일함	전혀 안함	1~2번	3~6번	매일함	
전체	8.0	43.7	30.5	17.8	3.9	37.8	33.2	25.0	100.0(1,565)
아동 성별									
남	7.0	43.1	31.4	18.5	3.4	38.5	34.2	23.8	100.0(803)
여	9.1	44.2	29.5	17.1	4.5	37.1	32.1	26.3	100.0(762)
$\chi^2(df)$	4.92(3)				2.42(3)				
아동 출생순위									
외동	2.7	33.8	33.9	29.5	2.3	26.3	33.8	37.7	100.0(172)
첫째	6.5	35.8	34.0	23.7	3.8	33.5	35.3	27.5	100.0(530)
둘째 이상	10.1	51.4	27.3	11.1	4.6	43.9	31.4	20.0	100.0(832)
$\chi^2(df)$	76.03(6)***				35.05(6)***				
모 취/학업 여부									
취/학업	9.8	46.0	27.7	16.5	5.0	35.9	33.5	25.6	100.0(708)
미취/학업	6.7	41.6	32.7	19.0	3.2	39.0	33.0	24.8	100.0(833)
$\chi^2(df)$	4.99(3)				2.65(3)				
모 학력									
고졸이하	11.0	53.4	26.0	9.6	5.6	46.2	29.9	18.2	100.0(461)
전문대졸	8.7	43.5	32.6	15.2	3.3	36.7	36.5	23.5	100.0(429)
대졸이상	5.5	37.5	32.1	24.8	3.3	32.9	33.4	30.4	100.0(669)
$\chi^2(df)$	54.52(6)***				40.51(6)***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7.6	45.4	31.4	15.5	3.8	37.8	34.1	24.3	100.0(430)
301~400만원	8.1	43.2	34.7	14.0	4.4	41.2	33.8	20.6	100.0(421)
401~500만원	8.2	42.5	30.0	19.3	2.9	38.8	31.7	26.6	100.0(348)
501만원 이상	8.2	43.4	24.8	23.6	4.6	33.0	32.9	29.6	100.0(366)
$\chi^2(df)$	11.54(9)				11.04(9)				

*** $p < .001$.

어머니의 자녀와의 상호작용 중, 노래 부르기 및 미술이나 만들기를 도와주는 행동도 주당 평균 1~2번이 각각 49.1%, 58.3%로 가장 많았다. 노래 부르거나 미술/만들기와 같은 예술 활동은 자녀의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

났다. 대상 아동이 여아일 경우 남아 자녀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래를 부르거나 미술 및 만들기를 도와주는 것과 같은 상호작용 행동의 빈도가 더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둘째 이상인 경우 함께 노래 부르는 상호작용의 빈도가 낮았으며, 미술이나 만들기를 도와주는 경우는 외동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자녀와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경우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매일 함께 노래를 부르는 행동이 14.4%로 빈번한 것으로 응답되었다.

〈표 III-4-34〉 모-자녀 상호작용 2: 노래 부르기 및 미술/만들기 도와주기

단위: %(명)

구분	함께 노래 부르기				미술이나 만들기 도와주기				계(수)
	전혀 안함	1~2번	3~6번	매일함	전혀 안함	1~2번	3~6번	매일함	
전체	10.8	49.1	28.3	11.7	12.7	58.3	21.5	7.5	100.0(1,565)
아동 성별									
남	12.8	50.6	25.6	11.1	14.8	60.8	18.1	6.4	100.0(803)
여	8.8	47.6	31.2	12.4	10.5	55.8	25.1	8.7	100.0(762)
$\chi^2(df)$	10.29(3)*				17.32(3)**				
아동 출생순위									
외동	11.8	46.8	25.1	16.2	8.5	55.4	24.9	11.2	100.0(172)
첫째	6.9	45.4	32.0	15.6	11.2	57.7	24.4	6.6	100.0(530)
둘째 이상	13.4	53.3	25.3	7.9	14.5	59.9	18.6	7.0	100.0(832)
$\chi^2(df)$	41.79(6)**				15.74(6)*				
모 취/학업 여부									
취/학업	12.9	48.2	26.7	12.1	12.2	58.7	22.3	6.8	100.0(708)
미취/학업	9.3	50.1	29.6	11.0	12.9	58.3	20.8	8.0	100.0(833)
$\chi^2(df)$	2.40(3)				1.24(3)				
모 학력									
고졸이하	12.2	53.0	25.4	9.4	16.1	59.7	17.8	6.4	100.0(461)
전문대졸	9.1	50.4	30.9	9.6	12.0	59.0	21.9	7.2	100.0(429)
대졸이상	11.0	45.8	28.8	14.4	10.8	57.1	23.6	8.5	100.0(669)
$\chi^2(df)$	14.83(6)*				11.44(6)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10.1	52.3	27.0	10.7	15.3	61.0	15.4	8.3	100.0(430)
301~400만원	11.2	51.4	27.0	10.5	12.1	57.7	24.6	5.6	100.0(421)
401~500만원	9.4	48.5	30.4	11.7	9.3	59.7	23.5	7.5	100.0(348)
501만원 이상	12.7	43.4	29.4	14.5	13.5	54.6	23.1	8.8	100.0(366)
$\chi^2(df)$	8.76(9)				14.87(9)				

* $p < .05$, ** $p < .01$, *** $p < .001$.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하는 상호작용 중 퍼즐이나 게임, 조립용 완구를 함께 갖고 노는 것에서도 주에 1~2번 하는 경우가 각각 59.5%, 54.1%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다. 특히, 조립용 완구를 가지고 노는 상호작용의 빈도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른 차이도 존재했는데, 외동인 경우가 형제가 있는 경우에 비해 함께 퍼즐이나 게임 및 조립용 완구를 갖고 노는 빈도가 더 잦은 것으로 응답되었다.

〈표 III-4-35〉 모-자녀 상호작용 3: 퍼즐/게임 및 조립용 완구

단위: %(명)

구분	함께 퍼즐이나 게임하기				함께 조립용 완구 갖고 놀기				계(수)
	전혀 안함	1~2번	3~6번	매일함	전혀 안함	1~2번	3~6번	매일함	
전체	17.8	59.5	19.8	2.9	26.8	54.1	14.4	4.7	100.0(1,565)
아동 성별									
남	16.2	60.5	20.6	2.7	23.1	53.2	17.8	5.9	100.0(803)
여	19.6	58.3	19.0	3.1	30.6	55.0	10.9	3.5	100.0(762)
$\chi^2(df)$	2.55(3)				20.55(3)**				
아동 출생순위									
외동	11.6	60.1	24.3	4.0	12.9	58.8	22.9	5.5	100.0(172)
첫째	15.3	58.5	22.4	3.8	21.9	55.7	17.4	5.0	100.0(530)
둘째 이상	21.4	59.9	16.6	2.0	34.0	51.6	10.0	4.4	100.0(832)
$\chi^2(df)$	23.74(6)**				48.04(6)***				
모 취/학업 여부									
취/학업	19.5	57.8	20.2	2.4	30.7	52.5	12.1	4.8	100.0(708)
미취/학업	16.8	60.5	19.5	3.1	24.1	55.1	15.9	4.8	100.0(833)
$\chi^2(df)$	3.03(3)				7.67(3)				
모 학력									
고졸이하	21.2	60.4	15.6	2.8	30.1	54.3	11.1	4.5	100.0(461)
전문대졸	16.0	60.3	20.9	2.7	26.1	51.8	16.6	5.5	100.0(429)
대졸이상	16.8	58.3	21.7	3.2	25.1	55.5	15.0	4.5	100.0(669)
$\chi^2(df)$	8.42(6)				7.82(6)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15.6	63.3	17.6	3.5	25.1	55.1	15.7	4.1	100.0(430)
301~400만원	20.5	55.1	21.1	3.3	27.7	51.5	15.0	5.7	100.0(421)
401~500만원	17.1	61.4	19.1	2.4	25.6	56.2	13.8	4.5	100.0(348)
501만원 이상	17.9	58.2	21.5	2.4	28.8	53.8	12.8	4.6	100.0(366)
$\chi^2(df)$	7.57(9)				4.90(9)				

** $p < .01$, *** $p < .001$.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과학 놀이를 하는 행동, 함께 스포츠 또는 운동을 하는 경우도 주에 1~2번이 각각 63.4%, 56.3%로

가장 많은 것으로 응답되었다. 어머니가 고졸 이하인 경우 이와 같은 상호작용을 전혀 안하는 비율이 23.6%로 전문대졸(19.6%), 대졸 이상(16.3%)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가구 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매일 하는 비율이 1.6%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자녀와 함께하는 스포츠 및 운동은 아동의 출생순위가 둘째 이상일 경우 매일 한다는 빈도가 3.8%로 외동(8.1%) 또는 첫째(5.2%)일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서는 고졸 이하의 어머니의 경우 자녀와 전혀 스포츠 또는 운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22.1%로 전문대졸(14.1%), 대졸이상(15.7%)인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III-4-36〉 모-자녀 상호작용 4: 과학놀이 및 운동하기

단위: %(명)

구분	자연에 대한 이야기 및 과학 놀이하기				함께 스포츠 또는 운동하기				계(수)
	전혀 안함	1~2번	3~6번	매일함	전혀 안함	1~2번	3~6번	매일함	
전체	19.3	63.4	14.8	2.5	17.1	56.3	21.7	5.0	100.0(1,565)
아동 성별									
남	18.4	64.7	14.7	2.3	15.5	56.5	22.8	5.2	100.0(803)
여	20.3	62.0	15.0	2.7	18.8	56.0	20.4	4.8	100.0(762)
$\chi^2(df)$	2.48(3)				2.14(3)				
아동 출생순위									
외동	17.7	63.9	15.6	2.8	15.7	55.2	20.9	8.1	100.0(172)
첫째	18.8	60.0	18.4	2.9	14.1	56.3	24.4	5.2	100.0(530)
둘째 이상	20.2	66.3	11.4	2.1	19.7	56.5	20.0	3.8	100.0(832)
$\chi^2(df)$	11.26(6)				13.45(6)*				
모 취/학업 여부									
취/학업	21.0	64.1	12.1	2.8	18.8	54.9	21.0	5.3	100.0(708)
미취/학업	18.2	62.9	16.7	2.3	15.9	57.2	22.4	4.5	100.0(833)
$\chi^2(df)$	3.81(3)				1.41(3)				
모 학력									
고졸이하	23.6	63.5	10.3	2.6	22.1	56.0	16.5	5.4	100.0(461)
전문대졸	19.6	62.9	14.8	2.7	14.1	58.3	22.3	5.3	100.0(429)
대졸이상	16.3	63.8	17.7	2.2	15.7	55.3	24.5	4.5	100.0(669)
$\chi^2(df)$	18.61(6)**				15.72(6)*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18.7	63.3	16.4	1.6	19.0	54.6	20.9	5.4	100.0(430)
301~400만원	22.7	58.4	15.8	3.1	17.0	55.2	22.0	5.9	100.0(421)
401~500만원	13.2	71.3	12.8	2.8	15.3	61.7	20.2	2.8	100.0(348)
501만원 이상	21.9	62.0	13.6	2.4	16.7	54.4	23.5	5.4	100.0(366)
$\chi^2(df)$	17.01(9)*				7.34(9)				

* $p < .05$, ** $p < .01$.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집안일을 하면서 상호작용하는 빈도는 주에 1~2번이 58.4%로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 이하일 경우 전혀 안하는 경우가 15.5%로 상대적으로 전문대졸(8.9%), 대졸 이상(10.8%)인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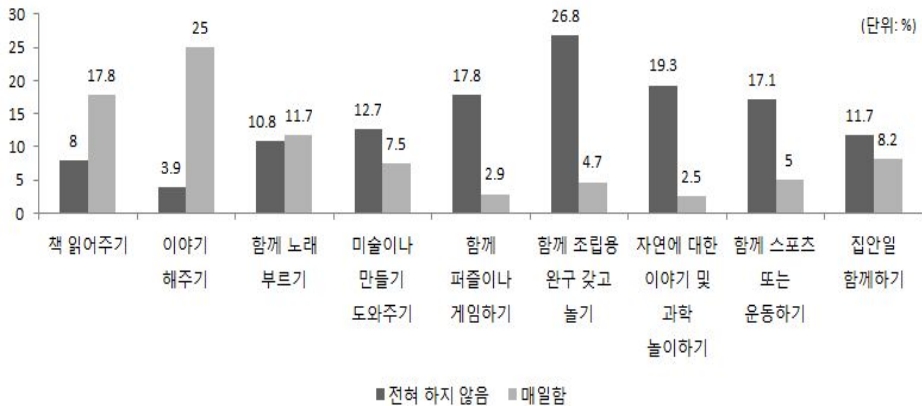
〈표 III-4-37〉 모-자녀 상호작용 5: 집안일 함께하기

단위: %(명)					
구분	전혀 안함	1~2번	3~6번	매일함	계(수)
전체	11.7	58.4	21.8	8.2	100.0(1,565)
아동 성별					
남	13.3	59.0	20.6	7.1	100.0(803)
여	9.9	57.6	23.0	9.4	100.0(762)
$\chi^2(df)/t$		7.46(3)			
아동 출생순위					
외동	13.6	55.7	21.8	9.0	100.0(172)
첫째	9.9	58.4	23.8	7.9	100.0(530)
둘째 이상	12.5	58.9	20.3	8.3	100.0(832)
$\chi^2(df)$		4.92(6)			
모 취/학업 여부					
취/학업	12.9	57.9	21.8	7.4	100.0(708)
미취/학업	10.6	59.2	21.4	8.8	100.0(833)
$\chi^2(df)$		0.78(3)			
모 학력					
고졸이하	15.5	54.6	20.3	9.6	100.0(461)
전문대졸	8.9	61.9	20.5	8.7	100.0(429)
대졸이상	10.8	58.7	23.4	7.1	100.0(669)
$\chi^2(df)$		17.75(6)**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11.5	57.2	23.2	8.0	100.0(430)
301~400만원	14.7	56.5	18.7	10.2	100.0(421)
401~500만원	7.5	63.8	21.0	7.7	100.0(348)
501만원 이상	12.2	56.8	24.3	6.7	100.0(366)
$\chi^2(df)$		11.71(9)			

** $p < .01$.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작용에서 매일하는 빈번한 상호작용과 전혀 하지 않는 것을 [그림 III-4-3]과 같이 살펴보면, 어머니는 주로 자녀와 같이 책을 읽어 주거나, 이야기를 해주는 것과 같은 언어적 의사소통을 자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함께 조립용 완구를 가지고 놀거나, 자연에 대

한 이야기 및 과학 놀이를 하는 것, 함께 퍼즐이나 게임을 하는 것, 함께 스포츠 또는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행동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4-3] 모-자녀 상호작용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5점 기준에서 어머니 2.56점, 아버지 2.39점으로 전반적으로 보통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가 아버지에 비해 양육스트레스의 정도가 다소 높았다. 어머니의 경우 가구의 자녀수가 한명일 경우보다 두 명일 경우 유의미하게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보였다. 어머니의 취/학업 여부, 부모의 학력, 가구 소득에 따라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취/학업모보다 미취/학업모가 양육스트레스가 높았으며, 어머니가 고졸 이하일 경우, 아버지가 전문대졸 이하일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보였다. 가구의 소득에 따라서는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나타냈다.

〈표 III-4-38〉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t/F	평균	표준편차	(수)	t/F
전체	2.56	0.63	(1,565)	-	2.39	0.61	(1,483)	-
아동 성별								
남	2.58	0.64	(803)	0.11	2.41	0.61	(757)	0.93
여	2.55	0.61	(762)		2.36	0.60	(726)	

단위: 점(명)

(표 III-4-38 계속)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t/F	평균	표준편차	(수)	t/F
자녀 수								
한명	2.43 ^a	0.66	(172)	3.54 [*]	2.32	0.58	(166)	2.90
두명	2.60 ^b	0.63	(1,023)		2.38	0.60	(958)	
세명 이상	2.54 ^{ab}	0.62	(370)		2.44	0.64	(359)	
모 취/학업 여부								
취/학업	2.52	0.65	(708)	-2.11 [*]	2.34	0.59	(654)	-1.99 [*]
미취/학업	2.61	0.61	(833)		2.42	0.61	(801)	
부모 학력								
고졸이하	2.70 ^b	0.65	(461)	15.99 ^{***}	2.51 ^b	0.62	(401)	15.15 ^{***}
전문대졸	2.55 ^a	0.61	(429)		2.42 ^b	0.58	(302)	
대졸이상	2.49 ^a	0.61	(669)		2.32 ^a	0.60	(773)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2.64 ^b	0.66	(430)	10.57 ^{***}	2.47 ^c	0.62	(410)	9.52 ^{***}
301~400만원	2.63 ^b	0.62	(421)		2.43 ^{bc}	0.59	(401)	
401~500만원	2.53 ^{ab}	0.61	(348)		2.34 ^{ab}	0.58	(333)	
501만원 이상	2.44 ^a	0.60	(366)		2.28 ^a	0.61	(339)	

* $p < .05$, *** $p < .001$.

자녀 양육의 분담에 대해 배우자가 더 많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1점, 본인이 더 많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5점에 응답하도록 한 질문에 대한 분석결과가 <표 III-4-39>이다. 어머니는 평균 4.00점으로 본인에 가깝게, 아버지는 평균 2.22점으로 배우자에 가깝게 응답하여 부모 모두 어머니가 자녀 양육에 더 많은 역할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아동의 성별이나 자녀수는 양육 분담에 대한 기여도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 취/학업모의 경우보다 미취/학업모가 본인이 더 많은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경우 어머니가 취/학업모일 경우가 미취/학업모일 경우보다 본인이 더 많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했다.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서는 고졸 이하의 아버지보다 전문대졸, 대졸 이상의 아버지가 더 많은 부분 양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가구 소득에 따라서는 어머니의 경우 소득 수준이 적은 경우 본인이 양육의 더 많은 부분을 수행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아버지의 경우 가구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이 양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표 III-4-39〉 부모의 양육 분담

단위: 점(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t/F	평균	표준편차	(수)	t/F
전체	4.00	0.54	(1,563)	-	2.22	0.55	(1,481)	-
아동 성별								
남	4.00	0.52	(801)	-1.11	2.25	0.55	(756)	1.21
여	4.02	0.58	(762)		2.18	0.55	(725)	
자녀 수								
한명	3.97	0.55	(171)	0.50	2.35	0.67	(166)	2.77
두명	4.01	0.56	(1,022)		2.20	0.51	(957)	
세명 이상	3.99	0.50	(370)		2.21	0.59	(358)	
모 취/학업 여부								
취/학업	3.88	0.59	(706)	-8.27***	2.35	0.58	(654)	8.74***
미취/학업	4.11	0.48	(833)		2.09	0.46	(801)	
부모 학력								
고졸이하	4.04	0.58	(461)	1.56	2.12 ^a	0.62	(401)	6.88**
전문대졸	3.97	0.58	(428)		2.29 ^b	0.53	(301)	
대졸이상	4.00	0.50	(668)		2.24 ^b	0.51	(773)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4.07 ^c	0.58	(429)	9.57***	2.18 ^a	0.57	(408)	8.74***
301~400만원	4.05 ^{bc}	0.53	(420)		2.15 ^a	0.55	(401)	
401~500만원	3.96 ^{ab}	0.50	(348)		2.22 ^a	0.52	(333)	
501만원 이상	3.91 ^a	0.54	(366)		2.35 ^b	0.54	(339)	

주: 1점에 가까울수록 배우자가, 5점에 가까울수록 본인이 더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3점에 가까울수록 비슷한 비중으로 역할을 수행함을 의미함.

** $p < .01$, *** $p < .001$.

7점 척도로 질문된 부모의 공동 양육에 대한 문항 중 어머니의 응답을 살펴보면, 가족 통합(예. 아이에게 신체적인 애정표현(안아주기, 만지기, 뽀뽀하기)을 한다)은 5.36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의 행동에 대한 훈육(예. 아이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훈육할 때 배우자보다는 내가 한다)은 4.84점, 배우자에 대한 비난(예. 아이가 배우자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경험할 수 있을 이야기를 한다)은 3.00점, 배우자와의 갈등(예. 배우자와 언쟁(말싸움)을 한다)은 2.81점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공동 양육은 대상 아동의 성별, 해당 가구의 자녀 수에 따른 차이는 없었지만, 어머니의 취/학업 여부, 어머니의 학력, 가구 소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어머니가 취/학업 중일 경우 미취/학업중인 경우보다 자녀가 배우자에 대해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수 있는 비난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고졸 이하일 경우 전문대졸, 대졸 이

상의 어머니보다 가족의 단란함을 증진시키기 위한 가족 통합의 노력은 더 적게 하였으며, 배우자에 대한 비난이나 배우자와의 갈등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였다. 가구 소득에 따라서는 401만원 이상 소득 가구가 더 많은 가족 통합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표 III-4-40〉 부모의 공동 양육: 어머니 응답

구분	가족 통합		훈육		비난		갈등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5.36	0.97	4.84	0.77	3.00	1.03	2.81	1.32	(1,565)
아동 성별									
남	5.39	0.97	4.87	0.78	3.01	1.04	2.77	1.35	(803)
여	5.32	0.97	4.82	0.77	2.99	1.02	2.84	1.29	(762)
<i>t</i>	0.72		1.15		0.18		-0.75		
자녀 수									
한명	5.43	0.99	4.72	0.80	3.00	1.00	2.93	1.30	(172)
두명	5.37	0.96	4.85	0.77	3.00	1.02	2.80	1.33	(1,023)
세명 이상	5.30	0.99	4.87	0.78	3.02	1.06	2.76	1.32	(370)
<i>F</i>	0.82		2.89		0.81		0.85		
모 취/학업 여부									
취/학업	5.33	1.05	4.81	0.80	3.08	1.04	2.87	1.35	(708)
미취/학업	5.38	0.90	4.87	0.76	2.94	1.01	2.76	1.30	(833)
<i>t</i>	-0.40		-0.81		2.44*		1.47		
모 학력									
고졸이하	5.27 ^a	1.05	4.85	0.82	3.21 ^b	1.03	2.96 ^b	1.33	(461)
전문대졸	5.39 ^{ab}	0.98	4.84	0.81	2.96 ^a	1.02	2.76 ^a	1.29	(429)
대졸이상	5.40 ^b	0.10	4.84	0.72	2.89 ^a	1.01	2.74 ^a	1.33	(669)
<i>F</i>	4.90**		0.01		14.76***		4.66*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5.28 ^a	1.11	4.81	0.89	3.03	1.04	2.85	1.38	(430)
301~400만원	5.32 ^a	0.88	4.87	0.74	3.04	0.99	2.87	1.25	(421)
401~500만원	5.44 ^b	0.89	4.86	0.71	2.95	1.04	2.75	1.32	(348)
501만원 이상	5.43 ^b	0.97	4.83	0.72	2.97	1.04	2.73	1.34	(366)
<i>F</i>	5.56**		0.98		1.18		1.63		

* $p < .05$, ** $p < .01$, *** $p < .001$.

부모의 공동 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응답은 가족 통합 5.11점, 훈육 4.47점, 비난 3.10점, 갈등 2.92점으로 어머니의 응답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아버지의 공동 양육 행동은 대상 아동의 성별, 가구의 자녀 수, 어머니의 취/학업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 가족 통합과 배우자에 대한 비난은 유의미한 편차를 보였는데, 대졸 이상의 아버지는 전문대졸 이하의 아버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족 통합을 위한 행동을 더 많이 하였으며, 고졸 이하의 아버지에 비해 배우자에 대한 비난을 상대적으로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소득에 따라서 아버지의 가족 통합을 위한 양육 행동은 유의미한 편차를 보였으며, 400만원 이하의 가구에 비해 501만원 이상 소득 가구의 아버지는 가족 통합을 위한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표 III-4-41〉 부모의 공동 양육: 아버지 응답

단위: 점(명)

구분	가족 통합		훈육		비난		갈등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5.11	0.97	4.47	0.75	3.10	0.93	2.92	1.31	(1,481)
아동 성별									
남	5.10	0.98	4.47	0.77	3.07	0.97	2.90	1.33	(756)
여	5.13	0.96	4.46	0.72	3.13	0.89	2.93	1.29	(725)
<i>t</i>	-0.89		-0.36		-1.31		-0.33		
자녀 수									
한명	5.09	0.93	4.45	0.74	3.08	0.89	3.05	1.37	(166)
두명	5.13	0.96	4.47	0.73	3.09	0.90	2.87	1.28	(957)
세명 이상	5.07	1.02	4.46	0.80	3.14	1.03	2.98	1.36	(358)
<i>F</i>	0.97		0.36		1.40		1.26		
모 취/학업 여부									
취/학업	5.15	1.00	4.47	0.76	3.14	0.96	2.93	1.30	(654)
미취/학업	5.10	0.95	4.46	0.74	3.08	0.91	2.91	1.31	(801)
<i>t</i>	0.51		0.03		1.28		0.42		
부 학력									
고졸이하	4.97 ^a	1.01	4.37	0.81	3.20 ^b	0.93	2.94	1.26	(401)
전문대졸	5.11 ^a	1.03	4.51	0.79	3.09 ^{ab}	0.90	2.97	1.28	(301)
대졸이상	5.19 ^b	0.93	4.50	0.70	3.06 ^a	0.94	2.88	1.34	(773)
<i>F</i>	7.50 ^{**}		2.98		4.47 [*]		1.20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5.00 ^a	1.02	4.38	0.77	3.09	0.92	2.92	1.31	(408)
301~400만원	5.04 ^a	0.96	4.51	0.76	3.10	0.95	3.01	1.35	(401)
401~500만원	5.15 ^{ab}	0.93	4.46	0.72	3.15	0.92	2.97	1.26	(333)
501만원 이상	5.31 ^b	0.95	4.52	0.73	3.07	0.95	2.75	1.29	(339)
<i>F</i>	7.84 ^{***}		2.62 [*]		0.18		2.93 [*]		

* $p < .05$, ** $p < .01$, *** $p < .001$.

3) 사회적 지지

어머니가 인식하고 있는 함께 살고 있지 않으면서 정서적, 도구적, 사교적, 정보적 지원을 주는 사람의 수는 친구 및 동료 3.74명, 대상 아동의 외가 3.41명, 이웃 2.61명, 대상 아동의 친가 2.57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 가구의 자녀수에 따라 친가 및 외가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의 수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아동이 1명일 경우 2명 이상일 경우보다 친가와 외가의 도움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어머니의 취/학업 여부에 따라서는 이웃의 도움이 유의미하게 달라지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취/학업모에 비해 미취/학업모의 경우에 더 많은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서는 외가와 친구 및 동료의 도움 정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유의미하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고졸 이하일 경우 친정(외가)으로부터 지원 받는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인식되었다. 가구 소득에 따라서는 501만원 이상의 월 평균 소득을 보이는 경우에 비해 300만원 이하의 소득 가구가 유의미하게 더 많은 이웃들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42〉 사회적 지원 인원

구분	○○(이)의 친가		○○(이)의 외가		친구 및 동료		이웃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2.57	1.91	3.41	2.06	3.74	2.78	2.61	2.35	(1,614)
자녀 수									
한명	2.11 ^a	1.80	3.02 ^a	1.98	3.86	3.66	2.60	2.67	(182)
두명	2.64 ^b	1.86	3.43 ^b	2.00	3.70	2.62	2.52	2.13	(1,055)
세명 이상	2.60 ^b	2.08	3.56 ^b	2.20	3.79	2.67	2.90	2.73	(377)
F	7.23 ^{**}		5.34 ^{**}		0.57		2.12		
모 취/학업 여부									
취/학업	2.52	1.85	3.48	2.12	3.84	2.86	2.19	2.16	(738)
미취/학업	2.58	1.96	3.39	1.98	3.65	2.70	2.97	2.44	(849)
t	-0.76		0.47		1.37		-6.97 ^{***}		
모 학력									
고졸이하	2.40	2.07	3.22 ^a	1.93	3.62	2.92	2.48	2.25	(473)
전문대졸	2.68	1.89	3.48 ^b	2.07	3.56	2.35	2.70	2.43	(438)
대졸이상	2.59	1.79	3.52 ^b	2.09	3.93	2.91	2.66	2.37	(697)
F	1.74		4.83 ^{**}		3.01 [*]		1.47		

단위: 명

(표 III-4-42 계속)

구분	○○(이)의 친가		○○(이)의 외가		친구 및 동료		이웃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2.55	1.87	3.35	2.14	3.58	2.42	2.69 ^b	2.61	(439)
301~400만원	2.68	1.97	3.32	1.80	3.79	3.03	2.73 ^{ab}	2.36	(433)
401~500만원	2.45	1.78	3.51	2.01	3.80	3.04	2.75 ^{ab}	2.34	(358)
501만원 이상	2.58	2.00	3.48	2.24	3.78	2.57	2.26 ^a	1.99	(384)
F	0.37		1.39		1.71		3.42 [*]		

* $p < .05$, ** $p < .01$, *** $p < .001$.

5점 척도로 질문된 사회적 지원의 정도 중 대상 아동의 친가로부터의 지원은 사교적 지원 3.56점, 도구적 지원 3.47점, 정서적 지원 3.30점, 정보적 지원 3.24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자녀수에 따라 아동 친가의 사교적 지원 수준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자녀가 1명일 경우 2명 이상일 경우에 비해 적은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친가의 도움은 어머니의 취/학업 여부나 가구 소득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서는 정서적, 도구적, 사교적, 정보적 지원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III-4-43〉 아동 친가의 사회적 지원 정도

단위: 점(명)

구분	정서적		도구적		사교적		정보적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30	0.97	3.47	0.96	3.56	0.82	3.24	1.02	(1,536)
자녀 수									
한명	3.09	1.00	3.32	1.01	3.36 ^a	0.90	3.07	1.07	(167)
두명	3.33	0.95	3.50	0.94	3.60 ^b	0.78	3.29	0.98	(1,013)
세명 이상	3.01	0.98	3.46	0.98	3.54 ^b	0.87	3.19	1.10	(356)
F	2.34		1.55		4.06 [*]		1.95		
모 취/학업 여부									
취/학업	3.35	0.98	3.49	0.93	3.58	0.81	3.27	1.01	(698)
미취/학업	3.25	0.95	3.45	0.99	3.54	0.82	3.21	1.02	(811)
t	1.07		0.34		0.86		0.83		
모 학력									
고졸이하	3.19	1.02	3.32	1.00	3.43	0.87	3.13	1.05	(451)
전문대졸	3.32	0.94	3.63	0.90	3.64	0.78	3.34	0.96	(412)
대졸이상	3.35	0.95	3.47	0.95	3.60	0.79	3.26	1.03	(667)
F	3.33 [*]		9.51 ^{***}		6.12 ^{**}		3.73 [*]		

(표 III-4-43 계속)

구분	정서적		도구적		사교적		정보적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3.19	1.03	3.37	1.01	3.49	0.86	3.15	1.04	(412)
301~400만원	3.34	0.95	3.54	0.97	3.59	0.83	3.34	1.01	(418)
401~500만원	3.29	0.97	3.44	0.95	3.54	0.77	3.17	1.09	(341)
501만원 이상	3.40	0.90	3.54	0.89	3.64	0.78	3.30	0.95	(365)
F	1.83		1.36		1.20		1.18		

* $p < .05$, ** $p < .01$, *** $p < .001$.

대상 아동의 외가로부터 받는 지원은 정서적 4.21점, 도구적 4.08점, 사교적 4.07점, 정보적 3.90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수에 따라 외가로부터 정서적, 도구적, 정보적 지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도구적 지원에 있어서는 세 명 이상의 가구가 2명 가구에 비해 도움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학업 여부는 외가의 지원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서는 사회적 지원의 하위 영역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 전문대졸 이상인 경우에 비해 외가의 도움을 낮게 지각했다. 가구의 소득에 따라서는 정서적, 도구적, 사교적 지원의 수준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300만원 이하 가구가 501만원 이상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44〉 아동 외가의 사회적 지원 정도

단위: 점(명)

구분	정서적		도구적		사교적		정보적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4.21	0.68	4.08	0.75	4.07	0.66	3.90	0.79	(1,552)
자녀 수									
한명	4.23	0.64	4.12 ^{ab}	0.68	4.13	0.67	3.94	0.82	(168)
두명	4.23	0.68	4.11 ^b	0.71	4.08	0.63	3.91	0.75	(1,027)
세명 이상	4.14	0.70	3.97 ^a	0.89	4.02	0.73	3.82	0.86	(357)
F	3.81 [*]		5.36 ^{**}		2.59		3.06 [*]		
모 취/학업 여부									
취/학업	4.21	0.69	4.09	0.74	4.09	0.68	3.94	0.82	(720)
미취/학업	4.22	0.67	4.07	0.77	4.06	0.64	3.86	0.76	(813)
t	0.33		1.13		0.52		1.29		

(표 III-4-44 계속)

구분	정서적		도구적		사교적		정보적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모 학력									
고졸이하	4.10 ^a	0.76	3.93 ^a	0.81	3.93 ^a	0.72	3.75 ^a	0.84	(450)
전문대졸	4.23 ^b	0.66	4.17 ^b	0.66	4.10 ^b	0.64	3.95 ^b	0.77	(425)
대졸이상	4.27 ^b	0.63	4.12 ^b	0.76	4.14 ^b	0.61	3.95 ^b	0.75	(676)
F	12.81 ^{***}		11.69 ^{***}		13.07 ^{***}		7.93 ^{***}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4.12 ^a	0.69	3.99	0.78	3.98 ^a	0.67	3.86	0.81	(411)
301~400만원	4.22 ^{ab}	0.66	4.13	0.71	4.06 ^{ab}	0.64	3.87	0.75	(422)
401~500만원	4.23 ^{ab}	0.67	4.06	0.78	4.09 ^{ab}	0.63	3.88	0.76	(345)
501만원 이상	4.28 ^b	0.69	4.14	0.74	4.17 ^b	0.65	3.98	0.82	(374)
F	3.91 ^{**}		2.92 [*]		4.65 ^{**}		1.84		1.85

* $p < .05$, ** $p < .01$, *** $p < .001$.

어머니가 친구 및 동료로부터 받는다고 인식한 사회적 지원의 수준은 정서적 지원 3.78점, 정보적 지원 3.68점, 사교적 지원 3.50점, 도구적 지원 3.36점 순으로 나타났다. 친구 및 동료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원은 자녀 수, 취/학업 여부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나, 어머니의 학력, 가구 소득에 따라서는 일부 하위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고졸 이하의 어머니의 경우 도구적, 사교적 영역의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지원을 받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300만원 이하 소득 가구의 어머니는 사교적, 정보적 지원을 가장 적게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4-45〉 어머니 친구 및 동료의 사회적 지원 정도

단위: 점(명)

구분	정서적		도구적		사교적		정보적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78	0.66	3.36	0.85	3.50	0.72	3.68	0.73	(1,614)
자녀 수									
한명	3.80	0.70	3.36	0.83	3.52	0.80	3.67	0.81	(182)
두명	3.78	0.65	3.37	0.83	3.49	0.70	3.68	0.72	(1,055)
세명 이상	3.77	0.69	3.36	0.91	3.52	0.77	3.68	0.73	(377)
F	0.03		0.35		0.07		0.17		
모 취/학업 여부									
취/학업	3.74	0.67	3.36	0.84	3.50	0.70	3.66	0.72	(738)
미취/학업	3.82	0.66	3.37	0.86	3.51	0.74	3.70	0.75	(849)
t	-1.42		0.37		-0.17		-1.08		

(표 III-4-45 계속)

구분	정서적		도구적		사교적		정보적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모 학력									
고졸이하	3.71	0.66	3.31 ^a	0.85	3.43 ^a	0.77	3.62	0.79	(473)
전문대졸	3.82	0.64	3.45 ^b	0.83	3.56 ^b	0.68	3.74	0.64	(438)
대졸이상	3.81	0.68	3.35 ^{ab}	0.85	3.52 ^{ab}	0.71	3.69	0.75	(697)
F	3.58 [*]		3.42 [*]		3.12 [*]		2.31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3.73	0.68	3.30	0.84	3.42 ^a	0.73	3.60 ^a	0.77	(439)
301~400만원	3.78	0.66	3.36	0.85	3.46 ^{ab}	0.75	3.65 ^{ab}	0.72	(433)
401~500만원	3.84	0.64	3.44	0.81	3.59 ^b	0.70	3.76 ^b	0.69	(358)
501만원 이상	3.80	0.66	3.38	0.88	3.56 ^{ab}	0.69	3.72 ^{ab}	0.73	(384)
F	1.85		1.76		3.99 ^{**}		2.96 [*]		

* $p < .05$, ** $p < .01$.

어머니가 인식한 이웃의 사회적 지원은 정보적 3.14점, 정서적 3.02점, 사교적 2.87점, 도구적 2.85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웃의 사회적 지원은 가구의 자녀수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어머니의 취/학업 여부, 어머니의 학력, 가구의 소득에 따라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취/학업모는 미취/학업모에 비해 정서적, 도구적, 사교적, 정보적인 지원을 더 적게 받는다고 인식하였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서는 대졸 이상의 학력자가 도구적, 사교적, 정보적 지원에서 전문대졸, 고졸 이하의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에 따라서는 300만원 이하 가구가 이웃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낮은 정서적 지원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501만원 이상 가구는 도구적, 사교적, 정보적 수준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III-4-46〉 이웃의 사회적 지원 정도

단위: 점(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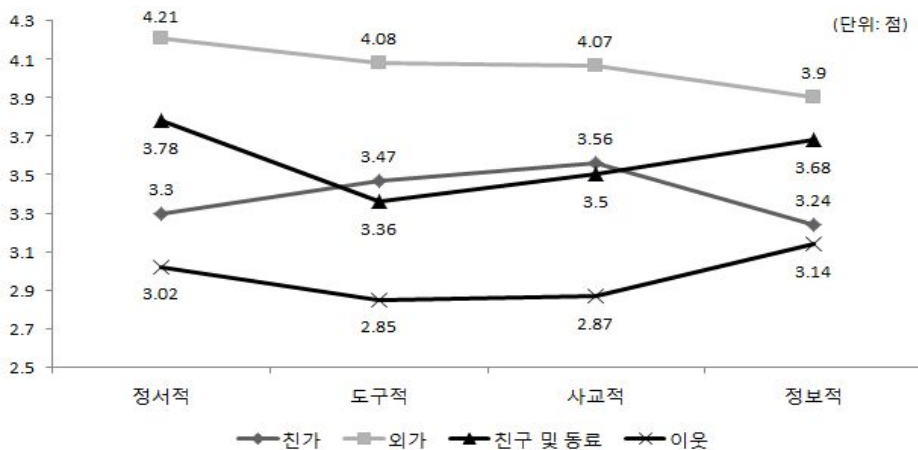
구분	정서적		도구적		사교적		정보적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02	1.05	2.85	1.02	2.87	1.04	3.14	1.05	(1,614)
자녀 수									
한명	2.96	1.11	2.84	1.08	2.81	1.10	3.04	1.10	(182)
두명	3.02	1.02	2.83	0.99	2.85	1.02	3.14	1.03	(1,055)
세명 이상	3.09	1.07	2.91	1.05	2.94	1.05	3.17	1.07	(377)
F	0.87		0.36		1.32		1.33		

(표 III-4-46 계속)

구분	정서적		도구적		사교적		정보적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모 취/학업 여부									
취/학업	2.83	1.05	2.71	1.05	2.71	1.05	2.94	1.07	(738)
미취/학업	3.20	1.00	2.98	0.98	3.01	1.00	3.32	1.00	(849)
<i>t</i>	-7.76***		-6.11***		-6.44***		-7.95***		
모 학력									
고졸이하	3.03	1.04	2.87 ^{ab}	1.00	2.83 ^{ab}	1.02	3.09 ^{ab}	1.04	(473)
전문대졸	3.10	1.04	2.95 ^b	1.02	2.96 ^b	1.03	3.23 ^b	1.06	(438)
대졸이상	2.99	1.04	2.79 ^a	1.02	2.84 ^a	1.04	3.12 ^a	1.04	(697)
<i>F</i>	3.12*		5.21**		3.70*		3.98*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2.98 ^a	1.00	2.79 ^{ab}	0.95	2.80 ^{ab}	0.97	3.05 ^{ab}	1.04	(439)
301~400만원	3.15 ^b	1.03	2.92 ^b	1.00	2.93 ^b	1.04	3.24 ^b	1.01	(433)
401~500만원	3.13 ^b	1.06	3.01 ^b	1.03	3.01 ^b	1.03	3.26 ^b	1.03	(358)
501만원 이상	2.84 ^b	1.08	2.69 ^a	1.06	2.75 ^a	1.09	3.01 ^a	1.08	(384)
<i>F</i>	6.03**		6.57***		4.20*		4.41**		

* $p < .05$, ** $p < .01$, *** $p < .001$.

어머니는 전반적으로 친정(외가)으로부터 가장 많은 사회적 지원을 받고, 이웃으로부터 가장 적은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댁(친가)의 지원은 주로 도구적이거나 사교적인 지원이 높았으며, 시댁(친가)으로부터 받는 정서적, 정보적 지원은 친구 및 동료 집단으로부터 받는 지원 정도보다 더 낮았다.



[그림 III-4-4] 사회적 지원 정도

마. 소결

7차 조사에 참여한 패널 부모의 평균 연령은 어머니 35.84세, 아버지 39.30세로 30대 부모가 가장 많았다. 부모의 특성을 인구학적 특성 및 건강 특성, 직업 특성, 개인 특성 및 부부 특성, 양육 특성, 사회적 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특징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모의 학력은 대졸자가 어머니 38.5%, 아버지 42.4%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약 9.8년의 결혼 기간을 유지하고 있었다. 부모의 대다수는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며, 소수 비동거 하는 경우는 근무 또는 학업으로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였다. 건강 특성과 관련하여 어머니의 99.9%, 아버지의 99.2%가 1·2급 장애가 없는 건강한 상태였다. 하지만 아버지의 경우 92.2%가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고, 과반수에 육박하는 47.5%가 흡연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 24.9%가 1년간 음주 경험이 없고, 1.3%만이 흡연자인 것에 비해 아버지의 음주 및 흡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7차년도 조사에서는 패널 어머니의 44.6%, 아버지의 95.1%가 취/학업 중이었다. 취업 중인 어머니의 96.9%는 현재 재직 상태였으며, 부모 모두 80% 이상이 작년과 비교해 직장의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중인 부모의 직업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상용직이 가장 높았다. 직업군은 아버지의 경우 사무종사자와 전문직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난 것에 비해 어머니의 경우 전문직 및 관련 종사자의 비율이 43.3%로 높게 나타났다. 취업 중인 어머니는 주당 39.26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교적 높은 직무만족도를 보였다.

부모의 부정적 정서를 나타내는 우울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긍정적 정서를 나타내는 자아존중감에 있어서는 보통 수준으로, 행복감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응답되었다. 본인과 배우자가 평소에 받는 스트레스 정도에 대해서는 부모 모두 비교적 높은 수준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본인이 받는 스트레스보다 배우자가 받는 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여성의 취업과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성역할 가치관에 대해서는 ‘자녀가 어릴 때는 어머니가 집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취업한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서 취업모와 전업모의 차이가 없다’, ‘아버지도 전업모만큼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여성이 취업할 경우 부부가 가사와 양육에 대해 동등한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부모가 비슷하게 높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여성

본연의 모습은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동의율이 아버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모가 아니더라도 가사와 양육에 대해 동등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동의율이 어머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생활에 대해서는 부부 모두 비교적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고, 비교적 낮은 갈등을 표했으나 어머니의 경우가 아버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결혼만족도를 보였다.

패널 아동이 만 6세가 되는 7차년도 조사 시점에서 후속 출산 계획이 있거나 (3.8%), 현재 임신 중인 경우(1.8%)는 소수였으며, 후속 출산 계획이 있는 경우 1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었다. 후속 출산 계획이 없는 대다수의 경우는 이미 계획한 수만큼의 아이를 낳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외에도 자녀 교육비용 및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육체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꼽았다. 부모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의 수는 2명으로 이상 자녀수에 대한 생각은 부모가 대체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자녀의 기대성별에 대해서도 딸/아들 구분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효능감 중 부모 역할에서의 유능감은 부모 모두 보통을 약간 넘고, 불안감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가 아버지에 비해 유능감과 불안감 모두 상대적으로 높았다. 부모의 양육행동에서도 온정적 양육과 통제적 양육이 부모 모두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대체로 어머니가 아버지에 비해 두 유형의 양육행동 모두 더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자녀와 매일 상호작용 하는 내용은 '이야기 해주기', '책 읽어주기'가 비교적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함께 조립용 완구를 갖고 놀기'나 '함께 퍼즐이나 게임하기', '자연에 대한 이야기 및 과학 놀이하기', '함께 스포츠 또는 운동하기' 등의 활동은 전혀 하지 않는 경우가 비교적 많았다.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전반적으로 보통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어머니가 아버지에 비해 다소 높았다. 자녀 양육에 대한 분담은 부모 모두 어머니가 더 많은 역할을 한다고 응답했으며, 부모의 공동 양육 중 가족 통합과 훈육이 비교적 높았으며 비난이나 갈등은 상대적으로 낮았고, 어머니가 아버지에 비해 가족 통합이나 훈육을 더 많이 하고 비난이나 갈등은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인식하고 있는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정서적, 도구적, 사교적, 정보적 지원을 주는 사람의 수는 친구 및 동료가 가장 많았고, 친정(외가), 이웃, 시댁(친가)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질적 지원의 정도는 전반적으로 친정(외가)

에서의 지원이 가장 많았으며, 이웃으로부터의 지원이 가장 낮았고, 시댁(친가)으로부터 받는 정서적, 정보적 지원은 친구 및 동료 집단으로부터의 지원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 가구 특성

가. 인구학적 특성

1) 가구 구성

각 가구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가구 구성에 따른 구성원 수를 알아본 결과, 패널 아동을 포함한 가구 구성원 수 평균은 4.25명으로 나타났다. 즉, 패널 아동 본인을 제외할 경우에는 3명 정도의 가족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구 구성으로는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경우가 90.9%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조부모와 부부, 자녀로 구성된 3세대 가족이 6.4%, 조부모, 부모, 자녀, 친척으로 구성된 가구 구성이 1.2%, 부모, 자녀, 친척으로 구성된 가구가 0.8%, 기타 0.7%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6차년도 분석 결과와 비슷한 양상이었다.

〈표 III-5-1〉 가구 구성 및 구성원 수

가구 구성						단위: %(가구), 명	
부모+자녀	조부모+ 부모+자녀	부모+자녀 +친척	조부모+부모 +자녀+친척	기타	계(수)	구성원 수	
						평균	표준편차
90.9	6.4	0.8	1.2	0.7	100.0(1,620)	4.25	0.84

2) 가계경제 요소

패널 대상 아동 가정의 경제적인 특성을 월평균 소득, 월평균 지출, 가구 자산 및 부채여부, 가구부채 및 월상환금, 사회보장 지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월평균 가구 소득 평균과 월평균 어머니 근로소득을 살펴보면, 각각 450.97만원, 194.82만원이었다.

〈표 III-5-2〉 월평균 소득

단위: 만원(가구)						
구분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최솟값	최댓값	(수)
월평균 가구 소득	450.97	211.95	400	0	3,000	(1613)
월평균 어머니 근로소득	194.82	126.96	180	0	1,500	(716)

월평균 지출의 경우, 전체 가구와 전체 자녀 관련 지출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지출을 가구 지출, 소비성 지출과 비소비성 지출로 세분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월평균 가구 지출을 살펴보면, 가구 전체 평균 지출은 405.56만원, 월평균 소비성 지출은 237.19만원, 비소비성 지출은 167.95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자녀 관련 지출 평균은 133.90만원, 월평균 소비성 지출은 99.24만원, 비소비성 지출은 34.80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III-5-3〉 월평균 지출

단위: 만원(가구)										
구분	가구 전체					전체 자녀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최솟값	최댓값
월평균 가구 지출	405.56	209.72	380	50	3,600	133.90	83.92	115	15	1,440
월평균 소비성 지출	237.19	129.64	200	20	2,400	99.24	66.47	90	5	1,200
월평균 비소비성 지출	167.95	116.70	150	0	1,200	34.80	31.81	30	0	400

가구 자산의 경우, 부동산과 금융자산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부동산 평균은 26,094.13만원, 금융 자산 평균은 6,768.38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III-5-4〉 가구 자산

단위: 만원(가구)									
부동산					금융 자산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최솟값	최댓값
26,094.13	95,836.51	17,000	0	3,300,000	6,768.38	20,191.94	3,000	0	500,000

가구 부채 여부의 경우, 전체 가구의 61.5%는 부채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38.5%는 부채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5-5〉 부채 여부

단위: %(명)		
있음	없음	계(수)
61.5	38.5	100.0(1,612)

가구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가구 중에서 해당 가구 부채와 월상환금을 살펴본 결과, 가구 부채 평균은 9,725.26만원, 월상환금 평균은 53.78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III-5-6〉 가구 부채 및 월상환금

단위: 만원(가구)									
부채					월상환금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최솟값	최댓값
9,725.26	19,809.70	6,000	10	400,000	53.78	65.181	40	0	900

패널 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 지원의 수급여부를 살펴본 결과, 전체 가구의 0.6%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었고, 3.0%가 차상위 계층이었다. 대부분의 패널 아동 가구는 사회보장 지원을 받지 않고 있었다.

〈표 III-5-7〉 사회보장 지원

단위: %(가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해당 없음	계(수)
0.6	3.0	96.4	100.0(1,620)

나. 주거환경의 물리적 특성 및 흡연 노출

다음에서 패널 아동이 거주했거나 거주하는 주거환경의 물리적 특성 및 흡연 노출 위험을 살펴보았다. 먼저, 주거환경의 물리적 특성으로 리모델링 여부, 시기, 종류, 습기와 곰팡이 여부, 정도, 발생 시기 등, 실내공기 및 열 공급원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패널 아동의 흡연 노출 및 집안 흡연자들의 흡연 여부를 살펴보았다.

1) 주거환경의 물리적 특성

임신 2년 전에서 출산 1년 후 시점을 중심으로 집을 리모델링한 적이 있는

지를 살펴본 결과, 11.1%의 패널 가구는 리모델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5-8〉 리모델링 여부

단위: %(가구)		
예	아니오	계(수)
11.1	88.9	100.0(1,515)

리모델링을 한 경험이 있는 가구에 한해서 리모델링 시기와 종류를 질문한 결과, 먼저 리모델링 시기의 경우 출산~출산 1년 후 사이가 39.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임신~출산 시기 32.3%, 임신 1년 전~임신 시기 20.8%, 임신 2년 전~임신 1년 전 12.5% 순으로 나타났다. 즉 임신 전보다 임신 이후 시기에 리모델링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9〉 리모델링 시기

단위: %(가구)			
구분	예	아니오	계(수)
임신 2년전~임신 1년전	12.5	87.5	100.0(184)
임신 1년전~임신	20.8	79.2	100.0(184)
임신~출산	32.3	67.7	100.0(184)
출산~출산 1년후	39.4	60.6	100.0(184)

다음으로 리모델링 종류에는 도배가 78.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페인트 칠 48.1%, 바닥재 교체 47.1%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5-10〉 리모델링 종류

단위: %(가구)			
구분	예	아니오	계(수)
페인트칠	48.1	51.9	100.0(194)
도배	78.9	21.1	100.0(194)
바닥재 교체	47.1	52.9	100.0(194)
새로운 구획분할	10.9	89.1	100.0(194)
기타	23.1	76.9	100.0(194)

임신 중, 출생 초기, 최근 1년 동안의 습기 및 곰팡이 노출에 관하여 살펴보기 위하여, 벽이나 천장에 습기가 차서 얼룩진 모양 여부와 정도, 눈에 보이는

곰팡이 여부 및 정도, 발생 시기, 냄새 정도 및 물이 새거나 젖어있는 곳의 여부와 정도를 살펴보았다.

먼저, 벽이나 천장에 습기가 차서 얼룩진 모양을 보이지 않은 경우가 임신 중에는 73.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 미만인 경우가 17.4%이었다. 임신 중 가구 소득별로 벽이나 천장에 습기가 차서 얼룩진 모양 여부와 정도에 관하여 χ^2 검증으로 차이를 살펴본 결과 소득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패널 아동이 출생~첫돌인 시기와 최근 1년 시기에도 벽이나 천장에 습기가 차서 얼룩진 모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경우가 각각 70.0%와 67.9%로 가장 많았으나, 5%미만의 얼룩을 보인 경우는 임신 중 시기보다 다소 늘어나서 20.0%, 22.4%로 나타났다. 얼룩진 모양이 30%이상이 되는 경우는 최근 1년이 3.2%로 임신 중이거나 출생~첫돌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11〉 벽이나 천장에 습기 얼룩진 모양 여부와 정도

구분	보이지 않았다	5% 미만	5-30% 미만	30% 이상	단위: %(명)
					계(수)
임신 중	73.9	17.4	6.6	2.1	100.0(1,477)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72.3	17.6	8.0	2.1	100.0(406)
301~400만원	72.8	16.5	7.0	3.7	100.0(390)
401~500만원	76.3	18.2	4.5	1.1	100.0(332)
501만원 이상	74.8	17.4	6.6	1.2	100.0(349)
$\chi^2(df)$			15.31(9)		
출생~첫돌	70.0	20.0	7.9	2.0	100.0(1,476)
최근 1년	67.9	22.4	6.5	3.2	100.0(1,490)

패널 아동이 거주했거나 거주하고 있는 집에 눈에 보이는 곰팡이가 있었는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 52.5%는 있었다고 응답하였고 47.5%는 없었다고 응답함으로써 곰팡이가 있었던 여부는 거의 유사한 비율이었다.

〈표 III-5-12〉 눈에 보이는 곰팡이 여부

예	아니요	단위: %(명)
		계(수)
52.5	47.5	100.0(1,510)

임신 중, 출생 초기, 최근 1년 동안의 눈에 보이는 곰팡이를 본 정도를 질문한 결과, 임신 중, 출생~첫돌시기, 최근 1년 시기 모두 '보이지 않았다'는 응답이 각각 72.2%, 66.4%, 59.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 미만은 각각 19.7%, 23.3%, 29.7%로 나타났다. 즉, 패널 아동이 유아기인 최근 1년 동안에 눈에 보이는 곰팡이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13〉 눈에 보이는 곰팡이 정도

구분	단위: %(명)			
	보이지 않았다	5% 미만	5-30% 미만	30% 이상
임신 중	72.2	19.7	6.5	1.5
출생~첫돌	66.4	23.3	8.4	1.9
최근 1년	59.2	29.7	8.1	3.0

패널 아동이 거주했거나 거주하고 있는 집에 눈에 보이는 곰팡이가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해서 발생 시기를 질문한 결과, 60-72개월이 43.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8-60개월 41.5%, 36-48개월 35.5%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눈에 보이는 곰팡이가 패널 아동이 만 3세가 넘는 유아 시기에 출생 초기와 영아 시기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패널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주택이 좀 더 노후해지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표 III-5-14〉 눈에 보이는 곰팡이 발생 시기

구분	단위: %(명)		
	예	아니오	계(수)
임신-출생	27.5	72.5	100.0(792)
출생-12개월	33.7	66.3	100.0(792)
12-24개월	32.0	68.0	100.0(792)
24-36개월	31.2	68.8	100.0(792)
36-48개월	35.5	64.5	100.0(792)
48-60개월	41.5	58.5	100.0(792)
60-72개월	43.1	56.9	100.0(792)

임신 중, 출생 초기, 최근 1년 동안의 곰팡이 냄새 정도를 질문한 결과, 냄새가 나지 않은 경우가 각각 79.7%, 76.5%, 72.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 미만 정도에서 냄새가 나는 것으로 응답한 경우가 각각 14.7%, 16.7%, 20.0%로 나타났다. 최근 1년 동안 곰팡이 냄새가 나는 경우가 더 많았음을 알 수 있다.

〈표 III-5-15〉 곰팡이 냄새 정도

					단위: %(명)
구분	보이지 않았다	5% 미만	5-30% 미만	30% 이상	계(수)
임신 중	79.7	14.7	4.1	1.5	100.0(1,472)
출생~첫돌	76.5	16.7	5.5	1.4	100.0(1,478)
최근 1년	72.2	20.0	5.7	2.1	100.0(1,492)

임신 중, 출생 초기, 최근 1년 동안의 물이 새거나 젖어있는 곳의 정도를 질문한 결과, 물이 새거나 젖어있는 곳이 보이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84.1%, 82.2%, 78.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 미만 정도에서 물이 새거나 젖어있는 곳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12.0%, 12.7%, 16.9%로 나타났다. 최근 1년 동안 물이 새거나 젖어있는 곳이 더 많았음을 알 수 있다.

〈표 III-5-16〉 물이 새거나 젖어있는 곳의 정도

					단위: %(명)
구분	보이지 않았다	5% 미만	5-30% 미만	30% 이상	계(수)
임신 중	84.1	12.0	2.9	1.0	100.0(1,470)
출생~첫돌	82.2	12.7	4.3	0.9	100.0(1,477)
최근 1년	78.2	16.9	3.5	1.3	100.0(1,496)

패널 아동이 거주하는 주거공간의 실내 공기를 알아보기 위하여 환기 횟수, 환기 시간, 공기 청정기 사용 여부 및 사용 시간을 질문하였다. 그 결과, 먼저 환기 횟수에서 환기는 하루 1~2회 하는 경우가 45.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회 이상 28.2%, 3~5회 25.1% 순으로 나타났으며, 거의 하지 않는 경우는 1.0%로 나타났다. 환기 시간의 경우 5시간 이상이 35.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3시간 미만 27.9% 이었다.

〈표 III-5-17〉 환기 횟수 및 시간

					단위: %(명)				
환기 횟수					환기 시간				
거의 안함	1-2회	3-5회	5회 이상	계(수)	1시간 이하	2-3시간 미만	3-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계(수)
1.0	45.7	25.1	28.2	100.0(1,449)	18.2	27.9	18.2	35.8	100.0(1,511)

패널 아동이 현재 살고 있는 집에 공기 청정기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질문한 결과, 사용하고 있는 집이 28.7%, 사용하고 있지 않는 집이 71.3%로 나타났다. 공기 청정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패널 가구가 사용하고 있는 가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별 공기 청정기 사용 여부에 대한 차이를 χ^2 검증으로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5-18〉 공기 청정기 사용 여부

				단위: %(명)
구분	예	아니오	계(수)	$\chi^2(df)$
전체	28.7	71.3	100.0(1,518)	-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23.0	77.0	100.0(418)	7.37(3)
301~400만원	31.0	69.0	100.0(403)	
401~500만원	32.8	67.2	100.0(341)	
501만원 이상	28.9	71.1	100.0(356)	

패널 아동이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공기 청정기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거실이 60.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큰방 33.9% 자녀방 26.1% 순이었다. 공기 청정기가 거실과 같은 공용 공간에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19〉 공기 청정기 사용 공간

				단위: %(명)
구분	예	아니오	계(수)	
거실	60.6	39.4	100.0(437)	
자녀방	26.1	73.9	100.0(437)	
큰방	33.9	66.1	100.0(437)	
부엌	1.6	98.4	100.0(437)	
기타	3.7	96.3	100.0(437)	

패널 아동의 집에서 조리 시 환풍기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에 관하여 질문한 결과, 모든 요리 시 항상 사용하는 경우가 40.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요 요리 때만 사용 26.5%, 심한 연기나 냄새가 날 때만 사용 25.1% 순으로 나타났고,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8.1%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별 조리 시 환풍기 사용 빈도에 대한 차이를 χ^2 검증으로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구 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모두 요리 시 환풍기를 항상 사용하거

나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가구 소득이 301~400만원인 패널 가구에 비해 401만원 이상 가구에서 모든 요리 시 항상 환풍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20〉 조리 시 환풍기 사용 빈도

구분	단위: %(명)				계(수)
	모든 요리 시 항상	주요 요리 때만 사용	심한 연기나 냄새가 날 때만	거의 사용하지 않음	
전체	40.3	26.5	25.1	8.1	100.0(1,520)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46.4	19.0	23.9	10.7	100.0(418)
301~400만원	34.6	29.5	26.0	9.9	100.0(404)
401~500만원	39.6	31.3	24.6	4.5	100.0(342)
501만원 이상	40.4	27.3	25.9	6.4	100.0(356)
$\chi^2(df)$			25.25**		

** $p < .01$

2) 흡연 노출

패널 아동이 주변에서 담배냄새를 맡는 일이 일주일에 한번 이상 있었는지 질문한 결과, '예'라는 응답은 48.9%, '아니오'라는 응답은 51.1%로 나타났다. 아동이 흡연에 노출이 되었다고 응답한 가구에 한해서 주당 노출 횟수를 질문한 결과, 주당 2회~3회가 42.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당 1회 27.4%, 주당 6회~7회 15.2%, 주당 4회~5회가 14.7% 순으로 나타났다.

모 학력, 가구소득, 및 지역규모에 따른 아동의 흡연 노출 여부를 χ^2 검증으로 집단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먼저, 모 학력이 고졸이하인 가구가 전문대졸 이상인 가구에 비해 패널 아동의 흡연 노출이 더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구 소득에 따른 아동의 흡연 노출 여부는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아동의 흡연 노출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역 규모에 따른 아동의 흡연 노출 여부는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모 학력, 가구소득, 및 지역규모에 따른 아동의 흡연 노출 횟수를 χ^2 검증으로 집단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모 학력과 가구 소득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고 지역 규모에 따른 차이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소도시의 경우

아동의 흡연 노출 횟수가 다른 지역 규모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21〉 아동의 흡연 노출 여부 및 횟수

단위: %(명)

구분	담배냄새 맡는 일			주당 노출 횟수				
	예	아니오	계(수)	1회	2~3회	4~5회	6~7회	계(수)
전체	48.9	51.1	100.0(1,517)	27.4	42.6	14.7	15.2	100.0(751)
모 학력								
고졸이하	61.0	39.0	100.0(446)	23.8	43.3	14.9	18.1	100.0(282)
전문대졸	45.6	54.4	100.0(417)	28.4	47.9	12.4	11.3	100.0(194)
대졸이상	48.3	51.7	100.0(644)	27.4	39.6	16.7	16.3	100.0(270)
$\chi^2(df)$	42.62(2) ^{***}			7.77(6)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52.0	48.0	100.0(417)	21.3	43.4	17.6	17.6	100.0(221)
301~400만원	51.2	48.8	100.0(404)	21.8	46.9	17.1	14.2	100.0(211)
401~500만원	48.2	51.8	100.0(340)	32.9	40.6	12.9	13.5	100.0(170)
501만원 이상	40.7	59.3	100.0(356)	32.2	40.9	9.4	17.4	100.0(149)
$\chi^2(df)$	11.90(3) ^{**}			16.64(9)				
지역 규모								
서울	50.5	49.5	100.0(190)	25.5	37.8	16.3	20.4	100.0(98)
광역시	50.0	50.0	100.0(112)	21.1	47.4	17.5	14.0	100.0(57)
도농복합시	47.8	52.2	100.0(866)	24.8	42.3	15.8	17.0	100.0(423)
시	43.8	56.2	100.0(256)	34.5	53.4	7.8	4.3	100.0(116)
군	59.1	40.9	100.0(93)	26.3	35.1	15.8	22.8	100.0(57)
$\chi^2(df)$	7.09(4)			26.64(12) ^{**}				

** $p < .01$, *** $p < .001$.

임신 중, 출생에서 첫돌, 첫돌에서 현재까지 집안의 흡연자들이 흡연을 하였는지를 질문한 결과, 임신 중에는 34.7%는 ‘예’라고 응답하였고 65.3%는 ‘아니오’라고 응답하였다. 출생~첫돌까지는 41.3%는 ‘예’라고 응답하였고, 58.7%는 ‘아니오’라고 응답하였다. 첫돌에서 현재까지의 경우 40.4%는 ‘예’라고 응답하였고, 59.6%는 ‘아니오’라고 응답하였다. 집안의 흡연자들이 패널 대상 아동 어머니가 임신 중일 때 패널 아동이 출생 이후시기에 비해 흡연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에 따른 집안 흡연자들의 흡연 여부를 살펴본 결과, 가구 소득이 적을수록 집안 흡연자들이 더 많이 흡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III-5-22〉 집안 흡연자들의 흡연 여부

				단위: %(명)
구분	예	아니요	계(수)	$\chi^2(df)$
임신 중	34.7	65.3	100.0(1,517)	-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37.4	62.6	100.0(417)	7.83*
301~400만원	36.7	63.3	100.0(403)	
401~500만원	33.7	66.3	100.0(341)	
501만원 이상	30.1	69.9	100.0(356)	
출생~첫돌	41.3	58.7	100.0(1,518)	-
첫돌~현재	40.4	59.6	100.0(1,517)	-

* $p < .05$

다. 가정환경

가정환경의 질적인 측면을 가정환경검사(EC-HOME)와 가족 상호작용(FACES) 척도를 활용하여 검토하였다.

1) 가정환경의 질(HOME)

가정환경검사(EC-HOME)는 8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다음에서 8개 영역별 문항 수와 미국 및 한국아동패널 자료로부터 산출된 중위수를 제시하였다. 패널 아동 가정의 가정환경검사를 통하여 산출된 중위수는 가정환경검사(EC-HOME)의 매뉴얼(Caldwell & Bradely, 2003)에 제시되었던 중위수와 같거나 1점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23〉 HOME: 가정환경 문항 수 및 중위수

구분	학습 자료	언어 자극	물리적 환경	반응성	학습 자극	모방 학습	다양성	수용성	전체
문항 수	11	7	7	7	5	5	9	4	55
미국 중위수	8	6	6	6	4	3	8	4	40
패널 중위수	9	7	7	6	5	4	8	4	50

한국아동패널 가정의 경우 가정환경검사 55개 문항의 총점 평균은 48.58점, 중위수는 50점으로 나타나 패널 아동 가정은 전반적으로 좋은 가정환경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Caldwell과 Bradely(2003)은 EC-HOME의 8개 하위 영역 점수가 중위수보다 2~3점이 낮은 경우와 총점에서 7~8점 이상 낮은 경우는 중재가 필요할 수도 있는 의심집단으로 선별하여 신중하게 검토해 볼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를 토대로 영역별 점수가 중위수보다 2~3점이 낮은 집단을 질 높은 가정환경 자극을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의심될 수 있는 의심집단으로 구분할 시, 의심집단의 비율이 2.0%~19.2%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가정이 의심집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한편, 8개 하위 영역 중에서 다른 영역에 비해 반응성 영역에서 가장 의심집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어머니(주양육자)의 아동에 대한 정서적·언어적 반응은 다른 영역에 비해 다소 부진하다고 볼 수 있다.

〈표 III-5-24〉 HOME: 영역별 비교

구분	총점	중위수	평균	표준편차	단위: 점, %(가구)	
					일반집단	의심집단
학습자료	11	9	8.90	0.98	94.6	5.4
언어자극	7	7	6.77	0.59	95.3	4.7
물리적 환경	7	7	6.64	0.91	92.0	8.0
반응성	7	6	5.67	1.33	80.8	19.2
학습자극	5	5	4.76	0.91	93.6	6.4
모방학습	5	4	4.05	0.91	93.9	6.1
다양성	9	8	8.15	1.06	91.4	8.6
수용성	4	4	3.64	0.56	98.0	2.0
전체	55	50	48.58	4.21	계(수)	100.0(1,620)

먼저, 가정환경검사의 전체 평균은 55점 만점에 48.58점, 총점에서 7~8점 이상 낮은 경우를 의심 집단으로 분류할 시, 의심집단은 10% 정도로 대부분의 가정이 좋은 가정환경 자극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 취업 및 학업 여부, 모 학력, 가구 소득, 지역 규모에 따라 가정환경검사 총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모 취/학업 여부에 따라서는 가정환경검사 점수의 총점이 비슷하게 나타났고, 의심집단의 비율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다음으로, 모 학력의 경우, 어머니가 대졸이상인 가정이 고졸이하나 전문대졸에 비해 가정환경검사 점수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후검증에서는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세 번째로, 가구 소득의 경우에는 가구 소득

이 300만원 이하인 가구가 401만원 이상인 가구에 비해서 가정환경점수의 총점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 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가구는 좋은 가정환경 자극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 규모의 경우, 서울과 시 지역이 광역시, 도농복합시, 군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다 더 좋은 가정환경 자극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25〉 HOME: 가정환경 총점

단위: 점, %(가구)					
구분	평균	표준편차	계(수)	일반집단	의심집단
전체	48.58	4.21	100.0(1,620)	90.0	10.0
모 취/학업 여부					
취/학업	48.55	4.38	100.0(738)	89.9	10.1
미취/학업	48.65	3.96	100.0(849)	90.5	9.5
$t/\chi^2(df)$		-0.25		0.03(1)	
모 학력					
고졸이하	48.33	4.33	100.0(473)	89.2	10.8
전문대졸	48.35	4.26	100.0(438)	87.6	12.4
대졸이상	48.87	4.08	100.0(697)	92.2	7.8
$F/\chi^2(df)$		3.16*		4.12(2)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47.83 ^a	4.48	100.0(440)	86.5	13.5
301~400만원	48.83 ^{ab}	3.93	100.0(436)	91.3	8.7
401~500만원	48.96 ^b	3.74	100.0(359)	92.7	7.3
501만원 이상	48.79 ^b	4.49	100.0(385)	90.3	9.7
$F/\chi^2(df)$		4.61**		7.02(3)	
지역 규모					
서울	50.46 ^b	3.35	100.0(223)	97.9	2.1
광역시	46.40 ^a	4.55	100.0(114)	76.0	24.0
도농복합시	48.04 ^a	4.16	100.0(915)	88.6	11.4
시	49.76 ^b	4.19	100.0(272)	91.5	8.5
군	47.12 ^a	3.61	100.0(96)	91.1	8.9
$F/\chi^2(df)$		27.83***		32.67(4)***	

* $p < .05$, ** $p < .01$, *** $p < .001$.

가정환경점사의 하위 척도 중 ‘학습자료’를 살펴보면, 평균은 11점 만점 8.90점이었고 5.4%정도가 중위수보다 2~3점 낮은 의심집단으로 나타났다. 모 학력이 대졸이상 경우에는 전문대졸이나 고졸 이하 집단에 비해 학습자료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학습자료 평균점수가 다른 집단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다. 지역 규모에서는 서울지역이 광역시와 군 지역에 비해 학습자료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의 어머니들이 아동의 발달에 적합한 놀잇감과 학습자료를 더 잘 구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III-5-26〉 HOME: 학습자료

단위: 점, %(가구)					
구분	평균	표준편차	계(수)	일반집단	의심집단
전체	8.90	0.98	100.0(1,620)	94.6	5.4
모 취/학업 여부					
취/학업	8.90	1.00	100.0(738)	93.6	6.4
미취/학업	8.90	0.96	100.0(849)	95.5	4.5
$t/\chi^2(df)$		-0.41		2.79(1)	
모 학력					
고졸이하	8.76 ^a	0.94	100.0(473)	95.0	5.0
전문대졸	8.82 ^a	0.91	100.0(438)	93.7	6.3
대졸이상	9.03 ^b	1.02	100.0(697)	95.0	5.0
$F/\chi^2(df)$		10.15 ^{***}		0.52(2)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8.78	1.02	100.0(440)	94.3	5.7
301~400만원	8.93	0.80	100.0(436)	96.5	3.5
401~500만원	8.98	0.90	100.0(359)	95.1	4.9
501만원 이상	8.92	1.16	100.0(385)	92.4	7.6
$F/\chi^2(df)$		2.87 [*]		4.97(3)	
지역 규모					
서울	9.09 ^a	0.87	100.0(223)	96.9	3.1
광역시	8.57 ^b	1.05	100.0(114)	86.2	13.8
도농복합시	8.91 ^{ab}	0.92	100.0(915)	95.5	4.5
시	8.87 ^{ab}	1.05	100.0(272)	93.4	6.6
군	8.69 ^b	1.26	100.0(96)	93.5	6.5
$F/\chi^2(df)$		5.72 ^{***}		14.57(4) ^{**}	

* $p < .05$, ** $p < .01$, *** $p < .001$.

이어서, 가정환경점사의 하위 척도 중 ‘언어자극’의 경우, 평균은 7점 만점을 기준으로 6.77점이었고 4.7%정도가 중위수보다 2~3점 낮은 의심집단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 취/학업 여부 및 모 학력에 따른 언어자극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 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가정의 경우 401만원 이상인 가정에 비해 언어 자극 점수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규모에서는 서울지역이 광역시와 군 지역에 비해 언어자극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27〉 HOME: 언어자극

단위: 점, %(가구)					
구분	평균	표준편차	계(수)	일반집단	의심집단
전체	6.77	0.59	100.0(1,620)	95.3	4.7
모 취/학업 여부					
취/학업	6.78	0.61	100.0(738)	95.3	4.7
미취/학업	6.78	0.54	100.0(849)	95.7	4.3
$t/\chi^2(df)$		0.45		0.11(1)	
모 학력					
고졸이하	6.75	0.63	100.0(473)	95.0	5.0
전문대졸	6.77	0.59	100.0(438)	96.3	3.7
대졸이상	6.78	0.57	100.0(697)	94.9	5.1
$F/\chi^2(df)$		0.63		1.67(2)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6.68 ^a	0.66	100.0(440)	92.7	7.3
301~400만원	6.82 ^{ab}	0.58	100.0(436)	96.3	3.7
401~500만원	6.82 ^b	0.47	100.0(359)	96.3	3.7
501만원 이상	6.77 ^{ab}	0.60	100.0(385)	96.3	3.7
$F/\chi^2(df)$		3.79 [*]		5.84(3)	
지역 규모					
서울	6.88 ^a	0.46	100.0(223)	97.2	2.8
광역시	6.56 ^b	0.70	100.0(114)	92.3	7.7
도농복합시	6.78 ^{ab}	0.59	100.0(915)	95.5	4.5
시	6.77 ^{ab}	0.63	100.0(272)	93.8	6.2
군	6.60 ^b	0.61	100.0(96)	95.5	4.5
$F/\chi^2(df)$		4.96 ^{**}		5.82(4)	

* $p < .05$, ** $p < .01$

가정환경점사의 하위 척도 중 ‘물리적 환경’의 평균 점수는 7점 만점을 기준으로 6.64점이었고 8.0%정도가 중위수보다 2~3점 낮은 의심 집단으로 나타났다. 모 취/학업 여부 및 모 학력, 가구소득에 따른 ‘물리적 환경’ 점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규모에서는 서울 지역과 시 지역이 도농복합시에 비해 ‘물리적 환경’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28〉 HOME: 물리적 환경

단위: 점, %(가구)

구분	평균	표준편차	계(수)	일반집단	의심집단
전체	6.64	0.91	100.0(1,620)	92.0	8.0
모 취/학업 여부					
취/학업	6.64	0.93	100.0(738)	91.7	8.3
미취/학업	6.66	0.86	100.0(849)	92.6	7.4
$t/\chi^2(df)$		-0.86		1.25(1)	
모 학력					
고졸이하	6.69	0.87	100.0(473)	93.2	6.8
전문대졸	6.60	0.95	100.0(438)	90.7	9.3
대졸이상	6.64	0.90	100.0(697)	92.2	7.8
$F/\chi^2(df)$		0.60		1.44(2)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6.55	1.07	100.0(440)	90.6	9.4
301~400만원	6.65	0.85	100.0(436)	92.3	7.7
401~500만원	6.70	0.76	100.0(359)	94.2	5.8
501만원 이상	6.67	0.91	100.0(385)	91.0	9.0
$F/\chi^2(df)$		1.02		2.52(3)	
지역 규모					
서울	6.84 ^a	0.63	100.0(223)	96.5	3.5
광역시	6.48 ^{ab}	1.20	100.0(114)	87.4	12.6
도농복합시	6.52 ^b	1.01	100.0(915)	89.2	10.8
시	6.86 ^a	0.63	100.0(272)	96.7	3.3
군	6.73 ^{ab}	0.69	100.0(96)	94.9	5.1
$F/\chi^2(df)$		15.73 ^{***}		43.35(4) ^{***}	

*** $p < .001$.

가정환경점사의 하위 척도 중 ‘반응성’의 평균 점수는 7점 만점 5.67점이었고 19.2%정도가 중위수보다 2~3점 낮은 의심집단으로 나타났다. 다른 영역에 비해 평균 점수도 다소 낮았고, 의심집단의 비율도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 취/학업 여부 및 모 학력에 따른 ‘반응성’ 점수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가정이 501만원 이상인 가정에 비해 ‘반응성’ 점수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규모에서는 서울지역과 시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반응성’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29〉 HOME: 반응성

단위: 점, %(가구)					
구분	평균	표준편차	계(수)	일반집단	의심집단
전체	5.67	1.33	100.0(1,620)	80.8	19.2
모 취/학업 여부					
취/학업	5.69	1.30	100.0(738)	82.8	17.2
미취/학업	5.66	1.35	100.0(849)	79.1	20.9
$t/\chi^2(df)$		0.75		2.61(1)	
모 학력					
고졸이하	5.66	1.29	100.0(473)	81.5	18.5
전문대졸	5.64	1.38	100.0(438)	78.5	21.5
대졸이상	5.70	1.32	100.0(697)	81.7	18.3
$F/\chi^2(df)$		0.49		2.28(2)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5.47 ^a	1.39	100.0(440)	76.9	23.1
301~400만원	5.73 ^{ab}	1.31	100.0(436)	80.3	19.7
401~500만원	5.76 ^{ab}	1.25	100.0(359)	83.3	16.7
501만원 이상	5.77 ^b	1.32	100.0(385)	83.5	16.5
$F/\chi^2(df)$		4.44 ^{**}		4.32(3)	
지역 규모					
서울	6.42 ^a	1.01	100.0(223)	92.2	7.8
광역시	5.25 ^b	1.26	100.0(114)	76.8	23.2
도농복합시	5.37 ^b	1.36	100.0(915)	75.4	24.6
시	6.21 ^a	1.08	100.0(272)	91.4	8.6
군	5.19 ^b	1.21	100.0(96)	71.4	28.6
$F/\chi^2(df)$		51.06 ^{***}		70.98(4) ^{***}	

** $p < .01$, *** $p < .001$.

가정환경점사의 하위 척도 중 ‘학습자극’의 평균 점수는 5점 만점 4.76점이었고 6.4%정도가 중위수보다 2~3점 낮은 의심집단으로 나타났다. ‘학습자극’ 점수는 거의 만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취/학업 여부 및 모 학력, 및 가구소득에 따른 ‘학습자극’ 점수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규모에서는 서울지역과 도농복합시지역이 광역시에 비해 ‘학습자극’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30〉 HOME: 학습자극

단위: 점, %(가구)					
구분	평균	표준편차	계(수)	일반집단	의심집단
전체	4.76	0.91	100.0(1,620)	93.6	6.4

(표 III-5-30 계속)

구분	평균	표준편차	계(수)	일반집단	의심집단
모 취/학업 여부					
취/학업	4.70	1.02	100.0(738)	92.8	7.2
미취/학업	4.81	0.80	100.0(849)	94.4	5.6
$t/\chi^2(df)$		-1.48		0.34(1)	
모 학력					
고졸이하	4.70	1.04	100.0(473)	92.0	8.0
전문대졸	4.73	0.98	100.0(438)	93.4	6.6
대졸이상	4.81	0.77	100.0(697)	94.7	5.3
$F/\chi^2(df)$		1.75		3.19(2)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4.72	0.99	100.0(440)	93.0	7.0
301~400만원	4.78	0.86	100.0(436)	94.0	6.0
401~500만원	4.83	0.75	100.0(359)	95.3	4.7
501만원 이상	4.71	1.01	100.0(385)	92.4	7.6
$F/\chi^2(df)$		0.89		1.41(3)	
지역 규모					
서울	4.89 ^a	0.54	100.0(223)	95.5	4.5
광역시	4.49 ^b	1.28	100.0(114)	87.8	12.2
도농복합시	4.76 ^a	0.92	100.0(915)	94.0	6.0
시	4.76 ^{ab}	0.93	100.0(272)	93.9	6.1
군	4.68 ^{ab}	1.02	100.0(96)	90.5	9.5
$F/\chi^2(df)$		4.04 ^{**}		11.90(4) [*]	

* $p < .05$, ** $p < .01$.

가정환경점사의 하위 척도 중 ‘모방학습’의 평균 점수는 5점 만점 4.05점이었고 6.1%정도가 중위수보다 2~3점 낮은 의심집단으로 나타났다. 모의 취/학업 여부 및 모 학력, 및 가구소득에 따른 ‘모방학습’ 점수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규모에서는 서울지역과 시 지역이 광역시와 군 지역에 비해 ‘모방학습’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31〉 HOME: 모방학습

단위: 점, %(가구)					
구분	평균	표준편차	계(수)	일반집단	의심집단
전체	4.05	0.91	100.0(1,620)	93.9	6.1
모 취/학업 여부					
취/학업	4.05	0.89	100.0(738)	94.5	5.5
미취/학업	4.07	0.93	100.0(849)	93.5	6.5
$t/\chi^2(df)$		0.27		0.76(1)	

(표 III-5-31 계속)

구분	평균	표준편차	계(수)	일반집단	의심집단
모 학력					
고졸이하	4.04	0.92	100.0(473)	93.9	6.1
전문대졸	4.03	0.95	100.0(438)	92.8	7.2
대졸이상	4.08	0.88	100.0(697)	94.6	5.4
$F\chi^2(df)$		0.37		1.59(2)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3.97	0.95	100.0(440)	91.9	8.1
301~400만원	4.09	0.94	100.0(436)	93.1	6.9
401~500만원	4.07	0.86	100.0(359)	96.5	3.5
501만원 이상	4.09	0.87	100.0(385)	94.7	5.3
$F\chi^2(df)$		1.50		7.64(3)	
지역 규모					
서울	4.25 ^a	0.80	100.0(223)	97.5	2.5
광역시	3.73 ^b	1.02	100.0(114)	86.9	13.1
도농복합시	3.99 ^{ab}	0.92	100.0(915)	93.4	6.6
시	4.25 ^a	0.84	100.0(272)	95.8	4.2
군	3.80 ^b	0.89	100.0(96)	90.7	9.3
$F\chi^2(df)$		8.18 ^{***}		10.02(4) [*]	

* $p < .05$, *** $p < .001$.

‘다양성’의 평균 점수는 9점 만점 8.15점이었고 8.6%정도가 중위수보다 2~3점 낮은 의심집단으로 나타났다. 모의 취/학업 여부 및 모 학력, 및 가구소득에 따른 ‘모방학습’ 점수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규모에서는 서울지역과 시 지역이 광역시와 군 지역에 비해 ‘다양성’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I-5-32〉 HOME: 다양성

단위: 점, %(가구)					
구분	평균	표준편차	계(수)	일반집단	의심집단
전체	8.15	1.06	100.0(1,620)	91.4	8.6
모 취/학업 여부					
취/학업	8.15	1.09	100.0(738)	91.9	8.1
미취/학업	8.15	1.01	100.0(849)	91.3	8.7
$t\chi^2(df)$		-0.44		0.00(1)	
모 학력					
고졸이하	8.13	1.08	100.0(473)	91.4	8.6
전문대졸	8.14	1.07	100.0(438)	91.1	8.9
대졸이상	8.16	1.04	100.0(697)	91.6	8.4
$F\chi^2(df)$		0.29		0.19(2)	

(표 III-5-32 계속)

구분	평균	표준편차	계(수)	일반집단	의심집단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8.06	1.09	100.0(440)	90.8	9.2
301~400만원	8.17	1.02	100.0(436)	91.4	8.6
401~500만원	8.16	1.03	100.0(359)	92.4	7.6
501만원 이상	8.20	1.08	100.0(385)	91.2	8.8
$F\chi^2(df)$		1.22		1.62(3)	
지역 규모					
서울	8.43 ^{bc}	0.96	100.0(223)	95.3	4.7
광역시	7.71 ^a	1.03	100.0(114)	84.5	15.5
도농복합시	8.06 ^{ab}	1.10	100.0(915)	90.4	9.6
시	8.36 ^c	0.93	100.0(272)	93.6	6.4
군	7.97 ^a	0.96	100.0(96)	90.5	9.5
$F\chi^2(df)$		12.37 ^{***}		12.81(4) [*]	

* $p < .05$, *** $p < .001$.

마지막으로 ‘수용성’의 평균 점수는 4점 만점 3.64점이었고 의심집단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아동의 행동을 전반적으로 잘 수용해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용성의 경우에는 모의 취업/학업 여부, 모 학력, 가구 소득, 지역 규모와 상관없이 대체적으로 한국의 모든 어머니들이 아동의 행동에 대해 수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33〉 HOME: 수용성

단위: 점, %(가구)					
구분	평균	표준편차	계(수)	일반집단	의심집단
전체	3.64	0.56	100.0(1,620)	100.0	0.0
모 취/학업 여부					
취/학업	3.65	0.56	100.0(738)	100.0	0.0
미취/학업	3.63	0.55	100.0(849)	100.0	0.0
$t\chi^2(df)$		0.81		0.06(1)	
모 학력					
고졸이하	3.61	0.61	100.0(473)	100.0	0.0
전문대졸	3.62	0.54	100.0(438)	100.0	0.0
대졸이상	3.66	0.52	100.0(697)	100.0	0.0
$F\chi^2(df)$		2.30		4.88(2)	

(표 III-5-33 계속)

구분	평균	표준편차	계(수)	일반집단	의심집단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3.59	0.56	100.0(440)	100.0	0.0
301~400만원	3.66	0.52	100.0(436)	100.0	0.0
401~500만원	3.64	0.62	100.0(359)	100.0	0.0
501만원 이상	3.66	0.52	100.0(385)	100.0	0.0
$F/\chi^2(df)$		0.82		1.41(3)	
지역 규모					
서울	3.67	0.49	100.0(223)	100.0	0.0
광역시	3.60	0.65	100.0(114)	100.0	0.0
도농복합시	3.64	0.55	100.0(915)	100.0	0.0
시	3.68	0.59	100.0(272)	100.0	0.0
군	3.46	0.55	100.0(96)	100.0	0.0
$F/\chi^2(df)$		2.23		-	

2) 가족 상호작용

패널 가구의 가정환경의 질을 살펴보기 위해, 가정환경검사(EC-HOME)이외 Olson(2010)의 FACES(IV)를 토대로 패널 아동이 속한 가족 상호작용을 조사하였다. 가족상호작용의 하위척도인 ‘응집성’과 ‘유연성’을 부모 각각을 대상으로 질문한 결과, 먼저 어머니가 응답한 가족의 응집성 평균은 3.96점, 유연성 평균은 3.59점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는 가족의 응집성을 유연성보다 높게 평가하였다.

가족 상호작용을 모 취업/학업 여부, 모 학력, 가구 소득, 지역 규모에 따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어머니가 응답한 가족의 ‘응집성’과 ‘유연성’ 평균은 모 학력과,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모 학력의 경우, 어머니 학력이 낮을수록 가족의 응집성과 유연성을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어머니는 가족의 응집성과 유연성을 낮게 평가하였다. 반면, 모 취업/학업 여부와 지역 규모에 따른 가족 상호작용에 대한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34〉 어머니가 응답한 가족 상호작용

단위: 점(명)

구분	응집성			유연성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3.96	0.56	(1,565)	3.59	0.57	(1,565)

(표 III-5-34 계속)

구분	응집성			유연성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모 취/학업 여부						
취/학업	3.95	0.60	(708)	3.63	0.60	(708)
미취/학업	3.96	0.52	(833)	3.56	0.54	(833)
<i>t</i>		3.82			1.29	
모 학력						
고졸이하	3.86	0.58	(461)	3.51	0.61	(461)
전문대졸	3.97	0.55	(429)	3.57	0.56	(429)
대졸이상	4.01	0.53	(669)	3.66	0.55	(669)
<i>F</i>		11.32***			10.26***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3.89	0.63	(430)	3.54	0.63	(430)
301~400만원	3.92	0.52	(421)	3.52	0.56	(421)
401~500만원	3.99	0.52	(348)	3.61	0.53	(348)
501만원 이상	4.04	0.54	(366)	3.71	0.54	(366)
<i>F</i>		6.60***			8.13***	
지역 규모						
서울	3.93	0.63	(210)	3.55	0.60	(210)
광역시	3.96	0.55	(112)	3.48	0.56	(112)
도농복합시	3.95	0.53	(885)	3.60	0.56	(885)
시	4.02	0.58	(267)	3.65	0.58	(267)
군	3.86	0.55	(91)	3.57	0.58	(91)
<i>F</i>		0.88			1.18	

*** $p < .001$.

아버지가 응답한 가족 응집성의 평균 점수는 3.97, 유연성의 평균은 3.66점으로 아버지도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가족의 응집성을 유연성에 비해 더 높게 평가하였다.

아버지가 응답한 가족의 '응집성'과 '유연성' 평균은 모 학력과 가구소득 따라 차이가 있었고, 이러한 경향은 어머니의 응답과 동일하였다. 아버지의 경우, 어머니 학력과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가족의 응집성과 유연성을 낮게 평가하였다. 반면, 아버지가 응답한 모 취업/학업 여부와 지역 규모에 따른 가족 상호작용에 대한 점수는 어머니의 응답과 마찬가지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35〉 아버지가 응답한 가족 상호작용

단위: 점(명)

구분	응집성			유연성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3.97	0.52	(1,482)	3.66	0.55	(1,482)
모 취/학업 여부						
취/학업	3.97	0.54	(654)	3.71	0.56	(654)
미취/학업	3.98	0.50	(801)	3.63	0.53	(801)
<i>t</i>		0.13			0.00	
모 학력						
고졸이하	3.90	0.56	(432)	3.60	0.58	(432)
전문대졸	3.99	0.48	(406)	3.65	0.54	(406)
대졸이상	4.01	0.51	(634)	3.71	0.53	(634)
<i>F</i>		9.11***			8.83***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3.91	0.59	(409)	3.61	0.60	(409)
301~400만원	3.95	0.46	(401)	3.62	0.51	(401)
401~500만원	4.02	0.48	(333)	3.70	0.51	(333)
501만원 이상	4.04	0.51	(339)	3.74	0.54	(339)
<i>F</i>		6.63***			6.90***	
지역 규모						
서울	4.00	0.53	(192)	3.67	0.54	(192)
광역시	3.88	0.48	(108)	3.58	0.55	(108)
도농복합시	3.98	0.52	(849)	3.67	0.55	(849)
시	4.00	0.49	(248)	3.69	0.51	(248)
군	3.85	0.52	(85)	3.57	0.57	(85)
<i>F</i>		1.88			1.26	

*** $p < .001$.

라. 소결

패널 가구의 구성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경우가 90.9%로 대부분이었고, 다음으로 조부모와 부부, 자녀로 구성된 3세대 가족이 6.4%이었다. 월평균 가구 소득 평균 450.97만원이었고, 이 중 자녀 관련 지출 평균은 133.90만원으로 가구소득의 1/3 정도를 자녀를 위해 지출하고 있었다.

패널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주택이 좀 더 노후해지면서 눈에 보이는 곰팡이가 만 3세가 넘는 유아 시기에 출생 초기와 영아시기에 비해 더 많았다. 가구 소득이 낮은 가정에서 성장하고 있는 패널 아동이 상대적

으로 간접흡연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었다.

패널 아동 가정환경 자극의 질은 전반적으로 우수한 수준이었다. 특히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아동의 행동을 수용해 주는 측면은 우수한 수준이어서 수용성이 문제가 되는 한국 가정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정환경점사의 8개 하위 영역 중에서 반응성 영역은 가정환경의 질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의심 집단의 비율이 다른 영역에 비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어머니의 아동에 대한 정서적·언어적 반응은 다른 영역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한국의 어머니들이 아동의 행동을 잘 수용하고 받아 주는데 비해 아동의 언어에 대한 반응이나 아동의 정서 상태에 민감하게 대처해주는 측면에서는 다소 부진하다고 볼 수 있다.

가족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의 응집성과 유연성 측면에서 부모 모두 5점 만점 기준으로 평균 각 3.96점, 3.59점을 응답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가족 간의 상호작용 수준이 보통 이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가족의 응집성을 유연성보다 높게 평가하였다. 어머니 학력이 높고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가족 간 상호작용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구성원들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은 삶의 행복과 질적인 측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저소득 가정을 위한 가족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본조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6. 육아지원 기관 및 서비스 특성

가. 기관 특성

육아지원 기관 및 서비스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아동이 이용하는 육아지원기관의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어머니의 기관 설문에 대한 동의 아래 웹페이지와 메일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기관용 설문지에 응답한 교사는 총 1,203명이었다.

먼저 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육아지원기관의 유형을 살펴보면, 유치원이 59.6%로 가장 많았으며, 어린이집(34.7%), 만일제 이상 학원(5.6%)순이었다. 기관의 유형은 모 취/학업 여부, 모 학력, 가구소득, 지역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III-6-1〉 교사가 근무하는 기관 유형

					단위: %(명)
구분	유치원	어린이집	반일제 이상 학원	계(수)	$\chi^2(df)$
전체	59.6	34.7	5.6	100.0(1,203)	-
아동 성별					
남	58.7	35.4	5.9	100.0(622)	1.04(2)
여	60.7	34.0	5.3	100.0(581)	
아동 출생순위					
외동	65.1	26.9	8.1	100.0(127)	8.36(4)
첫째	61.4	32.8	5.8	100.0(405)	
둘째 이상	57.8	37.1	5.1	100.0(649)	
모 취/학업 여부					
취/학업	56.5	39.2	4.3	100.0(566)	9.27(2)*
미취/학업	62.3	30.9	6.8	100.0(618)	
모 학력					
고졸이하	56.8	40.9	2.4	100.0(350)	21.48(4)***
전문대졸	62.9	31.5	5.6	100.0(329)	
대졸이상	59.7	32.5	7.8	100.0(519)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59.9	38.5	1.5	100.0(315)	41.09(6)***
301~400만원	57.7	37.9	4.4	100.0(325)	
401~500만원	57.4	36.7	6.0	100.0(276)	
501만원 이상	63.7	25.2	11.1	100.0(287)	
지역규모					
서울	41.9	44.2	13.9	100.0(154)	42.02(8)***
광역시	58.2	39.1	2.7	100.0(96)	
도농복합시	65.2	31.1	3.7	100.0(698)	
시	62.5	31.1	6.4	100.0(185)	
군	51.8	47.1	1.1	100.0(70)	

* $p < .05$, *** $p < .001$.

근무기관에 따른 설립유형을 보면, 유치원 744곳에서 사립개인유치원이 59.4%로 절반이상이었으며, 공립(병설)이 25.4%, 사립법인 10.1%, 공립(단설) 4.8%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의 경우 총 403기관 중에서 민간어린이집이 절반이 상인 58.3%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과 법인 어린이집이 각 20.3%, 15.0%를 차지 하였다. 반일제 이상 학원 56곳의 경우, 영어 학원과 놀이학교가 각 39.2%, 33.0%로 유사한 비율을 보였으며, 기타 유형의 학원도 14.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2〉 육아지원기관 시설유형

단위: %(명)					
유치원	비율	어린이집	비율	반일제 이상 학원	비율
국립 유치원	0.3	국공립 어린이집	20.3	영어 학원	39.2
공립(병설) 유치원	25.4	법인 어린이집	15.0	놀이학교	33.0
공립(단설) 유치원	4.8	직장 어린이집	5.7	미술학원	6.8
사립 법인 유치원	10.1	민간 어린이집	58.3	태권도 등의 체육 학원	6.8
사립 개인 유치원	59.4	가정 어린이집	0.3	기타 유형의 학원	14.2
계(수)	100.0(744)	계(수)	100.0(403)	계(수)	100.0(56)

기관의 평가 및 인증 상태에 대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유치원의 경우, ‘2주기 유치원평가(2011-2013년)’를 받았는지, 받을 예정인지, 평가 계획이 없는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유치원(90.8%)이 평가를 받았다고 응답하였으며 평가받을 예정은 7.2%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의 경우, 재인증 받은 기관 64.2%, 신규인증 받은 기관 21.6%가 있었으며, 심사 중 이거나 인증 받지 않은 기관은 각 5.7%, 8.6%였다.

〈표 III-6-3〉 기관 평가 여부

단위: %(명)									
구분	유치원				어린이집				
	평가 받은	평가 받을 예정	평가 계획 없음	계(수)	재인증 받은	신규인증 받은	심사 중	인증 받지 않음	계(수)
전체	90.8	7.2	2.0	100(744)	64.2	21.6	5.7	8.6	100(403)
지역규모									
서울	92.4	7.0	0.5	100(71)	69.0	18.4	9.4	3.1	100(64)
광역시	91.8	8.2	0.0	100(56)	57.8	20.9	2.2	19.0	100(37)
도농복합시	92.0	5.9	2.1	100(469)	61.5	25.3	3.6	9.6	100(206)
시	84.6	11.8	3.6	100(112)	62.4	18.7	12.2	6.7	100(64)
군	92.0	6.1	1.9	100(36)	77.7	13.5	0.0	8.8	100(32)

주: 통계값이 ‘-’로 표시된 일부 변수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분석이 불가함.

아동이 재원중인 기관의 학급(반)과 재원 아동 수를 보면, 총 학급 수는 평균 6.62개였으며, 재원 아동 수 평균은 119.97명이었다. 기관유형에 따른 학급수를 보면 어린이집이 7.73개로 가장 많았으며, 유치원(6.07개), 반일제 이상 학원(5.67개) 순이었다. 이러한 기관유형에 따른 학급 수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기관 현원의 경우, 유치원의 재원아동수가 약 133명으로 반일제 이상 학원(57.47명)에 비해 약 2.3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기관유형에 따른 현원 아동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한편, 지역 규모에 따른 재원 아동 수는 도농복합시와 시 지역이 군 지역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4〉 육아지원기관의 학급(반) 및 재원 아동 수

단위: 점, %(명)

구분	전체 학급 수			기관 현원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6.62	3.65	(1,203)	119.97	81.30	(1,203)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6.10 ^a	3.56	(315)	106.00 ^a	74.95	(315)
301~400만원	6.33 ^{ab}	3.22	(325)	113.35 ^{ab}	69.26	(325)
401~500만원	7.35 ^b	3.90	(276)	138.03 ^b	94.72	(276)
501만원 이상	6.84 ^{ab}	3.84	(287)	126.23 ^b	83.77	(287)
F		5.47 ^{**}			7.97 ^{**}	
육아지원 기관 유형						
유치원	6.07 ^a	3.75	(744)	133.29 ^a	91.66	(744)
어린이집	7.73 ^b	3.31	(403)	107.33 ^b	56.99	(403)
반일제 이상	5.67 ^a	2.96	(56)	57.47 ^c	39.69	(56)
F		28.16 ^{***}			38.99 ^{***}	
지역규모						
서울	6.29 ^{ab}	2.81	(154)	103.77 ^{ab}	60.62	(154)
광역시	7.04 ^b	3.68	(96)	118.36 ^b	61.72	(96)
도농복합시	6.78 ^b	3.87	(698)	127.32 ^b	85.90	(698)
시	6.66 ^b	3.75	(185)	127.18 ^b	92.58	(185)
군	5.43 ^a	2.94	(70)	78.86 ^a	50.45	(70)
F		3.37 ^{**}			8.40 ^{***}	

주: F검정 사후분석 결과는 가중치를 적용한 평균값의 양상과 다를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균 값을 중심으로 해석하였음.

** $p < .01$, *** $p < .001$.

나. 학급 특성

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학급의 형태에 대해 살펴본 결과 단일연령 학급이 전체의 88.2%로, 혼합연령(11.8%)에 비해 높았다. 육아지원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치원과 반일제 이상 학원이 각 91.6%, 96.7%로 어린이집에 비해 단일연령

비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기관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한편, 지역 규모별로 살펴보면 군지역이 혼합연령 학급 비율이 28.0%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혼합연령 학급은 3세~5세(34.6%), 4세~5세(63.1%)를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표 III-6-5〉 육아지원기관의 학급 형태 및 구성

단위: %(명)

구분	구성 형태			혼합 연령 범위			
	단일연령	혼합연령	계(수)	2세~5세	3세~5세	4세~5세	계(수)
전체	88.2	11.8	100.0(1,203)	2.3	34.6	63.1	100.0(146)
육아지원 기관 유형							
유치원	91.6	8.4	100.0(744)	0.0	56.8	43.2	100.0(62)
어린이집	80.9	19.1	100.0(403)	3.4	17.6	79.0	100.0(81)
반일제 이상	96.7	3.3	100.0(56)	24.3	46.6	29.1	100.0(3)
$\chi^2(df)$	36.47(2)***			-			
지역 규모							
서울	86.0	14.0	100.0(154)	2.0	20.9	77.1	100.0(22)
광역시	86.8	13.2	100.0(96)	6.6	24.0	69.4	100.0(15)
도농복합시	89.4	10.6	100.0(698)	2.9	45.3	51.9	100.0(71)
시	92.7	7.3	100.0(185)	0.0	14.7	85.3	100.0(15)
군	72.0	28.0	100.0(70)	0.0	37.8	62.2	100.0(23)
$\chi^2(df)$	35.29(4)***			-			

주: 통계값이 ‘-’로 표시된 일부 변수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분석이 불가함.

*** $p < .001$.

한 학급당 평균 아동 수는 22.06명이었으며, 교사는 평균 1.56명이었다. 학급당 평균 아동수와 교사 수는 육아지원기관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구체적으로 유치원이 다른 기관유형에 비해 아동수가 많았으며, 교사의 경우, 반일제 이상 학원이 높았다.

한편, 교사 1인당 아동비율은 20.45명이었으며, 가구소득과 육아지원기관유형, 지역규모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가구소득에 따라 살펴보면, 300만원 이하에서 교사 1인당 아동비율이 19.32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401~500만원에서 21.30명으로 많았다. 육아지원기관 유형별로는 유치원이 23.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어린이집 17.30명, 반일제 이상 학원 11.51명 순이었다.

〈표 III-6-6〉 학급 규모

단위: 점, %(명)

구분	아동 수			교사 수			교사 1인당 아동 비율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22.06	7.11	(1,203)	1.56	1.18	(1,203)	20.45	7.51	(1,203)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20.85 ^a	5.70	(315)	1.52	1.18	(315)	19.32 ^a	6.38	(315)
301~400만원	22.57 ^b	6.81	(325)	1.53	1.19	(325)	20.73 ^{ab}	6.48	(325)
401~500만원	22.74 ^b	7.66	(276)	1.55	0.96	(276)	21.30 ^b	8.36	(276)
501만원 이상	22.16 ^{ab}	8.07	(287)	1.64	1.34	(287)	20.59 ^{ab}	8.69	(287)
F		5.12 ^{**}			1.35			3.88 ^{**}	
육아지원 기관 유형									
유치원	24.50 ^a	6.15	(744)	1.54 ^b	1.22	(744)	23.14 ^a	6.81	(744)
어린이집	19.25 ^b	6.33	(403)	1.52 ^b	0.95	(403)	17.30 ^b	6.04	(403)
반일제 이상	13.59 ^c	8.03	(56)	2.10 ^a	1.78	(56)	11.51 ^c	8.15	(56)
F		152.92 ^{***}			7.49 ^{**}			153.61 ^{***}	
지역 규모									
서울	21.63 ^b	7.17	(154)	1.57	0.76	(154)	19.54 ^{ab}	7.53	(154)
광역시	21.58 ^{ab}	7.60	(96)	1.37	0.71	(96)	20.94 ^a	7.65	(96)
도농복합시	22.51 ^b	6.89	(698)	1.59	1.34	(698)	20.90 ^a	7.54	(698)
시	22.17 ^b	7.08	(185)	1.66	1.23	(185)	20.30 ^{ab}	7.12	(185)
군	19.33 ^a	7.60	(70)	1.23	0.66	(70)	18.68 ^b	7.62	(70)
F		5.37 ^{**}			1.29			3.35 [*]	

주: F검정 사후분석 결과는 가중치를 적용한 평균값의 양상과 다를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균 값을 중심으로 해석하였음.

* $p < .05$, ** $p < .01$, *** $p < .001$.

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학급 아동수의 적절성에 대해 적당하다고 인식하는 응답이 52.9%, 많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41.8%로 나타났다. 육아지원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치원의 경우 학급 당 아동수가 많다는 응답이 49.5%로 적당하다는 응답(47.6%) 보다 높은 반면, 어린이집과 반일제 이상 학원의 경우 학급 당 아동수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각 59.4%, 69.2%로 많다는 응답보다 높았다

〈표 III-6-7〉 학급 아동 수에 대한 교사의 인식

단위: %(명)

구분	많다고 생각함	적당하다고 생각함	적다고 생각함	계(수)
전체	41.8	52.9	5.3	100.0(1,203)

(표 III-6-7 계속)

구분	많다고 생각함	적당하다고 생각함	적다고 생각함	계(수)
육아지원 기관 유형				
유치원	49.5	47.6	3.0	100.0(744)
어린이집	33.0	59.4	7.6	100.0(403)
반일제 이상	14.7	69.2	16.1	100.0(56)
$\chi^2(df)$	80.52(4)***			

*** $p < .001$.

<표 III-6-8>과 같이 교사 1인당 적합하다고 인식하는 아동의 비율은 평균 17.55명이었는데, 유치원이 19.1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어린이집 16.01명, 반일제 이상 학원 10.48명 순이었다.

〈표 III-6-8〉 적합한 아동 비율에 대한 교사의 인식

구분	평균	표준편차	단위: 점, %(명) (수)
전체	17.55	4.75	100.0(1,203)
육아지원 기관 유형			
유치원	19.12 ^a	4.44	100.0(744)
어린이집	16.01 ^b	3.73	100.0(403)
반일제 이상	10.48 ^c	3.74	100.0(56)
F	172.26***		

*** $p < .001$.

교실 내 환경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4가지 문항으로 살펴보았다. 문항은 ‘교실 내의 공간은 유아의 연령과 흥미, 발달특성을 고려하여 배치되었다’, ‘교실 내의 자료는 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하다’, ‘교실 내에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돕기 위한 다양한 영역의 자료가 있다’, ‘교실 내에 유아가 원할 때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의 자료가 있다’로 전혀 그렇지 않다 에서 매우 그렇다 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평균 4.30점으로 전반적으로 교실환경이 적절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반일제 이상 학원에 비해 높았다. 아동 수에 비해 교실 크기(면적)는 평균 3.99점으로 전반적으로 약간 적합하다고 인식하였으며, 기관 유형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화장실, 복도, 유희실 등 교실 외 기타 공간 크기에 대한 인식은 어린이집이 4.11점으로 가장 높았다.

〈표 III-6-9〉 교실 환경, 공간의 적절성

단위: 점, %(명)

구분	교실 환경		교실 크기(면적)		교실 외 기타 공간 크기 (화장실, 복도, 유희실 등)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4.30	0.67	3.99	1.05	3.98	0.99	100.0(1,203)
육아지원 기관 유형							
유치원	4.34 ^b	0.62	3.99	1.04	3.91	1.02	100.0(744)
어린이집	4.37 ^b	0.58	3.98	1.04	4.11	0.93	100.0(403)
반일제 이상	3.57 ^a	1.07	3.96	1.19	3.85	0.99	100.0(56)
F	32.34 ^{***}		0.05		4.96 ^{**}		

** $p < .01$, *** $p < .001$.

교실 내 아동이 휴식을 취할 공간이 있다는 응답이 75.1%로 나타났는데,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다수의 어린이집(94.3%)이 휴식 공간이 구비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실외 놀이 공간의 경우, 반일제 이상 학원은 없다는 응답이 68.0%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교실 내 아동 휴식 공간 및 실외 놀이 공간 유무는 기관 유형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III-6-10〉 기관 내 공간 특성

단위: %(명)

구분	교실 내 아동 휴식 공간		실외 놀이 공간		실내 대근육 활동 공간		(수)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전체	24.9	75.1	7.4	92.6	13.5	86.5	100.0(1,203)
육아지원 기관 유형							
유치원	33.2	66.8	2.2	97.8	13.8	86.2	100.0(744)
어린이집	5.7	94.3	6.4	93.6	13.5	86.5	100.0(403)
반일제 이상	54.0	46.0	68.0	32.0	10.7	89.3	100.0(56)
$\chi^2(df)$	131.83(2) ^{***}		269.79(2) ^{***}		1.61(2)		

*** $p < .001$.

다. 교사 특성

교사의 일반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III-6-11>과 같다. 먼저 성별을 살펴보면 여성이 99.6%로 대다수의 교사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20대가 52.9%로 가장 많았고, 30대(29.5%), 40대(14.0%), 50대(3.7%)순이었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유치원의 경우 20대가 가장 많았으며, 어린이집과 반일제 이상 학원은 20대와 30대가 유사한 비율을 보였다.

〈표 III-6-11〉 교사의 성별 및 연령

단위: %(명)

구분	성별		연령				계(수)
	여	남	20대	30대	40대	50대	
전체	99.6	0.4	52.9	29.5	14.0	3.7	100.0(1,203)
육아지원 기관 유형							
유치원	99.7	0.3	61.2	21.1	13.1	4.6	100.0(744)
어린이집	99.5	0.5	40.5	41.9	15.6	1.9	100.0(403)
반일제 이상	100.0		40.8	42.0	12.7	4.5	100.0(56)
$\chi^2(df)$	-		87.58(6)***				
지역 규모							
서울	100.0	0.0	53.6	32.3	10.8	3.3	100.0(154)
광역시	100.0	0.0	54.8	27.5	17.7	0.0	100.0(96)
도농복합시	99.6	0.4	54.3	28.9	13.3	3.6	100.0(698)
시	99.2	0.8	53.9	28.1	14.6	3.4	100.0(185)
군	99.2	0.8	32.6	33.7	22.8	10.9	100.0(70)
$\chi^2(df)$	-		38.78(12)***				

*** $p < .001$.

교사의 자격소지와 관련하여, 육아지원기관과 관련된 자격증이 없다는 응답은 전체 2.0%였으며, 유치원 교사 자격증과 보육교사 자격증만 소지하고 있는 경우는 각 25.1%, 21.1%로 나타났다. 한편 두 가지 자격증을 모두 소지하고 있는 경우는 49.3%였으며, 초중등교사 자격증 외의 다른 자격증을 소지하는 경우는 2.3%였다.

〈표 III-6-12〉 교사의 자격(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없음	유치원 교사	보육 교사	초중등 교사	유치원 + 보육교사 자격	초중등교사 + 기타	계(수)
전체	2.0	25.1	21.1	0.2	49.3	2.3	100.0(1,203)
육아지원 기관 유형							
유치원	0.2	40.0	-	0.1	57.9	1.8	100.0(744)
어린이집	-	1.4	56.5	-	39.6	2.5	100.0(403)
반일제 이상	33.7	14.2	26.1	2.4	17.5	6.0	100.0(56)
지역 규모							
서울	2.5	17.3	36.0	0.4	41.0	2.7	100.0(154)
광역시	2.7	19.6	13.4	-	61.8	2.5	100.0(96)
도농복합시	1.7	28.0	18.3	0.2	50.0	1.9	100.0(698)
시	2.1	23.5	15.8	-	55.6	3.1	100.0(185)
군	3.0	32.7	29.6	-	31.7	3.0	100.0(70)

교사의 경력을 살펴보면 현재 기관을 포함하여 응답한 평균 경력은 8.79년으로 나타났으며, 유치원(9.20년), 어린이집(8.24년), 반일제 이상 학원(7.83년) 순이었다. 한편, 지역 규모의 경우 군 지역의 교사 경력이 12.47년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으며 도농복합시(9.00년), 시(8.17년)순이었다.

〈표 III-6-13〉 교사의 경력

단위: 년,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계(수)
전체	8.79	6.81	100.0(1,198)
육아지원 기관 유형			
유치원	9.20	7.89	100.0(744)
어린이집	8.24	4.48	100.0(400)
반일제 이상	7.83	5.95	100.0(54)
<i>F</i>	2.37		
지역 규모			
서울	8.04 ^b	5.14	100.0(150)
광역시	7.33 ^b	5.58	100.0(96)
도농복합시	9.00 ^b	7.04	100.0(697)
시	8.17 ^b	6.39	100.0(185)
군	12.47 ^a	9.38	100.0(70)
<i>F</i>	8.46 ^{***}		

*** $p < .001$.

교사의 최종학력은 전문대 졸업이 38.6%, 대학교 졸업이 37.4%로 유사하였으며, 대학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교사는 12.4%였다. 그 외 사이버 대학 혹은 평생교육원 졸업, 전문대 재학, 대학교 재학, 고등학교 졸업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6-14〉 교사의 최종학력

단위: %(명)

구분	고등학교 졸업	사이버 대학/ 평생교육원 졸업	전문대 재학	전문대 졸업	대학교 재학	대학교 졸업	대학원 재학	대학원 졸업	계(수)
전체	1.9	3.7	3.0	38.6	3.0	37.4	3.1	9.3	100.0(1,203)
육아지원 기관 유형									
유치원	0.0	0.4	2.5	38.7	2.9	37.8	3.3	14.4	100.0(744)
어린이집	5.6	9.1	4.1	40.7	3.4	33.2	2.1	1.8	100.0(403)
반일제 이상	0.0	5.8	1.4	24.2	2.1	59.0	6.2	1.4	100.0(56)

(표 III-6-14 계속)

구분	사이버								계(수)
	고등학교 졸업	대학/ 평생교육원 졸업	전문대 재학	전문대 졸업	대학교 재학	대학교 졸업	대학원 재학	대학원 졸업	
지역 규모									
서울	3.2	6.7	1.6	30.6	5.9	42.8	3.7	5.6	100.0(154)
광역시	0.0	1.0	2.8	38.1	3.8	39.9	3.5	10.9	100.0(96)
도농복합시	1.3	3.5	3.0	41.8	2.7	34.6	2.6	10.4	100.0(698)
시	3.2	1.3	4.1	37.6	1.2	42.2	4.3	6.1	100.0(185)
군	3.0	6.6	3.6	34.5	2.6	31.3	2.1	16.3	100.0(70)

교사의 전공을 살펴보면, 유아교육 전공이 76.1%로 가장 많았고, 아동학(7.3%), 보육학(5.8%), 사회복지학(3.2%) 순이었다.

〈표 III-6-15〉 교사의 전공

구분	단위: %(명)									계(수)
	유아 교육	보육학	아동학	가정학	간호학	사회 복지학	교육학	예체능 계열	기타	
전체	76.1	5.8	7.3	0.6	0.1	3.2	1.2	1.4	4.4	100.0(1,183)
육아지원 기관 유형										
유치원	96.4	0.3	2.5	0.0	0.0	0.1	0.2	0.0	0.5	100.0(744)
어린이집	46.8	15.5	15.7	1.9	0.0	8.7	2.0	3.1	6.2	100.0(383)
반일제 이상	32.4	6.8	9.6	0.0	1.1	3.4	6.9	5.3	34.5	100.0(56)
지역 규모										
서울	61.1	13.9	12.5	1.1	0.0	3.0	2.9	0.0	5.6	100.0(150)
광역시	87.2	0.9	1.6	1.7	0.0	2.1	2.4	2.3	1.9	100.0(96)
도농복합시	78.3	4.5	6.0	0.5	0.1	3.1	0.9	1.7	4.9	100.0(689)
시	80.6	4.4	7.2	0.4	0.0	2.8	0.3	1.0	3.2	100.0(180)
군	70.8	5.6	12.9	0.0	0.0	7.1	0.0	1.3	2.4	100.0(68)

교사들의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주중 1일 평균 근무시간은 10.02시간이었으며,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가 10.18시간으로 가장 많았으며, 어린이집 교사가 9.95시간, 반일제 이상 학원은 8.73시간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일반적으로 한 달을 기준으로 주말 평균 1.00일을 근무하며, 주말 1일 평균 근무시간은 5.46시간이었다. 주말 근무일은 유치원, 어린이집, 반일제 이상 학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6-16〉 교사 근무시간

단위: 시간, 일(명)

구분	주중 1일 평균 근무시간			월 평균 주말 근무일			주말 1일 평균 근무시간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10.02	1.60	(1,196)	1.00	1.29	(1,203)	5.46	1.73	(700)
육아지원 기관 유형									
유치원	10.18 ^b	1.63	(737)	1.09 ^a	1.32	(744)	5.37 ^{ab}	1.67	(456)
어린이집	9.95 ^b	1.47	(403)	0.88 ^{ab}	1.17	(403)	5.69 ^a	1.83	(229)
반일제 이상	8.73 ^a	1.52	(56)	0.75 ^b	1.61	(56)	4.58 ^b	1.10	(15)
<i>F</i>	24.82 ^{***}			5.21 ^{**}			4.20 [*]		
지역 규모									
서울	9.87	1.59	(153)	0.71	1.00	(154)	5.47	1.41	(78)
광역시	10.27	1.57	(95)	1.16	1.34	(96)	5.35	1.89	(63)
도농복합시	10.11	1.64	(694)	1.06	1.29	(698)	5.41	1.67	(420)
시	9.81	1.54	(184)	1.04	1.48	(185)	5.64	2.08	(103)
군	9.81	1.33	(70)	0.95	1.26	(70)	5.59	1.74	(36)
<i>F</i>	1.95			2.92 [*]			1.70		

* $p < .05$, ** $p < .01$, *** $p < .001$.

교사로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효능감 정도를 질문하기 위해 5점 척도의 7개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은 ‘다루기 어려운 아이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 ‘부모가 무관심하거나 가정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을 지도할 경우 아이들의 학습의욕을 높일 수 있다’ 등으로, 문항의 평균은 3.90점으로 나타났다. 교사와 아동의 상호작용은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아이에게 애정과 신뢰를 가지고 자주 상호작용 한다’, ‘아이의 요구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반응한다’ 등으로 평균은 4.27점이었다.

〈표 III-6-17〉 교사의 교수 특성

단위: 점, (명)

구분	교수 효능감		교사-아동 상호작용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90	0.49	4.27	0.49	(1,203)
육아지원 기관 유형					
유치원	3.90	0.48	4.30	0.49	(744)
어린이집	3.88	0.49	4.22	0.48	(403)
반일제 이상	4.03	0.56	4.27	0.55	(56)
<i>F</i>	0.73		3.23 [*]		

* $p < .05$

라. 특별활동 특성

기관 내 아동이 받고 있는 특별활동 이용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기관 내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여부에 대해 기관의 88.4%가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어린이집의 경우 95.9%로 다른 기관에 비해 높았다. 지역 규모별로 살펴보면, 광역시와 군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 III-6-18〉 기관 내 특별활동 여부

단위: %(명)

구분	특별활동 프로그램 없음	특별활동 프로그램 있음	계(수)
전체	11.6	88.4	100.0(1,203)
육아지원 기관 유형			
유치원	15.6	84.4	100.0(744)
어린이집	4.1	95.9	100.0(403)
반일제 이상	15.5	84.5	100.0(56)
$\chi^2(df)$	42.78(2) ^{***}		
지역 규모			
서울	14.5	85.5	100.0(154)
광역시	7.5	92.5	100.0(96)
도농복합시	11.3	88.7	100.0(698)
시	14.3	85.7	100.0(185)
군	4.0	96.0	100.0(70)
$\chi^2(df)$	10.70(4) [*]		

* $p < .05$, *** $p < .001$.

아동이 육아지원기관에서 이용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 수는 미술, 음악, 체육 등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영어의 경우, 평균 1.04개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체육(0.97개), 음악(0.69개), 미술(0.64개)순이었다. 평균적으로 기관에서 이용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총 수는 약 6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19〉 특별활동 이용 프로그램 수(중복응답)

단위: 개,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미술(그림, 공작, 서예 등)	0.64	0.79
음악(피아노, 바이올린 등)	0.69	0.72

(표 III-6-19 계속)

구분	평균	표준편차
체육(발레, 수영, 태권도 등)	0.97	0.68
과학	0.44	0.61
수학(숫자, 산수, 주산 등)	0.43	0.75
국어(한글, 동화구연, 웅변 등)	0.51	0.86
컴퓨터	0.04	0.21
교구 이용 프로그램(가베, 은물, 몬테소리, 레고 등)	0.61	0.98
한자	0.22	0.42
영어	1.04	0.83
기타 외국어(중국어 등)	0.07	0.27
통합프로그램	0.26	0.63
기타	0.30	0.69
총 이용개수	6.22	5.25
(수)	(1,066)	

아동이 일주일 동안 각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총 횟수는 영어가 3.10회로 가장 많았고, 통합프로그램(2.41), 교구 이용 프로그램(2.22), 국어(2.17)순이었다. 총 이용 시간을 살펴보면, 영어가 76.06분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구 이용 프로그램이 64.36분, 통합프로그램 62.23분으로 나타났다.

〈표 III-6-20〉 특별활동 프로그램 주당 이용 횟수 및 시간

단위: 회, 분(명)

구분	이용 횟수(주)		이용 시간(주)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미술(그림, 공작, 서예 등)	1.74	1.16	52.37	38.21	(580)
음악(피아노, 바이올린 등)	1.40	0.92	38.86	30.50	(633)
체육(발레, 수영, 태권도 등)	1.35	0.90	43.34	40.99	(860)
과학	1.20	0.65	35.84	18.02	(443)
수학(숫자, 산수, 주산 등)	1.97	1.20	44.47	28.65	(386)
국어(한글, 동화구연, 웅변 등)	2.17	1.35	50.09	37.17	(427)
컴퓨터	1.50	1.00	26.44	15.51	(41)
교구 이용 프로그램(가베, 은물, 몬테소리, 레고 등)	2.22	1.63	64.36	64.84	(448)
한자	1.50	1.09	30.65	22.16	(242)
영어	3.10	1.72	76.06	59.42	(913)
기타 외국어(중국어 등)	1.25	0.66	34.18	32.02	(62)
통합프로그램	2.41	1.83	62.23	56.23	(221)
기타	1.64	1.33	46.76	38.35	(229)

마. 소결

패널 아동이 만 6세 시점에서 이용하는 육아지원기관은 유치원이 59.6%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집(34.7%), 반일제 이상 학원(5.6%)순이었다. 아동이 재원 중인 기관의 총 학급 수는 평균 6.62개였으며, 평균 재원 아동 수는 약 120명으로, 학급 및 재원 아동 수는 기관유형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교사가 담당하는 학급의 형태는 단일연령 학급이 전체의 88.2%로, 혼합연령(11.8%)에 비해 높았으나, 군 지역의 혼합연령 학급 비율은 28.0%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다.

교사 1인당 아동비율은 20.45명이었으며, 담당하고 있는 학급 아동 수에 대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52.9%로 많다고 생각한다는 응답(41.8%)보다 높았다. 교실 내 아동 휴식 공간은 있다는 응답이 75.1%로 없다고 응답한 비율(24.9%)보다 높았으나, 기관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담당교사의 대부분은 여성이었으며, 교사의 연령은 20대가 절반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유치원의 경우 20대 연령이, 어린이집과 학원은 20대와 30대가 많았다. 교사의 자격소지와 관련하여 유치원과 보육교사 자격증을 모두 소지한 경우는 49.3%로 절반가량이 두 가지 자격증을 소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경력은 평균 8.79년이며, 최종학력은 전문대 졸업과 대학교 졸업이 각 38.6%, 37.4%로 유사하였다. 교사의 주중 1일 평균 근무시간은 약 10시간이었으며, 월 평균 주말 1일, 5.46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사-아동의 상호작용은 평균 4.27점으로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로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효능감은 평균 3.99점이었다. 주중 및 주말 평균 근로시간 등을 고려할 때, 아동과의 질 높은 상호작용과 교수-학습 준비를 위해 보조 인력 마련 등 교사의 업무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의 경우, 88.4%의 교사가 기관 내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아동이 기관 내 이용하는 프로그램 총 수는 평균 약 6개로 나타났으며, 종류별로 살펴보면 영어가 평균 1.04개로 가장 많았으며, 체육(0.97개), 음악(0.69개)순이었다. 아동이 일주일 동안 각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총 횟수와 시간도 영어가 3.10회, 76.06분으로 가장 많았다. 이처럼 기관 내 특별활동 이용률이 높고,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기관 내 특별활동 이용에 대한 학부모의 수요와 기관의 운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아동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요구된다.

7. 지역사회 특성

가. 거주 유형

거주 유형을 살펴보면 아파트 지역이 71.2%, 주택이 21.6%로, 전체 패널의 92.8%가 주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 학력과 가구소득에 따라 주거지역 유형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모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7-1〉 거주 유형

							단위: %(명)
구분	주택	아파트	상가·회사	공장(단)	농산·어촌	기타	계(수)
전체	21.6	71.2	2.3	0.8	4.1	-	100.0(1,565)
모 취/학업 여부						-	
취/학업	24.7	67.5	3.0	0.8	4.0	-	100.0(708)
미취/학업	19.2	74.3	1.8	0.9	3.9	-	100.0(833)
모 학력						-	
고졸이하	32.5	57.8	3.2	1.5	5.1	-	100.0(461)
전문대졸	21.3	70.8	1.7	0.9	5.3	-	100.0(429)
대졸이상	14.8	80.1	2.1	0.3	2.7	-	100.0(669)
가구 소득						-	
300만원 이하	31.3	58.5	2.1	0.8	7.3	-	100.0(430)
301~400만원	23.9	71.3	1.7	0.5	2.6	-	100.0(421)
401~500만원	15.1	79.5	1.6	1.3	2.5	-	100.0(348)
501만원 이상	13.7	78.2	3.8	0.8	3.5	-	100.0(366)
지역 규모						-	
서울특별시	48.6	47.7	2.4	0.2	1.1	-	100.0(210)
광역시	13.7	81.6	2.9	0.0	1.8	-	100.0(112)
도농복합시	14.9	77.8	1.8	1.1	4.4	-	100.0(885)
시	20.6	75.2	2.4	0.3	1.5	-	100.0(267)
군	17.0	56.4	5.1	2.5	18.9	-	100.0(91)

주: 통계값이 ‘-’로 표시된 일부 변수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분석이 불가함.

패널 아동 출산 후 이사 횟수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2.7%가 이사하지 않았고, 54.1%가 1회 또는 2회 이사하여 대부분 2회 이하로 이사하였다. 3회 이상 이사한 경우는 23.2%로 나타났다.

〈표 III-7-2〉 패널 아동 출산 후 이사 횟수

												단위: %(명), 번	
0	1	2	3	4	5	6	7	8	9	10	계(수)	평균	
22.7	31.0	23.1	11.2	6.8	2.4	1.6	1.0	0.3	0.0	0.0	100.0(1692)	1.69	

나. 육아 인프라

7차년도 조사에서는 육아 인프라에 관하여 보육·교육기관의 충분성, 공공 여가 공간·시설의 이용 편리성, 문화시설의 이용 편리성, 지역사회의 안전성 측면에서 질문하였다.

1) 보육·교육기관 충분성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육아 인프라를 알아보기 위하여 보육·교육기관 및 사교육 기관의 충분 정도, 공공 여가공간이나 시설, 문화시설 등의 이용 편리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보육·교육기관이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는 5점 척도에서 국공립 육아지원기관의 경우 2.77점, 민간 육아지원기관의 경우 3.13점, 사교육 기관의 경우 2.88점으로 나타나 민간 육아지원기관의 충분성 인식이 타 기관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7-3〉 보육·교육 기관 충분성(전체)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충분함	불충분함	보통임	충분함	매우 충분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국공립 육아지원기관	12.7	27.3	35.7	18.8	5.6	100.0(1,565)	2.77	1.07			
민간 육아지원기관	7.1	16.1	40.9	29.0	7.0	100.0(1,565)	3.13	1.00			
사교육기관	10.9	25.4	34.9	22.7	6.1	100.0(1,565)	2.88	1.07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 육아지원기관이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는 5점 척도에서 평균 2.77점으로, ‘충분하다’ 이상의 응답 비율은 24.4%였다. 육아지원기관 유형, 모 취/학업 여부, 모 학력,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지역 규모에 따른 국공립 육아지원기관의 충분성은 차이가 나타났는데, 지역 규모가 클수록 국공립 육아지원기관이 불충분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표 III-7-4〉 국공립 육아지원기관 충분성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충분함	불충분함	보통임	충분함	매우 충분함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7	27.3	35.7	18.8	5.6	100.0(1,565)	2.77	1.07
육아지원 기관 유형								
유치원	12.6	26.9	34.4	18.8	7.2	100.0(721)	2.81	1.10
어린이집	15.2	27.0	34.5	19.2	4.0	100.0(389)	2.70	1.07
반일제 이상	4.4	31.4	46.7	13.1	4.5	100.0(51)	2.82	0.88
$\chi^2(df)/F$	6.59(8)						0.53	
모 취/학업 여부								
취/학업	10.6	25.4	38.6	20.1	5.2	100.0(708)	2.84	1.03
미취/학업	14.4	28.3	33.7	17.6	6.1	100.0(833)	2.73	1.10
$\chi^2(df)/t$	2.91(4)						1.28	
모 학력								
고졸이하	15.8	23.2	37.3	19.1	4.6	100.0(461)	2.74	1.08
전문대졸	13.6	29.4	34.3	17.5	5.2	100.0(429)	2.71	1.07
대졸이상	10.1	28.7	35.5	19.2	6.5	100.0(669)	2.83	1.06
$\chi^2(df)/F$	8.62(8)						1.94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16.1	28.1	33.6	15.7	6.5	100.0(430)	2.68	1.11
301~400만원	15.0	27.9	34.9	17.3	4.9	100.0(421)	2.69	1.07
401~500만원	11.2	24.3	37.9	21.7	5.0	100.0(348)	2.85	1.04
501만원 이상	7.4	28.4	36.9	21.4	6.0	100.0(366)	2.90	1.01
$\chi^2(df)/F$	16.03(12)						1.84	
지역 규모								
서울특별시	16.1	33.0	33.7	14.3	2.9	100.0(210)	2.55	1.02
광역시	12.3	21.8	33.9	22.5	9.5	100.0(112)	2.95	1.12
도농복합시	11.8	25.5	37.8	20.2	4.6	100.0(885)	2.80	1.04
시	11.2	29.0	35.6	18.1	6.1	100.0(267)	2.79	1.06
군	14.9	28.4	24.3	16.1	16.2	100.0(91)	2.90	1.30
$\chi^2(df)/F$	33.95(16)**						1.90	

** $p < .01$.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민간 육아지원기관이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는 5점 척도에서 평균 3.13으로, ‘충분하다’ 이상의 응답 비율은 36.0%였다. 육아지원 기관 유형, 모 취/학업 여부, 가구 소득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모 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가 대졸 이상인 경우보다,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경우가 광역시나 도농복합시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민간 육아지원기관이 불충분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표 III-7-5〉 민간 육아지원기관 충분성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충분함	불충분함	보통임	충분함	매우 충분함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7.1	16.1	40.9	29.0	7.0	100.0(1,565)	3.13	1.00
육아지원 기관 유형								
유치원	6.8	17.3	39.1	28.6	8.2	100.0(721)	3.14	1.02
어린이집	8.1	17.1	39.7	29.4	5.7	100.0(389)	3.08	1.01
반일제 이상	2.2	11.6	61.3	17.6	7.2	100.0(51)	3.16	0.80
$\chi^2(df)/F$	7.37(8)						0.00	
모 취/학업 여부								
취/학업	6.2	15.4	41.9	29.9	6.6	100.0(708)	3.15	0.97
미취/학업	7.6	16.4	40.5	28.0	7.4	100.0(833)	3.11	1.02
$\chi^2(df)/t$	0.68(4)						0.33	
모 학력								
고졸이하	9.8	16.0	43.3	25.4	5.6	100.0(461)	3.01 ^a	1.02
전문대졸	7.8	17.5	39.4	27.3	8.0	100.0(429)	3.10 ^{ab}	1.03
대졸이상	4.7	15.5	40.4	32.2	7.2	100.0(669)	3.22 ^b	0.95
$\chi^2(df)/F$	15.07(8)						5.58 ^{**}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8.3	18.8	37.9	28.2	6.9	100.0(430)	3.07	1.04
301~400만원	8.2	13.8	46.8	24.1	7.0	100.0(421)	3.08	0.99
401~500만원	7.1	15.0	42.4	29.0	6.5	100.0(348)	3.13	0.98
501만원 이상	4.3	16.8	36.0	35.5	7.4	100.0(366)	3.25	0.96
$\chi^2(df)/F$	16.94(12)						1.68	
지역 규모								
서울특별시	9.7	20.2	45.5	20.5	4.1	100.0(210)	2.89 ^a	0.97
광역시	5.9	15.6	34.8	30.8	12.9	100.0(112)	3.29 ^b	1.06
도농복합시	5.9	15.8	40.0	31.9	6.4	100.0(885)	3.17 ^b	0.97
시	15.8	9.5	35.1	25.2	14.4	100.0(267)	3.15 ^{ab}	1.00
군	7.1	16.1	40.9	29.0	7.0	100.0(91)	3.13 ^{ab}	1.24
$\chi^2(df)/F$	59.15(16) ^{***}						4.14 ^{**}	

** $p < .01$, *** $p < .001$.

지역사회 사교육기관이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는 5점 척도에서 평균 2.88 점으로, '충분하다' 이상의 응답 비율은 28.8%였다. 모 취/학업 여부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육아지원기관 유형에 따라 유치원과 비교하여 어린이집이 불충분하고, 반일제 이상 기관은 더 충분하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어머니 학력과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사교육기관이 불충분하다고 인식하였으며, 나머지 지역 규모에 비해 군 단위에서 사교육기관이 불충분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7-6〉 사교육기관 충분성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충분함	불충분함	보통임	충분함	매우 충분함	계(수)	평균	표준편차
사교육기관	10.9	25.4	34.9	22.7	6.1	100.0(1565)	2.88	1.07
육아지원 기관 유형								
유치원	9.4	27.3	33.9	22.1	7.3	100.0(721)	2.91 ^a	1.07
어린이집	14.2	25.5	33.2	23.5	3.6	100.0(389)	2.77 ^a	1.07
반일제 이상	4.0	16.1	46.7	19.5	13.7	100.0(51)	3.23 ^b	1.01
$\chi^2(df)/F$	17.29(8) [*]						4.10 [*]	
모 취/학업 여부								
취/학업	8.9	24.4	38.8	21.8	6.0	100.0(708)	2.91	1.03
미취/학업	12.4	25.9	32.0	23.4	6.3	100.0(833)	2.85	1.10
$\chi^2(df)/t$	7.66(4)						1.35	
모 학력								
고졸이하	16.4	26.9	30.5	21.8	4.5	100.0(461)	2.71 ^a	1.11
전문대졸	10.0	32.1	35.2	18.0	4.7	100.0(429)	2.75 ^a	1.01
대졸이상	7.9	20.3	37.5	26.2	8.0	100.0(669)	3.06 ^b	1.05
$\chi^2(df)/F$	40.44(8) ^{***}						15.23 ^{***}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14.0	28.8	31.3	21.4	4.5	100.0(430)	2.73 ^a	1.08
301~400만원	14.1	21.8	37.9	20.9	5.2	100.0(421)	2.81 ^a	1.08
401~500만원	9.4	26.8	33.1	23.6	7.2	100.0(348)	2.92 ^{ab}	1.08
501만원 이상	5.0	24.3	37.2	25.7	7.8	100.0(366)	3.07 ^b	1.00
$\chi^2(df)/F$	30.25(12) ^{**}						6.53 ^{***}	
지역 규모								
서울특별시	12.3	20.9	37.6	24.5	4.7	100.0(210)	2.89 ^a	1.06
광역시	10.1	22.0	32.7	24.0	11.2	100.0(112)	3.04 ^a	1.14
도농복합시	9.0	27.7	33.9	24.0	5.3	100.0(885)	2.89 ^a	1.04
시	12.3	22.7	39.0	18.4	7.6	100.0(267)	2.86 ^a	1.09
군	21.3	28.9	26.1	17.2	6.4	100.0(91)	2.59 ^b	1.18
$\chi^2(df)/F$	43.21(16) ^{***}						4.44 ^{**}	

* $p < .05$, ** $p < .01$, *** $p < .001$.

2) 공공 여가 공간·시설 이용 편리성

지역사회의 공공 여가 공간·시설 이용이 편리한지 인식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5점 척도로 측정하고 1개월 평균 이용 일수를 조사하였다. 편리성 인식은 놀이터의 경우 평균 3.34점, 공원의 경우 3.12점, 산책로의 경우 3.17점인 것으로 나타나 놀이터 이용 편리성이 공원 및 산책로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용일은 놀이터가 평균 10.25일로, 공원(3.71일) 및 산책로(3.71일)에 비해 높았다.

〈표 III-7-7〉 여가 공간·시설 이용 편리성

단위: %(명), 점, 1개월 ()일

구분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계(수)	평균	표준편차	이용 일
놀이터	9.4	13.5	26.3	35.5	15.4	100.0(1,565)	3.34	1.17	10.25
공원	11.4	18.7	28.1	30.0	11.8	100.0(1,565)	3.12	1.18	3.71
산책로	10.0	18.0	28.6	31.8	11.5	100.0(1,565)	3.17	1.16	3.71

공공 여가시설인 놀이터 이용의 편리성 인식에서는 ‘편리한 편’이라는 응답이 35.5%로 가장 많았다. 놀이터 이용의 편리성에 대해 모 학력, 가구 소득, 지역 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어머니 학력과 가구 소득이 높고 지역 규모가 작을수록 놀이터 이용이 불편하다고 인식하였다. 놀이터 이용일에서도 취/학업 여부, 모 학력, 지역 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어머니가 미취/학업이고, 모 학력이 높을수록 놀이터 이용일수가 많았으며 광역시 및 군에서 여타 지역에 비해 놀이터 이용일수가 적었다.

〈표 III-7-8〉 놀이터 이용 편리성 및 평균 이용 일

단위: %(명), 점, 1개월 ()일

구분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계(수)	평균	표준편차	이용 일
전체	9.4	13.5	26.3	35.5	15.4	100.0(1,565)	3.34	1.17	10.25
모 취/학업 여부									
취/학업	9.8	13.5	25.2	36.4	15.1	100.0(708)	3.33	1.18	9.30
미취/학업	9.4	13.1	27.4	34.2	15.9	100.0(833)	3.34	1.17	11.02
$\chi^2(df)/t$	1.00(4)						0.47		-3.77**
모 학력									
고졸이하	16.8	17.8	28.8	26.7	9.9	100.0(461)	2.95 ^a	1.23	8.83 ^a
전문대졸	9.5	14.5	28.4	35.9	11.6	100.0(429)	3.26 ^b	1.13	9.61 ^a
대졸이상	4.7	10.0	23.4	40.7	21.2	100.0(669)	3.64 ^c	1.07	11.57 ^b
$\chi^2(df)/F$	93.10(8)***						45.00***		10.98***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15.7	15.3	26.2	30.5	12.3	100.0(430)	3.09 ^a	1.25	9.86
301~400만원	7.9	15.7	31.1	31.5	13.9	100.0(421)	3.28 ^b	1.13	10.44
401~500만원	7.5	12.1	26.6	37.0	16.8	100.0(348)	3.43 ^{bc}	1.13	9.93
501만원 이상	5.7	9.9	20.6	44.4	19.3	100.0(366)	3.62 ^c	1.08	10.77
$\chi^2(df)/F$	73.18(12)***						16.61***		0.76

(표 III-7-8 계속)

구분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계(수)	평균	표준편차	이용 일
지역 규모									
서울특별시	10.2	16.0	27.5	33.0	13.3	100.0(210)	3.23 ^a	1.17	10.57 ^a
광역시	7.0	4.7	29.3	39.8	19.2	100.0(112)	3.59 ^a	1.07	9.09 ^{ab}
도농복합시	9.1	14.6	24.3	38.0	14.0	100.0(885)	3.33 ^{ab}	1.16	10.23 ^a
시	5.2	9.6	27.6	34.3	23.3	100.0(267)	3.61 ^{ac}	1.10	11.88 ^a
군	25.4	16.6	33.3	18.7	6.0	100.0(91)	2.63 ^d	1.21	6.10 ^b
$\chi^2(df)/F$			73.61(16) ^{***}				13.76 ^{***}		9.02 ^{***}

 $p < .001$.

공공 여가시설인 공원 이용의 편리성 인식에서는 ‘편리한 편’이라는 응답이 30.0%로 가장 많았다. 공원 이용의 편리성에 대해 모 취/학업 여부, 모 학력, 가구 소득, 지역 규모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어머니가 취/학업 상태이고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공원 이용이 편리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지역규모에서는 군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공원 이용이 불편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공원 이용일에서 모 학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어머니 학력이 높을수록 공원 이용일이 많았다.

〈표 III-7-9〉 공원 이용 편리성

단위: %(명), 점, 1개월 ()일

구분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계(수)	평균	표준편차	이용 일
전체	11.4	18.7	28.1	30.0	11.8	100.0(1,565)	3.12	1.18	3.71
모 취/학업 여부									
취/학업	10.0	17.9	26.7	32.6	12.7	100.0(708)	3.20	1.17	3.20
미취/학업	12.5	19.5	29.0	27.8	11.3	100.0(833)	3.06	1.19	3.06
$\chi^2(df)/t$			11.61(4) [*]				3.03 ^{**}		-1.88
모 학력*									
고졸이하	19.2	21.9	29.6	22.4	6.9	100.0(461)	2.76 ^a	1.19	2.76 ^a
전문대졸	13.5	18.9	30.4	26.9	10.3	100.0(429)	3.01 ^b	1.19	3.01 ^{ab}
대졸이상	5.0	16.5	25.8	36.7	16.0	100.0(669)	3.42 ^c	1.09	3.42 ^b
$\chi^2(df)/F$			93.99(8) ^{***}				45.71 ^{***}		5.02 ^{***}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17.3	17.9	31.6	25.0	8.2	100.0(430)	2.89 ^a	1.20	2.89
301~400만원	12.8	23.1	24.9	27.4	11.8	100.0(421)	3.02 ^{ab}	1.22	3.02
401~500만원	8.1	19.6	27.2	32.0	13.1	100.0(348)	3.22 ^{bc}	1.15	3.22
501만원 이상	5.9	13.8	28.3	37.1	14.8	100.0(366)	3.41 ^c	1.08	3.41
$\chi^2(df)/F$			63.11(12) ^{***}				17.53 ^{***}		1.89

(표 III-7-9 계속)

구분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계(수)	평균	표준편차	이용 일
지역 규모									
서울특별시	8.1	26.1	23.8	31.3	10.6	100.0(210)	3.10 ^a	1.15	3.10 ^a
광역시	8.0	18.3	32.7	28.1	12.9	100.0(112)	3.20 ^{ab}	1.12	3.20 ^a
도농복합시	12.9	18.4	29.2	28.2	11.3	100.0(885)	3.07 ^{ab}	1.20	3.07 ^a
시	7.4	13.6	27.4	35.0	16.6	100.0(267)	3.40 ^a	1.13	3.40 ^a
군	22.8	16.1	26.5	30.3	4.3	100.0(91)	2.77 ^b	1.22	2.77 ^a
$\chi^2(df)/F$	43.50(16)***						6.99***		2.82*

주: F검정 사후분석 결과는 가중치를 적용한 평균값의 양상과 다를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균 값을 중심으로 해석하였음.

* $p < .05$, ** $p < .01$, *** $p < .001$.

공공 여가시설인 산책로 이용의 편리성 인식에서는 ‘편리한 편’이라는 응답이 31.8%로 가장 많았다. 산책로 이용의 편리성에 대해 모 학력, 가구 소득, 지역 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모 학력과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산책로 이용이 편리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지역규모에서는 군 지역 거주자가 지각한 산책로 이용의 편리성 정도가 가장 낮았다. 공원 이용일에서 모 학력과 지역 규모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어머니 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의 평균 이용일이 2.66일, 지역 규모가 군 단위인 경우의 평균 이용일이 3.22일로 가장 적었다.

〈표 III-7-10〉 산책로 이용 편리성

단위: %(명), 점, 1개월 ()일

구분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계(수)	평균	표준편차	이용 일
전체	10.0	18.0	28.6	31.8	11.5	100.0(1,565)	3.17	1.16	3.71
모 취/학업 여부									
취/학업	9.9	16.8	26.3	34.5	12.5	100.0(708)	3.23	1.17	3.63
미취/학업	10.1	18.9	30.4	29.5	11.0	100.0(833)	3.12	1.15	3.79
$\chi^2(df)/t$	7.04(4)						2.02 [*]		-0.86
모 학력									
고졸이하	14.3	25.3	30.0	23.3	7.1	100.0(461)	2.84 ^a	1.15	2.66 ^a
전문대졸	11.5	19.4	32.0	27.7	9.5	100.0(429)	3.04 ^b	1.14	3.53 ^b
대졸이상	6.3	12.5	25.7	39.8	15.7	100.0(669)	3.46 ^c	1.09	4.50 ^b
$\chi^2(df)/F$	89.11(8)***						41.75***		10.83***

(표 III-7-10 계속)

구분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계(수)	평균	표준편차	이용 일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14.4	20.4	31.5	25.0	8.6	100.0(430)	2.93 ^a	1.17	3.08
301~400만원	11.6	19.0	28.7	29.7	11.0	100.0(421)	3.09 ^{ab}	1.18	3.88
401~500만원	8.2	18.4	27.7	33.5	12.1	100.0(348)	3.23 ^{bc}	1.13	3.81
501만원 이상	4.8	13.7	25.9	40.7	15.0	100.0(366)	3.47 ^c	1.05	4.15
$\chi^2(df)/F$	57.74(12) ^{***}						18.15 ^{***}		2.24
지역 규모									
서울특별시	8.5	21.4	24.1	36.6	9.4	100.0(210)	3.17 ^a	1.13	3.60
광역시	9.2	12.5	27.4	39.4	11.6	100.0(112)	3.32 ^a	1.12	3.48
도농복합시	10.7	18.9	30.5	28.5	11.3	100.0(885)	3.11 ^{ab}	1.16	3.54
시	6.8	13.5	28.2	34.4	17.0	100.0(267)	3.41 ^a	1.12	4.59
군	19.2	19.1	26.3	31.7	3.9	100.0(91)	2.82 ^b	1.18	3.22
$\chi^2(df)/F$	35.53(16) ^{**}						5.94 ^{***}		2.79 [*]

* $p < .05$, ** $p < .01$, *** $p < .001$.

3) 문화시설 이용 편리성

문화시설 이용의 편리성 인식 및 이용일을 알아보기 위하여, 박물관, 미술관, 공연시설, 영화관, 장난감 대여센터, 도서관 이용의 편리성을 5점 척도로 측정하고 월 평균 이용일을 조사하였다. 평균적으로 박물관은 2.23점, 미술관은 2.08점, 공연시설은 2.35점, 영화관은 3.04점, 장난감 대여센터는 2.19점, 도서관 이용은 3.20점으로 나타나, 영화관과 도서관이 다른 문화시설에 비해 이용하기 편리하다고 인식되었다. 월 평균 이용일은 박물관이 0.38일, 미술관이 0.22일, 공연시설이 0.37일, 영화관이 0.65일, 장난감 대여센터가 0.11일, 도서관이 1.86일로 나타나 도서관 및 영화관이 월 평균 이용일에서도 높게 나타났다.

〈표 III-7-11〉 문화시설 이용 편리성(전체)

단위: %(명), 점, 1개월 ()일

구분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계(수)	평균	표준편차	월 평균 이용일
박물관 이용	28.3	35.1	23.6	11.0	2.0	100.0(1,565)	2.23	1.04	0.38
미술관 이용	33.0	36.4	21.4	8.2	1.1	100.0(1,565)	2.08	0.98	0.22
공연시설(음악회, 연극)	26.6	30.3	27.0	13.6	2.4	100.0(1,565)	2.35	1.08	0.37
영화관 이용	13.9	16.8	30.0	30.4	8.9	100.0(1,565)	3.04	1.18	0.65
장난감대여센터	29.7	33.5	26.3	9.1	1.5	100.0(1,565)	2.19	1.01	0.11
도서관이용	10.2	15.1	30.7	32.4	11.6	100.0(1,565)	3.20	1.14	1.86

박물관의 이용 편리성에 대해 63.4%가 ‘불편한 편임’ 이하로 응답하였다. 박물관 이용 편리성 인식에서 모 취/학업 여부, 모 학력, 가구 소득, 지역 규모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 박물관 이용 편리성을 더 높게 인식하였다. 또한 어머니 학력과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박물관 이용이 더 편리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지역 규모에서는 군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박물관 이용이 불편하다고 조사되었다.

〈표 III-7-12〉 박물관 이용 편리성

단위: %(명), 점, 1개월 ()일

구분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계(수)	평균	표준편차	이용 일
전체	28.3	35.1	23.6	11.0	2.0	100.0(1,565)	2.23	1.04	0.38
모 취/학업 여부									
취/학업	27.0	33.5	26.1	11.5	1.8	100.0(708)	2.28	1.04	0.31
미취/학업	29.2	36.4	21.5	10.8	2.2	100.0(833)	2.20	1.05	0.43
$\chi^2(df)/t$	9.57(4)*						2.70**		-1.26
모 학력									
고졸이하	36.0	31.5	23.9	8.2	0.4	100.0(461)	2.06 ^a	0.98	0.29 ^a
전문대졸	35.7	38.6	16.5	7.9	1.2	100.0(429)	2.00 ^a	0.97	0.27 ^a
대졸이상	18.9	35.0	27.9	14.7	3.5	100.0(669)	2.49 ^b	1.06	0.50 ^b
$\chi^2(df)/F$	70.98(8)***						31.64***		8.46***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38.4	32.1	20.7	7.4	1.3	100.0(430)	2.01 ^a	1.00	0.33
301~400만원	29.4	37.5	21.5	8.8	2.8	100.0(421)	2.18 ^b	1.04	0.35
401~500만원	23.8	35.7	24.3	14.7	1.5	100.0(348)	2.35 ^{bc}	1.04	0.42
501만원 이상	19.5	35.3	28.7	14.2	2.2	100.0(366)	2.44 ^c	1.03	0.42
$\chi^2(df)/F$	47.14(12)***						13.92***		1.25
지역 규모									
서울특별시	18.2	42.9	21.4	14.8	2.8	100.0(210)	2.41 ^a	1.03	0.47 ^a
광역시	27.5	37.0	25.3	8.1	2.2	100.0(112)	2.20 ^{ab}	1.00	0.25 ^a
도농복합시	30.4	34.2	23.6	10.3	1.4	100.0(885)	2.18 ^b	1.02	0.30 ^{ab}
시	21.7	34.4	28.7	11.6	3.7	100.0(267)	2.41 ^{ab}	1.06	0.55 ^{ac}
군	58.0	21.5	12.8	7.7	0.0	100.0(91)	1.70 ^c	0.96	0.46 ^a
$\chi^2(df)/F$	70.72(16)***						11.95***		4.80**

* $p < .05$, ** $p < .01$, *** $p < .001$.

미술관 이용 편리성에 대한 인식으로 ‘불편한 편임’ 이하 응답이 69.4%로 나타났다. 미술관 이용의 편리성은 모 취/학업 여부, 모 학력, 가구 소득, 지역 규모에 따라 유의미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 어머니

학력이 높은 경우, 가구 소득이 높은 경우 미술관 이용의 편리성도 높게 인식하였다. 지역 규모에서는 군 지역이 미술관 이용이 가장 불편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지역이 가장 편리하다고 응답하였다. 미술관 이용일은 모 학력 및 지역 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어머니 학력이 높을수록 미술관 이용일수가 많았으며, 지역규모에서는 광역시 및 도농복합시에서 이용일수가 유의미하게 낮고 서울특별시에서 이용일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7-13〉 미술관 이용 편리성

단위: %(명), 점, 1개월 ()일

구분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계(수)	평균	표준편차	이용 일
전체	33.0	36.4	21.4	8.2	1.1	100.0(1,565)	2.08	0.98	0.22
모 취/학업 여부									
취/학업	31.4	35.7	23.5	8.4	0.9	100.0(708)	2.12	0.98	0.18
미취/학업	34.1	36.8	19.7	8.1	1.3	100.0(833)	2.06	0.99	0.27
$\chi^2(df)/t$	6.95(4)						2.33*		-1.07
모 학력									
고졸이하	41.6	35.6	18.4	4.4	0.1	100.0(461)	1.86 ^a	0.87	0.17 ^a
전문대졸	39.4	38.8	15.8	5.2	0.9	100.0(429)	1.89 ^a	0.91	0.14 ^a
대졸이상	23.4	35.2	27.0	12.5	1.9	100.0(669)	2.34 ^b	1.03	0.31 ^b
$\chi^2(df)/F$	77.79(8)***						39.56***		7.16**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42.1	36.7	16.5	4.6	0.2	100.0(430)	1.84 ^a	0.87	0.17
301~400만원	35.8	37.7	20.4	4.7	1.4	100.0(421)	1.98 ^{ab}	0.94	0.20
401~500만원	29.0	35.1	22.0	13.2	0.7	100.0(348)	2.21 ^{bc}	1.03	0.24
501만원 이상	22.7	35.6	27.7	11.7	2.2	100.0(366)	2.35 ^c	1.03	0.30
$\chi^2(df)/F$	58.08(12)***						19.14***		1.46
지역 규모									
서울특별시	21.5	40.1	21.6	14.7	2.2	100.0(210)	2.36 ^a	1.04	0.38 ^a
광역시	27.6	37.1	28.5	6.6	0.2	100.0(112)	2.15 ^b	0.91	0.08 ^b
도농복합시	36.2	37.3	19.6	6.1	0.7	100.0(885)	1.98 ^b	0.93	0.14 ^b
시	24.3	36.0	28.0	9.7	1.9	100.0(267)	2.29 ^{ab}	1.00	0.31 ^{ab}
군	67.0	17.4	9.8	5.8	0.0	100.0(91)	1.54 ^c	0.89	0.40 ^{ab}
$\chi^2(df)/F$	112.64(16)***						21.72***		7.28***

* $p < .05$, *** $p < .001$.

공연시설 이용의 편리성에 대한 인식으로, ‘불편한 편임’ 이하 응답이 56.9%로 나타났다. 공연시설 이용의 편리성은 모 취/학업 여부, 모 학력, 가구 소득,

지역 규모에 따라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와 모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 공연시설 이용이 더 편리하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지역 규모가 군일 경우 공연시설 이용을 더 불편하게 인식하였다. 공연시설 이용일은 모 학력, 가구 소득, 지역 규모에 따라 유의미하게 달랐는데, 모 학력과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공연시설 이용일이 많았으며, 서울 특별시가 여타 지역에 비해 공연시설 이용일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7-14〉 공연시설(음악회, 연극 등) 이용 편리성

단위: %(명), 점, 1개월 ()일

구분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이용 일
전체	26.6	30.3	27.0	13.6	2.4	100.0(1565)	2.35	1.08	0.37
모 취/학업 여부									
취/학업	24.2	29.3	28.8	15.5	2.2	100.0(708)	2.42	1.08	0.34
미취/학업	28.3	31.1	25.8	12.1	2.7	100.0(833)	2.30	1.08	0.40
$\chi^2(df)/t$	12.98(4)*						3.41**		-1.10
모 학력									
고졸이하	32.6	35.6	22.6	8.1	1.0	100.0(461)	2.09 ^a	0.98	0.28 ^a
전문대졸	32.9	29.8	26.4	10.2	0.8	100.0(429)	2.16 ^a	1.02	0.32 ^{ab}
대졸이상	18.8	27.1	30.5	19.4	4.3	100.0(669)	2.63 ^b	1.12	0.45 ^b
$\chi^2(df)/F$	77.71(8)***						38.92***		4.18*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35.1	30.8	23.6	8.7	1.8	100.0(430)	2.11 ^a	1.04	0.30
301~400만원	29.0	34.3	26.3	8.0	2.4	100.0(421)	2.21 ^a	1.02	0.33
401~500만원	24.4	29.2	25.5	19.0	1.8	100.0(348)	2.45 ^b	1.11	0.43
501만원 이상	16.0	26.3	33.2	20.7	3.7	100.0(366)	2.70 ^c	1.08	0.44
$\chi^2(df)/F$	70.18(12)***						21.11***		3.31*
지역 규모									
서울특별시	19.8	28.0	31.0	17.2	3.9	100.0(210)	2.57 ^a	1.10	0.52
광역시	25.0	31.4	24.8	18.5	0.2	100.0(112)	2.38 ^{bc}	1.06	0.26
도농복합시	29.7	30.8	26.7	11.1	1.8	100.0(885)	2.25 ^c	1.05	0.32
시	16.7	30.7	29.3	18.7	4.5	100.0(267)	2.64 ^{ab}	1.10	0.43
군	49.0	30.8	15.0	5.2	0.0	100.0(91)	1.76 ^d	0.89	0.33
$\chi^2(df)/F$	87.45(16)***						20.03***		2.79*

* $p < .05$, ** $p < .01$, *** $p < .001$.

영화관 이용 편리성에 대한 인식은 ‘불편한 편임’ 이하 응답이 30.7%, ‘편리한 편임’ 이상 응답이 39.3%로, 편리하다는 응답이 다소 많았다. 영화관 이용

편리성은 모 취/학업 여부, 모 학력, 가구 소득, 지역 규모에 따라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 및 모 학력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영화관 이용이 편리하다고 응답하였다. 지역 규모에서는 군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불편하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도농복합시가 불편하다고 응답하였다. 영화관 이용일은 모 취/학업 여부, 가구 소득, 지역 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어머니가 취업하지 않은 경우 이용일이 다소 많았으며 모 학력과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영화관 이용일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규모에서는 군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영화관 이용일이 적었다.

〈표 III-7-15〉 영화관 이용 편리성

단위: %(명), 점, 1개월 ()일

구분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이용 일
전체	13.9	16.8	30.0	30.4	8.9	100.0(1,565)	3.04	1.18	0.65
모 취/학업 여부									
취/학업	11.9	16.5	28.2	32.9	10.5	100.0(708)	3.13	1.17	0.64
미취/학업	14.9	17.2	31.4	28.8	7.7	100.0(833)	2.97	1.17	0.66
$\chi^2(df)/t$	16.98(4)**						51.84**		7.59*
모 학력									
고졸이하	19.6	24.5	29.0	21.2	5.7	100.0(461)	2.69 ^a	1.17	0.56
전문대졸	16.9	17.7	30.8	27.0	7.4	100.0(429)	2.90 ^b	1.19	0.66
대졸이상	8.3	11.1	30.2	38.6	11.8	100.0(669)	3.35 ^c	1.09	0.71
$\chi^2(df)/F$	101.24(8)***						4.05***		-1.17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23.9	18.7	29.4	22.4	5.6	100.0(430)	2.67 ^a	1.22	0.56
301~400만원	9.7	19.3	36.5	26.3	8.3	100.0(421)	3.04 ^b	1.08	0.66
401~500만원	13.4	15.5	26.6	34.7	9.9	100.0(348)	3.12 ^b	1.19	0.68
501만원 이상	7.4	13.1	26.6	40.6	12.4	100.0(366)	3.37 ^c	1.09	0.71
$\chi^2(df)/F$	97.73(12)***						27.26***		3.31*
지역 규모									
서울특별시	7.3	6.9	35.0	39.1	11.7	100.0(210)	3.41 ^a	1.03	0.65 ^a
광역시	10.2	11.2	29.0	36.1	13.4	100.0(112)	3.31 ^a	1.15	0.76 ^a
도농복합시	14.3	21.3	28.5	29.0	7.0	100.0(885)	2.93 ^b	1.16	0.62 ^a
시	8.0	12.0	33.9	33.7	12.5	100.0(267)	3.31 ^a	1.09	0.81 ^a
군	49.3	25.5	20.2	2.9	2.0	100.0(91)	1.83 ^c	0.98	0.32 ^b
$\chi^2(df)/F$	191.34(16)***						44.93***		5.86***

* $p < .05$, ** $p < .01$, *** $p < .001$.

장난감 대여센터 이용 편리성에 대한 인식으로 ‘불편한 편임’ 이하 응답이 63.2%로 나타났다. 장난감 대여센터 이용의 편리성 인식은 모 취/학업 여부, 모 학력, 가구 소득, 지역 규모에 따라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 및 모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 장난감 대여센터 이용이 더욱 편리하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소득이 높을수록 장난감 대여센터 이용이 편리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군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장난감 대여센터 이용이 불편하다고 인식하였다. 이용일에서는 모 취/학업 여부, 모 학력, 가구 소득, 지역 규모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7-16〉 장난감 대여센터 이용 편리성

단위: %(명), 점, 1개월 ()일									
구분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이용 일
전체	29.7	33.5	26.3	9.1	1.5	100.0(1,565)	2.19	1.01	0.11
모 취/학업 여부									
취/학업	27.1	34.3	27.0	9.7	2.0	100.0(708)	2.25	1.02	0.09
미취/학업	31.7	33.1	25.5	8.7	1.0	100.0(833)	2.14	1.00	0.13
$\chi^2(df)/t$	9.20(4)						24.31**		0.95
모 학력									
고졸이하	35.7	33.1	24.3	6.0	0.9	100.0(461)	2.03 ^a	0.96	0.17
전문대졸	37.0	32.1	23.4	5.9	1.5	100.0(429)	2.03 ^a	0.99	0.12
대졸이상	21.5	34.3	29.5	13.1	1.7	100.0(669)	2.39 ^b	1.02	0.07
$\chi^2(df)/F$	54.534(8)**						2.97**		-3.0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39.0	28.8	26.8	5.0	0.4	100.0(430)	1.99 ^a	0.95	0.11
301~400만원	29.3	34.8	26.9	7.7	1.2	100.0(421)	2.17 ^{ab}	0.98	0.18
401~500만원	26.3	34.9	24.3	12.6	1.9	100.0(348)	2.29 ^{bc}	1.05	0.08
501만원 이상	22.2	36.0	27.0	12.2	2.6	100.0(366)	2.37 ^c	1.04	0.06
$\chi^2(df)/F$	48.85(12)**						12.09**		1.21
지역 규모									
서울특별시	22.6	30.0	28.8	15.3	3.3	100.0(210)	2.47 ^a	1.10	0.24
광역시	29.7	33.5	30.3	5.9	0.6	100.0(112)	2.14 ^b	0.93	0.10
도농복합시	29.8	35.6	24.9	8.7	1.0	100.0(885)	2.16 ^b	0.98	0.08
시	23.6	34.1	31.8	8.8	1.7	100.0(267)	2.31 ^{ab}	0.98	0.10
군	65.6	22.4	11.1	0.0	0.9	100.0(91)	1.48 ^c	0.76	0.05
$\chi^2(df)/F$	109.07(16)**						21.07**		1.71

** $p < .01$, *** $p < .001$.

도서관 이용 편리성에 대한 인식으로 ‘편리한 편임’ 이상 응답이 44.0%였다. 도서관 이용 편리성에 대한 인식은 모 취/학업 여부, 가구 소득, 지역 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취/학업 중이며 모 학력이 높을수록 도서관 이용이 더 편리하다고 응답하였다. 가구 소득 및 지역 규모와 관련하여, 가구 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와 군 지역인 경우 도서관 이용이 가장 불편하다고 인식하였다. 도서관 이용일은 모 취/학업 여부, 모 학력, 지역 규모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어머니가 취업하지 않고 모 학력이 높을수록 이용일이 유의하게 많았으며, 서울시의 도서관 이용일이 유의미하게 많고 광역시의 도서관 이용일이 유의미하게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7-17〉 도서관 이용 편리성

단위: %(명), 점, 1개월 ()일

구분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계(수)	평균	표준편차	이용 일
전체	10.2	15.1	30.7	32.4	11.6	100.0(1,565)	3.20	1.14	1.86
모 취/학업 여부									
취/학업	9.4	15.1	30.9	31.2	13.3	100.0(708)	3.24	1.15	1.40
미취/학업	10.8	15.2	31.1	32.6	10.3	100.0(833)	3.16	1.14	2.24
$\chi^2(df)/t$	3.21(4)						42.08**		8.65***
모 학력									
고졸이하	16.1	16.5	36.8	25.6	5.0	100.0(461)	2.87 ^a	1.12	1.29
전문대졸	10.9	17.9	31.2	29.9	10.2	100.0(429)	3.11 ^b	1.14	1.92
대졸이상	6.0	12.5	26.6	38.3	16.6	100.0(669)	3.47 ^c	1.09	2.20
$\chi^2(df)/F$	83.63(8)***						0.82		-5.14***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16.2	15.8	33.9	24.7	9.4	100.0(430)	2.95 ^a	1.20	2.06
301~400만원	9.1	14.7	34.5	32.4	9.3	100.0(421)	3.18 ^b	1.08	1.85
401~500만원	7.2	15.2	26.6	37.6	13.5	100.0(348)	3.35 ^b	1.11	1.93
501만원 이상	7.1	14.7	26.6	36.5	15.2	100.0(366)	3.38 ^b	1.12	1.58
$\chi^2(df)/F$	48.41(12)***						10.65***		1.12
지역 규모									
서울특별시	8.2	14.8	28.7	35.2	13.1	100.0(210)	3.30 ^a	1.12	2.23 ^a
광역시	10.2	15.8	34.1	28.1	11.8	100.0(112)	3.16 ^a	1.14	1.16 ^b
도농복합시	10.3	16.1	31.6	31.6	10.3	100.0(885)	3.16 ^a	1.13	1.73 ^{ab}
시	6.9	12.8	28.5	36.2	15.6	100.0(267)	3.41 ^a	1.11	2.28 ^{ab}
군	23.9	12.4	31.3	24.9	7.4	100.0(91)	2.80 ^b	1.26	1.61 ^{ab}
$\chi^2(df)/F$	43.40(16)***						8.65***		3.60**

** $p < .01$, *** $p < .001$.

4) 지역사회 안전성

가) 지역사회 치안에 대한 인식

지역사회 치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비교적 안전’ 이상 응답이 48.5%였으며, 5점 척도에서 평균 3.34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치안에 대한 인식은 모 학력과 가구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어머니 학력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지역사회 치안이 안전하다고 인식하였다.

〈표 III-7-18〉 지역사회 치안에 대한 인식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위험	비교적 위험	보통	비교적 안전	매우 안전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2.5	12.1	36.9	45.4	3.1	100.0(1,565)	3.34	0.83
모 취/학업 여부								
취/학업	2.5	11.8	36.7	45.2	3.7	100.0(708)	3.36	0.83
미취/학업	2.6	12.1	37.2	45.3	2.8	100.0(833)	3.34	0.82
$\chi^2(df)/t$	2.15(4)						0.15	
모 학력								
고졸이하	4.3	17.2	47.7	29.5	1.4	100.0(421)	3.06 ^a	0.83
전문대졸	2.8	12.3	42.3	40.8	1.8	100.0(429)	3.27 ^b	0.80
대졸이상	1.3	8.7	26.3	58.5	5.1	100.0(669)	3.57 ^c	0.78
$\chi^2(df)/F$	103.79(8) ^{***}						47.54 ^{***}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4.5	16.2	43.1	35.2	1.0	100.0(430)	3.12 ^a	0.85
301~400만원	2.8	11.2	38.6	44.0	3.4	100.0(421)	3.34 ^b	0.83
401~500만원	0.8	11.0	36.5	48.9	2.9	100.0(348)	3.42 ^{bc}	0.76
501만원 이상	1.7	9.3	27.8	55.6	5.6	100.0(366)	3.54 ^c	0.80
$\chi^2(df)/F$	57.69(12) ^{***}						16.17 ^{***}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5.1	9.2	38.0	43.9	3.9	100.0(210)	3.32	0.89
광역시	1.0	10.0	38.6	43.4	7.1	100.0(112)	3.46	0.81
도농복합시	1.3	13.4	37.0	46.1	2.2	100.0(885)	3.34	0.79
시	3.5	10.1	36.3	46.3	3.8	100.0(267)	3.37	0.85
군	5.2	16.6	32.2	43.3	2.7	100.0(91)	3.22	0.93
$\chi^2(df)/F$	21.21(16)						0.53	

*** $p < .001$.

나) 지역사회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

지역사회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비교적 안전’ 이상 응답이 40.4%로, 5점 척도에서 평균 3.18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은 모 학력과 가구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대졸 이상인 경우 지역사회 안전사고에 대하여 더 안전하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가구 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지역사회가 더 위험하다고 인식한 반면 501만원 이상인 경우 더 안전하다고 인식하였다.

〈표 III-7-19〉 지역사회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위험	비교적 위험	보통	비교적 안전	매우 안전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3.6	17.3	38.6	38.0	2.4	100.0(1,565)	3.18	0.87
모 취/학업 여부								
취/학업	3.2	16.5	39.6	38.1	2.6	100.0(708)	3.20	0.86
미취/학업	4.0	17.9	38.0	37.7	2.3	100.0(833)	3.16	0.89
$\chi^2(df)/t$	0.93(4)						0.62	
모 학력								
고졸이하	4.2	23.6	42.8	27.5	1.9	100.0(461)	2.99 ^a	0.87
전문대졸	5.5	19.0	40.4	33.6	1.5	100.0(429)	3.07 ^a	0.89
대졸이상	2.1	12.3	34.7	47.5	3.4	100.0(669)	3.38 ^b	0.82
$\chi^2(df)/F$	54.79(8) ^{***}						26.81 ^{***}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5.7	22.6	40.9	29.8	1.0	100.0(430)	2.98 ^a	0.89
301~400만원	4.8	18.0	38.5	36.0	2.7	100.0(421)	3.14 ^{ab}	0.91
401~500만원	1.7	14.3	41.0	40.1	2.9	100.0(348)	3.28 ^{bc}	0.81
501만원 이상	1.6	13.1	33.9	48.1	3.3	100.0(366)	3.38 ^c	0.81
$\chi^2(df)/F$	52.77(12) ^{***}						16.11 ^{***}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6.5	18.4	38.2	34.7	2.2	100.0(210)	3.08	0.93
광역시	2.5	13.5	42.4	35.3	6.4	100.0(112)	3.30	0.87
도농복합시	2.3	17.6	38.7	39.4	1.9	100.0(885)	3.21	0.84
시	4.5	14.6	40.7	37.5	2.7	100.0(267)	3.19	0.88
군	3.6	17.3	38.6	38.0	2.4	100.0(91)	3.10	1.00
$\chi^2(df)/F$	28.47(16) [*]						1.19	

* $p < .05$, *** $p < .001$.

다. 소결

7차년도 지역사회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주 유형에서 전체 패널의 92.8%가 아파트, 주택 등 주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 학력과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았다.

둘째, 육아인프라 중 보육·교육기관 충분성 인식은 민간 육아지원기관(5점 척도에서 3.13점), 사교육기관(2.88점), 국공립육아지원기관(2.77점)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보육·교육기관 충분성 인식에서 민간 육아지원기관 및 국공립육아지원기관은 지역 규모가 클수록 불충분하다고 인식하였으나, 사교육기관은 여타 지역보다 군 단위에서 불충분하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모 학력이 낮을수록 민간 육아지원기관 및 사교육기관이 불충분하다고 인식하였다.

넷째, 육아인프라 중 공공 여가 공간·시설 이용 편리성은 놀이터(3.34점), 산책로(3.17점), 공원(3.12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월 평균 이용일은 놀이터(10.25일), 공원 및 산책로(3.71일) 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공공 여가 공간·시설 이용 편리성 인식에서 일반적으로 가구 소득이 높고 모 학력이 높은 경우 공공 여가시설 이용이 더 편리하다고 인식하였다. 한편 이용일은 일반적으로 어머니 학력이 높을수록 이용일이 많았다.

여섯째, 육아인프라 중 문화시설 이용 편리성은 도서관(3.20점), 영화관(3.04점), 공연시설(2.35점), 박물관(2.33점), 장난감대여센터(2.19점), 미술관(2.08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월 평균 이용일은 도서관(1.86일), 영화관(0.65일), 박물관(0.38일), 공연시설(0.37일), 미술관(0.22일), 장난감대여센터(0.11일) 순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문화시설 이용 편리성 인식에서 일반적으로 모 학력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지역 규모가 클수록 문화시설 이용이 편리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이용일 역시 많았다.

여덟째, 육아인프라 중 지역사회 안정성에서 지역사회 치안에 대한 인식은 5점 척도에서 평균 3.34점, 지역사회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은 평균 3.18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홉째, 지역사회 안정성 인식에서 일반적으로 모 학력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지역사회가 치안 및 안전사고에 대하여 더 안전하다고 인식하였다.

8. 육아 정책 특성

가. 국가 지원

1) 육아지원정책 수혜율

패널 아동의 육아지원제도의 수혜 여부는 누리과정 제도의 수혜율이 95.2%로 가장 높았으며, 필수 예방접종(90.3%), 영유아 건강검진(89.8%)순으로 높았다.

〈표 III-8-1〉 육아지원 제도별 수혜율 1

							단위: %
구분	누리과정	양육수당	시간연장 보육료	아이돌봄 서비스	영유아 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	자녀세액공제
전체	95.2	10.1	8.0	1.5	89.8	90.3	40.9
아동 출생순위							
외동	93.6	11.8	8.2	1.6	88.7	83.6	32.2
첫째	95.6	11.4	8.0	1.4	91.5	92.9	43.1
둘째 이상	95.1	8.5	7.8	1.4	88.9	90.5	41.0
육아지원기관 유형							
유치원	98.8	6.0	10.9	1.4	91.4	91.6	42.3
어린이집	99.8	5.9	6.1	1.2	93.7	91.9	36.9
반일제 이상	41.7	67.7	1.0	1.1	84.3	87.6	47.9
모 취/학업 여부							
취/학업	96.7	9.2	8.5	1.6	90.1	90.3	46.1
미취/학업	93.7	10.9	7.7	1.5	89.9	90.5	36.5
모 학력							
고졸이하	97.7	7.7	11.2	1.5	90.8	90.4	29.2
전문대졸	94.9	10.8	6.0	0.7	88.9	89.8	42.2
대졸이상	93.6	11.3	7.3	2.0	90.1	90.9	47.9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97.1	13.3	7.8	2.7	90.5	93.0	28.1
301~400만원	96.7	7.2	6.8	1.1	90.8	89.4	40.0
401~500만원	94.4	8.5	9.9	0.9	88.8	87.1	45.4
501만원 이상	91.9	11.2	7.9	1.1	89.0	91.3	52.3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87.8	15.4	1.9	0.0	89.3	92.2	29.0
광역시	100.0	14.5	22.0	1.0	93.2	94.6	47.8
도농복합시	97.0	8.7	8.0	2.0	89.4	88.3	40.9
시	94.3	8.1	6.4	0.8	90.6	92.7	52.8
군	97.4	8.1	14.7	2.8	89.0	91.6	33.5

반면 장애아 보육·교육비,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인터넷 과몰입 치유 서비스의 수혜율은 1% 미만으로 나타났다.

〈표 III-8-2〉 육아지원 제도별 수혜율 2

구분	단위: %						
	인지능력 향상	영유아 발달지원	장애아 보/교육비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인터넷 과몰입 치유	영양플러스	방과후과정 지원비
전체	12.0	2.1	0.6	0.9	0.3	2.0	17.8
아동 성별							
남	12.9	2.0	0.7	1.0	0.3	2.1	18.6
여	11.1	2.2	0.5	0.8	0.2	1.8	17.0
아동 출생순위							
외동	12.7	2.9	1.1	0.9	0.5	3.3	3.3
첫째	13.5	2.1	0.4	1.3	0.3	2.2	2.2
둘째 이상	10.6	1.9	0.7	0.7	0.2	1.4	1.4
육아지원기관 유형							
유치원	12.6	2.3	0.7	1.2	0.5	2.2	2.2
어린이집	10.3	1.8	0.7	0.2	0.0	3.7	3.7
반일제 이상	3.7	3.4	0.0	0.0	0.0	0.0	0.0
모 취/학업 여부							
취/학업	10.6	2.7	0.8	0.9	0.5	1.8	1.8
미취/학업	12.8	1.7	0.5	1.0	0.1	2.2	2.2
모 학력							
고졸이하	15.5	3.4	1.1	0.9	0.7	3.8	3.8
전문대졸	11.4	1.5	0.2	1.2	0.0	0.7	0.7
대졸이상	10.0	1.6	0.6	0.8	0.1	1.6	1.6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17.4	2.6	0.9	1.2	0.6	3.6	3.6
301~400만원	15.3	3.1	0.4	1.6	0.2	1.9	1.9
401~500만원	10.0	1.2	1.0	0.8	0.3	1.4	1.4
501만원 이상	4.0	1.1	0.2	0.0	0.0	0.6	0.6
지역 규모							
서울특별시	12.9	3.0	0.3	0.3	0.0	3.0	3.0
광역시	7.7	1.3	0.6	0.0	0.0	0.6	0.6
도농복합시	13.6	1.7	0.7	1.0	0.3	2.2	2.2
시	7.6	3.2	0.6	1.2	0.4	0.4	0.4
군	12.5	0.8	0.8	2.6	0.8	2.9	2.9

육아지원제도의 지원유형을 조사한 결과 영유아 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장애아 보육·교육비 지원,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 서비스, 영양플러스 제도에서는 전액지원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과반수였고, 아동인지능력 향

상 서비스,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더 많았다.

〈표 III-8-3〉 육아지원제도 지원유형

구분	전액지원	일부지원	단위: %(명)
			계(수)
영유아 건강검진	97.2	2.8	100.0(1,462)
필수예방접종	86.4	13.6	100.0(1,465)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27.3	72.7	100.0(193)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	45.0	55.0	100.0(34)
장애아 보육·교육비 지원	76.3	23.7	100.0(11)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	37.8	62.2	100.0(15)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 서비스	59.3	40.7	100.0(5)
영양플러스	67.6	32.4	100.0(27)

2) 육아지원제도 도움 정도

패널 아동 부모가 국가의 육아지원제도를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지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높았으나,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 서비스’의 경우, ‘도움 되지 않음’ 이하의 응답이 43.3%로 비교적 도움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육아지원제도의 도움 정도는 평균적으로 5점 평정 척도에서 3.09점에서 4.16점까지 분포하였다.

〈표 III-8-4〉육아지원제도 도움정도

구분	단위: %(명), 점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혀 도움 되지 않음	도움 되지 않음	보통임	도움됨	매우 도움됨		
누리과정(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0.2	1.9	11.7	54.5	31.7	100.0(1,559)	4.16(0.71)
가정양육수당 지원	1.8	6.5	30.4	42.5	18.8	100.0(148)	3.70(0.91)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0.5	3.7	20.0	59.1	16.7	100.0(135)	3.88(0.74)
아이돌봄 서비스	0.0	0.1	0.0	1.0	0.4	100.0(26)	4.14(0.67)
영유아 건강검진	1.1	8.2	24.5	47.0	19.2	100.0(1,462)	3.75(0.90)
방과후과정 지원비	0.3	3.6	17.3	50.2	28.6	100.0(311)	4.03(0.79)
필수예방접종	0.1	1.7	13.6	56.8	27.8	100.0(1,465)	4.10(0.69)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0.0	4.9	25.5	52.3	17.3	100.0(193)	3.82(0.77)

(표 III-8-4 계속)

구분	전혀 도움 되지 않음	도움 되지 않음	보통임	도움됨	매우 도움됨	계(수)	평균 (표준편차)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	0.0	7.4	21.2	43.4	28.0	100.0(34)	3.92(0.88)
장애아 교육·교육비 지원	0.0	18.5	23.6	7.0	51.0	100.0(11)	3.90(1.22)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	0.0	17.7	20.4	51.2	10.8	100.0(15)	3.55(0.90)
인터넷 과몰입	0.0	43.3	22.3	16.3	18.1	100.0(5)	3.09(1.15)
아동·청소년 치유 서비스	0.0	43.3	22.3	16.3	18.1	100.0(5)	3.09(1.15)
영양플러스	0.0	5.9	6.8	37.0	50.4	100.0(27)	4.32(0.84)

3) 육아지원제도가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

국가의 육아지원제도에 따른 출산계획을 조사한 결과, 누리과정,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필수예방접종, 영양플러스 제도의 경우 출산 계획에 '예'라고 응답한 경우가 과반수였으나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방과후과정 지원비,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 장애아 교육·교육비 지원,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 서비스에 대해서는 '아니오'라는 응답이 과반수였다.

〈표 III-8-5〉 육아지원제도에 따른 출산계획

구분	예	아니오	단위: %(명), 점 계(수)
누리과정(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59.1	40.9	100.0(1,559)
가정양육수당 지원	51.4	48.6	100.0(148)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42.0	58.0	100.0(135)
아이돌봄 서비스	69.3	30.7	100.0(26)
영유아 건강검진	43.9	56.1	100.0(1,462)
방과후과정 지원비	44.2	55.8	100.0(311)
필수예방접종	50.3	49.7	100.0(1,465)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46.2	53.8	100.0(193)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	31.6	68.4	100.0(34)
장애아 교육·교육비 지원	28.2	71.8	100.0(11)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	31.7	68.3	100.0(15)
인터넷 과몰입	34.4	65.6	100.0(5)
아동·청소년 치유 서비스	34.4	65.6	100.0(5)
영양플러스	69.4	30.6	100.0(27)

나. 직장에서의 지원

1) 직장 내 육아지원제도의 필요성

직장에서 실시하는 육아지원제도의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육아지원제도에 대해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대체로 필요함' 이상의 응답을 한 경우가 과반수였으며, 5점 평정 척도에서 평균 점수는 항목별로 4.17점에서 4.80점 사이에 분포하였다. 직장 내 수유실 설치와 유급 수유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방식 필요성 육아지원제도 및 방식에 대하여 어머니의 필요성 인식이 아버지의 필요성 인식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III-8-6〉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방식 필요성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필요	대체로 불필요	보통	대체로 필요	매우 필요	계(수)	평균
어머니							
여성의 출산휴가	0.0	0.1	1.0	18.0	80.9	100.0(1,620)	4.80
여성의 육아휴직	0.1	0.1	2.0	19.5	78.4	100.0(1,620)	4.76
남성의 출산휴가	0.2	0.5	6.4	34.9	58.0	100.0(1,620)	4.50
남성의 육아휴직	0.3	1.5	12.4	42.3	43.4	100.0(1,620)	4.27
직장 어린이집	0.2	0.3	9.9	35.6	54.0	100.0(1,620)	4.43
보육비 지원	0.2	0.2	2.6	21.4	75.7	100.0(1,620)	4.72
수유실 설치	0.3	1.1	14.3	38.5	45.8	100.0(1,620)	4.28
유급 수유시간	0.2	1.3	15.1	41.2	42.2	100.0(1,620)	4.24
시차 출근제	0.1	1.0	10.3	37.2	51.4	100.0(1,620)	4.39
대체인력풀 운영	0.1	1.0	10.8	41.1	47.0	100.0(1,620)	4.34
근로시간 단축	0.2	0.7	8.2	36.0	54.9	100.0(1,620)	4.45
아버지							
여성의 출산휴가	0.5	0.1	3.4	18.0	78.0	100.0(1,483)	4.73
여성의 육아휴직	0.4	0.4	3.5	21.6	74.1	100.0(1,483)	4.68
남성의 출산휴가	0.8	4.7	19.7	37.2	37.5	100.0(1,483)	4.06
남성의 육아휴직	1.2	6.1	25.9	4.3	26.5	100.0(1,483)	3.85
직장 어린이집	0.6	1.2	11.8	34.0	52.5	100.0(1,483)	4.37
보육비 지원	0.8	0.5	3.0	18.5	77.2	100.0(1,483)	4.71
수유실 설치	0.6	1.7	10.8	33.2	53.8	100.0(1,483)	4.38
유급 수유시간	0.9	1.8	16.2	32.4	48.7	100.0(1,483)	4.26
시차 출근제	0.7	2.3	18.8	36.1	42.2	100.0(1,483)	4.17
대체인력풀 운영	0.8	2.0	18.1	38.2	41.0	100.0(1,483)	4.17
근로시간 단축	0.6	1.9	15.9	36.4	45.2	100.0(1,483)	4.24

2) 가장 필요한 직장 내 육아지원제도 (1~3순위)

직장 내 육아지원제도 중 가장 필요한 세 가지를 우선순위로 질문한 결과,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1순위로 '여성의 출산휴가'를 선택하였다. 그 정도는 어머니의 경우 전체의 69.7%, 아버지의 경우 48.9%로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높았다. 육아지원제도 중 2순위는 '여성의 육아휴직'이었고, 그 비율은 어머니가 54.5%, 아버지가 39.7%로 어머니의 경우가 더 높았다. 3순위로 '보육비 지원'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으며, 어머니의 경우 전체의 37.7%, 아버지의 경우 23.5%로 어머니의 경우가 더 높았다.

〈표 III-8-7〉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방식 필요 순위

구분	단위: %(명)					
	1순위		2순위		3순위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여성의 출산휴가	69.7	48.9	10.0	12.3	4.4	5.5
여성의 육아휴직	14.1	12.3	54.5	39.7	8.7	12.5
남성의 출산휴가	0.7	6.4	5.5	4.9	7.4	11.1
남성의 육아휴직	0.6	3.5	3.1	6.2	5.2	6.5
직장 어린이집	1.8	4.9	6.3	7.3	10.8	10.1
보육비 지원	10.0	19.4	13.5	15.8	37.7	23.5
수유실 설치	0.0	0.1	0.4	0.2	0.8	1.1
유급 수유시간	0.1	0.1	0.1	0.2	0.9	0.4
시차 출근제	1.4	1.6	3.9	6.7	8.3	10.7
대체인력풀 운영	0.8	1.4	0.8	2.6	3.5	4.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0.8	1.4	2.1	4.2	12.4	14.2
계(수)	100.0 (1,619)	100.0 (1,483)	100.0 (1,619)	100.0 (1,483)	100.0 (1,619)	100.0 (1,483)

다. 보육·교육 정책

1) 보육·교육 정책 인지도

현재 시행 중이거나 시행 계획 중인 보육·교육 관련 정책 방안에 대해 패널 아동 아버지의 인지도를 조사하였다. 가정양육수당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83.1%로, 누리과정/보육료 및 유아 학비(91.0%)에 비해 다소 낮았다. 가정양육수당 및 누리과정/보육료, 유아학비에 대한 아버지 인지도에서 모 취/학업 여부 및 지역 규모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8-8〉 보육·교육 정책 인지도

단위: %(명)

구분	가정양육수당			누리과정/보육료, 유아학비		
	예	아니오	계(수)	예	아니오	계(수)
전체	83.1	16.9	100.0(1,483)	91.0	9.0	100.0(1,483)
모 취/학업 여부						
취/학업	81.7	18.3	100.0(654)	89.2	10.8	100.0(654)
미취/학업	84.4	15.6	100.0(801)	92.1	7.9	100.0(801)
$\chi^2(df)$		1.02(1)			1.67(1)	
지역 규모						
서울특별시	85.9	14.1	100.0(192)	91.7	8.3	100.0(192)
광역시	85.0	15.0	100.0(108)	88.4	11.6	100.0(108)
도농복합시	81.6	18.4	100.0(849)	92.5	7.5	100.0(849)
시	83.9	16.1	100.0(248)	87.4	12.6	100.0(248)
군	84.7	15.3	100.0(86)	90.0	10.0	100.0(86)
$\chi^2(df)$		1.20(4)			8.26(4)	

2) 보육·교육 정책의 필요성

패널 아동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실시하는 보육·교육 정책의 필요성을 알아본 결과, 가정양육수당과 누리과정/보육료, 유아학비에 대하여 ‘매우 필요하다’는 견해가 각각 63.3%와 72.1%로 가장 높았다.

〈표 III-8-9〉 육아지원정책 필요성: 전체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필요	대체로 불필요	보통	대체로 필요	매우 필요	계(수)	평균 (표준편차)
가정양육수당	2.8	2.3	7.1	24.6	63.3	100.0(1,483)	4.43(0.93)
누리과정/보육료, 유아학비	2.8	1.0	3.6	20.6	72.1	100.0(1,483)	4.58(0.84)

소득별 필요성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소득 수준에 따라 가정양육수당과 누리과정/보육료, 유아학비 필요성 인식이 유의미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가정양육수당과 누리과정/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였다.

〈표 III-8-10〉 육아지원정책 필요성: 소득별

단위: %(명)

구분	매우 불필요	대체로 불필요	보통	대체로 필요	매우 필요	계(수)	평균 (표준편차)
가구 소득							
가정양육 수당	300만원 이하	3.4	1.1	5.6	22.4	67.5	100.0(410) 4.50(0.91)
	301~400만원	2.1	2.4	7.9	20.1	67.5	100.0(401) 4.48(0.90)
	401~500만원	3.4	2.9	6.6	25.4	61.7	100.0(333) 4.39(0.98)
	501만원 이상	2.2	3.0	8.2	31.9	54.6	100.0(339) 4.34(0.91)
$\chi^2(df)/F$			32.84(12)**			2.01	
가구 소득							
누리과정/ 보육료, 유아학비	300만원 이하	3.2	0.5	2.25	16.4	77.4	100.0(410) 4.64(0.84)
	301~400만원	2.4	0.8	3.9	17.9	75.0	100.0(401) 4.62(0.81)
	401~500만원	3.0	1.5	2.2	21.7	71.6	100.0(333) 4.57(0.86)
	501만원 이상	2.6	1.1	6.0	27.8	62.5	100.0(339) 4.46(0.86)
$\chi^2(df)/F$			32.84(12)**			2.38	

** $p < .01$.

3) 보육·교육 정책이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

이어서, 패널 아동 아버지를 대상으로 보육·교육 정책이 출산계획에 영향력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가정양육수당에 대해서는 57.3%가, 누리과정/보육료, 유아학비에 대해서는 62.5%가 이후 출산 계획에 영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두 정책 모두에 대하여 모 취/학업 여부, 모 학력, 가구 소득에 따라서 응답에 차이가 있었는데, 모가 취업하지 않은 경우와 모 학력이 낮을수록,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두 정책이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표 III-8-11〉 보육·교육 정책이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

단위: %(명)

구분	가정양육수당			누리과정/보육료, 유아학비		
	예	아니오	계(수)	예	아니오	계(수)
전체	57.3	42.7	100.0(1,483)	62.5	37.5	100.0(1,483)
모 취/학업 여부						
취/학업	53.5	46.5	100.0(654)	59.5	40.5	100.0(654)
미취/학업	59.9	40.1	100.0(801)	64.5	35.5	100.0(801)
$\chi^2(df)$			7.02(1)**	4.91(1)*		

(표 Ⅲ-8-11 계속)

구분	가정양육수당			누리과정/보육료, 유아학비		
	예	아니오	계(수)	예	아니오	계(수)
모 학력						
고졸이하	65.5	34.5	100.0(432)	69.2	30.8	100.0(432)
전문대졸	58.6	41.4	100.0(406)	64.4	35.6	100.0(406)
대졸이상	50.9	49.1	100.0(634)	56.9	43.1	100.0(634)
$\chi^2(df)$	23.09(2)***			18.49(2)***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69.9	35.1	100.0(410)	70.7	29.3	100.0(410)
301~400만원	55.2	44.8	100.0(401)	60.7	39.3	100.0(401)
401~500만원	58.0	42.0	100.0(333)	62.6	37.4	100.0(333)
501만원 이상	49.7	50.3	100.0(339)	54.4	45.6	100.0(339)
$\chi^2(df)$	20.40(3)***			20.84(3)***		

* $p < .05$, ** $p < .01$, *** $p < .001$.

라. 소결

7차년도 육아정책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지원에서 육아지원정책 수혜율은 누리과정 제도(95.2%), 필수 예방접종(90.3%), 영유아 건강검진(89.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때 지원유형은 영유아 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등 5개 정책에서는 전액 지원이 과반수 응답,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등 3개 정책에서는 일부 지원이 과반수 응답을 차지하였다.

둘째, 육아지원제도의 도움 정도는 평균적으로 5점 평정 척도에서 3.09-4.16점으로,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 서비스를 제외하고 ‘도움됨’ 이상의 비율이 높았다.

셋째, 육아지원제도가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은 누리과정, 가정양육수당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5개 제도에 대하여 ‘예’라는 응답이 과반수였으나 시간연장형 보육료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방과 후 과정 지원비 등 8개 제도에 대하여 ‘아니오’라는 응답이 과반수였다.

넷째, 직장에서의 지원에서 직장 내 육아지원제도의 필요성은 평균 4.17점에서 4.8점 사이에 분포하였으며,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높은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다섯째, 가장 필요한 직장 내 육아지원제도는 여성의 출산휴가(어머니 69.7%,

아버지 48.9%), 여성의 육아휴직(어머니 54.5%, 아버지 39.7%), 보육비 지원(어머니 37.7%, 아버지 23.5%) 순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보육·교육 정책에서 패널 아동 아버지의 보육·정책 인지도는 누리과정/보육료 및 유아학비는 91.0%, 가정양육수당은 83.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패널 아동 아버지가 인식한 보육·교육 정책 필요성은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누리과정/보육료, 유아학비의 경우 72.1%, 가정양육수당의 경우 63.3%로 가장 많았으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더욱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여덟째, 보육·교육 정책이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은 누리과정/보육료, 유아학비의 경우 62.5%, 가정양육수당의 경우 57.3%가 영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모가 취/학업하지 않은 경우 및 모 학력과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 이러한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IV. 2008-2014년도 영유아기 주요 변인 추이 분석

4장은 한국아동패널의 1~7차년도 조사에 모두 참여한 1,416가구를 기반으로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하여 추정한 결과이다. 모수 추정을 위하여 비율(%)과 평균값은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가독성을 고려하여 사례수(명)는 가중치를 미적용한 수치를 제시하였다.

1. 아동 특성

가. 일상생활

1) 식습관

가정과 기관에서의 아동의 식습관과 관련하여 식사량의 일정한 정도와 식사 속도, 편식 정도를 3차년에 걸쳐 조사하였다. 기관에서의 식습관은 또래와 비교했을 때의 식습관을 의미하는 것이며, 식사 양은 먹는 양을 의미한다. 가정에서의 식사 양은 만 4세(5차)에 평균 3.62점, 만 5세(6차)에 평균 3.69점, 만 6세(7차)에 평균 3.92점으로 점차 일정해지는 패턴을 보였다.

기관에서의 식사 양은 만 4세에 평균 3.06점, 만 5세에 평균 3.05점에서 만 6세에 평균 3.14점으로 만 4~5세에 비해 만 6세의 식사 양이 상대적으로 더 많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정에서의 식사 속도의 경우, 만 4세의 평균이 2.67점, 만 5세의 평균이 2.77점, 만 6세의 평균이 2.96점으로 점차 속도가 빨라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기관에서의 식사 속도 또한 3차년에 걸쳐 빨라지는 패턴을 보였다.

편식의 경우, 5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음식을 가리지 않고 골고루 먹는 것을 의미하는데, 가정과 기관에서 모두 아동의 편식 정도가 3차년에 걸쳐 점차 줄어드는 패턴을 보였다.

〈표 IV-1-1〉 가정/기관에서의 아동의 식습관: 식사 양, 식사 속도, 편식

단위: 점(명)

구분	식사 양			식사 속도			편식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가정	4세(5차)	3.62	0.78	(1,399)	2.67	0.80	(1,398)	3.18	0.98	(1,395)
	5세(6차)	3.69	0.74	(1,379)	2.77	0.80	(1,380)	3.25	0.96	(1,380)
	6세(7차)	3.92	0.71	(1,416)	2.96	0.87	(1,416)	3.45	1.01	(1,416)
기관	4세(5차)	3.06	0.69	(872)	2.75	0.80	(872)	3.32	1.05	(872)
	5세(6차)	3.05	0.73	(1,070)	2.80	0.83	(1,070)	3.40	1.07	(1,070)
	6세(7차)	3.14	0.74	(1,068)	2.96	0.82	(1,068)	3.58	1.06	(1,068)

이어서 가정에서의 아동의 식사시간이 규칙적인지, 엄마의 도움 없이 혼자서도 식사를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 3차년에 걸쳐 연속적으로 질문하였다. 그 결과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정도는 만 4세(5차)의 경우 평균 3.72점, 만 5세는 3.86점, 만 6세의 경우 4.04점으로, 성장할수록 점차 가정에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 4세의 식습관 자립도는 평균 3.36점이고, 만 5세는 평균 3.68점, 만 6세는 평균 3.98점으로 나타나, 시간이 흐를수록 아동이 엄마의 도움 없이 식사를 혼자서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2〉 가정에서의 아동의 식습관: 규칙적 식사, 식습관 자립도

단위: 점(명)

구분	규칙적 식사			식습관 자립도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4세(5차)	3.72	0.76	(1,399)	3.36	0.96	(1,399)
5세(6차)	3.86	0.74	(1,380)	3.68	0.91	(1,378)
6세(7차)	4.04	0.66	(1,416)	3.98	0.75	(1,416)

하루에 평균적으로 아동이 집에서 간식을 먹는 횟수와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외식을 하는 횟수를 질문한 결과, 만 4세일 때 1일 1회 간식을 먹는 경우가 43.2%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1일 2회 먹는 경우가 40.1%로 높게 나타났다. 만 5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1일 1회 먹는 경우가 46.6%로 가장 많았고, 1일 2회 먹는 경우가 41.6%로 높게 나타났다. 만 6세의 경우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간식을 하루에 한 번 먹는 경우가 전체 52.2%로 가장 높았으나 1일 2회 먹는 경우는 27.8%로 다소 줄었고, 간식을 거의 먹지 않는 경우가 4.3%, 1일 4

회 이상 먹는 경우는 9.0%로 나타나 만 45세에 비해 그 비율이 증가하였다.

가족의 외식 횟수(배달음식 포함)의 경우,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1~2회 정도 외식을 한다는 비율이 만 4세의 경우 62.3%로 가장 많았으며, 만 5세와 6세 또한 전체 65.9%, 67.9%로 가장 높았다.

〈표 IV-1-3〉 가정에서의 간식/외식 횟수

구분	간식 횟수						외식 횟수(배달 음식 포함)					
	거의 안 함	1일 1회	1일 2회	1일 3회	1일 4회 이상	계(수)	거의 안 함	주 1-2회	주 3-5회	주 6-7회	주 8회 이상	계(수)
4세(5차)	1.6	43.2	40.1	10.1	5.1	100.0(1,396)	34.0	62.3	3.5	0.1	0.0	100.0(1,396)
5세(6차)	2.1	46.6	41.6	6.6	3.1	100.0(1,381)	29.3	65.9	4.2	0.2	0.3	100.0(1,381)
6세(7차)	4.3	52.2	27.8	6.7	9.0	100.0(1,416)	23.6	67.9	7.7	0.4	0.4	100.0(1,416)

2) 미디어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주일간 컴퓨터, 개인 게임기 및 휴대폰을 얼마나 이용했는지 주간 미디어 이용 정도를 질문하였다. 만 4세 시기(5차)에는 휴대폰(스마트폰)이용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컴퓨터(인터넷)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V 시청 정도를 함께 질문한 만 5세 시점(6차)에는 TV시청이 평균 3.59점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미디어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휴대폰을 많이 사용했다. 만 6세 시점(7차) 또한 TV시청 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휴대폰, 컴퓨터(인터넷), 개인 게임기 순으로 이용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1-4〉 아동의 주간 미디어 이용 정도

구분	컴퓨터(인터넷)			개인 게임기			휴대폰(스마트폰 등)			TV 시청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4세(5차)	2.47	1.18	(436)	1.59	0.99	(436)	2.87	1.12	(436)	-	-	-
5세(6차)	1.54	0.78	(1,308)	1.15	0.48	(1,308)	2.08	0.96	(1,308)	3.59	1.04	(1,308)
6세(7차)	1.69	0.90	(1,328)	1.25	0.64	(1,328)	2.33	1.08	(1,328)	3.50	1.08	(1,328)

3) 수면

아동이 밤잠에 드는 시간(취침 시각)과 일어나는 시간(기상 시각)을 5차년에 걸쳐 조사한 결과, 만 2세에서 만 6세까지 평균적으로 저녁 9시 45분에서 10시 사이에 잠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 2세에서 만 6세까지 평균적으로 오전 7시 30분에서 8시 사이에 기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만 2세의 경우 평균 기상 시각이 7시 56분으로 가장 늦었고, 만 5세의 평균 기상 시각이 7시 36분으로 가장 빨랐다.

〈표 IV-1-5〉 아동의 취침 및 기상 시각

단위: 시:분(명)

구분	취침 시각			기상 시각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2세(3차)	21:57	1:57	(1,393)	7:56	0:52	(1,393)
3세(4차)	21:55	0:56	(1,416)	7:49	0:44	(1,416)
4세(5차)	21:45	0:47	(1,414)	7:43	0:37	(1,415)
5세(6차)	21:42	0:51	(1,416)	7:36	0:38	(1,416)
6세(7차)	21:51	0:56	(1,416)	7:39	0:34	(1,416)

아동이 밤잠을 자다가 깨는지, 깨지 않고 잘 자는지를 토대로 숙면 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만 2세에서 6세까지 걸쳐 평균적으로 밤에 깨지 않고 잘 자는 아동이 밤에 자다가 깨는 아동보다 더 많았다. 특히, 만 2세(3차)의 경우 밤에 자다가 깨는 경우가 33.9%로 가장 많았으나 그 비율은 만 3세에 12.4%로 줄어들었으며, 만 6세에 밤잠 자다가 깨는 경우가 11.1%로 가장 낮았다.

〈표 IV-1-6〉 아동의 숙면 여부

단위: %(명)

구분	예(밤잠 자다 깨지 않음)	아니오(밤잠 자다가 깸)	계(수)
2세(3차)	66.1	33.9	100.0(1,393)
3세(4차)	87.6	12.4	100.0(1,416)
4세(5차)	87.4	12.6	100.0(1,416)
5세(6차)	87.4	12.6	100.0(1,416)
6세(7차)	88.9	11.1	100.0(1,416)

4) 일과 활동 시간

유아의 하루 일과 시간을 24시간을 기준으로 질문하였으며, 만 4세에서 6세까지의 3차년에 걸쳐 조사하였다. 만 4세의 경우 하루 일과 중, 수면 시간이 평균 9.93시간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과 같은 보육·교육 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평균 6.72시간으로 많았다. 장난감 놀이와 책보기 등을 하며 실내놀이를 하는 시간은 평균 2.13시간이었으며, 집에서 낮잠 자는 시간이 0.15시간으로 가장 적었다. 만 5세의 경우, 수면시간은 평균 9.88시간으로 만 4세의 수면시간보다 다소 줄었으나 하루 일과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활동이었으며, 이어서 보육·교육 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평균 7.05시간으로 많았다. 만 6세 또한 만 4·5세와 마찬가지로 수면시간(평균 9.78시간), 보육·교육 기관에서 보내는 시간(평균 7.08시간), 실내놀이 시간(평균 1.88시간) 순으로 높게 조사되었는데, 이전시기와 비교했을 때 수면 시간과 실내놀이 시간은 만 4세에서 6세로 갈수록 감소하고, 보육·교육 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은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다.

〈표 IV-1-7〉 유아의 하루 일과 시간

단위: 시간(명)

구분	4세(5차)			5세(6차)			6세(7차)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①	9.93	0.78	(1,416)	9.88	0.74	(1,416)	9.78	0.69	(1,416)
②	6.72	1.84	(1,413)	7.05	1.47	(1,416)	7.08	1.32	(1,415)
③	0.48	0.62	(1,416)	0.46	0.53	(1,416)	0.85	0.73	(1,416)
④	1.59	0.96	(1,416)	1.54	0.93	(1,416)	1.42	0.80	(1,416)
⑤	2.13	1.23	(1,416)	2.10	1.12	(1,416)	1.88	1.00	(1,416)
⑥	1.18	0.87	(1,416)	1.13	0.78	(1,416)	1.11	0.74	(1,416)
⑦	1.37	0.62	(1,382)	1.40	0.59	(1,416)	1.36	0.56	(1,416)
⑧	0.15	0.46	(1,416)	0.04	0.24	(1,416)	0.04	0.21	(1,416)
⑨	0.48	0.88	(1,416)	0.39	0.66	(1,416)	0.48	0.77	(1,416)

주: ① 수면시간 ②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과 같은 보육·교육 기관 이용 시간
 ③ 개인, 그룹 지도, 학습지 등의 개인 교육시간(5차의 경우 기타 학원이나 개인레슨 이용, 학습지 등 집에서 하는 학습활동 시간을 합한 값임) ④ 시청각 프로그램, 인터넷, 전자기기 사용시간 ⑤ 장난감 놀이, 책보기 등 실내놀이 ⑥ 바깥놀이 및 외출 ⑦ 식사, 간식 먹기, 씻기, 옷 입기 등의 기본생활 시간 ⑧ 집에서 자는 낮잠 시간 ⑨ 기타 시간

나. 신체 특성

패널 아동의 영유아기 평균 체중과 신장은 <표 IV-1-8>과 같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표준편차 또한 점차 커지고 있어 아동 간 편차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체중은 만 0세에서 만 1세가 되는 시점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다가 이후에는 매해 2~3kg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신장은 만 1세가 될 때 대폭 증가하다가 약 5~10cm씩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표 IV-1-8〉 아동의 체중 및 신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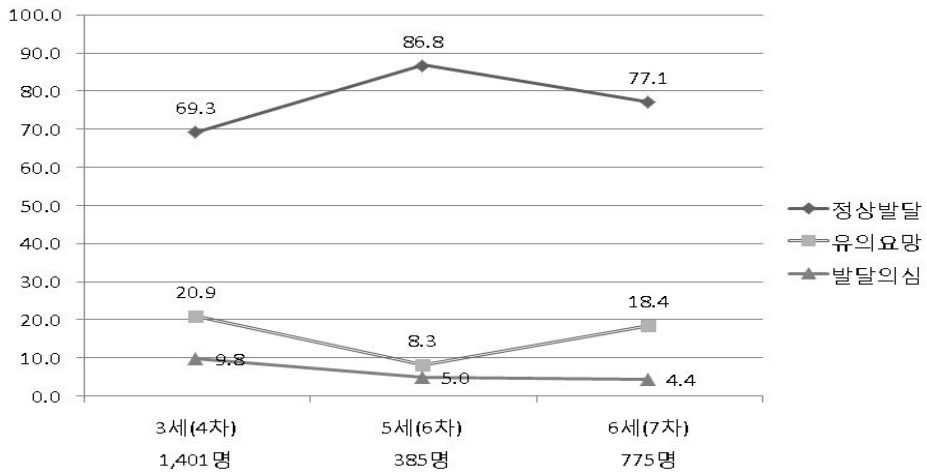
단위: kg, cm(명)

구분	체중					신장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수)
0세(1차)	3.26	0.42	1.2	4.9	(1,414)	50.25	2.59	35.0	60.0	(1,249)
1세(2차)	10.08	1.12	5.7	13.5	(1,278)	77.03	3.83	60.0	94.0	(846)
2세(3차)	12.47	1.42	7.0	21.0	(1,372)	88.49	4.90	68.0	110.0	(1,116)
3세(4차)	14.72	1.69	10.0	21.0	(1,416)	96.57	3.71	85.0	111.0	(1,415)
4세(5차)	16.93	2.13	11.0	29.6	(1,416)	103.57	4.20	85.0	125.0	(1,416)
5세(6차)	19.19	2.70	11.0	34.5	(1,411)	109.99	4.48	97.0	130.0	(1,408)
6세(7차)	22.14	3.79	14.7	55.0	(1,360)	117.07	4.78	103.0	145.0	(1,357)

다. 언어 발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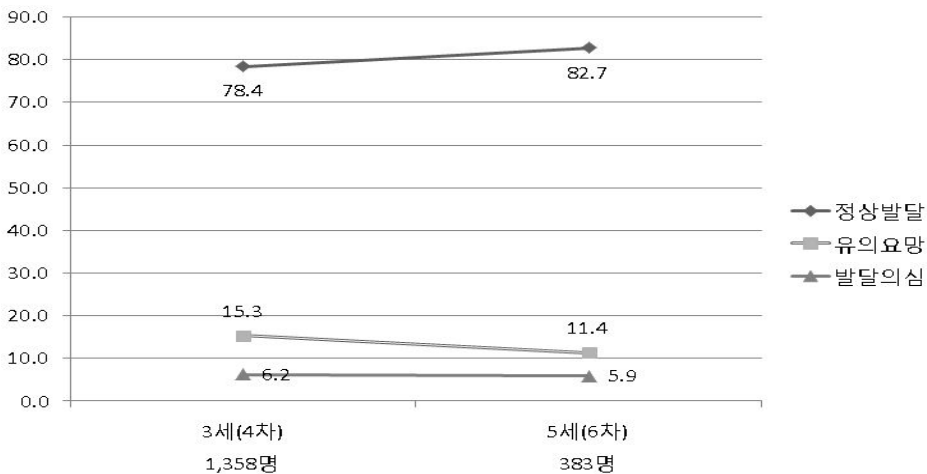
아동의 언어 발달 중에서 어휘력 발달에 관한 검사는 2011년(4차 조사)과 2013년(6차 조사), 2014년(7차 조사)에 걸쳐 총 3회 실시되었다. 이 중 2013년 검사는 본 조사 이후에 2차 심층조사 대상자를 선별하여 이루어진 결과이며, 2014년에는 표현 어휘력 검사만 실시되었다. REVT는 피검사자의 생활연령에 따라 정상성 판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아동의 연령에 따른 어휘력 발달은 이 기준을 참조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표현 어휘력 발달에 대한 정상성 기준 분포 결과는 아래 [그림 IV-1-1]과 같다. 4차 조사에 참여한 만 3세 아동의 표현 어휘력 수준은 69.3%가 정상발달을 보였으며, 20.9%가 세심한 관찰이 필요한 유의 요망 수준이었다. 추가적으로 전문적인 어휘 평가가 요구되는 발달 의심으로 분류되는 아동은 전체의 9.8%였다. 2년 뒤, 6차 조사에서 아동이 만 5세가 되었을 때 표현 어휘력 수준은 정상발달이 86.8%로 만 3세에 비해 많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유의 요망으로 분류되는 아동은 전체의 8.3%, 발달 의심 아동은 5.0%였다. 아동이 만 6세가 되면서 정상발달에 속하는 아동은

77.1%로 만 5세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다. 동시에 유의 요망에 해당되는 아동은 18.4%로 만 3세 때의 수준과 유사하게 증가하였다.



[그림 IV-1-1] 아동의 표현 어휘력 발달

다음으로 수용어휘력 발달은 만 3세 때 전체 아동의 78.4%가 정상발달로 나타났다으며, 세심한 관찰이 필요한 수준은 15.3%, 발달 의심으로 분류되는 아동은 6.2%였다. 아동이 만 5세가 되었을 때, 정상발달인 아동은 82.7%로 증가하였다. 동시에 유의요망과 발달의심군 아동은 각각 11.4%, 5.9%로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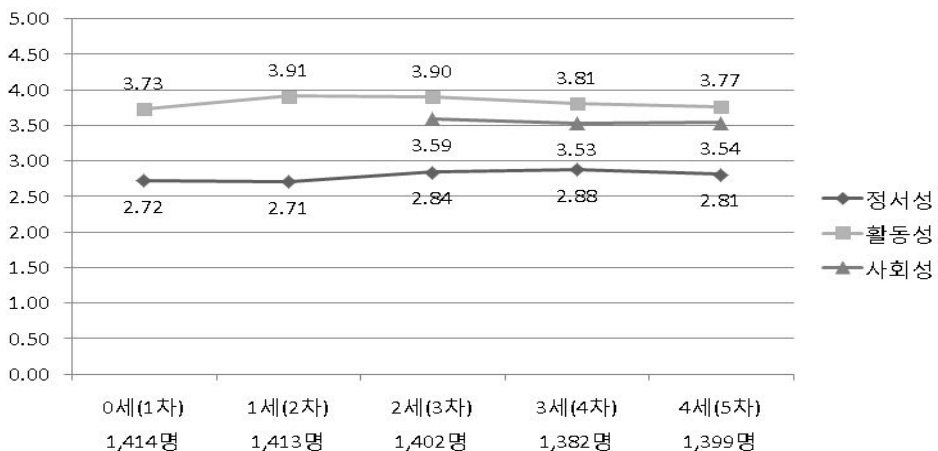
[그림 IV-1-2] 아동의 수용어휘력 발달

라. 사회/정서 발달

1) 기질

한국아동패널에서 영유아기 아동의 기질은 어머니 보고에 의하여 Buss와 Plomin(1984)의 The EAS(The Emotionality, Activity and Sociability-Temperament Survey for Children-Parental Ratings)로 측정하였다. 영아기인 만 0~1세에는 부정적 정서성과 활동성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만 2~4세에는 유아기의 특성에 맞게 사회성을 추가하였다.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 사이의 범위에 있으므로, 3점(보통이다)이 평균을 의미한다.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 세 가지 영역 중에서는 아동의 활동성이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나, 어머니는 아동의 활동성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고 추측된다. 아동의 정서성은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정서가 많은 것을 의미하는데, 만 4세의 정서성은 2.81점으로 '보통이다'에서 '그렇지 않다'의 응답 경향이 많이 나타났다. 만 4세의 활동성과 사회성은 각각 3.77점, 3.54점으로 '보통이다'에서 '대체로 그렇다'는 응답 경향이 많았다.

영유아기 기질의 변화를 살펴보면, 정서성 영역은 만 0세 때 2.72점에서 소폭으로 낮아졌다 높아지는 변동이 있었고 부정적 정서는 만 3세 때 2.8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활동성은 연령에 따른 변동 폭이 작았으며, 어머니는 만 1세 때 아동이 가장 활동적(3.91점)이라고 평가하였다. 사회성의 경우 만 2세인 3차년도에 3.59점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이후에는 소폭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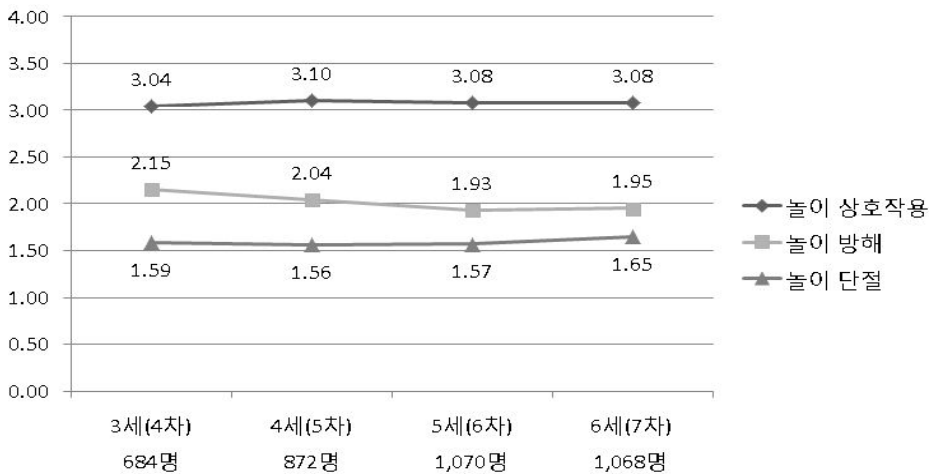


[그림 IV-1-3] 아동의 기질

2) 또래 상호작용

유아기 아동의 또래 상호작용은 또래 놀이행동 척도(Pee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최혜영·신혜영, 2008)를 통해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육아지원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의 담임교사의 보고로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항상 그렇다)의 범위로 응답되며, 놀이 상호작용, 놀이 방해, 놀이 단절의 하위영역이 있다.

[그림 IV-1-4]에서 유아기 또래 상호작용의 변화를 살펴보면 연령에 따라 큰 변동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놀이 상호작용은 만 4세에 3.1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교사는 만 4세 아동을 가장 친사회적인 것으로 인식하였다. 놀이 방해와 놀이 단절은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되는데, 대체로 ‘거의 그렇지 않다’(2점)는 응답 경향을 보였다. 교사들은 공격적이고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놀이 방해 보다는 위축되거나 타인에게 무시나 거부를 당하는 놀이 단절 경향이 더 적게 나타난다고 응답하였다. 놀이 방해 정도는 만 3세에 2.15점에서 만 5세에 1.93점으로 감소하다가 만 6세에 다소 상승하였으며, 놀이 단절은 만 4세에 1.56점으로 가장 낮았다가 이후 다소 상승하는 패턴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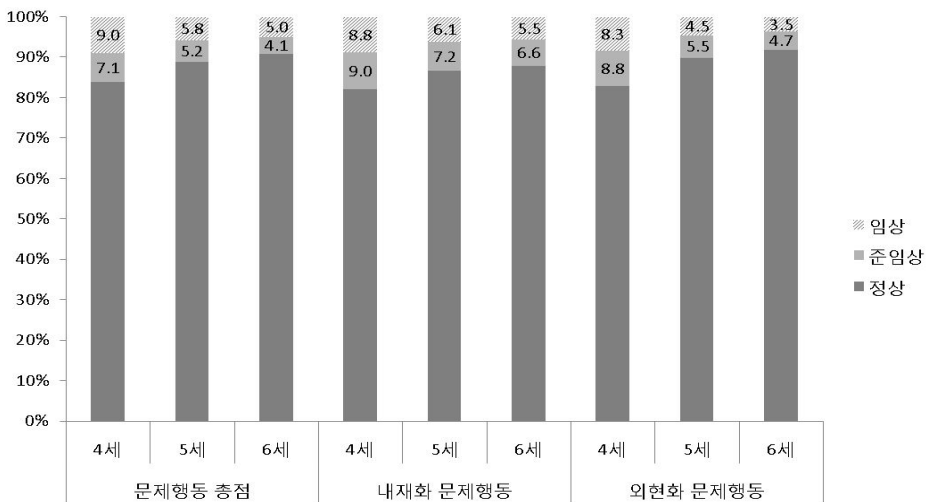


[그림 IV-1-4] 아동의 또래 상호작용

3) 문제행동

만 4~6세 아동의 문제행동이 시간에 따라 어떠한 변화 패턴을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CBCL 척도의 표준화 기준을 참조하여 T점수를 정상, 준임상,

임상 집단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문제행동 총점과 내재화 문제행동의 하위 요인으로 정서적 반응성, 불안/우울, 신체증상, 위축, 외현화 문제행동은 주의집중문제와 공격행동을 살펴보았다. 이외에 수면문제가 있으며, DSM 분류 기준에 따라서 정서문제, 불안문제, 전반적 발달문제, 반항행동문제가 있다. 문제행동 총점을 살펴보면, 정상 집단에 속하는 아동이 만 4세에 83.9%, 만 5세에 89.0%, 만 6세에 90.9%로 점차 증가하였다. 만 4세를 기준으로 할 때 준임상 집단에 속한 아동은 7.1%, 임상 집단은 9.0%으로 준임상 집단보다 임상 집단 비율에 속하는 아동이 더 많았으며, 준임상/임상 집단 비율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감소하였다.



[그림 IV-1-5] 아동의 문제행동: 내재화, 외현화 및 문제행동 총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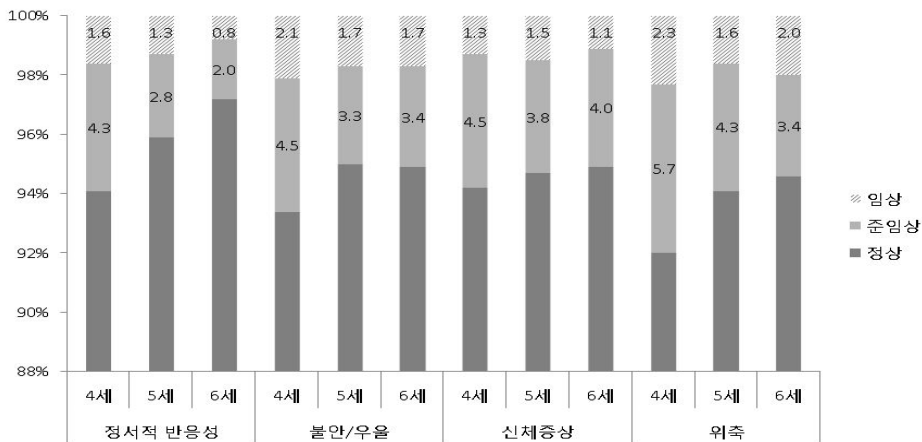
문제행동을 이루는 각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정상 집단이 90% 이상이였으며 준임상 집단에 속한 아동이 2~5%, 임상 집단에 속한 아동이 0~3%에 해당하였다. 또한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정상 집단에 속하는 아동의 비율이 점차 높아졌고, 준임상과 임상 집단에 속하는 아동들은 점차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만 4세 아동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정상 집단에 속하는 아동이 가장 많은 것은 주의집중문제였고, 정상 집단에 속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은 위축 문제였다.

〈표 IV-1-9〉 아동의 문제행동: 임상/준임상 집단

단위: %(명)

구분	4세(5차)			5세(6차)			6세(7차)		
	정상	준임상	임상	정상	준임상	임상	정상	준임상	임상
문제행동 총점	83.9	7.1	9.0	89.0	5.2	5.8	90.9	4.1	5.0
내재화 문제행동	82.2	9.0	8.8	86.7	7.2	6.1	87.8	6.6	5.5
외현화 문제행동	82.9	8.8	8.3	89.9	5.5	4.5	91.8	4.7	3.5
정서적 반응성	94.0	4.3	1.6	95.9	2.8	1.3	97.2	2.0	0.8
불안/우울	93.3	4.5	2.1	95.0	3.3	1.7	94.9	3.4	1.7
신체증상	94.3	4.5	1.3	94.7	3.8	1.5	94.9	4.0	1.1
위축	92.0	5.7	2.3	94.1	4.3	1.6	94.6	3.4	2.0
수면문제	92.8	5.7	1.5	96.2	3.3	0.5	96.8	2.6	0.6
주의집중문제	98.0	1.6	0.4	97.3	1.8	1.0	98.5	0.9	0.6
공격행동	93.3	4.2	2.5	96.6	2.4	1.0	97.0	2.3	0.7
DSM:정서문제	92.9	4.7	2.3	95.4	3.4	1.1	96.1	2.8	1.1
DSM:불안문제	96.3	1.4	2.3	96.6	1.2	2.2	96.9	1.4	1.6
DSM:전반적 발달문제	92.1	5.2	2.7	94.6	3.9	1.5	95.8	2.4	1.7
DSM:ADHD	95.3	2.8	1.9	95.6	2.8	1.6	96.2	2.6	1.2
DSM:반항행동문제	95.2	2.5	2.3	97.0	2.0	1.1	98.2	1.1	0.7
(수)	(1,412)			(1,407)			(1,4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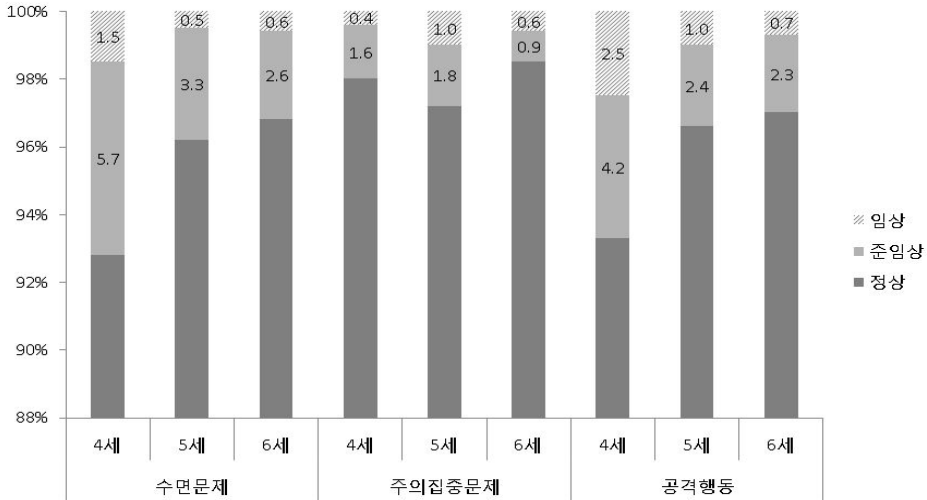
마찬가지로 내재화 문제의 하위요인도 만 4세일 때 준임상/임상 집단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가 아동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내재화 문제의 하위요인에서 아동의 연령과 상관없이 준임상/임상 집단에 속하는 아동 비율이 가장 높은 문제는 위축으로 나타났다. 만 6세가 되었을 때 준임상/임상 집단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은 정서적 반응성(2.8%)이었다.



[그림 IV-1-6] 아동의 문제행동: 내재화 문제 하위요인

수면문제의 경우, 만 4세 때에 준임상 집단에 속하는 아동이 5.7%, 임상 집단에 속하는 아동이 1.5%로 다른 하위문제의 준임상/임상 집단의 비율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수면문제 역시 아동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정상 집단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외현화 문제에서 준임상/임상 집단에 속하는 아동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은 주의집중문제였고, 주의집중문제로 준임상/임상군에 속하는 아동은 만 5세 때 증가하였다가 만 6세 때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공격행동은 만 4세 때 준임상 집단 4.2%, 임상 집단 2.5%로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연령이 증가하면서 다른 문제행동 특성과 마찬가지로 준임상/임상군 비율이 감소하였다.



[그림 IV-1-7] 아동의 문제행동: 수면 문제와 외현화 문제 하위요인

4) 보육/교육 기관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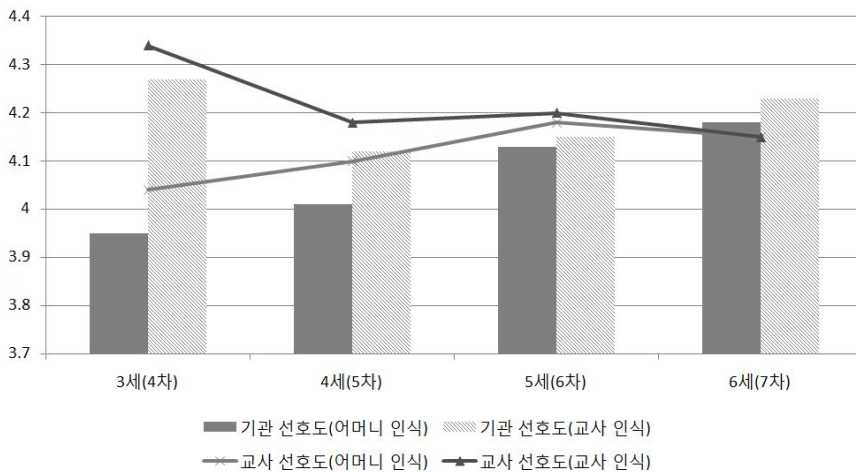
어머니와 교사를 대상으로 아동이 육아지원기관을 선호하는 정도와 기관의 교사를 선호하는 정도에 대해 질문하였다. '아주 좋아한다'는 응답이 5점일 때, 전반적으로 어머니와 교사 인식은 최소 3.95점에서 최대 4.34점으로 응답되어 대체로 좋아한다는 편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기관과 교사 선호도에 대해 어머니 인식보다는 교사 인식의 점수가 높게 나타나, 아동의 선호도를 교사가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IV-1-10〉 아동의 육아지원기관 및 교사 선호도

단위: 점(명)

구분	아동의 육아지원기관 선호도			아동의 교사 선호도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어머니 인식	3세(4차)	3.95	0.68 (1,116)	4.04	0.67 (1,115)	
	4세(5차)	4.01	0.70 (1,361)	4.10	0.71 (1,365)	
	5세(6차)	4.13	0.67 (1,374)	4.18	0.68 (1,374)	
	6세(7차)	4.18	0.66 (1,366)	4.15	0.67 (1,366)	
교사 인식	3세(4차)	4.27	0.66 (684)	4.34	0.63 (684)	
	4세(5차)	4.12	0.63 (872)	4.18	0.63 (872)	
	5세(6차)	4.15	0.59 (1,070)	4.20	0.62 (1,070)	
	6세(7차)	4.23	0.64 (1,068)	4.15	0.65 (1,068)	

어머니가 지각한 아동의 기관 선호도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수가 증가하였고, 교사 선호도는 점수가 증가하다가 만 6세 때에 소폭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교사가 인식한 아동의 기관 및 교사 선호도는 점수가 만 3세 때에 가장 높았고, 이후로는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였다. 시간에 따라 선호도 점수의 변동이 일방향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아동이 이용하는 기관이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등으로 매해 달라진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림 IV-1-8] 아동의 육아지원기관 및 교사 선호도

마. 소결

한국아동패널의 1차년도부터 7차년도까지의 자료를 통해 영유아기 아동의 특성을 일상생활, 신체발달, 언어발달, 사회/정서발달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만 4~6세 유아기 아동의 식습관을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하면서 식사 양과 속도는 점차 증가하며 편식은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는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아동이 규칙적 식사를 하고 도움 없이 혼자서 식사를 잘 한다고 응답하였다.

영유아기 아동의 일과를 살펴보면, 만 2세에서 만 6세 사이의 평균 취침시간이 밤 9시 42~57분이었으며 연령이 증가하면서 기상시간은 앞당겨지는 패턴을 보였다. 만 2~3세 아동은 주로 주양육자와 함께 놀거나 친구 또는 형제와 노는 시간이 많게 나타났다. 만 4~6세에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보육·교육 기관에서 보내는 시간과 학습활동을 하는 시간이 증가하는 반면, 실내놀이나 바깥놀이 및 외출 시간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음으로 신체발달을 살펴보면, 만 0세부터 만 6세까지 아동의 신장과 체중은 점차 증가하였으나 개인 간 격차가 커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또 어휘력 발달을 통해 언어발달을 살펴보았는데, REVT 검사에서 정상발달에 해당하는 아동의 비율은 전체 70% 이상으로 정상발달 비율은 만 3세에 비해 만 5세 때 증가하였으나 만 6세 때에는 다소 감소하였다.

영유아기 기질은 소폭의 변화만 나타났는데, 부정적 정서는 만 3세 때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어머니는 아동이 만 1세 때 가장 활동성이 높고 만 2세 때 사회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아동의 활동성 점수가 높게 나타나 어머니는 활동성을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래 상호작용의 경우 육아지원기관 교사의 평정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놀이 상호작용은 만 4세에 가장 높았으며 놀이 방해 보다 놀이 단절 경향이 적게 나타났다. 아동의 문제행동의 경우 하위요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정상 집단에 속하는 아동이 전체의 80% 이상에 해당되며, 만 4세에서 만 6세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상 집단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즉, 준임상/임상 집단 비율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감소하는 패턴을 보였고, 정상 집단에 속하는 아동이 가장 많은 하위요인은 주의집중문제였고, 가장 낮은 것은 위축문제였다. 아동의 육아지원기관 및 교사 선호도의 경우, 이용 기관과 교사의 변동으로 일반적인 패턴을 단정 짓기 어렵지만 어머니보다 교사들이 아동의 선호도를 더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2. 부모 특성

가. 인구학적 특성 및 건강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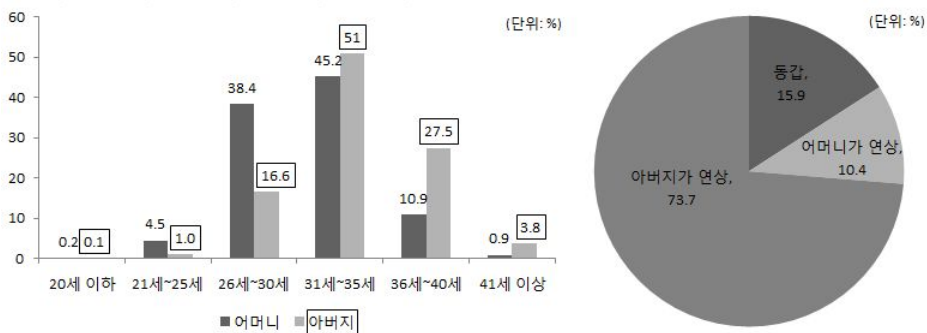
1) 인구학적 특성

부모의 인구학적 특성은 최초 조사 시점인 2008년(1차년도) 조사 내용을 기준으로 제시 하였다. 대상 가구의 어머니(45.2%)와 아버지(51.0%)는 31세~35세가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의 경우 26세~30세가 38.4%, 아버지의 경우 36~40세가 27.5%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표 IV-2-1〉 부모의 연령

단위: %(명), 세							
구분	20세 이하	21세~25세	26세~30세	31세~35세	36세~40세	41세 이상	계(수)
어머니	0.2	4.5	38.4	45.2	10.9	0.9	100.0(1,415)
아버지	0.1	1.0	16.6	51.0	27.5	3.8	100.0(1,357)
구분	동갑임		어머니가 연상임		아버지가 연상임		계
비율	15.9		10.4		73.7		100.0(1,356)
부모 연령 차	-		1.63(1.10)		3.58(2.41)		-

패널 부모의 73.7%는 아버지가 연상이었으며, 동갑 부부는 15.9%에 해당했다. 아버지가 연상인 경우 평균 3.58세($SD=2.41$), 어머니가 연상인 경우는 평균 1.63세($SD=1.10$)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2-1] 부모의 연령 분포 및 연령 차

부모의 최종 학력은 대졸 이상이 어머니 40.2%, 아버지 49.7%로 가장 많았다. 부모의 학력은 동일한 경우가 50.4%로 가장 많았으며,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고학력인 경우도 30.1%에 해당했다.

〈표 IV-2-2〉 부모의 학력

단위: %(명)						
구분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졸 이상	계(수)		
어머니	29.4	30.4	40.2	100.0(1,407)		
아버지	28.4	21.9	49.7	100.0(1,355)		
구분	부모가 동일함			어머니가 아버지가		계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졸 이상	고학력	고학력	
부모 학력 차이	16.0	11.6	22.8	19.5	30.1	100.0(1,348)

부모의 결혼 상태는 1차년도를 기준으로 98.8%가 유배우-초혼인 상태였으며, 재혼은 1.1%, 별거는 0.1%였다. 7차년도에는 유배우-초혼 상태가 전체의 97.6%였으며, 최초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부모의 결혼 기간은 1년 미만인 경우부터 최대 19년 4개월까지로 평균 47.43개월($SD=33.52$)이었다.

〈표 IV-2-3〉 부모의 결혼 상태 및 기간

단위: %(명), 개월							
구분	미혼	초혼	재혼	별거	사별	이혼	계(수)
2008년(1차)	0.0	98.8	1.1	0.1	-	-	100.0(1,413)
2014년(7차)	0.2	97.6	0.8	0.1	0.2	0.7	100.0(1,376)
구분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결혼 기간(1차)	-6		233		47.43		33.52

주: 최초 조사 시점에 미혼인 상태로 6개월 뒤 결혼 예정이었던 1가구와 1개월 뒤 결혼 예정이었던 3가구는 ‘-’로 표기하였으며, 평균값 산출 시에는 사실혼을 기준으로 하여 ‘+’로 전환해 계산함.

부모 중 어머니의 53.0%, 아버지의 56.0%가 종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가 있는 경우 개신교인 경우가 부모 모두 24.8%, 20.2%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불교가 14.6%, 15.7%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부모 모두 종교가 없는 경우는 46.4%였으며, 종교가 있는 가구의 경우 부모가 동일한 종교일 경우가 33.7%로 나타났다.

〈표 IV-2-4〉 부모의 종교

								단위: %(명)
구분	종교 없음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증산교	기타	계(수)
어머니	53.0	14.6	24.8	6.8	0.2	0.1	0.5	100.0(1,179)
아버지	56.0	15.7	20.2	7.3	0.3	0.1	0.4	100.0(1,259)
구분	모두 종교 없음	한명만 종교 있음	부모가 동일한 종교		부모가 다른 종교		계(수)	
부모 종교 차이	46.4	16.3	33.7		3.6		100.0(1,189)	

부모와 아동의 비동거 현황은 어머니의 경우 1차년도 1.4%에서 3차년도 3.6%까지 증가하다 4차년도부터 0.5% 이하로 감소하는 패턴을 보였다. 아버지의 경우는 1~3차년도까지 4.4%에서 4.7%까지 소폭 상승하다 4차년도부터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IV-2-5〉 부모의 아동과의 동거 여부

단위: %(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동거	비동거	계(수)	동거	비동거	계(수)
0세(1차)	98.6	1.4	100.0(1,410)	95.6	4.4	100.0(1,366)
1세(2차)	97.8	2.2	100.0(1,408)	95.5	4.5	100.0(1,379)
2세(3차)	96.4	3.6	100.0(1,398)	95.3	4.7	100.0(1,361)
3세(4차)	99.5	0.5	100.0(1,412)	96.5	3.5	100.0(1,406)
4세(5차)	99.6	0.4	100.0(1,409)	96.3	3.7	100.0(1,402)
5세(6차)	99.8	0.2	100.0(1,408)	96.6	3.4	100.0(1,398)
6세(7차)	99.6	0.4	100.0(1,407)	96.9	3.1	100.0(1,396)

2) 건강 특성

먼저 부모의 장애 및 희귀난치성 유전병 여부를 최초 조사 시점인 2008년(1차년도) 조사 내용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1% 이내의 부모만이 장애 및 유전병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0.4%와 어머니의 0.2%가 1,2급 장애가 있다고 답했으며, 아버지의 0.5%가 희귀난치성 유전병이 있다고 답했다. 부모의 알레르기 질환력(6차년도 조사)을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3.8%와 어머니의 4.7%가 천식을 진단받았으며, 아버지의 27.5%, 어머니의 33.4%는 알레르기 비염을 갖고 있었고, 아토피피부염에 대해서도 부모 각각 7.3%, 7.4%가 질환을 갖

고 있었다. 알레르기 질환에 관하여 2가지 이상의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도 어머니의 27.2%, 아버지의 22.1%에 달했다.

〈표 IV-2-6〉 부모의 장애, 유전병 및 알레르기 질환

단위: %(명)

구분	1·2급 장애	희귀난치성 유전병	알레르기 질환			
			천식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피부염	중복 질환
어머니	0.4(5)	-	4.7(58)	33.4(429)	7.4(97)	27.2(374)
아버지	0.2(2)	0.5(4)	3.8(51)	27.5(339)	7.3(88)	22.1(299)

주: 각 항목의 장애 및 질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만 제시함.

부모의 음주 여부 및 횟수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는 자녀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술을 마시지 않는 비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 2차 시기에 비해 3차 시기에 큰 차이를 보이고 이후의 음주 횟수는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수유와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평소 음주를 하던 어머니라 하더라도 자녀의 임신 및 모유 수유 등의 이유로 잠정적으로 자제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어머니에 비해 정도의 차이는 덜하지만 아버지에게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아버지의 경우 어머니에 비해 음주 횟수가 더 빈번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IV-2-7〉 부모의 음주 여부 및 횟수

단위: %(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마시지 않음	월 1회 이하	월 2~4회	월 2~4회	주 5회 이상	주 5회 이상	계(수)	마시지 않음	월 1회 이하	월 2~4회	월 2~4회	주 5회 이상	주 5회 이상	계(수)
1차	73.5	11.0	13.4	2.2	-	100.0(1,313)		20.3	9.1	42.5	24.9	3.2	100.0(1,216)	
2차	65.8	12.4	18.7	3.1	0.1	100.0(1,404)		21.7	9.7	38.4	25.8	4.3	100.0(1,364)	
3차	40.0	34.1	21.1	4.4	0.5	100.0(1,391)		9.1	19.3	38.3	25.9	7.4	100.0(1,350)	
4차	33.1	36.9	23.6	5.4	0.9	100.0(1,381)		8.9	17.2	37.6	28.3	8.1	100.0(1,317)	
5차	29.5	37.0	26.0	7.0	0.4	100.0(1,399)		8.1	17.6	36.1	28.2	10.0	100.0(1,349)	
6차	26.1	36.2	28.5	7.8	1.5	100.0(1,381)		9.1	17.1	35.6	27.6	10.6	100.0(1,334)	
7차	24.4	35.4	30.3	8.1	1.7	100.0(1,368)		7.4	17.6	34.6	30.7	9.8	100.0(1,306)	

평소 술을 마신다고 응답한 부모의 경우 주량을 물어본 결과, 어머니의 경우 1~2잔 마시는 비율이 매 차수 가장 많았으며, 아버지의 경우 어머니보다는 더 많은 양의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8〉 부모의 음주량

단위: %(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1~2잔	3~4잔	5~6잔	7~9잔	10잔 이상	계(수)	1~2잔	3~4잔	5~6잔	7~9잔	10잔 이상	계(수)
1차	59.0	25.3	9.1	3.6	3.0	100.0(354)	5.8	18.3	20.0	28.3	27.7	100.0(950)
2차	31.6	27.4	15.0	4.3	1.8	100.0(493)	6.4	15.9	22.9	27.1	27.7	100.0(1,071)
3차	61.9	25.6	8.0	3.0	1.6	100.0(832)	13.1	21.4	25.2	20.6	19.8	100.0(1,207)
4차	58.8	26.3	9.7	3.6	1.6	100.0(915)	13.5	20.5	21.1	23.0	21.8	100.0(1,188)
5차	61.6	26.0	8.0	3.4	1.0	100.0(964)	16.1	21.6	21.8	21.7	18.8	100.0(1,233)
6차	61.3	25.1	8.9	3.0	1.8	100.0(1,025)	16.1	19.6	23.4	23.0	17.8	100.0(1,209)
7차	60.4	24.6	10.4	2.8	1.8	100.0(1,036)	15.1	19.5	22.7	25.2	17.6	100.0(1,205)

부모의 흡연여부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대다수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아버지의 경우 50%가량이 흡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연차에 따라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2-9〉 부모의 흡연 여부

단위: %(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피움	피우지 않음	계(수)	피움	피우지 않음	계(수)
0세(1차)	0.7	99.3	100.0(1,313)	50.5	49.5	100.0(1,213)
1세(2차)	0.9	99.1	100.0(1,404)	50.2	49.8	100.0(1,371)
2세(3차)	0.9	99.1	100.0(1,387)	51.2	48.8	100.0(1,345)
3세(4차)	1.3	98.7	100.0(1,379)	49.5	50.5	100.0(1,318)
4세(5차)	1.3	98.7	100.0(1,389)	49.5	50.5	100.0(1,346)
5세(6차)	1.1	98.9	100.0(1,373)	47.7	52.3	100.0(1,335)
6세(7차)	1.3	98.7	100.0(1,368)	47.2	52.8	100.0(1,306)

나. 직업 특성

1) 취/학업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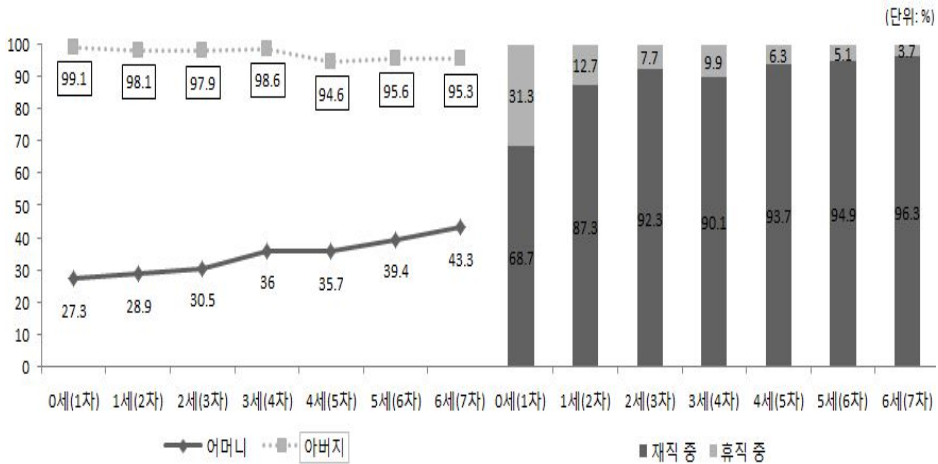
영유아기 부모의 취/학업 상태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는 매 조사 시점에 대부분이 취업 또는 학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어머니의 경우 자녀 출산 후 27.3%만이 학업 또는 취업 중인 것으로 응답되었다. 어머니의 취/학업 진출은 자녀의 성장에 따라 점차 증가하여 취학 전 연령인 만 6세 시점에는 43.3%가 취/학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10〉 부모의 취/학업 상태

구분	어머니			아버지		
	취/학업 중	미취/학업 중	계(수)	취/학업 중	미취/학업 중	계(수)
0세(1차)	27.3	72.7	100.0(1,416)	99.1	0.9	100.0(1,365)
1세(2차)	28.9	71.1	100.0(1,405)	98.1	1.9	100.0(1,408)
2세(3차)	30.5	69.5	100.0(1,416)	97.9	2.1	100.0(1,406)
3세(4차)	36.0	64.0	100.0(1,410)	98.6	1.4	100.0(1,407)
4세(5차)	35.7	64.3	100.0(1,402)	94.6	5.4	100.0(1,350)
5세(6차)	39.4	60.6	100.0(1,399)	95.6	4.4	100.0(1,333)
6세(7차)	43.3	56.7	100.0(1,390)	95.3	4.7	100.0(1,306)

단위: %(명)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어머니의 취업률(학업 포함)에서 취업 중인 어머니들의 재직 상태를 살펴본 결과, 자녀가 만 0세인 1차년도 조사 시점에는 31.3%가 휴직 중이다. 어머니의 휴직률은 자녀가 만 1세가 되는 시점부터 급격히 감소하여 자녀가 만 2세가 되는 시점부터는 10% 미만의 휴직률을 나타냈다.



[그림 IV-2-2] 부모의 취/학업 상태 및 취업모의 재직 상태

자녀 출산 년도인 1차 조사 시점에 취업 중인 부모의 종사상 지위는 어머니 84.5%, 아버지 81.8%가 정규직/상용직에 종사 중인 것으로 응답되었다. 종사상 지위는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비정규직 분포는 5%내외의 비교적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부모 모두에서 자녀가 만 2세가 되는 시점에 정규직/상용직의 비율이 줄어

들며 자영업 및 무급가족 종사자를 포함하는 기타 응답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변화는 자녀가 취학 전 연령이 되는 7차 조사 시점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11〉 부모의 종사상 지위

단위: %(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정규직 /상용직	비정규직 임시직	비정규직 일용직	기타	계(수)	정규직 /상용직	비정규직 임시직	비정규직 일용직	기타	계(수)
0세(1차)	84.5	6.2	1.4	7.9	100.0(414)	81.8	4.1	2.2	11.9	100.0(1,292)
1세(2차)	77.6	9.8	1.7	10.9	100.0(432)	82.6	3.7	2.3	11.4	100.0(1,345)
2세(3차)	69.8	12.8	0.8	16.6	100.0(450)	73.5	2.6	2.8	21.1	100.0(1,338)
3세(4차)	68.6	12.4	0.9	18.1	100.0(551)	73.7	3.5	2.4	20.4	100.0(1,252)
4세(5차)	62.4	12.0	1.8	23.8	100.0(578)	74.1	2.8	2.4	20.7	100.0(1,231)
5세(6차)	64.9	11.9	1.1	22.1	100.0(589)	74.2	2.8	2.4	20.6	100.0(1,171)
6세(7차)	67.1	11.8	0.5	20.6	100.0(615)	78.1	1.6	3.4	16.9	100.0(1,082)

주: '기타'에는 2차년도 이후부터 응답 보기에 포함된 '종업원을 둔 고용주',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등이 포함되어 있음.

취업 중인 부모의 주당 근로 시간을 살펴본 결과 아버지가 어머니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시간 근무하고 있었으며, 어머니의 근로 시간은 자녀가 영아기인 1~3차 조사 시점보다 5~7차 조사 시점에 상대적으로 짧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어머니는 패널 자녀가 만 0세 시점이던 1차 조사 시기에 비해 취학 전 연령인 만 6세가 되는 7차 조사 시점에 평균 4시간가량 적은 근로 시간을 응답하였다.

〈표 IV-2-12〉 부모의 근로 시간

단위: 시간(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수)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수)
0세(1차)	3	96	43.13	13.21	(416)	20	128	54.32	13.50	(1,336)
1세(2차)	3	96	41.62	11.94	(381)	20	110	52.20	11.81	(1,365)
2세(3차)	18	84	42.72	9.67	(416)	1	121	52.53	13.18	(1,379)
3세(4차)	10	100	43.07	12.93	(506)	4	124	56.18	15.82	(1,366)
4세(5차)	1	104	40.66	12.41	(543)					
5세(6차)	2	112	39.63	13.11	(563)			—		
6세(7차)	2	98	38.77	12.53	(595)					

주: 4차년도 조사부터는 주중과 주말로 분리하여 근로 시간을 질문하였으며, 본 표에 제시된 값은 주당 근무일과 근무 시간을 계산하여 환산한 결과임. 주당 근무 시간을 질문하지 않은 4차년도 응답값의 경우 주중은 5일로, 휴일은 2일로 계산함.

취업모의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56.2%~60.6%로 가장 많이 분포하였으며, 평균적으로 3점 후반대의 점수를 보였다.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는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7차 조사 시점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V-2-13〉 어머니의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단위: %(명)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평균	표준편차
0세(1차)	0.4	1.9	31.4	60.6	5.6	100.0(400)	3.69	0.63
1세(2차)	-	4.2	33.3	58.6	4.0	100.0(433)	3.62	0.63
2세(3차)	-	1.8	35.0	57.5	5.8	100.0(450)	3.67	0.61
3세(4차)	0.1	2.7	36.5	56.2	4.5	100.0(553)	3.62	0.62
6세(7차)	1.1	2.3	27.2	56.4	13.0	100.0(615)	3.78	0.74

2) 미취/학업 특성

미취/학업모의 특성은 자녀가 만 4세가 되는 5차년도 응답값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어머니가 미취/학업 중인 경우 취업 또는 학업을 중단한 시기를 살펴본 결과, 결혼 후 미취/학업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30%로 가장 많았으며, 출산 후에 중단하거나 패널 아동을 임신 중에 중단한 경우가 각각 25.9%, 25.1%로 나타났다.

임신 중에 취업 또는 학업을 중단한 경우 최소 자녀 출산 1개월 전부터 9개월 전, 출산 후에는 자녀 출산 직후부터 자녀가 55개월이 되는 시점에 미취/학업 상태로 전환하였다. 평균적으로 자녀 출산 5.49개월 전 혹은 29.18개월 후에 미취/학업모가 된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IV-2-14〉 어머니의 미취/학업 시기

단위: %(명), 개월

구분	미취/학업 시기	미취/학업 시 자녀 평균 월령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결혼 후 미취/학업	30.0	—			
임신 전에 중단	19.0				
임신 중에 중단	25.1	1	9	5.49	2.58
출산 후에 중단	25.9	0	55	29.18	15.71
계(수)	100.0(598)				

어머니들의 경력 단절의 이유는 아이를 직접 돌보고 싶어서가 39.8%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패널 아동 혹은 그의 동생의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이 15.3%였고,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거나, 직장/학교와 아이 양육을 병행하는 것이 어렵고, 아이를 맡길 만큼의 경제적 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응답도 15.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자녀의 임신/출산 및 양육이 여성의 경력 단절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15〉 어머니의 미취/학업 이유

구분		빈도	단위: %(명)	
직장에서의 분위기 또는 불이익 때문에	0.8	○○(이)의 임신 또는 출산으로	6.9	
직장/학교와 아이 양육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어서	4.7	○○(이)의 동생 임신 또는 출산으로	8.4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어서	9.5	
다른 일자리나 공부를 시작하기 위해	1.1	아이를 직접 돌보고 싶어서	39.8	
일 또는 공부를 하고 싶지 않아서	0.2	아이를 맡길 만큼 보수가 낮아서	1.6	
학교를 졸업해서	0.2	가족이 원해서	2.2	
직장사정으로(폐업, 파산, 휴업, 감원 등)	0.7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8.1	
건강상의 이유로	2.2	기타	13.5	
		계(수)	100.0(604)	

미취/학업모의 95.7%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했으며,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의 72.2%는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자녀를 돌보기 위한 것이 95.0%로 응답되었다.

〈표 IV-2-16〉 어머니의 구직활동, 희망 근로 형태 및 이유

구직활동 여부		희망 근로 형태		시간제 근로 희망 이유	
구직활동 중	4.3	시간제 근로	72.2	아이를 돌보기 위해	95.0
구직활동 안함	95.7	전일제 근로	27.8	가사일 때문에	5.0
계(수)	100.0(623)	계(수)	100.0(28)	계(수)	100.0(20)

다. 개인 특성 및 부부 특성

영유아기 조사에서 어머니의 우울은 1차년도에 3회(병원조사, 1개월 후 전화조사, 만 0세 조사) 조사 이후 매년 조사되어 총 9회 조사되었다. 자녀 출산 초

기 어머니의 우울 수준은 출산 후 1개월 시점에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이후 유사하게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패널 아동의 유아기부터 조사된 아버지의 우울 수준은 어머니의 경우처럼 유사하게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어머니에 비해 우울 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2-17〉 부모의 우울

단위: 점, %(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정상	경도/중증도	중도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정상	경도/중증도	중도	계(수)
출산전(1차)	1.89	0.65	74.6	20.7	4.7	1000(1,414)						
1개월(1차)	1.52	0.61	87.9	9.8	2.3	1000(1,142)						
0세(1차)	1.94	0.72	70.4	23.2	6.4	1000(1,306)						
1세(2차)	1.90	0.69	72.8	22.1	5.1	1000(1,410)						
2세(3차)	1.96	0.69	71.4	22.3	6.3	1000(1,399)						
3세(4차)	1.98	0.75	68.4	23.5	8.0	1000(1,381)						
4세(5차)	1.94	0.75	70.7	22.3	7.0	1000(1,398)						
5세(6차)	1.94	0.74	72.5	20.6	6.8	1000(1,381)	1.83	0.65	80.3	16.1	3.7	1000(1,334)
6세(7차)	1.93	0.75	71.9	20.4	7.7	1000(1,368)	1.89	0.75	77.3	15.9	6.8	1000(1,306)

주: 1) 어머니의 우울은 1차년도 조사에서 분만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한 달간(병원 조사), 출산 1개월 후(전화 조사), 1차 조사 시점으로 총 3회 조사되었음.

2) 우울 점수의 분류는 총점이 6~13점일 경우 정상수준, 14~18점일 경우 경도/중증도 우울, 19~30점은 중도 우울로 분류됨.

영유아기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자녀가 유아기로 접어드는 만 3세 시기부터 상승하여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었지만, 초등 입학 전 연령인 만 6세 시점에 영아기와 유사한 정도로 하락하였다. 패널 아동의 유아기부터 조사된 아버지의 자아존중감 수준은 어머니와 비슷한 패턴을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어머니에 비해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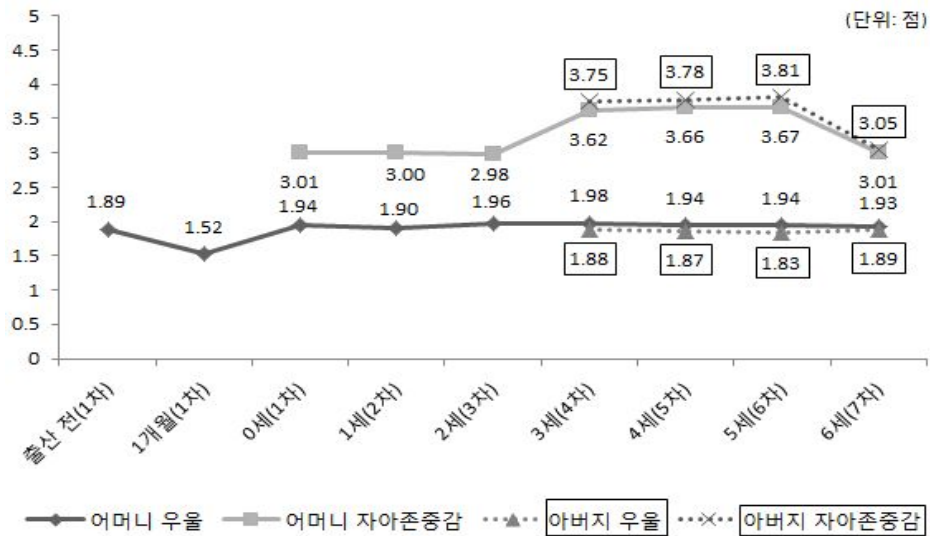
〈표 IV-2-18〉 부모의 자아존중감

단위: 점(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0세(1차)	3.01	0.41	(1,310)	-		
1세(2차)	3.00	0.41	(1,410)			

(표 IV-2-18 계속)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2세(3차)	2.98	0.41	(1,401)	-	-	-
3세(4차)	3.62	0.59	(1,381)	3.75	0.53	(1,317)
4세(5차)	3.66	0.57	(1,390)	3.78	0.55	(1,339)
5세(6차)	3.67	0.58	(1,375)	3.81	0.52	(1,324)
6세(7차)	3.01	0.29	(1,368)	3.05	0.27	(1,306)



[그림 IV-2-3] 부모의 우울 및 자아존중감

부모의 부정적 자기효능감은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우울과 유사하게 아버지의 부정적 자기효능감은 어머니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IV-2-19〉 부모의 (부정적) 자기효능감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0세(1차)	2.23	0.69	(1,310)	2.17 2.12	0.69 0.68	(1,317) (1,345)
1세(2차)	2.31	0.70	(1,408)			
2세(3차)	2.31	0.70	(1,401)			
3세(4차)	2.35	0.72	(1,381)			
4세(5차)	2.24	0.74	(1,399)			

단위: 점(명)

부모의 결혼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편에 속했으며, 아버지의 결혼만족도는 어머니에 비해 매 차수 상대적으로 높았다.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자녀가 유아기인 4차 조사시점부터 미세하게 하락하다 취학 전 연령인 7차 시점에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부모의 결혼만족도는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시점에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표 IV-2-20〉 부모의 결혼만족도

단위: 점(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0세(1차)	3.83	0.74	(1,311)	4.14	0.66	(1,311)
1세(2차)	3.88	0.79	(1,410)	4.20	0.64	(1,410)
2세(3차)	3.87	0.77	(1,397)	4.14	0.64	(1,397)
3세(4차)	3.74	0.73	(1,380)	3.97	0.61	(1,380)
4세(5차)	3.67	0.79	(1,394)	4.00	0.66	(1,394)
6세(7차)	3.20	0.67	(1,367)	3.47	0.55	(1,3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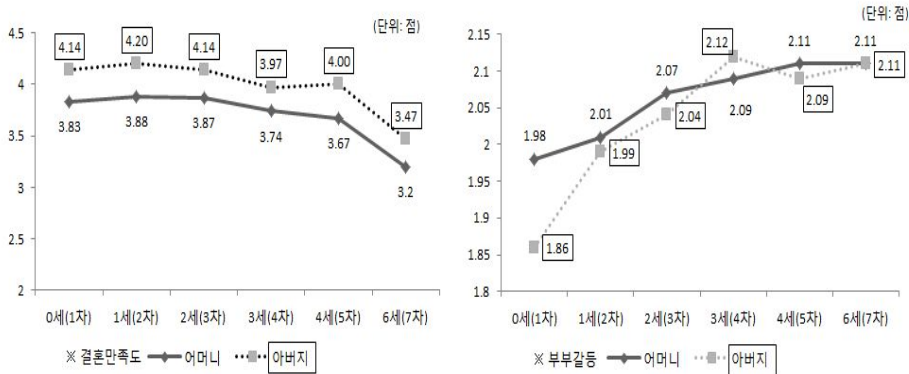
부모의 부부갈등은 자녀의 성장에 따른 변화 없이 매년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부갈등 정도는 자녀가 만 0세인 1차 조사 시점에는 부부 간에 다소 편차를 보였으나, 이후 조사 시점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인식하는 부부갈등의 정도에도 큰 편차를 보이지 않았다. 부부갈등은 4차 조사 시점을 제외하고 대체로 어머니가 아버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간 높은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표 IV-2-21〉 부모의 부부갈등

단위: 점(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0세(1차)	1.98	0.77	(1,312)	1.86	0.68	(1,312)
1세(2차)	2.01	0.76	(1,406)	1.99	0.70	(1,406)
2세(3차)	2.07	0.78	(1,396)	2.04	0.74	(1,396)
3세(4차)	2.09	0.76	(1,379)	2.12	0.73	(1,379)
4세(5차)	2.11	0.78	(1,394)	2.09	0.72	(1,366)
6세(7차)	2.11	0.85	(1,366)	2.11	0.77	(1,311)

전반적으로 부모의 부부관계는 어머니가 아버지에 비해 낮은 결혼만족도와 높은 부부갈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2-4] 부모의 결혼만족도 및 부부갈등

라. 양육 특성

1) 후속 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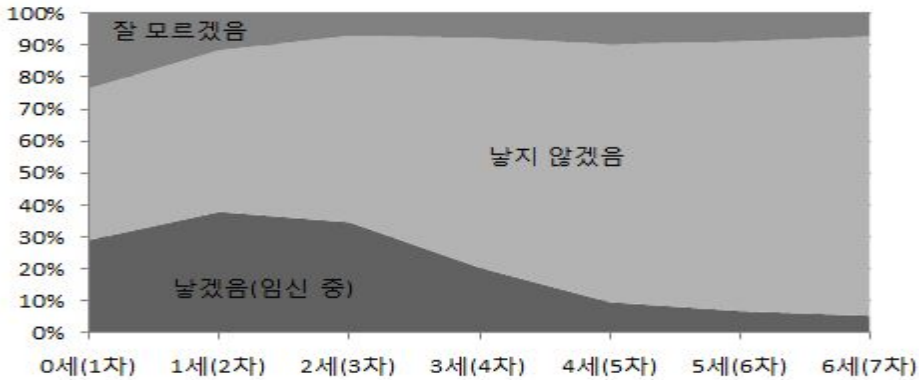
부모의 패널 자녀 이후의 후속 출산에 대한 계획은 자녀 출산 직후인 1차 조사 시점에는 29.1%만이 후속 출산을 계획하는 것으로 응답했지만, 자녀가 만 1~2세가 되는 2~3차 조사 시점에는 각각 37.9%, 34.6%가 후속 출산을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후속 출산에 대한 의지는 패널 자녀가 만 4세가 되는 5차 조사 시점에 급격하게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22〉 부모의 후속 출산 계획 여부 및 계획 자녀 수

단위: %(명)

구분	후속 출산 계획				후속 출산 계획 자녀 수				
	낳겠음 (임신 중)	낳지 않겠음	잘 모르겠음	계(수)	1명	2명	3명	4명 이상	계(수)
0세(1차)	29.1	47.5	23.4	100.0(1,415)	86.6	12.5	0.7	0.2	100.0(1,053)
1세(2차)	37.9	50.6	11.5	100.0(1,396)	85.8	14.2	-	-	100.0(916)
2세(3차)	34.6	58.4	7.0	100.0(1,396)	87.6	11.4	0.4	0.6	100.0(453)
3세(4차)	20.4	72.0	7.6	100.0(1,381)	90.2	8.0	1.3	0.4	100.0(265)
4세(5차)	9.6	80.8	9.6	100.0(1,399)	92.6	6.1	1.3	-	100.0(132)
5세(6차)	6.8	84.4	8.8	100.0(1,381)	93.2	3.4	2.6	0.8	100.0(97)
6세(7차)	5.3	87.5	7.2	100.0(1,365)	90.7	3.9	2.4	3.0	100.0(73)

특이한 점은 후속 출산에 대한 의지가 불분명했던 23.4%의 부모가 자녀 출산 1~2년 후인 2~3차 조사 시점에 후속 출산 의도를 결정한 뒤 비교적 유사한 비율로 유지되는 점을 볼 때 자녀 양육의 경험이 이후 출산 의지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림 IV-2-5] 부모의 후속 출산 계획 여부

후속 출산에 대한 의지와 별도로, 부모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수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과반수의 부모들은 2자녀를 이상적인 자녀수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30%내외 비율의 부모가 3자녀를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표 IV-2-23〉 부모의 이상 자녀 수

구분	무자녀	단위: %(명)						계(수)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잘 모름	
0세(1차)	0.7	2.6	56.5	30.7	7.3	0.3	1.9	100.0(1,313)
1세(2차)	0.2	1.7	57.5	30.3	9.1	0.3	0.9	100.0(1,407)
2세(3차)	0.1	1.8	55.5	31.4	9.6	0.7	0.9	100.0(1,396)
3세(4차)	0.1	3.2	55.8	29.8	8.6	0.5	1.8	100.0(1,381)
4세(5차)	0.2	2.4	58.5	28.0	9.3	0.1	1.6	100.0(1,394)
5세(6차)	0.0	2.4	60.7	26.5	8.1	0.1	2.1	100.0(1,381)
6세(7차)	0.1	2.7	58.5	27.8	8.9	0.2	1.9	100.0(1,367)

패널 부모는 자녀의 이상적 자녀수를 고려할 때 자녀의 성별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과반수이상이었으며, 어머니의 경우 패널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이상적인 자녀 구성에서 성별을 구분하지 않는 쪽을 응답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아버지의 경우도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이상적 자녀 구성에서 자녀의 성별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 쪽이 우세한 경향을 보였다.

〈표 IV-2-24〉 부모의 이상적 자녀 성별

단위: %(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성별 구분 없이	성별 구분해서	기타/잘 모르겠음	계(수)	성별 구분 없이	성별 구분해서	기타/잘 모르겠음	계(수)
0세(1차)	54.9	43.6	1.6	1000(1,301)	—			
1세(2차)	55.9	42.2	1.9	1000(1,341)	59.0	39.0	2.0	1000(1,268)
2세(3차)	57.3	41.2	1.5	1000(1,333)	63.8	36.2	-	1000(1,268)
3세(4차)	57.5	39.0	3.5	1000(1,309)	61.5	38.1	0.4	1000(1,253)
4세(5차)	60.3	36.8	2.9	1000(1,327)	58.8	40.8	0.4	1000(1,243)
5세(6차)	65.3	31.3	3.4	1000(1,350)	62.9	36.3	0.8	1000(1,311)
6세(7차)	63.3	31.2	5.5	1000(1,335)	60.0	38.4	1.6	1000(1,275)

자녀의 성별 구분을 원할 경우, 부모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의 성별 구성을 살펴본 결과 아들과 딸을 각각 1명 혹은 2명씩 원하는 경향이 가장 많았다. 즉 자녀의 고른 성별 분포를 원하는 경우가 대다수임을 알 수 있다.

〈표 IV-2-25〉 부모의 이상적 자녀 성별 구성

단위: %(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아들0명, 딸1명	0.5	0.1	0.1	0.2	0.1	0.2	-	-	-	-	0.5	0.2	0.1	
아들0명, 딸2명	1.2	0.4	0.8	1.6	0.3	-	-	1.3	0.6	0.9	1.6	1.2	-	
아들0명, 딸3명	0.1	-	0.1	0.3	0.2	-	-	-	-	-	0.2	0.1	-	
아들0명, 딸5명	-	-	-	-	-	-	-	0.1	-	0.1	-	-	-	
아들1명, 딸1명	52.9	41.7	34.0	34.7	35.1	35.4	34.6	54.3	47.8	49.0	54.0	52.4	50.7	
아들1명, 딸2명	22.1	31.3	32.6	35.8	35.3	7.4	33.3	18.9	20.9	19.7	16.6	12.1	21.1	
아들1명, 딸3명	0.3	0.6	0.5	0.6	0.2	-	0.2	-	-	0.1	0.3	-	-	
아들2명, 딸1명	8.9	7.5	9.8	7.8	7.6	32.5	8.1	12.8	15.8	18.3	13.7	21.1	14.3	
아들2명, 딸2명	12.6	17.7	20.9	18.4	21.0	22.7	23.6	11.1	11.3	9.0	10.5	11.9	12.0	
아들2명, 딸3명	0.4	0.4	1.0	0.7	0.1	-	0.2	0.8	0.4	1.1	0.3	-	0.3	
아들2명, 딸4명	-	-	-	-	-	-	-	-	-	-	-	-	0.1	
아들3명, 딸1명	-	-	-	-	-	-	-	-	0.9	-	-	-	-	
아들3명, 딸2명	-	0.1	-	-	-	0.2	-	-	0.2	0.2	0.1	0.5	0.1	
아들3명, 딸3명	-	-	-	-	-	-	-	-	-	-	0.4	-	-	
아들1명, 딸0명	-	-	0.1	-	0.2	0.1	-	-	0.1	-	0.5	0.3	0.2	
아들2명, 딸0명	0.9	0.3	0.1	-	-	0.9	-	0.7	2.0	1.1	1.1	0.3	1.1	
아들3명, 딸0명	0.1	-	-	-	-	0.5	-	-	-	0.5	0.2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586)	(562)	(561)	(531)	(498)	(444)	(437)	(493)	(462)	(491)	(509)	(480)	(484)	

2) 양육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 범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아버지의 경우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부모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높은 반면, 어머니는 자녀 때문에 부모의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다만 자녀가 만 4세가 되는 시점에서는 어머니도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부모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조금 더 우세하게 나타났다.

〈표 IV-2-26〉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

단위: %(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부모의무 수행	자녀를 위해 부모에게 희생을 요구해선 안됨	계(수)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부모의무 수행	자녀를 위해 부모에게 희생을 요구해선 안됨	계(수)
0세(1차)	45.5	54.5	100.0(1,294)	50.3	49.7	100.0(1,145)
1세(2차)	46.6	53.4	100.0(1,404)	53.9	46.1	100.0(1,342)
2세(3차)	47.2	52.8	100.0(1,388)	54.7	45.3	100.0(1,315)
4세(5차)	51.6	48.4	100.0(1,394)	56.9	43.1	100.0(1,337)

부모가 가정에서 배울 수 있는 자질과 특성이라고 생각하는 항목은 자녀의 성장에 따라 소폭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부모 모두 자녀가 어른 말씀을 잘 듣는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자녀 성장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검소함이나 저축하고 절약하는 모습에 대한 기대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어머니의 경우 자녀의 성장에 따라 결단력과 끈기를 중요시 한 반면 아버지의 경우 자녀의 상상력을 중요시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표 IV-2-27〉 양육 신념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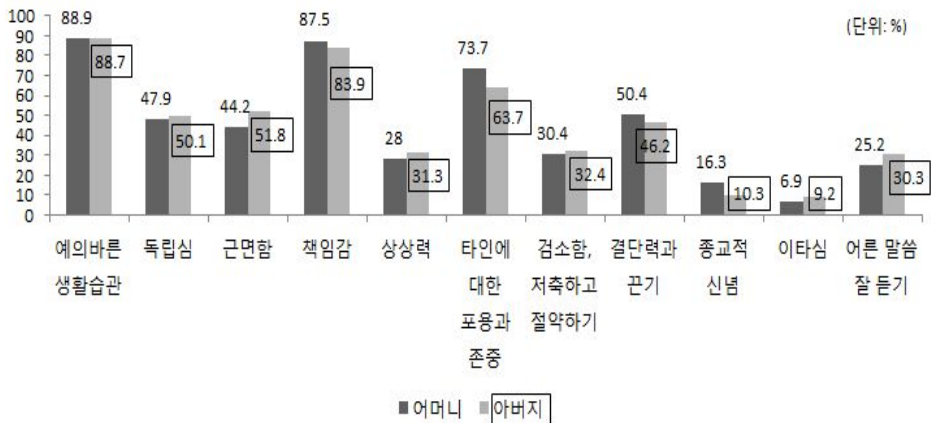
구분	어머니				아버지			
	0세(1차)	1세(2차)	2세(3차)	4세(5차)	0세(1차)	1세(2차)	2세(3차)	4세(5차)
예의바른 생활습관	91.9	91.4	91.7	88.9	89.4	89.2	89.2	88.7
독립심	48.5	47.1	49.1	47.9	50.3	48.2	48.4	50.1
근면함	48.0	47.4	48.3	44.2	55.9	53.4	55.9	51.8
책임감	85.8	87.6	87.9	87.5	84.9	84.4	85.2	83.9
상상력	18.9	19.0	18.1	28.0	18.8	19.9	21.0	31.3
타인에 대한 포용과 존중	77.9	75.2	74.8	73.7	68.4	68.7	68.1	63.7
검소함, 저축하고 절약하기	40.7	39.5	35.4	30.4	42.2	42.0	37.3	32.4

(표 IV-2-27 계속)

구분	어머니				아버지			
	0세(1차)	1세(2차)	2세(3차)	4세(5차)	0세(1차)	1세(2차)	2세(3차)	4세(5차)
결단력과 끈기	45.7	49.5	50.5	50.4	47.6	46.6	47.4	46.2
종교적 신념	13.9	13.6	14.3	16.3	10.5	11.1	10.7	10.3
이타심	6.0	7.8	8.2	6.9	7.9	9.4	8.9	9.2
어른 말씀 잘 듣기	21.4	21.3	20.7	25.2	23.1	24.1	26.5	30.3
(수)	(1,312)	(1,411)	(1,399)	(1,400)	(1,168)	(1,360)	(1,337)	(1,350)

주: 제시된 11개의 항목 중 5개를 우선순위 없이 선택하는 중복응답 문항임.

이러한 부모의 양육 신념은 특정 항목에서 소소한 변화는 있었으나 가장 중요시하는 항목은 매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자녀가 만 4세가 되는 5차년도로 기준으로 살펴본 그래프와 같이 가정에서 배울 수 있는 자질과 특성 중 부모 모두 자녀의 예의바른 생활습관을 중요시하였으며, 이어서 책임감과 타인에 대한 포용과 존중을 응답하였다. 반면 남을 위해서는 마음인 이타심은 부모 모두에게서 매해 10% 이내로 선택되었다.



[그림 IV-2-6] 부모의 양육 신념

부모는 모두 자녀에게 노후에 대한 경제적 도움이나 사회적 의무감과 같은 도구적 가치보다 부부 관계에 대한 도움 및 노후의 외로움에 대한 생각 등의 정서적 가치를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인지하고 있는 자녀에 대한 도구적, 정서적 가치에 대한 인식은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매해 더 크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28〉 부모의 자녀가치

단위: 점(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정서적 가치			도구적 가치			정서적 가치			도구적 가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0세(1차)	4.46	0.52	(1,313)	3.03	0.78	(1,312)	4.50	0.54	(1,173)	3.31	0.79	(1,173)
1세(2차)	4.33	0.57	(1,411)	2.99	0.80	(1,411)	4.49	0.53	(1,363)	3.38	0.78	(1,363)
2세(3차)	4.28	0.58	(1,400)	2.92	0.79	(1,400)	4.46	0.56	(1,340)	3.35	0.76	(1,338)
3세(4차)	4.31	0.59	(1,381)	2.83	0.78	(1,381)	4.48	0.52	(1,320)	3.17	0.77	(1,317)
5세(6차)	4.37	0.54	(1,380)	2.87	0.77	(1,380)	4.48	0.54	(1,332)	3.20	0.79	(1,334)

부모가 자녀의 장래에 대해 갖는 기대는 4점 척도로 측정되었는데, 부모 모두 행복한 가정을 갖는 것을 가장 중시하였으며, 다음으로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도우려는 이타심과 금전적 성공에 대해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보다 취미나 여가를 중시하는 것'에 대한 기대는 상대적으로 낮게 응답되었다.

〈표 IV-2-29〉 자녀의 미래 기대

단위: 점(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1차	2차	3차	4차	6차	1차	2차	3차	4차	6차
금전										
평균	3.17	3.23	3.21	3.24	3.19	3.11	3.17	3.15	3.16	3.12
표준편차	0.62	0.59	0.58	0.60	0.57	0.65	0.64	0.64	0.66	0.62
(수)	(1,312)	(1,410)	(1,398)	(1,381)	(1,381)	(1,172)	(1,358)	(1,338)	(1,318)	(1,335)
명성										
평균	2.76	2.79	2.78	2.83	2.77	2.84	2.89	2.87	2.88	2.85
표준편차	0.77	0.74	0.74	0.75	0.72	0.74	0.76	0.74	0.74	0.74
(수)	(1,311)	(1,410)	(1,400)	(1,381)	(1,381)	(1,172)	(1,358)	(1,338)	(1,318)	(1,335)
사회적 지위										
평균	2.82	2.82	2.81	2.83	2.78	2.85	2.86	2.82	2.88	2.82
표준편차	0.77	0.74	0.73	0.75	0.71	0.75	0.78	0.76	0.76	0.75
(수)	(1,311)	(1,409)	(1,400)	(1,380)	(1,381)	(1,172)	(1,357)	(1,335)	(1,317)	(1,335)
이타심										
평균	3.19	3.20	3.20	3.28	3.24	3.24	3.28	3.25	3.30	3.30
표준편차	0.63	0.62	0.60	0.61	0.62	0.63	0.64	0.65	0.63	0.62
(수)	(1,313)	(1,409)	(1,399)	(1,380)	(1,381)	(1,172)	(1,358)	(1,337)	(1,318)	(1,334)

(표 IV-2-29 계속)

구분	어머니					아버지				
	1차	2차	3차	4차	6차	1차	2차	3차	4차	6차
행복한 가정										
평균	3.90	3.90	3.87	3.87	3.85	3.86	3.86	3.83	3.84	3.84
표준편차	0.33	0.32	0.36	0.36	0.38	0.63	0.41	0.44	0.41	0.38
(수)	(1,312)	(1,410)	(1,400)	(1,381)	(1,377)	(1,173)	(1,358)	(1,340)	(1,319)	(1,335)
여가										
평균	2.60	2.66	2.70	2.75	2.76	2.71	2.79	2.80	2.86	2.94
표준편차	0.68	0.66	0.68	0.69	0.69	0.71	0.72	0.72	0.72	0.73
(수)	(1,313)	(1,408)	(1,399)	(1,380)	(1,380)	(1,173)	(1,357)	(1,337)	(1,318)	(1,334)

양육 지식은 총 13개 문항에 대해 ‘그렇다/아니다’로 대답하게 하여 그 중 정답인 응답 수를 산출하여 계산된다. 자녀 출산 후 패널 아동 어머니의 양육 지식 평균은 8.86점으로 68.14%의 정답률을 보인 반면 2년 뒤 9.28점으로 평균 71.41%의 정답률을 보여 자녀 성장에 따라 더 많은 양육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30〉 양육 지식

구분	최솟값	최댓값	중위수	평균	표준편차	단위: 점, %(명)	
						정답률	(수)
0세(1차)	2	13	9	8.86	2.07	68.14	(1,312)
1세(2차)	0	13	9	9.10	2.10	70.03	(1,413)
2세(3차)	0	13	10	9.28	2.13	71.41	(1,402)

3) 양육 실제

부모의 양육행동은 사회적(온정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으로 하위 변인을 나눌 수 있다. 자녀의 연령에 따라 발달적 특성이 다르고 그에 따라 부모의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연령 특성에 따라 자녀가 4차년도까지의 어머니 양육행동은 사회적 양육행동을 조사하였으며, 이후 온정적 양육과 통제적 양육행동에 대해 질문하였다.

부모의 사회적(온정적) 양육행동 점수는 대체로 통제적 양육행동보다 높았으며, 대체로 아버지보다 어머니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 자녀의 성장에 따라 사회적(온정적) 양육행동의 점수가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점수의 전반적 경향은 비교적 높은 점수대를 나타냈다.

〈표 IV-2-31〉 부모의 양육행동

단위: 점(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사회적(온정적) 양육			통제적 양육			온정적 양육			통제적 양육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0세(1차)	4.03	0.49	(1,313)									
1세(2차)	3.90	0.48	(1,415)		—			—			—	
2세(3차)	3.79	0.51	(1,401)									
3세(4차)	3.79	0.49	(1,382)	3.49	0.46	(1,382)	3.63	0.58	(1,319)	3.45	0.52	(1,319)
4세(5차)	3.65	0.54	(1,399)	3.37	0.52	(1,397)	3.55	0.59	(1,349)	3.25	0.59	(1,345)
5세(6차)	3.68	0.53	(1,379)	3.50	0.49	(1,379)	3.62	0.62	(1,334)	3.42	0.60	(1,335)
6세(7차)	3.65	0.54	(1,368)	3.50	0.48	(1,368)	3.52	0.58	(1,306)	3.30	0.55	(1,306)

주: 4차년도 아버지 조사와 5차년도 어머니 조사부터 온정적 양육행동을 질문함.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전반적으로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가 아버지에 비해 약간 높았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가 만 3세가 되는 시점이 가장 높고,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시점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점수의 편차는 크지 않았다.

〈표 IV-2-32〉 양육 스트레스

단위: 점(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0세(1차)	2.77	0.94	(1,312)			
1세(2차)	2.67	0.92	(1,415)		—	
2세(3차)	2.76	0.93	(1,401)			
3세(4차)	2.78	0.94	(1,382)	2.50	0.91	(1,319)
4세(5차)	2.66	0.95	(1,399)	2.28	0.87	(1,348)
5세(6차)	2.69	0.87	(1,381)	2.48	0.87	(1,335)
6세(7차)	2.36	0.89	(1,368)	2.23	0.84	(1,3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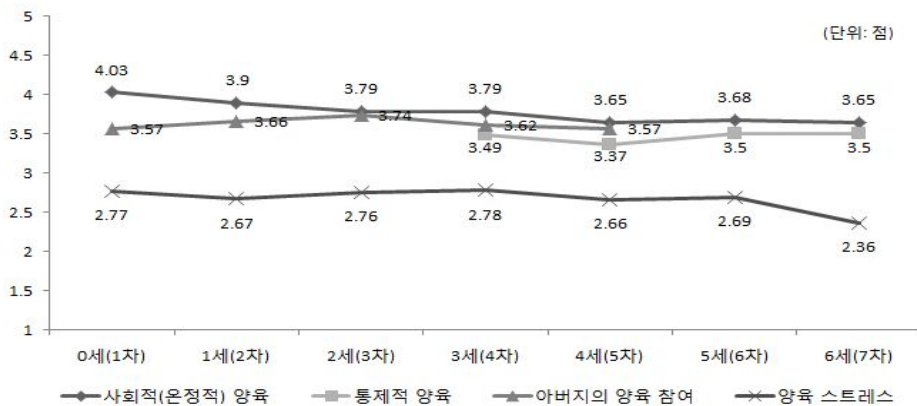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대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가 인식하는 아버지의 양육 참여와 아버지가 인식하는 참여의 정도는 유사한 정도로 응답되었다.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차수에 따라 큰 변동 없이 일정한 수준으로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33〉 아버지의 양육 참여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0세(1차)	3.57	0.80	(1,312)			
1세(2차)	3.66	0.86	(1,406)	—		
2세(3차)	3.74	0.84	(1,398)			
3세(4차)	3.62	0.79	(1,379)	3.62	0.64	(1,317)
4세(5차)	3.57	0.80	(1,394)	3.58	0.65	(1,346)

단위: 점(명)

어머니가 인식하고 있는 자녀 양육의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온정적) 양육행동, 통제적 양육행동,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양육 스트레스는 다소 낮은 상태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2-7] 어머니가 인식한 양육 실제

어머니가 받는 도구적, 사교적, 정보적, 정서적 지지와 같은 사회적 지원은 자녀 출산 직후인 1차 조사 시점이 가장 높았고, 7차 조사 시점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아동패널에서는 6, 7차 조사에서는 각 항목에 대해 친가, 외가, 친구 및 동료, 이웃으로부터의 지원을 구분하여 각 항목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를 추가 분석한 결과 도구적 및 사교적 지원에서는 외가, 친가, 친구 및 동료, 이웃의 순으로 더 큰 지원을 받는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정서적 및 정보적 지원에서는 외가, 친구 및 동료, 친가, 이웃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34〉 사회적 지지

단위: 점(명)

구분	도구적 지지		사교적 지지		정보적 지지		정서적 지지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0세(1차)	4.18	0.64	4.07	0.67	4.11	0.68	4.16	0.69	(1,416)
1세(2차)	3.94	0.70	3.91	0.70	3.84	0.75	3.87	0.77	(1,409)
2세(3차)	3.91	0.69	3.90	0.68	3.81	0.73	3.83	0.76	(1,401)
3세(4차)	3.85	0.70	3.84	0.67	3.74	0.72	3.79	0.75	(1,382)
5세(6차)	3.78	0.61	3.80	0.54	3.85	0.59	3.97	0.55	(1,265)
6세(7차)	3.45	0.63	3.52	0.53	3.51	0.59	3.60	0.55	(1,412)

주: 6, 7차 조사에서는 친가, 외가, 친구 및 동료, 이웃으로 부터의 지원을 구분하여 각 항목에 응답하도록 하였음. 본 표에는 전체 집단의 평균을 제시함.

마. 소결

한국아동패널의 1차년도부터 7차년도까지의 자료를 통해 영유아기 부모의 특성을 인구학적 특성 및 건강 특성, 직업 특성, 개인 및 부부특성, 양육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부모의 연령은 조사 최초 참여 시점인 2008년을 기준으로 20대 후반에서 30대가 가장 많이 분포했으며, 대부분 아버지가 연상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최종 학력은 대졸 이상이 가장 많았으며, 부모의 학력이 동일한 경우가 과반수에 해당하였다. 부모의 대다수는 초혼으로 패널 아동을 출생 시 평균 47.43개월의 결혼기간을 유지하고 있었다. 부모의 과반수는 종교가 없었으며, 종교가 있는 경우 개신교와 불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기에서 유아기까지 부모의 대다수는 자녀와 동거하고 있었으며, 자녀와 비동거하는 비율도 자녀가 성장함에 점차 감소하였다.

부모의 1% 미만만이 1·2급 장애나 희귀난치성 유전병을 앓고 있었으며,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서는 부모 모두 알레르기 비염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었고,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경우 2가지 이상의 중복 질환을 경험하는 경우도 많았다. 자녀의 성장에 따라 부모 모두 월 1회 이상 음주를 하는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흡연의 경우 자녀의 성장에 따라 큰 변화 없이 대다수의 어머니는 비흡연자로, 50%가량의 아버지는 흡연자로 나타났다.

조사 시기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아버지는 취/학업 중이었으며, 어머니의 취

업률은 자녀의 성장에 따라 점차 증가하여 패널 아동이 취학 전 연령이 되는 시점에는 43.3%가 취/학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중인 어머니들의 재직 상태는 자녀가 만 1세가 되는 시점부터 급격히 감소하여 자녀가 만 2세가 되는 시점부터는 10% 미만의 휴직률을 보였다. 취업 중인 부모의 대다수는 정규직 또는 상용직에 근무하였다. 취업모는 자녀가 영아기에는 평균 42시간 가량을, 유아기에는 평균 40시간 가량을 근무하였으며,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미취/학업모는 결혼 후 미취/학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패널 아동을 임신하거나 출산한 후에 중단한 경우도 대다수였다. **평균적**으로 자녀 출산 5.49개월 전 혹은 출산 후 29.18개월에 미취/학업모가 되었으며, 경력 단절의 이유는 직접 자녀를 돌보고 싶어서가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미취/학업모의 경우 대다수가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했으며,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서도 다수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우울은 패널 아동 출산 전후 'V' 형태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후 전반적으로 낮게 유지되었다.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자녀가 유아기로 접어드는 만 3세 시기부터 다소 상승하여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었지만, 초등 입학 전 연령인 만 6세 시점에는 영아기와 유사한 정도로 하락하였다. 아버지의 우울과 부정적 자기효능감은 어머니에 비해 전 조사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자아존중감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부의 결혼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만족도는 높고 갈등은 낮게 나타났다. 부모의 결혼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일관되게 높게 유지되었으나 대상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시점에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부모의 후속 출산에 대한 계획은 자녀가 성장하면서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상 자녀가 만 4세가 되는 시점에 급격한 감소를 보였다. 부모들은 조사 시점에 상관없이 대다수가 2자녀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반 수 이상이 자녀의 성별에 대한 특별한 선호를 보이지 않았다. 자녀의 이상적인 성별 구성에 대해 선호를 나타내는 경우에 있어서도 아들·딸을 각 1명씩 두는 것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가정에서 배울 수 있는 자질과 특성에 대해 부모 모두 예의바른 생활 습관을 우선으로 꼽았으며, 타인에 대한 포용과 존중에 대해서도 과반 수 이상

이 선택했다. 부모의 양육신념 중 빈도가 높았던 항목은 매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패널 부모들은 자녀에게 노후에 대한 경제적 도움이나 사회적 의무감과 같은 도구적 가치보다 정서적 가치를 더 크게 느끼고 있었으며, 이러한 자녀에 대한 가치감은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는 자녀의 장래에 대해 모두 행복한 가정을 갖는 것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자녀의 성장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부모의 양육행동은 대체로 사회적(온정적) 양육행동이 통제적 양육행동 보다 더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자녀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는 조사 시점에서 전반적으로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어머니가 아버지에 비해 일관되게 높게 응답되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양육에 비교적 잘 참여한다고 인식하였으며, 아버지의 양육 참여 수준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받는 사회적 지원은 자녀 출산 직후인 1차 조사 시점이 가장 높았고, 취학 전 시점인 7차 조사 시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구적 및 사교적 지원은 외가, 친가, 친구 및 동료, 이웃의 순으로, 정서적 및 정보적 지원은 외가, 친구 및 동료, 친가, 이웃의 순으로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3. 가구 특성

가. 가계 경제 특성

가구 특성 중, 경제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월평균 가구 소득과, 총 지출의 추이를 알아보았다. 지출과 관련해서는 가구의 월평균 총 지출과 함께 자녀에 대한 가구지출 금액을 알아보았다.

패널 아동 연령 만 0세부터 만 6세까지의 7차년에 걸친 월평균 가구 소득 추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5차년도에 가구 소득을 세전 금액으로 절제한 것을 고려했을 때, 월평균 가구 소득은 점차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다. 패널 아동이 만 0세였던 1차시기의 가구 소득이 월평균 3,100,600만원이고, 만 6세인 7차시기의 소득이 평균 4,466,800만원으로 대략 6년 사이에 가구 소득이 136만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3-1〉 월평균 가구 소득

단위: 만원

구분	2008년 (0세, 1차)	2009년 (1세, 2차)	2010년 (2세, 3차)	2011년 (3세, 4차)	2012년 (4세, 5차)	2013년 (5세, 6차)	2014년 (6세, 7차)
평균	310.06	337.73	351.90	389.98	459.65	425.63	446.68
표준편차	140.94	333.23	264.25	286.35	486.34	214.22	214.00
중위값	300.00	300.00	300.00	350.00	400.00	400.00	400.00
최솟값	0.0	60.0	0.0	0.0	0.0	0.0	0.0
최댓값	1300.00	7000.00	6000.00	6650.50	6000.0	3000.00	3000.00

주: 4차는 근로(사업)소득, 5차는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 소득을 절문한 값이며 세전 소득을 제시한 5차를 제외하고는 모두 실수령 금액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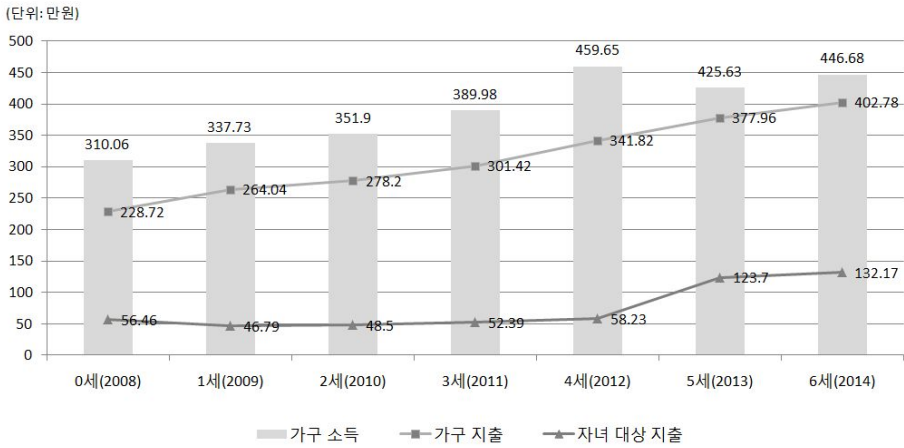
이어서 가구에서 평균적으로 월마다 지출하는 금액과, 자녀에 대한 지출액을 함께 알아보았다. 각종 세금이나 적금, 보험, 월 상환금 등을 포함하는 비소비성 지출과 식비, 주거비, 양육비, 보육교육비 등을 포함하는 소비성 지출을 합하여 산출한 월평균 가구의 총 지출은 1차부터 조사가 진행된 7차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자녀에 대한 월 평균 지출은 증감을 반복하며 증가해가는 패턴을 보였으며, 특히 패널 아동이 만 5세가 되는 6차시기를 기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IV-3-2〉 월평균 가구 총 지출 및 자녀에 대한 지출

단위: 만원

구분	2008년 (0세, 1차)	2009년 (1세, 2차)	2010년 (2세, 3차)	2011년 (3세, 4차)	2012년 (4세, 5차)	2013년 (5세, 6차)	2014년 (6세, 7차)
가구 총 지출							
평균	228.72	264.04	278.20	301.42	341.82	377.96	402.78
표준편차	111.54	230.48	208.35	130.52	177.78	170.57	209.95
중위값	205.00	230.00	250.00	280.00	300.00	350.00	374.00
최솟값	0.00	44.00	40.00	50.00	20.00	30.00	60.00
최댓값	1200.00	4000.00	3600.00	1800.00	3000.00	2000.00	3600.00
자녀에 대한 총 지출							
평균	56.46	46.79	48.50	52.39	58.23	123.70	132.17
표준편차	65.94	65.71	65.15	34.20	32.19	70.49	85.03
중위값	35.00	34.00	34.00	45.00	53.00	110.00	115.00
최솟값	0.00	4.00	3.00	5.00	0.00	2.00	15.00
최댓값	720.00	1550.00	2010.00	400.00	350.00	1100.00	1440.00

주: 15차년도 자료는 패널 아동에 대한 가구의 소비성, 비소비성 지출의 합을 의미하며 5, 6차년도 자료는 전체 자녀에 대한 소비성, 비소비성 지출의 합을 의미함.



[그림 IV-3-1] 월 평균 가구 소득 대비 지출

나. 가정환경 특성

2011년도부터 2014년에 걸쳐 수집된 가정환경 질에 관한 자료 분석 결과, 패널 아동의 유아기 가정환경의 질은 55점 총점에 평균 48~49점 이상으로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학습자료 점수의 경우 해가 지날수록 평균 점수가 다소 늘었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그 점수 차는 아주 미미하여 전반적으로 학습자료 제공은 잘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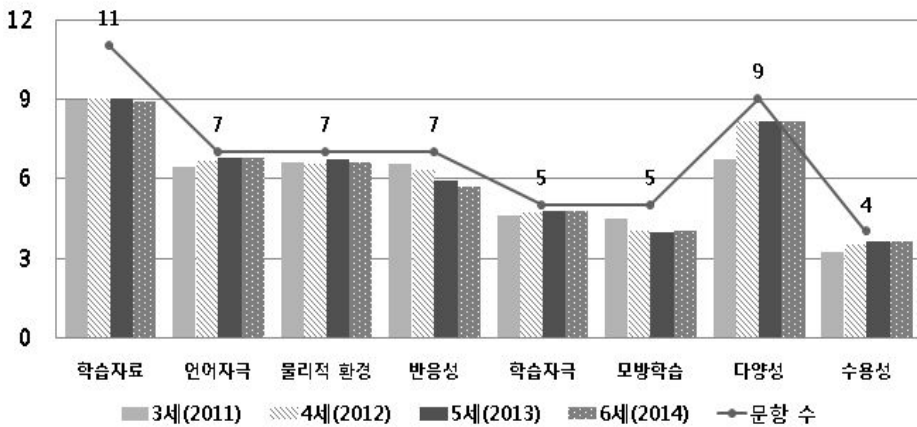
언어자극 점수의 경우, 해가 지날수록 지속적으로 증가되다가 2013년과 2014년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어휘가 발달되는 시기와 맞물려 언어자극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어휘 발달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게 되었을 때인 만 6세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대부분의 가정환경검사 하위 영역은 전반적으로 전년도 대비 증가와 감소 경향을 보이지만 연차별로 큰 변화가 없어서 특이한 상황을 발견할 수 없었다. 반면, '반응성'은 다른 하위 영역에 비해 연차별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어머니가 아동에게 보이는 정서적이거나 언어적인 반응은 다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3〉 가정환경의 질(2011~2014년)

단위: 점

구분	문항	2011년 (3세, 4차년도)		2012년 (4세, 5차년도)		2013년 (5세, 6차년도)		2014년 (6세, 7차년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55	47.73	4.29	49.13	4.05	49.14	3.97	48.67	4.12
학습자료	11	8.99	1.16	9.05	1.03	9.04	0.88	8.90	0.98
언어자극	7	6.45	0.81	6.69	0.67	6.79	0.58	6.78	0.56
물리적 환경	7	6.62	0.94	6.59	1.07	6.75	0.82	6.64	0.89
반응성	7	6.59	0.90	6.32	1.15	5.95	1.26	5.70	1.33
학습자극	5	4.61	0.83	4.74	0.71	4.79	0.82	4.78	0.85
모방학습	5	4.49	0.77	4.03	0.83	4.01	0.88	4.07	0.91
다양성	9	6.73	1.19	8.19	1.10	8.18	1.07	8.17	1.03
수용성	4	3.25	0.81	3.51	0.70	3.63	0.59	3.64	0.55



[그림 IV-3-2] 가정환경의 질

2011년도부터 2014년에 걸쳐 수집된 가정환경 질에 관한 자료에서 각 하위 영역 점수가 중위수보다 2~3점이 낮거나 총점에서 7~8점 이상 낮은 경우만을 가정환경자극의 질이 낮을 수 있는 의심 집단으로 선별하여 그 비율을 살펴본 결과, 먼저 총점의 경우는 2011년~2013년까지는 의심 집단의 비율이 줄어들다가 2014년도에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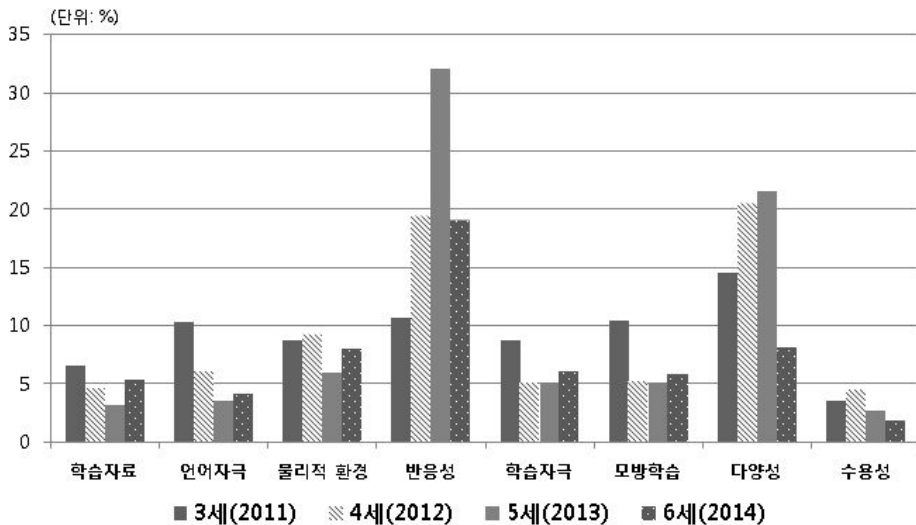
보다 구체적으로 하위 영역별로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반응성’과 ‘다양성’

영역이 다른 영역에 비해 의심 집단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하위 영역에서도 의심 집단의 비율이 연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영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고무적이라고 사료된다.

〈표 IV-3-4〉 가정환경의 질 분포 (일반집단 및 의심집단 분포)

단위: %

구분	2011년 (3세, 4차년도)		2012년 (4세, 5차년도)		2013년 (5세, 6차년도)		2014년 (6세, 7차년도)	
	일반집단	의심집단	일반집단	의심집단	일반집단	의심집단	일반집단	의심집단
전체	89.9	10.1	90.8	9.2	92.5	7.5	90.6	9.4
학습자료	93.4	6.6	95.3	4.7	96.8	3.2	94.6	5.4
언어자극	89.7	10.3	93.9	6.1	96.5	3.5	95.8	4.2
물리적 환경	91.2	8.8	90.8	9.2	94.1	5.9	92.0	8.0
반응성	89.3	10.7	80.6	19.4	67.9	32.1	81.0	19.0
학습자극	91.2	8.8	94.8	5.2	94.9	5.1	93.9	6.1
모방학습	89.6	10.4	94.7	5.3	94.9	5.1	94.1	5.9
다양성	85.5	14.5	79.5	20.5	78.4	21.6	91.8	8.2
수용성	96.4	3.6	95.4	4.6	97.3	2.7	98.1	1.9



[그림 IV-3-3] 가정환경의 질 의심집단 분포

다. 소결

1~7차에 걸친 한국아동패널 가구의 특성을 가계의 경제적 특성과, 가구의 환경적 특성을 통해 살펴보았다. 경제적 특성은 월평균 가구 소득과 총 지출, 자녀에 대한 총 지출로 나누어 추이를 분석하였으며, 가구의 환경적 특성은 가정환경검사(EC-HOME)를 통해 가정환경 질을 측정하였다.

패널 가구의 경제적 특성과 관련하여, 만 0세부터 만 6세까지의 7차년에 걸친 월평균 가구 소득 추이를 살펴본 결과 소득이 점차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다. 또한, 비소비성 지출과 소비성 지출을 합하여 산출한 월평균 가구의 총 지출은 1차부터 7차까지 꾸준히 증가했으며, 자녀에 대한 월 평균 지출은 증감을 반복하며 최종적으로 증가해가는 패턴을 보였다.

패널 가구의 환경적 특성과 관련하여, 2011년도부터 2014년에 걸쳐 조사된 유아기 가정환경의 질은 55점 총점에 평균 48~49점 이상으로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으로 조사되었다. 가정환경검사 하위 영역은 전반적으로 전년도 대비 증가와 감소 경향을 보였지만 연차별로 큰 변화는 없었다. 다만, 특징적으로 ‘언어자극’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3년과 2014년 사이에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반응성’은 다른 하위 영역에 비해 연차별로 감소하는 패턴을 보였다. 즉, 아동의 성장에 따라 어머니가 아동에게 보이는 정서적, 언어적인 반응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가정환경자극의 질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의심 집단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 총점을 기준으로 2011년~2013년까지 의심 집단의 비율이 줄어들다가 2014년도에 다소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다. 하위 영역 중, ‘반응성’과 ‘다양성’ 영역은 타 영역에 비해 의심 집단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4. 육아지원 기관 및 서비스 특성

가.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관련

패널 아동의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추이를 살펴본 결과,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전체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률도 증가함을 보여준다. 생애 초기에는 주로 개인대리양육자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만 3세를 기점으로 기관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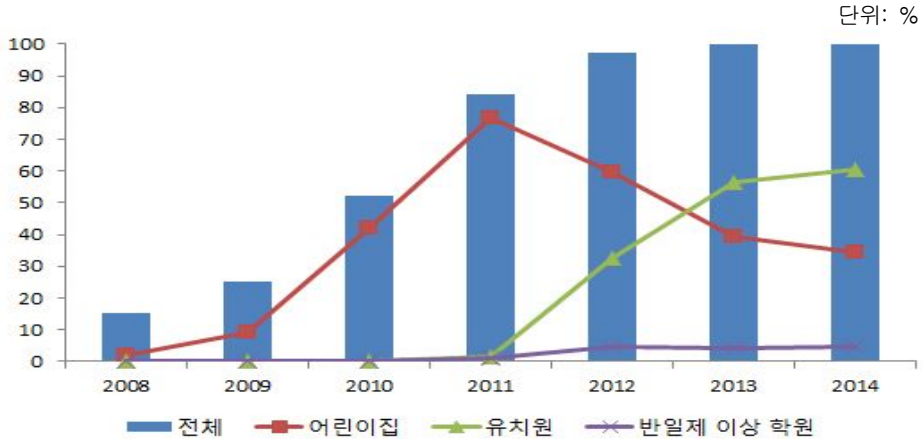
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만 3, 4세는 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반면, 만 5세 이후에는 어린이집보다 유치원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1〉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단위: %

구분	0세/1차 (2008)	1세/2차 (2009)	2세/3차 (2010)	3세/4차 (2011)	4세/5차 (2012)	5세/6차 (2013)	6세/7차 (2014)
전체(수)	15.3 (216)	25.4 (359)	52.3 (741)	84.2 (1,192)	97.0 (1,374)	100.0 (1,070)	100.0 (1,068)
개인대리양육자	13.1	15.0	9.1	1.6	-	-	-
어린이집	2.0	9.3	42.2	76.8	59.5	39.3	34.6
유치원	-	-	-	1.4	32.8	56.6	60.7
반일제 이상 학원	-	-	.3	.9	4.7	4.1	4.8
기타기관 (선교원 등)	-	-	.1	.1	-	-	-
개인대리양육자+어린이집	0.2	1.1	.6	3.0	-	-	-
개인대리양육자+유치원	-	-	-	-	-	-	-
개인대리양육자+반일제 학원	-	-	-	.1	-	-	-
어린이집+기타기관	-	-	-	.1	-	-	-

주: 6·7차년도는 기관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된 이용 육아지원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함.



[그림 IV-4-1] 전체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대비 어린이집 및 유치원, 학원 이용

나. 특별활동

3차년도(만 2세)부터 기관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 실시 여부도 함께 살펴보았다. 아래 <표 IV-4-2>와 같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기관 내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비율이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히 만

3세 이후에는 아동이 이용하는 육아지원기관에서 2/3이상이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만 5세 이후에는 약 90%가량의 기관에서 기관 내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함을 볼 수 있다.

〈표 IV-4-2〉 기관 내 특별활동 실시

단위: %

구분	2세	3세	4세	5세	6세
	3차년도 (2010)	4차년도 (2011)	5차년도 (2012)	6차년도 (2013)	7차년도 (2014)
기관내 특별활동 없음	68.1	30.8	22.9	11.5	10.9
기관내 특별활동 있음	31.9	69.2	77.1	88.5	89.1
전체(수)	100.0(1,416)	100.0(1,165)	100.0(1,415)	100.0(1,070)	100.0(1,068)

기관 내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미술, 음악, 체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종류별로 아동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의 수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먼저 만 2세에는 음악과, 체육, 미술 등의 프로그램 이용률이 높으며, 만 3세 이후에는 영어의 이용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만 5세 시점에는 아동 당 평균적으로 약 1개의 영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3〉 기관 내 특별활동 이용 수

단위: 점

구분	2세		3세		4세		5세		6세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2010)		(2011)		(2012)		(2013)		(2014)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미술	0.44	0.51	0.32	0.47	0.31	0.49	0.53	0.62	0.64	0.77
음악	0.58	0.50	0.50	0.50	0.44	0.53	0.54	0.61	0.7	0.70
체육	0.48	0.51	0.57	0.51	0.70	0.59	0.96	0.65	0.97	0.65
과학	0.02	0.13	0.05	0.22	0.14	0.35	0.34	0.49	0.44	0.58
수학	0.03	0.18	0.07	0.26	0.10	0.30	0.25	0.49	0.44	0.73
한글(국어)	0.09	0.28	0.13	0.33	0.12	0.34	0.32	0.56	0.52	0.83
컴퓨터	0.00	0.05	0.00	0.04	0.00	0.06	0.01	0.09	0.04	0.20
교구 이용 프로그램	0.35	0.54	0.35	0.49	0.27	0.48	0.48	0.79	0.64	1.03
한자	0.00	0.05	0.01	0.10	0.01	0.13	0.1	0.29	0.23	0.43
영어	0.38	0.49	0.75	0.45	0.77	0.50	0.94	0.58	1.05	0.84
기타										
외국어	0.01	0.08	0.01	0.11	0.06	0.28	0.07	0.26	0.06	0.27

(표 IV-4-3 계속)

구분	2세 3차년도 (2010)		3세 4차년도 (2011)		4세 5차년도 (2012)		5세 6차년도 (2013)		6세 7차년도 (2014)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통합		통합		통합		통합		통합	
기타	0.01	0.11	0.12	0.34	0.01	0.16	0.21	0.54	0.3	0.68
(수)	(452)		(806)		(630)		(947)		(952)	

다. 소결

한국아동패널의 1-7차년도의 자료를 통해 패널 아동의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추이를 살펴본 결과, 연령에 따른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률 증가를 살펴볼 수 있다. 육아지원서비스는 만 3세를 기점으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만 3, 4세는 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높았으며, 만 5세 이후에는 유치원 이용률이 높았다. 한편, 아동이 이용하는 기관 내 특별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만 2세에는 기관 내 특별활동 실시 비율이 31.0%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만 6세에는 88.8%로 나타났다.

기관 내 이루어지는 특별활동 종류는 미술, 음악, 체육, 과학, 수학, 영어 등 종류가 다양하였으며, 만 3세 이후에는 영어의 이용수가 증가하는데, 만 5세 시점에는 평균적으로 아동 당 약 1개의 영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영어에 대한 선호는 기관 내 이루어지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이용 추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이용이 추후 아동의 성장·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성이 요구된다. 또한, 기관 내 이루어지고 있는 특별활동의 이용 현황뿐만 아니라, 가구에서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탐색할 필요성이 요구되는데, 이는 보육·교육 서비스 비용 지원에 대한 가구의 체감을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 지역사회 특성

가. 물리적 특성

1) 시설 이용 편리성

패널 아동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공공 여가공간/시설과 문화시설 이용이 편리한지 살펴보기 위하여 1점(매우 불편함)부터 5점(매우 편리함)까지의 척도로 질문하였다. 놀이터, 공원, 산책로와 같은 공공 여가공간은 1차년도 기준 3.23점으로 보통에 가까운 수준이었고,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등의 문화시설은 1차년도 기준 2.58점으로 보통 수준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패널 가구들은 문화시설보다는 공공 여가공간이 더 이용하기 편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이용 편리성은 아동 연령이 증가하면서 소폭으로 오르내리기를 반복하였다. 가장 이용 편리성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1차 조사인 아동이 만 0세 때이다.

〈표 IV-5-1〉 공공 여가공간/시설 및 문화시설 이용 편리성

단위: 점(명)

구분	공공 여가공간/시설 이용 편리성			문화시설 이용 편리성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0세(1차)	3.23	1.10	(1,314)	2.58	1.11	(1,307)
1세(2차)	3.15	1.07	(1,410)	2.49	1.05	(1,412)
2세(3차)	3.20	1.03	(1,402)	2.51	1.02	(1,402)
3세(4차)	3.09	1.03	(1,378)	2.47	1.00	(1,379)
4세(5차)	3.12	1.03	(1,399)	2.41	0.86	(1,398)
5세(6차)	3.12	1.03	(1,380)	2.44	0.86	(1,380)
6세(7차)	3.22	1.02	(1,368)	2.51	0.84	(1,368)

주: 5~7차 조사에서는 시설 이용 편리성을 각 항목별로 조사하였으므로 ‘공공 여가 공간/시설’은 ‘놀이터’, ‘공원’, ‘산책로’ 항목의 평균값을, ‘문화시설’은 ‘박물관’, ‘미술관’, ‘공연시설’, ‘영화관’, ‘장난감 대여센터’, ‘도서관’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분석함.

2) 지역 안전

지역사회의 안전성을 1점(매우 위험)부터 5점(매우 안전)까지의 척도로 질문하였다. 1차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치안 측면은 3.36점, 안전사고 측면은 3.16점으로 보통 수준에 가깝게 나타났으며, 치안 보다는 안전사고가 점수가 낮았다. 안전성 점수는 아동 연령이 만 0세일 때 높았다가 만 2세일 때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만 6세가 되면서 다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2〉 치안 및 안전사고 측면 안전성

단위: 점(명)

구분	치안 측면 안전성			안전사고 측면 안전성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0세(1차)	3.36	0.86	(1,312)	3.16	0.92	(1,313)
1세(2차)	3.26	0.78	(1,411)	3.14	0.81	(1,408)
2세(3차)	3.21	0.80	(1,400)	3.07	0.83	(1,400)
3세(4차)	3.23	0.82	(1,379)	3.10	0.80	(1,379)
5세(6차)	3.32	0.82	(1,380)	3.14	0.84	(1,380)
6세(7차)	3.34	0.82	(1,368)	3.17	0.87	(1,368)

주: 5차 조사에서는 해당 문항이 없음.

나. 양육관련 특성

육아지원기관과 사교육 기관이 충분한지를 1점(매우 충분)부터 5점(매우 불충분)까지의 척도로 질문하였다. 1차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육아지원기관은 3.37점, 사교육 기관은 3.27점으로 보통 수준에 가까웠으며, 육아지원기관의 충분성 정도가 사교육기관보다 다소 높았다. 아동의 연령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육아지원기관과 사교육기관의 충분성 정도는 점차 감소하였다. 육아지원기관은 아동이 만 5세 때, 사교육기관은 만 3세 때에 가장 낮은 점수로 감소하였는데, 보통에 미치지 않는 수준이었다. 그리고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가 자녀를 양육하기에 전반적으로 적절한지 1점(매우 좋지 않음)에서 5점(매우 좋음)으로 질문하였을 때, 1차년도 기준 3.24점으로 보통 수준이었으며 만 5세 때는 3.29점으로 나타났다.

〈표 IV-5-3〉 양육기관 충분성 및 적절성

단위: 점(명)

구분	육아지원기관 충분성			사교육 기관 충분성			전반적 양육 적절성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0세(1차)	3.37	0.94	(1,309)	3.27	1.04	(1,296)	3.24	0.86	(1,314)
1세(2차)	3.20	0.91	(1,411)	2.97	1.00	(1,411)	3.22	0.82	(1,406)
2세(3차)	3.25	0.89	(1,402)	2.99	1.00	(1,401)	3.18	0.80	(1,401)
3세(4차)	2.99	0.86	(1,379)	2.77	0.99	(1,379)	3.20	0.76	(1,379)
4세(5차)	3.10	1.00	(1,398)	2.89	1.06	(1,394)	3.29	0.85	(1,394)
5세(6차)	2.85	0.90	(1,379)	2.79	1.06	(1,378)	-	-	-
6세(7차)	2.95	0.95	(1,368)	2.88	1.06	(1,368)	-	-	-

주: 조사 시점별 질문 형태의 차이로 인하여 본 분석에서는 ‘육아지원기관 충분성’을 1~4차 조사에서는 ‘어린이집 충분성, 유치원 충분성’, 6~7차 조사에서는 ‘국공립 육아지원기관 충분성, 민간 육아지원기관 충분성’ 항목의 평균값을 제시함.

다. 소결

영유아기 아동을 양육하는 양육자 입장에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살펴본 결과, 공공 여가 공간/시설과 문화시설의 이용 편리성 및 치안과 안전사고의 안전성은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안전성에 대한 인식은 아동 연령이 만 0세일 때 높았다가 만 2세일 때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만 6세가 되면서 다시 상승하였다. 육아인프라 측면에서 육아지원기관과 사교육기관이 역시 보통 수준으로 충분하다고 인식하였으나, 아동의 연령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불충분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고 있는 곳이 자녀를 양육하기에 전반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보통 수준으로 응답되었다. 아동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공공 여가공간보다 문화시설의 이용 편리성, 그리고 치안보다 안전사고에 대한 안전성을 더욱 증진시켜야 할 필요가 있겠다.

6. 육아 정책 특성

가. 국가 지원

1) 육아지원정책 수혜율

다음은 지난 1년 간 국가로부터 자녀의 양육에 도움이 되는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이다. 그 중에서 매해 조사된 항목을 선별하여 수혜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만 기재하였다.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가 가장 많이 지원받고 있는 육아지원정책은 '필수예방접종'과 '건강검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 5세 때부터는 대다수의 아동들이 해당 지원정책의 수혜자 가구에 속했다. 패널 아동 중에서 '농어민 가정 육아비(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금)'를 받는 가구는 해마다 점차 감소하였으며, '아이돌보미'나 '영양플러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는 적게 나타났다. 만 2세 아동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의 경우 2013년에 100명이 넘는 10%의 아동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아동의 문제행동이나 심리, 발달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한 가구는 비율이 낮지만 점차 증가 추세에 있었다.

〈표 IV-6-1〉 육아지원정책 수혜율

구분	단위: %(명)						
	0세 (2008)	1세 (2009)	2세 (2010)	3세 (2011)	4세 (2012)	5세 (2013)	6세 (2014)
농어민 가정 육아비	2.2(32)	2.5(34)	6.3(13)	6.2(2)	-	-	-
아이 돌보미	1.4(21)	3.0(47)	0.7(2)	0.5(1)	1.8(15)	1.6(20)	1.6(24)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85.3(231)	7.7(108)	49.5(558)	86.6(1,236)	90.8(1,288)
영유아 건강검진			51.7(136)	67.6(114)	50.3(558)	86.2(1,230)	90.5(1,291)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1.8(3)	4.1(6)	3.5(39)	12.2(170)	12.4(193)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	—	4.3(12)		-	-	2.0(23)
장애아 보육교육비 지원					0.6(4)	0.6(6)	0.7(10)
인터넷 과몰입 아동 ·청소년 치유 서비스			—	—	0.1(1)	0.1(1)	0.3(5)
영유아발달 지원서비스					0.4(5)	1.3(17)	2.1(30)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0.1(2)	0.9(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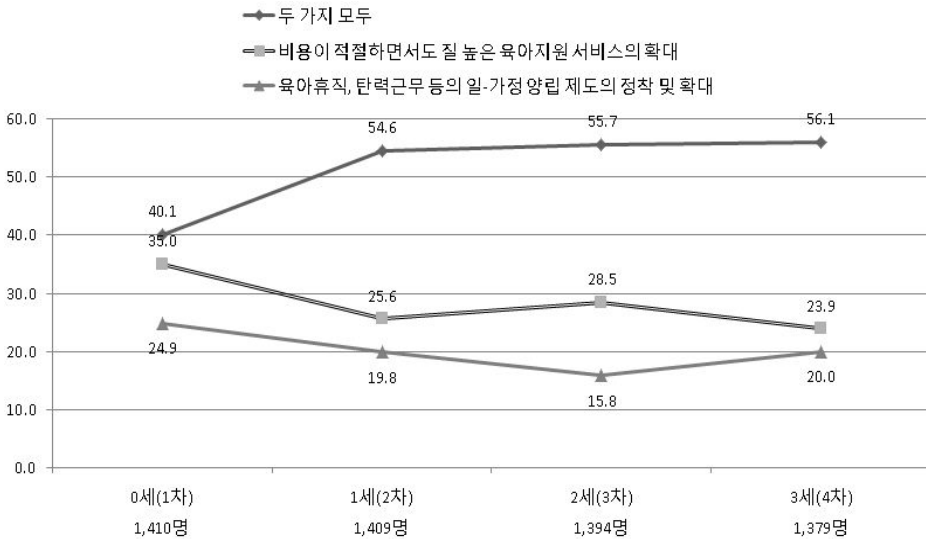
주: 1) 2008~2012년 조사에는 수혜 경험의 '예/아니오' 중 '예'라고 응답한 경우를, 2013~2014년 조사에는 '예/아니오/정책을 몰랐음' 중 '예'라고 응답한 경우를 제시하였음.

2) 2013년도부터 '인터넷게임 중독 아동 치료 서비스'가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 서비스'로, '아동발달지원서비스'가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로,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은 '의료기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조사되었음.

2)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의견

패널 아동의 어머니에게 여성의 경제활동을 위하여 정부가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방법 중에서 더 중점을 두었으면 하는 것을 질문하였다. 두 가지 정책 방향 중에 한 가지는 육아휴직, 탄력근무(시차 출근제) 등의 일-가정 양립 제도의 정착 및 확대이고, 다른 하나는 비용이 적절하면서도 질 높은 육아지원 서비스의 확대이다. 그리고 두 가지 모두를 선택지로 추가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두 가지 모두'라고 응답한 어머니는 1차 조사에 40.1%로 가장 많았으나, 이후로도 점차 증가하여 4차 조사에서 절반 이상인 56.1%가 되었다. 1차년도를 기

준으로 육아지원서비스의 확대는 35%, 일-가정 양립 제도는 24.9%으로 나타나, 비용과 질이 충족되는 육아지원서비스의 확충을 더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6-1] 육아지원정책의 방향

나. 보육/교육 지원

1) 보육/교육 지원 수혜율

아동이 만 0세부터 만 3세이던 14차 조사 때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보육비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보육비를 감면 혹은 면제해주는 사유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기타저소득층(차등보육료), 두 자녀 이상, 장애아동, 농어업인자녀, 취업여성보육지원, 기타의 응답이 있었다. 만 0~1세에는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아동 중에서 일부감면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만 2세에는 전액면제를 받는 아동의 비율이 가장 많았다. 대부분의 아동이 기관을 이용하는 만 3세 시기(2011년)에 감면 혜택을 받는 아동은 전체의 62.9%였다.

〈표 IV-6-2〉 보육비 감면(면제) 여부

구분	단위: %(수)			
	0세(2008)	1세(2009)	2세(2010)	3세(2011)
전액면제	12.7	27.1	48.6	62.9
일부감면	59.5	41.9	17.3	
혜택없음	27.9	30.9	34.1	37.1
(수)	(31)	(146)	(607)	(1,153)

〈표 IV-6-3〉은 구체적으로 가구에서 어떠한 보육/교육 정책의 지원을 받았는지 살펴본 결과이다. 아동이 육아지원기관에 다니지 않는 가구에게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은 비율상으로는 만 2~3세 시기에 높게 나타났으나, 숫자상으로는 2013년 이후인 만 5~6세가 더 높았다. ‘누리과정/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은 만 4세 시기 패널 아동의 68.5%가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듬해인 2013년에는 패널아동이 ‘누리과정’의 해당 연령이 되면서 만 5세에 93.5%, 만 6세에 95.4%로 대다수의 아동이 지원금을 받았다.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을 받는 가구는 아동이 만 5세일 때 가장 많았다.

〈표 IV-6-3〉 보육/교육 지원 수혜율

구분	단위: %(명)				
	2세 (2010)	3세 (2011)	4세 (2012)	5세 (2013)	6세 (2014)
가정양육수당	26.9(49)	55.7(13)	-	7.2(92)	10.0(125)
누리과정/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		68.5(805)	93.5(1,327)	95.4(1,365)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0.4(4)	10.5(144)	7.8(119)

주: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은 2013년부터 ‘누리과정’이 추가되어 조사되었고, ‘양육수당’의 명칭은 2013년부터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되어 조사됨.

2) 보육/교육 지원 정책의 인식

누리과정, 보육료, 유아학비와 양육수당 등의 보육/교육 지원 정책을 접한 적이 있는지, 또한 그 정책이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부모 응답을 통해 살펴보았다. 5세 누리과정은 2012년에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 이미 어머니들의 72.8%가 접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누리과정이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은 4.2%로 미미하였다가 2012년에 누리과정이 시행되자 30%를 넘도록 급증하였다. 3-4세 누리과정은 2013년에 시행되었는데, 2012년에 이

정책을 접해보았다는 어머니들은 72.7%였다가 2013년에는 아버지들의 91.8%가 접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 또한 2012년 30.9%였다가 정책이 시행된 2013년에는 아버지 응답 기준으로 절반 이상에 해당되는 58.6%가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다. 가정양육수당의 경우에도 비슷한 패턴으로 2012년에 비해 2013년에 정책 인식 여부와 출산계획 영향 여부가 모두 증가하였다.

〈표 IV-6-4〉 보육/교육 지원 정책의 인식 및 출산계획 영향 여부

단위: %(명)

구분	정책 인식 여부				출산계획 영향 여부			
	5세 누리 과정	3-4세 누리 과정	가정 양육 수당	0-2세 무상 보육	5세 누리 과정	3-4세 누리 과정	가정 양육 수당	0-2세 무상 보육
3세(2011) 어머니 응답	72.8 (992)			-	4.2 (43)			-
4세(2012) 어머니 응답	89.1 (1,222)	72.7 (983)	84.9 (1,170)	92.7 (1,278)	32.4 (414)	30.9 (398)	29.0 (371)	29.0 (378)
5세(2013) 아버지 응답	92.3 (1,225)	91.8 (1,221)	93.3 (1,242)	-	59.2 (775)	58.6 (765)	57.8 (755)	-
6세(2014) 아버지 응답	90.8 (1,192)	-	83.1 (1,091)	-	63.1 (805)	-	58.1 (747)	-

주: 1) 정책 인식 여부는 ‘예/아니오’ 응답 중에서 ‘예’의 비율을, 출산계획 영향 여부는 ‘영향 있음/없음’ 응답 중에서 ‘있음’의 비율을 기입함.

2) ‘가정양육수당’은 2012년에 만0-2세 양육수당, 2013년에 만0-5세 양육수당으로 조사됨.

다. 직장에서의 지원

1) 직장내 육아지원정책 시행 및 이용 여부

상용직으로 취업중인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직장에서의 육아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용한 경험에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가장 높은 시행률을 보인 여성의 출산휴가는 아동이 만 0세인 1차에서 97.3%가 이용하고, 만 1세 때 93.7%가 이용하였고, 만 2세 이후에는 이용률이 감소하였다. 다음으로 높은 시행률로 나타난 여성의 육아휴직은 대체로 절반 가량의 어머니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 연령이 만 1세인 2차에서 62.1%로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이에 비해 남성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시행하고 있는 직장은 50%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아동이 만 0세 때 남성의 출산휴가를 이용한 사람은 36.6%, 남성의 육아휴직을 이용한 사람은 3.1%로 나타났다.

패널 아동 어머니들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약 10%를 상회하였다. 이 중에서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머니들은 20~40%였으며, 아동이 만 1세와 만 6세일 때 이용률이 가장 높았다. 보육비 지원이나 수유실 설치, 유급 수유시간, 시차출근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시행률은 낮은 반면, 이용률은 절반 이상으로 높았다. 직장어린이집, 수유실 설치, 유급 수유시간, 대체인력풀 운영은 아동이 만 1세 때에 가장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시차출근제의 경우 아동이 만 0세일 때 40.2%로 가장 이용률이 높았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2세 때 이용률이 높았다. 보육비 지원은 만 6세 때에 가장 이용률이 높은 84%로 나타났다.

〈표 IV-6-5〉 직장내 육아지원정책 시행 및 이용 여부

단위: %(수)

구분	시행 여부						이용 여부					
	0세 (1차)	1세 (2차)	2세 (3차)	3세 (4차)	4세 (5차)	6세 (6차)	0세 (1차)	1세 (2차)	2세 (3차)	3세 (4차)	6세 (6차)	
여성의 출산휴가	95.9 (287)	98.4 (279)	82.8 (296)	74.0 (322)	94.8 (306)	59.7 (348)	97.3 (282)	93.7 (264)	87.3 (254)	50.1 (161)	65.7 (229)	
여성의 육아휴직	75.4 (220)	77.4 (220)	69.4 (240)	63.1 (260)	77.9 (249)	53.0 (300)	58.9 (127)	62.1 (128)	58.8 (134)	37.3 (91)	49.9 (150)	
남성의 출산휴가	40.8 (129)	59.1 (177)	53.6 (169)	45.3 (172)	50.3 (150)	37.7 (199)	36.6 (49)	-	-	-	-	
남성의 육아휴직	30.0 (98)	47.7 (139)	42.8 (133)	35.1 (133)	41.2 (131)	28.6 (154)	3.1 (3)	-	-	-	-	
직장 어린이집	11.9 (41)	16.0 (50)	16.9 (58)	15.1 (63)	15.9 (48)	12.4 (70)	22.4 (11)	38.2 (18)	27.5 (16)	28.5 (18)	35.4 (25)	
보육비 지원	25.5 (76)	31.6 (86)	25.7 (81)	23.9 (100)	32.0 (96)	17.7 (98)	61.8 (47)	57.0 (52)	64.7 (51)	53.9 (50)	84.0 (79)	
수유실 설치	16.1 (51)	16.5 (44)	13.5 (48)	12.9 (53)	11.7 (36)	9.4 (58)	46.0 (27)	52.3 (20)	25.8 (12)	10.4 (6)	38.8 (23)	
유급 수유시간	16.8 (56)	13.1 (36)	11.0 (37)	12.5 (50)	11.5 (34)	13.2 (76)	45.9 (24)	52.7 (17)	34.2 (13)	10.7 (7)	27.1 (20)	
시차 출근제	20.3 (65)	22.0 (60)	18.3 (64)	19.2 (77)	27.4 (75)	19.8 (108)	44.9 (32)	40.2 (25)	37.3 (24)	23.8 (18)	30.5 (37)	
대체인력풀 운영	17.8 (58)	35.8 (89)	29.8 (101)	28.9 (108)	34.4 (93)	19.1 (109)	67.6 (38)	79.9 (71)	64.5 (59)	41.4 (45)	47.6 (50)	

(표 IV-6-5 계속)

구분	시행 여부						이용 여부					
	0세 (1차)	1세 (2차)	2세 (3차)	3세 (4차)	4세 (5차)	6세 (6차)	0세 (1차)	1세 (2차)	2세 (3차)	3세 (4차)	6세 (6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22.1 (68)	17.3 (66)	23.5 (71)	19.0 (107)	-	-	43.0 (28)	19.8 (16)	38.5 (43)	

주: 1) 시행 여부와 이용 여부는 '예'라고 응답한 비율만을 기입함.

2) 이용 여부는 5차에 조사되지 않았음.

3) 3-6차 조사에서 시행여부를 '잘 모름' 및 '해당 없음'이라고 응답한 값은 결측 처리함.

라. 소결

영유아기 자녀를 둔 가구의 육아지원정책을 국가 정책의 수혜율과 인식, 보육·교육료 지원, 직장내 가족친화정책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 중에서 가장 많이 지원받고 있는 것은 '필수예방접종'과 '건강검진'이었으며, 만 5세 때부터는 85% 이상으로 대다수가 이 지원을 받았다. 다음으로 높은 것은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였다. 정부의 육아지원정책의 방향에 대한 어머니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1차년도를 기준으로 일-가정 양립 제도의 확대보다 비용이 적절하면서도 질 높은 육아지원서비스의 확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하나보다는 두 가지 모두라는 의견이 가장 높았으며 아동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두 가지 모두라는 의견이 점점 높아졌다. 따라서 어머니들은 육아지원서비스와 일-가정 양립제도를 모두 확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알 수 있다.

1-4차 조사 시기에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아동들 중에서 보육비 감면을 받은 아동을 조사하였다. 만 0~1세에는 일부감면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만 2세에는 전액면제를 받는 아동의 비율이 가장 많았다. 대부분의 아동이 육아지원기관에 다니는 만 3세 시기에는 감면 혜택을 받는 아동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었다. '가정양육수당'은 비율상으로 만 2~3세 시기에 높게 나타났다. '누리과정/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은 만 4세 시기에 아동의 68.5%가 지원을 받다가, 누리과정의 해당연령이 되기 시작한 만 5세에 93.5%, 만 6세에 95.4%로 대다수의 아동이 지원을 받았다. 대다수의 부모들은 보육·교육정책이 시행되기 전부터 정책을 접한 적이 있고, 실제로 정책 혜택을 받으면서는 인식도와 출산계획

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증가하는 패턴을 나타냈다.

어머니들이 근로중인 직장에서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는 육아지원정책은 여성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었다. 여성의 출산휴가는 아동이 만 0~1세 때 대다수가 이용하였고, 만 2세 이후에는 이용률이 감소하였다.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머니들은 20~40%였으며, 아동이 만 1세와 만 6세일 때 이용률이 가장 높았다. 보육비 지원이나 수유실 설치, 유급 수유시간, 시차출근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시행률은 낮은 반면, 이용률은 절반 이상으로 높았다. 시간과 관련된 정책은 주로 만 0~1세 때에 가장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보육비 지원은 만 6세 때 가장 이용률이 높았다.

국가에서 영유아 가구들에게 대표적으로 제공하는 필수 예방접종과 건강검진, 가정양육수당과 누리과정의 혜택은 대다수가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받지 못하는 소수의 가구들이 있었다. 따라서 지원에서 열외 되는 계층이 없도록 지원망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근로중인 어머니들이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유연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시간 관련 제도의 시행률과 이용률을 모두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V. 정책적 시사점

본 장에서는 패널 아동이 지난 해 만 6세였던 2014년을 기점으로 영유아 시기가 끝나고 올해 초등학교 입학할 한 것을 감안하여 2015년도에는 영유아시기 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검토를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의 1차년도(2008년)부터 7차년도(2014년)까지의 자료를 통해 주요 변인 중심의 종단적 추이 분석 내용을 정리하였다. 또한, 보다 구체적인 독립변인의 영향을 살펴볼 수 있었던 7차년도 분석 내용도 포함하여 향후 정책적인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 현황, 육아환경 전반, 육아지원 서비스 및 정책의 시행 정도, 향후 육아지원 정책 수립 시에 줄 수 있는 시사점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1. 한국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 현황

영유아기 패널 아동의 특성을 일상생활, 신체발달, 언어발달, 사회/정서발달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먼저 아동의 일상생활 중 영유아의 수면시간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4~6세 유아기 아동의 식습관은 연령이 많아지면서 식사 양과 속도는 점차 증가하고 편식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2~3세 아동은 주로 주양육자나 친구 또는 형제와 노는 시간이 많았던 반면, 만 4~6세에는 보육·교육 기관에서 보내는 시간과 학습활동을 하는 시간이 증가하였다.

신체발달의 경우, 만 0세부터 6세까지 아동의 신장과 체중은 점차 증가하였으나 개인차가 많이 나타났다. 만 3세, 5세, 6세 때 측정하였던 REVT 검사를 통한 어휘력 발달 수준에서 정상발달에 해당하는 아동의 비율은 전체 대략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영유아기의 부정적 정서는 만 3세 때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만 1세 때의 활동성 기질 점수가 가장 높았고, 만 2세 때는 사회성 기질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지원기관 교사가 평정하였던 패널 아동의 또래 상호작용의 경우, 또래와의 놀이 상호작용은 만 4세에서 가장 활발하였다.

만 4~6세 유아의 문제행동 변화 양상은 정상 집단에 속하는 아동이 전체의 80% 이상이었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상 집단의 비율이 더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문제행동의 준임상/임상 집단 비율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패널 아동은 신체발달, 언어발달, 사회/정서발달에서 일반적인 궤적을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경로로 발달하지 못하고 있는 영유아들의 다소 낮은 비율로 인하여 이들 영유아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여겨진다. 모든 영유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평등한 출발선 보장과 동등한 기회 부여라는 전제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끊임없는 국가적 관심과 조기 중재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저소득 가정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문제 행동에 대한 이해 및 대처 방법 등을 알려주는 상담 프로그램 제공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2. 한국 영유아의 양육환경 진단

영유아기 패널 아동 부모의 특성을 인구학적 특성 및 건강 특성, 직업 특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먼저 부모의 연령은 2008년 1차년도 참여 시점을 기준으로 20대 후반에서 30대가 가장 많았고, 대부분 아버지가 연상이었다. 부모의 최종 학력은 대졸 이상이 가장 많았으며, 부모의 학력이 동일한 경우가 과반수이었다. 부모의 대다수는 초혼으로 패널 아동 출생 기준 평균 약 4년(47.43개월)간의 결혼기간을 유지하고 있었다. 부모의 과반수는 종교가 없었으며, 종교가 있는 경우 개신교와 불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기와 유아기 동안 패널 영유아 부모의 대다수는 자녀와 동거하고 있었다.

패널 아동의 영유아시기 동안 아버지의 대부분은 취/학업 중이었으며,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어머니의 취업률은 점차 증가하여 패널 아동이 취학 전 연령이었던 2014년에는 43.3%가 취/학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 단절의 이유로 직접 자녀를 돌보고 싶어서가 가장 많았다.

어머니의 우울은 출산 후 1개월 시점에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이후 비슷하게 유지되었다.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자녀가 유아기로 접어드는 만 3세 시기부터 다소 상승하여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유지

되었지만, 초등 입학 전 연령인 만 6세 시점에는 영아기와 유사한 정도로 하락하였다. 아버지의 우울과 부정적 자기효능감은 어머니에 비해 전 조사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자아존중감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부의 결혼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만족도는 높고 갈등은 낮게 나타났다. 부모의 결혼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일관되게 높게 유지되었으나 대상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시점에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영유아시기의 패널 부모들은 전반적으로 자녀에게 노후에 대한 경제적 도움이나 사회적 의무감을 기대하는 도구적 가치보다 자녀로 인해 누릴 수 있는 정서적 가치를 더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부모의 양육행동은 대체로 사회적(온정적) 양육행동이 통제적 양육행동 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는 어머니가 아버지에 비해 전 조사 시점에 걸쳐 일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1년도(만 3세)부터 2014년(만 6세)에 걸쳐 수집된 가정환경 질에 관한 자료 분석 결과, 패널 아동의 유아기 가정환경의 질은 55점 총점에 평균 48~49점 이상으로 대체적으로 가정환경의 질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환경의 질 8개 하위영역 중 ‘반응성’은 다른 하위 영역에 비해 연차별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어머니가 아동에게 보이는 정서적, 언어적 반응은 다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기 패널 아동 가정의 양육환경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패널 영유아 부모들은 아동을 통한 노후 대비나 대를 잇기 위한 도구적 가치로서 더 비중을 두었던 이전 세대 부모와는 달리 아동을 양육하는 데서 느끼는 행복과 같은 정서적인 가치에 더 비중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 영유아의 가정환경 질은 대체로 우수하지만 아동에 대한 어머니의 언어적이고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민감성은 다른 영역에 비해 다소 떨어짐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어머니의 자존감과 부모의 결혼만족도는 취학 직전 연령인 만 6세 시점에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초등학교 취학을 앞 둔 부모들의 양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책 마련 등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3.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및 정책 수혜 현황

패널 아동의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추이를 살펴본 결과, 생애 초기에는 주

로 개인대리양육자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만 3세를 기점으로 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만 3, 4세는 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반면, 만 5세 이후에는 어린이집보다 유치원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차년도(만 2세)부터 기관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연령이 많아지면서 기관 내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비율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히 만 3세 이후에는 아동이 이용하는 육아지원기관에서 2/3이상이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만 5세 이후에는 약 90%가량의 기관에서 기관 내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만 2세에는 음악과, 체육, 미술 등의 프로그램 이용률이 많았고, 만 3세 이후에는 영어 프로그램 참여가 급격히 증가하여, 만 5세에는 아동 당 평균적으로 약 1개의 영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놀이시설, 공원, 산책로 이용, 박물관, 공연시설, 미술관, 영화관 장난감대여센터, 도서관 등의 문화 인프라 이용의 경우, 전반적으로 군 단위의 읍면 지역이 도시 지역에 비해 이용의 불편함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시기의 문화 인프라 이용에서 이러한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문화시설 이용 편리성 인식에서 일반적으로 모 학력과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지역 규모가 클수록 문화시설 이용이 편리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이용 일 역시 많은 것으로 나타났던 결과를 통하여 저소득 가정 유아들이 문화적인 경험이나 혜택으로부터도 소외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었다. 이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도 필요하다.

반면, 보육·교육기관 충분성 인식에서 민간 육아지원기관 및 국공립육아지원기관은 지역 규모가 클수록 불충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대도시 지역에서 육아지원기관 이용이 더 불편한 것으로 나타나서 지역 차이를 반영한 정책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 중에서 가장 많이 지원받고 있는 것은 ‘필수예방접종’과 ‘건강검진’이었으며, 만 5세 때부터는 85% 이상으로 대다수가 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원은 모두가 받아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가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영유아 자녀를 둔 패널 어머니의 경우, 일·가정 양립 제도의 확대와 비용이 적절하면서도 질 높은 육아지원서비스의 확대와 같은 육아지원정책을 대체적으로 가장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의 경우에는 영유아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육아지원서비스 확대를 좀 더 원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

이다.

어머니 및 아버지가 보고한 여성 출산휴가 필요성, 여성의 육아휴직 필요성, 직장 어린이집 필요성은 부모 모두 4점 후반대로 높게 나타나서 이러한 제도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향후 육아지원정책에의 시사점 및 제언

7차년도(만 6세) 조사에 대한 횡단적 자료 분석과 1차년도에서 7차년도 종단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육아지원정책에 관한 시사점 및 제언을 도출하였다. 먼저, 패널 아동의 성장과 발달, 다음으로 패널 아동의 양육환경, 마지막으로 육아지원 서비스 및 정책에 관한 시사점 및 제언을 제시하였다.

가. 한국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을 위한 시사점 및 제언

전반적으로 패널 아동은 일반적인 발달 궤적을 통하여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지만, 불안/우울, 위축과 같은 내재화 문제행동, 공격성, 주의집중과 외현화된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문제행동은 출생순위와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모두에서 외동이거나 첫째인 경우가 문제행동이 더 많았고,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가 고소득 가구에 비해 문제 행동이 더 많이 나타났다. 또한 특정유형의 외현화 문제행동인 주의집중, 공격행동에서는 남아가 여아에 비해 점수가 더 높아서 남아는 여아에 비해 더 많은 부주의와 공격성을 나타낸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에 관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먼저, 현대사회의 핵가족화와 소자녀 현상은 다양한 형제관계와 가족관계를 통해서 문제해결 능력을 학습할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외현화 문제행동 유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위한 육아지원기관에서의 교육적 방안 마련 및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저소득 가정 유아의 문제행동 방지 및 예방을 위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저소득 가정 유아를 위한 사회 정서 발달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이 되어야 한다. 저소득 가정을 위한 조기 투자가 이후에 더 큰 투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연구는 이미 저소득 가정 영유아 대상의 종단연구를 통하여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외현화된 문제행동이 남

아에게서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유념하여 남아에 대한 기질 및 발달 특성에 대한 이해와 남아에게 적합한 교육활동 제공 등으로 성차를 고려한 학습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나. 한국아동의 건강한 양육환경 제공을 위한 시사점 및 제언

패널 아동 가정의 양육환경은 전반적으로 양호하였고 특히 아동을 수용해주는 측면은 모든 한국 어머니들에게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동에 대한 어머니의 언어적 정서적 반응성은 다른 영역에 비해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한국 어머니들은 아동의 행동을 수용하는 반면, 아동의 언어적 요구와 정서적인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인의 요구와 필요에 적절한 관심과 자극을 제공 받은 유아가 이후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배워 나갈 수 있다고 볼 때, 한국 어머니들은 유아의 행동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이 육아지원기관 및 주민센터 등의 국가 전달체계를 통한 부모교육을 통해서 전달되어야 한다.

아동의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짐으로써 알레르기 질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는 점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아동이 거주하는 공간의 리모델링, 습기 및 곰팡이, 실내 환기, 조리 시 환풍기 사용, 흡연 노출 등의 주거환경 및 사소한 생활습관이 알레르기 질환과 관련될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주지할 때, 알레르기 질환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아동의 건강한 양육환경으로 가족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가족 간 상호작용은 어머니 학력이 높고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 가족 구성원들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필요하고, 특히 저소득 가정에서 성장하고 있는 아동을 위한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 저소득 가정을 위한 가족 간의 의사소통 활성화 및 유대감 형성을 조장할 수 있는 가족지원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패널 아동이 만 6세가 되는 초등학교 취학 전 시점에서 유아시기에 비해 학교 수업 종료 시간 등이 빨라짐에 따른 이후 시간 돌봄 방안 마련 등으로 취업모의 불안과 염려가 가중됨으로 인하여 지난 연도들에 비해 어머니의 자존감과 부모의 결혼만족도가 떨어졌음도 주목하여야 한다. 취업모 자녀를 위한 아침돌봄 및 방과후 돌봄 등에 관한 지원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아침

돌봄 및 방과후 돌봄이 국가적 차원의 질 높은 수준에서 제공되지 않을 시, 초등학교 초기 아동들은 학원 등의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리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다. 육아지원 서비스 및 정책에 관한 시사점 및 제언

패널 아동의 육아지원기관 이용은 만 3세를 기점으로 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이전 시기에는 개인대리양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부모들의 경우 영아는 여전히 개인적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 출산휴가 필요성, 여성의 육아휴직 필요성, 직장 어린이집 필요성은 부모 모두가 강하게 인식하고 주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선진국의 사례들처럼 영아 시기에는 부모들이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제도가 더욱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 및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남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도 활성화되어야 한다. 또한 직장 어린이집 활성화를 통하여 부모가 있는 공간과 가까운 곳에서 자녀에 대한 수유 등의 양육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동의 육아지원기관 이용률의 증가와 더불어 기관 내의 특별활동 증가, 특히 영어교육 프로그램 증가는 주목하여야 할 점이다. 놀이를 통하여 성장하고 발달해 가야할 영유아시기에 조기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발달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 교육적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과학적인 검토와 검증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특별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국가적 관리와 관심이 더 요구된다.

영유아시기에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필수예방접종’과 ‘건강검진’을 대부분 받고 있으나 여전히 받지 않는 가정이 있음을 주목하여 한국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반드시 모두 수혜받을 수 있도록 수혜 받지 못하는 가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영유아 시기의 문화적 인프라의 이용은 영유아의 신체, 언어 및 인지, 정서 및 사회성 발달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문화적 인프라 이용이 편리하지 않은 읍면지역의 지역 격차를 해소해 주어야 한다. 읍면 지역 아동의 문화 인프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차량 지원 및 몇 개 읍면지역 단위의 공동 문화 공간 설치 등의 대책 마련이 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권신영·서영숙(2014). 영아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양육실제 관계에서 미치는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와 소득수준의 조절효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0(5), 101-115.
- 김선희(2014). 유아기 또래놀이행동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위, 가정환경자극 및 유아의 언어능력간의 구조적 관계. **교육과학연구**, 45(3), 93-114.
- 김은정·박성덕·김경철(2014).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부부갈등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력. **육아정책연구**, 8(1), 129-151.
- 김진미(2014a). 영아 자녀를 둔 가구의 양육형태 및 영향요인 분석. **한국영유아보육학**, 86, 239-258.
- 김진미(2014b). 육아지원기관의 특별활동 이용 현황 및 지출 결정요인 분석.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0(5), 5-23.
- 노성향(2014). 아버지의 자기효능감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 양육참여의 매개효과. **한국보육학회지**, 14(3), 45-59.
- 서석원·이대균(2014).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열린유아교육연구**, 19(2), 157-178.
- 송현주(2014). 간편형 자기보고식 아동 청소년 집행기능 곤란 질문지 타당화. **한국임상심리학회지**, 33(1), 121-137.
- 신은경·정아현·김소아(2014). 아동의 기질과 또래 상호작용 간의 관계: 모의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21(4), 149-169.
- 유승연·임지선·김연하(2014). 위험 발달군 영아의 어머니와 일반 영아 어머니의 자아, 결혼, 양육관련 심리적 특성 비교연구: 한국 아동 패널 3차년도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0(5), 211-228.
- 이봉주·곽금주·구인회·김민화·김선숙·김지현·김혜란·박혜준·신혜은·윤명희·이강이·이광호·이순형·정익중·진미정(2008). **한국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가족부·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이희정(2014a).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종단적 변화

- 와 예측 변인.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3(2), 87-115.
- 이희정(2014b). 저소득층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의 종단적 변화와 예측변인-양육 행동과 또래관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46, 115-141.
- 임현주(2014). 유아의 기질 및 가정환경과 또래 상호작용이 만 3세 유아의 언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1(4), 183-201.
- 임현주(2014a).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종단적 변화와 예측 변인.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3(2), 87-115.
- 임현주(2014b). 저소득층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의 종단적 변화와 예측변인-양육 행동과 또래관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46, 115-141.
- 임현주·최항준·이대균(2014). 어머니의 양육방식 유형 집단 간 가정 내·외적 지원, 유아의 언어발달, 또래와의 상호작용 차이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9(5), 191-214.
- 장명림·신나리·박수연(2006). **아동패널조사 모형개발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장영은(2014).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 양육행동 및 가정환경과 유아의 어린이집 또래관계 부적응. **육아정책연구**, 8(2), 45-64.
- 장유진·이강이(2014). 영아의 정서성 기질과 어머니의 부정 정서 간의 자기회귀 교차지연 효과 검증. **유아교육연구**, 34(3), 67-84.
- 조운주·김은영(2014). 유아의 기질 및 부모 양육방식이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육아정책연구**, 8(2), 155-174.
- 주동범·최동규·배홍(2014). 아버지의 개인적 특성, 결혼만족 및 부부갈등이 자녀에 대한 가치에 미치는 영향. **인문학논총**, 36, 313-340.
- 최윤경·배윤진·송신영·임준범·이예진·김소아·김신경(2014). **한국아동패널 2014**.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최윤경 편(2014). **한국아동패널 2014 심층분석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최효식·연은모(2014). 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적 특성, 양육스트레스, 긍정적 양육태도 간 관계: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유아교육학논집**, 18(6),

Abstract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2015

Lee, Jeong Rim Kim, Gilsuk Song, Shinyeong Yi, YeJin

Kim, Jinmi Kim, Soa Kim, Sinkyung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2015 i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trajectory of Korean children's life since birth; the research is a continuous follow-up study that builds up the data to realize and comprehend the process of children's development and their upbringing environments. It aims to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childcare policy design by identifying the characteristics of childrearing environment systems like those of parent, family, institution and child support policy. PSKC 2015 targets 1,620 households participated in surveys conducted in 2014. The followings are key research outcomes.

First, 90.4% of household panels were nuclear families consist of parents and children with average income of 450,970,000 won; additionally, 95.9% of fathers and 45.8% of mothers were either employed or managing both career and study.

Second, children's cognitive and language development was at its normal level, attaining over 3 points out of 5.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showed that 77.7% of children had normal development. Children's perception of happiness marked 3.57 points out of 4 and the level of interactive play in the peer interaction was 3.08 points out of 4 in average, demonstrating a good development overall. The total average score of problematic behavior was 20.07 points with internalized problem of 6.80 points and externalized problem of 5.70 points; thus, the level of internalized behavioral problem was somewhat higher than the one of external behavior problem. Meanwhile, the problematic behavior appears to differ in relation to

the birth order and family income.

Third, the domestic childcare environment appeared to be in a good state, however, mother's linguistic and emotional reactivity towards a child appeared to be at a low level in comparison to other domain levels. Compared to last year's research, mother's self-esteem and parent's marital satisfaction levels decreased. Additionally, interaction among family members differed in relation to mother's academic background and family income.

Fourth, it appeared that the percentage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carried out within institutions increased in relation to the age of the child. After 3 years old, over 2/3 of childcare support organizations implemented extracurricular activities.

Fifth, according to the outcome of opinion polls among mothers on the direction of governmental childcare support policy, they believed expanding both childcare support service and work and childrearing balance to be crucial.

A number of policy implications can be drawn from the results.

1) Support for Korean children's healthy growth and development: a concern for children with internalized and externalized problematic behavior is needed as well as a governmental support for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y to prevent them from having problematic behaviors. Additionally, socio-emotional development program must be provided.

2) Provision of healthy childrearing environment for Korean children: it is essential for mothers to react more sensitively to their children's responses. Furthermore, on account of the fact that interaction between family members differs in relation to mother's educational background and household income status, support and care for children growing up in a low-income family are needed.

3) Childcare support service and policy: in order for young infants to be well nurtured by their parents, maternity and childcare leave systems ought to be vitalized and governmental interest and support for specialized programs within childcare support institutions are necessary.

부록

부록 1. 가중치 작성 및 추정

부록 2. 7차년도(2014) 질문지

부록 3. 8차년도(2015) 조사 안내문

부록 4. 8차년도(2015) 병원 조사 안내문

부록 5. 8차년도(2015) 조사 동의서

부록 1. 가중치 작성⁸⁾ 및 추정

가. 가중치 부여방법

한국아동패널은 의료기관을 집락으로 사용한 층화다단계 표본추출에 의해 구축되었다. 이와 같은 복합표본설계(complex sample design)에서 얻어진 표본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산출된 가중치의 적용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복합표본설계 조사의 가중치는 설계 가중치, 무응답에 따른 가중치 보정, 사후층화에 의한 가중치 보정의 세 가지 요인을 종합하여 산정된다. 특히 매년 동일한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한국아동패널과 같은 패널 조사에서는 1차년도 조사에 응답한 가구 중 2차 조사 이후에 무응답이 발생하거나 패널에서 완전히 이탈하여 표본이 마모(sample attrition)됨으로써 표본 구성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연구 대상의 모집단에도 매년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료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무응답 보정 및 사후층화를 통한 가중치 보정이 매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추출확률에 따른 설계 가중치를 기초로 무응답 보정 및 사후층화 보정 과정을 통해 한국아동패널 자료의 횡단면 및 종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를 제공해 왔다.

나. 7차년도 가중치 보정

1) 한국아동패널 응답패턴 분석

패널 조사의 가중치 보정을 위해서는 우선 패널 가구의 응답패턴을 분석하는 동시에 응답 가구와 무응답 가구의 특성상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도 1차년도부터 7차년도까지 패널 가구의 응답 여부에 따른 가구 특성 분석 작업을 통해 구체적인 횡단면 및 종단면 가중치를 작성하였다.⁹⁾

한국아동패널 조사의 1차년도(2008년)부터 7차년도(2014년)까지의 조사 참여

8) 한국아동패널 연구의 가중치 부여 방법은 매해 조사마다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됨. 각 연도별로 가중치 보정 시 설계 가중치가 지속적으로 이용되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설계 가중치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1차년도 보고서(조복희 외, 2009)를 참고할 것.

9) 1차년도부터 6차년도까지 구체적인 패널 가구의 응답 패턴 및 표본 마모 현황은 '한국아동패널 2014 사업보고서(최윤경 외, 2014)'를 참고할 것.

분포는 <부록 표 1>과 같다. 우선 1차년도 원패널¹⁰⁾ 2,078가구 중에서 1차 ~ 7차년도 조사에 모두 참여한 가구는 1,416가구로 원패널 기준 표본 유지율은 68.1%이고, 2차 및 3차 조사에 신규 추가된 가구를 포함한 전체패널¹¹⁾ 2,150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65.9%의 유지율을 보인다.

〈부록 표 1〉 연도별 한국아동패널조사 참여 분포

단위: 가구, %

구분		참여 여부							가구수	%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원패널	조사 성공	○	○	○	○	○	○	○	1,416	65.9
	7차년도 탈락	○	○	○	○	○	○	X	47	2.2
	6차년도 탈락	○	○	○	○	○	X	X	61	2.8
	5차년도 탈락	○	○	○	○	X	X	X	46	2.1
	4차년도 탈락	○	○	○	X	X	X	X	51	2.4
	3차년도 탈락	○	○	X	X	X	X	X	96	4.5
	2차년도 탈락	○	X	X	X	X	X	X	142	6.6
2차년도 신규, 조사 성공		-	○	○	○	○	○	○	26	1.2
3차년도 신규, 조사 성공		-	-	○	○	○	○	○	11	0.5
기타, 7차년도 성공		※	※	※	※	※	※	○	167	7.8
기타, 7차년도 탈락		※	※	※	※	※	※	X	87	4.0
전체 (7차년도 조사 성공가구)		-	-	-					2,150 (1,620)	100.0

주: '○'는 해당 차수에 참여, 'X'는 해당 차수에 비참여, '-'는 해당 차수에는 표본에 속하지 않았음을, '※'는 단조결측패턴이 아닌경우를 의미함.

7차년도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는 530가구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원패널 가구 중 1차부터 6차년도 조사까지 계속 참여하였으나 7차년도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47가구, 6차년도 이후에 계속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61가구, 5차년도 이후에 계속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46가구, 4차년도 이후에 계속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51가구, 3차년도 이후에 계속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96가구, 1차년도에만 참여를 하고 2차년도 이후 조사에는 계속 참여하지 않은 142가구였고, 그 밖에 단조 결측 패턴(monotone missing pattern)¹²⁾에 해당하지 않는 7차년도

10) 원패널: 한국아동패널 조사에서는 1차 조사에 참여한 2,078가구를 원패널로 정의함.

11) 전체패널: 한국아동패널 조사에서는 1차(2008년)부터 3차(2010년)까지 한번이라도 조사에 참여한 총 2,150가구를 전체패널로 정의함.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예비 표본의 패널 합류를 3차(2010)년도 조사까지 허용하였음. 이에 따라 1차년도 조사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2차년도(2009년), 3차년도(2010년) 조사에 각각 52가구, 11가구가 한국아동패널에 신규로 합류함.

무응답 가구가 87가구였다. 결과적으로 전체 패널을 기준으로 보면 7차년도 패널 응답률은 75.3%로 나타났다.

2) 7차년도 횡단면 가중치

7차년도 횡단면 가중치는 7차 참여 패널인 1,620가구가 우리나라 2008년 신생아 가구 전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산출하였다. 가중치 산출 과정은 우선 무응답에 따른 편향을 줄이고 가중치 산출 방안의 일치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체 패널 중 7차년도 무응답 530가구에 따른 무응답 가중치를 보정하였다. 이때의 무응답 보정은 기존의 6차년도까지 적용했던 무응답 조정 계급(non-response adjustment class)을 가능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후 모집단 변동을 반영하는 동시에 패널 마모에 의한 편향(bias)을 최소화하기 위해 6차년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2014년 주민등록인구(만 6세 기준) 자료를 벤치마킹한 사후층화(post-stratification) 과정을 통해 최종 횡단면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2014년도에 수집한 한국아동패널의 7차년도 가중치 산출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7차년도 패널 가구의 조사누락으로 인한 편향을 줄이기 위한 무응답 가중치 보정을 실시하였다. 무응답 가중치 보정은 조사 자료에 나타난 가구/어머니 특성을 고려한 무응답 조정 계급(non-response adjustment class)을 구성해 수행하였다. 가구/어머니 특성에 따른 응답률 분석을 위해 응답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조사 변수들 중 거주지(권역), 어머니 취/학업 여부, 아동의 출생 순서를 독립 변수로 사용한 로지스틱모형을 적합 시켰다. 모형 적합을 위해서는 조사 참여 및 응답 여부와 별개로 전체 패널 가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각 패널 가구별 정보는 가장 최근의 조사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무응답 보정을 위한 로지스틱 분석결과는 <부록 표 2>와 같다. 6차년도와 마찬가지로 권역과 어머니의 취/학업 여부가 무응답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p < .05$)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6차년도에는 아동의 출생 순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p > .10$), 7차년도 분석에서는 유의수준 10%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에 무응답 가중치 보정 과정이 연도별로 일관성을 유지

12) 단조 결측 패턴이란 패널참여 시점부터 꾸준히 조사에 참여하다가 특정 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조사에 불참하는 것을 의미함.

할 수 있도록 6차년도와 동일하게 어머니의 취/학업 여부, 아동의 출생 순위, 지역(권역) 변수를 사용하여 무응답 조정 계급을 구성하였다.

무응답 조정 계급은 거주지를 나타내는 6개 범주(서울권, 경인권, 대전/충청/강원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광주/전라권), 출생 순서를 나타내는 2개 범주(첫째, 둘째 이상), 어머니의 취/학업 여부를 나타내는 2개 범주(취업/학업, 미취업)를 기준으로 총 24개 무응답 조정 계급을 구성하고, 각 계급 내에서 가중 응답률(weighted response rate)을 산출한 후, 이 값의 역수를 무응답 조정 상수로 사용하여 해당 계급 내의 응답 가구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조정 작업을 수행했다.

〈부록 표 2〉 7차년도 횡단면 가중치 무응답 로지스틱 모형 분석결과

구분	자유도	Wald 카이제곱 통계량	유의확률(p-value)
출생순위	1	2.8010	0.0942
취업여부	1	9.3547	0.0022
지역(권역)	5	13.1660	0.0219

무응답에 따른 가중치 조정 후, 통계청의 2014년 주민등록 인구 자료에서 15개 시·도별¹³⁾ 만 6세 남·여 아동 수와 한국아동패널의 해당 범주별 표본 가중치의 합이 일치하도록 벤치마킹하는 사후층화 가중치 보정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2014년 횡단면 가중치를 산출했다. 사후층화과정에서 일부 극단적으로 값이 크게 산출된 가중치는 적정 수준에서 절사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극단(outlier) 가중치를 포함한 계급 내의 다른 가중치를 절사된 만큼 부풀리는 방식으로 최종 가중치를 산출했다.

이와 같은 방식에 따라 최종적으로 산출된 2014년 한국아동패널 횡단면 가중치의 기술통계는 <부록 표 3>과 같다. 2014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한 7차년도 횡단면 가중치의 평균은 289.09, 중위수는 235.25, 표준편차는 156.20, 최솟값은 40.42, 최댓값은 737.95로 나타났다.

13) 세종시는 충청남도로, 제주도는 전라남도로 병합하여 계산함.

〈부록 표 3〉 7차년도 최종 횡단면 가중치 부여 결과

구분	평균	중위수	표준편차	사례수	최솟값	최댓값
사례별 가중치	289.09	235.25	156.20	1620	40.42	737.95

3) 1~7차년도 종단면 가중치

패널 조사의 주요 목적은 시점별 모집단 현황 파악을 위한 횡단면 분석과 동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종단면 분석이므로, 한국아동패널에서는 횡단면 가중치와 함께 종단면 가중치를 자료 이용자들에게 제공한다.

종단면 가중치 작성을 위해 우선 원표본 가구로부터 7차년도까지 무응답 패턴을 분석해 응답 여부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종단면 가중치 보정을 위한 무응답 조정 계급을 설정하였다. 7차년도의 종단면 가중치 작성 과정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횡단면 가중치 산출 과정과 유사한 무응답 보정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종단면 가중치의 경우 2008년부터 7개년도에 모두 참여 한 가구에만 종단면 가중치를 부여하게 되기 때문에 횡단면 가중치 작성 과정과 일부 차이가 발생한다. 연도별 응답가구 패턴 분석 결과에서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한국아동패널의 무응답이 단조 결측 패턴을 보이지 않았기에 횡단면 가중치 및 종단면 가중치는 각각 별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7차년도 종단면 가중치 부여 대상 가구에 대해서도 횡단면 자료와 마찬가지로 로지스틱 분석을 통해 응답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거주지가 유의확률 0.0001 이하로 매우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출생 순서와 어머니의 취/학업 여부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동의 출생 순서의 유의 확률이 0.1120으로 유의수준 10%수준에서는 비교적 작은 편이며, 6차년도와 가중치 산출 방안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측면에서 6차년도에 적용했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여 무응답 보정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종단면 가중치 보정을 위한 무응답 조정계급은 횡단면 가중치와 마찬가지로 거주지를 나타내는 6개 권역, 출생 순서를 나타내는 2개 범주, 어머니의 취/학업 여부를 나타내는 2개 범주를 기준으로 24개 무응답 조정 계급을 구성하고, 각 계급 내에서 가장 응답률을 산출한 후, 이 값의 역수를 무응답 보정 상수로 사용하여 해당 계급내의 응답 가구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무응답 가중치 보정 작업을 수행했다. 종단면 가중치 작성 과정에서도 1차년도(2008년) 이후 발생한 모집단 변동을 반영하는 동시에 패널 마모에 의한 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4년 주민등록 인구 자료를 기준으로 한 사후층화 형식의 벤치마킹 가중치 보정 과정을 수행하였다. 종단면 가중치에 대한 사후층화과정에서도 횡단면 가중치와 동일한 방식으로 일부 극단 가중치를 절사 처리하였다.

서술한 방식에 따라 최종적으로 산출된 1~7차년도 한국아동패널 종단면 가중치의 기술통계는 <부록 표 4>와 같다. 2014년 자료를 기준으로 1~7차년도 종단면 가중치의 평균은 330.74, 중위수는 276.16, 표준편차는 192.72, 최솟값은 44.34, 최댓값은 948.75로 나타났다.

<부록 표 4> 1~7차년도 종단면 가중치 부여 결과

구분	평균	중위수	표준편차	사례수	최솟값	최댓값
사례별 가중치	330.74	276.16	192.72	1416	44.34	948.75

다. 모수추정

한국아동패널에서 각종 모집단에 대한 평균(또는 비율)은 표본가중평균(標本加重平均)을 이용하여 추정하며, 표본가중평균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bar{y} = \frac{\sum_{h=1}^L \sum_{i=1}^{k_h} \sum_{j=1}^{n_{hi}} w_{hij} y_{hij}}{\sum_{h=1}^L \sum_{i=1}^{k_h} \sum_{j=1}^{n_{hi}} w_{hij}} = \frac{\sum_{h=1}^L \sum_{i=1}^{k_h} \sum_{j=1}^{n_{hi}} w_{hij} y_{hij}}{w_{\dots}}$$

w_{hij} : 각 표본 신생아 가구에 부여된 가중치

y_{hij} : 각 조사대상 가구에서 얻은 각종 조사 변수에 대한 관측치들

$w_{\dots} = \sum_{h=1}^L \sum_{i=1}^{k_h} \sum_{j=1}^{n_{hi}} w_{hij}$: 모든 표본 가구에 대한 가중치의 합

여기서 h 는 지역층, i 는 층내 의료기관, j 는 표본가구를 나타내는 첨자이다.

참고로 한국아동패널 분석용 자료에는 각 연도별 횡단면 가중치와 3차년도 자료부터는 종단면 분석(longitudinal analysis)을 위한 가중치도 제공하고 있다.¹⁴⁾ 따라서 횡단면 분석뿐만 아니라 종단면 분석에 있어서도 통계적으로 타당한 분석을 위해서는 관련 가중치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토대로 2008년 조사가 완료된 2,078가구 자료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2008년 횡단면 가중치를 사용해야 하고,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및 2013년 자료에 대한 횡단면 통계분석을 위해서는 해당 연도의 횡단면 가중치를 반드시 적용해 분석해야한다. 아울러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차년도에 걸쳐 지속적으로 조사에 참여하여 응답한 1,416가구에 대한 종단면 통계분석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료와 함께 제공된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해야 한다.

14) 1~3차년도 종단 가중치는 2015년 공개 데이터부터 제공함.

부록 2. 7차년도(2014) 질문지

가. 면접조사용 질문지

ID		 한글아동패널 KOREAN STUDY ON KOREAN CHILDREN	
2014 면접조사용 질문지 ※ 본 조사의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 및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SQ01. 조사 날짜	() 월 () 일 ▶ 범위(scroll bar): (7~11)월, (1~31)일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 아동 개월 수: 중단 19 참조	SQ01-1. 면접원 성명	() ❖ 면접원 동일여부
SQ02. 아동 이름	() ▶ 변동 없을 시, Go SQ03 ▶ 변동 시, Go SQ02-1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 중단 1	SQ02-1. 아동 이름 변동 사유	① 개명함 ② 지난조사에서 잘못 입력함 ③ 기타()
SQ03. 출생순위	() 남 () 녀 중 () 째 () 째 변동 없을 시, Go SQ04 () 째 변동 시, Go SQ03-1 ▶ 범위(scroll bar): (0~5)남, (0~5)녀, (1~10)째 ▶ ○○이의 성별과 동일한 출생순위에 는 반드시 '1' 이상이 되어야 함. ★ 중단로직 중 성별로직 추가 ▶ () 남 () 녀에 동시 '0' 불가 ★ 중단 2	SQ03-1. 출생순위 변동 사유	① 순위형제 사망 ② 순위형제 입양 ③ 재혼으로 형제순위변동 ④ 기타()
SQ04. 응답자 아동과의 관계	① 어머니 ② 아버지 ③ ○○(이)의 형제·자매 ④ ○○(이)의 조부모 ⑤ 기타 친인척		
SQ05. 응답자 연락처 (연락처 입력시 “-” 입력)	집 전화: () 응답자 성명: () 어머니 휴대폰: () () 아버지 휴대폰: () 기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관계:), () () ▶ [집 전화] 또는 [어머니 휴대폰], [아버지 휴대폰] 중 2개는 반드시 입력되어야 함 ▶ 기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관계 선택지로 구성(조모, 조부, 외조모, 외조부, 직장 및 사업장, 응답자의 형제자매, 기타), 기타 선택 시 관계 텍스트 입력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 중단 3 ▶ 중단 4A가 ①일 때 SQ6-1 구현/중단 4A ②일 때, SQ6-2 구현 ▶ 응답자 성명 변동 시, Go SQ05-1	SQ05-1. 응답자 이름 변동 사유	① 개명함 ② 지난조사에서 잘못 입력함 ③ 기타()
SQ6-1. 이사 횟수	귀댁은 아래 주소지 거주 이후 몇 번이나 이사를 하셨습니까? 2013년도 참여 거주지: () 사·도 () 군·구 () ★ 중단 4B 송 이사 횟수 () 회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 0 응답하고, SQ04에 ①로 응답 시, Go Q1-1 ▶ 범위(scroll bar): (0~5)회 ▶ 0 응답하고, SQ04에 ②로 응답 시, Go Q2-1 ▶ 1 이상으로 응답 시, Go SQ7 ▶ 0 응답하고, SQ04에 ③~⑤로 응답 시, Go Q5		
SQ6-2. 이사 횟수	귀댁은 ○○(이)가 태어난 이후 몇 번이나 이사를 하셨습니까? ○○(이) 출생 후 총 이사 횟수 () 회 ▶ 범위(scroll bar): (0~10)회 ▶ 무응답시 SQ7		
SQ7. 현 주소	현 주소: () 사·도 () 군·구 () 도로명 주소를 아시는 경우 기입: () 사·도 () 군·구 () 로 () ▶ 현주소는 반드시 응답 받아야 하며, 도로명 주소를 아는 경우 추가로 응답받을 수 있음 ▶ SQ04에 ②로 응답 시, Go Q2-1 ▶ SQ04에 ③~⑤로 응답 시, Go Q5		

다음은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1-1. ○○(이) 어머니의 결혼상태

- ① 미혼 ② 유배우-초혼 ③ 유배우-재혼 ④ 동거(사실혼 포함) ⑤ 사별
⑥ 이혼 ⑦ 별거 ⑧ 불일치

★ 본조사의 어머니, 아버지는 생물학적인 부, 모가 아니라 호적상의 부, 모에 대한 설문임(재혼한 경우 현재 호적상 부모에 대한 응답을 받아야 함)

- ▶ SQ04에 ② 응답하고, Q2-10에 ②,③,④ 응답시 Q1-1도 ②,③,④ 중 하나를 응답해야 함(에러창 띄움)
▶ ③, ⑤, ⑥, ⑦] 응답 시, Go Q1-3. 단, 중단 7이 구현될 경우, Go Q1-4
▶ 중단 5와 일치할 경우(중단 값을 구현하여 응답자가 수정하지 않고 넘어갈 경우), Go Q1-3. 단, 중단 7이 구현될 경우, Go Q1-4
▶ 중단 5와 불일치할 경우(중단 값을 구현하여 응답자가 수정하는 경우), Go Q1-2
▶ 중단 값이 ⑧ 불일치로 구현되는 패널은 반드시 값을 수정해야 넘어갈 수 있음. 즉, Q1-1의 응답값이 ⑧인 경우 다음 문항으로 진행불가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 중단 5

1-2. 어머니의 현재 결혼상태 시작일 : ()년 ()월에 (Q1-1 구현).

- ▶ Q1-1 응답값 구현
▶ 범위(scroll bar): (1970~2014)년, (1~12)월
▶ SQ01 > Q1-2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 중단 6

1-3. 어머니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 ()년 ()월 ()일

- ▶ 범위(scroll bar): (1950~1999)년, (1~12)월, (1~31)일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 만 연령 생성(조사년월일 - 생년월일)
★ 중단 7
▶ 중단 7 미구현 시 질문, 단, Q1-1 값이 중단값에서 변경되는 경우, Q1-3 질문
▶ Q1-2의 '년' 값 > Q1-3의 '년' 값

1-4. 어머니의 최종학력

-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 졸업 ④ 고등학교 졸업
⑤ 전문대 졸업(3년제 이하 기능대학) ⑥ 대학교 졸업(4년제 이상) ⑦ 대학원 졸업

- ★ 중단 8
▶ 중단 8보다 작게 수정되는 경우, Go Q1-4-1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1-4-1. 지난해보다 학력이 낮아졌습니다. 응답내용이 맞습니까?

- ① 맞음 → 1-5번 문항으로 ② 잘못 입력함 → 1-4번 문항으로

1-5. 어머니의 1-2급 장애 유무

- ① 예(장애 있음) ② 아니오(장애 없음)

- ★ 중단 9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1-6. 어머니와 ○○(이)의 (주 4일 이상) 동거 여부

① ○○(이)와 함께 살고 있음	▶ Q1-10에 ②,③,④] 응답하고, SQ04에 ① 응답 시, Go Q2-1 ▶ Q1-10에 ③, ⑤, ⑥, ⑦] 응답하고, SQ04에 ① 응답 시, Go Q3 ▶ SQ04에 ②로 응답 시, Go Q4
② ○○(이)와 떨어져 살고 있음	▶ Go Q1-7

-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1-7. 어머니와 ○○(이)의 비동거 이유

- ① 타지역(해외)에 근무 중(학업 포함) ② 군복무 ③ 장기입원, 요양 중 ④ 기타()

- ▶ Q1-10에 ③, ⑤, ⑥, ⑦] 응답하고, SQ04에 ① 응답 시, Go Q3
▶ Q1-10에 ②,③,④] 응답하고, SQ04에 ① 응답 시, Go Q2-1
▶ SQ04에 ②로 응답 시, Go Q4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2-1. ○○(이) 아버지의 결혼상태

- ① 미혼 ② 유배우-초혼 ③ 유배우-재혼 ④ 동거(사실혼 포함) ⑤ 사별
⑥ 이혼 ⑦ 별거 ⑧ 불일치

- ▶ SQ04에 ① 응답하고, Q1-1에 ②,③,④ 응답시 Q2-1도 ②,③,④ 중 하나를 응답해야 함(에러창 띄움)
▶ [①, ③, ⑥, ⑦] 응답 시, Go Q2-3. 단, 중단 12가 구현될 경우, Go Q2-4
▶ 중단 10과 일치할 경우, Go Q2-3. 단 중단 12가 구현될 경우, Go Q2-4
▶ 중단 10과 불일치할 경우(중단 값을 구현하여 응답자가 수정하는 경우), Go Q2-2
▶ 중단 값이 ⑧ 불일치로 구현되는 패널은 반드시 값을 수정해야 넘어갈 수 있음. 즉, Q2-1의 응답값이 ⑧인 경우 다음 문항으로 진행불가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 중단 10

2-2. 아버지의 현재 결혼상태 시작일 : ()년 ()월에 (Q2-1 구현)함.

- ▶ Q2-1 응답값 구현
▶ 범위(scroll bar): (1970~2014)년, (1~12)월
▶ SQ01 > Q2-2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 중단 6

2-3. 아버지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 ()년 ()월 ()일

- ▶ 범위(scroll bar): (1950~1999)년, (1~12)월, (1~31)일
▶ 만·연령 생성(조사년월일 - 생년월일)
▶ 중단 12
▶ 중단 12 미구현 시에 질문, 단, Q2-1 값이 중단값에서 변경되는 경우, Q2-3 질문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 Q2-2의 '년' 값 > Q2-3의 '년' 값

2-4. 아버지의 최종학력

-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 졸업 ④ 고등학교 졸업
⑤ 전문대 졸업(3년제 이하 기능대학) ⑥ 대학교 졸업(4년제 이상) ⑦ 대학원 졸업

- ★ 중단 13
▶ 중단 13보다 작게 수정되는 경우, Go Q2-4-1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2-4-1. 지난해보다 학력이 낮아졌습니다. 응답내용이 맞습니까?

- ① 맞음 → 2-5번 문항으로 ② 잘못 입력함 → 2-4번 문항으로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2-5. 아버지의 1·2급 장애 유무

- ① 예(장애 있음) ② 아니오(장애 없음)

- ★ 중단 14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2-6. 아버지와 ○○(이)의 (주 4일 이상) 동거 여부

① ○○(이)와 함께 살고 있음

- ▶ Q2-1에 [②,③,④] 응답하고, SQ04에 ② 응답 시, Q2-1의 중단값을 수정하면 Go Q1-1, 중단값을 수정하지 않으면 Go Q1-3
▶ Q2-1에 [①, ⑤, ⑥, ⑦] 응답하고, SQ04에 ② 응답 시, Go Q4
▶ SQ04에 ① 응답 시, Go Q3

② ○○(이)와 떨어져 살고 있음

▶ GO Q2-7

-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2-7. 아버지와 ○○(이)의 비동거 이유

- ① 타지역(해외)에 근무 중(학업 포함) ② 군복무 ③ 장기입원, 요양 중 ④ 기타()

- ▶ Q2-1에 [②, ③, ④] 응답하고, SQ04에 ② 응답 시, Q2-1의 중단값을 수정하면 Go Q1-1, 수정하지 않으면 Go Q1-3
▶ Q2-1에 [①, ⑤, ⑥, ⑦] 응답 시, SQ04에 ② 응답 시, Go Q4
▶ SQ04에 ①로 응답 시, Go Q3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다음은 귀하의 취업/학업 상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3. 현재 귀하의 취업/학업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 육아휴직, 출산휴가, 기타 질병/사고 등 특별한 사유로 잠시 휴직 중인 경우도 취업 중에 해당합니다.
- ☒ 시간제로 일하는 경우 또는 가족/친지가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일정한 보수 없이 일하는 경우에도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 중에 해당합니다. 단, 프리랜서 및 자영업자의 경우 시간제약은 없으나 취업 중에 해당합니다.
- ① 취업 중(휴직 중 포함) ➡ 3-1번 문항으로
- ② 학업 중(휴학 중 포함) ➡ 4번 문항으로
- ③ 취업/학업 병행 중 ➡ 3-1번 문항으로
- ④ 미취업/미학업 ➡ 4번 문항으로
-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3-1. 현재 귀하의 취업관련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재직 중 ② 휴직 중
- ★ 중단 15: 미구현 적용
- ▶ 중단 데이터에 [② 학업중, ④ 미취업/미학업] 응답자가 Q3에 ①, ③으로 응답 시, Go Q3-3
- ▶ 중단 데이터에 [① 취업중, ③ 취업/학업 병행 중, 공란] 응답자가 Q3에 ①, ③으로 응답 시, Go Q3-2
-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3-2. 귀하의 현재 직업은 지난 조사 이후 직장 또는 직위의 변동이 있습니까?

- ☒ 직장이 2군데 이상일 경우, 주 직장을 중심으로 응답해주세요.
- ☒ 지난 조사 시 응답 : 직장명(), 직위()
- ① 아니오(변동 없음) ➡ 3-7번 문항으로
- ② 직장이 바뀐 ➡ 3-3번 문항으로
- ③ 직장은 그대로이나, 직위가 바뀐(전근, 부서 변경 포함) ➡ 3-6번 문항으로
- ④ 지난 조사시, 미취업/미학업 이었음 ➡ 3-3번 문항으로
- ★ 중단 16: 구현
-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 ▶ 중단 16이 '공란'일 경우, Q3-2의 응답에 상관없이 Go Q3-3

3-3. 귀하가 현재 일하시는 직장(사업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소속되어 있는 지점이나 공장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응답해주세요.

- ☒ 일반 회사인 경우 회사명과 지점명까지 / 교사인 경우 초등·중등·고등학교까지 / 공무원인 경우 중앙부처·시군구명·읍면동사무소까지
- ☒ 예: ○○전자 ○○공장 / ○○초등학교 혹은 서울시청 / 프리랜서 직장(사업체) 명: ()
- ▶ 무응답 시, Go Q3-4
- ▶ 입력불가 텍스트: 휴직 중, 무직, 구직 중, 구직, 휴직

3-4. 귀하의 직장(사업체)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 ☒ 직장명으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알 수 없는 중소기업체인 경우 제조업, 유통업, 서비스업 등의 업종 표기 요망
- ☒ 프리랜서의 경우 업무 장소를 기입
- 직장의 사업 내용(업종): ()
- ▶ 무응답 시, Go Q3-5

3-5. 귀하의 직장(사업체)에서 귀하가 주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 사무직인 경우 행정직·전산직·기술직 / 음식점인 경우 한식조리·양식조리·서빙 등 / 교사인 경우 영어·수학 등 과목명 기입

주로 하는 일: ()

▶ 무응답 시, Go Q3-6

3-6. 귀하의 직장(사업체)에서 귀하의 직위는 무엇입니까?

☒ 프리랜서 / 공무원의 경우 급수 / 회사원의 경우 평사원·대리·과장·부장 등의 직위 / 음식점의 경우 사장·매니저·일반직원 등

직장(사업체) 내 직위: ()

▶ 무응답 시, Go Q3-7

3-7. 귀하의 현재 종사상 지위는 어떻습니까?

☒ 무급 가족 종사자: 혈연관계인 가족이 운영하는 개인 사업체에 정규적인 보수 없이 적어도 주당 18시간 이상을 일하는 경우

① 상용직(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이나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경우)

② 임시직(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

③ 일용직(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기간 또는 일당제 급여)

④ 종업원을 둔 고용주

⑤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⑥ 무급 가족 종사자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 Q3-1에 ② 응답 시, Go Q3-9

3-8. 귀하는 평소 일주일에 평균 얼마나 근무하십니까?

☒ 업무성 회식 및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응답해 주세요.

☒ 직장이 2군데 이상일 경우, 총 합산 시간으로 응답해 주세요.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1일 평균 '9'시간 근무입니다.

(1) 근무 일수 : 주중(월~금) ()일 근무 주말(토, 일) ()일 근무

▶ 범위(scroll bar): (0~5)주중, (0~2)주말

▶ 주중, 주말에 모두 '0'이 나올 경우, Go Q3-8-1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2) 근무 시간 : 주중(월~금) 1일 평균 ()시간 근무 주말(토, 일) 1일 평균 ()시간 근무

▶ 범위(scroll bar): 0~20

▶ [근무 일수]에 1이상으로 응답된 경우, '0'불가

▶ Q3-7에 ①응답자가 [(주중 근무 일수×주중 근무 시간)+(주말 근무 일수×주말 근무 시간)]를 40시간 미만으로 응답 시, Go Q3-8-2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3) 왕복 출퇴근 시간 : 주중(월~금) 1일 평균 왕복 ()소요 주말(토, 일) 1일 평균 왕복 ()소요

▶ 범위(scroll bar): 0분, 30분, 1시간, 1시간 30분, 2시간, 2시간 30분, 3시간, 3시간 30분, 4시간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3-8-1. 귀하는 주중/주말 근무 일수를 모두 '0'일로 입력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근무 일수를 잘못 입력함 ➡ 3-8-(1)번 문항으로
 ② 취업/학업상태를 잘못 입력함 ➡ 3번 문항으로
 ③ 휴직/재직상태를 잘못 입력함 ➡ 3-1번 문항으로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3-8-2. 상용직 근로자인 귀하는 주당 총 '40시간 미만' 근무하신다고 입력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① 네, 상용직이며 주당 총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합니다. ➡ 3-9번 문항으로
 ② 상용직 아님 ➡ 3-7번 문항으로
 ③ 근무시간 잘못 입력 ➡ 3-8-(2)번 문항으로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3-9. 귀하의 (주된) 일자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스럽다 ② 불만족스럽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스럽다 ⑤ 매우 만족스럽다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다음은 귀택과 함께 살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도움에 대한 질문입니다.

4. 다음 문항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에 체크해 주세요.

문항	○○(이)의 친가 식구	○○(이)의 외가 식구	응답자의 친구 및 동료	응답자의 이웃
0) 유무	① 없다 ② 있다	① 없다 ② 있다		
1) 외로울 때 솔직히 털어놓고 의지할 수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급하게 돈을 써야 할 때 빌려 준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 특별한 일이 없어도 서로 자 주 방문하거나 전화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함께 걱정해준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5) 갑자기 물품이 필요할 때 빌 려준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6) 큰 일(잔치, 김장 등)이 있어서 일손이 필요할 때 도와준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7) 중요한 일(주택구입 등)을 결정할 때 정보를 준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8) 자녀양육과 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9) 살림살이나 취미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준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0) 같이 물건을 사거나 외식을 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1) 집안 길흉사에 서로 방문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2) 여가나 휴가 때 같이 놀러간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3) 필요할 때 자녀양육 또는 돌봄에 도움을 준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4) 도움을 주는 사람의 수	()명	()명	()명	()명

▶ Q4-14) 범위 : 0~20

▶ Q4-1)~13) 도움 받는 정도에서 한 문항이라도 ④, ⑤ 응답된 경우, 0 불가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다음은 패널아동의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5. ○○(이)는 평상시 밤에 몇 시에 잠들어 아침 몇 시에 일어납니까?

()시 ()분에 잠들어 ~ ()시 ()분에 일어남

▶ 범위(scroll bar): (19~04)시 (00, 30) ~ (04~12)시 (00, 30)분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 취침시간 '04' 입력하고 기상시간 '04'입력하면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고 에러창 뜸

▶ '일어난 시간'이 '잠든 시간'보다 빠를 경우, 에러창 뜸

◎ "○○(이)의 일어나는 시간과 잠든 시간을 확인해 주세요."

▶ 평균 수면 시간 생성 후 확인창에 구현 : 소수점 환산값(30분=0.5)

◎ "○○(이)의 밤잠 시간을 (평균 수면 시간 구현)시간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맞습니까?"

① 확인 ⇨ 6번 문항으로

② 취소 ⇨ 5번 문항으로

6. ○○(이)는 대체로 밤에 깨지 않고 잠니까?

① 예(밤잠 자다 깨지 않음) ② 아니오(밤잠 자다가 깬)

▶ 무응답 시, Go Q7

7. ○○(이)가 평일 하루에 다음의 활동을 보통 얼마동안 하나요? 조사 방문일 하루 전 일상적인 생활을 한 평일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조사일이 월요일인 경우 지난 주 금요일).

▶ 기준일 설정 시 조사방문일 하루 전 평일로 하되, 이 날이 일상적인 날이었는지 확인 후 진행, 만약 유치원 소풍, 여행 등으로 평일과 달랐을 경우에는 조사 방문일 이를 전 평일로 함.

☐ 시간 환산 예

시간	활동안함	30분	1시간	1시간30분	2시간	2시간30분	3시간	3시간30분	4시간	4시간30분	5시간	5시간30분
응답	0.0	0.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시간	6시간	6시간30분	7시간	7시간30분	8시간	8시간30분	9시간	9시간30분	10시간	10시간30분	11시간	11시간30분
응답	6.0	6.5	7.0	7.5	8.0	8.5	9.0	9.5	10.0	10.5	11.0	11.5

활동 내용	하루 활동 시간
현재까지 응답한 시간의 합 ▶ Q7-1) ~ 10) 응답값의 합산 생성 후 구현	() / 24시간
1) 밤잠 시간 ▶ Q5의 [평균 수면 시간] 구현 ▶ 수정 불가 → 수정 필요시 Q5로 문항이동	()시간
2)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영어유치원, 미술학원 등)과 같은 보육·교육 기관 이용 시간 ▶ '0.0' 가능 ▶ 범위: 3.0 이상 가능, 0.5~2.5 불가	()시간
3) 개관, 그룹 지도, 학습지, 시간제 교육 기관(특기교육학원 또는 보습학원 및 문화센터 등)을 통한 교육시간 ▶ '0.0' 가능	()시간
4) 시청각 프로그램 및 인터넷 등을 이용한 교육시간 ▶ '0.0' 가능 ▶ 0.5 이상 응답 시, Go Q7-1	()시간
5) TV 시청 및 인터넷, 전자기기를 사용한 놀이시간 ▶ '0.0' 가능 ▶ 0.5 이상 응답 시, Go Q7-1	()시간
6) 장난감 놀이, 책보기 등 실내놀이 ▶ '0.0' 가능 ▶ 0.5 이상 응답 시, Go Q7-3	()시간
7) 신체활동 위주의 바깥놀이 및 외출 ▶ '0.0' 가능 ▶ 0.5 이상 응답 시, Go Q7-4	()시간
8) 식사, 간식먹기, 씻기, 옷 입기 등의 기본생활 시간 ▶ '0.0' 불가 ▶ 3 이상 응답 시 확인창	()시간
9) 집에서 자는 낮잠 시간 ▶ '0.0' 가능 ▶ 2 이상 응답 시 확인창	()시간
10) 기타 시간 ▶ 범위 : 0.0~3.0	()시간

-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 ▶ 7-4), -5), -6), -7)에 걸린 로직 외 Go Q8
- ▶ 범위 : 30분 단위(0.5)로 응답
- ▶ Q7-1) ~ 10) 응답값의 합이 24가 되어야 다음 문항으로 이동
- ▶ 하위 항목 간의 로직이 충돌되는 경우 앞번호 문항을 우선으로 함
- ▶ 예러창 및 확인창을 각각의 세부 하위문항에 대해 띄울 것. 어떤 문항에 대한 응답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7-1. ○○(이)는 지난 1주일 간 TV 시청 및 인터넷, 전자기기를 총 며칠 사용하였습니까? (놀이와 교육 목적 모두 포함)

1주일 간 총 ()일

▶ 범위(scroll bar): 1~7

▶ 무응답 시, Go Q7-2

7-2. ○○(이)가 지난 1주일 간 아래의 매체를 얼마나 이용하였습니까?

종류	전혀 이용하지 않음	가끔 이용함	이용함	자주 이용함	매우 자주 이용함
1) 컴퓨터(인터넷)	①	②	③	④	⑤
2) 개인 게임기(닌텐도 등)	①	②	③	④	⑤
3) 휴대폰, 스마트폰 등(아이패드, 갤럭시탭 등 포함)	①	②	③	④	⑤
4) TV	①	②	③	④	⑤

▶ Q7-2-1)~4)에 모두 ① 불가

▶ Q7-6)에 0.5 이상 응답 시, Go Q7-3

▶ Q7-6)에 0.0 응답하고, Q7-7)에 0.5 이상 응답 시, Go Q7-4

▶ Q7-6)과 -7)에 0.0 응답 시, Go Q8

▶ 무응답 시, Q7-6)에 0.5 이상 응답한 경우, Go Q7-3

▶ 무응답 시, Q7-6)에 0.0 응답하고 Q7-7)에 0.5 이상 응답한 경우, Go Q7-4

▶ 무응답 시, Q7-6)과 -7)에 0.0 응답 시, Go Q8

7-3. ○○(이)는 지난 1주일 간 장난감놀이, 책 보기 등의 실내놀이를 며칠 하였습니까?

1주일 간 총 ()일

▶ 범위(scroll bar): 1~7

▶ Q7-7)에 0.0 응답 시, Go Q8

▶ Q7-7)에 0.5 이상 응답 시, Go Q7-4

▶ 무응답 시, Q7-7)에 0.0 응답한 경우, Go Q8

▶ 무응답 시, Q7-7)에 0.5 이상 응답한 경우, Go Q7-4

7-4. ○○(이)는 지난 1주일 간 신체활동 위주의 바깥놀이 및 외출을 며칠 하였습니까?

1주일 간 총 ()일

▶ 범위(scroll bar): 1~7

▶ 무응답 시, Go Q8

다음은 패널아동이 이용하는 기관 및 육아지원 서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8. ○○(이)의 보육 또는 교육을 위하여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세요.

유형	8-1. 이용여부	8-2. 이용빈도	8-3. 이용시간	8-4. 등원시간 (출발시간)	8-5. 이용만족도
1) 어린이집	① 이용함 ② 이용안함	주당 ()일	1일 평균 ()시간	()시 ()분	①매우 불만족 ②불만족 ③보통 ④만족 ⑤매우 만족
2) 유치원	① 이용함 ② 이용안함	주당 ()일	1일 평균 ()시간	()시 ()분	①매우 불만족 ②불만족 ③보통 ④만족 ⑤매우 만족
3-1) 반일제 이상 학원 1 (무엇:)	① 이용함 ② 이용안함	주당 ()일	1일 평균 ()시간	()시 ()분	①매우 불만족 ②불만족 ③보통 ④만족 ⑤매우 만족
3-2) 반일제 이상 학원 2 (무엇:)	① 이용함 ② 이용안함	주당 ()일	1일 평균 ()시간	()시 ()분	①매우 불만족 ②불만족 ③보통 ④만족 ⑤매우 만족
3-3) 반일제 이상 학원 3 (무엇:)	① 이용함 ② 이용안함	주당 ()일	1일 평균 ()시간	()시 ()분	①매우 불만족 ②불만족 ③보통 ④만족 ⑤매우 만족
4) 시간제 특기학원 및 보습학원, 문화센터, 개인·그룹지도, 학습지 등 사설 프로그램	① 이용함 ② 이용안함	주당 ()회	1회 평균 ()분		①매우 불만족 ②불만족 ③보통 ④만족 ⑤매우 만족
5) 지역아동센터,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① 이용함 ② 이용안함	주당 ()회	1회 평균 ()분		①매우 불만족 ②불만족 ③보통 ④만족 ⑤매우 만족
6) 조부모 및 기타 친인척 (비용 지불 시)	① 이용함 ② 이용안함	주당 ()일	1회 평균 ()시간		①매우 불만족 ②불만족 ③보통 ④만족 ⑤매우 만족
7) 비혈연 대리양육자 (양육도우미 등)	① 이용함 ② 이용안함	주당 ()일	1회 평균 ()시간		①매우 불만족 ②불만족 ③보통 ④만족 ⑤매우 만족
8) 일시보육 (육아종합지원센터, 일시보육지정어린이집)	① 이용함 ② 이용안함	월 ()회	1회 평균 ()시간		①매우 불만족 ②불만족 ③보통 ④만족 ⑤매우 만족

9-1.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과 함께 시간제 특기·보습학원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시간제 특기학원, 보습학원, 문화센터, 개인·그룹지도, 학습지 등 사설 프로그램과 지역아동센터,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을 추가로 이용하는 경우

- ① 기관 이용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 ②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서
- ③ 정부 지원으로 금전적 여유가 생겨서
- ④ 다양한 경험·교육을 위해서
- ⑤ 놀이 상대가 없어서
- ⑥ 아이가 재능을 보여서
- ⑦ 아이가 원해서
- ⑧ 안 하면 뒤쳐질 것 같아서
- ⑨ 기타()

▶ Q8-1), Q8-2), Q8-3) 이용여부 중 ① 응답 & Q8-6), Q8-7), Q8-8) 중 ① 응답 시, Go Q9-2

▶ Q8-1), Q8-2), Q8-3) 이용여부 중 ① 응답 & Q8-6), Q8-7), Q8-8) 모두 ② 응답 시, Go Q10

▶ 무응답 시, Q8-1), Q8-2), Q8-3) 이용여부 중 ① 응답 & Q8-6), Q8-7), Q8-8) 중 ① 응답 시, Go Q9-2

▶ 무응답 시, Q8-1), Q8-2), Q8-3) 이용여부 중 ① 응답 & Q8-6), Q8-7), Q8-8) 모두 ② 응답 시, Go Q10

9-2.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과 함께 개인 양육지원과 같은 비용을 지불하는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비용을 지불하고 조부모 및 기타 친인척, 비혈연 대리양육자(양육도우미 등), 일시보육(육아종합지원센터, 일시보육지정어린이집)을 추가로 이용하는 경우

- ① 기관 이용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 ②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서
- ③ 정부 지원으로 금전적 여유가 생겨서
- ④ 다양한 경험·교육을 위해서
- ⑤ 돌봄 사람이 없어서
- ⑥ 개별적인 돌봄을 위해서
- ⑦ 기타()

▶ 무응답 시, Go Q10

10. ○○(이)가 현재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신 점은 무엇입니까? 다음 중 2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운영시간
- ② 거리의 근접성
- ③ 형제와 함께 이용하는 등의 편리성
- ④ 비용
- ⑤ 교사의 질
- ⑥ 프로그램 내용
- ⑦ 물리적 환경(시설 및 설비)
- ⑧ 주변의 평판
- ⑨ 기타()

▶ 모든 응답자, GO Q12

▶ 무응답 시, GO Q12

11.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주변에 마땅한 기관이 없어서
- ② 비용이 부담되어서
- ③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 ④ 아이가 적응을 못해서(아이가 싫어해서)
- ⑤ 아이가 질병이나 장애가 있어서
- ⑥ 초등학교를 준비하기에 미흡한 것 같아서
- ⑦ 기타()

▶ 무응답 시, Go Q12

12. ○○(이)가 지난 1년간 이용한 육아지원 서비스는 몇 개입니까? 현재 이용 서비스를 포함하여 모두 응답해 주세요.

서비스 종류	이용 수
① 어린이집	()기관
② 유치원	()기관
③ 반일제 이상 학원	()기관
④ 비용을 지불하는 대리 양육자(양육 도우미)	()명
⑤ 시간제 특기·보습학원 및 교육프로그램 등	()개
⑥ 일시 보육(육아종합지원센터, 일시보육 운영 어린이집)	()기관

▶ 범위: 0~30

▶ 8-1)-2)-3) 중 ①인 경우 12-①, ②, ③의 이용 수에 default값으로 1 넣을 것

▶ $Q12-5 \geq \text{sum}[8-4], 8-5]$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 표가 ①~⑥까지 한번에 보여주고, 전체를 모두 응답 후 다음 문항으로 넘어갈 때 3이상 값이 있으면 번호 순서대로 경고창->Q12->경고창->Q12 의 형태로 구현

▶ Q12에 ①≥3

◎ ○○(이)가 지난 1년간 3군데 이상의 어린이집을 다녔다고 응답하셨습니다. 맞습니까?

① 확인 ⇨ 이후 문항 진행 ② 취소 ⇨ 12번 문항으로

▶ Q12에 ②≥3

◎ ○○(이)가 지난 1년간 3군데 이상의 유치원을 다녔다고 응답하셨습니다. 맞습니까?

① 확인 ⇨ 이후 문항 진행 ② 취소 ⇨ 12번 문항으로

▶ Q12에 ③≥3

◎ ○○(이)가 지난 1년간 3군데 이상의 학원을 다녔다고 응답하셨습니다. 맞습니까?

① 확인 ⇨ 이후 문항 진행 ② 취소 ⇨ 12번 문항으로

▶ Q12에 ④≥3

◎ ○○(이)가 지난 1년간 3명 이상의 대리 양육자를 이용했다고 응답하셨습니다. 맞습니까?

① 확인 ⇨ 이후 문항 진행 ② 취소 ⇨ 12번 문항으로

▶ Q12에 ⑤≥5

◎ ○○(이)가 지난 1년간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외의 시간제 특기·보습학원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5개 이상 이용했다고 응답하셨습니다. 맞습니까?

① 확인 ⇨ 이후 문항 진행 ② 취소 ⇨ 12번 문항으로

▶ Q12에 ⑥≥3

◎ ○○(이)가 지난 1년간 3군데 이상의 시간제 (일시)보육을 이용했다고 응답하셨습니다. 맞습니까?

① 확인 ⇨ 이후 문항 진행 ② 취소 ⇨ 12번 문항으로

▶ Q12에 ⑤ 선택 시 Go Q13, ⑤ 미선택시 Go Q14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13. 지난 1년간 ○○(이)가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외에 이용한 시간제 특기·보습학원 및 교육프로그램 내용은 무엇입니까? 모두 응답해 주세요.

- | | |
|---------------------|---------------------------------|
| ① 미술(그림, 공작, 서예 등) | ② 음악(피아노, 바이올린 등) |
| ③ 체육(발레, 수영, 태권도 등) | ④ 과학 |
| ⑤ 수학(숫자, 산수, 주산 등) | ⑥ 국어(한글, 동화구연, 웅변 등) |
| ⑦ 컴퓨터 | ⑧ 교구 이용프로그램(가베, 은물, 몬테소리, 레고 등) |
| ⑨ 한자 | ⑩ 영어 |
| ⑪ 기타 외국어(중국어 등) | ⑫ 창의성 프로그램(호기심 놀이 등 포함) |
| ⑬ 통합프로그램 | ⑭ 기타 () |

▶ 무응답 시, Go Q14

다음은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14. 귀 택은 지난 1년 간 국가로부터 ○○(이)의 양육에 도움이 되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원명	지원에 대한 설명	14-1. 지원 여부	14-2. 지원 내역	14-3. 도움 정도	14-4. 이 정책이 귀하의 출산계획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칩니까?
1) 누리과정 /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만 3~5세 아동에게 공단의 보육·교육비용(월 220,000원 지원), 교육과정료 제공	① 지원받음 ② 지원받지 않음 ③ 정책을 몰랐음		① 전혀 도움 되지 않음 ② 도움 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도움 됨 ⑤ 매우 도움 됨	① 예 ② 아니오
2) 가정양육수당 지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만5세 이하 전 계층에게 월 100,000원 지급	① 지원받음 ② 지원받지 않음 ③ 정책을 몰랐음		① 전혀 도움 되지 않음 ② 도움 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도움 됨 ⑤ 매우 도움 됨	① 예 ② 아니오
3)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대상으로 자녀 1~2명 1명당 15만원, 2명 초과시 30만원 + 1명당 20만원 세액공제	① 지원받음 ② 지원받지 않음 ③ 정책을 몰랐음		① 전혀 도움 되지 않음 ② 도움 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도움 됨 ⑤ 매우 도움 됨	① 예 ② 아니오
4) 시간 연장형 보육료 지원	- 만 0~5세를 대상으로 기준시간 초과 보육료 지원. - 시간당 2,700원씩 60시간에 한함(양육아동은 3,700원씩 한도 162,000원 지원)	① 지원받음 ② 지원받지 않음 ③ 정책을 몰랐음		① 전혀 도움 되지 않음 ② 도움 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도움 됨 ⑤ 매우 도움 됨	① 예 ② 아니오
5) 방과후과정 지원비	유치원 이용아 중 방과후과정 이용시 지원. 공립 5만원, 사립 7만원까지 지원	① 지원받음 ② 지원받지 않음 ③ 정책을 몰랐음		① 전혀 도움 되지 않음 ② 도움 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도움 됨 ⑤ 매우 도움 됨	① 예 ② 아니오
6) 아이돌봄 서비스	- 만 12세 이하 취학박문 자녀 등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 제공	① 지원받음 ② 지원받지 않음 ③ 정책을 몰랐음		① 전혀 도움 되지 않음 ② 도움 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도움 됨 ⑤ 매우 도움 됨	① 예 ② 아니오
7) 영유아 건강검진	- 만 6세 미만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7회, 구강검진 3회 실시	① 지원받음 ② 지원받지 않음 ③ 정책을 몰랐음	① 전체 지원 ② 일부 지원	① 전혀 도움 되지 않음 ② 도움 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도움 됨 ⑤ 매우 도움 됨	① 예 ② 아니오

지원명	지원에 대한 설명	14-1. 지원 여부	14-2. 지원 내역	14-3. 도움 정도	14-4. 이 정책이 귀하의 출산계획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칩니까?
8) 의료기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구 필수예방접종)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 13종 백신비와 시행비용 일부 또는 전액 지원	① 지원받음 ② 지원받지 않음 ③ 정책을 몰랐음	① 전액 지원 ② 일부 지원	① 전액 도움 되지 않음 ② 도움 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도움 됨 ⑤ 매우 도움 됨	① 예 ② 아니오
9)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만2세~6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독서도우미 를 파견하여 책읽어주기, 도서지킴이(또는 대안) 및 독후활동 을 실시하고 부모 대상 독서지도 서비스 제공 - 배민1회당 20분 이상 신청 후 10개월 간 월 15,000원 배움처로 지급(단독금은 25,000원)	① 지원받음 ② 지원받지 않음 ③ 정책을 몰랐음	① 전액 지원 ② 일부 지원	① 전액 도움 되지 않음 ② 도움 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도움 됨 ⑤ 매우 도움 됨	① 예 ② 아니오
10) 영유아발달 지원 서비스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만 0~6세 - 만 0~6세 영유아 중 발달 평가 결과에서 '강사 필요' 등급을 받거나,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영유아에게 월 140,000~180,000원 지급 - 문제유형별 중재서비스를 설계하여 주 2회 6개월간 제공 - 부모 상담 및 개별 보고서 작성·송부 등을 통해 피드백·조정 - 만 18세 미만 비장애 문제행동 아동을 대상으로 12개월 간 월 160,000원 서비스 제공(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 심리 상담, - 놀이치료, 미술치료, 언어치료, 인지치료 중 아동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선행하여 지원 - 심리검사, 부모훈련 등 부가서비스 선택적 제공 - 주1회 기관방문(12개월 지원)	① 지원받음 ② 지원받지 않음 ③ 정책을 몰랐음	① 전액 지원 ② 일부 지원	① 전액 도움 되지 않음 ② 도움 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도움 됨 ⑤ 매우 도움 됨	① 예 ② 아니오
11)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 만 18세 미만 인터넷 중독 선별검사에서 위험군 판정을 받은 아동에게 월 200,000원 지원 - 인터넷중독 위험검토 검사, 치료체계, 전일 워크숍, 심리상담(6개월), 대체활동(2개월), 맞춤형 사후관리(3개월) 가족평화(1박 2일), 대체활동, 부모상담(월1회) - 주1회 기관방문 (12개월 지원)	① 지원받음 ② 지원받지 않음 ③ 정책을 몰랐음	① 전액 지원 ② 일부 지원	① 전액 도움 되지 않음 ② 도움 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도움 됨 ⑤ 매우 도움 됨	① 예 ② 아니오
12)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 서비스	- 만 18세 미만 인터넷 중독 선별검사에서 위험군 판정을 받은 아동에게 월 200,000원 지원 - 인터넷중독 위험검토 검사, 치료체계, 전일 워크숍, 심리상담(6개월), 대체활동(2개월), 맞춤형 사후관리(3개월) 가족평화(1박 2일), 대체활동, 부모상담(월1회) - 주1회 기관방문 (12개월 지원)	① 지원받음 ② 지원받지 않음 ③ 정책을 몰랐음	① 전액 지원 ② 일부 지원	① 전액 도움 되지 않음 ② 도움 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도움 됨 ⑤ 매우 도움 됨	① 예 ② 아니오
13) 장애아 보육교육비 지원	-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교육·보육비 지원	① 지원받음 ② 지원받지 않음 ③ 정책을 몰랐음	① 전액 지원 ② 일부 지원	① 전액 도움 되지 않음 ② 도움 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도움 됨 ⑤ 매우 도움 됨	① 예 ② 아니오
14) 영양플러스	- 기초생활수급자 및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 가구 중 임신부(임산부, 출산후 1주부터, 만 6세(72개월) 미만)의 영양에 중·영양취약요인(빈혈, 저체중, 정장부전, 영양실조상태, 골밀 등)이 있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최저생계비 120~200% 가정은 공급식품 금액의 10% 차비부담 -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 공급, 정기적 영양 평가	① 지원받음 ② 지원받지 않음 ③ 정책을 몰랐음	① 전액 지원 ② 일부 지원	① 전액 도움 되지 않음 ② 도움 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도움 됨 ⑤ 매우 도움 됨	① 예 ② 아니오

▶ **지원에 대한 설명은 Q14-1에서만 보여줌.**

▶ **Q14-1에서 ① 응답자만 Q14-2로 이동**

▶ **무응답, 모를 불가 문항**

15. 다음은 근로 장소에서 실시하는 대표적인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방식입니다. 각각의 필요 정도에 대하여 해당하는 보기를 선택해주시시오.

구 분	제도 설명	15-1. 필요성					15-2. 시행 여부			15-3. 이용 여부		
1) 여성의 출산휴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는 것	① 전혀 불필요	② 불필요	③ 보통	④ 필요 ⑤ 매우 필요	① 예	② 아니요	③ 절대로	① 예	② 아니요		
2) 여성의 육아휴직	만삭제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임양한 자녀 포함)를 가진 근로자가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함.	① 전혀 불필요	② 불필요	③ 보통	④ 필요 ⑤ 매우 필요	① 예	② 아니요	③ 절대로	① 예	② 아니요		
3) 남성의 출산휴가	배우자의 출산에 따라 남성에게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는 것(최초 3일은 유급)	① 전혀 불필요	② 불필요	③ 보통	④ 필요 ⑤ 매우 필요	① 예	② 아니요	③ 절대로				
4) 남성의 육아휴직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양정 규정 이상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유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	① 전혀 불필요	② 불필요	③ 보통	④ 필요 ⑤ 매우 필요	① 예	② 아니요	③ 절대로				
5) 직장 어린이집		① 전혀 불필요	② 불필요	③ 보통	④ 필요 ⑤ 매우 필요	① 예	② 아니요	③ 절대로	① 예	② 아니요		
6) 보육비 지원		① 전혀 불필요	② 불필요	③ 보통	④ 필요 ⑤ 매우 필요	① 예	② 아니요	③ 절대로	① 예	② 아니요		
7) 수유실 설치		① 전혀 불필요	② 불필요	③ 보통	④ 필요 ⑤ 매우 필요	① 예	② 아니요	③ 절대로	① 예	② 아니요		
8) 근무 중 수유시간 부여 또는 유급 수유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자 근로자가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 근무 중 수유시간을 부여하는 것	① 전혀 불필요	② 불필요	③ 보통	④ 필요 ⑤ 매우 필요	① 예	② 아니요	③ 절대로	① 예	② 아니요		
9) 시차 출근제	근로자가 사정에 맞게 출퇴근 시간을 정하는 것 탄력근무라고도 함 (근로기준법 제 52조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전혀 불필요	② 불필요	③ 보통	④ 필요 ⑤ 매우 필요	① 예	② 아니요	③ 절대로	① 예	② 아니요		
10) 대체인력풀 운영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기관이 운영하는 제도	① 전혀 불필요	② 불필요	③ 보통	④ 필요 ⑤ 매우 필요	① 예	② 아니요	③ 절대로	① 예	② 아니요		
1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대신 최대 1년간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① 전혀 불필요	② 불필요	③ 보통	④ 필요 ⑤ 매우 필요	① 예	② 아니요	③ 절대로	① 예	② 아니요		

▶ Q3 ③.③ 응답자만 Q15-2. 구현 ▶ Q15-2. ① 응답자만 Q15-3. 구현

▶ 무응답, 모를 불가 문항

15-4. 다음의 11가지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방식 중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3가지를 순서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1) 여성의 출산휴가	2) 여성의 육아휴직	3) 남성의 출산휴가	4) 남성의 육아휴직	5) 직장 어린이집	6) 보육비 지원
7) 수유실 설치	8) 근무 중 수유시간 부여 또는 유급 수유시간	9) 시차 출근제	10) 대체인력풀 운영	1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순위 선택 식으로 구현 ▶ 무응답 시, Go Q16

16. 귀하는 다음의 국가와 근로 장소에서의 육아지원 정책이 우리사회 전반의 출산력 제고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여성의 출산휴가	2) 여성의 육아휴직	3) 남성의 출산휴가	4) 남성의 육아휴직	5) 직장 어린이집	6) 보육비 지원
7) 수유실 설치	8) 근무 중 수유시간 부여 또는 유급 수유시간	9) 시차 출근제	10) 대체인력풀 운영	1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②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영향을 미침 ⑤ 매우 영향을 미침

▶ 무응답 시, Go Q17

다음은 귀 닥의 경제적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17. 귀 닥의 지난 1년 동안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실수령액으로 대답해주세요.

월 평균 가구소득 ()만원

☑ 가구소득 : 근로소득, 금융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포함하여 이와 같은 소득을 모든 가구원에 대해 합산한 것을 지칭함. 단, 소득세·주민세·재산세·이자소득세 등을 비롯하여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

▶ '0'가능

▶ Q17 범위 : 0 ~ 9000

▶ SQ04에 ②~⑤로 응답 시, Go Q18

▶ SQ04 ① 응답자 중 Q3 ②, ④는 Go Q18

▶ Q17=0 응답시

◎ "귀 닥은 지난 1년 동안 가구소득이 없었다고 응답하셨습니다. 맞습니까?"

① 확인 ⇨ 18번 문항으로

② 취소 ⇨ 17번 문항으로

★ $Q17 \geq$ 작년도 가구소득(중단 23) $\times 3$ 응답 또는 $Q17 \leq$ 작년도 가구소득(중단 23) $\times 1/3$ (Q17은0이 아닐 때)

★ "귀 닥은 지난 1년 동안 가구소득이 (Q17 응답값)만원이라고 응답하셨습니다. 맞습니까?"

① 확인 ⇨ 18번 문항으로 (단, SQ04 = ① 이고, Q3=③, ③이면 GO Q17-1)

② 취소 ⇨ 17번 문항으로

★ 중단 23

▶ 무응답 시, Go Q18

▶ 무응답 시, SQ04에 ①응답자 중, Q3에 ①, ③으로 응답된 경우 Go Q17-1

17-1. 귀하의 근로소득은 얼마입니까? 실수령액으로 대답해주세요.

월 평균 어머니의 근로소득 ()만원

▶ Q17-1 범위 : 0 ~ 9000

▶ SQ04의 ① 응답자 중, Q3에 ①, ③으로 응답된 경우만 질문 구현

▶ Q3-7에 ④, ⑤, ⑥로 응답된 경우가 아닌데, 0원 입력 시,

◎ "○○(이) 어머니의 월 평균 근로소득을 0원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맞습니까?"

① 확인 ⇨ 18번 문항으로

② 취소 ⇨ 17-1번 문항으로

▶ Q17 = Q17-1, Go Q17-1-1

▶ 무응답 시, Go Q18

▶ Q17-1 $\geq 1,000$

◎ "○○(이) 어머니의 월 평균 근로소득을 1,000만원 이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맞습니까?"

① 확인 ⇨ 18번 문항으로

② 취소 ⇨ 17-1번 문항으로

17-1-1. ○○(이) 어머니의 근로소득이 가구 전체 소득과 동일합니다. 맞습니까?

① 네, ○○(이) 어머니의 소득이 가구 전체 소득입니다. ⇨ 18번 문항으로

② 아니요, 가구 총 소득을 잘못 응답하였습니다. ⇨ 17번 문항으로

③ 아니요, 어머니의 근로소득을 잘못 응답하였습니다. ⇨ 17-1번 문항으로

▶ 무응답 시, Go Q18

18. 귀댁의 지난 1년 동안의 월 평균 가구지출은 얼마입니까? 아래의 항목에 따라 응답해 주세요.

비소비성 지출
☐ 각종 세금, 적금, 보험, 타 가구를 위한 용돈, 월 상환금 등
소비성 지출
☐ 식비, 주거비, 보육교육비(특별활동비), 양육비, 의료비, 현물 구입비, 기타 잡비 등

구분	종류	월 평균 비용
비소비성 지출	1) 가구 전체의 비소비성 지출	월 평균 가구 총 비소비성 지출 ()만원
	2) 이 중 자녀(들)에 대한 비소비성 지출	월 평균 자녀(들)을 위한 총 비소비성 지출 ()만원
소비성 지출	3) 가구 전체의 소비성 지출	월 평균 가구 총 소비성 지출 ()만원
	4) 이 중 자녀(들)에 대한 소비성 지출	월 평균 자녀(들)을 위한 총 소비성 지출 ()만원
	5) 이 중 ○○(아)의 교육·보육 비용	① 어린이집 ()만원
		② 유치원 ()만원
		③ 반일제 이상 학원 ()만원
		④ 시간제 특강·보습학원 및 교육프로그램 등 ()만원
		⑤ 대리양육자 ()만원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 Q18-1), Q18-2), Q18-4) : 0 ~ 9000 (소수점 첫째자리까지만 가능)

▶ Q18-3) 범위 : 1 ~ 9000, '0' 불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만 가능)

▶ Q18-5) ①~⑤ 범위 : 0 ~ 600 (소수점 첫째자리까지만 가능)

✧ 총 가구지출 = sum[Q18-1), Q18-3)] 계산

✧ Q18-1)가 '0'일 경우, 그대로 sum[Q18-1), Q18-3)] 계산

▶ Q18-1) ≥ Q18-2)

▶ Q18-3) ≥ Q18-4)

▶ Q18-4) ≥ Sum[Q18-5) ① ~ ⑤]

▶ Q18-1) = Q18-2) : (단, 값이 0이 아닐 경우만)

① "가구 총 비소비성 지출 금액이 모두 자녀를 위해서만 사용된다고 응답하셨습니다. 맞습니까?"

① 맞음 ⇨ 19번 문항으로

② 틀림 ⇨ 18번 문항으로

▶ Q18-3) = Q18-4) : (단, 값이 0이 아닐 경우만)

① "가구 총 소비성 지출 금액이 모두 자녀를 위해서만 사용된다고 응답하셨습니다. 맞습니까?"

① 맞음 ⇨ 19번 문항으로

② 틀림 ⇨ 18번 문항으로

▶ Q18-4) = Sum[Q18-5) ① ~ ⑤] : (단, 값이 0이 아닐 경우만)

① "자녀(들)에 대한 소비성 지출이 모두 ○○(아)의 교육·보육 비용을 위해서만 사용된다고 응답하셨습니다. 맞습니까?"

① 맞음 ⇨ 19번 문항으로

② 틀림 ⇨ 18번 문항으로

▶ Q18-3) < 12

① 귀댁은 한달 평균 12만원 미만으로 식비, 주거비, 교육비 등의 비용을 쓴다고 응답하셨습니다. 맞습니까?

① 맞음 ⇨ 19번 문항으로

② 틀림 ⇨ 18번 문항으로

▶ sum[Q18-1), Q18-3)] > Q17은 Go18-1

18-1. 귀 댁의 총 지출이 가구 총 소득보다 크게 응답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지출을 잘못 입력 ⇨ 18번 문항으로

② 소득을 잘못 입력 ⇨ 18-1-1번 문항으로

③ 마이너스 통장, 카드 이용

④ 친정 혹은 시댁의 원조

⑤ 그동안 저축해놓은 돈을 씀

⑥ 기타()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18-1-1. 귀 댁의 지난 1년 동안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실수금액으로 대입해주세요.

월 평균 가구소득 ()만원

☑ 가구소득 : 근로소득, 금융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포함하여 이와 같은 소득을 모든 가구원에 대해 합산한 것을 지칭함. 단, 소득세·주민세·재산세·이자소득세 등을 비롯하여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

▶ '0'불가

▶ Q18-1-1 범위 : 1 ~ 9000

▶ 응답값이 sum[Q18-1), Q18-3)] 보다 커야함

❖ 슈퍼바이저 또는 에디팅 시 Q17을 Q18-1-1에서 수정된 값으로 변경

▶ 무응답시, GO Q19, 단, Q18-5) ①, ②, ③, ④, ⑤에 '0.0' 초과 응답한 경우만 구현

19. ○○(이)가 다니는 다음 보육·교육 기관과 서비스에 대한 부모님의 비용 부담정도는 어떠합니까?

	① 전혀 부담되지 않음	② 부담되지 않는 편임	③ 적당함	④ 부담되는 편임	⑤ 매우 부담됨
1) 어린이집					
2) 유치원					
3) 반일제 이상 학원					
4) 어린이집·유치원·학원 외 시간제 특기· 보습학원 및 교육프로그램 등					
5) 대리양육자					

▶ Q18-5) ①, ②, ③, ④, ⑤에 '0.0' 초과 응답한 경우만 구현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20. 귀댁의 소유 부동산(주택, 건물, 임야, 토지 등)은 얼마입니까? 현 시가로 응답해 주세요.

시가 ()만원

▶ '0' 가능

▶ Q20 범위 : 0 ~ 9999999

▶ 무응답 시, Go Q21

21. 귀댁의 금융자산(예금, 보험, 주식, 채권, 타지 않은 게, 빌려준 돈, 전월세 임대료 등)은 얼마입니까?

총 ()만원

▶ '0' 가능

▶ Q21 범위 : 0 ~ 999999

▶ 무응답 시, Go Q22

22. 귀댁은 은행대출, 개인적으로 빌린 돈, 빌려준 집의 전월세 보증금, 임대보증금 등의 부채가 있습니까?

① 부채 있음 ➡ 22-1번 문항으로

② 부채 없음 ➡ 23번 문항으로

▶ 무응답 시, Go Q23

22-1. 귀댁의 갚아야 할 부채와 월 상환금(원금 또는 이자)은 얼마입니까?

☑ 부채 : 은행대출, 개인적으로 빌린 돈, 빌려준 집의 전월세 보증금, 임대보증금 등

총 부채 ()만원 / 월 상환금 총 ()만원

▶ 부채 '0' 불가 / 월 상환금 '0' 가능

▶ 부채 범위 : 10 ~ 999999

▶ 월상환금 범위 : 0 ~ 999999

▶ 총부채 ≥ 월상환금

▶ 둘 중 하나라도 무응답 시, Go Q23

▶ 월 상환금 ≤ Q18-1)

23. 현재 귀 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③ 해당없음

- ▶ SQ04에 ③, ②로 응답한 경우 Go Q25
 ▶ SQ04에 ③, ④, ⑤로 응답한 경우 Go Q24
 ▶ 무응답 시, SQ4에 ③, ②로 응답한 경우 Go Q25
 ▶ 무응답 시, SQ4에 ③, ④, ⑤로 응답한 경우 Go Q24

다음은 귀 가구의 가구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24. ○○(이)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 ① 엄마, 아빠와 함께 살고 있음 ② 엄마, 아빠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음
 ③ 엄마와만 함께 살고 있음 ④ 아빠와만 함께 살고 있음

- ▶ SQ04에 ③, ④, ⑤로 응답된 경우만 구현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25. 귀택에서 ○○(이)와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은 몇 명입니까?

가구원	수
전체 가구원 수 ▶ Sum(25-1)~25-7) 구현	()명
1) ○○ ▶ 값 수정 불가(1로 default)	(1)명
2) ○○(이)의 부모 ▶ 값범위: 0~2 ▶ Q1-1 또는 Q2-1에 ③, ⑤, ⑥, ⑦ 응답시 default값으로 '1'구현, 수정 가능 ▶ Q24에 ②로 응답된 경우, '0'구현, 수정 불가, Q24로 이동해서 수정 ▶ Q24에 ③, ④로 응답된 경우, '1'구현, 수정 불가, Q24로 이동해서 수정	(2)명
3) ○○(이)의 형·오빠, 누나·언니(형제자매의 배우자 포함)	()명
4) ○○(이)의 동생	()명
5) ○○(이)의 할아버지·할머니	()명
6) ○○(이)의 친인척	()명
7) 기타	()명

- ▶ Q25 범위 : 응답범주 각각 0~9
 ▶ Q1-6)과 Q2-6) 중 하나라도 ①로 응답했는데 Q25-2)=0인 경우 예러창
 ▶ SQ03에 아이가 외동이 아닌 경우, SUM(Q25-3), Q25-4)은 0 불가능
 ▶ Q25-3)에 1 이상으로 응답하고, SQ03에 ○○이가 첫째(외동 포함)로 응답된 경우, Go Q25-3)-1
 ▶ Q25-4)에 1 이상으로 응답하고, SQ03에 외동으로 응답된 경우, Go Q25-4)-1
 ▶ SQ03에 아이가 외동이고, Q25-3)=0 AND Q25-4)=0은 Go Q26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25-3)-1. ○○(이)의 형·오빠, 누나·언니(형제자매의 배우자 포함)에 관한 질문입니다.

- ① ○○(이)에게는 형·오빠, 누나·언니(형제자매의 배우자 포함)가 있음 ➡ 25-3)-2번 문항으로
 ② ○○(이)에게는 형·오빠, 누나·언니(형제자매의 배우자 포함)가 없음 ➡ 25-3)번 문항으로

-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25-4)-1. ○○(이)의 동생에 관한 질문입니다.

- ① ○○(이)에게는 동생이 있음 ➡ 25-3)-2번 문항으로
 ② ○○(이)에게는 동생이 없음 ➡ 25-4)번 문항으로

-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25-3)-2. ○○(이)의 출생순위는?

☑ 이전 응답값 : [SQ03] 구현

() 남 () 녀 중 () 짝

- ▶ () 남 () 녀에 동시 '0' 불가
- ▶ 범위(scroll bar): (0~5)남, (0~5)녀, (1~10)째
- ▶ ○○(이)의 성별과 동일한 출생순위에는 반드시 '1이상'이 되어야 함.
-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 ▶ SQ03 구현

다음은 패널아동의 신체발달에 대한 질문입니다.

26. ○○(이)는 지난 1년 간 사고 또는 중독으로 병의원이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치료 경험 있음 ➡ 26-1번 문항으로 ② 치료 경험 없음 ➡ 27번 문항으로

▶ 무응답 시, Go Q29

26-1. ○○(이)가 지난 1년 간 사고 또는 중독으로 치료 받은 것은 모두 몇 번입니까?

지난 1년 간 총 ()번 치료받았음

- ▶ '0' 불가
- ▶ Q26-1 범위 : 1 ~ 20
- ▶ 11회 이상일 경우, Go Q26-1-1
- ▶ 무응답 시, Go Q27

26-1-1. ○○(이)가 지난 1년 간 사고 또는 중독으로 11회 이상 치료를 받았다고 응답하셨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이 맞습니까?

- ① 아니요, 잘못 입력함 ➡ 26-1번 문항으로
② 네, 맞습니다. 이유 () ➡ 27번 문항으로

▶ 무응답 불가

27. ○○(이)는 지난 1년간 입원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입원한 적 있음 ➡ 27-1번 문항으로 ② 입원한 적 없음 ➡ 28번 문항으로

▶ 무응답 시, Go Q28

27-1. ○○(이)가 지난 1년 간 입원한 횟수는 몇 번입니까?

지난 1년 간 총 ()번 입원

- ▶ '0' 불가
- ▶ Q27-1 범위 : 1 ~ 20
- ▶ 무응답 시, Go Q27-2

27-2. ○○(이)의 지난 1년 간 입원일은 며칠 입니까? 입원횟수가 2회 이상일 경우, 총 입원일을 응답해 주세요.

☑ 1개월 = 30일

지난 1년 간 총 ()개월 ()일 입원

- ▶ 범위(scroll bar): (0~11)개월, (0~29)일 ▶ 개월 & 일에 동시에 '0' 불가 ▶ 무응답 시, Go Q27-3

❖ 1개월 이상 입원 시 슈퍼바이저 데이터 확인

27-3. ○○(이)의 입원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두 응답해주세요.

- ① 폐렴 ② 골절 ③ 장염 ④ 수술 (수술명:) ⑤ 기타

▶ 무응답 시, Go Q28

28. ○○(이)는 최근 한 달 간 병의원(치과 포함)이나 보건소, 한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통원 치료 경험 있음 (번) ② 통원 치료 경험 없음

▶ '0' 불가

▶ Q28 범위 : 1 ~ 30

▶ 무응답 시, Go Q29

29. **지난 조사 이후** ○○(이)는 장애아로 판정받았습니까? 중복장애의 경우는 판정 받은 모든 장애에 대해 응답해주세요. 장애아는 장애 급수를 판정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29-1. 장애명	29-2. 판정 받은 급수					
① 지체장애	① 1급	② 2급	③ 3급	④ 4급	⑤ 5급	⑥ 6급
② 뇌병변장애	① 1급	② 2급	③ 3급	④ 4급	⑤ 5급	⑥ 6급
③ 시각장애	① 1급	② 2급	③ 3급	④ 4급	⑤ 5급	⑥ 6급
④ 청각장애		② 2급	③ 3급	④ 4급	⑤ 5급	⑥ 6급
⑤ 언어장애			③ 3급	④ 4급		
⑥ 안면장애		② 2급	③ 3급	④ 4급		
⑦ 신장장애		② 2급			⑤ 5급	
⑧ 심장장애	① 1급	② 2급	③ 3급		⑤ 5급	
⑨ 간장애	① 1급	② 2급	③ 3급		⑤ 5급	
⑩ 호흡기장애	① 1급	② 2급	③ 3급		⑤ 5급	
⑪ 장루, 요루장애		② 2급	③ 3급	④ 4급	⑤ 5급	
⑫ 간질장애		② 2급	③ 3급	④ 4급	⑤ 5급	
⑬ 지적장애	① 1급	② 2급	③ 3급			
⑭ 정신장애	① 1급	② 2급	③ 3급			
⑮ 자폐성장애	① 1급	② 2급	③ 3급			
⑯ 없음	▶ 30번 문항으로					

▶ Q29-1에 응답된 장애에만 Q29-2 개별 구현

▶ 무응답 시, Go Q30

▶ ①~⑯까지와 ⑯은 중복응답 불가

30. ○○(이)는 **지난 1년 동안** 다음의 질환을 의사로부터 새롭게 진단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진단받은 모든 장애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해당 질환이 3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에 한해 응답해주세요.

30-1. 의사 진단 여부	30-2. 의사 진단 시기
① 신천성 심장질환	()년 ()월
② 간질	()년 ()월
③ 당뇨	()년 ()월
④ 천식	()년 ()월
⑤ 주의력 결핍/과잉행동 장애	()년 ()월
⑥ 아토피 피부염	()년 ()월
⑦ 만성 부비동염(축농증)	()년 ()월
⑧ 만성 중이염	()년 ()월
⑨ 만성 요로감염	()년 ()월
⑩ 없음	▶ 31번 문항으로

▶ Q30-1에 응답된 질환만 Q30-2 개별 구현

▶ 범위(scroll bar): (2013, 2014)년, (1~12)월, 조사 시점 이후 기입 불가

▶ 무응답 시, Go Q31

▶ ①~⑨까지와 ⑩은 중복응답 불가

31. ○○(이)는 다음의 경우에 주로 어느 손을 사용합니까?

문 항 내 용	① 오른손	② 왼손	③ 양손
1) 크레파스 또는 연필을 어느 손으로 잡습니까?			
2) 밥을 어느 손으로 먹습니까?			
3) 물건을 어느 손으로 집습니까?			

▶ 무응답 시, Go Q32

32. ○○(이)의 평상 모습을 토대로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해 주세요.

문 항 내 용	① 할 수 있다	② 할 수 없다
1) 뛰다가 길에 있는 낮은 장애물을 뛰어넘는다.		
2) 잡아주지 않아도 한 발로 5번 이상 강충뛰며 돌아다닌다.		
3) 혼자서 그네를 탄다.		
4) 보조 바퀴가 있는 두발자전거를 탄다.		
5) 보조 바퀴가 없는 두발자전거를 탄다.		
6) 공받기 놀이를 할 때, 공을 던지면 반 이상은 잡는다.		
7) 9조각 이상의 퍼즐을 맞춘다.		
8) 알아볼 수 있는 그림을 그린다.		
9) 적어도 신체의 3부분이 포함된 사람을 그린다(예: 머리, 눈, 코, 입, 머리카락, 몸통, 팔, 다리).		
10) 눈-코-입이 있고, 머리-몸통-팔-다리-손-발을 포함시킨 완전한 사람을 그린다.		
11) 선을 벗어나지 않고 색칠한다.		
12) 일반 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다.		

▶ 무응답 시, Go Q33

33. ○○(이)는 안경을 낄니까?

① 예, 안경을 낄니다 ➡ 33-1번 문항으로 ② 아니요, 안경을 끼지 않습니다 ➡ 34번 문항으로

★ 종단 24

▶ 무응답 시, Go Q34

33-1. ○○(이)는 언제부터 안경을 썼습니까?

만 ()세부터 안경을 낄

▶ 범위(scroll bar): 0~6

▶ 무응답 시, Go Q34

다음은 조사 대상 아이 (이하 ○○)에 대한 질문입니다.

34. ○○(이)가 집에서 음식을 먹는 습관은 어떠합니까? 문항별로 해당되는 보기를 선택해주시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이)의 식사시간은 규칙적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2) ○○(이)의 식사량은 일정합니까?	①	②	③	④	⑤
3) ○○(이)의 음식을 가리지 않고 골고루 먹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4) ○○(이)의 식사속도는 빠른 편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5) ○○(이)는 엄마의 도움 없이 혼자서도 식사를 잘 합니까?	①	②	③	④	⑤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35. ○○(이)는 일주일에 집에서 아침식사를 평균 몇 번 합니까?

① 거의 안 먹음 ② 주 1-2회 ③ 주 3-4회 ④ 주 5-6회 ⑤ 거의 매일 먹음

▶ 무응답 시, Go 36

36. ○○(이)는 하루에 집에서 간식을 평균 몇 번 먹습니까?

- ① 거의 안 먹음 ② 1일 1회 ③ 1일 2회 ④ 1일 3회 ⑤ 1일 4회 이상

▶ 무응답 시, Go 37

37. ○○(이)는 일주일에 외식(배달음식 포함)을 평균 몇 번 합니까?

※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육아지원기관에서 먹는 식사 제외

- ① 거의 안 먹음 ② 주 1-2회 ③ 주 3-5회 ④ 주 6-7회 ⑤ 주 8회 이상

▶ 무응답 시, Go 38

38. ○○(이)는 일주일에 평균 몇 번 가족과 함께 식사합니까?(외식 포함)

- ① 거의 안 함 ② 주 1-2회 ③ 주 3-5회 ④ 주 6-7회 ⑤ 주 8회 이상

▶ 무응답 시, Q8-1)~3) 중 2개 이상 응답한 경우 Go 39-1, Q8-1)~3) 중 1개 응답한 경우 Go 39

다음은 패널아동의 기관조사 참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 Q8-1)~3) 중 2개 이상 응답한 경우 Q39-1→Q39의 ①→Q39-1-1순(Q39-1값으로 구현)으로 또는 Q39-1→Q39의 ②→Q39-2로 구현함

▶ Q8-1)~3) 중 1개만 응답한 경우 Q39의 ①→Q39-1-1순(Q8-1~3값으로 구현)으로 또는 Q39의 ②→Q39-2로 구현함

39. 아이들이 다니는 기관에 대한 조사를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건강한 발달과 질 높은 육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위하여, ○○(이)가 이용하고 있는 기관 조사를 실시하도록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기관 조사는 ○○(이)의 담임선생님께 인터넷을 통해 진행되므로 선생님께서 편리한 시간에 진행 됩니다. 담임선생님께는 소정의 사례비가 지급됩니다.

- ① 네, 동의합니다 ➡ 39-1-1번 문항으로 ② 아니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 39-2번 문항으로

▶ Q8-1-1)~3) 중에 하나라도 ① 응답이 있는 경우만 질문 구현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 Q8-1-1)~3) 중 모두 ②로 응답한 경우 '③ 보육·교육기관 미이용'으로 응답값 채워넣기

39-1. ○○(이)가 주로 이용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이전에 이용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답해 주십시오.

-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반일제 이상 학원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39-1-1. ○○(이)의 [육아지원기관 종류]의 소속 기관명과 담임선생님의 성함, 기관 연락처는 무엇입니까?

1) ○○(이)의 소속 기관명 ()

2) 담임교사 성명 ()

3) 기관 연락처 ()

4) 기관 주소() ➡ HQ1번 문항으로

▶ Q8-1-1)~3) 중 ① 응답이 2개 이상인 경우 [육아지원기관 종류]에 Q39-1에서 응답한 값 내용 구현

▶ 기관주소는 주소입력기 형태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 단, [3] 기관 연락처를 제외하고는 '모름' 텍스트 입력은 가능

39-2. ○○(이)가 이용하고 있는 기관조사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기관조사 미참여 이유 () ② 아니요, 참여하겠음 ➡ 39-1번 문항으로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나. 아동 대상 질문지

ID



2014 아동 대상 질문지

I 다음은 ○○(아)의 신체발달에 대한 질문입니다.

■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음

SQ1. ○○(아)의 현재 몸무게는 몇 Kg입니까?

☐ 준비된 체중계로 조사원이 직접 측정

()Kg

★ 중단 17 : 미구현 적용

▶ 범위: 12.6~55.3 / [2007 표준성장도표 3.5~4세 여아 하위 3% < 범위 < 11세 남아 상위 3% 참조]

▶ '측정안함' 버튼 구현 : 아동 면접을 진행하지 못한 경우

▶ '측정안함'일 때 Go SQ2

▶ SQ1 < 중단 17, Go SQ1-1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SQ1-1. ○○(아)의 몸무게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병치레 ② 다이어트 ③ 기타()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SQ2. ○○(아)의 현재 키는 몇 Cm입니까?

()Cm

★ 중단 18 : 미구현 적용

▶ 범위: 91.7~151.6 / [2007 표준성장도표 3.5~4세 여아 하위 3% < 범위 < 11세 남아 상위 3% 참조]

▶ '측정안함' 버튼 구현 : 아동 면접을 진행하지 못한 경우

▶ '측정안함'일 때 Go SQ3

▶ SQ2 < 중단 18, Go SQ2-1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SQ2-1. ○○(아)의 키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병치레 ② 기타()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SQ3. ○○(아)의 현재 허리둘레는 몇 Cm입니까?

()Cm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 범위: 45.0~58.0 / [2007 표준성장도표 3.5~4세 여아 하위 3% < 범위 < 11세 남아 상위 3% 참조]

▶ '측정안함' 버튼 구현 : 아동 면접을 진행하지 못한 경우

▶ '측정안함'일 때 Go EQ1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II 자아존중감 조사

※ 보호자의 도움 없이 아동과 조사를 진행

1. 검사 시작 알림
“지금부터 선생님이 몇 개의 그림을 보여줄거야. 그림을 잘 보고 선생님이 묻는 질문에 대답해 주면 돼.”
2. 아동 성별에 따라 남아용 그림, 여아용 그림으로 나뉘어 제시됨.
3. 아동이 응답을 변경하였을 때는 되돌아가서 수정할 수 있도록 구현
4. 각 문항은 2개 하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Q#] 문항 응답 후 다음 화면에서 [Q#-1 or 2] 문항이 구현됨.
5. [Q#-1] 문항은 ①번 그림 → ②번 그림의 순으로 진행
6. 그림을 가리키며 [이 아이~]라고 지칭하며 그림을 아이가 보도록 하며 설명하는 질문의 문항을 읽어주고, 마무리로 “자, 00는 누구와 가장 비슷하니?”로 묻기
7. [Q#-1 or Q#-2] 문항은 ‘큰 원’ → ‘작은 원’의 순으로 진행
8. 원을 가리키며 [00이는~]으로 아이를 지칭하며 질문하기
9. 만일 아이가 두 원의 중간을 가리키면, 다음과 같이 추가 질문.
“그래, 두 가지 모두 느낄 수 있지만, 이 중에서 00가 가장 많은 시간 느끼는 걸로 하나만 고른다면, 어떤 것을 고르겠니?”
10. 아동이 어머니와 함께 살지 않는 경우, ‘아버지’ 또는 ‘할머니’ 등의 주 양육자로 대체하여 질문할 수 있음.

■ 자아존중감 문항

“00는 누구와 가장 비슷하니?”

문항	질문	①	②
EQ	① 이 아이는 슬퍼하고, ② 이 아이는 행복해 해.	(大) 항상 슬프니 (小) 슬픈 편이니?	(大) 항상 행복하니? (小) 행복한 편이니?
1	① 이 아이는 퍼즐을 잘 못 맞추고, ② 이 아이는 퍼즐을 잘 맞출 수 있어.	(大) 많이 맞추지 못하니? (小) 조금 맞추지 못하니?	(大) 아주 잘 맞추니? (小) 잘 맞추는 편이니?
2	① 이 아이는 친구가 많지 않고, ② 이 아이는 친구가 많아.	(大) 친구가 거의 없니? (小) 조금 있니?	(大) 친구가 아주 많니? (小) 꽤 많은 편이니?
3	① 이 아이는 그네를 혼자서도 잘 타고, ② 이 아이는 그네를 혼자서 잘 못타.	(大) 그네를 아주 잘 타니? (小) 잘 타는 편이니?	(大) 그네를 많이 못 타니? (小) 조금 못 타니?
4	① 이 아이의 엄마는 아이를 보고 많이 웃으시고, ② 이 아이의 엄마는 아이를 보고 많이 웃지 않으셔.	(大) 엄마는 너를 보고 아주 많이 웃으시니? (小) 자주 웃으시는 편이니?	(大) 엄마는 너를 보고 거의 웃지 않으시니? (小) 가끔 웃지 않으시니?
5	① 이 아이는 칭찬 스티커(도장)를 많이 받지 않고, ② 이 아이는 칭찬 스티커(도장)를 많이 받는 편이야.	(大) 칭찬스티커(도장)를 받은 적이 없니? (小) 가끔씩 받니?	(大) 칭찬스티커(도장)를 항상 받니? (小) 자주 받는 편이니?
6A	① 이 아이는 친구 집에 가서 자고 오고, ② 이 아이는 친구 집에 가서 거의 자고 오지 않아.	(大) 친구 집에 가서 아주 많이 자고 오니? (小) 가끔 자고 오니?	(大) 친구 집에 가서 자고 온 적이 한번도 없니? (小) 거의 자고 온 적이 없니?
6B	① 이 아이는 친구 집에 가서 자주 놀다오고, ② 이 아이는 친구 집에 가서 거의 놀다 오지 않아.	(大) 친구 집에 가서 아주 많이 놀다 오니? (小) 가끔 놀다 오니?	(大) 친구 집에 가서 놀다 온 적이 한번도 없니? (小) 거의 놀다온 적이 없니?
7	① 이 아이는 나무나 놀이기구에 잘 올라가지 못하고, ② 이 아이는 나무나 놀이기구에 잘 올라가.	(大) 나무나 놀이기구에 많이 못 올라가니? (小) 조금 못 올라가니?	(大) 나무나 놀이기구에 아주 잘 올라가니? (小) 잘 올라가는 편이니?
8	① 이 아이의 엄마는 아이가 좋아하는 곳에 많이 데리고 가지 않고, ② 이 아이의 엄마는 많이 데려가 주셔.	(大) 엄마는 너를 좋은 곳에 데려가지 않니? (小) 조금 데려가니?	(大) 엄마는 너를 좋은 곳에 아주 많이 데려가니? (小) 자주 데려가는 편이니?
9	① 이 아이는 꽤 많은 색깔의 이름을 알고, ② 이 아이는 색깔의 이름을 많이 몰라.	(大) 색깔 이름을 아주 많이 아니? (小) 많이 아는 편이니?	(大) 색깔 이름을 거의 모르니? (小) 조금 모르니?
10	① 이 아이는 같이 놀 친구들이 많지 않고, ② 이 아이는 같이 놀 친구들이 많아.	(大) 같이 놀 친구들이 거의 없니? (小) 조금 있니?	(大) 같이 놀 친구들이 아주 많니? (小) 많은 편이니?
11	① 이 아이는 신발 끈을 잘 묶을 수 있고, ② 이 아이는 신발 끈 묶는 걸 잘 못해.	(大) 아주 잘 묶니? (小) 잘 묶는 편이니?	(大) 전혀 묶지 못하니? (小) 잘 묶지 못하니?

문항	질문	①	②
12	① 이 아이의 엄마는 좋아하는 음식을 조금 해 주시고. ② 이 아이의 엄마는 좋아하는 음식을 많이 해 주셔.	(大) 00이 엄마는 좋아하는 음식을 거의 안 해주시니? (小) 가끔 해주시니?	(大) 00이 엄마는 좋아하는 음식을 항상 해주시니? (小) 자주 해주시는 편이니?
13	① 이 아이는 숫자를 아주 잘 세고, ② 이 아이는 숫자를 잘 못 세.	(大) 숫자를 아주 잘 세니? (小) 잘 세는 편이니?	(大) 숫자를 아주 못 세니? (小) 조금 못 세니?
14	① 이 아이는 놀이터에서 같이 노는 친구가 많고, ② 이 아이는 놀이터에서 같이 노는 친구가 많이 없어.	(大) 놀이터에서 같이 놀 친구가 아주 많니? (小) 많이 있는 편이니?	(大) 놀이터에서 같이 놀 친구가 거의 없니? (小) 조금 있니?
15	① 이 아이는 강충강충 뛰기를 아주 잘 못하고, ② 이 아이는 강충강충 뛰기를 아주 잘 해.	(大) 강충강충 뛰기를 아주 못 하니? (小) 조금 못하니?	(大) 강충강충 뛰기를 아주 잘 하니? (小) 잘하는 편이니?
16	① 이 아이의 엄마는 책을 많이 읽어주고, ② 이 아이의 엄마는 책을 조금 읽어주셔.	(大) 00의 엄마는 아주 많이 읽어주시니? (小) 자주 읽어주시는 편이니?	(大) 00의 엄마는 읽어준 적이 없니? (小) 가끔씩 읽어주시니?
17	① 이 아이는 글자 가나다...를 잘 말할 수 있고, ② 이 아이는 글자 가나다...를 잘 말할 수 없어.	(大) 가나다...를 아주 잘하니? (小) 잘 하는 편이니?	(大) 가나다...를 많이 못하니? (小) 조금 못하니?
18	① 이 아이는 친구들이 같이 놀자고 하지 않아서 때때로 혼자 있어. ② 이 아이는 친구들이 이 아이에게 같이 놀자고 해.	(大) 거의 같이 놀자고 안하니? (小) 가끔은 같이 놀자고 하니?	(大) 항상 같이 놀자고 하니? (小) 자주 같이 놀자고 하는 편이니?
19	① 이 아이는 아주 빠르게 달릴 수 있고, ② 이 아이는 아주 빠르게 달리지 못 해.	(大) 정말 빨리 달릴 수 있니? (小) 빠르게 달리는 편이니?	(大) 달리기를 아주 빠르게 못 하니? (小) 조금은 빠르게 하니?
20	① 이 아이는 이 아이의 엄마는 이 아이와 조금 놀아주시고, ② 이 아이는 이 아이의 엄마는 많이 놀아주셔.	(大) 00의 엄마는 거의 놀아준 적이 없니? (小) 가끔 놀아주시니?	(大) 00의 엄마는 아주 많이 놀아주시니? (小) 많이 놀아주시는 편이니?
21	① 이 아이는 자기 이름의 첫 글자를 기억하는 것이 힘들고, ② 이 아이는 자기 이름의 첫 글자를 알아.	(大) 00의 이름을 전혀 모르니? (小) 잘 알지 못하니?	(大) 00의 이름을 아주 잘 아니? (小) 꽤 아는 편이니?
22	① 이 아이는 보통 친구 집에서 밥을 먹고, ② 이 아이는 보통 친구 집에서 밥을 먹지 않아.	(大) 친구 집에서 밥을 자주 먹니? (小) 자주 먹는 편이니?	(大) 친구 집에서 밥을 전혀 먹지 않니? (小) 가끔 밥을 먹은 적이 있니?
23	① 이 아이는 한 발로 뛰는 것이 힘들고, ② 이 아이는 한 발로 뛰기를 아주 잘 해.	(大) 한 발로 뛰기를 전혀 못하니? (小) 잘 못하니?	(大) 한 발로 뛰기를 아주 잘하니? (小) 잘 하는 편이니?
24	① 이 아이의 엄마는 이 아이와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고, ② 이 아이의 엄마는 이야기를 조금 나누셔.	(大) 00의 엄마는 00와 이야기를 아주 많이 하니? (小) 많이 하시는 편이니?	(大) 00의 엄마는 00와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니? (小) 가끔 하시니?

Ⅲ

유아 행복감 조사

※ 보호자의 도움 없이 아동과 조사를 진행

1. 아동이 응답을 변경하였을 때는 되돌아가서 수정할 수 있도록 구현
2. 각 문항은 1개 하위 문항이 포함되며, [HQ#] 문항 응답 후 다음 화면에서 [HQ#-1 or HQ#-2] 문항이 구현됨.
3. [00이는~]이라고 패널 아동을 지칭하며 그림을 아이가 볼 수 있도록 가리키며 설명하는 질문의 문항을 읽어주기

지금부터 선생님이 몇 개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물어볼거야.

선생님이 보여주는 그림을 보면서 ○○(이)가 생각하기에 가장 ○○이 같다고 생각하는 걸 말해주면 돼.

문항	질문	①	②
1	①번 → ②번 ① 00이 생각에 00이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야? ② 아니면 행복한 사람이야?	그럼 얼마만큼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럼 얼마만큼 행복한 것 같아?
2	①번 → ②번 ① 00이 생각에 00이는 친구들보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 같아? ② 아니면 친구들보다 행복한 사람 같아?	그럼 얼마만큼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럼 얼마만큼 행복한 것 같아?
3	②번 → ①번 ②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일을 겪던 간에 대체로 행복하대. 00이도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행복하니? ① 아니면 그렇지 않니?	그럼 얼마만큼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럼 얼마만큼 행복한 것 같아?
4	①번 → ②번 ①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힘들거나 슬픈 일이 없더라도 별로 행복하지 않다. 00이도 행복하지 않니? ② 아니면 그렇지 않고 행복하니?	그럼 얼마만큼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럼 얼마만큼 행복한 것 같아?

다. 아버지 대상 질문지

ID

--	--	--	--	--	--



한국아동패널 2014 아버지대상 질문지

※ 본 조사의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 및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질문지는 2008년 4~7월 사이에 출생하여 한국아동패널 조사에 참여한
아이와 가족에 관한 것으로, 아이의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는 질문지입니다.
본 질문지의 응답은 다른 가족의 도움 없이 아버지께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별, 이혼 등의 이유로 식구 중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경우,

본 질문지 대신 어머니용 질문지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 응답하는 데에는 약 20분가량 소요됩니다.

질문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주관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33 안국빌딩 7층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연구팀
Tel 02) 398-7739, 7790, Fax 02) 730-3317
e-mail: panel@kicce.re.kr

<조사수행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45-3
(주)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한국아동패널』조사팀
Tel 02) 3488-2783, Fax 02) 598-7652

아동 이름	
질문지 작성자 이름	
질문지 작성일	_____월 _____일
조사 방법 (조사원 기입 사항)	① 유치조사(조사원 수거) ② 우편 조사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다음은 자녀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1. 일반적으로 자녀는 몇 명을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무자녀

② 1명

③ 2명

④ 3명

⑤ 4명

⑥ 5명 이상

⑦ 잘 모르겠음

1-1. 딸·아들 구분해서 입니까? 구분 없이 입니까?

① 딸·아들 구분 없이

② 딸·아들 구분해서 (딸 _____ 명, 아들 _____ 명)

③ 딸·아들 구분 없이 동성으로

④ 잘 모르겠음

다음은 귀하의 자녀(패널 아동)를 양육하는 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2. 다음은 ○○(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감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별로 귀하의 평소 느낌이나 생각과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는 보기를 선택해주시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나의 행동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내가 아이를 돌보는데 있어 유능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아이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아이가 현재 보이고 있는 수준이 그 나이에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짜증이 난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아이를 가르치고 이끌어 주려고 해도, 아이가 내 뜻대로 잘 따라오지 않아 좌절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6)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을 것 같아 걱정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이 좋은 부모역할을 배울 수 있는 관찰은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아이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잘 다룬다.	①	②	③	④	⑤
9) 아이가 나를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자신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10) 부모로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아이가 잘못했을 때, 아이 자신이 잘못된 점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잘 설명하고 지도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잘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의 주된 관심은 자녀양육이 아닌 다른 분야에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내가 부모가 되는 것에 조금이라도 더 흥미나 관심이 있다면, 나는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부모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5) 좋은 부모가 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부모로서 나는 긴장하고 있으며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다음은 ○○(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어려움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별로 귀하의 평소 느낌이나 생각과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는 보기를 선택해주시요.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부모 역할을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아이를 더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 어렵게 여겨진다.	①	②	③	④	⑤
6) 요즘은 육아정보가 너무 다양하여 어떤 것을 선택해야할지 혼란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7) 아이가 태어난 후 예전만큼 나의 생활이 즐겁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8) 양육비용이 부담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9)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내 탓인 것 같아 괴롭다.	①	②	③	④	⑤
10) 피곤할 때 아이가 놀아달라고 보채면 귀찮은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11) 모임에 가면서도 아이 때문에 그리 즐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다음은 ○○(이)에 대한 귀하의 양육 행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별로 귀하의 평소 행동과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는 보기를 선택해주시요.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이와 친밀한 시간을 갖는다.	①	②	③	④	⑤
2)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아이와 이야기해주고 놀아준다.	①	②	③	④	⑤
4) 가족규칙을 아이와 함께 결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아이가 물으면 잘 설명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아이의 행동이나 아이가 성취한 일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7) 아이가 어려도 엄격하게 예절을 가르친다.	①	②	③	④	⑤
8) 아이가 잘못 했을 때는 반드시 벌을 주고 반성하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아이가 내 말에 순종하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지켜야 할 규칙, 규율을 세우고 아이가 지키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가정교육을 위해 아이의 행동을 제한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아이가 짜증내는 것을 받아주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5. **지난 몇 주**간을 생각하시면서 아래의 질문을 읽고 **얼마나 자주(많이) 그러한지** 해당하는 보기를 선택해주시시오.

나는 나와 아내, 아이가 함께 있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	-	-	보통 이다	-	-	매우 그렇다
1) 아이에게 신체적인 애정표현(안아주기, 만지기, 뽀뽀하기)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아내에게 신체적인 애정표현(안아주기, 만지기, 뽀뽀하기)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아내에게 아이에 대한 칭찬이나 긍정적인 말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아이에게 아내에 대한 칭찬이나 긍정적인 말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아내와 아이가 다정하고 즐거운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말이나 행동으로 도와준다. 예) 엄마한테도 보여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아이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훈육할 때 아내보다는 내가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아이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훈육해야 할 때 아내가 하도록 요청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아내가 아이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훈육할 때, 나서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아내가 아이를 훈육할 때 처벌을 못하게 하거나 반대하거나, 아내의 훈육을 제한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아내와 이야기를 할 때 약간 긴장된 분위기가 조성되거나 빈정거리며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아내와 언쟁(말싸움)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는 아이와 있을 때... (아내는 그 자리에 없는 상황임)	전혀 그렇지 않다	-	-	보통 이다	-	-	매우 그렇다
12) 아이에게 부모에 대해 함께 짝을 지어 말하거나(엄마아빠가~), 하나의 가족단위(우리 가족이~)로 합쳐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아내가 없을 때, 아이가 아내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게 말을 한다. 예) 엄마는 너를 자랑스러워하신단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아내가 없는 상황에서 아내를 언급하거나 상황에 포함 시킨다. 예) 엄마 오시면 보여드리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아이가 아내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경험할 수 있을 이야기를 한다. 예) 그거 하면 엄마가 싫어할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6) 자녀에게 아내에 관한 나쁜 이야기나 아내를 폄하하는 이야기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가 ○○(이)와 아래의 활동을 얼마나 하는지 해당하는 보기를 선택해주시시오.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없음에 표시하면 됩니다.

문 항 내 용	배우자가 함	대부분 배우자가 함	똑같이 함	대부분 내가 함	내가 함	해당 없음
1) 아이를 목욕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아이를 어린이집, 유치원, 보모에게 데려다 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간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아이에게 장난감을 사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아이의 점심 도시락을 준비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6) 아이의 옷을 입혀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7) 아이를 돌보기 위해 밤에 일어난다.	①	②	③	④	⑤	⑥
8) 아이와 함께 놀아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9) 아이가 잠자리에 들 때 돌봐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10) 어린이집, 유치원, 보모와의 일정을 계획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11) 아이에게 책을 읽어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12) 아이에게 옷을 사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13) 아이의 아침식사를 차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14) 아이를 데리고 놀러 나간다.	①	②	③	④	⑤	⑥
15) 아이의 친구가 집에 와서 놀 때 지켜본다.	①	②	③	④	⑤	⑥
16) 아이가 친구들과 놀 수 있도록 배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7. 여성의 취업과 자녀양육에 관한 문항입니다. 다음의 각 문장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를 선택해주시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무래도 자녀가 어릴 때(학령 전)는 어머니가 집에 있으면서 아이를 돌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②	③	④
2)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여성 본연의 모습은 가정에서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3) 취업을 한 어머니도 전업 주부 어머니만큼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여성이 취업할 경우 남성과 여성은 가사와 양육에 대해 동등한 정도의 책임을 나누어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5) 아버지도 전업 주부 어머니만큼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	①	②	③	④
6) 여성이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남성과 여성은 가사와 양육에 대해 동등한 정도의 책임을 나누어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다음은 귀 부부에 대한 평소 느낌이나 생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8. 다음 내용을 읽고 **문항별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해당되는 보기를 선택해주시요.

문 항 내 용	전혀 만족하지 않다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조금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1) 귀하는 배우자로서의 아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2) 귀하는 결혼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3) 귀하는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4) 귀하는 아이의 어머니로서의 아내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9. 다음은 부부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각 문항별로 **귀 부부가 해당하는** 보기를 선택해주시요.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사소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변해 서로 욕설하고 비난하며, 과거의 잘못을 다시 들추면서 싸운다.	①	②	③	④	⑤
2) 아내는 내 생각이나 기분,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비난하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 아내는 내 생각과 말을 내가 의도한 것보다도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아내는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5) 내 진짜 생각과 느낌 혹은 우리 관계에 대한 요구를 아내에게 말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6) 다른 사람과 사귀거나 결혼하면 어떨까 하고 심각하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지금 결혼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는 다투면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그 자리를 피해버린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귀하 자신에 대한 평소 느낌이나 생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10. 귀하는 **지난 30일 동안** 다음의 느낌을 얼마나 자주 느끼셨는지 해당하는 보기를 선택해주시요.

문 항 내 용	전혀 안느낌	별로 안느낌	중중 느낌	대체로 느낌	항상 느낌
1) 지난 30일 동안 불안하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2) 지난 30일 동안 무기력하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3) 지난 30일 동안 안절부절 못하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4) 지난 30일 동안 매사에 힘이 드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5) 지난 30일 동안 너무 슬퍼서 뭘 해도 기운이 나지 않으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6) 지난 30일 동안 자기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끼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11. 다음의 각 문항에 대하여 **얼마나 동의하시는지** 해당하는 보기를 선택해주시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3) 대체로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남들이 하는 만큼은 일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6)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대체로 나 자신에게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하고 바란다.	①	②	③	④	⑤
9) 가끔씩 내가 쓸모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0) 때때로 내가 무익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아래 문항을 읽고 **자신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생각하는 보기를 선택해주시시오.

항 목							
1) 전반적으로 나는 ...	① 아주 불행한 사람이다	②	③	④ 보통 이다	⑤	⑥	⑦ 아주 행복한 사람이다
2)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	① 매우 행복하지않 다	②	③	④ 보통 이다	⑤	⑥	⑦ 매우 행복하다
3) 어떤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아주 행복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개의치 않고 즐겁게 지 내는 편이다. 나는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③	④ 보통 이다	⑤	⑥	⑦ 매우 그렇다
4) 어떤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아주 불행하다. 특히 우울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게 보인다. 나는 ...	① 매우 그렇다	②	③	④ 보통 이다	⑤	⑥	⑦ 전혀 그렇지 않다

13. 아버지께서는 평소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습니까?

- ①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② 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③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다. ④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다음은 귀하의 남편과 자녀(패널 아동)에 대한 평소 느낌이나 생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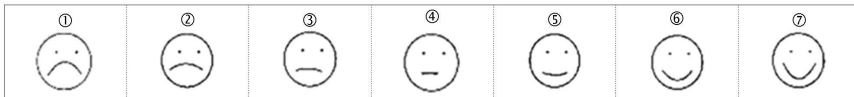
14. 귀하의 아내(아이의 어머니)는 평소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습니까?

- ①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 같다. ② 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 같다.
③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다. ④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다.

15. ○○(이)는 평소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습니까?

- ①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 같다. ② 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 같다.
③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다. ④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다.

16.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이)의 평소 모습(행복도)은 어떠합니까?



17. 다음은 ○○(이)의 전반적인 발달에 대한 질문입니다. 또래아동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인식하시는지 해당하는 보기를 선택해주시시오.

항 목	느림	다소 느림	양호함 (정상발달)	발달이 빠른 편	해당 없음 /모름
1) 신체발달 및 성장	①	②	③	④	⑤
2) 언어발달	①	②	③	④	⑤
3) 인지발달	①	②	③	④	⑤
4) 사회정서발달	①	②	③	④	⑤
5) 기관에서의 적응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귀하의 취업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23. 귀하는 현재 취업 중 이십니까?

- ① 취업 중(휴직 중 포함) ➡ 24번 문항으로
- ② 학업 중(휴학 중 포함) ➡ 25번 문항으로
- ③ 취업/학업 병행 중 ➡ 24번 문항으로
- ④ 아니요 ➡ 25번 문항으로

24. 귀하의 현재 직장, 직위는 2013년 조사 때와 동일합니까?

- ① 예 ➡ 25번 문항으로
- ② 아니요 ➡ 24-1번 문항으로
- ③ 2013년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음 ➡ 24-1번 문항으로

24-1. 귀하가 현재 일하시는 직장(사업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소속되어 있는 지점이나 공장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세요.

☒ 일반 회사인 경우 회사명과 지점명까지 / 교사인 경우 초등·중등·고등학교까지 / 공무원인 경우 중앙부처·시군구명·읍면동사무소까지

☒ 예: ○○전자 ○○공장 / ○○○초등학교 혹은 서울시청 / 프리랜서
직장(사업체) 명: ()

24-2. 귀하의 직장(사업체)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 직장명으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알 수 없는 중소기업체인 경우 제조업, 유통업, 서비스업 등의 업종 표기 요망
☒ 프리랜서의 경우 업무 장소를 기입

직장의 사업 내용(업종): ()

24-3. 귀하의 직장(사업체)에서 귀하가 주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 사무직인 경우 행정직·전산직·기술직 / 음식점인 경우 한식조리·양식조리·서빙 등 / 교사인 경우 영어·수학 등 과목명 기입

주로 하는 일: ()

24-4. 귀하의 직장(사업체)에서 귀하의 직위는 무엇입니까?

☒ 프리랜서 / 공무원의 경우 급수 / 회사원의 경우 평사원·대리·과장·부장 등의 직위 / 음식점의 경우 사장·매니저·일반직원 등

직장(사업체) 내 직위: ()

24-5. 귀하의 현재 종사상 지위는 어떻습니까?

☒ 무급 가족 종사자: 혈연관계인 가족이 운영하는 개인 사업체에 정규적인 보수 없이 적어도 주당 18시간 이상을 일하는 경우

- ① 상용직(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이나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경우)
- ② 임시직(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
- ③ 일용직(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기간 또는 일당제 급여)
- ④ 종업원을 둔 고용주
- ⑤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 ⑥ 무급 가족 종사자

다음은 육아정책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25. 다음은 근로 장소에서 실시하는 대표적인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방식입니다. 각각의 필요 정도에 대하여 해당하는 보기를 선택해주시요.

구 분	매우 불필요	대체로 불필요	보통	대체로 필요	매우 필요
1) 남성의 출산휴가	①	②	③	④	⑤
2) 남성의 육아휴직	①	②	③	④	⑤
3) 여성의 출산휴가	①	②	③	④	⑤
4) 여성의 육아휴직	①	②	③	④	⑤
5) 직장 어린이집	①	②	③	④	⑤
6) 보육비 지원	①	②	③	④	⑤
7) 수유실 설치	①	②	③	④	⑤
8) 근무 중 수유시간 부여 또는 유급 수유시간	①	②	③	④	⑤
9) 시차 출근제	①	②	③	④	⑤
10) 대체인력풀 운영	①	②	③	④	⑤
1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②	③	④	⑤

- ※ 남성의 출산휴가: 배우자의 출산에 따라 남성에게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는 것(최초 3일은 유급)
- ※ 여성의 출산휴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는 것
- ※ 육아휴직: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가진 근로자가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함.
- ※ 유급수유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자 근로자가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 근무 중 수유시간을 부여 받는 것
- ※ 시차출근제: 근로자가 사정에 맞게 출퇴근 시간을 정하는 것. 탄력근무라고도 함 (근로기준법 제 52조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 ※ 대체인력풀 운영: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기관이 운영하는 제도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대신 최대 1년간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25-1. 앞의 11가지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방식 중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3가지를 순서대로 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26. 다음은 현재 시행 중인 **보육·교육에 대한 정책방안**입니다. 다음 질문을 읽고 해당하는 보기를 선택 해주십시오.

구 분	26-1.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26-2.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6-3. 귀하의 자녀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칩니까?	
	예 (들어본 적 있음)	아니오 (들어본 적 없음)	매우 불필요	대체로 불필요	보통	대체로 필요	매우 필요	예 (영향을 미침)	아니오 (영향을 미치지 않음)
1) 가정양육수당지원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2) 누리과정/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 가정양육수당지원

: 영유아 자녀를 기관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월 100,000~200,000원을 지급

※ 누리과정/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영유아에게 공통의 교육·보육 과정을 제공. 해당기관에 보육·교육비용 (만3-5세의 경우 월 220,000원)을 부모가 바우처 카드로 결제함.

♣ 빠진 문항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소중한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라. 어머니 대상 질문지

ID

--	--	--	--	--	--



한국아동패널 2014 어머니대상 질문지

※ 본 조사의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 및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질문지는 2008년 4~7월 사이에 출생하여 한국아동패널 조사에 참여한
아이와 가족에 관한 것으로, 아이의 어머니께서 응답하시는 질문지입니다.

사별, 이혼 등의 이유로 식구 중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경우,

아버지 또는 그 외 대상 아이를 주로 돌보시는 주 양육자께서 응답하셔도 무방합니다.
단, 주 양육자는 아이와 친인척관계인 분만 포함됩니다.

본 질문에 응답하는 데에는 **약 20분가량** 소요됩니다.

질문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주관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33 안국빌딩 7층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연구팀
Tel 02) 398-7739, 7790, Fax 02) 730-3317
e-mail: panel@kicce.re.kr

<조사수행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45-3
(주)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한국아동패널』조사팀
Tel 02) 3488-2783, Fax 02) 598-7652

아동 이름	
질문지 작성자 이름	
질문지 작성일	_____월 _____일
조사 방법 (조사원 기입 사항)	① 유치조사(조사원 수거) ② 우편 조사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1. 귀하는 조사 대상 아이(이하 ○○)의 어머니입니까?

- ① 예 ➡ 2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 1-1번 문항으로

1-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 ② 여

1-2. 귀하는 ○○(이)와 어떤 관계입니까?

- ① 아버지 ➡ 3번 문항으로
 ② 할아버지.할머니 ③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④ 기타 친인척 ⑤ 기타

➡ 4번 문항으로

다음은 임신과 출산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2. 현재 자녀 외에 앞으로 자녀를 더 낳으실 계획입니까?

- ① 임신 중 ➡ 2-1번 문항으로
 ② 낳겠음 ➡ 2-1번 문항으로
 ③ 낳지 않겠음 ➡ 2-3번 문항으로
 ④ 잘 모르겠음 ➡ 2-3번 문항으로

2-1. 더 낳으실 계획인 경우, 현재 자녀 외에 앞으로 몇 명을 더 계획하고 계십니까?

☒ 현재 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이상

2-2. 다음 자녀는 언제쯤 출산할 계획입니까?

- ① 1년 이내(또는 현재 임신 중) ② 1년~2년 이내 ③ 2년~3년 이내
 ④ 3년 이후 ⑤ 미정(또는 잘 모르겠음) ⑥ 기타

➡ 3번 문항으로

2-3. 더 낳지 않으실 계획인 경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보기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자녀 양육비용 때문에(아이 관련 생필품, 육아 도우미 비용 등)
 ② 자녀 교육비용 때문에(유치원/어린이집/학교 등의 기관이용비용, 그 외 학원 등의 사교육비용 등)
 ③ 직장/학업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들어서
 ④ 개인시간/여가 또는 자아성취를 위하여
 ⑤ 이미 계획한 수만큼의 아이를 낳아서
 ⑥ 나이가 많아서
 ⑦ 육체적으로 힘들어서(출산 및 양육 등)
 ⑧ 믿을 만한 양육자 또는 육아지원기관이 없어서
 ⑨ 기타 _____

3. 일반적으로 자녀는 몇 명을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무자녀

② 1명

⇒

③ 2명

⇒

④ 3명

⇒

⑤ 4명

⇒

⑥ 5명 이상

⇒

⑦ 잘 모르겠음

3-1. 딸·아들 구분해서 입니까? 구분 없이 입니까?

① 딸·아들 구분 없이

② 딸·아들 구분해서 (딸 _____ 명, 아들 _____ 명)

③ 딸·아들 구분 없이 동성으로

④ 잘 모르겠음

다음은 귀하의 자녀(때닐 아동)를 양육하는 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4. 다음은 ○○(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감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별로 귀하의 평소 느낌이나 생각과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는 보기를 선택해주시요.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나의 행동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내가 아이를 돌보는데 있어 유능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아이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아이가 현재 보이고 있는 수준이 그 나이에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짜증이 난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아이를 가르치고 이끌어 주려고 해도, 아이가 내 뜻대로 잘 따라오지 않아 좌절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6)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을 것 같아 걱정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이 좋은 부모역할을 배울 수 있는 괜찮은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아이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잘 다룬다.	①	②	③	④	⑤
9) 아이가 나를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자신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10) 부모로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아이가 잘못했을 때, 아이 자신이 잘못된 점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잘 설명하고 지도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잘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의 주된 관심은 자녀양육이 아닌 다른 분야에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내가 부모가 되는 것에 조금이라도 더 흥미나 관심이 있다면, 나는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부모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5) 좋은 부모가 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부모로서 나는 긴장하고 있으며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5. 다음은 ○○(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어려움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별로 귀하의 평소 느낌이나 생각과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는 보기를 선택해주시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부모 역할을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아이를 더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 어렵게 여겨진다.	①	②	③	④	⑤
6) 요즘은 육아정보가 너무 다양하여 어떤 것을 선택해야할지 혼란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7) 아이가 태어난 후 예전만큼 나의 생활이 즐겁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8) 양육비용이 부담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9)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내 탓인 것 같아 괴롭다.	①	②	③	④	⑤
10) 피곤할 때 아이가 놀아달라고 보채면 귀찮은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11) 모임에 가면서도 아이 때문에 그리 즐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다음은 ○○(이)에 대한 귀하의 양육 행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별로 귀하의 평소 행동과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는 보기를 선택해주시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이와 친밀한 시간을 갖는다.	①	②	③	④	⑤
2)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아이와 이야기해주고 놀아준다.	①	②	③	④	⑤
4) 가족규칙을 아이와 함께 결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아이가 물으면 잘 설명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아이의 행동이나 아이가 성취한 일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7) 아이가 어려도 엄격하게 예절을 가르친다.	①	②	③	④	⑤
8) 아이가 잘못 했을 때는 반드시 벌을 주고 반성하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아이가 내 말에 순종하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지켜야 할 규칙, 규율을 세우고 아이가 지키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가정교육을 위해 아이의 행동을 제한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아이가 짜증내는 것을 받아주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7. **지난 몇 주**간을 생각하면서 아래의 질문을 읽고 **얼마나 자주(많이) 그러한지** 해당하는 보기를 선택해주시요.

나는 나와 남편, 아이가 함께 있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	-	-	보통 이다	-	-	매우 그렇다
1) 아이에게 신체적인 애정표현(안아주기, 만지기, 뽀뽀하기)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남편에게 신체적인 애정표현(안아주기, 만지기, 뽀뽀하기)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남편에게 아이에 대한 칭찬이나 긍정적인 말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아이에게 남편에 대한 칭찬이나 긍정적인 말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남편과 아이가 다정하고 즐거운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말이나 행동으로 도와준다. 예) 아빠랑 같이 놀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아이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훈육할 때 남편보다는 내가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아이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훈육해야 할 때 남편이 하도록 요청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남편이 아이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훈육할 때, 나서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남편이 아이를 훈육할 때 처벌을 못하게 하거나 반대하거나, 남편의 훈육을 제한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남편과 이야기를 할 때 약간 긴장된 분위기가 조성되거나 빈정거리며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남편과 언쟁(말싸움)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는 아이와 있을 때... (남편은 그 자리에 없는 상황임)	전혀 그렇지 않다	-	-	보통 이다	-	-	매우 그렇다
12) 아이에게 부모에 대해 함께 짝을 지어 말하거나(엄마아빠가~), 하나의 가족단위(우리 가족이~)로 합쳐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남편이 없을 때, 아이가 남편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게 말을 한다. 예) 아빠는 너를 사랑하신단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남편을 언급하거나 상황에 포함 시킨다. 예) 아빠가 곧 오실거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아이가 남편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경험할 수 있을 이야기를 한다. 예) 그거 하면 아빠한테 혼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6) 자녀에게 남편에 관한 나쁜 이야기나 남편을 폄하하는 이야기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가 ○○(이)와 아래의 활동을 얼마나 하는지 해당하는 보기를 선택해주시시오.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없음에 표시하면 됩니다.

문 항 내 용	배우자가 함	대부분 배우자가 함	똑같이 함	대부분 내가 함	내가 함	해당 없음
1) 아이를 목욕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아이를 어린이집, 유치원, 보모에게 데려다 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간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아이에게 장난감을 사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아이의 점심 도시락을 준비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6) 아이의 옷을 입혀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7) 아이를 돌보기 위해 밤에 일어난다.	①	②	③	④	⑤	⑥
8) 아이와 함께 놀아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9) 아이가 잠자리에 들 때 돌봐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10) 어린이집, 유치원, 보모와의 일정을 계획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11) 아이에게 책을 읽어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12) 아이에게 옷을 사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13) 아이의 아침식사를 차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14) 아이를 데리고 놀러 나간다.	①	②	③	④	⑤	⑥
15) 아이의 친구가 집에 와서 놀 때 지켜본다.	①	②	③	④	⑤	⑥
16) 아이가 친구들과 놀 수 있도록 배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9. 다음은 ○○(이)가 가족과 함께하는 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일주일동안 귀하 혹은 다른 가족
들이 아래의 각 문항에 대해 활동하시는 정도를 선택해주시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하지 않음	1~2번	3~6번	매일함
1) 아이에게 책을 읽어준다.	①	②	③	④
2)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준다.	①	②	③	④
3) 아이와 함께 노래를 부른다.	①	②	③	④
4) 아이가 미술이나 만들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5) 요리, 청소, 상차리기, 애완동물 돌보기와 같은 집안일을 아이와 함께한다.	①	②	③	④
6) 아이와 함께 퍼즐이나 게임을 한다.	①	②	③	④
7) 아이와 함께 자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거나, 과학 놀이를 한다.	①	②	③	④
8) 아이와 함께 조립용 완구를 가지고 논다.	①	②	③	④
9) 아이와 함께 스포츠 또는 운동을 한다.	①	②	③	④

10. **여성의 취업과 자녀양육에 관한 문항**입니다. 다음의 각 문장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를 선택해주시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무래도 자녀가 어릴 때(학령 전)는 어머니가 집에 있으면서 아이를 돌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②	③	④
2)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여성 본연의 모습은 가정에서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3) 취업을 한 어머니도 전업 주부 어머니만큼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여성이 취업할 경우 남성과 여성은 가사와 양육에 대해 동등한 정도의 책임을 나누어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5) 아버지도 전업 주부 어머니만큼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	①	②	③	④
6) 여성이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남성과 여성은 가사와 양육에 대해 동등한 정도의 책임을 나누어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다음은 귀 부부에 대한 평소 느낌이나 생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11. 다음 내용을 읽고 **문항별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해당되는 보기를 선택해주시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만족하지 않다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조금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1) 귀하는 배우자로서의 남편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2) 귀하는 결혼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3) 귀하는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4) 귀하는 아이의 아버지로서의 남편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12. 다음은 부부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각 문항별로 **귀 부부가 해당하는** 보기를 선택해주시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사소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변해 서로 욕설하고 비난하며, 과거의 잘못을 다시 들추면서 싸운다.	①	②	③	④	⑤
2) 남편은 내 생각이나 기분,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비난하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 남편은 내 생각과 말을 내가 의도한 것보다도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남편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5) 내 진짜 생각과 느낌 혹은 우리 관계에 대한 요구를 남편에게 말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6) 다른 사람과 사귀거나 결혼하면 어떨까 하고 심각하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지금 결혼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는 다투면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그 자리를 피해버린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귀하 자신에 대한 평소 느낌이나 생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13. 귀하는 **지난 30일 동안** 다음의 느낌을 얼마나 자주 느끼셨는지 해당하는 보기를 선택해주시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안느낌	별로 안느낌	중중 느낌	대체로 느낌	항상 느낌
1) 지난 30일 동안 불안하셨습니다?	①	②	③	④	⑤
2) 지난 30일 동안 무기력하셨습니다?	①	②	③	④	⑤
3) 지난 30일 동안 안절부절 못하셨습니다?	①	②	③	④	⑤
4) 지난 30일 동안 매사에 힘이 드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5) 지난 30일 동안 너무 슬퍼서 뭘 해도 기운이 나지 않으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6) 지난 30일 동안 자기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끼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14. 다음의 각 문항에 대하여 **얼마나 동의하시는지** 해당하는 보기를 선택해주시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3) 대체로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남들이 하는 만큼은 일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6)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대체로 나 자신에게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하고 바란다.	①	②	③	④	⑤
9) 가끔씩 내가 쓸모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0) 때때로 내가 무익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아래 문항을 읽고 **자신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생각하는 보기를 선택해주시시오.

항 목							
1) 전반적으로 나는 ...	① 아주 불행한 사람이다	②	③	④ 보통 이다	⑤	⑥	⑦ 아주 행복한 사람이다
2)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	① 매우 행복하지 않다	②	③	④ 보통 이다	⑤	⑥	⑦ 매우 행복하다
3) 어떤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아주 행복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개의치 않고 즐겁게 지 내는 편이다. 나는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③	④ 보통 이다	⑤	⑥	⑦ 매우 그렇다
4) 어떤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아주 불행하다. 특히 우울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게 보인다. 나는 ...	① 매우 그렇다	②	③	④ 보통 이다	⑤	⑥	⑦ 전혀 그렇지 않다

16. 어머니께서는 평소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습니까?

- ①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② 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③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다. ④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다음은 귀하의 남편과 자녀(패널 아동)에 대한 평소 느낌이나 생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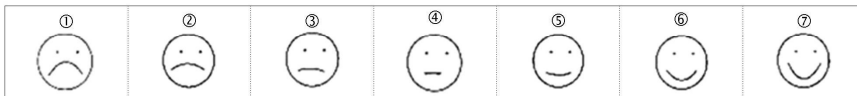
17. 귀하의 남편(아이의 아버지)은 평소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습니까?

- ①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 같다. ② 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 같다.
③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다. ④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다.

18. ○○(이)는 평소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습니까?

- ①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 같다. ② 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 같다.
③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다. ④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다.

19. 어머니께서 보시기에 ○○(이)의 평소 모습(행복도)은 어떠합니까?



20. 다음은 ○○(이)의 **전반적인 발달에 대한 질문**입니다. 또래아동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인식하시는지 해당하는 보기를 선택해주시시오.

항 목	느림	다소 느림	양호함 (정상발달)	발달이 빠른 편	해당 없음 /모름
1) 신체발달 및 성장	①	②	③	④	⑤
2) 언어발달	①	②	③	④	⑤
3) 인지발달	①	②	③	④	⑤
4) 사회정서발달	①	②	③	④	⑤
5) 기관에서의 적응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귀하께서 살고 계신 동네에 관한 질문입니다.

26. 귀하가 현재 거주하시는 동네는 주로 어떤 지역입니까?

- ① 주택지역 ② 아파트지역 ③ 상가·회사지역
④ 공장(단)지역 ⑤ 농산·어촌가지역 ⑥ 기타 _____

27.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시는 동네에 육아지원기관 및 사교육기관이 충분합니까?

문 항 내 용	매우 불충분함	불충분함	보통임	충분함	매우 충분함
1)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육아지원기관	①	②	③	④	⑤
2) 민간/사립 어린이집, 유치원 등 육아지원기관	①	②	③	④	⑤
3) 기타 기관이나 학원 등 사교육기관 (미술학원, 영어학원, 영어유치원, 놀이학교, 문화센터, 선교원 등 포함)	①	②	③	④	⑤

28. 다음은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시는 동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동을 위한 다음의 시설 이용이 편리합니까?

☒ 1개월 = 30일 기준

종류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월별 이용 일
1) 놀이터	①	②	③	④	⑤	1개월에 ()일 이용
2) 공원	①	②	③	④	⑤	1개월에 ()일 이용
3) 산책로	①	②	③	④	⑤	1개월에 ()일 이용
4) 박물관	①	②	③	④	⑤	1개월에 ()일 이용
5) 미술관	①	②	③	④	⑤	1개월에 ()일 이용
6) 공연시설(음악회, 연극 등)	①	②	③	④	⑤	1개월에 ()일 이용
7) 영화관	①	②	③	④	⑤	1개월에 ()일 이용
8) 장난감 대여센터	①	②	③	④	⑤	1개월에 ()일 이용
9) 도서관	①	②	③	④	⑤	1개월에 ()일 이용

29.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시는 동네는 치안 측면에서 자녀를 키우기에 안전합니까?

- ① 매우 위험 ② 비교적 위험 ③ 보통 ④ 비교적 안전 ⑤ 매우 안전

30.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시는 동네는 안전사고 측면(교통사고, 화재, 추락 등)에서 자녀를 키우기에 안전합니까?

- ① 매우 위험 ② 비교적 위험 ③ 보통 ④ 비교적 안전 ⑤ 매우 안전

다음은 ○○(이)가 다니는 유치원, 어린이집, 반일제 이상 학원 등의 기관에서의 부모참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가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는 질문을 종료해주시시오.

31. 지난 1년 간 귀하는 ○○(이)가 다니는 기관에 얼마나 자주 가보셨습니까? 평균 방문 횟수를 선택해주시시오. 단, 등·하원 시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것은 제외하고 응답해주시시오.

☑ 현재 다니는 곳의 이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이더라도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① 일주일에 1회 정도 | ② 일주일에 2-3회 정도 |
| ③ 한 달에 1회 정도 | ④ 한 달에 2-3회 정도 |
| ⑤ 6개월에 1-2회 정도 | ⑥ 6개월에 3-4회 정도 |
| ⑦ 연간 1-2회 정도 | ⑧ 거의 가지 않음 |

32. ○○(이)가 다니는 기관에서 지난 1년 간 이루어진 부모참여 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참여한 적 있음 ➡ 32-1번 문항으로 ② 참여한 적 없음 ➡ 33번 문항으로

32-1. 아래 보기 중 어머니가 직접 참석한 적이 있는 내용에 **모두** 응답해주시시오.

☑ 현재 다니는 곳의 이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이더라도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① 오리엔테이션 | ② 아동 행사(운동회, 재롱잔치 등) |
| ③ 자원봉사(급식준비, 야외활동, 수업보조, 청소 등) | ④ 부모교육프로그램(강연회, 워크숍 등) |
| ⑤ 담임 상담 | ⑥ 가정통신에 대한 답장 |
| ⑦ 재정적 기여(전체 간식 제공, 바자회 지원 등) | ⑧ 운영위원회 |

33. ○○(이)는 주로 다니는 기관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 | | | |
|--------------|--------------|-------|
| ① 전혀 좋아하지 않음 | ② 별로 좋아하지 않음 | ③ 보통임 |
| ④ 대체로 좋아함 | ⑤ 아주 좋아함 | |

34. 어머니는 ○○(이)가 주로 다니는 기관을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 | | | |
|--------------|--------------|-------|
| ① 전혀 좋아하지 않음 | ② 별로 좋아하지 않음 | ③ 보통임 |
| ④ 대체로 좋아함 | ⑤ 아주 좋아함 | |

35. ○○(이)는 주로 다니는 기관의 선생님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 | | | |
|--------------|--------------|-------|
| ① 전혀 좋아하지 않음 | ② 별로 좋아하지 않음 | ③ 보통임 |
| ④ 대체로 좋아함 | ⑤ 아주 좋아함 | |

36. 어머니는 ○○(이)가 주로 다니는 기관의 선생님을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 | | | |
|--------------|--------------|-------|
| ① 전혀 좋아하지 않음 | ② 별로 좋아하지 않음 | ③ 보통임 |
| ④ 대체로 좋아함 | ⑤ 아주 좋아함 | |

37. 어머니는 ○○(이)가 다니는 기관을 보내며 받는 지원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 | | |
|-----------|------------|-------|
| ① 매우 불만족함 | ② 비교적 불만족함 | ③ 보통임 |
| ④ 비교적 만족함 | ⑤ 매우 만족함 | |

♣ 빠진 문항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소중한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마. 아동행동발달 질문지

ID



한국아동패널 2014 아동행동발달 질문지

※ 본 조사의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 및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질문지는 한국아동패널 조사에 참여한 아이의 행동발달에 대한 질문으로
아이와 함께 생활하는 부모님(아이를 돌봐주시는 주 양육자 포함)이 응답하는 질문지입니다.
단, 주 양육자는 아이와 친인척관계인 분만 포함됩니다.

질문지 응답에는 **약 20분가량** 소요되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주관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33 안국빌딩 7층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연구팀
Tel 02) 398-7739, 7790, Fax 02) 730-3317
e-mail: panel@kicce.re.kr

<조사수행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45-3
(주)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한국아동패널』조사팀
Tel 02) 3488-2783, Fax 02) 598-7652

아동 이름	
아동과의 관계	① 어머니 ② 아버지 ③ 기타 _____
질문지 작성자 이름	
질문지 작성일	2014년 _____월 _____일

아동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보호자가 응답할 수 있도록 안내.
응답자에게 평소 아동의 행동발달에 대한 내용임을 안내하고, 지침에
포함된 유의사항 등을 전달 후 응답할 수 있도록 함.

1. 다음 문항을 읽고 여러분 자녀의 **평소 모습에 기초하여** 해당되는 보기를 선택해주시시오.

응답범주					
① 아직 하지 않음	② 하기 시작함	③ 어느 정도 해냄	④ 잘하는 편임	⑤ 능숙함	⑥ 해당 없음
아직 하지 않음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일관적이지 않음	다소 규칙적으로 할 수 있지만 때에 따라 다름	규칙적이고 평균 수준으로 할 수 있지만 완벽하지는 않음	완벽하고 일관성 있게 할 수 있음	그 상황을 보거나 다른 적이 없음

문항내용	아직 하지 않음	하기 시작함	어느 정도 해냄	잘하는 편임	능숙함	해당 없음
1) 몇 가지 행동의 연결된 지시를 따를 수 있다. 예) 이 크레파스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자. 그리고 크레파스는 노란색 통에 정리하고, 그린 그림은 아빠에게 보여주자	①	②	③	④	⑤	⑥
2) 다소 복잡한 문장 구조를 사용한다. 예) '○○가 우산을 가져왔더라면, 비를 맞지 않았을텐데', '우리 1학년 올라가자마자 현장학습 갈 수 있겠지?'와 같은 말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누군가 읽어준 글이나 이야기를 이해하고 해석한다. 예) 들려준 이야기를 다시 말하거나, 이야기가 왜 그렇게 끝났는지 설명하거나, 이야기의 일부를 자신의 상황과 연결 지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한글의 모든 자음과 모음을 쉽고 빠르게 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음조가 비슷한 단어(운율 맞추기)를 만들 수 있다. 예) '리'자로 끝나는 말(개나리, 오리, 유리, 향아리)을 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6) 읽기 활동을 자주 선택하며 어려워하지 않는다. 예) 친숙한 책을 반복해서 읽거나, 교실에서의 책읽기 활동을 자주 선택하거나, 도서관에 가자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7) 줄거리의 단서나 그림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 것인지 예측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8) 간단한 책을 스스로 읽는다. 예) 언어의 패턴이 반복되는 책을 읽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9) 초기 쓰기 행동을 나타낸다. 예) 단어를 적기 위해 서두의 자음을 사용하거나(과자→ㄱ), 소리를 표현하기 위해 철자를 그대로 적거나(미음→ㄹ), 말과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 발음 나는 대로 적는다(닭→ㄷ, 갔다→가따).	①	②	③	④	⑤	⑥
10) '엄마', '아빠', '너', '안녕'과 같은 비교적 간단한 단어를 기억해서 쓴다.	①	②	③	④	⑤	⑥
10-1) '대한민국', '좋아 한다', '웃는다'와 같은 비교적 복잡한 단어를 기억해서 쓴다.	①	②	③	④	⑤	⑥
11) 쓰기 규칙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예) 단어 간 띄어쓰기를 하고 문장 끝에 마침표를 찍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12) 쓰기 관련 활동을 자주 선택하며 어려워하지 않는다. 예) 자유선택활동시간에 쓰기 활동을 자주 선택하거나, 활동 및 놀이를 위해 기호를 표시하거나 메모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13) 컴퓨터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한다. 예) 그림을 그리거나, 물건을 세거나, 숫자, 글자, 단어를 타이핑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14) 동작, 사물, 단어의 패턴을 만들거나 모방하거나 확장할 수 있다. 예) 구슬, 블록, 몸동작의 패턴을 만들거나(예: ○○☆○○☆) '40, 50, 60, 70...'과 같이 배수의 패턴을 확장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문항내용	아직 하지 않음	하기 시작함	어느 정도 해냄	잘하는 편임	능숙함	해당 없음
15) 다양한 규칙이나 특징에 근거하여 수학적 자료를 나열하고, 분류하고, 비교한다. 예) 열쇠를 분류할 때 나름대로의 규칙을 만들어 '숫자가 있는 열쇠'와 '숫자가 없는 열쇠'로 분류하거나, '커다란 플라스틱 모양'과 '작은 나무 모양'과 같이 다양한 특징에 따라 모양을 분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16) 어떠한 대상에 순서를 부여한다. 예) 길이에 따라 막대를 순서 짓거나, 밝고 어두운 정도에 따라 물감을 배열하거나, 부드러운 소리부터 강한 소리까지의 악기를 배열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17) 사물을 셀 때 양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며 일대일 대응의 개념을 활용한다(물건의 수를 하나씩 센다). 예) 10개 이상의 나무 블록을 셀 때 각각의 블록을 한 번씩만 집어가며 수를 센다(어떠한 블록도 두 번 세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18) 수량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예) 10개의 작은 돌멩이와 10개의 큰 블록의 갯수가 같음을 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9) 쓰여 있는 숫자와 실제 사물을 연결한다. 예) 8개의 정육면체와 숫자 8을 연결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20) 형태(모양)의 속성을 인식한다. 예) 삼각형이나 직사각형의 변의 수, 정사각형 모서리 수를 안다.	①	②	③	④	⑤	⑥
21) 실제 물건(막대기, 구슬 등)을 사용하여 수가 포함된 문제를 푼다. 예) '순이는 6개의 연필을 가지고 있고 철수는 3개를 가지고 있어. 둘이 합쳐서 몇 개를 가지고 있니?', 또는 '철수가 순이와 같은 양의 연필을 가지려면 내가 철수에게 몇 개를 주어야 하니?'와 같은 문제를 푼다.	①	②	③	④	⑤	⑥
22) 수 관련 활동을 자주 선택한다. 예) 자유선택활동시간에 수리 영역 활동을 자주 선택하거나, 작업 및 놀이를 할 때 숫자 세기, 셈하기, 패턴책 보기 등을 자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23) 동전이나 지폐의 가치를 구별할 수 있다. 예) 100원 동전, 500원 동전, 그리고 1000원 지폐를 안다.	①	②	③	④	⑤	⑥
24) 그래프 활동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예) '학교 가는 방법'이라는 그래프에서 '버스 이용'은 노란색, '자가용 이용'은 하얀색, '도보'는 파란색 사각형으로 표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25) 시간을 이해하는 것 같다. 예) 달력에서 어제, 오늘, 내일의 개념을 표시하거나, 계절의 순서를 말하거나, 개구리의 변화(일생)를 그림으로 그린다.	①	②	③	④	⑤	⑥
26)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도구를 사용한다. 예) 두 물건의 무게를 비교하기 위해 저울을 사용하거나, 요리 활동 시간에 티스푼을 사용하거나, 서로 다른 물건의 길이를 재기 위해 줄자를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27) 일상생활속의 수학 문제를 푼다. 예) 4개의 식탁에 앉아있는 친구들에게 24개의 컵케이크를 똑같이 나누어주는 방법을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28)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 다양한 전략들을 사용한다. 예) 조작 가능한 사물을 활용하거나, 반복되는 패턴을 찾아내거나, 문제 상황을 직접 해본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다음 문항을 읽고 여러분의 자녀의 **평소 행동에 기초하여** 해당되는 보기를 선택해주시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또래들과 어울릴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또래와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 적절한 문제 해결 기술을 사용한다. 예) 아이들이 미고름들을 서로 먼저 타려고 하는 상황에서 먼저 온 사람부터 줄을 서서 타자고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3) 양육자와 쉽게 떨어진다.	①	②	③	④
4) 감정의 변화를 적절하게 표현한다. 예) 화가 났지만 크게 소리 지르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5) 하루일과 변화에 잘 적응한다.	①	②	③	④
6) 교사 등 어른들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한다.	①	②	③	④
7) 간단한 규칙과 지시를 잘 따른다.	①	②	③	④
8) 스스로 선택한 활동을 15분 정도 지속한다.	①	②	③	④
9) 수업 활동에 열정적으로 흥미를 가지고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10)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11) 교사가 주도하는 집단 활동에 집중한다.	①	②	③	④
12) 언제/어떻게 어른을 자원으로 활용할지를 안다.	①	②	③	④
13) 교실 등의 상황에서 어떤 활동을 먼저 시작한다.	①	②	③	④
14) 호기심이 많다. 예) 질문하고, 탐색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	①	②	③	④
15) 욕구, 필요한 것, 생각들을 말로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16) 간단한 지시, 요청, 정보를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17) 대화에 참여한다(완전한 문장으로, 자신이 말하는 순서에).	①	②	③	④
18) 책의 내용을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19) 활동을 기억하고 사건의 순서를 설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20) 인쇄된 자신의 이름을 알아본다.	①	②	③	④
21)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연필, 크레파스, 붓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22) 상상놀이를 한다.	①	②	③	④

3. 다음은 **유아의 사회적 행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녀의 **평소 행동에 기초하여** 해당되는 보기를 선택 해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자주 그렇다
1) 부모의 지시에 따른다.	①	②	③
2) 시키지 않아도 집안일을 돕는다.	①	②	③
3) 부모에게 도움을 청하기 전에 스스로 집안일을 한다.	①	②	③
4) 친구나 형제에게 감사를 표현한다.	①	②	③

문항내용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자주 그렇다
5) 다른 사람으로 받은 부당한 요구를 공손히 거절한다.	①	②	③
6) 처음 만난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한다.	①	②	③
7) 집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시간을 보낸다.	①	②	③
8) 가족 구성원의 물건을 사용하기 전에 허락을 얻는다.	①	②	③
9) 다른 아이들이 자신을 때리거나 밀칠 때 적절하게 대응한다.	①	②	③
10) 자발적으로 가족구성원의 일을 돕는다.	①	②	③
11) 자신의 집에 다른 사람을 초대한다.	①	②	③
12)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상황은 피한다.	①	②	③
13) 다른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건넨다.	①	②	③
14) 지시가 없어도 자신의 방을 청소한다.	①	②	③
15) 제시간에 집안의 일을 마무리한다.	①	②	③
16) 부모와 갈등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잘 처리한다.	①	②	③
17) 다른 아이와 다룰 때, 감정을 잘 처리한다.	①	②	③
18) 문제가 생겼을 때 느낌이나 감정을 적절하게 나타낸다.	①	②	③
19) 다른 사람과 게임을 할 때 규칙을 지킨다.	①	②	③
20) 부모의 지시에 귀를 기울인다.	①	②	③
21) 다양한 사물에 흥미가 있음을 나타낸다.	①	②	③
22) 전화를 적절하게 받는다.	①	②	③
23) 친구를 쉽게 사귈다.	①	②	③
24) 장난감이나 집안 물건을 제자리에 둔다.	①	②	③
25) 게임이나 다른 활동에서 순서를 지킨다.	①	②	③
26) 가족구성원의 특별한 날을 축하한다.	①	②	③
27) 집단 모임에서 자신감을 보인다.	①	②	③
28) 집단 활동에 참여를 한다.	①	②	③
29) 부모와 차분하게 의견 차이를 타협한다.	①	②	③
30) 타인에게 인기가 있다.	①	②	③
31) 가게점원에게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요청한다.	①	②	③
32) 집에서 알맞은 음성높이로 말한다.	①	②	③

♣ 빠진 문항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소중한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바. 기관조사용 질문지



2014 기관용 질문지[Web]

※ 본 조사의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 및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취학 전 영유아를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한국아동패널」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신생아 시기부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전국 단위의 종단적 연구로,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질 높은 육아환경 설계를 위한 육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본 조사는「한국아동패널」연구에 참여한 아동과 기관에 관한 내용으로, **해당 아동 부모님의
동의하에** 현재 아이가 다니고 있는 **기관의 담임선생님이 응답하는** 질문입니다.

선생님 개인에 대한 정보는 절대로 노출되지 않으니, 선생님의 생각이나 의견을 솔직하게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에 응답하는 데에는 **약 20분가량** 소요됩니다.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주관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33 안국빌딩 7층
육아정책연구소「한국아동패널」연구팀
Tel 02) 398-7739, 7790, Fax 02) 730-3317
e-mail: panel@kicce.re.kr

<조사수행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45-3
(주)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한국아동패널」조사팀
Tel 02) 3488-2794, Fax 02) 598-7652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전 문항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다음은 기관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선생님이 현재 근무하시는 기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두 개 이상의 기관이 함께 운영되는 경우, 선생님께서 임용되신 기관으로 응답해 주세요.

① 유치원 ➡ **2-1번 문항으로**

② 어린이집 ➡ **2-2번 문항으로**

③ 반일제 이상 학원(영어유치원, 미술학원 등) ➡ **2-4번 문항으로**

❖ **컨택 리스트를 토대로 기관명, 기관연락처 추후 생성**

2-1. 현재 근무하고 계신 유치원의 설립유형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 **3-1번 문항으로**

① 국립 ② 공립(병설) ③ 공립(단설) ④ 사립 법인 ⑤ 사립 개인

2-2. 현재 근무하고 계신 어린이집의 설립유형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 **2-3번 문항으로**

① 국공립 ② 법인 ③ 직장 ④ 민간 ⑤ 가정 ⑥ 부모협동

2-3. 현재 근무하고 계신 어린이집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모두 응답해 주세요.

➡ **3-2번 문항으로**

① 일반 ② 영아 전담 ③ 장애아 전담 ④ 장애아 통합 ⑤ 시간 연장
⑥ 24시간 ⑦ 휴일 ⑧ 방과 후

2-4. 현재 근무하고 계신 학원의 설립유형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 **4번 문항으로**

① 영어 학원(영어 유치원) ② 놀이학교 ③ 미술학원 ④ 태권도 등의 체육 학원
⑤ 피아노 등의 음악 학원 ⑥ 기타 ()

3-1. 현재 근무하고 계신 유치원은 '2주기 유치원 평가(2011년-2013년)'를 받았습니까? ➡ **4번 문항으로**

※ 평가 여부를 모르실 경우, 유치원에 확인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① 평가 받음 ② 평가 받을 예정 ③ 평가 계획 없음

3-2. 현재 근무하고 계신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을 받았습니까?

※ 평가 여부를 모르실 경우, 어린이집에 확인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① 재인증 받음 ② 신규인증 받음 (인증 시기 _____년)
③ 심사중(신청 상태) ④ 인증 받지 않음(인증 준비 중, 통과 유보 포함)

▶ **범위(scroll bar): 2003~2014**

4. 현재 근무하고 계신 기관의 총 학급(반) 수와 재원 아동 수는 어떻게 됩니까?

1) 총 학급 수 ()개 2) 총 재원 아동 수 ()명

▶ **1) 범위: 1~50**

▶ **2) 범위: 5~999**

다음은 기관의 환경 및 프로그램에 관한 질문입니다.

5. 선생님이 담당하신 **학급의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5-1. 연령	① 단일연령반 ② 혼합연령반(만 ____세부터 만 ____세까지) ▶ ② 범위(scroll bar): 0~5
5-2. 학급 아동 수	남아 ()명, 여아 ()명 ▶ 남, 여 각각 0~40 ▶ 남, 여 모두 0으로 응답될 수 없음 ❖ 총 학급 인원 : 남아 + 여아 추후생성
5-3. 학급 교사 수	① 주담임 ()명 ② 부담임 ()명 ③ 보조 교사 ()명 ▶ 범위: Q5-3-①: 1~5, Q5-3-②: 0~5, Q5-3-③: 0~5 ▶ 주담임에는 '1' 그 외는 '0' Default → 클릭 시, 0 사라지고 입력되도록 구성 ❖ 교사 대 아동 비율 : (sumQ5-2) / (sumQ5-3) 추후생성

6. 선생님이 담당하신 학급의 **교실 환경**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해주시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교실 내의 공간은 유아의 연령과 흥미, 발달특성을 고려하여 배치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 교실 내의 자료는 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하다.	①	②	③	④	⑤
3) 교실 내에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돕기 위한 다양한 영역의 자료가 골고루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교실 내에 유아가 원할 때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의 자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선생님이 담당하신 **학급의 아동 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많다고 생각한다 ②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③ 적다고 생각한다

7-1. 선생님이 생각하는 적합한 교사 대 아동 비율은 어떻습니까?

☒ 교실 크기는 적합하다는 가정 하에 응답해 주십시오.

교사 1명 : 아동 ()명

▶ 범위: 1~50

8. 현재 아동 수에 비해 선생님 **교실의 크기(면적)**는 어떻습니까?

- ① 전혀 적합하지 않다 ② 별로 적합하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적합하다 ⑤ 매우 적합하다

9. 선생님 교실에는 아이가 휴식을 취할 공간이 있습니까?

- ① 없다 ② 있다

10. 현재 아동 수에 따라 기관의 화장실, 복도, 유희실 등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 ① 전혀 적합하지 않다 ② 별로 적합하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적합하다 ⑤ 매우 적합하다

11. 근무하시는 기관에는 실외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 ① 없다 ② 있다

12. 근무하시는 기관에는 실내에 대근육 활동이 가능한 공간이 있습니까?

- ① 없다 ② 있다

13. 다음은 ○○(이)가 기관에서 받고 있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각의 문항에 해당되는 보기를 선택해 주세요.

☒ 특별활동 프로그램 이용은 그에 대한 비용을 부모가 추가로 부담하거나 외부강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만 포함됨

☒ 실시하지 않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은 '0'으로 입력해 주세요.

①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없다 ➔ 14번 문항으로

②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있다 ➔ 13-1번 문항으로

특별활동 내용	13-1. ○○(이)가 이용하는 프로그램 수	13-2. ○○(이)가 이용하는 프로그램 횟수	13-3. ○○(이)가 이용하는 프로그램 시간
1) 미술(그림, 공작, 서예 등)	()개	일주일 총 ()회	일주일 총 ()분
2) 음악(피아노, 바이올린 등)	()개	일주일 총 ()회	일주일 총 ()분
3) 체육(발레, 수영, 태권도 등)	()개	일주일 총 ()회	일주일 총 ()분
4) 과학	()개	일주일 총 ()회	일주일 총 ()분
5) 수학(숫자, 산수, 주산 등)	()개	일주일 총 ()회	일주일 총 ()분
6) 국어(한글, 동화구연, 웅변 등)	()개	일주일 총 ()회	일주일 총 ()분
7) 컴퓨터	()개	일주일 총 ()회	일주일 총 ()분
8) 교구 이용프로그램(가베, 은물, 몬테소리, 레고 등)	()개	일주일 총 ()회	일주일 총 ()분
9) 한자	()개	일주일 총 ()회	일주일 총 ()분
10) 영어	()개	일주일 총 ()회	일주일 총 ()분
11) 기타 외국어(중국어 등)	()개	일주일 총 ()회	일주일 총 ()분
12) 통합프로그램	()개	일주일 총 ()회	일주일 총 ()분
13) 기타	()개	일주일 총 ()회	일주일 총 ()분

▶ Q13-1에 '1' 이상으로 응답된 경우만, Q13-2, Q13-3 구현

▶ Q13-1 범위(scroll): 0~7 / 전체 응답에 '0'이 될 수는 없음

▶ Q13-2 범위(scroll): 1~20 / '0' 불가

▶ Q13-3 범위(scroll): 10~300

다음은 선생님께서 담당하고 계신 ○○(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14. ○○(이)는 주로 어떤 방법으로 등·하원합니까?

1) 등원 ()

2) 하원 ()

- ① 도보 ②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등) ③ 기관 운영 차량(다른 기관 차량 포함)
④ 자가용 ⑤ 일정하지 않음 ⑥ 기타()

15. ○○(이)는 주로 누구와 함께 등·하원합니까? 기관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차까지 데려다 주고, 차에서 데리고 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응답해 주세요.

1) 등원 시 동반자 ()

2) 하원 시 동반자 ()

- ① 부모 ② 할아버지/할머니 ③ 친인척
④ ○○(이)의 형제자매 ⑤ 가사 또는 양육 도우미 ⑥ 이웃
⑦ 교사(다른 기관 교사 포함) ⑧ 일정하지 않음
⑨ 없음(아이 혼자 등·하원) ⑩ 기타()

16. ○○(이)는 주로 몇 시에 등·하원합니까?

()에 등원하여, ()시에 하원함

- ▶ 등원(scroll bar): 오전 8시 이전, 오전 8시-9시, 오전 9시-10시, 오전 10시-11시, 오전 11시 이후, 일정하지 않은 시간
▶ 하원(scroll bar): 오후 1시 이전, 오후 1시-3시, 오후 3시-5시, 오후 5시-7시 30분, 오후 7시 30분 이후, 일정하지 않은 시간
▶ 등원에 [오전 11시 이후], 하원에 [오후 1시 이전]으로 응답될 경우, 경고창
◎ ○○(이)가 오전 11시 이후에 등원하여, 오후 1시 이전에 하원한다고 응답하셨습니다. 응답값을 확인해 주세요.

17. ○○(이)는 주로 어떤 영역에서 노는 것을 좋아합니까? 좋아하는 영역을 순서대로 골라주세요.

1순위 () 2순위 ()

- ① 언어 영역(도서영역, 휴식영역) ② 미술 영역(조형영역) ③ 쌓기 영역(블록영역)
④ 수/과학 영역(탐구영역) ⑤ 조작 영역
⑥ 역할놀이 영역(소꿉놀이, 일상영역) ⑦ 음률 영역
⑧ 컴퓨터 영역 ⑨ 기타() ⑩ 해당 없음(영역 구분 없음)

18. ○○(이)의 기관에서의 식습관은 또래들과 비교하여 어떠합니까?

문항 내용	보 기				
1) 먹는 양	① 매우 조금 먹는 편 ④ 많이 먹는 편	② 조금 먹는 편 ⑤ 매우 많이 먹는 편	③ 보통		
2) 편식 정도	① 편식이 심함 ④ 골고루 먹는 편	② 편식하는 편 ⑤ 전혀 편식하지 않음	③ 보통		
3) 먹는 속도	① 매우 느림	② 느림	③ 보통	④ 빠름	⑤ 매우 빠름

19. ○○(이)는 기관에서 낮잠을 잡니까?

- ① 낮잠시간 없음 ➡ 20번 문항으로 ② 낮잠을 잡 ➡ 19-1번 문항으로
③ 낮잠을 자지 않음 ➡ 20번 문항으로 ④ 불규칙적임 ➡ 19-1번 문항으로
⑤ 기타 () ➡ 19-1번 문항으로

19-1. ○○(이)가 기관에서 낮잠을 자는 시간은 1회 평균 몇 분입니까?

1회 평균 ()분 낮잠을 잠

▶ 범위(20~150)

20. OO(이)는 같은 학급에 있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 귀 기관을 얼마나 좋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좋아하지 않음 ② 별로 좋아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대체로 좋아함 ⑤ 아주 좋아함
21. OO(이)는 같은 학급에 있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 귀하를 얼마나 좋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좋아하지 않음 ② 별로 좋아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대체로 좋아함 ⑤ 아주 좋아함
22. 다음은 **유아의 언어·수학 능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OO(이)의 **평소 모습에 기초하여** 해당되는 보기
 에 ✓표해주시시오.

응답범주					
① 아직 하지 않음	② 하기 시작함	③ 어느 정도 해냄	④ 잘하는 편임	⑤ 능숙함	⑥ 해당 없음
아직 하지 않음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일관적이지 않음	다소 규칙적으로 할 수 있지만 때에 따라 다름	규칙적이고 평균 수준으로 할 수 있지만 완벽하지는 않음	완벽하고 일관성 있게 할 수 있음	그 상황을 보거나 다른 적이 없음

문 항 내 용	아직 하지 않음	하기 시작함	어느 정도 해냄	잘하는 편임	능숙함	해당 없음 /모름
1) 몇 가지 행동의 연결된 지시를 따를 수 있다. 예) 이 크레파스를 가지고 자신이 좋아하는 동물을 그리세요. 그리고 크레파스는 노란색 통에 정리하고, 그린 그림은 이야기나누기 시간에 친구들에게 보여주세요.	①	②	③	④	⑤	⑥
2) 다소 복잡한 문장 구조를 사용한다. 예) 'OO가 우산을 가져왔더라면, 비를 맞지 않았을 텐데', '우리 1학년 올라가자마자 현장 학습 갈 수 있겠지?'와 같은 말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누군가 읽어준 글이나 이야기를 이해하고 해석한다. 예) 들려준 이야기를 다시 말하거나, 이야기가 왜 그렇게 끝났는지 설명하거나, 이야기의 일부를 자신의 상황과 연결 지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한글의 모든 자음과 모음을 쉽고 빠르게 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음조가 비슷한 단어(운율 맞추기)를 만들 수 있다. 예) '리'자로 끝나는 말(개나리, 오리, 유리, 향아리)을 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6) 읽기 활동을 자주 선택하며 어려워하지 않는다. 예) 친숙한 책을 반복해서 읽거나, 교실에서의 책읽기 활동을 자주 선택하거나, 도서관에 가자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7) 줄거리의 단서나 그림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 것인지 예측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8) 간단한 책을 스스로 읽는다. 예) 언어의 패턴이 반복되는 책을 읽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9) 초기 쓰기 행동을 나타낸다. 예) 단어를 적기 위해 서두의 자음을 사용하거나(과자→ㄱ), 소리를 표현하기 위해 철자를 그대로 적거나(미움→ㅁ), 말과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 발음 나는 대로 적는다(닭→닥, 갔다→가따).	①	②	③	④	⑤	⑥
10) '엄마', '아빠', '나', '안녕'과 같은 비교적 간단한 단어를 기억해서 쓴다.	①	②	③	④	⑤	⑥
10-1) '대한민국', '좋아한다', '웃는다'와 같은 비교적 복잡한 단어를 기억해서 쓴다.	①	②	③	④	⑤	⑥
11) 쓰기 규칙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예) 단어 간 띄어쓰기를 하고 문장 끝에 마침표를 찍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12) 쓰기 관련 활동을 자주 선택하며 어려워하지 않는다. 예) 자유선택활동시간에 쓰기 활동을 자주 선택하거나, 활동 및 놀이를 위해 기호를 표시하거나 메모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13) 컴퓨터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한다. 예) 그림을 그리거나, 물건을 세거나, 숫자, 글자, 단어를 타이핑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14) 동작, 사물, 단어의 패턴을 만들거나 모방하거나 확장할 수 있다. 예) 구슬, 블록, 몸동작의 패턴을 만들거나(예: ○○☆○○☆) 40, 50, 60, 70...과 같이 배수의 패턴을 확장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15) 다양한 규칙이나 특징에 근거하여 수학적 자료를 나열하고, 분류하고, 비	①	②	③	④	⑤	⑥

문항내용	아직 하지 않음	하기 시작함	어느 정도 해냄	잘하는 편임	능숙함	해당 없음 /모름
교한다. 예) 열쇠를 분류할 때 나름대로의 규칙을 만들어 '숫자가 있는 열쇠'와 '숫자가 없는 열쇠'로 분류하거나, '커다란 플라스틱 모양'과 '작은 나무 모양'과 같이 다양한 특징에 따라 모양을 분류한다.						
16) 어떠한 대상에 순서를 부여한다. 예) 길이에 따라 막대를 순서 짓거나, 밝고 어두운 정도에 따라 물감을 배열하거나, 부드러운 소리부터 강한 소리까지의 악기를 배열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17) 사물을 셀 때 양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며 일대일 대응의 개념을 활용한다(물건의 수를 하나씩 센다). 예) 10개 이상의 나무 블록을 셀 때 각각의 블록을 한 번씩만 집어가며 수를 센다(어떠한 블록도 두 번 세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18) 수량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예) 10개의 작은 돌멩이와 10개의 큰 블록의 갯수가 같음을 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9) 쓰여 있는 숫자와 실제 사물을 연결한다. 예) 8개의 블록과 숫자 8을 연결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20) 형태(모양)의 속성을 인식한다. 예) 삼각형이나 직사각형의 변의 수, 정사각형 모서리 수를 안다.	①	②	③	④	⑤	⑥
21) 실제 물건(막대기, 구슬 등)을 사용하여 수가 포함된 문제를 푼다. 예) '순이는 6개의 연필을 가지고 있고 철수는 3개를 가지고 있어. 둘이 합쳐서 몇 개를 가지고 있니?', 또는 '철수가 순이와 같은 양의 연필을 가지려면 내가 철수에게 몇 개를 주어야 하니?'와 같은 문제를 푼다.	①	②	③	④	⑤	⑥
22) 수 관련 활동을 자주 선택한다. 예) 자유선택활동시간에 수리 영역 활동을 자주 선택하거나, 작업 및 놀이를 할 때 숫자 세기, 셈하기, 패턴책 보기 등을 자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23) 동전이나 지폐의 가치를 구별할 수 있다. 예) 100원 동전, 500원 동전, 그리고 1000원 지폐를 안다.	①	②	③	④	⑤	⑥
24) 그래프 활동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예) '학교 가는 방법'이라는 그래프에서 '버스 이용'은 노란색, '자가용 이용'은 하얀색, '도보'는 파란색 사각형으로 표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25) 시간을 이해하는 것 같다. 예) 달력에서 어제, 오늘, 내일의 개념을 표시하거나, 계절의 순서를 말하거나, 개구리의 변화(일생)를 그림으로 그린다.	①	②	③	④	⑤	⑥
26)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도구를 사용한다. 예) 두 물건의 무게를 비교하기 위해 저울을 사용하거나, 요리 활동 시간에 티스푼을 사용하거나, 서로 다른 물건의 길이를 재기 위해 줄자를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27) 일상 생활 속의 수학 문제를 푼다. 예) 4개의 식탁에 앉아있는 친구들에게 24개의 컵케이크를 똑같이 나누어주는 방법을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28)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 다양한 전략들을 사용한다. 예) 조작 가능한 사물을 활용하거나, 반복되는 패턴을 찾아내거나, 문제 상황을 직접 해본다.	①	②	③	④	⑤	⑥

23. 다음은 **학령 전 유아의 학습 준비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의 **평소 행동에 기초하여** 해당되는 보기에 ✓표해주시십시오.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또래들과 어울릴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또래와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 적절한 문제 해결 기술을 사용한다. 예) 아이들이 미끄럼틀을 서로 먼저 타려고 하는 상황에서 먼저 온 사람부터 줄을 서서 타자고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3) 양육자와 쉽게 헤어진다.	①	②	③	④
4) 감정의 변화를 적절하게 표현한다. 예) 화가 났지만 크게 소리 지르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5) 하루일과 변화에 잘 적응한다.	①	②	③	④
6) 교사 등 어른들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한다.	①	②	③	④
7) 간단한 규칙과 지시를 잘 따른다.	①	②	③	④
8) 스스로 선택한 활동을 15분 정도 지속한다.	①	②	③	④
9) 수업 활동에 열정적으로 흥미를 가지고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10)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11) 교사가 주도하는 집단 활동에 집중한다.	①	②	③	④
12) 언제/어떻게 어른을 자원으로 활용할지를 안다.	①	②	③	④
13) 교실 등의 상황에서 어떤 활동을 먼저 시작한다.	①	②	③	④
14) 호기심이 많다. 예) 질문하고, 탐색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	①	②	③	④
15) 욕구, 필요한 것, 생각들을 말로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16) 간단한 지시, 요청, 정보를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17) 대화에 참여한다(완전한 문장으로, 자신이 말하는 순서에).	①	②	③	④
18) 책의 내용을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19) 활동을 기억하고 사건의 순서를 설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20) 인쇄된 자신의 이름을 알아본다.	①	②	③	④
21)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연필, 크레파스, 붓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22) 상상놀이를 한다.	①	②	③	④

24. 다음은 **유아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의 **평소 행동에 기초하여** 해당되는 보기에
✓표해주시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자주 그렇다
1) 교사의 지시에 따른다.	①	②	③
2) 친구를 쉽게 사귄다.	①	②	③
3) 또래에게 놀림을 당하는 경우 적절하게 대응을 한다.	①	②	③
4) 수업시간에 교사에게 도움을 청하기 전에 스스로 과제를 하려고 한다.	①	②	③
5) 성인(부모, 교사 등)과의 갈등상황에서 감정을 조절한다.	①	②	③
6) 또래를 칭찬한다.	①	②	③
7)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학업을 잘 수행한다.	①	②	③
8) 처음 만난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한다.	①	②	③
9) 게임이나 놀이를 할 때, 자신의 순서를 지킨다.	①	②	③
10) 교사의 도움을 기다리는 동안 적절히 기다린다.	①	②	③
11) 적절한 때에 자신에 대한 좋은 점을 이야기 한다.	①	②	③
12) 자유 시간에 적절한 방식으로 시간을 보낸다.	①	②	③
13) 또래로부터 칭찬을 받거나 찬사에 고마움을 표현한다.	①	②	③
14) 또래와의 갈등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한다.	①	②	③
15) 다른 사람과 놀이를 할 때, 규칙을 지킨다.	①	②	③
16) 정해진 시간에 교실과제를 마무리한다.	①	②	③
17) 또래에게 먼저 말을 건다.	①	②	③
18) 놀이를 할 때, 다른 사람에게 같이 하자고 말을 한다.	①	②	③
19) 수업시간에 사용했던 물건들과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등) 소유물을 제자리에 둔다.	①	②	③
20) 또래의 압력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을 한다. 예) 그림 그리기 시간에 또래가 "넌 이 크레파스는 쓰지 마."라고 말하는 상황에 적절히 반응한다.	①	②	③
21) 다른 아이들이 한창 진행 중인 집단 활동에 개입해 놀이를 한다.	①	②	③

25. 다음은 **친구와의 상호작용에서 보이는 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의 평소 행동에 기초하여 해당되는 보기에 ✓표해주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친구를 돕는다.	①	②	③	④
2) 몸싸움이나 말싸움을 시작한다.	①	②	③	④
3) 다른 친구에게 거부당한다.	①	②	③	④
4) 차례를 지키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5) 놀이에 함께 하지 못하고 주위를 배회한다.	①	②	③	④
6) 친구와 놀잇감을 나눈다.	①	②	③	④
7) 위축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8) 목적 없이 돌아다닌다.	①	②	③	④
9) 친구들이 놀이에 대해 제안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0) 다른 친구에게 무시를 당한다.	①	②	③	④
11) 선생님에게 이른다.	①	②	③	④
12) 친구 사이의 갈등이 해결되도록 돕는다.	①	②	③	④
13) 친구의 물건이나 놀잇감을 부순다.	①	②	③	④
14)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반대 의견을 말한다.	①	②	③	④
15) 놀자고 할 때 거절한다.	①	②	③	④
16) 놀이를 시작할 때 도움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17) 친구에게 언어적 비난을 한다.	①	②	③	④
18) 친구의 행동을 기분 나쁘지 않게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19) 친구와의 상호작용에서 울거나 징징거리거나 화를 낸다.	①	②	③	④
20) 친구에게 함께 놀자고 한다.	①	②	③	④
21) 친구의 놀잇감을 빼앗는다.	①	②	③	④
22) 다치거나 슬퍼하는 친구를 위로한다.	①	②	③	④
23) 놀이에서 혼란스러워 한다. 예) 어떤 놀이를 하려고 하는지 분명하지 않거나, 친구들과의 놀이에 자신 있게 참여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24) 친구와 놀이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며 말한다. 예) 우리 지금 _____ 하고 있다고 하자. 나는 아빠라고 하고 넌 엄마해. 우리 학교 간다고 하자.	①	②	③	④
25) 친구의 놀이를 방해한다.	①	②	③	④
26)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27) 친구와의 놀이에서 긍정적 감정을 표현한다. 예) 미소 짓기, 웃기	①	②	③	④
28) 친구와의 상호작용에서 신체적 공격성을 보인다.	①	②	③	④
29) 친구와의 놀이에서 장의성을 나타낸다.	①	②	③	④
30) 놀이가 순조롭고 융통성 있다.	①	②	③	④

26.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이)는 평소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습니까?

- ①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 같다. ② 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 같다.
③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다. ④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다.

27.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이)의 평소 **모습(행복도)**은 어떠합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	--	--	--	--	---

28. 다음은 ○○(이)의 **전반적인 발달에 대한 질문**입니다. 또래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인식하시는지 해당 칸에 ✓표 해주시오.

항 목	상당히 지연됨	약간 지연됨	양호함 (정상발달)	발달이 빠름	해당 없음 (다른 적이 없음)
1) 신체발달 및 성장	①	②	③	④	⑤
2) 언어발달	①	②	③	④	⑤
3) 인지발달	①	②	③	④	⑤
4) 사회정서발달	①	②	③	④	⑤
5) 기관에서의 적응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이) 부모님의 기관 참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29. ○○(이)의 부모님(또는 주양육자)은 전반적으로 기관에서의 ○○(이)의 생활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는 편입니까?

- ① 전혀 관심 없음 ② 별로 관심 없는 편 ③ 보통
④ 관심을 가지는 편 ⑤ 매우 관심이 많음

30. ○○(이)의 부모님(또는 주양육자)은 기관에서 진행하는 다음 항목에 참여하는 편입니까?

올 한 해 (2014년 1월~현재) 동안 참여했던 행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보기에 ✓표해주시시오.

행사	참여함	참여하지 않음	모르겠음	해당없음 (행사 미개최)
1) 오리엔테이션	①	②	▶원클릭	▶원클릭
2) 아동 행사 (운동회, 재롱잔치 등)	①	②	▶원클릭	▶원클릭
3) 자원봉사 (급식준비, 야외활동, 수업보조, 청소 등)	①	②	▶원클릭	▶원클릭
4) 부모교육 프로그램	①	②	▶원클릭	▶원클릭
5) 담임 상담	①	②	▶원클릭	▶원클릭
6) 가정통신에 대한 답장 (대화, 전화, 쪽지 등 의사소통)	①	②	▶원클릭	▶원클릭
7) 재정적 기여 (전체간식제공, 바자회 지원 등)	①	②	▶원클릭	▶원클릭
8) 운영위원회	①	②	▶원클릭	▶원클릭

다음은 선생님의 교사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31. 선생님의 **현재 생각과 교사 생활**을 가장 잘 나타내준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 해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다루기 어려운 아이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부모가 무관심하거나 가정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을 지도할 경우 아이들의 학습의욕을 높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활동을 해야 할 경우 그 활동에 집중하도록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아이들이 지난 시간에 했던 활동을 잘 생각하도록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교육활동에 흥미가 적은 아이들을 지도할 경우, 그 아이들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아이들이 협력하여 활동하도록 이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7) 열악한 주변 환경이 아이들의 학습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아이에게 애정과 신뢰를 가지고 자주 상호작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아이의 요구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반응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아이와 다정하고 자상한 태도로서 대화를 나눈다.	①	②	③	④	⑤
11) 아이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독립적 행동을 격려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12) 긍정적인 지도 방법을 사용하여 아이가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13) 우리 기관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안정되고 즐거운 상태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아이가 자유롭게 놀이나 다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안하고 자유로운 학습 환경을 마련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15) 협동하기, 차례 지키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논하기 같은 아이의 친사회적 행동을 격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아이의 발달에 맞는 사회적 행동을 기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아이들이 힘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의견을 나눔으로써 (의사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32. 아래 문항을 읽고 선생님 **자신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생각하는 보기에 ✓표해주시시오.

항목							
1) 전반적으로 나는 ...	① 아주 불행한 사람이다	②	③	④ 보통 이다	⑤	⑥	⑦ 아주 행복한 사람이다
2)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	① 매우 행복하지 않다	②	③	④ 보통 이다	⑤	⑥	⑦ 매우 행복하다
3) 어떤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아주 행복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개의치 않고 즐겁게 지내는 편이다. 나는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③	④ 보통 이다	⑤	⑥	⑦ 매우 그렇다
4) 어떤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아주 불행하다. 특별히 우울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게 보인다. 나는 ...	① 매우 그렇다	②	③	④ 보통 이다	⑤	⑥	⑦ 전혀 그렇지 않다

33. 선생님께서는 평소 이 일을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으십니까?

- ①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② 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③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다. ④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다음은 선생님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34. 선생님이 처음 ○○(이)의 담임교사가 된 시기는 언제입니까?

()년 ()월부터

▶ 범위(scroll bar): (2008~2014)년 (1~12)월

▶ 응답 시점보다 이후는 응답 불가

35. 선생님의 실 근무시간은 1일 평균 몇 시간입니까? 주중, 주말을 나누어 응답해주세요.

35-1. 주중 근무시간	35-2. 주말 근무 일 수	35-3. 주말 근무시간
1일 주중 ()시간 ()분 ▶ (4~24)시간 (0~50/10간격)분	1개월 평균 ()일 ▶ 범위(scroll bar): 0~8 ▶ '0' 응답 시, Go Q36	1일 평균 ()시간 ()분 ▶ (4~24)시간 (0~50/10간격)분

36. 선생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여 ② 남

37. 선생님의 연령은 몇 세인가요? **만 나이**로 응답해 주세요.

만 ()세

▶ 범위: 18~65세

38. 선생님의 교사 경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현재 기관을 포함하여 응답해 주세요.

☒ 근무기간이 15일 이상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1개월,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0개월로 응답

기관	재직 경험 유무 및 교사 경력
어린이집	① 없다 ② 있다 ()년 ()개월
유치원	① 없다 ② 있다 ()년 ()개월
반일제 이상 학원	① 없다 ② 있다 ()년 ()개월

▶ 범위(scroll bar): (0~50)년 (0~11)개월

▶ [년], [개월]이 모두 '0' 불가

39. 선생님의 교사 자격은 어떻게 되십니까? 해당되는 보기를 **모두** 골라 ✓표 해주십시오.

- ① 교사 자격 없음
② 유치원 교사 자격증 (원감, 원장 자격 포함)
③ 보육교사 자격증 (시설장 자격 포함)
④ 초·중등교사 자격증

▶ ①은 중복응답 불가

40. 선생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중퇴 및 수료는 졸업에 포함되지 않음

- ① 고등학교 졸업 ➡ **조사 종료**
② 사이버 대학 혹은 평생교육원(학점은행제) 졸업
③ 전문대 (3년제 이하 기능대학) 재학 ④ 전문대 (3년제 이하 기능대학) 졸업
⑤ 대학교 (4년제 이상) 재학 ⑥ 대학교 (4년제 이상) 졸업
⑦ 대학원 재학 ⑧ 대학원 졸업

41. 선생님의 전공은 어떻게 되십니까? 해당되는 보기를 **한 가지만** 골라 ✓표 해주십시오.

- ① 유아교육 ② 보육학 ③ 아동학
④ 가정학 ⑤ 간호학 ⑥ 사회복지학
⑦ 교육학 ⑧ 예·체능 계열 ⑨ 기타

♣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사. 건강 관련 질문지

ID

--	--	--	--	--	--



2014 건강 관련 질문지

※ 본 조사의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 및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질문지는 아동들의 건강에 관한 질문지입니다.

천식,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비염 등 알레르기질환은 아동들에게서 가장 흔한 만성질환 중의 하나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질환입니다. 이에 한국아동패널에서는 국가 알레르기질환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아산병원과 공동으로 아동의 알레르기 질환 유무와 다양한 발생 원인에 대해 조사하고자 합니다.

본 질문지에 응답하는 데에는 **약 10~15분가량** 소요됩니다.

질문지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주관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33 안국빌딩 7층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 연구팀
Tel. 02) 398-7766, 7790 Fax. 02) 730-3317
E-mail : panel@kicce.re.kr

<조사수행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04
(주)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한국아동패널』 조사팀
Tel. 02) 3488-2783 Fax. 02) 598-7652

아동 이름	질문지 작성자 이름	☐ 어머니 _____	날짜	2014년 ____월 ____일
		☐ 아버지 _____		

본 질문지의 응답 내용은 분석 및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서울아산병원에 위탁됩니다. 이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하신 분에 한하여 서울아산병원에서 작성한 결과 보고가 제공됩니다.

참여자 동의 확인 서명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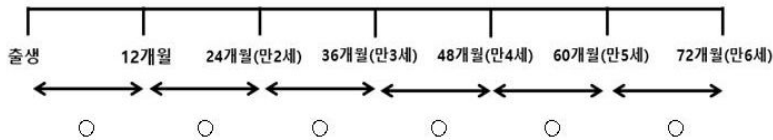
육아정책연구소
Korean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병원

다음은 알레르기질환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 ○○(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숨 쉴 때 가슴에서 썹썹거리는 소리나 휘파람 소리가 난 적이 있었던 시기를 모두 표시해 주세요.



○ 없었다 ⇒ 3번 문항으로

2. ○○(이)는 최근 12개월 동안 "숨 쉴 때 가슴에서 썹썹거리는 소리나 휘파람 소리"가 난 적이 있습니까?

- 예 ⇒ 2-1번 문항으로
○ 아니오 ⇒ 3번 문항으로

- 2-1. ○○(이)는 최근 12개월 동안 숨 쉴 때 가슴에서 썹썹거리는 소리나 휘파람 소리가 난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 1회
○ 2회
○ 3회
○ 4~6회
○ 7회 이상

- 2-2. 최근 12개월 동안 숨 쉴 때 가슴에서 썹썹거리는 소리나 휘파람 소리로 인한 응급실 방문 횟수와 입원 횟수는 몇 번입니까?

	최근 12개월 이내
응급실 방문 횟수	☐ 없었다
	☐ 1회
	☐ 2회
	☐ 3~5회
	☐ 6회 이상
입원 횟수	☐ 없었다
	☐ 1회
	☐ 2회
	☐ 3~5회
	☐ 6회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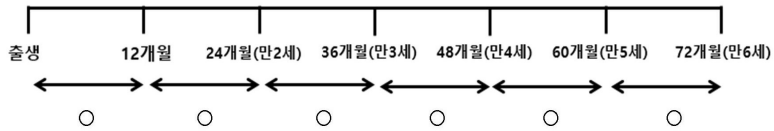
3. 최근 12개월 동안 의사로부터 출생 후 처음으로 “천식”이라고 진단받은 적이 있습니까?

- ☐ 예
☐ 아니오

4. ○○(이)는 최근 12개월 동안 천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 예
☐ 아니오

5. ○○(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감기나 독감을 앓고 있지 않은데도 재채기, 콧물 또는 코막힘 증상을 보인 시기를 모두 표시하세요.



- ☐ 없었다 ➡ **8번 문항으로**

6. ○○(이)는 최근 12개월 동안 감기나 독감을 앓고 있지 않은데도 재채기, 콧물 또는 코막힘 증상을 보인 적이 있습니까?

- ☐ 예
☐ 아니오

8. 최근 12개월 동안 의사로부터 출생 후 처음으로 “알레르기비염”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습니까?

- ☐ 예
☐ 아니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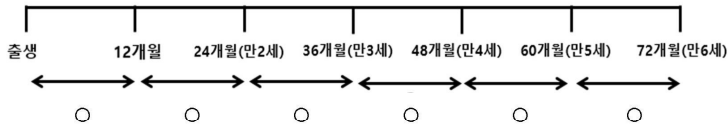
7. ○○(이)는 최근 12개월 동안 재채기, 콧물 또는 코막힘 증상이 있으면서 눈이 가렵고 눈을 비빈 적이 있습니까?

- ☐ 예
☐ 아니오

9. ○○(이)는 최근 12개월 동안 “알레르기비염”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습니까?

- ☐ 예
☐ 아니오

10. ○○(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진과 같은 가려운 피부발진('태열' 또는 '아토피피부염'이라고도 함)이 얼굴, 귀, 목, 접히는 부위, 몸통 등에 생겼다 없어졌다 한 적이 있는 시기를 **모두** 표시하세요.



○ 없었다 ⇒ **13번 문항으로**

11. ○○(이)는 **최근 12개월 동안** 이러한 가려운 피부발진이 나타난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12. **최근 12개월 동안 의사로부터 출생 후 처음으로 "아토피피부염"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13. ○○(이)는 **최근 12개월 동안** "아토피피부염"("태열" 또는 "습진"이라고도 함)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습니까?

- 예 ⇒ **13-1번 문항으로**
○ 아니오 ⇒ **14번 문항으로**

- 13-1. 최근 12개월 동안 "아토피피부염"("태열" 또는 "습진"이라고도 함)으로 **국소 스테로이드 연고(크림, 로션 포함)**를 사용한 기간은 얼마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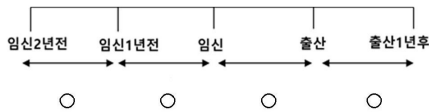
- 사용한 적 없다
○ 1개월 이내
○ 1개월 이상~3개월 이내
○ 3개월 이상~6개월 이내
○ 6개월 이상

다음은 의식주 환경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4. 설문대상 자녀를 **임신하셨던 시점** 기준으로 아래의 시기에 집을 리모델링한 적이 있었습니까?

- 예 ➡ **14-1번 문항으로**
- 아니오 ➡ **15번 문항으로**

- 14-1. 리모델링한 적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그림에서 **해당되는 시기에 모두** 표시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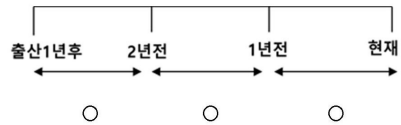
- 14-2. **어떤 종류**의 리모델링을 했습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표시하십시오)

- 페인트칠
- 도배
- 바닥재 교체
- 새로운 구획 분할(partition)
- 기타 (_____)

15. 보호자께서는 ○○(이) **출산 1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집을 리모델링한 적이 있었습니까?

- 예 ➡ **15-1번 문항으로**
- 아니오 ➡ **16번 문항으로**

- 15-1. 리모델링한 적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그림에서 **해당되는 시기에 모두** 표시해주세요.



- 15-2. **어떤 종류**의 리모델링을 했습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표시하십시오)

- 페인트칠
- 도배
- 바닥재 교체
- 새로운 구획 분할(partition)
- 기타 (_____)

16. ○○(이)가 살고 있는 집은 **하루 중 환기**는 **몇 차례** 하십니까?

- 거의 안 함
- 1~2회
- 3~5회
- 5회 이상

16-1. ○○(이)가 살고 있는 집은 하루 중
총 환기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 ☐ 1시간 이하
- ☐ 2시간~3시간 미만
- ☐ 3시간~5시간 미만
- ☐ 5시간 이상

17. ○○(이)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공기 청정기**
를 사용하십니까?

- ☐ 예 ➡17-1번 문항으로
- ☐ 아니오 ➡18번 문항으로

17-1. 공기 청정기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선택하십시오)

- ☐ 거실
- ☐ 자녀 방
- ☐ 큰 방
- ☐ 부엌
- ☐ 기타 (_____)

18. ○○(이)의 집에선 **조리시 주된 열 공급원**의
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 ☐ 가스
- ☐ 전기
- ☐ 연탄
- ☐ 화로
- ☐ 기타 (_____)

19. ○○(이)의 집에선 **조리시 환풍기는 얼마나**
자주 이용하니까?

- ☐ 모든 요리시 항상
- ☐ 주요 요리 때만 사용
- ☐ 심한 연기나 냄새가 날 때만
- ☐ 거의 사용하지 않음

다음은 임신 및 출생 초기 습기 및 곰팡이 노출에 관한 질문입니다.

20. ○○(이)가 아래의 특정 기간 동안 살았던 집의 벽이나 천장 또는 가정에서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되는 상황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다음의 각 사항이 없거나 질문에 해당되지 않으면 “보이지 않았다”에 모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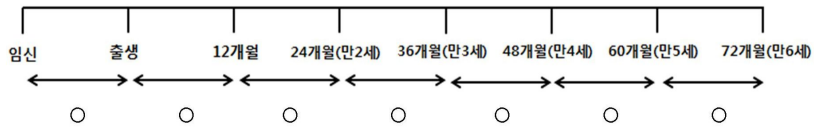
■ 정확한 정보를 위하여 아래 각 항목에 대해 모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항목)	시기	보이지 않았다 (0%)	5% 미만	5-30%	30% 이상
습기가 차서 생긴 얼룩진 모양	임신 중	○	○	○	○
	생후 1년 동안	○	○	○	○
	최근 1년	○	○	○	○
눈에 보이는 곰팡이	임신 중	○	○	○	○
	생후 1년 동안	○	○	○	○
	최근 1년	○	○	○	○
곰팡이 냄새	임신 중	○	○	○	○
	생후 1년 동안	○	○	○	○
	최근 1년	○	○	○	○
물이 새거나 물이 젖어 있는 곳	임신 중	○	○	○	○
	생후 1년 동안	○	○	○	○
	최근 1년	○	○	○	○

21. ○○(이)가 살고 있거나 살았던 집에 곰팡이가 보이는 곳이 있었습니까?

- 예 ⇒ **21-1번 문항으로**
 ○ 아니오 ⇒ **22번 문항으로**

21-1. ○○(이)가 살고 있거나 살았던 집에 눈에 보이는 곰팡이가 있었던 시기는 언제입니까?
 해당되는 시기를 모두 표시해 주세요.



다음은 ○○(이)의 임신 중 직장생활과 분만에 관한 질문입니다. 임신 시 산모의 생활환경과 자녀의 알레르기질환 발생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환경청에서 제공하는 대기 오염 지표를 이용하고자 하오니 가능하면 "번지" 까지 자세히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 어머니는 ○○(이)의 임신 중에 직장 생활이
나 학업을 한 적이 있습니까?

- 예 ⇒ **23번 문항으로**
 ○ 아니오 ⇒ **24번 문항으로**

23. 현재 취업/학업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
 합니까?

- 임신 중과 변화 없다 ⇒ **24번 문항으로**
 ○ 새로운 직장/학교에 취업/입학
 ⇒ **23-1번 문항으로**
 ○ 일/학업을 그만둠 ⇒ **23-1번 문항으로**

23-1. 임신 기간 중 근무하신 직장(사업체)/
학교의 주소는 무엇입니까?

_____시(도) _____구(군)

_____동(읍,면) _____번지

23-2. 어머니는 ○○(이)의 **임신 중** 출퇴근/등하교 시 **하루에 평균 왕복 몇 분이** 걸렸습니까?

- ☐ 30분 이내
- ☐ 30분~60분
- ☐ 60분~90분
- ☐ 90분~120분
- ☐ 120분~150분
- ☐ 150분~180분
- ☐ 180분~210분
- ☐ 210분~240분
- ☐ 240분 이상

24. 어머니는 ○○(이)의 **임신 기간에** 3일 이상 항생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 예 ➡ 24-1번 문항으로
- ☐ 아니오 ➡ 25번 문항으로

24-1. 있다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사용한 경우가 없었던 경우는 “없음”에 꼭 표시해주세요.)

- ☐ 없음
- ☐ 1~2회
- ☐ 3~4회
- ☐ 5회 이상

25. ○○(이)는 **출생 후 12개월 내(돌 이전)에 3일 이상 항생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 예 ➡ 25-1번 문항으로
- ☐ 아니오 ➡ 26번 문항으로

25-1. 있다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사용한 경우가 없었던 경우는 “없음”에 꼭 표시해주세요.)

- ☐ 없음
- ☐ 1~2회
- ☐ 3~4회
- ☐ 5회 이상

26. ○○(이)는 최근 **12개월 내 3일 이상 항생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 예 ➡ 26-1번 문항으로
- ☐ 아니오 ➡ 27번 문항으로

26-1. 있다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사용한 경우가 없었던 경우는 “없음”에 꼭 표시해주세요.)

- ☐ 없음
- ☐ 1~2회
- ☐ 3~4회
- ☐ 5회 이상

27. 어머니는 ○○(이)에게 **출생 후 6개월까지** 어떻게 수유하셨나요?

- ☐ 완전모유수유
➡ 28번 문항으로
- ☐ 혼합수유 (모유+분유)
➡ 27-1번 문항으로
- ☐ 분유수유
➡ 28번 문항으로

27-1. 혼합수유를 시작한 것은 언제 부터입니까?

- ☐ 출생 후 0~2개월부터
- ☐ 출생 후 3~4개월부터
- ☐ 출생 후 5~6개월부터

28. 어머니는 ○○(이)에게 이유식을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 입니까?

- ☐ 출생 후 0~3개월
- ☐ 출생 후 4~6개월
- ☐ 출생 후 7개월 이후

다음은 흡연 노출 및 보호자의 음주에 관한 질문입니다.

29. ○○(이) 주변에서 담배냄새를 맡는 일이 일주일에 한번 이상 있습니까?

- ☐ 예 ⇒ 29-1번 문항으로
- ☐ 아니오 ⇒ 30번 문항으로

29-1. 있다면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담배냄새를 맡고 있습니까?

- ☐ 1회
- ☐ 2~3회
- ☐ 4~5회
- ☐ 6~7회

30. 집안의 흡연자들께서 ○○를 임신 중 담배를 피우셨습니까?

- ☐ 예
- ☐ 아니오

31. 집안의 흡연자들께서 ○○가 출생 후부터 첫돌까지 담배를 피우셨습니까?

- ☐ 예
- ☐ 아니오

32. 집안의 흡연자들께서 ○○가 첫돌부터 현재까지 담배를 피우셨습니까?

- ☐ 예
- ☐ 아니오

33. ○○(이)의 아버지께서는 음주를 하시면 홍조를 띄나요?

- ☐ 예
- ☐ 아니오

34. ○○(이)의 어머니께서는 음주를 하시면 홍조를 띄나요?

- ☐ 예
- ☐ 아니오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성실히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3. 8차년도(2015) 조사 안내문



한국아동패널

2015년도 안내문



안녕하세요. 한국아동패널 조사팀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아동패널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2015년 7월 초부터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 조사가 시작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 조사는 귀 닥의 자녀가 만 7세가 되는 시점부터 면접원이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린 후 귀 닥을 방문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 방문에 앞서 우송해 드린 '어머니 질문지'와 '아버지 질문지'는 미리 작성하셔서 면접원이 방문할 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올해 언어발달검사는 아동이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는 능력인 수용어휘와 의사표현을 잘 하는지에 대한 표현어휘 검사를 시행합니다.
- 아동에게 중요한 환경이 되는 학교 생활에 대해서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이에 대한 동의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 조사참여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조사 참여 사례금 3만원을 드립니다. 또한 아동에게는 학교 생활에 필요한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 이와는 별도로 병원 방문 심층 검사(알레르기 피부반응시험, 폐기능 검사, 혈액검사 등 알레르기 검사로 별도 비용 없음)를 시행합니다. 심층 조사에 참여하신 분에 한하여 감사의 의미로 참여 사례금 3만원을 드리며, 검사결과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조사에 문의가 있으신 경우 아동패널 핫라인(010-9104-2704 : 전화, 문자, 카카오톡 가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를 통해 얻어진 정보는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개인정보는 통계법(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철저히 보호될 것입니다.
 7월 초부터 진행되는 '2015년 한국아동패널'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항상 행복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 <http://panel.kicce.re.kr/> 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한국아동패널 소식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사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아래로 연락 주십시오

연구기관 육아정책연구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층
 「한국아동패널」 연구팀
 TEL) 02-398-7794, 7790
 FAX) 02-730-3317

조사기관 (주)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45-3
 국제전자센터 24층 「한국아동패널」조사팀
 TEL) 02-3488-2783
 핫라인) 010-9104-27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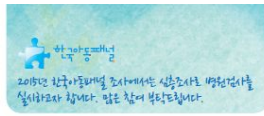


국무총리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미디어리서치
MillwardBrown

부록 4. 8차년도(2015) 병원 조사 안내문



등록방법

~ 홈페이지 신청(<http://panel.kicdc.re.kr>)
~ 전화신청(02-3010-2641, 02-3010-4627)

참여 상담 및 등록 문의처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센터 아동패널조사팀
책임자 **홍수종**
담당자 권지원/ 강영호/ 최연정/ 신혜림/ 박진아
02-3010-2641, 02-3010-4627

참가기관

서울아산병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인하대병원, 충북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예수병원, 전남대학교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울산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동아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지원기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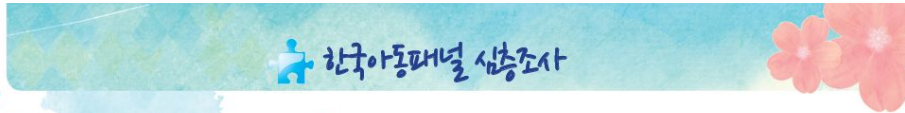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센터
Asan Medical Center

서울시 송파구 동림로 43길 88
서울아산병원 동림연구소 지하층 43대내하역실 소아청소년과





한국아동패널에서 시행하는 알레르기검사를 하면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최근 30년간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과 같은 알레르기질환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질환 별 유병률은 아토피피부염 24.9%, 천식 9.7%, 알레르기비염 20.4% 정도로 매우 높으며,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알레르기질환의 발생은 유전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출생 전후 산모의 상태 및 환경과의 관련성이 주목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아동패널에서 생명과학부와 손을 잡고 시행하게 되는 알레르기 관련 검사는 현재까지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해오던 방식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검사를 통하여 귀하의 자녀들이 현재 알레르기 체질을 가지고 있는지, 알레르기질환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폐기능검사를 통해 정상폐활량을 보이는지 알 수 있으며, 질환이 있는 경우 맞춤형 관리 방법을 보다 정확하게 알려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지속될 아토피 패널에서 추적 관찰을 통하여 세균 감염이나 악화될 수 있는 알레르기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본 안내문을 통해 향후 시행될 알레르기 관련 검사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검사를 하게 되고 무엇을 알 수 있나요?

검사	내용
설문조사	알레르기질환 주기 환경 및 식이 등
혈액검사	반월, 간기능, 신장 기능, 비타민D 등
알레르기 피부반응시험	집먼지진드기, 고양이, 개, 꽃가루, 곰팡이, 바퀴벌레 등
폐기능검사	폐기능 발달이 정상적인지 평가
기관지유발검사	기관지 수축제를 흡입한 후 기도 과민성을 확인하여 천식을 진단
소변검사	간접흡연과 관련된 물질인 코티닌을 소변에서 측정
피부 내 존재하는 세균 조사	피부에 존재하는 균을 조사하여 알레르기질환과의 연관성을 조사
대변 내 존재하는 세균 조사	피부에 존재하는 균을 조사하여 알레르기질환과의 연관성을 조사

설문조사

알레르기질환, 주기 환경 및 식이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시행합니다.

: 어떤 알레르기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알레르기질환과 관련된 주거 환경은 없는지, 건강한 식사를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혈액검사

반월, 간기능, 신장 기능, 비타민D 등을 검사합니다.

: 아이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아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철 시 10cc 가량의 혈액을 뽑게 되며 이후 출혈에 의해 약간의 멍이 들 수 있으나 대부분 2-3일 안에 사라집니다.

알레르기 피부반응시험

알레르기질환의 흔한 원인인 집먼지진드기, 고양이, 개, 꽃가루, 곰팡이, 바퀴벌레 등 우리나라 주요 알레르겐에 대한 검사를 시행합니다.

: 아이가 알레르기질환이 있을 경우 알레르기 발생 및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알레르겐을 찾아 피피하여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검사 이후 과민반응으로 검사 부위의 가려움, 피부 발적 및 멍이 들 수 있으나 대개 경미한 정도의 반응으로 대부분 30분~1시간 이내에 사라집니다.

폐기능검사

폐기능 장애의 진단, 호흡관리의 상태 확인을 위해 시행합니다.

: 우리 아이의 폐기능 발달이 정상적인지 평가하게 됩니다.

기관지유발검사 (천식확인검사)

기관지 수축제를 흡입한 후 기도 과민성을 확인하여 천식을 진단합니다. 검사 후 기관지 과민성이 있는 경우 발작적 기침이 있을 수 있으나 대개 경미한 정도이며 증상 지속 시 이에 대한 처치가 가능합니다.

소변검사

천식을 악화의 원인 중 하나인 간접흡연과 관련된 물질인 코티닌을 소변에서 측정합니다.

피부 내 존재하는 세균 조사

피부에 존재하는 균을 조사하여 알레르기질환과의 연관성을 조사합니다.

대변 내 존재하는 세균 조사

대변 내 세균 군집의 분석을 통해 신체, 식이, 환경에 투여 등이 장내 미생물과 알레르기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검사 전 주의사항

알레르기 피부반응시험, 폐기능검사는 약물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검사 1주일 전부터는 기침약, 콧물약 등과 같은 감기약 복용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단, 세레티이드, 후릭소타이드, 삼비코트, 알베스코 등의 흡입제는 검사 2일전부터 중단하시고 혈액검사는 검사 당일만 중단하시면 됩니다. 피부 내 존재하는 세균 조사를 1달 전 내 존재하는 세균 조사의 경우 유산균 제제 (유산균 요구르트 포함)를 2주간 안 먹고, 생선채는 마지막 시용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이후 검사를 수집해야 합니다. 약물 복용 여부를 당일 검사 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5. 8차년도(2015) 조사 동의서

가. 가구방문조사용 참여 동의서

「한국아동패널 2015」 참여 동의서(가구방문조사용)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는 장기 종단연구인 「한국아동패널」 연구의 일환으로, 「한국아동패널 2015」 조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 수행에 앞서 귀하께 조사의 목적 및 내용, 효과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 연구의 목적 : 「한국아동패널」 연구는 2008년부터 시작한 장기 종단연구로, 우리나라 아동의 성장과 발달, 그리고 아동이 접하는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생산하고 아동의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한국아동패널 2015」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시기 아동이 경험하는 환경 특성과 아동의 성장발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 대상 : 2008년 4월부터 7월에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한국아동패널 2008」 병원조사에 참여하고 이후 조사에 동의한 2,150 패널 가구의 아동(만7세아)과 부모
- 연구의 참여 절차 : 귀하와 귀하의 자녀(패널아동)가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하실 경우 5종류의 조사 및 검사에 참여하시게 됩니다(표 참조). 우선 귀하께서는 컴퓨터를 이용한 면접조사에 참여한 후, 지필조사 2종을 답해주시면 됩니다. 그동안 면접원은 패널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력 검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우편으로 수행한 질문지를 확인한 후 조사는 종료됩니다. 총 예상 소요시간은 1시간 40분 ~ 2시간 10분이며, 우편으로 수행한 질문지를 미리 작성하지 않으신 경우 20분 정도 더 소요될 것입니다. 조사 순서는 아동의 컨디션이나 조사 당시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조사내용
주양육자 대상 면접조사 (25~30분)	취업 및 학업 특성, 사회적지지, 패널 아동의 발달 및 생활 관련, 양육, 사교육, 정책 관련 특성 및 가구 환경
주양육자 대상 지필조사 2종(30~40분)	아동의 행동발달 체크리스트, 건강관련 질문지(알레르기 질환력, 가족력, 실내외 환경, 간접흡연 등)
아동 대상 어휘력 검사(30~40분)	표현, 수용 어휘력 검사
아동 대상 면접조사(15~20분)	신체발달, 행복감, 자아존중감, 또래관계, 학교생활, 장래희망 등

- 참여기간 : 2015. 7. - 12.
- 장소 : 패널 아동의 가정
- 연구참여에 따른 이익 : 아동 행동발달 검사 결과를 제공해 드리며, 이를 통해 아동의 문제행동을 조기 발견할 수 있습니다.
- 연구참여에 따른 보상 : 가구 사레비(30,000원 상품권), 경품용모권이 제공됩니다.
- 연구참여에 따른 위험성 및 불편사항 : 본 연구는 의약품 또는 기타 시술과 관련된 연구가 아닌, 설문지를 통한 것으로 위험성은 없으나, 장시간 참여와 개인정보나 개인 생활에 대한 질문이 있어 다소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패널 아동은 발달검사 수행으로 인해 피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와 비밀보장

본 연구의 참여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패널 아동과 주양육자(응답자) 성명, 어머니와 아버지 전화번호, 주소, 패널 아동의 학교명 및 학급
이 정보는 패널 유지 및 조사 참여 확인, 지출증빙을 위해 활용되며 한국아동패널 연구가 종료되는 2020년을 기준으로 3년 이후인 2023년 이후에 파기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어, 관련 정보는 시건장치 및 암호화된 프로그램이 설치된 육아정책연구소와 조사업체의 저장장치에 보관되며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및 연구진과 전산정보회계팀, 조사업체 데이터 담당 연구원만이 접근 가능합니다.

주양육자(응답자) 생년월일(연령), 어머니와 아버지 학력, 직업정보, 결혼상태 및 결혼일, 장애 유무, 자녀와의 동거여부, 가구 소득 및 지출, 주소(시군구), 패널 아동의 성장발달 정보
이 정보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용되며 암호화됨에 따라 개인식별이 불가능합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제3자에게 공개되어 사용될 수 있으나, 공개되는 데이터에는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연구참여 도중 중도 탈락: 연구참여에 동의한 후에도 원할 경우에 언제든지 중도에 그만둘 수 있으며, 탈락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또한 올해 수집된 자료는 즉시 폐기합니다. 조사 중단을 원할 시에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서명은 귀하와 귀하의 자녀(패널 아동)가 본 연구에 대해,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 본 연구내용을 이해했음을 의미합니다. 본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시면 귀하와 패널 아동과의 관계 및 참여에 동의하는 질문지에 v로 표시하고, 확인란에 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과의 관계	조사일	동의(해당 질문지에 v 표기)	확인
☐ ①어머니 ☐ ②아버지 ☐ ③형제·자매 ☐ ④조부모 ☐ ⑤기타친인척		☐ 주양육자 대상 면접조사 ☐ 주양육자 대상 지필조사(아동 행동발달) ☐ 주양육자 대상 지필조사(건강관련) ☐ 모두 동의하지 않음	성명: (인)
아동 성명	조사일	동의	확인(법정대리인)
		☐ 아동 대상 면접조사 ☐ 아동 대상 수행검사(어휘력 검사) ☐ 모두 동의하지 않음	성명: (인)

2015년 7월 3일
육아정책연구소장 우남희

나. 부모 동의서

「한국아동패널 2015」 참여 동의서(어머니용)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는 장기 중단연구인 「한국아동패널」 연구의 일환으로, 「한국아동패널 2015」 조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 수행에 앞서 귀하께 조사의 목적 및 내용, 효과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 연구의 목적 : 「한국아동패널」 연구는 2008년부터 시작한 장기 중단연구로, 우리나라 아동의 성장과 발달, 그리고 아동이 접하는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생산하고 아동의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한국아동패널 2015」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시기 아동이 경험하는 환경 특성과 아동의 성장·발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 대상 : 2008년 4월부터 7월에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한국아동패널 2008」 병원조사에 참여하고 이후 조사에 동의한 패널 가구 아동의 아버지
- 연구의 참여 절차 : 본 동의서와 함께 동봉된 질문지를 읽고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예상 소요시간: 15분~20분). 질문지는 육아와 관련된 귀하의 가치관 및 인식과 일상생활 및 결혼관계, 패널 아동(만7세아)과 지역사회 특성 등에 관한 내용이며, 질문지를 작성하신 후에는 잘 보관하셨다가 면접원 방문 시 면접원에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 참여기간 : 2015. 7. - 12.
- 장소 : 패널 아동의 가정
- 연구참여에 따른 이익 : 본 질문지와 함께 면접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수행하는 주양육자와 아동 대상 면접조사와 지필조사, 아동 대상 수행 검사를 완료하신 경우 아동 행동 발달 검사 결과를 제공해 드리며, 이를 통해 아동의 문제행동을 조기 발견할 수 있습니다.
- 연구참여에 따른 보상 : 전체 조사 완료 시 가구 사례비(30,000원 상품권), 경품응모권이 제공됩니다.
- 연구참여에 따른 위험성 및 불편사항: 본 연구는 의약품 또는 기타 시술과 관련된 연구가 아닌, 설문지를 통한 것으로 위험성은 없으나, 개인정보나 개인 생활에 대한 질문이 있어 다소 불편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와 비밀보장

본 연구의 참여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 이름 : 이 정보는 패널 유지 및 조사 참여 확인을 위해 활용되며 한국아동패널 연구가 종료되는 2020년을 기준으로 3년 이후인 2023년 이후에 파기 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어, 관련 정보는 시건장치 및 암호화된 프로그램이 설치된 육아정책연구소 와 조사업체의 저장장치에 보관되며 기관생명

윤리위원회 및 연구진, 조사업체 데이터 담당 연구원만이 접근 가능합니다.

- **연구참여 도중 중도 탈락** : 연구참여에 동의한 후에도 원할 경우에 언제든지 중도에 그만둘 수 있으며, 탈락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또한 올해 수집된 자료는 즉시 폐기합니다. 조사 중단을 원할 시에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서명은 귀하가 본 연구에 대해,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 본 연구내용을 이해했음을 의미합니다. 본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시면 해당 항목에 ○로 표시하고, 확인란에 서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확인
		성명: _____ (인)

2015년 7월 3일

육아정책연구소장 우남희

「한국아동패널 2015」 참여 동의서(아버지용)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는 장기 중단연구인 「한국아동패널」 연구의 일환으로, 「한국아동패널 2015」 조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 수행에 앞서 귀하께 조사의 목적 및 내용, 효과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 연구의 목적 : 「한국아동패널」 연구는 2008년부터 시작한 장기 중단연구로, 우리나라 아동의 성장과 발달, 그리고 아동이 접하는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생산하고 아동의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한국아동패널 2015」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시기 아동이 경험하는 환경 특성과 아동의 성장·발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 대 상 : 2008년 4월부터 7월에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한국아동패널 2008」 병원조사에 참여하고 이후 조사에 동의한 패널 가구 아동의 아버지
- 연구의 참여 절차 : 본 동의서와 함께 동봉된 질문지를 읽고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예상 소요시간: 15분~20분). 질문지는 육아와 관련된 귀하의 가치관 및 인식과 일상생활 및 결혼관계 등에 관한 내용이며, 질문지를 작성하신 후에는 잘 보관하셨다가 면접원 방문 시 면접원에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 참 여 기 간 : 2015. 7. - 12.
- 장 소 : 패널 아동의 가정
- 연구참여에 따른 이익 : 본 질문지와 함께 면접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수행하는 주양육자와 아동 대상 면접조사와 지필조사, 아동 대상 수행 검사를 완료하신 경우 아동 행동 발달 검사 결과를 제공해 드리며, 이를 통해 아동의 문제행동을 조기 발견할 수 있습니다.
- 연구참여에 따른 보상 : 전체 조사 완료 시 가구 사례비(30,000원 상품권), 경품응모권이 제공됩니다.
- 연구참여에 따른 위험성 및 불편사항: 본 연구는 의약품 또는 기타 시술과 관련된 연구가 아닌, 설문지를 통한 것으로 위험성은 없으나, 개인정보나 개인 생활에 대한 질문이 있어 다소 불편함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와 비밀보장
본 연구의 참여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 이름, 직업정보(직업분류) : 이 정보는 패널 유지 및 조사 참여 확인, 데이터 재입력(직업분류)을 위해 활용되며 한국아동패널 연구가 종료되는 2020년을 기준으로 3년 이후인 2023년 이후에 파기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며, 관련 정보는 시건장치 및 암호화된 프로그램이 설치된 육아정책연구소와 조사업체의 저장장치에 보관되며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및 연구진, 조사업체 테

이터 담당 연구원만이 접근 가능합니다.

- **연구참여 도중 중도 탈락** : 연구참여에 동의한 후에도 원할 경우에 언제든지 중도에 그만둘 수 있으며, 탈락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또한 올해 수집된 자료는 즉시 폐기합니다. 조사 중단을 원할 시에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서명은 귀하가 본 연구에 대해,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 본 연구내용을 이해했음을 의미합니다. 본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시면 해당 항목에 ○로 표시하고, 확인란에 서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확인
		성명: _____(인)

2015년 7월 3일

육아정책연구소장 우남희

다. 교사대상조사 동의서

「한국아동패널 2015」 참여 동의서(교사용)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는 장기 중단연구인 「한국아동패널」 연구의 일환으로 「한국아동패널 2015」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 수행에 앞서 귀하께 조사의 목적 및 내용, 효과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 **연구의 목적** : 「한국아동패널」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의 성장·발달 특성, 아동을 둘러싼 부모, 가족, 학교, 지역사회 및 육아정책의 영향에 관한 중단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패널 아동을 장기적으로 추적 조사하는 연구로, 올해 8년차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8차년도 연구인 「한국아동패널 2015」는 본 조사를 통해 아동의 영유아기 성장·발달 특성이 학령기에 진입하여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 아동의 학교 환경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 **대 상** : 한국아동패널 연구에 참여 중인 000의 담임교사(보호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함) 2,150명
- **연구의 참여 절차** : 패널 아동 보호자의 동의를 받았으며, 선생님께서 본 동의서를 숙지하시고 참여에 동의하실 경우 온라인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사내용은 패널 아동의 학교생활과 부모님의 학교 참여 정도, 선생님의 교사생활 및 학교 정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사 시간은 약 30분가량 소요될 예정입니다.
- **참 여 기 간** : 2015년 7월~12월
- **장 소** : 온라인 웹설문조사 응답에 방해가 되지 않는 조용한 장소
- **연구참여에 따른 보상** : 소정의 사례(기프티콘 1만원)
- **연구참여에 따른 위험성 및 불편사항** : 본 연구는 의약품 또는 기타 시술과 관련된 연구가 아닌, 설문지를 통한 것으로 특별한 예측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개인정보와 비밀보장** : 본 연구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핸드폰번호

이 정보는 패널 유지 및 조사 참여 확인, 지출 증빙을 위해 활용되며 한국아동패널 연구가 종료되는 2020년을 기준으로 3년 이후인 2023년 이후에 파기 예정입니다.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며, 관련 정보는 시건장치 및 암호화된 프로그램이 설치된 육아정책연구소와 조사업체의 저장장치에 보관되며 육

아정책연구소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및 연구진과 전산정보회계팀, 조사업체 데이터 담당 연구원만이 접근 가능합니다.

성별, 연령, 교사 경력, 교사 자격, 최종 학력, 전공

이 정보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용되며 암호화됨에 따라 개인식별이 불가능합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제3자에게 공개되어 사용될 수 있으나, 공개되는 데이터에는 개인 식별정보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연구참여 도중 중도 탈락:** 연구참여에 동의한 후에도 언제든지 중도에 그만둘 수 있으며, 탈락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중도 탈락 시, 수집한 자료는 즉시 폐기합니다. 조사 중단을 원할 시에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서명은 귀하가 본 연구에 대해,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 본 연구내용을 이해했음을 의미합니다. 본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시면 해당 항목에 ○로 표시하고, 확인란에 서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확인
		성명: (인)

2015년 7월 3일
육아정책연구소장 우남희

연구보고 2015-33

한국아동패널 2015

발행일 2015년 12월
발행인 우남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층, 4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730-3313
<http://www.kicce.re.kr>
인쇄처 현대아트컴 02-2278-4482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85941-62-2 93330